

2012 인천문화지표 조사연구



제출문

(재)인천문화재단 귀하

본 연구물을 「2012 인천문화지표 조사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년 12월

인천발전연구원장 김 민 배

문화지표조사는 문화예술통계의 한 분야로 문화 환경과 문화 활동 현황, 시민들의 문화향수실태와 문화수요를 조사하여 계량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이러한 지표조사는 문화정책의 효과성과 적절성을 측정하는 기준인 동시에 새로운 정책수립의 근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최근 지표의 조사 연구는 물론 지속적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작성된 문화예술 통계의 상당수는 정책 수요나 생산과는 별개로 산발적으로 설계되거나 조사방법상의 문제, 통계학적인 신뢰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생산된 통계자료가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거나, 정책 기획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편 문화예술 통계의 대부분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며, 지역단위의 문화예술통계는 전무한 실정이다. 신뢰할만한 지역문화예술통계 없이 수립된 지역문화정책의 타당성은 보장받기 어려우며, 지역문화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도 어렵게 된다.

2012년도의 문화지표조사연구 사업은 세 가지 과업으로 추진되었는데, 1)기존의 문화지표조사를 수정 보완한 <2012 문화지표 조사연구> 2)공적 영역의 문화예술 기관과 각종 기반 시설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새로운 지표인 <문화공공성 지표 개발> 3) 인천 예술인 활동현황과 실태를 조사한 <2012 인천문화예술인실태조사>가 그것이다.

<2012 인천문화지표 조사연구>는 지난 2004년 <인천광역시 문화지표작성 및 조사분석> 연구를 통해 인천문화지표를 설계한 이래 4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 <인천문화지표 조사연구>는 인문사회 영역과 같은 기초적 지역 현황 분석부터 문화자원, 문화 활동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 현실을 광범위하게 진단하기 위한 조사이다. 이와 함께 수행된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는 인천시민의 문화향수 실태와 문화의식, 주거 환경 등을 살피기 위한 조사이며 그 결과를 다양하게 분석하였다. 이 조사 연구는 지역 문화현실과 향후 발전 방안을 위해 설계된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문화지표이면서,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문화공공성 지표 개발>은 문화예술기관과 시설운영에서의 효과성과 공공성을 평가하

기 위한 지표 개발 연구이다. 문화공공성이란 문화의 공공영역 확장 및 공공의 기능 강화와 문화향유의 형평성을 의미한다. 문화공공성의 대표적 지표로 ‘조직운영 개방성과 안정성’, ‘문화 향유 평등성’, ‘지역 형평성’, ‘프로그램 다양성’, ‘시설 접근성’을 제시하였다. 문화공공성지표는 지역사회 또는 공동체의 문화공공성 수준을 가늠하는 계량적 기준이면서 도시의 문화수준과 문화발전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개발된 지표를 적용한 인천문화공공성지표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2012 인천예술인실태조사〉는 인천지역에서 거주, 활동하는 지역 예술인 현황과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실태조사 보고서이다. 설문내용에는 인천예술인의 기초적 활동 상황을 바탕으로 인천지역에서의 예술 활동 장애 요인, 활동에 필요한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04년에 시작하여 4년 주기로 작성되고 있는 〈인천문화지표 조사연구〉는 지역문화예술의 현황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지역문화예술통계의 첫 시도라는 의의가 있다. 지역 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통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기존의 문화예술통계가 지닌 한계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지표체계에 대한 연구, 지표자료의 일상적인 수집을 위한 기구 설립과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향후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연구와 정책토론 등을 추진한다면 조사결과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표체계와 조사방법의 개선도 가능할 것이다.

향후 지표체계 및 조사방법에 대한 수정·보완과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인천문화지표 조사연구〉가 합리적인 문화정책 수립은 물론 인천시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2년 12월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강 광

제 1권 2012 인천문화지표 조사연구

제1장 서론

| | |
|-------------------------|----|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3 |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절차 | 24 |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기대효과 | 26 |

제2장 인천문화지표 체계

| | |
|--------------------------------|----|
| 제1절 2004년 인천문화지표 체계 및 특징 | 29 |
| 제2절 2008년 인천문화지표 체계 및 특징 | 32 |
| 제3절 2012년 인천문화지표 체계 및 특징 | 34 |

제3장 2012 인천문화지표(문화환경지표) 조사결과

| | |
|-------------------------------|-----|
| 제1절 인문사회환경 | 39 |
| 1. 생활환경 | 40 |
| 2. 교육환경 | 53 |
| 3. 행정환경 | 55 |
| 4. 경제환경 | 60 |
| 제2절 문화환경 | 66 |
| 1. 문화시설 | 67 |
| 2. 문화행정 | 88 |
| 3. 문화예술지원 | 93 |
| 4. 문화예술교육 | 96 |
| 제3절 문화자원 | 98 |
| 1. 문화예술인력 | 98 |
| 2. 지역축제 | 104 |
| 3. 문화유산 | 105 |
| 제4절 문화활동 | 108 |
| 1. 문화예술활동 | 108 |
| 2. 문화산업활동 | 113 |
| 제5절 2012 인천문화지표 조사 종합분석 | 117 |

제 4장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

| | |
|------------------------------|-----|
| 제1절 2012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 체계 | 121 |
|------------------------------|-----|

| | | |
|-----|-----------------------------------|-----|
| 제2절 | 조사 개요 | 124 |
| | 1. 조사 목적 | 124 |
| | 2. 조사 설계 | 125 |
| | 3. 응답자 특성 | 125 |
| 제3절 | 2004년 · 2008년 · 2012년 조사결과 시계열 분석 | 127 |
| | 1. 여가시간 | 127 |
| | 2. 여가활동 유형 | 128 |
| | 3. 향후 희망 여가활동 유형 | 129 |
| | 4. 문화예술행사 정보탐색 경로 | 130 |
| | 5. 주로 이용하는 문화시설 | 131 |
| | 6. 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 132 |
| | 7. 문화시설 이용 시 고려요소 | 132 |
| | 8. 지역축제 참여율 | 133 |
| | 9. 지역축제 만족도 | 134 |
| | 10. 문화연상 이미지 | 135 |
| | 11. 문화의 중요성 | 136 |
| | 12. 문화가 중요한 이유 | 136 |
| | 13. 인천의 특성 | 137 |
| 제4절 |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 비교분석 | 139 |
| | 1. 문화예술행사 | 139 |
| | 2. 문화예술 시설 | 141 |
| | 3. 지역축제 | 142 |
| | 4.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 144 |
| | 5. 문화예술교육 | 145 |
| | 6. 창작 · 발표 활동 및 참여 | 148 |
| 제5절 | 2012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 종합분석 | 151 |

제 5장 정책적 시사점

| | |
|-----------------------|-----|
| 1. 문화행정 기반 확충 | 157 |
| 2.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활용도 제고 | 158 |
| 3.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 | 166 |
| 4. 생활문화예술진흥 및 공동체 활성화 | 168 |
| 5.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정책방향 확대 | 170 |
| 6. 후속 과제 | 170 |

| | |
|----------------------------|-----|
| 제 6장 문화공공성 지표 개발 | |
| 제1절 문화공공성 논의와 논점 | 175 |
| 제2절 관련 개념 검토 | 183 |
| 제3절 문화공공성과 지표 | 185 |
| 제4절 인천 문화공공성지표 | 188 |
| 제 5절 인천문화공공성 지표 적용 결과 및 제언 | 193 |

제 2권 2012 인천예술인실태조사

| | |
|-------------------|-----|
| 제 1장 서론 | |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99 |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기대효과 | 200 |

| | |
|------------------------------|-----|
| 제 2장 2012 인천예술인실태조사 일반현황 분석 | |
| 제1절 예술인 일반현황 | 203 |
| 1. 분야별 예술인 비율 | 203 |
| 2. 전문예술법인 수 | 204 |
| 3.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비율 | 205 |
| 제2절 문화예술 지원 현황 | 206 |
| 1. 6대 광역시 문화예술지원 현황 | 206 |
| 2. 인천시 군·구별 예술인 및 예술단체 지원 현황 | 207 |
| 3. 문화재단 지원사업 현황 | 209 |

| | |
|------------------------|-----|
| 제 3장 2012 인천예술인실태조사 결과 | |
| 제 1절 조사 개요 | 217 |
| 1. 조사 목적 | 217 |
| 2. 조사 방법 | 217 |
| 3. 응답자 특성 | 220 |
| 제 2절 주요 조사결과 요약 | 222 |
| 1. 공통설문 | 222 |
| 2. 분야별 설문 | 230 |
| 제3절 2012 인천예술인실태조사 결과 | 234 |
| 1. 공통설문 | 234 |
| 2. 분야별 설문 | 283 |

제 4장 정책적 시사점

| | |
|--------------------------------|-----|
| 1. 예술인 활동 토대 확충 | 315 |
| 2. 예술인의 생활안정화 방안 | 316 |
| 3.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 317 |
| 4. 분야별 현황과 지원 요구 | 321 |
| | |
| 부록 1. 2012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 결과..... | 323 |
| 부록 2. 인천시 문화시설 분포지도 | 401 |
| 부록 3. 2012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 설문지..... | 413 |
| 부록 4. 2012 인천예술인실태조사 설문지..... | 431 |

표차례

| | |
|---|----|
| [표 Ⅱ-1-1] 2004년 인천문화지표 체계 | 30 |
| [표 Ⅱ-2-1] 2008년 인천문화지표 체계 | 33 |
| [표 Ⅱ-3-1] 2012년 인천문화지표 체계 | 36 |
| [표 Ⅲ-1-1] 인문사회 환경 지표항목 | 39 |
| [표 Ⅲ-1-2] 인구밀도 | 40 |
| [표 Ⅲ-1-3] 군·구별 인구밀도 | 42 |
| [표 Ⅲ-1-4] 도로밀도 | 43 |
| [표 Ⅲ-1-5] 주택보급률·자가 점유율 | 44 |
| [표 Ⅲ-1-6]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 45 |
| [표 Ⅲ-1-7] 인구 천 명당 의료인력 | 46 |
| [표 Ⅲ-1-8] 녹지지역 비율 | 48 |
| [표 Ⅲ-1-9] 군·구별 녹지지역 비율 | 49 |
| [표 Ⅲ-1-10] 도시공원 수 | 50 |
| [표 Ⅲ-1-11] 도시공원 면적 | 50 |
| [표 Ⅲ-1-12] 대기오염도 | 51 |
| [표 Ⅲ-1-13] 경찰서 및 지구대 1개소 당 인구 | 52 |
| [표 Ⅲ-1-14]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 | 53 |
| [표 Ⅲ-1-15] 교사 1인당 학생 수 | 54 |
| [표 Ⅲ-1-16] 학급 1개당 학생 수 | 54 |
| [표 Ⅲ-1-17] 인구 1인당 예산액 | 55 |
| [표 Ⅲ-1-18] 군·구별 인구 1인당 예산액 | 56 |
| [표 Ⅲ-1-19] 공무원 1인당 인구수 | 57 |
| [표 Ⅲ-1-20] 재정자립도 | 58 |
| [표 Ⅲ-1-21] 군·구별 재정자립도 | 58 |
| [표 Ⅲ-1-22] 인구 1인당 지방세 부담액 | 59 |
| [표 Ⅲ-1-23] 군·구별 인구 1인당 지방세 부담액 | 60 |
| [표 Ⅲ-1-24] 인구증가율 | 61 |
| [표 Ⅲ-1-25] 주간인구지수 | 62 |
| [표 Ⅲ-1-26] 군·구별 주간인구지수 | 62 |
| [표 Ⅲ-1-27] 경제활동인구 비율 | 63 |
| [표 Ⅲ-1-28] 취업률 | 64 |
| [표 Ⅲ-1-29] 경제활동인구 대비 총 생산액 | 65 |
| [표 Ⅲ-2-1] 문화환경 지표항목 | 66 |
| [표 Ⅲ-2-2] 문화시설의 종류 | 67 |
| [표 Ⅲ-2-3] 주요시설 현황 | 69 |
| [표 Ⅲ-2-4] 군·구별 주요시설 현황 | 70 |
| [표 Ⅲ-2-5] 공연장 1개소 당 인구수 | 71 |
| [표 Ⅲ-2-6] 군·구별 공연장 1개소 당 인구수 | 71 |
| [표 Ⅲ-2-7] 운영주체별 공연장 비율 | 73 |
| [표 Ⅲ-2-8] 규모별 공연장 비율 | 74 |
| [표 Ⅲ-2-9] 전시시설 1개소 당 인구 | 75 |
| [표 Ⅲ-2-10] 유형별 전시시설 수 | 76 |
| [표 Ⅲ-2-11] 군·구별 전시시설 수 및 면적 | 76 |
| [표 Ⅲ-2-12] 인구 1인당 소장품 수 | 77 |
| [표 Ⅲ-2-13] 학예직원 1명당 인구수 | 78 |
| [표 Ⅲ-2-14] 공공도서관 1관 당 인구수 | 79 |
| [표 Ⅲ-2-15] 군·구별 공공도서관 1관 당 인구수 | 79 |
| [표 Ⅲ-2-16] 인구 1,000명당 공공도서관 좌석 수 | 80 |
| [표 Ⅲ-2-17] 군·구별 인구 1,000명당 공공도서관 좌석 수 | 81 |
| [표 Ⅲ-2-18] 인구 1,000명당 공공도서관 장서 수 | 81 |
| [표 Ⅲ-2-19] 군·구별 지역문화복지시설 현황 | 82 |
| [표 Ⅲ-2-20] 군·구별 문화 보급·전수시설 현황 | 82 |
| [표 Ⅲ-2-21] 유형별 시설 증가율 | 83 |
| [표 Ⅲ-2-22] 군·구별 문화시설분포 | 85 |
| [표 Ⅲ-2-23] 문예회관 공연장 가동률 | 86 |

| | |
|---|-----|
| [표 III-2-24] 운영주체별 시설 대비 활용률(인천) | 87 |
| [표 III-2-25] 시설유형별 1개소 당 연평균 이용자 수 | 88 |
| [표 III-2-26] 문화행정인력 비율 | 88 |
| [표 III-2-27] 문화담당 조직 및 인력 수 | 89 |
| [표 III-2-28] 문화예술예산규모 비율 | 90 |
| [표 III-2-29] 군·구별 문화예술예산 비율 | 91 |
| [표 III-2-30] 부문별 문화예술예산 비율 | 92 |
| [표 III-2-31] 지원기관별 문화예술지원 규모 | 93 |
| [표 III-2-32] 지원분야별 문화예술지원 규모 | 94 |
| [표 III-2-33] 지원장르별 문화예술지원 규모 | 95 |
| [표 III-2-35] 문화예술 내용별 강좌(공공기관) | 97 |
| [표 III-3-1] 문화자원 영역 지표항목 | 98 |
| [표 III-3-2] 장르별 문화예술인 비율 | 99 |
| [표 III-3-3] 장르별 문화예술 단체 비율 | 101 |
| [표 III-3-4] 전문예술법인 수 | 101 |
| [표 III-3-5] 무형문화재 1인당 전수·이수자 수 | 102 |
| [표 III-3-6] 문화예술 관련 학과 수 및 교수 수 | 103 |
| [표 III-3-7] 분야별 시민문화예술동호회 비율 | 103 |
| [표 III-3-8] 축제특성별 지역문화축제 | 104 |
| [표 III-3-9] 군·구별 문화축제 현황 | 105 |
| [표 III-3-10] 문화유산 수 | 106 |
| [표 III-3-11] 문화유산 관련 공연 비율 | 107 |
| [표 III-3-12] 문화유산 관련 예산 비율 | 107 |
| [표 III-4-1] 문화활동 영역 지표항목 | 108 |
| [표 III-4-2] 분야별 문화예술 창작 및 발표활동 비율 | 109 |
| [표 III-4-3] 문학·학술 분야 창작 및 발표활동 현황 | 110 |
| [표 III-4-4] 시각예술 창작 및 발표활동 현황 | 110 |
| [표 III-4-5] 공연예술 창작 및 발표활동 현황 | 111 |
| [표 III-4-6] 전통예술 창작 및 발표활동 현황 | 111 |
| [표 III-4-7] 분야별 문화예술교육활동 비율 | 112 |
| [표 III-4-8] 공공단체 활동 비율 | 113 |
| [표 III-4-9] 분야별 업체 비율1 | 114 |
| [표 III-4-10] 분야별 업체 비율2 | 114 |
| [표 III-4-11] 분야별 종사자 비율 | 115 |
| [표 III-4-12] 분야별 매출액 1 | 116 |
| [표 III-4-13] 분야별 매출액 2 | 116 |
| [표 IV-1-1] 2012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 체계 | 122 |
| [표 IV-2-1] 조사 설계 | 125 |
| [표 IV-2-2] 일반인 응답자 특성 | 126 |
| [표 IV-3-1] 여가활동 유형(평일 상위 7순위) | 128 |
| [표 IV-3-2] 여가활동 유형(주말 상위 7순위) | 129 |
| [표 IV-3-3] 향후 희망 여가활동 유형(상위 7순위) | 130 |
| [표 IV-3-4] 주로 이용하는 인천지역 문화시설(상위 10순위) | 131 |
| [표 IV-3-5] 문화시설 이용 시 고려요소(상위 5순위) | 133 |
| [표 IV-3-6] 지역축제 만족도 | 135 |
| [표 IV-3-7] 문화연상 이미지(상위 7순위) | 135 |
| [표 IV-3-8] 문화의 중요성 | 136 |
| [표 IV-4-1] 장르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 139 |
| [표 IV-4-2] 문화예술행사 만족도 | 141 |
| [표 IV-4-3] 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 142 |
| [표 IV-4-4] 지역축제 만족도 | 143 |
| [표 IV-4-5]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만족도 | 145 |
| [표 IV-4-6] 문화예술교육 기관(매체) | 146 |
| [표 IV-4-7] 최근 1년간 분야별 문화예술교육 경험 | 146 |
| [표 IV-4-8] 문화예술교육 희망분야(1년 이내) | 147 |
| [표 IV-4-9] 문화예술교육 만족도 | 148 |

| | |
|---|-----|
| [표 IV-4-10] 창작·발표 경험 분야 | 149 |
| [표 IV-4-11] 분야별 동호회 활동 | 150 |
| [표 V-1] 기반시설 건립 목표와 현재 인천 문화기반 시설 비교 | 158 |
| [표 V-2] 공연장 1개소 당 인구수(군·구별 비교) | 160 |
| [표 V-3] 학예직원 및 소장품 현황 | 161 |
| [표 V-4] 미술관 수 및 시설 운영 현황 | 161 |
| [표 V-5] 주요 국가별 공공도서관 이용 실태 | 163 |
| [표 V-6] 시설유형별 1개소 당 연평균 이용자 수 | 164 |
| [표 V-7] 예술인 대비 지원비율 및 활동 수 | 167 |
| [표 VI-4-1] 인천 문화공공성지표 | 190 |
| [표 VI-4-2] 문화공공성 지표 조사 대상 | 191 |
| [표 II-1-1] 분야별 문화예술인 비율 | 204 |
| [표 II-1-2] 전문예술법인 수 | 205 |
| [표 II-1-3] 무형문화재 보유자 비율 | 205 |
| [표 II-2-1] 문화예술 지원현황(광역시 비교) | 206 |
| [표 II-2-2] 군·구별 예술인 및 예술단체 지원현황 | 208 |
| [표 II-2-3] 지원분야별 문화예술 지원현황 | 208 |
| [표 II-2-4] 인천·서울·경기문화재단 비전과 목표 | 209 |
| [표 II-2-5] 문화재단별 지원사업 일반 현황(인천, 서울, 경기) | 213 |
| [표 III-1-1] 조사 방법 | 218 |
| [표 III-1-2] 인천예술인실태조사 내용 | 218 |
| [표 III-1-3] 응답자 특성 | 221 |
| [표 III-3-1] 주요 예술 활동 형태 | 235 |
| [표 III-3-2] 예술교육 활동 종류 | 236 |
| [표 III-3-3] 주요 예술 활동 방식 | 237 |
| [표 III-3-4] 현재 활동 부문에서의 예술활동 종사 기간 | 239 |
| [표 III-3-5] 인천지역에서의 예술활동 종사 기간 | 240 |
| [표 III-3-6] 주요 예술활동 지역 | 241 |
| [표 III-3-7] 인천지역에서 예술활동 하는 이유 | 242 |
| [표 III-3-8] 가장 발전한 인천의 예술분야 | 243 |
| [표 III-3-9] 예술활동 창작 및 홍보 활용 매체 | 245 |
| [표 III-3-10] 지난 1년간 문화예술 분야 관련 자원봉사·재능기부 경험 | 246 |
| [표 III-3-11] 지난 1년간 문화예술 분야 관련 자원봉사·재능기부 대상 | 246 |
| [표 III-3-12] 지난 1년간 문화예술 분야 관련 자원봉사·재능기부 형태 | 248 |
| [표 III-3-13] 향후 1년 이내 문화예술 분야 관련 자원봉사·재능기부 의향 | 249 |
| [표 III-3-14] 예술 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공간 | 250 |
| [표 III-3-15] 창작 공간의 형태 | 251 |
| [표 III-3-16] 인천 내 발표 공간 이용에 대한 애로사항 | 253 |
| [표 III-3-17] 예술 활동 관련 단체 가입 이유 | 254 |
| [표 III-3-18] 최근 3년간 발표 및 창작활동을 위한 문화예술 교류 여부 및 횟수 | 255 |
| [표 III-3-19] 최근 3년간 문화예술 교류 유형별 평균 횟수 | 255 |
| [표 III-3-20] 최근 3년간 문화예술 교류 지역별 평균 횟수 | 256 |
| [표 III-3-21] 최근 3년간 문화예술 교류 방법별 평균 횟수 | 257 |
| [표 III-3-22] 지원기관별 문화예술 지원 여부 | 258 |
| [표 III-3-23] 지원 분야 | 258 |
| [표 III-3-24] 지원받은 사업 유형 | 259 |
| [표 III-3-25] 인천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지원사업 속성별 평가 | 260 |
| [표 III-3-26]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 지원사업 평가 | 261 |
| [표 III-3-27] 바람직한 예술인 지원 방식 | 262 |
| [표 III-3-28] 인천문화재단 예술지원 사업의 개선점 | 263 |
| [표 III-3-29] 사업 및 정책에 예술인 의견 반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 | 264 |
| [표 III-3-30] 인천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문화예술인이 노력할 점 | 265 |
| [표 III-3-31]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해 인천시의 노력 | 266 |
| [표 III-3-32]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인천문화재단의 역할 | 267 |
| [표 III-3-33] 문화예술관련 교육 도움 정도 | 268 |
| [표 III-3-34] 문화예술 분야와 최종 전공의 일치 정도 | 269 |

| | |
|---|-----|
| [표 III-3-36] 예술인을 위한 행정 및 실무 관련 교육 개설 희망 프로그램 | 271 |
| [표 III-3-37] 직업 현황 | 272 |
| [표 III-3-38] 문화예술 활동 이외의 종사 직업 취업 상태 | 273 |
| [표 III-3-39] 직업과 현재 활동하는 문화예술 분야와의 연관성 | 274 |
| [표 III-3-40] 예술인들의 노후대비를 위한 지원 형태 | 275 |
| [표 III-3-41] 건강보험(의료보험) 가입 형식 | 276 |
| [표 III-3-42] 국민연금 가입 형식 | 277 |
| [표 III-3-43] 산재보험 가입 여부 | 278 |
| [표 III-3-44] 국민연금 가입 형식 | 278 |
| [표 III-3-45] 연간 예술 창작 활동 수입액 | 280 |
| [표 III-3-46] 연간 예술 관련 활동 수입액 | 281 |
| [표 III-3-47] 문화예술 활동 수입(09 문화예술인실태조사와 비교) | 281 |
| [표 III-3-48] 연간 예술 창작 활동 지출액 | 282 |
| [표 III-3-49] 문학 응답자 특성 | 284 |
| [표 III-3-50] 주로 활동하는 문학 분야 | 285 |
| [표 III-3-51] 문학부문 활동 시작 시기 | 285 |
| [표 III-3-52] 해당 문학부문에서의 첫 활동 방식 | 286 |
| [표 III-3-53] 문학잡지 게재 활동 내용 | 287 |
| [표 III-3-54] 작품집(단행본)발간 권수 | 287 |
| [표 III-3-55] 문학행사 기획 및 운영 횟수 | 288 |
| [표 III-3-56] 문학 분야 창작 및 발표 활동의 애로사항 | 289 |
| [표 III-3-57] 인천 문학 분야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사업) | 290 |
| [표 III-3-58] 시각예술 응답자 특성 | 292 |
| [표 III-3-59] 주로 활동하는 시각예술 부문 | 293 |
| [표 III-3-60] 개인 전시 발표 활동 횟수 | 294 |
| [표 III-3-61] 평론·논문 발표 편수 | 294 |
| [표 III-3-62] 전시/행사 기획 및 운영 횟수 | 295 |
| [표 III-3-63] 시각예술 분야 창작 및 발표 활동의 애로사항 | 296 |
| [표 III-3-64] 인천 시각예술 분야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사업) | 298 |
| [표 III-3-65] 공연예술 응답자 특성 | 300 |
| [표 III-3-66] 주로 활동하는 공연예술 부문 | 301 |
| [표 III-3-67] 공연예술 분야 활동 수 | 302 |
| [표 III-3-68] 평론·논문 발표 횟수 | 302 |
| [표 III-3-69] 공연 기획 및 운영 횟수 | 303 |
| [표 III-3-70] 공연예술 분야 창작 및 발표 활동의 애로사항 | 304 |
| [표 III-3-71] 인천 공연예술 분야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사업) | 305 |
| [표 III-3-72] 전통예술 응답자 특성 | 307 |
| [표 III-3-73] 주로 활동하는 전통예술 부문 | 308 |
| [표 III-3-74] 전시 및 발표(공연) 횟수 | 309 |
| [표 III-3-75] 전통예술 행사 기획 및 운영 횟수 | 309 |
| [표 III-3-76] 전통예술 분야 창작 및 발표 활동의 애로사항 | 310 |
| [표 III-3-77] 인천 전통예술 분야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사업) | 311 |
| [표 IV-1-1] 인구 대비 문화예술인 비율 | 315 |
| [표 1] 조사 설계 | 326 |
| [표 2] 일반인 응답자 특성 | 327 |
| [표 3] 하루 평균 여가시간(평일/주말) | 329 |
| [표 4] 평일 여가시간 활용방법 | 330 |
| [표 5] 주말 여가시간 활용방법 | 332 |
| [표 6] 향후 하고 싶은 여가활동(평일) | 333 |
| [표 7] 향후 하고 싶은 여가활동(주말) | 334 |
| [표 8] 평소 관람하는 문화예술행사 | 336 |
| [표 9] 문화예술행사 관람 이유 | 337 |
| [표 10] 문화예술 관람지역 | 339 |
| [표 11] 인천 지역 문화예술행사 관람 만족도 | 340 |
| [표 12] 인천 외 지역 문화예술행사 관람 이유 | 341 |
| [표 13] 문화예술행사 관람의 중요 고려 요인 | 342 |

| | |
|---|-----|
| [표 14] 문화예술행사 소식(정보) 취득 경로 | 344 |
| [표 15] [음악,무용]활동 지출 비용 | 345 |
| [표 16] [전시, 공연]활동 지출 비용 | 346 |
| [표 17] [도서, 영화]활동 지출 비용 | 347 |
| [표 18] 향후 관람 희망 문화예술행사 분야 | 348 |
| [표 19]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이용한 인천지역 문화시설 | 351 |
| [표 20] 인천 지역 문화시설 만족도 | 352 |
| [표 21] 인천지역 문화시설 이용 이유 | 353 |
| [표 22] 인천지역 문화시설 이용 시 중요 고려 요인 | 355 |
| [표 23] 인천 지역축제 참가 경험 여부 | 356 |
| [표 24] 인천지역 축제 참가 경험 횟수 | 357 |
| [표 25] 가장 기억에 남는 인천지역 축제 | 358 |
| [표 26] 인천 지역축제 참가 이유 | 359 |
| [표 27] 인천 지역축제 만족도 | 360 |
| [표 28] 인천 지역축제 참가 시 중요 고려 요인 | 362 |
| [표 29] 지난 1년간 인천지역의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경험 | 363 |
| [표 30] 지난 1년간 방문 경험이 있는 역사문화유적지 [강화지역] | 364 |
| [표 31] 지난 1년간 방문 경험이 있는 역사문화유적지 [강화 외 지역] | 365 |
| [표 32] 인천 지역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이유(방문지 별) | 366 |
| [표 33] 인천 지역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이유(응답자 특성별) | 367 |
| [표 34] 인천지역의 역사문화유적지 만족도 | 368 |
| [표 35]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시 중요 고려요인 | 369 |
| [표 36] 지난 1년간 문화예술 교육 받은 경험이 있는 기관·매체 | 370 |
| [표 37] 문화예술 교육을 받은 이유 | 371 |
| [표 38] 분야별 문화예술 교육 경험 | 373 |
| [표 39] 기관별 문화예술 교육 경험 | 374 |
| [표 40] 교육 받은 문화예술교육 만족도(응답자 특성별) | 375 |
| [표 41] 교육 받은 문화예술교육 만족도(기관·매체별) | 375 |
| [표 42] 문화예술교육에서 우선시 되어야 할 점 | 376 |
| [표 43] 향후 1년 이내 희망 문화예술 교육 | 377 |
| [표 44] 지난 1년간 창작, 발표 경험 매체 | 379 |
| [표 45] 지난 1년간 창작, 발표 경험 분야 | 380 |
| [표 46] 향후 문화예술 창작, 발표 활동 계획 | 381 |
| [표 47] 지난 1년간 활동 경험이 있는 문화예술 동호회 | 382 |
| [표 48]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계기 | 383 |
| [표 49] 활동 경험 동호회의 운영 형태 | 384 |
| [표 50]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하지 않는 이유 | 386 |
| [표 51] 문화예술 관련 분야 활동 참여의향 | 387 |
| [표 52] 희망 문화예술 관련 활동 | 388 |
| [표 53] 문화예술 관련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것 | 389 |
| [표 54] 인천의 주거 및 생활환경 종합 만족도 | 391 |
| [표 55] 문화 최초 상기 의미 | 394 |
| [표 56] 문화 중요도 | 395 |
| [표 57] 문화가 중요한 이유 | 396 |
| [표 58] 문화도시의 의미 | 397 |
| [표 59] 인천 문화 항목별 동의 정도 평가 | 398 |
| [표 60]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 필요한 사업 | 399 |

그림차례

| | |
|--|-----|
| [그림 Ⅰ-1-1] 2012년 인천문화지표 조사연구 흐름도 | 25 |
| [그림 Ⅲ-1-1] 군·구별 인구밀도 | 41 |
| [그림 Ⅲ-1-2] 군·구별 자가 점유율 | 44 |
| [그림 Ⅲ-1-3] 군·구별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수 | 46 |
| [그림 Ⅲ-1-4] 군·구별 인구 천 명당 의료인력 | 47 |
| [그림 Ⅲ-1-5] 녹지지역 비율 증감 | 48 |
| [그림 Ⅲ-2-1] 운영주체별 공연장 비율 | 72 |
| [그림 Ⅲ-2-2] 규모별 공연장 비율 | 74 |
| [그림 Ⅲ-2-3] 군·구별 유형별 전시시설 수 | 77 |
| [그림 Ⅲ-2-4] 유형별 시설 증가율 | 83 |
| [그림 Ⅲ-2-5] 군·구별 문화시설분포 | 84 |
| [그림 Ⅲ-2-6] 문예회관 공연장 가동률 증감(2008년 대비) | 86 |
| [그림 Ⅲ-2-7] 문화예술예산 비율 | 90 |
| [그림 Ⅲ-2-8] 군·구별 문화예술예산 비율(군·구별 비교) | 91 |
| [그림 Ⅲ-2-9] 부문별 문화예술예산 비율 | 92 |
| [그림 Ⅲ-2-10] 지원분야별 건당 평균 지원액 | 94 |
| [그림 Ⅲ-2-11] 지원장르별 건당 평균 지원액 | 95 |
| [그림 Ⅲ-3-1] 장르별 문화예술인 비율 | 100 |
| [그림 Ⅲ-3-2] 축제특성별 지역문화축제 | 104 |
| [그림 Ⅲ-4-1] 분야별 문화예술 창작 및 발표활동 비율 | 109 |
| [그림 Ⅲ-4-2] 장르별 문화예술교육활동 비율 | 112 |
| [그림 Ⅳ-2-1] 2012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 구성 | 124 |
| [그림 Ⅳ-3-1] 여가시간 | 127 |
| [그림 Ⅳ-3-2] 문화예술행사 정보탐색 경로 | 130 |
| [그림 Ⅳ-3-3] 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 132 |
| [그림 Ⅳ-3-4] 지역축제 참여(관람) 경험율 | 134 |
| [그림 Ⅳ-3-5] 문화가 중요한 이유 | 137 |
| [그림 Ⅳ-3-6] 인천의 특성 | 138 |
| [그림 Ⅳ-4-1] 문화예술행사 정보탐색 | 140 |
| [그림 Ⅳ-4-2] 문화예술행사 만족도 | 141 |
| [그림 Ⅳ-4-3] 지역축제 관람(참여)률 | 142 |
| [그림 Ⅳ-4-4]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경험률 | 144 |
| [그림 Ⅳ-4-5]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 145 |
| [그림 Ⅳ-4-6] 문화예술 창작·발표 경험 | 148 |
| [그림 Ⅳ-4-7] 문화예술동호회 참여 경험 | 149 |
| [그림 Ⅲ-2-1] 문화예술 활동 주요 현황 | 222 |
| [그림 Ⅲ-2-2] 인천의 가장 발전한 예술분야 | 223 |
| [그림 Ⅲ-2-3] 문화예술 활동 공간에 대한 수요 및 이용 애로사항 | 224 |
| [그림 Ⅲ-2-4] 소속 단체 내 예술 활동 및 지원에 대한 만족도 | 224 |
| [그림 Ⅲ-2-5] 최근 3년간 발표 및 창작활동 위한 문화예술 교류 현황 | 225 |
| [그림 Ⅲ-2-6] 지난 3년간 창작활동 관련 지원 여부 및 횟수 | 226 |
| [그림 Ⅲ-2-7] 인천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속성별 평가 | 227 |
| [그림 Ⅲ-2-8]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공정성 및 형평성 평가 | 228 |
| [그림 Ⅲ-2-9]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의 역할 | 228 |
| [그림 Ⅲ-2-10] 문화예술관련 교육의 문화예술 분야 활동 도움 정도 | 229 |
| [그림 Ⅲ-2-11] 문학 분야 활동 현황 | 230 |
| [그림 Ⅲ-2-12] 시각예술 분야 활동 현황 | 231 |
| [그림 Ⅲ-2-13] 공연예술 분야 활동 현황 | 232 |
| [그림 Ⅲ-2-14] 전통예술 분야 활동 현황 | 233 |
| [그림 Ⅲ-3-1] 주요 예술활동 방식 | 236 |
| [그림 Ⅲ-3-2] 현재 활동 부문에서의 예술 활동 종사 기간 | 238 |
| [그림 Ⅲ-3-3] 인천지역에서의 예술활동 종사 기간 | 239 |
| [그림 Ⅲ-3-4] 주요 예술활동 지역 | 240 |
| [그림 Ⅲ-3-5] 인천지역에서 예술활동하는 이유 | 241 |
| [그림 Ⅲ-3-6] 가장 발전한 인천의 예술분야 | 243 |

| | |
|--|-----|
| [그림 Ⅲ-3-7] 예술활동 창작 및 홍보 활용 매체 | 244 |
| [그림 Ⅲ-3-8] 지난 1년간 문화예술 분야 관련 자원봉사·재능기부 경험 및 대상 | 245 |
| [그림 Ⅲ-3-9] 지난 1년간 문화예술 분야 관련 자원봉사·재능기부 형태 | 247 |
| [그림 Ⅲ-3-10] 향후 1년 이내 문화예술 분야 관련 자원봉사·재능기부 의향 | 248 |
| [그림 Ⅲ-3-11] 예술 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공간 | 249 |
| [그림 Ⅲ-3-12] 창작 공간의 형태 | 251 |
| [그림 Ⅲ-3-13] 인천 내 발표 공간 이용에 대한 애로사항 | 252 |
| [그림 Ⅲ-3-14] 예술 활동 관련 단체 가입 이유 | 253 |
| [그림 Ⅲ-3-15] 지원받은 사업 유형 | 259 |
| [그림 Ⅲ-3-16] 바람직한 예술인 지원 방식 | 261 |
| [그림 Ⅲ-3-17] 인천문화재단 예술지원 사업의 개선점 | 262 |
| [그림 Ⅲ-3-18] 사업 및 정책에 예술인 의견 반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 | 263 |
| [그림 Ⅲ-3-19] 인천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문화예술인이 노력할 점 | 264 |
| [그림 Ⅲ-3-20] 문화예술 분야와 최종 전공의 일치 정도 | 268 |
| [그림 Ⅲ-3-21]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문화예술 재교육 | 269 |
| [그림 Ⅲ-3-35]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문화예술 재교육 | 270 |
| [그림 Ⅲ-3-21] 예술인을 위한 행정 및 실무 관련 교육 개설 희망 프로그램 | 271 |
| [그림 Ⅲ-3-22] 직업과 현재 활동하는 문화예술 분야와의 연관성 | 274 |
| [그림 Ⅲ-3-23] 예술인들의 노후대비를 위한 지원 형태 | 275 |
| [그림 Ⅲ-3-24] 연간 예술 창작 활동 수입액 | 279 |
| [그림 Ⅲ-3-25] 연간 예술 관련 활동 수입액 | 280 |
| [그림 Ⅲ-3-26] 인천 문학 분야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사업) | 290 |
| [그림 Ⅲ-3-27] 인천 시각예술 분야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사업) | 297 |
| [그림 Ⅲ-3-28] 인천 공연예술 분야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사업) | 305 |
| [그림 Ⅲ-3-29] 인천 전통예술 분야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사업) | 311 |
| [그림 1] 2012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 구성 | 325 |
| [그림 2] 하루 평균 여가시간(평일/주말) | 328 |
| [그림 3] 평일 여가시간 활용방법 | 330 |
| [그림 4] 주말 여가시간 활용방법 | 331 |
| [그림 5] 향후 하고 싶은 여가활동(평일) | 333 |
| [그림 6] 향후 하고 싶은 여가활동(주말) | 334 |
| [그림 7] 평소 관람하는 문화예술행사 | 335 |
| [그림 8] 문화예술행사 관람 이유 | 336 |
| [그림 9] 문화예술행사 관람 지역 | 338 |
| [그림 10] 인천 외 지역 문화예술행사 관람 이유 | 340 |
| [그림 11] 문화예술행사 소식(정보) 취득 경로 | 343 |
| [그림 12] 향후 관람 희망 문화예술행사 분야 | 347 |
| [그림 13] 문화예술시설 이용 경향 | 349 |
| [그림 14]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이용한 인천지역 문화시설 | 350 |
| [그림 15] 인천지역 문화시설 이용 이유 | 352 |
| [그림 16] 인천지역 문화시설 이용 시 중요 고려 요인 | 354 |
| [그림 17] 인천 지역축제 참가 경험 여부 및 횟수 | 356 |
| [그림 18] 가장 기억에 남는 인천지역 축제 | 358 |
| [그림 19] 인천 지역축제 참가 시 중요 고려 요인 | 361 |
| [그림 20] 지난 1년간 인천지역의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경험 | 362 |
| [그림 21] 지난 1년간 방문 경험이 있는 역사문화유적지 | 364 |
| [그림 22] 인천 지역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이유 | 366 |
| [그림 23] 지난 1년간 문화예술 교육 받은 경험이 있는 기관/매체 | 370 |
| [그림 24] 문화예술 교육을 받은 분야 | 372 |
| [그림 25] 향후 1년 이내 희망 문화예술 교육 | 377 |
| [그림 26] 지난 1년간 창작, 발표 경험 매체 및 경험 분야 | 378 |
| [그림 27]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계기 | 382 |
| [그림 28] 활동 경험 동호회의 운영 형태 | 384 |
| [그림 29]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하지 않는 이유 | 385 |
| [그림 30] 희망 문화예술 관련 활동 | 387 |
| [그림 31] 문화예술 관련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것 | 389 |
| [그림 32] 인천의 주거 및 생활환경 만족도 | 390 |

| | |
|---|-----|
| [그림 33] 인천의 주거 및 생활환경 종합 만족도..... | 391 |
| [그림 34] 주거지 결정시 항목별 중요도 | 392 |
| [그림 35] 인천의 주거 및 생활환경 및 주거지 결정 항목 IPA분석 | 393 |
| [그림 36] 문화 최초 상기 의미 | 393 |
| [그림 37] 문화 중요도 | 395 |
| [그림 38] 문화가 중요한 이유..... | 396 |
| [그림 39] 인천 문화 항목별 동의 정도 평가..... | 398 |

제1권

2012 인천문화지표 조사연구



일러두기

2012년 인천문화지표 조사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에 따라 조사·작성하였다.

- 조사범위는 광역시 및 군·구별 비교를 기본으로 하되 지표 항목에 따라 일부 조정하였다.
-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화시설의 범위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분류에 따라 공연시설, 전시 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 보급·전수시설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각각의 기준에 관해서는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 조사에 참고한 통계 및 각종 자료는 2011년 12월 31일 기준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기준 시점의 통계 및 자료가 없는 경우 부득이하게 이전 시점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1년 12월 31일 이후의 자료가 있는 경우 가장 최신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 조사에 참고한 통계 및 자료의 출처와 발행 시기는 해당 표와 그림 아래에 출처를 명시하였다.
-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 직접 조사를 통해 자료를 작성하였다.
- 본 연구에 명시된 구체적인 문화시설 목록은 현재 확인 가능한 시설을 중심으로 작성되어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절차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기대효과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천은 민선 5기 출범과 2014 인천아시안게임 같은 국제적 규모의 행사를 앞두고 다각적인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경제수도 인천, 동북아 허브도시로서의 변화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인천의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변화와 발전은 시민 삶의 질적 성장과 함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재정 투자, 정책 결정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객관적, 합리적 재정 투자와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인천의 문화현실과 인천시민의 문화향유실태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진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지난 2004년 「인천광역시 문화지표작성 및 조사분석」(인천광역시, 2004)연구를 시작으로 2008년 「인천문화지표 조사연구」(인천문화재단, 2008)를 진행하여 4년 주기로 인천의 문화지표 조사를 시행해 오고 있다. 문화지표 조사연구는 문화지표 항목별 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과 함께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항목에 대한 시민 요구 반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4년 주기로 조사 연구가 이뤄져 선행 연구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인천문화의 변화양상 파악 및 향후 인천시의 문화발전 전략 도출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문화지표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인천문화실태 파악을 중요 목표로 한다. 또한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 항목을 더욱 세분화하여 문화 현실에 대한 시민 의견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절차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인천문화지표 체계와 항목, 인천문화지표 조사결과 및 2012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 결과, 정책적 시사점으로 구성하였다. 2004년·2008년 인천문화지표 체계 및 각종 문화지표 사례조사, 지표조사에 관한 선행연구 등을 통해 지표체계와 항목을 설계하고 설계된 각 지표항목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심층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실태 및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초조사 결과 및 심층 분석 결과,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정책적 시사점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지역 문화예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항목별 중요도 설문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다. 조사된 전문가조사 결과는 정책적 시사점 제안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2장은 2004년·2008년 인천문화지표조사 소개 및 특징을 정리하고, 2012 인천문화지표의 특징 및 기존 문화지표체계와의 차이점 등을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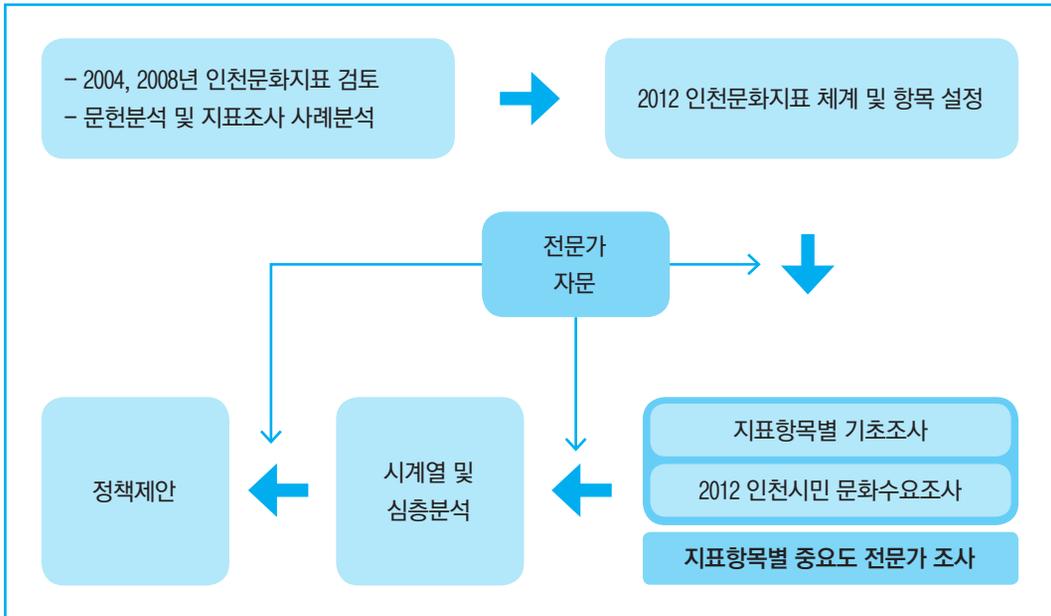
3장은 2012 인천문화지표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2012 인천문화지표는 인문사회환경, 문화환경, 문화자원, 문화활동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에 다른 세부 평가항목에 따라 분석하였다.

4장은 2012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문화수요조사 분석은 2004년·2008년 문화수요조사 결과와의 비교 분석과 일부 비교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마지막 5장에서는 3장과 4장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부록에는 2012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 설문지와 인천시 군·구별 문화시설분포지도를 함께 수록하였다. 군·구별 문화시설분포지도는 각 구별로 수록하여 지역별 문화시설 분포의 특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1-1] 2012년 인천문화지표 조사연구 흐름도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기대효과

2012 인천문화지표조사연구는 2004년, 2008년 인천문화지표조사연구에 이어 세 번째로 수행된 것으로, 인천 문화현실과 변화추이를 진단하고 문화정책의 효과와 적절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립하는데 그 의의와 목적이 있다. 때문에 인천 문화현실에 대한 정확한 시계열 분석을 위해서는 동일한 통계 자료를 조사 주기에 맞춰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최신자료의 부재로 조사의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공하는 등록공연장 현황과 전국기반시설 현황의 최근 자료는 2010년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각종 문화행사, 프로그램, 전문 인력 등에 관한 전국단위의 기초 조사가 이루어진 통계자료가 없어 지표항목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향후 문화지표 조사연구 수행을 위한 정기적인 일반현황 자료 조사 및 기초 통계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인천문화지표조사연구는 인천 일반환경, 문화예술시설, 예술인 및 예술단체 조사는 물론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 등 전반적인 조사연구를 모두 병행하고 있는 형태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전국문화기반시설 조사는 물론 여가백서, 문화향수실태조사, 예술인실태조사 등과 같은 기초 연구를 1년~3년 단위로 체계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인천의 문화예술현황 분석 및 향후 문화예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라는 점에서 기본이 되는 기초 통계 연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2004년 처음 시작된 이후 시계열 분석을 통해 자치단체의 문화 현실과 변화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더욱이 이러한 조사·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문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인천문화지표 체계

제1절 2004년 인천문화지표 체계 및 특징

제2절 2008년 인천문화지표 체계 및 특징

제3절 2012년 인천문화지표 체계 및 특징

제1절 2004년 인천문화지표 체계 및 특징

2004년 인천문화지표 조사연구는 문화지표체계를 인문사회환경, 문화환경,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수 및 수요, 문화산업 등 총 6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각 영역별로 관심영역과 세부 관심영역을 설계하였다.

첫 번째, 인문사회환경 영역에서는 인천시의 일반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인구, 재정, 교통, 주거, 교육 등의 세부관심영역을 조사하였다. 두 번째, 문화환경은 시민들이 문화를 생산·향유·활동하기 위한 기반시설 등의 여건이 조성된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 것으로 관심영역은 문화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문화지원체제로 구성하고 각 관심영역에 따라 세부관심영역을 설계하였다. 세 번째, 문화자원 영역은 인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자원(Culture Resource) 규모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예술 전문 인력 등의 인적자원과 문화재, 지역소장 문화자료 등의 문화유산을 세부관심영역으로 설계하였다. 네 번째, 문화활동은 인천시의 문화환경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각 문화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시설 프로그램과 지역 문화예술행사, 문화강좌 실태 등을 조사하였다. 다섯 번째, 문화향수 및 수요 영역은 인천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천시민의 문화수요 조사> 결과를 통해 파악한 시민들의 반응을 지표화 하여 문화 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여가·문화활동, 지역문화, 문화정책을 관심영역으로 설계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산업은 주요 문화산업인 출판, 영상, 음반, 게임, 기타(문화예술기획) 관심영역으로 설계하고 이에 따른 문화산업 시장 현황을 조사하였다. 문화산업의 경우 인천의 문화산업 발달 정도를 고려할 때 중요도가 높지 않으나 향후 이에 대한 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그래서 2004년 인천문화지표 체계는 총 6개 영역, 18개 관심영역, 41개 세부관심영역, 152개 지표항목으로 구성하였다.

2004년 인천문화지표 조사연구는 조사 가능한 차원에서 서울시 및 5대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를 포함해 타 광역시와의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더욱이 2004년 인천에서 최초로 시도되었다는 점에도 의의가 있다. 또한 인천시 산하 10개 군·구의 문화지표 역시 동시에 조사하여 광역 비교는 물론 인천시 10개 군·구별 비교도 가능하도록

록 하였다. 세 번째로 인천문화지표는 통계상의 수치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분석과정에서 정성적 평가와 분석을 시도하였다. 무엇보다 2004년 인천문화지표조사연구가 갖는 가장 큰 의의는 지표체계와 항목을 구성하고 이에 따른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인천문화정책을 제시했다는 데 있다. 이는 국내 문화지표 연구 가운데 처음으로 시도된 것으로 의미있는 선례로 평가되고 있다.

[표 II-1-1] 2004년 인천문화지표 체계

| 영역 | 관심영역 | 세부관심영역 | 비고 |
|--------|---------|-----------|------|
| 인문사회환경 | 인문사회 환경 | 면적·인구 | 일반현황 |
| | | 공공서비스·재정 | |
| | | 경제현황·산업구조 | |
| | | 도로·교통 | |
| | | 주거현황 | |
| | | 교육시설현황 | |
| 문화환경 | 문화시설 | 공연시설 | 문화공급 |
| | | 전시시설 | |
| | | 문화보급전수시설 | |
| | | 지역문화복지시설 | |
| | | 공공도서관 | |
| | | 문화교육시설 | |
| | 체육시설 | 공공 체육시설 | |
| | 청소년시설 | 청소년시설 | |
| | 문화지원체계 | 문화행정 | |
| | | 문화재정 | |
| | | 문예진흥기금지원액 | |
| 민간지원 | | | |
| 문화자원 | 인적자원 | 전문인력 | 문화공급 |
| | | 배후인력 | |
| | 문화유산 | 문화재 | |
| | | 지역소장 문화자료 | |

| 영역 | 관심영역 | 세부관심영역 | 비고 |
|-----------|-----------|-----------|------|
| 문화활동 | 문화시설 프로그램 | 공연시설 | 문화공급 |
| | | 전시시설 | |
| | | 문화보급전수시설 | |
| | | 지역문화복지시설 | |
| | 문화행사 | 공공도서관 | |
| | | 전체 문화예술행사 | |
| | | 지자체주관행사 | |
| | | 국공립단체주관행사 | |
| 문화향수 및 수요 | 문화강좌 | 지역축제 | 문화수요 |
| | | 문화강좌 | |
| | 여가·문화활동 | 여가활동 실태 | |
| | | 문화활동 실태 | |
| | 지역문화활동 | 문화시설 이용 | |
| | | 체육시설 이용 | |
| 문화정책 | 지역축제 평가 | | |
| | 문화정책 수요 | | |
| 문화산업 | 출판산업 | 출판 | 문화시장 |
| | 영상산업 | 방송 | |
| | | 영화·비디오 | |
| | | 애니메이션 | |
| | 음반산업 | 음반 | |
| | 게임산업 | 게임 | |
| 기타 | 문화예술기획 | | |

제2절 2008년 인천문화지표 체계 및 특징

2008년 인천문화지표는 문화지표 영역을 문화 분야에 대한 투입요소(input)와 산출요소로(output)으로 구분하고, 투입요소는 문화환경과 문화자원, 산출요소는 문화자원과 문화활동으로 개념화 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인천문화지표는 인천시 일반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인문사회환경과 문화환경,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수요 등 총 5개 영역으로 설계되었다. 2004년 인천문화지표 체계에서 별도의 영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문화산업의 경우 인천의 문화산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이에 대한 통계자료 역시 매우 단순하여 문화활동 영역에 포함시켰다.

2008년 인천문화지표의 가장 큰 특징은 각 세부 관심영역의 가치평가가 가능하도록 가치지향적 평가항목을 설정하여 지표의 객관성을 강화하였다는 점이다.

인문사회환경 영역의 경우 생활환경의 편리성, 쾌적성, 안전성, 교육환경의 충분성, 행정환경의 충분성, 합리성, 경제환경의 안정성, 활동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항목을 설계하였다. 문화환경 영역은 문화시설의 충분성, 활용도, 문화행정의 충분성, 문화예술지원의 충분성 및 다양성으로 설계하였다. 문화자원은 관심영역을 문화예술 인력과 문화유산으로 구분하고 문화예술인력의 충분성과 잠재성, 문화유산의 활용도를 평가항목으로 설계하였다. 문화활동은 2004년 인천문화지표에서는 별도의 영역이었던 문화산업을 관심영역으로 설계하여 문화예술활동의 충분성 및 다양성, 문화산업활동의 충분성을 평가항목으로 설계하였다. 문화수요 영역은 여가문화활동의 충분성, 다양성, 문화시설이용의 이용도, 만족도, 문화행사참여의 관람 및 참여도, 만족도를 평가항목으로 설계하였다.

2004년 인천문화지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지된 지표항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비교·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도된 시계열 분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세 번째로 2004년 인천문화지표와 비교하여 지표 간 비교·분석 및 심층분석을 강화하였고 이를 통해 더욱 구체적인 인천시 문화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및 10개 군·구별 문화시설 분포 지도를 제작하여 문화시설 분포 현황과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문화시설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한계

를 벗어나 인천시 전체의 문화시설 분포 정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데에 의의가 있다.

[표 II-2-1] 2008년 인천문화지표 체계

| 영역 | 관심영역 | 평가항목 |
|--------|--------|-----------|
| 인문사회환경 | 생활환경 | 편리성 |
| | | 쾌적성 |
| | | 안전성 |
| | 교육환경 | 충분성 |
| | 행정환경 | 충분성 |
| | | 합리성 |
| 경제환경 | 안정성 | |
| | 활동성 | |
| 문화환경 | 문화시설 | 충분성 |
| | | 활용도 |
| | 문화행정 | 충분성 |
| 문화자원 | 문화예술지원 | 충분성 및 다양성 |
| | | 충분성 |
| | 문화예술인력 | 잠재성 |
| 문화활동 | 문화유산 | 활용도 |
| | | 충분성 및 다양성 |
| | 문화예술활동 | 충분성 |
| 문화수요 | 여가문화활동 | 충분성 |
| | | 다양성 |
| | 문화시설이용 | 이용도 |
| | | 만족도 |
| | 문화행사참여 | 관람 및 참여도 |
| | | 만족도 |

제3절 2012년 인천문화지표 체계 및 특징

2012년 인천문화지표는 선행 연구와의 시계열 및 비교분석을 위해 기본적인 체계는 가능한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최근의 문화환경과 현실을 반영하여 관심영역 항목에 ‘문화예술교육’과 ‘지역축제’를 추가하였다.

2012년 인천문화지표는 인문사회환경, 문화환경, 문화자원, 문화활동 영역 등 총 4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인천시민의 문화향유 실태 및 의견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였다.

인천시의 일반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인문사회환경은 생활환경, 교육환경, 행정환경, 경제환경 등의 관심영역으로 설계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생활환경의 편리성, 쾌적성, 안전성, 교육환경의 충분성, 행정환경의 충분성, 합리성, 경제환경의 안정성, 활동성 등으로 구성하였다. 시민들이 문화를 생산·향유하며, 문화 활동의 기반이 되는 문화환경은 기존의 문화시설, 문화행정, 문화예술지원분야 외에 문화예술교육을 새로운 관심영역으로 추가 설계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화시설의 충분성, 활용도, 문화행정의 충분성, 문화예술지원의 다양성, 문화예술교육의 다양성으로 구성하였다. 인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고유 문화자원은 문화예술인력, 문화유산영역과 함께 지역축제를 새로운 관심영역으로 설계하여 문화자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문화예술인력의 충분성, 잠재성, 지역축제의 충분성, 문화유산의 활용도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활동 기존 지표체계와 마찬가지로 문화산업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문화활동에 포함시켰는데, 인천시 문화산업의 전모 및 분야별 연구가 추진된 바 없고, 활용 가능한 통계 자료 역시 광역 단위별 단순한 통계 자료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2년 인천문화지표 체계는 총 4개 영역, 13개 관심영역, 19개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2012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를 함께 실시하였다.

2012년 인천문화지표 조사연구는 선행연구인 2004년·2008년 인천문화지표 조사연구와의 비교·분석 및 시계열 분석을 위해 전체 지표의 기본 영역은 유지하되 관심영역과 평가항목을 일부 수정, 보완하였다. 문화환경 영역과 문화자원 영역에는 각각 문화예술 교육과 지역축제 관심영역을 추가 설계하였다. 2008년 인천문화지표 조사연구에서 한 개의 관심영역에 두

개의 평가항목이 설계되어 있었던 문화예술지원의 충분성 및 다양성, 문화예술활동의 충분성 및 다양성은 평가항목의 객관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성으로 평가항목을 정리하여 명확한 자료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 인천문화지표 조사연구〉에서는 2004년·2008년 인천문화지표 결과를 바탕으로 시계열 분석과 함께 서울을 포함한 6대 광역시 및 인천시 10개 군·구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시계열 분석의 경우 새롭게 추가된 지표 항목을 제외하고 기존 지표 체계와 항목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교·분석을 실시하여 인천시의 변화추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인천시 10개 군·구의 문화시설분포 지도를 제작하여 군·구별 문화시설 분포 현황과 위치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무엇보다 〈2012년 인천문화지표 조사연구〉는 2004년·2008년 인천문화지표 체계의 기본 영역을 유지하면서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명확성을 높이고, 최근의 문화환경과 현실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객관적 지표 분석 및 시민문화수요조사 결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시계열 분석을 통해 종합적이며 실질적인 문화정책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표 II-3-1] 2012년 인천문화지표 체계

| 영역 | 관심영역 | 평가항목 |
|--------|--------|------|
| 인문사회환경 | 생활환경 | 편리성 |
| | | 쾌적성 |
| | | 안전성 |
| | 교육환경 | 충분성 |
| | 행정환경 | 충분성 |
| | | 합리성 |
| 경제환경 | 안정성 | |
| | 활동성 | |
| 문화환경 | 문화시설 | 충분성 |
| | | 활용도 |
| | 문화행정 | 충분성 |
| | 문화예술지원 | 다양성 |
| 문화자원 | 문화예술인력 | 다양성 |
| | | 충분성 |
| | 지역축제 | 잠재성 |
| | 문화유산 | 충분성 |
| 문화활동 | 문화예술활동 | 활용도 |
| | 문화산업활동 | 다양성 |
| | | 충분성 |

2012 인천문화지표(문화환경지표) 조사결과

제1절 인문사회환경

제2절 문화환경

제3절 문화자원

제4절 문화활동

제5절 2012 인천문화지표 조사 종합분석

제1절 인문사회환경

인문사회환경의 관심영역은 생활환경, 교육환경, 행정환경, 경제환경이며 각 영역의 평가항목은 생활환경의 ‘편리성’, ‘쾌적성’, ‘안전성’, 교육환경의 ‘충분성’, 행정환경의 ‘충분성’, ‘합리성’, 경제환경의 ‘안정성’, ‘활동성’으로 설계하였다. <2008 인천문화지표 조사연구>와 비교하여 관심영역과 평가항목은 동일하나 <2012 인천문화지표 조사연구>에서는 생활환경 영역에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 평가지표를 추가하였다.

[표 Ⅲ-1-1] 인문사회 환경 지표항목

| 영역 | 관심영역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조사범위 | 비고 |
|----------------|------|-----------------|--------------------|------|----|
| 인문 사회 환경 | 생활환경 | 편리성 | 인구밀도 | ○ ● | |
| | | | 도로밀도 | ○ | |
| | | | 주택보급률·자가 점유율 | ○ ● | |
| | | |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 ○ ● | |
| | | | 인구 천 명당 의료인력 | ○ ● | |
| | | 쾌적성 | 녹지지역비율 | ○ ● | |
| | | | 도시공원 수 및 면적 | ○ | |
| | | | 대기오염도 | ○ ● | |
| | | 안전성 | 경찰서 및 지구대 1개소 당 인구 | ○ | |
| | | | 5대 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율 | ○ | |
| | 교육환경 | 충분성 | 교사 1인당 학생 수 | ○ | |
| | | | 학급 1개당 학생 수 | ○ | |
| | 행정환경 | 충분성 | 인구 1인당 예산액 | ○ ● | |
| | | | 공무원 1인당 인구수 | ○ | |
| | | 합리성 | 재정자립도 | ○ ● | |
| | | | 인구 1인당 지방세 부담액 | ○ ● | |
| 경제환경 | 안정성 | 인구증가율 | ○ ● | | |
| | | 주간인구지수 | ○ ● | | |
| | | 경제활동 인구 비율 | ○ | | |
| | 활동성 | 취업률 | ○ | | |
| | | 경제활동인구 대비 총 생산액 | ○ | | |

※ ○ : 광역시간 비교 / ● : 군·구간 비교

1. 생활환경

1) 편리성

(1) 인구밀도

인구밀도는 일정한 지역의 기본적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단위 면적에 대한 인구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보통 1km² 안의 인구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총인구÷총면적>으로 산출하나, 본 지표연구에서는 총 인가와 주민등록인구의 차이에 따른 혼동을 피하기 위해 동일 년도의 총면적과 주민등록인구를 활용하여 <주민등록인구÷총면적>으로 산출하였다.

인구밀도는 광역시 평균 2,426.9(명/km²)로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중에는 ‘부산’이 4,629.7(명/km²)로 인구밀도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광주’, ‘대구’, ‘대전’ 등의 순이며 ‘인천’ (2,722.3명/km²)은 광역시 가운데 ‘울산’ (1,072.2명/km²)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낮았다. 이는 강화군, 옹진군 및 중구의 영종 용유지역의 영향이 큰 것으로 군·구별 인구밀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타 광역시 역시 농업지역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수치만으로 비교에는 무리가 있다.

[표 III-1-2] 인구밀도

(단위 : km², 명, 인구/km²)

| | 면적 | | | 주민등록인구 | | | 인구밀도 | | |
|-------------|---------|----------|----------|------------|------------|------------|----------|----------|----------|
| | 2012년 | 2008년 | 2004년 | 2012년 | 2008년 | 2004년 | 2012년 | 2008년 | 2004년 |
| 서울 | 605.28 | 605.25 | 605.52 | 10,249,679 | 10,192,710 | 10,280,523 | 16,941.6 | 16,840.5 | 16,978.0 |
| 부산 | 767.35 | 765.64 | 762.92 | 3,550,963 | 3,587,439 | 3,747,369 | 4,629.7 | 4,685.5 | 4,911.9 |
| 인천 | 1029.43 | 1,007.47 | 986.45 | 2,801,274 | 2,664,576 | 2,596,102 | 2,722.3 | 2,644.8 | 2,631.8 |
| 대구 | 884.10 | 884.10 | 885.70 | 2,507,271 | 2,493,261 | 2,540,102 | 2,836.3 | 2,820.1 | 2,868.5 |
| 광주 | 501.24 | 501.28 | 501.42 | 1,463,464 | 1,413,444 | 1,401,525 | 2,921.1 | 2,819.7 | 2,795.8 |
| 대전 | 539.85 | 539.64 | 539.71 | 1,515,603 | 1,475,659 | 1,424,844 | 2,806.7 | 2,734.5 | 2,666.2 |
| 울산 | 1058.95 | 1,057.26 | 1,056.38 | 1,135,494 | 1,099,995 | 1,070,277 | 1,072.2 | 1,040.4 | 1,021.1 |
| 평균 (광역시) | - | - | | - | - | - | 2,426.9 | 2,790.8 | 2,815.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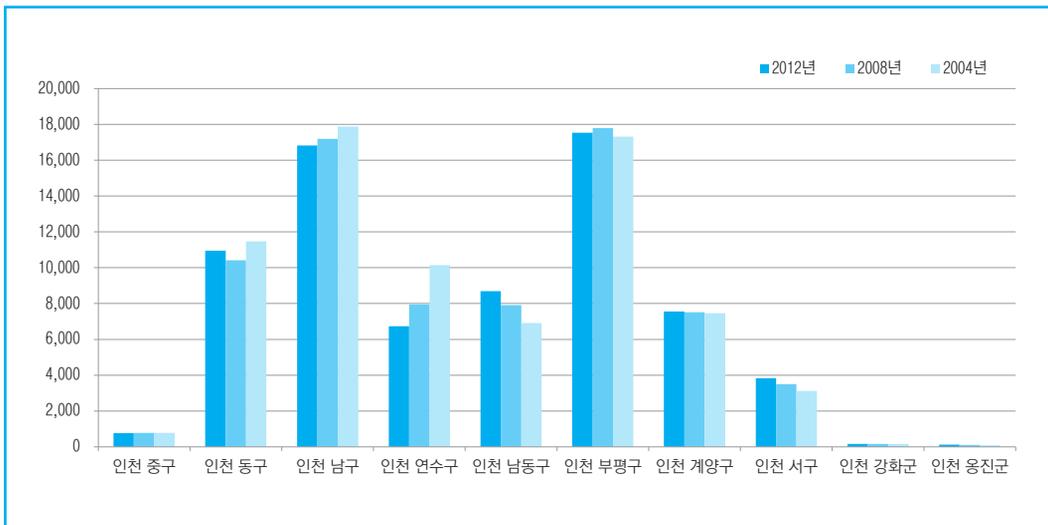
자료: 국토해양부, <2011국토해양통계연보>(2012)

2004년,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인천의 인구밀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송도와 청라지구 매립, 개발에 따른 면적 증가보다 인구 유입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인천의 인구밀도는 타 지역과 비교할 때 ‘남구’와 ‘부평구’가 가장 높으며, 지난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동구’, ‘남동구’, ‘서구’의 인구밀도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연수구’의 인구밀도가 낮아진 것은 송도 지구 매립에 따라 면적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부평구’, ‘계양구’, ‘서구’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아진 요인은 인천지하철 및 공항철도 개통, 청라지역 개발 등으로 인한 유입인구 증가 때문이다.

[그림 Ⅲ-1-1] 군·구별 인구밀도

(단위 : 인구/km²)



자료: 국토해양부, <2011국토해양통계연보>(2012)

[표 III-1-3] 군·구별 인구밀도

(단위 : km², 명, 인구/km²)

| | 면적 | | | 주민등록인구 | | | 인구밀도 | | |
|-----|--------|--------|--------|---------|---------|---------|---------|---------|---------|
| | 2012년 | 2008년 | 2004년 | 2012년 | 2008년 | 2004년 | 2012년 | 2008년 | 2004년 |
| 중구 | 123.09 | 115.15 | 109.23 | 93,581 | 88,713 | 85,415 | 760.3 | 770.4 | 782.0 |
| 동구 | 7.19 | 7.19 | 7.06 | 78,692 | 74,866 | 80,966 | 10944.6 | 10412.5 | 11468.3 |
| 남구 | 24.85 | 24.46 | 24.23 | 417,996 | 420,741 | 433,138 | 16820.8 | 17201.2 | 17876.1 |
| 연수구 | 42.74 | 33.76 | 25.39 | 287,903 | 268,668 | 257,564 | 6736.1 | 7958.2 | 10144.3 |
| 남동구 | 56.99 | 56.85 | 56.83 | 495,469 | 450,054 | 392,478 | 8694.0 | 7916.5 | 6906.2 |
| 부평구 | 31.99 | 31.99 | 31.98 | 560,936 | 569,246 | 554,027 | 17534.7 | 17794.5 | 17324.2 |
| 계양구 | 45.58 | 45.57 | 45.58 | 344,299 | 342,299 | 340,175 | 7553.7 | 7511.5 | 7463.3 |
| 서구 | 113.91 | 112.20 | 111.10 | 436,134 | 393,346 | 347,117 | 3828.8 | 3505.8 | 3124.4 |
| 강화군 | 411.23 | 411.30 | 411.26 | 66,779 | 67,387 | 65,044 | 162.4 | 163.8 | 158.2 |
| 옹진군 | 171.86 | 169.00 | 164.30 | 19,485 | 17,376 | 14,270 | 113.4 | 102.8 | 86.9 |

자료: 국토해양부, <2011국토해양통계연보>(2012)

(2) 도로밀도

도로밀도는 지역의 인구, 자동차, 땅에 대한 도로 총연장의 비율로 지역의 도로여건과 교통 생활의 질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면적대비 도로연장은 <전체면적÷도로연장>, 인구에 대한 도로연장은 <주민등록인구÷도로연장>, 자동차에 대한 도로연장은 <총 자동차 대수÷도로연장>으로 산출하였다.

면적대비 도로연장이 가장 긴 곳은 '부산'으로 3.94km/km²로 나타났고, 가장 짧은 곳은 '울산' 1.63km/km²으로 조사되었다. '인천'의 면적대비 도로연장은 2.41km/km²로 광역시 가운데 울산 다음으로 짧다. 1인당 도로연장이 가장 긴 곳은 '울산'으로 인당 1.54m이고, 그 다음은 '대전', '광주', '대구' 등의 순이었다. 자동차 1대당 도로연장은 광역시 평균이 3.04m이며 '울산'이 3.90m로 가장 길었다. '인천'은 2.67m로 타 광역시에 비해 자동차 대수에 비해 도로연장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지난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도로연장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유입인구와 자동차 대수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 1대당 도로연장의 경우 지난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0.14m 줄었다. 인천의 도로밀도 관련 지표가 모두 광역시 평균 이하라는 점에서 인천의 도로환경이 열악함을 알 수 있다.

[표 III-1-4] 도로밀도

(단위 : km/km², m/인, m/대)

| | 면적대비 도로연장 | | | 1인당 도로연장 | | | 자동차 1대당 도로연장 | | |
|-------------|-----------|-------|-------|----------|-------|-------|--------------|-------|-------|
| | 2012년 | 2008년 | 2004년 | 2012년 | 2008년 | 2004년 | 2012년 | 2008년 | 2004년 |
| 서울 | 13.46 | 13.34 | 13.43 | 0.80 | 0.82 | 0.79 | 2.73 | 2.83 | 3.02 |
| 부산 | 3.94 | 3.58 | 3.59 | 0.85 | 0.78 | 0.73 | 2.63 | 2.76 | 2.97 |
| 인천 | 2.41 | 2.32 | 2.15 | 0.91 | 0.91 | 0.82 | 2.67 | 2.81 | 2.81 |
| 대구 | 2.76 | 2.53 | 2.42 | 0.98 | 0.91 | 0.84 | 2.57 | 2.59 | 2.72 |
| 광주 | 3.23 | 2.73 | 2.39 | 1.13 | 0.96 | 0.86 | 3.13 | 3.04 | 3.03 |
| 대전 | 3.52 | 3.15 | 2.87 | 1.28 | 1.18 | 1.09 | 3.32 | 3.27 | 3.39 |
| 울산 | 1.63 | 1.53 | 2.43 | 1.54 | 1.54 | 2.40 | 3.90 | 4.10 | 7.50 |
| 평균 (광역시) | 2.91 | 2.64 | 2.64 | 1.12 | 1.04 | 1.12 | 3.04 | 3.09 | 3.74 |

자료: 국토해양부, <2011국토해양통계연보>(2012)

(3) 주택보급률 · 자가 점유율

주택보급률이란, 국가 또는 지역의 주택재고의 과부족을 총체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이며 가구 수에 대한 주택 수의 비율로 산출한다. 이때 가구 수는 1인가구를 포함하는 일반가구(보통가구+1인 가구+비혈연 가구¹⁾)를 의미한다. 주택 수 및 가구 수는 통계청에서 5년 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004년 지표조사는 <2000 인구주택총조사>, 2008년 지표조사는 <2005 인구주택총조사>, 2012년 지표조사는 <2010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자가 점유율이란, 자기 소유의 주택에 자기가 사는 비율을 의미하며, 자기 주택을 소유한 비율을 의미하는 자가보유율과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유유형에 따른 주택 구성을 자가, 전세, 월세(보증부 월세, 월세), 무상으로 분류하였다.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서울을 포함한 모든 광역시의 주택보급률이 상승하였으며, 특히 ‘광주’와 ‘대구’의 주택보급률이 크게 상승하였다. ‘인천’ (101.9%)은 ‘울산’ (103.6%), ‘광주’ (102.4%), ‘대구’ (102.1%)에 이어 네 번째로 주택보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택보급률은 주거환경의 양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질적 주거환경을 나타낼 수는 없기 때문에 주택보급률 상승만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1)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광역시별 자가 점유율은 ‘울산’이 59.8%로 가장 높고 ‘광주’ (59.0%), ‘부산’ (57.9%) 등의 순이다. 인천의 경우 높은 주택보급률에 비해 자가 점유율은 55.7%로 광역시 평균 56.4% 보다 낮았다. 2008년 조사연구 결과 60.5%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자가 점유율을 보였던 것과 비교되는 조사결과이다.

[표 III-1-5] 주택보급률 · 자가 점유율

(단위: 천 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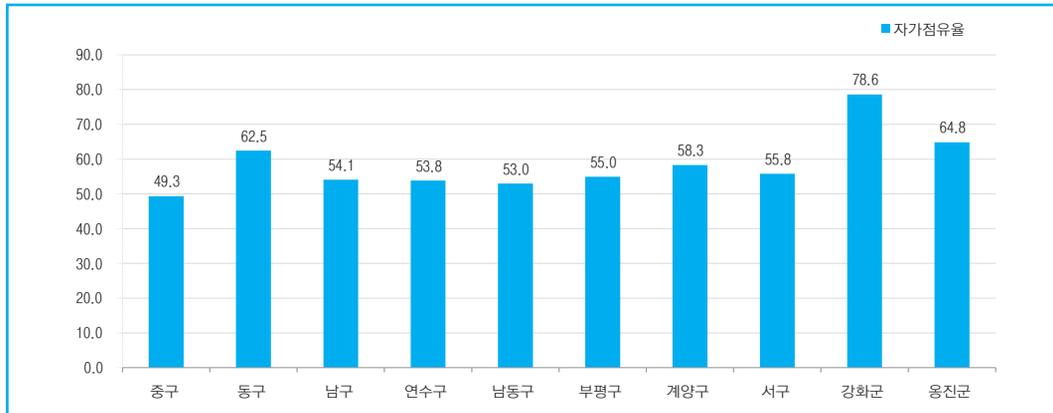
| | 주택 수(천 호) | | | 주택보급률(%) | | | 자가 점유율(%) | | |
|---------|-----------|---------|---------|----------|-------|-------|-----------|-------|-------|
| | 2012년 | 2008년 | 2004년 | 2012년 | 2008년 | 2004년 | 2012년 | 2008년 | 2004년 |
| 서울 | 3,399.8 | 2,321.9 | 1,973.2 | 97.0 | 93.7 | 77.4 | 41.2 | 44.5 | 40.9 |
| 부산 | 1,243.1 | 967.1 | 830.2 | 99.9 | 97.9 | 86.6 | 57.9 | 52.9 | 52.0 |
| 인천 | 936.7 | 723.6 | 632.1 | 101.9 | 99.1 | 98.1 | 55.7 | 60.5 | 59.1 |
| 대구 | 886.8 | 608.9 | 545.0 | 102.1 | 95.7 | 84.5 | 55.5 | 53.9 | 49.8 |
| 광주 | 528.1 | 379.3 | 338.1 | 102.4 | 95.2 | 98.2 | 59.0 | 53.5 | 51.2 |
| 대전 | 536.1 | 379.9 | 333.5 | 100.6 | 97.0 | 96.8 | 50.9 | 51.9 | 51.2 |
| 울산 | 387.2 | 276.6 | 239.0 | 103.6 | 99.5 | 91.5 | 59.8 | 58.7 | 54.3 |
| 평균(광역시) | 753.0 | 555.9 | 486.32 | 101.5 | 97.4 | 92.6 | 56.4 | 55.2 | 52.9 |

자료: 국토해양부, <2011국토해양통계연보>(2012)

군·구별로 살펴보면, 자가 점유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화군’ (78.6%)이었으며 ‘옹진군’ (64.8%), ‘동구’ (62.5%), ‘계양구’ (58.3%) 등의 순이다. ‘중구’의 자가 점유율이 49.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외의 지역은 54% 내외의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II-1-2] 군·구별 자가 점유율

(단위: %)



자료: 인천시, <2011 인천통계연보>(2012)

(4)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본 연구에서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의거한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을 포함하며 군인 병원은 제외하였다.

‘인천’의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은 광역시 평균인 1.17개에도 미치지 못하는 0.95개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었다. 이를 통해 타 광역시와 비교할 때, 인천의 의료 환경은 양적으로 열악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광역시 가운데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이 1개가 안 되는 유일한 광역시로 조사되었다.

[표 Ⅲ-1-6]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단위 : 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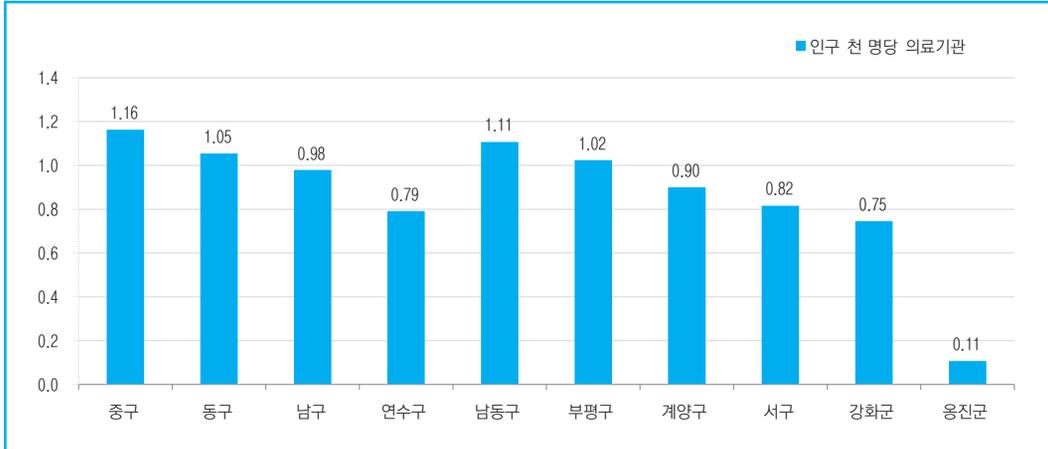
| | 의료 기관 수 | 2010 주민등록 인구 |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
|---------|---------|--------------|--------------|
| 서울 | 15,621 | 10,312,545 | 1.51 |
| 부산 | 4,395 | 3,567,910 | 1.23 |
| 인천 | 2,631 | 2,758,296 | 0.95 |
| 대구 | 3,179 | 2,511,676 | 1.27 |
| 광주 | 1,763 | 1,454,636 | 1.21 |
| 대전 | 1,941 | 1,503,664 | 1.29 |
| 울산 | 1,194 | 1,126,298 | 1.06 |
| 평균(광역시) | - | - | 1.17 |

자료: 각 시, <2010년 통계DB>(2011)

인천시 군·구별 의료 환경을 살펴보면 ‘중구’ (1.16개), ‘동구’ (1.05개), ‘남동구’ (1.11개) 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계양구’ (0.90개), ‘서구’ (0.82개), ‘연수구’ (0.79개) 등은 인구대비 의료기관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자료가 종합병원, 의원, 보건소 등을 모두 포함한 자료임을 상기할 때 타 광역시와 비교하여 인천의 양적 의료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Ⅲ-1-3] 군·구별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수

(단위: 개)



자료: 인천시, <2011 통계연보>(2012)

(5) 인구 천 명당 의료인력

본 연구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을 의료인력으로 파악하였으며 개인약국 약사는 제외하였다.

인천의 인구 천 명당 의료인력은 평균 7.45명으로 광역시 평균인 9.87명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1-7] 인구 천 명당 의료인력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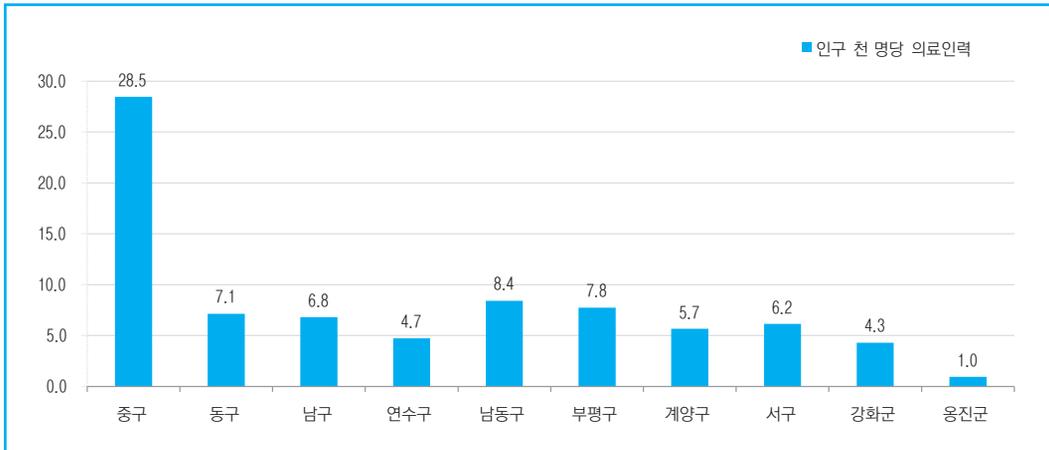
| 행정구역(시도) | 의료인력 | 주민등록 인구 | 인구 천 명당 의료인력 |
|----------|---------|------------|--------------|
| 서울 | 123,608 | 10,312,545 | 11.99 |
| 부산 | 38,900 | 3,567,910 | 10.90 |
| 인천 | 20,539 | 2,758,296 | 7.45 |
| 대구 | 25,151 | 2,511,676 | 10.01 |
| 광주 | 17,519 | 1,454,636 | 12.04 |
| 대전 | 16,233 | 1,503,664 | 10.80 |
| 울산 | 9,053 | 1,126,298 | 8.04 |
| 평균(광역시) | - | - | 9.87 |

자료: 각 시, <2010년 통계DB>(2011)

인천시 군·구별 인구 천 명당 의료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중구’를 제외하고 모두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연수구’ (4.7명), ‘계양구’ (5.7명)의 경우 ‘강화군’ (4.3명)과 ‘옹진군’ (1.0명)을 제외한 다른 구에 비해서 의료인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4] 군·구별 인구 천 명당 의료인력

(단위: 명)



자료: 인천시, <2011 통계연보>(2012)

2) 쾌적성

(1) 녹지지역 비율

녹지지역²⁾이란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녹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의미하며 녹지지역 비율은 용도별 도시계획면적 중 녹지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인천’의 녹지지역 비율은 51.1%로 조사되었으며, 2008년 조사 결과(53.4%)와 마찬가지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녹지지역 비율이 2.3%p 감소하여 ‘부산’ (2.3%p)과 함께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2) 지역은 용도지역에 따른 구분으로 녹지지역과 미지정지역으로 구분되며 옹진군의 경우 전체가 미지정지역이다.

[표 III-1-8] 녹지지역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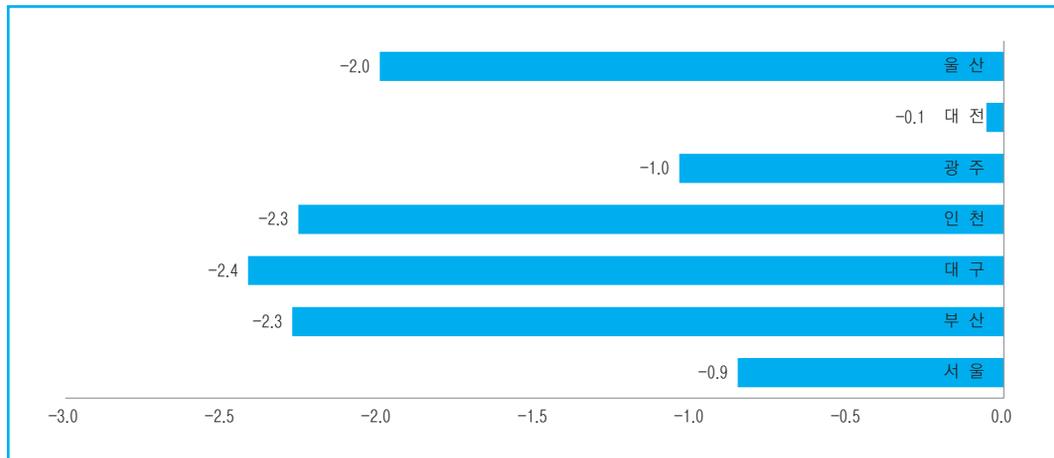
(단위: %, %p)

| | 2012년 | 2008년 | 2004년 | 2008년 대비 2012년 증감(%p) |
|---------|-------|-------|-------|-----------------------|
| 서울 | 40.0 | 40.9 | 41.7 | ▼0.9 |
| 부산 | 59.7 | 62.0 | 63.5 | ▼2.3 |
| 인천 | 51.1 | 53.4 | 52.9 | ▼2.3 |
| 대구 | 77.7 | 80.1 | 82.0 | ▼2.4 |
| 광주 | 77.7 | 78.7 | 87.8 | ▼1.0 |
| 대전 | 81.2 | 81.3 | 84.4 | ▼0.1 |
| 울산 | 69.6 | 71.6 | 72.8 | ▼2.0 |
| 평균(광역시) | 69.5 | 71.1 | 73.9 | ▼1.6 |

자료: 국토해양부, <도시계획현황통계>(2012)

[그림 III-1-5] 녹지지역 비율 증감

(단위: %)



자료: 국토해양부, <도시계획현황통계>(2012)

전체 구역이 미지정지역인 용진군은 군·구별 비교에서 제외하였다. 군·구별 녹지지역 비율은 ‘남구’ 5.6%p, ‘중구’ 5.4%p, ‘연수구’ 5.3%p 지역에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남동구’와 ‘서구’ 지역은 2.0%p, ‘부평구’는 0.3%p 감소하였다.

[표 III-1-9] 군·구별 녹지지역 비율

(단위 : %, %p)

| | 2012년 | 2008년 | 2004년 | 2008년 대비 2012년 증감 |
|-----|-------|-------|-------|-------------------|
| 중구 | 78.1 | 72.7 | 71.6 | △5.4 |
| 동구 | 8.8 | 8.8 | 9.5 | - |
| 남구 | 16.8 | 11.2 | 7.2 | △5.6 |
| 연수구 | 26.0 | 20.7 | 16.5 | △5.3 |
| 남동구 | 39.4 | 41.4 | 42.9 | ▼2.0 |
| 부평구 | 32.9 | 33.2 | 38.3 | ▼0.3 |
| 계양구 | 76.3 | 75.1 | 78.8 | △1.2 |
| 서구 | 57.0 | 59.0 | 60.5 | ▼2.0 |
| 강화군 | 86.6 | 86.5 | 85.8 | △0.1 |

자료: 국토해양부, <도시계획현황통계>(2012)

(2) 도시공원 수 및 면적

도시공원 면적은 전체 도시면적 가운데 공원 용도로 사용되는 지역의 면적을 말하며, 도시공원은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등이 해당된다. 2012 지표연구에서는 각 시도별 도시공원의 수와 도시공원 1개소 당 인구수, 도시공원면적 및 1천 명당 도시공원면적을 조사하였다.

‘인천’의 도시공원 수는 886개소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지만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197개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시공원 면적 또한 ‘대구’ (85,630km²) 다음으로 넓은 72,591km²로 조사되었다. ‘인천’의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 면적은 26km²로 ‘울산’ (37km²), ‘대구’ (34km²)에 이어 세 번째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10] 도시공원 수

(단위 : 개소, 명)

| | 도시공원 수(개소) | | | 도시공원 1개소 당 인구수(명) | | |
|---------|------------|-------|-------|-------------------|-------|-------|
| | 2012년 | 2008년 | 2004년 | 2012년 | 2008년 | 2004년 |
| 서울 | 2,130 | 2,924 | 1,477 | 4,812 | 3,486 | 6,888 |
| 부산 | 792 | 818 | 393 | 4,505 | 4,386 | 9,393 |
| 인천 | 886 | 1,083 | 517 | 3,113 | 2,460 | 4,971 |
| 대구 | 736 | 908 | 421 | 3,413 | 2,746 | 6,008 |
| 광주 | 567 | 653 | 288 | 2,565 | 2,165 | 4,846 |
| 대전 | 574 | 666 | 319 | 2,620 | 2,216 | 4,490 |
| 울산 | 516 | 738 | 360 | 2,183 | 1,491 | 2,980 |
| 평균(광역시) | 679 | 811 | 383 | 3,066 | 2,577 | 5,448 |

자료: 국토해양부, <2011 국토해양통계연보>(2012)

[표 III-1-11] 도시공원 면적

(단위 : km²)

| | 도시공원 면적 | | | 1천 명당 도시공원 면적 | | |
|---------|---------|---------|-----------|---------------|-------|-------|
| | 2012년 | 2008년 | 2004년 | 2012년 | 2008년 | 2004년 |
| 서울 | 148,485 | 137,401 | 104,395 | 14 | 13 | 10 |
| 부산 | 57,691 | 78,883 | 56,260 | 16 | 22 | 15 |
| 인천 | 72,591 | 77,712 | 53,799 | 26 | 29 | 21 |
| 대구 | 85,630 | 87,427 | 75,802 | 34 | 35 | 30 |
| 광주 | 19,043 | 31,561 | 16,773 | 13 | 22 | 12 |
| 대전 | 23,938 | 56,958 | 43,937 | 16 | 39 | 31 |
| 울산 | 42,250 | 57,487 | 32,180 | 37 | 52 | 30 |
| 평균(광역시) | 50,191 | 65,995 | 46,458.50 | 24 | 33 | 23 |

자료: 국토해양부, <2011 국토해양통계연보>(2012)

(3) 대기오염도

대기오염은 발생된 물질이 생물이나 기물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칠만큼 다량으로 대기 중에 존재하는 상태를 이르는 것으로 생활환경의 쾌적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대기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이산화황(SO₂),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₂) 등 가스상 물질(악취 물질 포함)과 먼지 등의 입자상 물질을 포함한 총 61종의 물질로 정하고 있다.

2012년 조사결과를 보면,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모든 광역시의 대기환경이 개선되었으나 '인천'의 경우 아황산가스, 오존,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양이 많아 타 광역시에 비해 대

기오염도가 높은 것은 물론 미세먼지 농도의 경우 $55\mu\text{g}/\text{m}^3$ 로 국내 대기 환경기준인 연평균 $50\mu\text{g}/\text{m}^3$ 보다 높았으며, 아황산가스와 함께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1-12] 대기오염도

(단위 (ppm, $\mu\text{g}/\text{m}^3$))

| | 아황산가스(SO ₂) | | 오존(O ₃) | | 이산화질소(NO ₂) | | 미세먼지(PM-10) | |
|-----------|-------------------------|-------|---------------------|-------|-------------------------|-------|-------------|-------|
|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
| 서울 | 0.005 | 0.010 | 0.019 | 0.009 | 0.034 | 0.045 | 49 | 72 |
| 부산 | 0.006 | 0.007 | 0.026 | 0.017 | 0.021 | 0.024 | 49 | 50 |
| 인천 | 0.007 | 0.011 | 0.021 | 0.012 | 0.030 | 0.036 | 55 | 74 |
| 대구 | 0.005 | 0.010 | 0.022 | 0.011 | 0.025 | 0.031 | 51 | 62 |
| 광주 | 0.004 | 0.006 | 0.024 | 0.013 | 0.020 | 0.028 | 45 | 50 |
| 대전 | 0.004 | 0.007 | 0.021 | 0.010 | 0.023 | 0.024 | 43 | 57 |
| 울산 | 0.008 | 0.007 | 0.023 | 0.016 | 0.023 | 0.025 | 48 | 51 |
| 환경기준(연평균) | 0.02이하 | | 0.06이하(8시간 평균) | | 0.03이하 | | 50이하 | |

자료: 환경부, <환경통계연감>(2011)

3) 안전성

(1) 경찰서 및 지구대 1개소 당 인구

경찰서 및 지구대는 치안행정의 접근성과 치안 인력의 충분성을 알 수 있는 지표로 <2012년 인천문화지표 조사연구>에서는 경찰서와 지구대, 순찰 지구대(파출소, 치안센터 포함)를 조사대상³⁾으로 하였다.

‘인천’의 경찰서 및 지구대 1개소 당 인구는 30,648명으로 울산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광역시 평균인 23,931명 보다 6,717명 많은 것으로, 이를 통해 인천의 치안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3) 경찰 사무를 총괄하는 경찰청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함

[표 III-1-13] 경찰서 및 지구대 1개소 당 인구

(단위 : 개소, 명)

| | 경찰서 | | 순찰 지구대 | | 합계 | | 1개소 당 인구 | |
|---------|-------|-------|--------|---------------------|-------|-------|----------|--------|
|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⁵⁾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
| 서울 | 31 | 31 | 430 | 146 | 461 | 177 | 22,273 | 57,586 |
| 부산 | 16 | 14 | 181 | 56 | 197 | 70 | 18,020 | 51,249 |
| 인천 | 8 | 9 | 80 | 32 | 88 | 41 | 30,648 | 64,990 |
| 대구 | 9 | 9 | 101 | 37 | 110 | 46 | 22,426 | 54,201 |
| 광주 | 5 | 5 | 47 | 20 | 52 | 25 | 26,938 | 56,538 |
| 대전 | 5 | 5 | 43 | 18 | 48 | 23 | 30,073 | 64,159 |
| 울산 | 5 | 4 | 30 | 12 | 35 | 16 | 31,286 | 68,750 |
| 평균(광역시) | 8 | 7 | 80 | 29 | 88 | 36 | 23,931 | 59,981 |

자료: 각 시, <2010년 통계DB 관내 관공서 및 주요기관>

(2) 5대 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율

범죄 발생 범죄율과 검거율은 지역의 치안상태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본 지표연구에서는 5대 범죄⁵⁾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광역시 가운데 5대 범죄 발생건수는 ‘부산’ (45,272건), ‘대구’ (28,050건), ‘인천’ (26,44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인천’의 범죄 검거율은 80.6%로 ‘대구’ 85.8%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1개소 당 인구수가 비슷한 ‘대전’ 57.0% 및 광역시 평균인 74.2% 보다 높은 결과이다.

4) 단, 2008년 조사는 순찰 지구대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 연도간 수치 차이가 있음

5) 2008년 지표연구의 경우 5대 범죄 분류 기준이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이었으나 2012 지표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의 분류 기준이 강력범(살인, 강도, 강간 포함), 절도범, 폭력범으로 변경되어 연도별 직접 비교에 유의해야 함

[표 III-1-14]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

(단위: 건, %)

| | 발생 건수 | | 검거 건수 | | 검거율 | |
|---------|---------|-----------|--------|-----------|-------|-------|
|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
| 서울 | 124,808 | 107,380 | 92,995 | 70,926 | 74.5 | 87.8 |
| 부산 | 45,272 | 33,282 | 34,285 | 27,318 | 75.7 | 82.1 |
| 인천 | 26,449 | 29,824 | 21,310 | 21,955 | 80.6 | 73.6 |
| 대구 | 28,050 | 25,517 | 24,067 | 20,864 | 85.8 | 81.8 |
| 광주 | 24,367 | 20,620 | 16,916 | 12,862 | 69.4 | 62.4 |
| 대전 | 17,398 | 14,502 | 9,916 | 9,982 | 57.0 | 61.9 |
| 울산 | 15,263 | 16,532 | 9,833 | 8,189 | 64.4 | 49.5 |
| 평균(광역시) | 26,133 | 23,379.50 | 19,388 | 16,861.67 | 74.2 | 68.55 |

자료: 각 시, <2010년 통계DB>(2011)

2. 교육환경

1) 충분성

(1) 교사 1인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지역별 교육 여건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공립·사립 구분 없이 초·중·고등학교를 비교하였으며, 기타 학교, 대학교, 대학원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012년 조사 결과 타 광역시와 비교하여 인천의 초·중·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초·중학교의 경우 2008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23명에서 18명으로, ‘중학교’는 23명에서 19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인천의 중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19명)는 여전히 광역시 평균(18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5] 교사 1인당 학생 수

(단위: 명)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
|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
| 서울 | 18 | 23 | 18 | 20 | 15 | 16 |
| 부산 | 17 | 22 | 17 | 20 | 14 | 15 |
| 인천 | 18 | 23 | 19 | 23 | 14 | 15 |
| 대구 | 18 | 24 | 19 | 21 | 16 | 16 |
| 광주 | 19 | 25 | 19 | 22 | 16 | 16 |
| 대전 | 18 | 23 | 18 | 20 | 15 | 16 |
| 울산 | 18 | 24 | 18 | 21 | 16 | 17 |
| 평균(광역시) | 18 | 23 | 18 | 21 | 15 | 16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서비스>(2011)

(2) 학급 1개당 학생 수

학급 1개당 학생 수는 교육 환경의 질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각급 학교 학생 수 ÷ 각급 학교 수>로 산출하였다.

인천의 학급 1개당 학생 수는 광역시별 비교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학급 1개당 학생 수를 통해 본 교육환경은 2008년 결과와 비교하여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인천의 중학교 학급 1개당 학생수(36명)는 여전히 광역시 평균(34명)보다 높다.

[표 III-1-16] 학급 1개당 학생 수

(단위: 명)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
|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
| 서울 | 27 | 32 | 33 | 36 | 34 | 34 |
| 부산 | 25 | 29 | 32 | 35 | 32 | 33 |
| 인천 | 25 | 30 | 36 | 40 | 32 | 33 |
| 대구 | 26 | 32 | 35 | 37 | 35 | 35 |
| 광주 | 27 | 33 | 36 | 38 | 36 | 35 |
| 대전 | 26 | 32 | 34 | 35 | 34 | 33 |
| 울산 | 26 | 32 | 33 | 36 | 36 | 35 |
| 평균(광역시) | 26 | 31 | 34 | 37 | 34 | 34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서비스>(2011)

3. 행정환경

1) 충분성

(1) 인구 1인당 예산액

지역의 경제적 특성을 볼 수 있는 간접지표로, <총 예산액 ÷ 주민등록인구>로 산출하였다. 인구 1인당 예산액은 광역시 평균 2,481천원이며 ‘인천’은 2,560천원으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조사되었다. 지난 2004년,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인천의 인구 1인당 예산액 규모가 커진 것은 2014 아시안 게임,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 등으로 인한 대규모 시설 투자 비용이 급증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표 Ⅲ-1-17] 인구 1인당 예산액

(단위 : 백만원, 천원)

| | 예산 총액 | | | 1인당 예산액 | | |
|---------|------------|------------|------------|---------|-------|-------|
| | 2012년 | 2008년 | 2004년 | 2012년 | 2008년 | 2004년 |
| 서울 | 22,862,695 | 19,741,423 | 14,160,128 | 2,231 | 1,937 | 1,392 |
| 부산 | 8,707,461 | 6,758,755 | 4,330,609 | 2,452 | 1,884 | 1,173 |
| 인천 | 7,172,022 | 5,293,745 | 3,143,310 | 2,560 | 1,987 | 1,223 |
| 대구 | 5,997,700 | 4,574,240 | 2,814,623 | 2,392 | 1,835 | 1,113 |
| 광주 | 3,847,311 | 2,852,120 | 1,804,996 | 2,629 | 2,018 | 1,293 |
| 대전 | 3,460,953 | 2,583,013 | 1,689,138 | 2,284 | 1,750 | 1,179 |
| 울산 | 2,916,174 | 2,276,861 | 1,385,038 | 2,568 | 2,070 | 1,291 |
| 평균(광역시) | 5,350,270 | 4,056,455 | 2,527,952 | 2,481 | 1,924 | 1,212 |

자료: 행정안전부(재정고), <지방재정통계>(각 년도)

군·구별 1인당 예산액은 ‘용진군’이 9,670천원으로 가장 많고, ‘강화군’ 5,122천원, ‘중구’ 1,987천원, ‘동구’ 1,577천원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강화군과 용진군은 기초자치단체 ‘군’ 지역으로 인구는 적고, 국비 지원이 많다는 특성이 있고, 중구 역시 영종과 용유 지역으로 지원받는 액수가 크다는 특징이 있어 수치만으로 단순비교에는 무리가 있다. 반면 인구 1인당 예산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계양구’ (664천원)와 ‘부평구’ (702천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전 지역의 인구 1인당 예산액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1-18] 군·구별 인구 1인당 예산액

(단위 : 백만원, 천원)

| | 예산 총액 | | | 1인당 예산액 | | |
|-------|---------|---------|---------|---------|-------|-------|
| | 2012년 | 2008년 | 2004년 | 2012년 | 2008년 | 2004년 |
| 중구 | 185,934 | 127,543 | 80,826 | 1,987 | 1,421 | 946 |
| 동구 | 124,125 | 97,875 | 64,832 | 1,577 | 1,321 | 801 |
| 남구 | 307,056 | 215,235 | 122,962 | 735 | 522 | 284 |
| 연수구 | 251,853 | 160,646 | 91,689 | 875 | 598 | 356 |
| 남동구 | 370,286 | 271,284 | 131,614 | 747 | 638 | 335 |
| 부평구 | 394,011 | 292,066 | 161,777 | 702 | 513 | 292 |
| 계양구 | 228,538 | 150,504 | 88,771 | 664 | 439 | 261 |
| 서구 | 337,008 | 240,000 | 127,329 | 773 | 601 | 367 |
| 강화군 | 342,032 | 255,290 | 158,505 | 5,122 | 3,841 | 2,437 |
| 옹진군 | 188,421 | 118,947 | 93,346 | 9,670 | 7,005 | 6,541 |
| 계(평균) | 288,199 | 206,762 | 125,640 | 2,478 | 1,822 | 1,377 |

자료: 행정안전부(재정고), <지방재정통계>(각 년도)

(2) 공무원 1인당 인구수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행정안전부의 『행정자치 통계연보』를 활용하여 <주민등록인구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으로 산출하였다.

1인당 공무원 수는 광역시 가운데 ‘인천’이 215명으로 가장 적었다. 광역시 중에는 ‘대구’가 228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광주’, ‘부산’ 순이었다. 이는 ‘인천’의 인구대비 공무원 수가 타 광역시에 비해 비교적 충분함을 나타낸다. 특히 2004년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244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그동안 행정 공무원이 꾸준히 충원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19] 공무원 1인당 인구수

(단위: 명)

| | 공무원 정원 | | | 공무원 1인당 인구수 | | |
|---------|--------|----------|----------|-------------|-------|-------|
| | 2012년 | 2008년 | 2004년 | 2012년 | 2008년 | 2004년 |
| 부산 | 16,325 | 16,419 | 14,853 | 218 | 218 | 252 |
| 인천 | 13,054 | 12,610 | 10,630 | 215 | 211 | 244 |
| 대구 | 10,999 | 10,948 | 9,897 | 228 | 228 | 257 |
| 광주 | 6,669 | 6,410 | 5,795 | 219 | 221 | 242 |
| 대전 | 6,838 | 6,706 | 5,861 | 222 | 220 | 243 |
| 울산 | 5,265 | 5,197 | 4,337 | 216 | 212 | 247 |
| 평균(광역시) | 9,858 | 9,715.00 | 8,562.17 | 219 | 218 | 248 |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자치통계연보>(2012)

2) 합리성

(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는 재정 수입의 자체 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 징수기반이 좋을 것을 의미한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일반회계세입×100>을 통해 산출한다.

재정자립도 광역시 평균은 59.6%이며 '인천'은 '울산' 71.2%에 이어 두 번째인 71.0%로 조사되었다. 이는 2008년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다른 광역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타 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2008년 대비 대부분 감소하였으며 특히 '대전' (8.1%p), '대구' (6.7%p) 등의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재정자립도는 세외수입만을 고려대상으로 하고 세출은 산출도식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2014 인천아시안게임,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 등으로 인천시가 겪고 있는 재정위기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표 III-1-20] 재정자립도

(단위 : %, %p)

| | 2012년 | 2008년 | 2004년 | 2008년 조사 대비 2012년 증감 |
|---------|-------|-------|-------|----------------------|
| 부산 | 57.4 | 60.5 | 69.5 | ▼3.1 |
| 인천 | 71.0 | 71.0 | 74.2 | - |
| 대구 | 52.8 | 59.5 | 69.0 | ▼6.7 |
| 광주 | 46.6 | 52.6 | 61.5 | ▼6.0 |
| 대전 | 58.3 | 66.4 | 73.5 | ▼8.1 |
| 울산 | 71.2 | 69.9 | 67.1 | △1.3 |
| 평균(광역시) | 59.6 | 63.3 | 69.1 | ▼3.8 |

자료: 통계청, <e-지방지표>(2011)

인천의 군·구별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대부분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상승하였으나 ‘남동구’, ‘강화군’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4.4%p, 2.9%p 감소하였다. 타 지역 대비 ‘중구’ (51.9%), ‘서구’ (45.9%), ‘연수구’ (43.3%) 등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며 ‘강화군’ (13.5%), ‘옹진군’ (18.2%), ‘부평구’ (27.6%), ‘남구’ (28.4%), ‘계양구’ (28.6%) 등의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화군’ 과 ‘옹진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국비 지원에 따른 예산운영 비율이 높은 것을 반증한다.

[표 III-1-21] 군·구별 재정자립도

(단위 : %, %p)

| | 2012년 | 2008년 | 2004년 | 2008년 조사 대비 2012년 증감 |
|-----|-------|-------|-------|----------------------|
| 중구 | 51.9 | 50.0 | 48.7 | △1.9 |
| 동구 | 29.2 | 29.2 | 22.0 | - |
| 남구 | 28.4 | 23.2 | 37.3 | △5.2 |
| 연수구 | 43.3 | 29.2 | 37.2 | △14.1 |
| 남동구 | 40.8 | 45.2 | 36.5 | ▼4.4 |
| 부평구 | 27.6 | 23.2 | 37.8 | △4.4 |
| 계양구 | 28.6 | 23.5 | 42.2 | △5.1 |
| 서구 | 45.9 | 33.4 | 53.0 | △12.5 |
| 강화군 | 13.5 | 16.4 | 21.7 | ▼2.9 |
| 옹진군 | 18.2 | 12.9 | 24.3 | △5.3 |
| 평균 | 32.7 | 28.6 | 36.1 | △4.1 |

자료: 통계청, <e-지방지표>(2011)

(2) 인구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지역 경제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 부담하는 지방세 절대액으로 나타내는 세입 비교분석 자료이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지방세액/주민등록인구×100>로 산출하였다.

‘인천’의 인구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광역시 평균 939천원보다 높은 1,141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인구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 1,178천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광주’ 769천원이다. 인구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많다는 것은 세수 수입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 경제가 활발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표 Ⅲ-1-22] 인구 1인당 지방세 부담액

(단위 : 백만원, 천원, 천원)

| | 지방세 징수액 | | | 인구 1인당 지방세 부담액 | | | 2008년 조사 대비 2012년 증감 |
|---------|------------|------------|-----------|----------------|-------|-------|-------------------------|
| | 2012년 | 2008년 | 2004년 | 2012년 | 2008년 | 2004년 | |
| 서울 | 14,651,931 | 12,565,816 | 9,600,865 | 1,430 | 1,233 | 944 | △197 |
| 부산 | 3,211,569 | 2,550,457 | 2,097,304 | 904 | 711 | 568 | △193 |
| 인천 | 3,196,568 | 2,286,647 | 1,556,292 | 1,141 | 858 | 606 | △283 |
| 대구 | 2,030,962 | 1,702,653 | 1,341,924 | 810 | 683 | 531 | △127 |
| 광주 | 1,125,610 | 899,100 | 673,664 | 769 | 636 | 483 | △133 |
| 대전 | 1,275,857 | 1,038,155 | 799,760 | 842 | 704 | 558 | △138 |
| 울산 | 1,337,779 | 1,006,585 | 680,393 | 1,178 | 915 | 634 | △263 |
| 평균(광역시) | 2,029,724 | 1,580,599 | 1,191,556 | 939 | 745 | 563 | △194 |

자료: 행정안전부(재정고), <지방예산지표>(각년도)

인천 군·구별로 살펴보면 인구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가장 높은 곳은 ‘중구’로 646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06년 대비 359천원 증가한 것으로 인천시 군·구 가운데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용진군’ 454천원, ‘강화군’ 388천원 등이며 2008년 조사와 비교하여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중구’와 ‘연수구’가 각각 359천원, 209천원, ‘서구’ 160천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1-23] 군·구별 인구 1인당 지방세 부담액

(단위 : 백만원, 천원, 천원)

| | 지방세 징수액 | | | 인구 1인당 지방세 부담액 | | | 2008년 조사 대비 2012년 증감 |
|-------|-----------|-----------|-----------|----------------|-------|-------|-------------------------|
| | 2012년 | 2008년 | 2004년 | 2012년 | 2008년 | 2004년 | |
| 중구 | 71,248 | 28,286 | 25,947 | 761 | 315 | 304 | 446 |
| 동구 | 14,833 | 6,575 | 5,632 | 188 | 89 | 70 | 99 |
| 남구 | 53,958 | 24,444 | 18,640 | 129 | 59 | 43 | 70 |
| 연수구 | 78,608 | 23,054 | 14,236 | 273 | 86 | 55 | 187 |
| 남동구 | 94,130 | 42,578 | 23,709 | 190 | 100 | 60 | 90 |
| 부평구 | 68,065 | 32,613 | 22,205 | 121 | 57 | 40 | 64 |
| 계양구 | 39,562 | 17,635 | 12,090 | 115 | 51 | 36 | 64 |
| 서구 | 113,887 | 45,127 | 32,424 | 261 | 113 | 93 | 148 |
| 강화군 | 25,728 | 23,424 | 10,700 | 385 | 352 | 165 | 33 |
| 옹진군 | 10,000 | 6,443 | 4,015 | 513 | 379 | 281 | 134 |
| 인천시평균 | 3,196,568 | 2,286,647 | 1,556,292 | 1,141 | 858 | 606 | 283 |

자료: 행정안전부(재정고), <지방예산지표>(2011)

4. 경제환경

1) 안정성

(1) 인구증가율

인구증가율은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간접지표로 자연증가인구(출생-사망)를 총인구로 나눈 자연증가율과 전입·전출에 따른 사회증가인구(전입-전출)를 총인구로 나눈 사회증가율의 합으로 산출한다.

‘인천’의 자연증가율은 0.49%로 ‘울산’ (0.62%), ‘대전’ (0.56%), ‘광주’ (0.50%)에 이어 네 번째로 조사되었다. 인구 유동성을 나타내는 사회증가율은 1.03%로 조사되어 자연증가율 보다는 전입에 따른 인구 유입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인구증가율은 1.51%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1-24] 인구증가율

(단위 : %)

| | 자연증가율 | | | 사회증가율 | | | 인구증가율 | | |
|---------|-------|-------|-------|-------|-------|-------|-------|-------|-------|
| | 2012년 | 2008년 | 2004년 | 2012년 | 2008년 | 2004년 | 2012년 | 2008년 | 2004년 |
| 서울 | 0.50 | 0.60 | 6.10 | -1.10 | -0.05 | -0.04 | -0.60 | 0.55 | 6.06 |
| 부산 | 0.23 | 0.26 | 3.20 | -0.70 | -0.09 | -0.05 | -0.47 | 0.17 | 3.15 |
| 인천 | 0.49 | 0.44 | 6.20 | 1.03 | -0.06 | -0.06 | 1.51 | 0.38 | 6.14 |
| 대구 | 0.34 | 0.57 | 5.00 | -0.51 | -0.04 | -0.20 | -0.17 | 0.53 | 4.80 |
| 광주 | 0.50 | 0.61 | 7.20 | 0.09 | 0.02 | 0.01 | 0.59 | 0.63 | 7.21 |
| 대전 | 0.56 | 0.66 | 6.90 | 0.22 | -0.03 | -0.01 | 0.78 | 0.63 | 6.89 |
| 울산 | 0.62 | 0.71 | 7.20 | 0.16 | 0.05 | 0.00 | 0.79 | 0.76 | 7.20 |
| 평균(광역시) | 0.41 | 0.54 | 5.95 | -0.02 | -0.03 | -0.05 | 0.39 | 0.52 | 5.90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2011)

(2) 주간인구지수

주간인구비율을 뜻하는 주간인구지수는 인구 공동화 현상을 설명하는 지표로 통학, 근무 등으로 특정 지역 내에 주간에만 현존하는 인구를 의미한다. 주간인구지수가 100 이상이면 상주인구보다 주간에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간인구지수는 <주간인구 수 ÷ 상주인구 수 × 100>으로 산출하며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자료로 활용하여 부득이하게 2010년 기준 주간인구 지수를 파악하였다. 2008년 조사와 2004년 조사 역시 각각 2005년,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주간인구지수가 100이 넘는 곳은 ‘서울’ (109)과 ‘울산’ (101) 단 두 도시 뿐이었으며 ‘부산’ (98), ‘대전’ (98), ‘광주’ (97) 등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인천’의 경우 주간인구지수 95로 2008년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는 인천에서 통학 및 근무를 위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이에 따른 유동인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Ⅲ-1-25] 주간인구지수

| | 2012년 | 2008년 | 2004년 |
|---------|-------|-------|-------|
| 서울 | 109 | 106 | 105 |
| 부산 | 98 | 98 | 98 |
| 인천 | 95 | 95 | 95 |
| 대구 | 95 | 96 | 97 |
| 광주 | 97 | 97 | 98 |
| 대전 | 98 | 98 | 99 |
| 울산 | 101 | 101 | 101 |
| 평균(광역시) | 98 | 97.5 | 98.0 |

자료: 통계청, <2011 한국의 사회지표-지역별 주간인구>(2012)

인천시 군·구의 주간인구지수는 ‘중구’ (163), ‘옹진군’ (110), ‘강화군’ (106), ‘동구’ (105), ‘남동구’ (100) 등으로 조사되었다. ‘옹진군’ 과 ‘강화군’ 은 관광객 유입에 따른 영향으로, ‘중구’ 와 ‘동구’ 는 인근 관광지와 항만 등으로 인한 주간 유입인구와 유동인구가 많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또한 ‘남동구’ 는 인근 지역의 백화점, 쇼핑 상가 등이 밀집해 있는 것이 주간인구지수가 높은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주간인구지수가 100 미만인 지역 가운데 특히 ‘계양구’ 의 주간인구지수는 87로 인천시 군·구 가운데 가장 낮다. 이는 ‘계양구’ 에 서울 및 인근지역으로 출·퇴근 및 통학하는 인구가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Ⅲ-1-26] 군·구별 주간인구지수

| | 2012년 | 2008년 | 2004년 |
|-----|-------|-------|-------|
| 중구 | 163 | 171 | 145 |
| 동구 | 105 | 112 | 115 |
| 남구 | 93 | 96 | 101 |
| 연수구 | 91 | 82 | 78 |
| 남동구 | 100 | 106 | 98 |
| 부평구 | 90 | 85 | 89 |
| 계양구 | 87 | 85 | 86 |
| 서구 | 98 | 95 | 96 |
| 강화군 | 106 | 105 | 104 |
| 옹진군 | 110 | 109 | 109 |
| 평균 | 104 | 104 | 102 |

자료: 인천시, <2011 인천통계연보>(2012)

(3) 경제활동 인구 비율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의미⁶⁾한다. 여기서 취업자란 수익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를 의미한다.

현재 광역시 평균 경제활동참가율은 60.4%로 2008년의 48.8% 대비 11.6%p 상승하였다. ‘인천’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4.9%로 전체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천 다음으로 ‘서울’ 62.9%, ‘울산’ 61.4%, ‘대구’ 60.4% 등의 순이었다. 지난 조사결과 대비 모든 광역시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였으나 특히 ‘인천’의 증가율은 14.1%p로 가장 높다.

[표 Ⅲ-1-27] 경제활동인구 비율

(단위 : 천명, %, %p)

| | 경제활동인구 | | | 경제활동참가율 | | | 2008년 대비 2012년 증감 |
|---------|--------|-------|-------|---------|-------|-------|----------------------|
| | 2012년 | 2008년 | 2004년 | 2012년 | 2008년 | 2004년 | |
| 서울 | 5,293 | 5,158 | 5,056 | 62.9 | 50.7 | 49.2 | △12.2 |
| 부산 | 1,686 | 1,688 | 1,694 | 57.8 | 46.3 | 45.2 | △11.5 |
| 인천 | 1,488 | 1,321 | 1,251 | 64.9 | 50.8 | 48.2 | △14.1 |
| 대구 | 1,249 | 1,190 | 1,226 | 60.4 | 47.3 | 48.3 | △13.1 |
| 광주 | 706 | 671 | 630 | 58.3 | 47.8 | 45.0 | △10.5 |
| 대전 | 746 | 727 | 679 | 59.4 | 50.0 | 47.7 | △9.4 |
| 울산 | 566 | 552 | 508 | 61.4 | 50.7 | 47.5 | △10.7 |
| 평균(광역시) | 1,074 | 1,025 | 998 | 60.4 | 48.8 | 47.0 | △11.6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2.04)

2) 활동성

(1) 취업률

취업률은 각 지역의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취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취업자 수 ÷ 경제활동인구 × 100>으로 산출한다.

2012년 지표조사 결과 광역시 평균 취업률은 96.3%였으며 ‘울산’ 97.2%, ‘광주’ 97.1% 등

6)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의 순이었다. 반면 ‘인천’의 취업률은 95.3%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인천’의 경제활동인구가 ‘부산’ 1,686천명 다음으로 많은 1,488천명인 것에 반해 실제 취업률이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게 조사된 것은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실업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I-1-28] 취업률

(단위 : 천명, %)

| | 취업자 | | | 경제활동인구 | | | 취업률 | | |
|---------|-------|-------|-------|--------|-------|-------|-------|-------|-------|
| | 2012년 | 2008년 | 2004년 | 2012년 | 2008년 | 2004년 | 2012년 | 2008년 | 2004년 |
| 서울 | 5,061 | 4,961 | 4,753 | 5,293 | 5,158 | 5,056 | 95.6 | 96.1 | 94.1 |
| 부산 | 1,619 | 1,621 | 1,610 | 1,686 | 1,688 | 1,694 | 96.0 | 96.0 | 98.9 |
| 인천 | 1,418 | 1,270 | 1,179 | 1,488 | 1,321 | 1,251 | 95.3 | 96.1 | 97.1 |
| 대구 | 1,203 | 1,146 | 1,144 | 1,249 | 1,190 | 1,226 | 96.3 | 96.3 | 92.2 |
| 광주 | 685 | 644 | 591 | 706 | 671 | 630 | 97.1 | 95.9 | 97.0 |
| 대전 | 717 | 701 | 639 | 746 | 727 | 679 | 96.0 | 96.4 | 94.7 |
| 울산 | 550 | 531 | 476 | 566 | 552 | 508 | 97.2 | 96.1 | 94.5 |
| 평균(광역시) | 1,032 | 985 | 939 | 1,074 | 1,025 | 998 | 96.3 | 96.1 | 95.7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2.04)

(2) 경제활동인구 대비 총 생산액

지역의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지역 내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 총 합을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인천’의 경제활동인구 대비 총 생산액은 40.9백만원으로 ‘부산’ (36.5백만원), ‘울산’ (107백만원) 다음으로 많다. 그러나 인천의 경제활동 인구가 울산 대비 월등히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총생산액은 울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대규모 공업단지가 조성된 울산에 비해 중소기업 위주의 인천 기업 환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주간인구지수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인천 시민의 경우 인근 지역인 서울 등으로 출퇴근 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 내 총생산액의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III-1-29] 경제활동인구 대비 총 생산액

(단위 : 백만원, 천명, 백만원)

| 시도별 | 지역 내 총 생산액 | 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인구 1인당 총 생산액 | | |
|---------|---------------|--------|------------------|-------|-------|
| | | | 2012년 | 2008년 | 2004년 |
| 서울 | 271,649,357 | 5,180 | 52.4 | 37.4 | 25.3 |
| 부산 | 59,531,015 | 1,633 | 36.5 | 28.4 | 20.9 |
| 인천 | 56,856,925 | 1,390 | 40.9 | 31.1 | 22.7 |
| 대구 | 35,631,907 | 1,218 | 29.3 | 23.5 | 16.6 |
| 광주 | 25,140,087 | 688 | 36.5 | 28.5 | 20.9 |
| 대전 | 26,412,681 | 728 | 36.3 | 26.8 | 20.8 |
| 울산 | 59,159,552 | 553 | 107.0 | 75.2 | 55.9 |
| 평균(광역시) | 43,788,694.5 | 1,035 | 42.3 | 35.6 | 26.2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2010)

제2절 문화환경

문화환경은 개인의 문화적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적, 사회적 여건을 의미한다. 본 지표연구에서는 문화환경의 관심영역을 문화시설, 문화행정, 문화예술지원, 문화예술교육으로 설정하였다. 각 관심영역은 문화시설의 ‘충분성’, ‘활용도’, 문화행정의 ‘충분성’, 문화예술지원의 ‘다양성’, 문화예술교육의 ‘다양성’으로 설계하고 분석하였다. <2008 인천문화지표 조사연구> 지표항목과 비교하여 문화예술교육 영역을 새롭게 설계, 문화예술교육 공공기관별 강좌 및 공공기관 문화예술 내용별 강좌 평가지표를 추가하였다.

[표 Ⅲ-2-1] 문화환경 지표항목

| 영역 | 관심영역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조사범위 | 비고 |
|------------|------------|------------------|------------------------|----------------|-----|
| 문화 환경 | 문화시설 | 충분성 | 공연, 전시, 도서관 | 시설유형별 1개소 당 인구 | ○ ● |
| | | | | 유형별 시설 증가율 | ○ |
| | | | | 군구별 시설분포 | ● |
| | | 활용도 | 지역 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 및 전수시설 | 시설 현황 | ◎ |
| | | | | 시설유형별 가동률 | ○ ◎ |
| | | | 시설유형별 이용자 수 | ○ | |
| | 문화행정 | 충분성 | 문화행정인력 | ○ | |
| | | | 문화담당 조직 및 인력 수 | ○ | |
| | | | 문화예술예산 비율 | ○ ● | |
| | | | 부문별 문화예술예산 비율 | ◎ | |
| | 문화예술 지원 | 다양성 | 지원기관별 문화예술지원 규모 | ◎ | |
| | | | 지원분야별 문화예술지원 규모 | ◎ | |
| | | | 지원장르별 문화예술지원 규모 | ◎ | |
| 문화예술 교육 | 다양성 | 문화예술교육 공공기관별 강좌 | ◎ | | |
| | | 공공기관 문화예술 내용별 강좌 | ◎ | | |

※ ○ : 광역시간 비교 / ● : 군·구간 비교 / ◎ : 인천

1. 문화시설

1) 충분성

문화시설은 지역민의 문화예술 활동 및 교육 등을 위한 공간적 조건으로 볼 수 있다. 문화시설의 개념은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으나 본 조사연구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연, 전시, 도서관, 기타 시설로 구분하였다. 영화상영관은 수익창출을 주 목적으로 하는 기업형 시설 비중이 높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Ⅲ-2-2] 문화시설의 종류

| 문화시설 | | 시설분류 | 비고 |
|-----------|------------|----------------------------|-----------|
| 공연시설 | | 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소공연장 | 문화예술회관 포함 |
| 전시시설 | | 박물관, 미술관 | |
| 도서관(도서시설) | | 공공도서관(지자체·교육청) | |
| 기타 | 지역문화복지시설 | 문화의집, 복지회관,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회관) | |
| | 문화 보급·전수시설 |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 |

자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 공연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구분에 따라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을 종합공연장으로,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을 일반공연장으로,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을 소공연장으로 분류하였다.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10 전국등록공연장현황」(2011)을 활용하였으며 공연시설 구분에 있어 영화상영관은 제외하였다.

○ 전시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구분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분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201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2012)을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분류에 따라 운영 주체별로 국립·공립·사립으로 분류하였다.

○ 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으로 규정하고 각 광역·기초 자치단체와의 시설 간 비교를 위해 공공도서관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도서관 구분은 운영 주체별로 지자체·교육청·사립으로 분류하였다.

○ 기타

기타 문화시설로는 지역문화복지시설과 문화 보급·전수시설로 구분하고 시설 현황 파악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구분에 따라 문화의집, 복지회관,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회관)이 해당되며 청소년활동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으로 구분되나 조사대상이 광범위하고 군·구간 비교를 위해 ‘청소년회관’만으로 조사대상을 제한하였다.

- 문화 보급·전수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구분에 따라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으로 등이 해당되며 각 군·구별 현황 파악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1) 주요시설 현황

광역시별 주요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은 등록공연장 총 29개소로 ‘부산’ 40개소, ‘대구’ 35개소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시시설의 경우 총 27개소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고, 2008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시시설이 증가한 이유는 ‘테마박물관 조성사업’에 따라 박물관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표 III-2-3] 주요시설 현황

(단위 : 개소)

| | 등록공연장 | | | 전시시설 | | | 공공도서관 | | |
|----|-------|-------|-------|-------|-------|-------|-------|-------|-------|
| | 2012년 | 2008년 | 2004년 | 2012년 | 2008년 | 2004년 | 2012년 | 2008년 | 2004년 |
| 서울 | 189 | 164 | 135 | 137 | 115 | 96 | 101 | 69 | 40 |
| 부산 | 40 | 23 | 28 | 16 | 13 | 9 | 30 | 27 | 23 |
| 인천 | 29 | 25 | 13 | 27 | 12 | 6 | 26 | 16 | 11 |
| 대구 | 35 | 28 | 28 | 11 | 8 | 6 | 26 | 16 | 12 |
| 광주 | 23 | 16 | 16 | 14 | 10 | 9 | 16 | 13 | 12 |
| 대전 | 14 | 18 | 16 | 19 | 19 | 15 | 22 | 16 | 13 |
| 울산 | 4 | 11 | 11 | 7 | 2 | 1 | 11 | 8 | 4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0 전국등록공연장 현황>(2011), <201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2012)

군·구별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공연장의 경우 '중구'가 7개소로 가장 많았고, '남동구'와 '서구'가 각각 5개소, '남구'가 4개소로 조사되었다. 전시시설의 경우 '중구'와 '남구', '강화군'이 각각 5개소로 가장 많은 반면, '계양구'와 '옹진군'은 전시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공도서관⁷⁾의 경우 '남구'가 7개소로 가장 많고, '계양구'와 '서구'가 각각 4개소, '부평구' 3개소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7) 본 조사연구는 광역시 및 인천시 군·구별 비교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201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2012)을 기준으로 작성됨. 그러나 이 통계자료는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2012년 현재 지역별 공공도서관 개수와 차이가 있음. 이는 인천시가 지난 2010년 <2014 비전과 실천전략>을 통해 '문화인프라 확충을 통한 문화공간 확대'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책 읽는 도시 만들기' 사업을 수행한 결과 2010년 이후 공공도서관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임. 이에 해당 공공도서관(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제외)에 한하여 군·구별 공공도서관 현황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다만, 본문에서는 광역시 별 비교 및 4년 주기의 조사연구를 통한 시계열 분석을 고려하여 <201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증가한 시설은 반영되지 않음. 2012년 현재 인천시 10개 군·구 가운데 공공도서관이 가장 많은 곳은 '남구'로 총 13개소가 있고, '부평구' 7개소, '남동구' 5개소, '연수구'와 '중구'가 각각 3개소, '동구', '강화군', '옹진군' 각각 2개소로 조사됨.

[표] 인천시 군·구별 공공도서관 현황(2012년 기준)

(단위 : 개소)

| 지역 | 중구 | 동구 | 남구 | 연수구 | 남동구 | 부평구 | 계양구 | 서구 | 강화군 | 옹진군 | 계 |
|----|----|----|----|-----|-----|-----|-----|----|-----|-----|----|
| 개소 | 3 | 2 | 13 | 3 | 5 | 7 | 5 | 5 | 2 | 2 | 47 |

[표 III-2-4] 군·구별 주요시설 현황

(단위 : 개소)

| | 등록공연장 | | | 전시시설 | | | 공공도서관 | | |
|-----|-------|-------|-------|-------|-------|-------|-------|-------|-------|
| | 2012년 | 2008년 | 2004년 | 2012년 | 2008년 | 2004년 | 2012년 | 2008년 | 2004년 |
| 중구 | 7 | 5 | 2 | 5 | 1 | 0 | 1 | 1 | 1 |
| 동구 | 1 | 1 | 1 | 1 | 1 | 0 | 1 | 1 | 1 |
| 남구 | 4 | 3 | 2 | 5 | 3 | 3 | 7 | 2 | 1 |
| 연수구 | 1 | 0 | 0 | 4 | 3 | 3 | 2 | 2 | 1 |
| 남동구 | 5 | 6 | 3 | 2 | 0 | 0 | 2 | 1 | 1 |
| 부평구 | 2 | 1 | - | 3 | 2 | 0 | 3 | 3 | 2 |
| 계양구 | 3 | 3 | 2 | 0 | 0 | 0 | 4 | 1 | 1 |
| 서구 | 5 | 5 | 2 | 2 | 0 | 0 | 4 | 3 | 1 |
| 강화군 | 1 | 1 | 1 | 5 | 3 | 2 | 1 | 1 | 1 |
| 옹진군 | 0 | 0 | 0 | 0 | 0 | 0 | 1 | 1 | 1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0 등록공연장현황>(2011), <201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2012)

① 공연시설

○ 공연장 1개소 당 인구수

등록 공연장 수는 ‘인천’이 전체 29개소로 ‘부산’ 40개소, ‘대구’ 35개소에 이어 광역시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지역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공연장 1개소 당 인구수는 95,114명으로 ‘울산’ (281,575명), ‘대전’ (107,405명) 다음으로 많다. 2004년,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인천에 많은 공연장이 설립되었으나 타 광역시와 비교하여 여전히 인구 대비 공연장 수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인근 지역인 ‘서울’ (189개소)과 비교하여 시설유형별 1개소 당 인구수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인천 시민들이 서울에서 문화소비를 하게 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기존 시설의 효율적 활용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표 Ⅲ-2-5] 공연장 1개소 당 인구수

(단위 : 개소, 명)

| | 등록공연장 | | | 공연장 1개소 당 인구수 | | |
|---------|-------|-------|-------|---------------|---------|---------|
| | 2012년 | 2008년 | 2004년 | 2012년 | 2008년 | 2004년 |
| 서울 | 189 | 164 | 135 | 54,564 | 62,080 | 76,152 |
| 부산 | 40 | 23 | 28 | 89,198 | 157,043 | 133,835 |
| 인천 | 29 | 25 | 13 | 95,114 | 104,976 | 199,700 |
| 대구 | 35 | 28 | 28 | 71,762 | 89,147 | 90,737 |
| 광주 | 23 | 16 | 16 | 63,245 | 87,987 | 87,595 |
| 대전 | 14 | 18 | 16 | 107,405 | 81,453 | 89,053 |
| 울산 | 4 | 11 | 11 | 281,575 | 99,318 | 97,298 |
| 평균(광역시) | 24 | 20 | 18.67 | 89,121 | 103,321 | 116,370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0 전국등록공연장 현황>(2011)

군·구별로 살펴보면 공연장이 가장 많은 곳은 '중구'로 전체 7개소의 공연장을 보유하고 있다. 다음은 '남동구'와 '서구' 각각 5개소, '남구' 4개소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공연장 1개소 당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등록공연장 수가 가장 많은 '중구' (13,270명)이며 다음으로 '강화군' (67,104명), '동구' (79,663명), '서구' (81,614명) 등의 순이다. 그러나 '강화군'과 '동구'의 공연장 1개소 당 인구수가 적은 것은 공연장이 많아서라기보다 지역 인구수가 적은 데에서 기인하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Ⅲ-2-6] 군·구별 공연장 1개소 당 인구수

(단위 : 개소, 명)

| | 등록공연장 | | | 공연장 1개소 당 인구수 | | |
|-----|-------|-------|-------|---------------|---------|---------|
| | 2012년 | 2008년 | 2004년 | 2012년 | 2008년 | 2004년 |
| 중구 | 7 | 5 | 2 | 13,270 | 18,383 | 40,126 |
| 동구 | 1 | 1 | 1 | 79,663 | 75,699 | 75,215 |
| 남구 | 4 | 3 | 2 | 105,969 | 138,891 | 217,465 |
| 연수구 | 1 | 0 | 0 | 279,230 | 0 | 0 |
| 남동구 | 5 | 6 | 3 | 94,685 | 65,007 | 136,512 |
| 부평구 | 2 | 1 | 0 | 283,747 | 570,283 | 0 |
| 계양구 | 3 | 3 | 2 | 115,937 | 114,112 | 171,092 |
| 서구 | 5 | 5 | 2 | 81,614 | 76,886 | 176,720 |
| 강화군 | 1 | 1 | 1 | 67,104 | 65,510 | 65,876 |
| 옹진군 | 0 | 0 | 0 | 0 | 0 | 0 |
| 평균 | 3.2 | 2.5 | 1.3 | 85,602 | 140,596 | 88,3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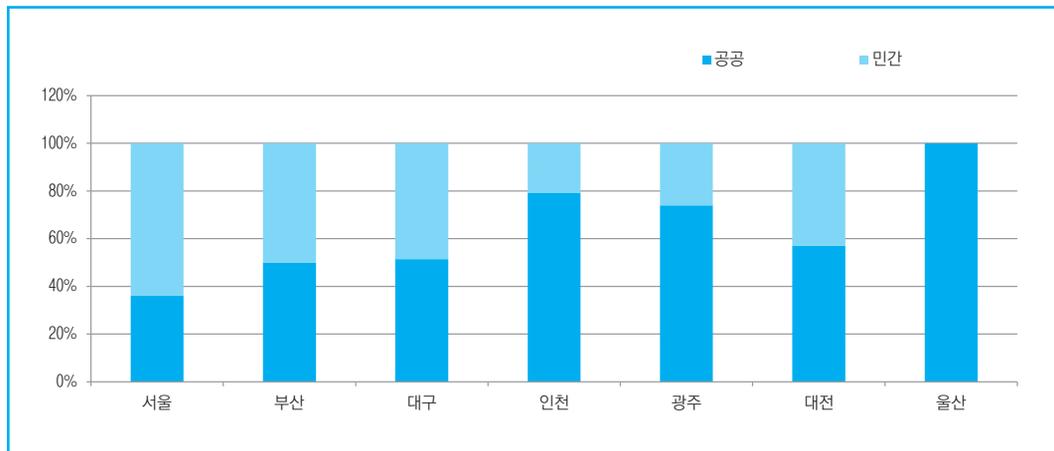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0 전국등록공연장 현황>(2011)

○ 운영주체별 공연장 비율

공연장을 운영하는 공연주체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여 그 비율을 살펴보면, 공공운영 공연장 비율은 ‘인천’이 79.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광주’ 73.9%, ‘대전’ 5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민간운영 공연장 비율(64.0%)이 공공운영 공연장 비율(36.0%)보다 높았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연장이 많다는 것은 등록공연장 가운데 문예회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거나 공공기관 내에 설치된 공연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Ⅲ-2-1] 운영주체별 공연장 비율

(단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0 전국등록공연장현황>(2011)

[표 III-2-7] 운영주체별 공연장 비율

(단위 : 개소, %)

| | 전체 공연장 수 | | 공공 | | 민간 | |
|----|----------|--------|--------|-------|-------|-------|
|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
| 서울 | 189 | 164 | 68 | 56 | 121 | 108 |
| | 100.0% | 100.0% | 36.0% | 34.1% | 64.0% | 65.9% |
| 부산 | 40 | 23 | 20 | 15 | 20 | 8 |
| | 100.0% | 100.0% | 50.0% | 65.2% | 50.0% | 34.8% |
| 인천 | 29 | 25 | 23 | 21 | 6 | 4 |
| | 100.0% | 100.0% | 79.3% | 84.0% | 20.7% | 16.0% |
| 대구 | 35 | 28 | 18 | 18 | 17 | 10 |
| | 100.0% | 100.0% | 51.4% | 64.3% | 48.6% | 35.7% |
| 광주 | 23 | 16 | 17 | 14 | 6 | 2 |
| | 100.0% | 100.0% | 73.9% | 87.5% | 26.1% | 12.5% |
| 대전 | 14 | 18 | 8 | 8 | 6 | 10 |
| | 100.0% | 100.0% | 57.1% | 44.4% | 42.9% | 55.6% |
| 울산 | 4 | 11 | 4 | 4 | 0 | 7 |
| | 100.0% | 100.0% | 100.0% | 36.4% | 0 | 63.6% |
| 평균 | - | - | 47.3% | 63.6% | 52.7% | 36.4%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0 전국등록공연장 현황>(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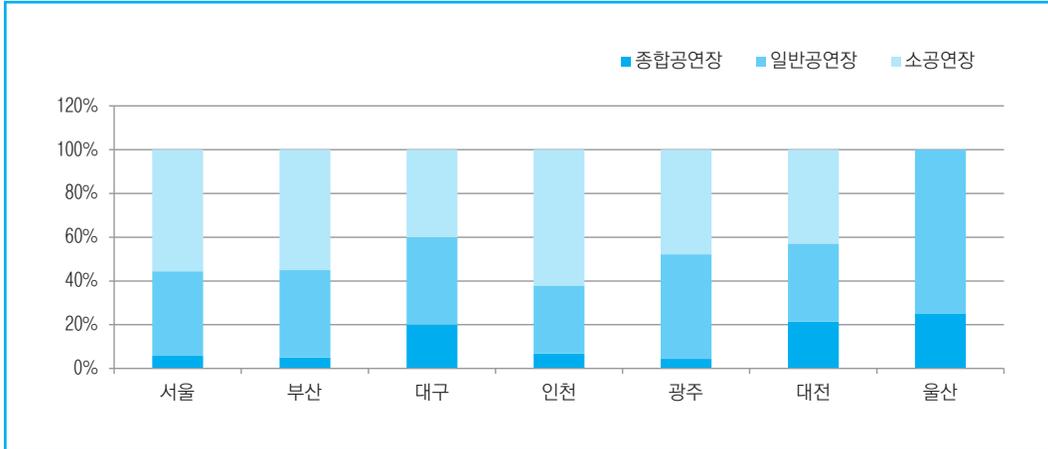
○ 규모별 공연장 비율

공연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구분에 따라 객석 규모별⁸⁾로 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소 공연장으로 구분하였다. 광역시 가운데 공연장이 가장 많은 곳은 ‘부산’ 40개소, ‘대구’ 35개소로 조사되었고, 특히 부산의 경우 전체 40개소 공연장 가운데 소공연장이 22개소로 소 공연장 중심으로 공연장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천’의 경우 전체 29개 공연장 가운데 소공연장이 18개소로 소공연장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인천’ (29개소)의 공연장 수는 광역시 평균보다는 많았지만 인근 지역인 ‘서울’ (189개소)과 큰 차이를 보였다.

8) 종합공연장 :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일반공연장 : 1천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소공연장 :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그림 III-2-2] 규모별 공연장 비율

(단위: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0 전국등록공연장 현황>(2011)

[표 III-2-8] 규모별 공연장 비율

(단위 : 개소, %)

| | 공연장 수 | | 종합공연장 | | 일반공연장 | | 소공연장 | |
|----|--------|-------|-------|-------|-------|-------|-------|-------|
|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
| 서울 | 189 | 164 | 11 | 13 | 73 | 59 | 105 | 92 |
| | 100.0% | | 5.8% | 7.9% | 38.6% | 36.0% | 55.6% | 56.1% |
| 부산 | 40 | 23 | 2 | 2 | 16 | 7 | 22 | 14 |
| | 100.0% | | 5.0% | 8.7% | 40.0% | 30.4% | 55.0% | 60.9% |
| 인천 | 29 | 25 | 2 | 1 | 9 | 8 | 18 | 16 |
| | 100.0% | | 6.9% | 4.0% | 31.0% | 32.0% | 62.1% | 64.0% |
| 대구 | 35 | 28 | 7 | 6 | 14 | 9 | 14 | 13 |
| | 100.0% | | 20.0% | 21.4% | 40.0% | 32.1% | 40.0% | 46.4% |
| 광주 | 23 | 16 | 1 | 1 | 11 | 9 | 11 | 6 |
| | 100.0% | | 4.3% | 6.3% | 47.8% | 56.3% | 47.8% | 37.5% |
| 대전 | 14 | 18 | 3 | 3 | 5 | 9 | 6 | 6 |
| | 100.0% | | 21.4% | 16.7% | 35.7% | 50.0% | 42.9% | 33.3% |
| 울산 | 4 | 11 | 1 | 1 | 3 | 8 | 0 | 2 |
| | 100.0% | | 25.0% | 9.1% | 75.0% | 72.7% | 0.0% | 18.2% |
| 평균 | - | | 8.1% | 11.6% | 39.2% | 15.0% | 52.7% | 47.1%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0 전국등록공연장 현황>(2011)

② 전시시설

○ 전시시설 1개소 당 인구수

전시시설 수는 광역시 가운데 ‘인천’이 27개소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전’ (19개소), ‘부산’ (16개소)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인천은 2008년 12개소였던 것과 비교하여 전체 전시시설 수가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전시시설 1개소 당 인구수 역시 102,159명으로 광역시 평균 149,572명 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2-9] 전시시설 1개소 당 인구

(단위 : 개소, 명)

| | 전시시설 수(개소) | | | 전시시설 1개소 당 인구수(명) | | |
|---------|------------|-------|-------|-------------------|---------|-----------|
| | 2012년 | 2008년 | 2004년 | 2012년 | 2008년 | 2004년 |
| 서울 | 137 | 115 | 96 | 75,274 | 88,632 | 107,089 |
| 부산 | 16 | 13 | 9 | 222,994 | 275,957 | 416,374 |
| 인천 | 27 | 12 | 6 | 102,159 | 222,048 | 432,684 |
| 대구 | 11 | 8 | 6 | 228,334 | 311,658 | 423,441 |
| 광주 | 14 | 10 | 9 | 103,903 | 141,344 | 155,725 |
| 대전 | 19 | 19 | 15 | 79,140 | 77,666 | 94,990 |
| 울산 | 7 | 2 | 1 | 160,900 | 549,998 | 1,070,277 |
| 평균(광역시) | 15.7 | 10.7 | 7.7 | 149,572 | 263,112 | 432,249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2012)

○ 유형별 전시시설 수⁹⁾

전시시설을 유형별로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나누어 보면 ‘인천’의 박물관은 22개소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았으나 미술관은 5개소로 상대적으로 열악하였다.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인천의 박물관 수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인천시가 지난 2003년 9월 확정된 ‘테마박물관 조성 및 박물관 활성화 계획’에 따라 설립, 완공된 박물관이 늘었기 때문이다. 2008년 이후 한국이민사박물관, 경서동녹청지도요지사료관, 인천개항박물관, 강화역사박물관, 짜장면 박물관 등이 차례로 개관하였다. 반면 미술관은 2008년 3개소에서 2개소 증가한 총 5개소로 박물관 확충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술관 확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인

9) 연수구에 위치한 송도디오아트센터는 2010년 10월 일자로 휴관함

천에 있는 공립미술관은 송암미술관과 시립미술관 기능을 대체하고 있는 인천아트플랫폼 두 곳 뿐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표 Ⅲ-2-10] 유형별 전시시설 수

(단위 : 개소)

| | 박물관 수 | | | 미술관 수 | | | 총 전시시설 수 | | |
|----|-------|-------|-------|-------|-------|-------|----------|-------|-------|
| | 2012년 | 2008년 | 2004년 | 2012년 | 2008년 | 2004년 | 2012년 | 2008년 | 2004년 |
| 서울 | 105 | 85 | 73 | 32 | 30 | 23 | 137 | 115 | 96 |
| 부산 | 12 | 10 | 6 | 4 | 3 | 3 | 16 | 13 | 9 |
| 인천 | 22 | 10 | 5 | 5 | 3 | 3 | 27 | 13 | 8 |
| 대구 | 9 | 8 | 6 | 2 | 0 | 0 | 11 | 8 | 6 |
| 광주 | 8 | 6 | 6 | 6 | 4 | 3 | 14 | 10 | 9 |
| 대전 | 15 | 15 | 13 | 4 | 4 | 2 | 19 | 19 | 15 |
| 울산 | 7 | 2 | 1 | 0 | 0 | 0 | 7 | 2 | 1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2012)

군·구별로는 ‘중구’와 ‘남구’, ‘강화군’에 위치한 전시시설이 각각 5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동구’의 경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전시시설이 전시시설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통계상 전시시설이 2개소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개항박물관과 2012년 짜장면박물관이 차례로 개관하면서 ‘중구’에 위치한 박물관은 총 3개소로 인천지역 가운데 가장 많았으며, 미술관이 2개소인 ‘강화군’이 인천에서 미술관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2-11] 군·구별 전시시설 수 및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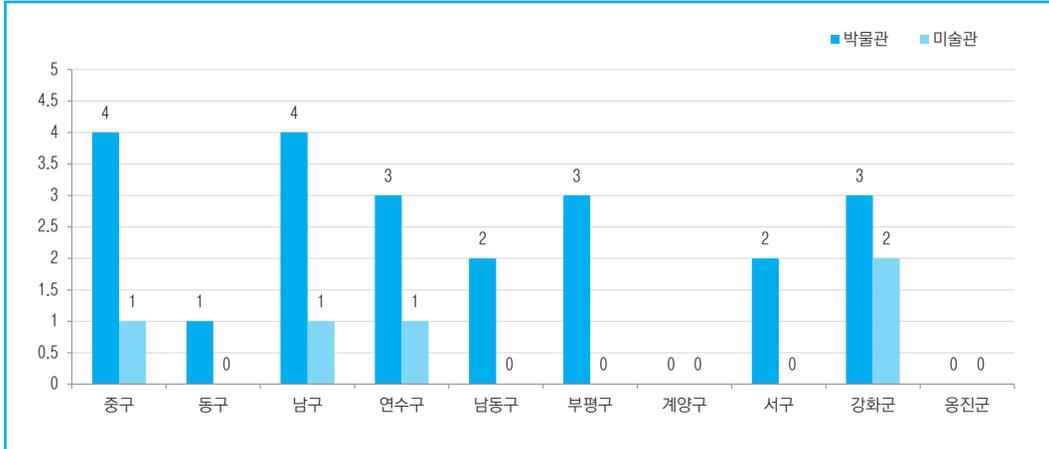
(단위 : 개소, m²)

| | 전시시설 수 | | | 총 전시면적 | | | 1개소 당 전시면적 | | |
|-----|--------|-------|-------|--------|-------|-------|------------|-------|-------|
| | 2012년 | 2008년 | 2004년 | 2012년 | 2008년 | 2004년 | 2012년 | 2008년 | 2004년 |
| 중구 | 5 | 1 | 0 | 3,186 | 225 | 0 | 679 | 225 | 0 |
| 동구 | 1 | 1 | 0 | 728 | 2,045 | 0 | 728 | 2,045 | 0 |
| 남구 | 5 | 3 | 3 | 5,462 | 5,125 | 3,187 | 1,092 | 1,709 | 1,062 |
| 연수구 | 4 | 3 | 3 | 3,362 | 9,135 | 2,962 | 841 | 3,045 | 987 |
| 남동구 | 2 | 0 | 0 | 1,946 | 0 | 0 | 973 | 0 | 0 |
| 부평구 | 3 | 2 | 0 | 2,698 | 3,324 | 0 | 899 | 1,662 | 0 |
| 계양구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서구 | 2 | 0 | 0 | 1,201 | 0 | 0 | 601 | 0 | 0 |
| 강화군 | 5 | 3 | 2 | 3,367 | 1,551 | 58 | 673 | 517 | 29 |
| 옹진군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2012)

[그림 Ⅲ-2-3] 군·구별 유형별 전시시설 수

(단위 : 개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2012)

○ 인구 1인당 소장품 수

인천 전시시설의 소장품 수는 2008년 대비 크게 늘어 175,374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대로 인천시 박물관이 크게 증가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4년, 2008년 조사결과 광역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던 것과 비교할 때 주목할 만한 수치이다. 이에 따라 인구 1인당 소장품 수 역시 광역시 평균 0.08보다는 낮지만 0.06으로 증가하였다.

[표 Ⅲ-2-12] 인구 1인당 소장품 수

(단위 : 점)

| | 소장품 수 | | | 1인당 소장품 수 | | |
|-------------------|-----------|-----------|-----------|-----------|-------|-------|
| | 2012년 | 2008년 | 2004년 | 2012년 | 2008년 | 2004년 |
| 서울 | 2,321,710 | 1,740,066 | 1,649,292 | 0.23 | 0.17 | 0.16 |
| 부산 | 137,393 | 129,601 | 71,306 | 0.04 | 0.04 | 0.02 |
| 인천 | 175,374 | 62,935 | 31,684 | 0.06 | 0.02 | 0.01 |
| 대구 | 71,863 | 48,109 | 41,708 | 0.03 | 0.02 | 0.02 |
| 광주 | 117,086 | 70,532 | 108,315 | 0.08 | 0.05 | 0.08 |
| 대전 | 396,804 | 324,766 | 380,956 | 0.26 | 0.22 | 0.27 |
| 울산 ¹⁰⁾ | 12,715 | 6,734 | 0 | 0.01 | 0.01 | 0.00 |
| 평균(광역시) | 151,873 | 107,113 | 105,661 | 0.08 | 0.06 | 0.07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2012)

10) 2004년 울산의 박물관 소장품 수는 집계되지 않음

○ 학예직원 1명당 인구수

인천 전시시설의 학예직원 수는 광주와 같은 34명으로 광역시 가운데 ‘부산’ (43명) 다음으로 많다. 이는 2008년 19명이었던 것에 비해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이는 2008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박물관이 12개소 증가함에 따라 전시시설 학예직원 역시 15명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의 학예직원 1명당 인구수 역시 73,873명으로 ‘광주’ 42,783명, ‘대전’ 71,603명 다음으로 적었으며 지난 2004년,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해서도 크게 감소하였다.

[표 III-2-13] 학예직원 1명당 인구수

(단위: 명)

| | 학예직원 수 | | | 학예직원 1명당 인구수 | | |
|---------|--------|-------|-------|--------------|---------|---------|
| | 2012년 | 2008년 | 2004년 | 2012년 | 2008년 | 2004년 |
| 서울 | 413 | 402 | 261 | 24,970 | 25,355 | 39,389 |
| 부산 | 43 | 41 | 44 | 82,975 | 87,499 | 85,168 |
| 인천 | 34 | 19 | 9 | 73,873 | 140,241 | 288,456 |
| 대구 | 15 | 14 | 20 | 183,886 | 178,090 | 127,032 |
| 광주 | 34 | 25 | 8 | 42,783 | 56,538 | 175,191 |
| 대전 | 21 | 28 | 30 | 71,603 | 52,702 | 47,495 |
| 울산 | 5 | 25 | 0 | 225,260 | 49,998 | 0 |
| 평균(광역시) | 25.3 | 25.3 | 18.5 | 113,397 | 94,178 | 144,668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2012)

③ 공공도서관

○ 공공도서관 1관 당 인구수

인천의 공공도서관은 <2008년 인천문화지표조사>와 비교할 때, 수적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1관 당 인구수 역시 106,088명으로 줄었다. 이를 통해 그 동안 공공도서관 시설확충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 수는 광역시 평균보다 많지만 인구수 대비 공공도서관 수를 알 수 있는 1관 당 인구수는 여전히 광역시 평균(97,213명)보다 많은 106,088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2-14] 공공도서관 1관 당 인구수

(단위 : 개소, 명)

| | 공공도서관 수(개소) | | |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수(명) | | |
|---------|-------------|-------|-------|------------------|---------|---------|
| | 2012년 | 2008년 | 2004년 | 2012년 | 2008년 | 2004년 |
| 서울 | 101 | 69 | 40 | 102,104 | 147,353 | 257,013 |
| 부산 | 30 | 27 | 23 | 118,930 | 132,868 | 162,929 |
| 인천 | 26 | 16 | 11 | 106,088 | 166,536 | 236,009 |
| 대구 | 26 | 16 | 12 | 96,603 | 155,829 | 211,721 |
| 광주 | 16 | 13 | 12 | 90,915 | 108,726 | 116,794 |
| 대전 | 22 | 16 | 13 | 68,348 | 92,229 | 109,603 |
| 울산 | 11 | 8 | 4 | 102,391 | 137,499 | 267,569 |
| 평균(광역시) | 21 | 16 | 12 | 97,213 | 132,281 | 184,104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2012)

인천시 군·구 가운데 공공도서관이 가장 많은 곳은 '남구'로 전체 7개소로 조사되었다. 이는 남구에서 시행중인 '1동 1도서관 조성사업'의 영향으로 2007년 이후 학나래도서관, 독정골도서관, 복사꽃도서관 등이 연달아 개관한 결과이다. 반면 지역 공공 도서관이 1곳 뿐인 지역(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 가운데 '중구'와 '동구' 지역은 1관 당 인구수가 많아 도서관 확충 또는 인근지역으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표 Ⅲ-2-15] 군·구별 공공도서관 1관 당 인구수

(단위 : 개소, 명)

| | 공공도서관 수 | | | 1관당 인구수 | | |
|-----|---------|-------|-------|---------|---------|---------|
| | 2012년 | 2008년 | 2004년 | 2012년 | 2008년 | 2004년 |
| 중구 | 1 | 1 | 1 | 92,890 | 89,768 | 80,251 |
| 동구 | 1 | 1 | 1 | 79,663 | 74,087 | 75,215 |
| 남구 | 7 | 2 | 1 | 60,554 | 206,190 | 434,929 |
| 연수구 | 2 | 2 | 1 | 139,615 | 134,390 | 259,975 |
| 남동구 | 2 | 1 | 1 | 236,712 | 425,217 | 409,537 |
| 부평구 | 3 | 3 | 2 | 189,164 | 189,635 | 280,232 |
| 계양구 | 4 | 1 | 1 | 86,953 | 342,564 | 342,183 |
| 서구 | 4 | 3 | 1 | 102,017 | 133,143 | 353,439 |
| 강화군 | 1 | 1 | 1 | 67,104 | 66,466 | 65,876 |
| 옹진군 | 1 | 1 | 1 | 18,739 | 16,980 | 14,234 |
| 계 | 26 | 16 | 11 | 107,341 | 167,844 | 231,587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2012)

○ 인구 1,000명당 공공도서관 좌석 수

인천의 인구 1,000명당 공공도서관 좌석 수는 광역시 평균인 5.98석보다 적은 5.11석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난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새롭게 개소한 공공도서관은 늘었으나 소규모 공공도서관의 비율이 높아 좌석 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반면 ‘광주’와 ‘대전’은 1,000명당 좌석 수가 가장 많은 8.92석, 7.86석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2-16] 인구 1,000명당 공공도서관 좌석 수

(단위: 석)

| | 좌석 수 | | | 1,000명당 좌석 수 | | |
|---------|--------|--------|----------|--------------|-------|-------|
| | 2012년 | 2008년 | 2004년 | 2012년 | 2008년 | 2004년 |
| 서울 | 37,680 | 28,166 | 27,688 | 3.65 | 2.77 | 2.69 |
| 부산 | 16,816 | 14,429 | 11,048 | 4.71 | 4.02 | 2.95 |
| 인천 | 14,088 | 11,815 | 10,898 | 5.11 | 4.81 | 4.29 |
| 대구 | 11,740 | 12,806 | 8,946 | 4.67 | 4.74 | 3.45 |
| 광주 | 12,973 | 13,757 | 13,007 | 8.92 | 9.73 | 9.28 |
| 대전 | 11,818 | 11,088 | 10,081 | 7.86 | 7.51 | 7.07 |
| 울산 | 5,214 | 5,387 | 4,195 | 4.63 | 4.90 | 3.92 |
| 평균(광역시) | 12,108 | 11,547 | 9,695.83 | 5.98 | 5.95 | 5.16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2012)

군·구별 1,000명당 좌석 수는 평균 5.11석으로 2008년 조사결과와 같았다. 인구대비 좌석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동구’로 12.58석으로 조사되었다. ‘동구’의 공공도서관은 화도진도서관 1개소 뿐이지만 좌석 수가 많고 지역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반대로 ‘남구’의 경우 지역 도서관은 가장 많지만 소규모 도서관이 많아 1,000명당 좌석 수는 4.95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2-17] 군·구별 인구 1,000명당 공공도서관 좌석 수

(단위: 석)

| | 좌석 수 | | | 1,000인당 좌석 수 | | |
|-------|-------|-------|-------|--------------|-------|-------|
| | 2012년 | 2008년 | 2004년 | 2012년 | 2008년 | 2004년 |
| 중구 | 125 | 257 | 203 | 1.35 | 2.86 | 2.54 |
| 동구 | 1,002 | 1,002 | 834 | 12.58 | 13.52 | 11.12 |
| 남구 | 2,098 | 1,513 | 990 | 4.95 | 3.67 | 2.28 |
| 연수구 | 1,807 | 1,807 | 1,102 | 6.47 | 6.72 | 4.24 |
| 남동구 | 2,779 | 2,013 | 1,117 | 5.87 | 4.73 | 2.72 |
| 부평구 | 2,968 | 327 | 2,422 | 5.23 | 5.75 | 4.33 |
| 계양구 | 1,770 | 1,387 | 1,166 | 5.09 | 4.05 | 3.41 |
| 서구 | 1,281 | 1,302 | 856 | 3.14 | 3.26 | 2.42 |
| 강화군 | 192 | 192 | 192 | 2.86 | 2.89 | 2.91 |
| 옹진군 | 66 | 62 | 64 | 3.52 | 3.65 | 4.57 |
| 평균(계) | 1,408 | 986 | 894 | 5.11 | 5.11 | 4.05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2012)

○ 인구 1,000명당 공공도서관 장서 수

인천의 인구 1,000명당 공공도서관의 장서 수는 0.87권으로 광역시 평균인 1.08권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공공도서관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1,000명당 좌석 수와 장서수가 많지 않은 것은 소규모 도서관 중심의 시설 확충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표 Ⅲ-2-18] 인구 1,000명당 공공도서관 장서 수

(단위: 권)

| | 장서 수 | | | 1인당 장서 수 | | |
|---------|-----------|-----------|------------|----------|-------|-------|
| | 2012년 | 2008년 | 2004년 | 2012년 | 2008년 | 2004년 |
| 서울 | 8,354,399 | 6,978,068 | 57,175,751 | 0.81 | 0.69 | 5.56 |
| 부산 | 3,514,247 | 3,115,840 | 2,148,258 | 0.98 | 0.87 | 0.57 |
| 인천 | 2,396,288 | 1,945,807 | 1,655,167 | 0.87 | 0.73 | 0.65 |
| 대구 | 2,762,505 | 2,387,320 | 1,259,981 | 1.10 | 0.96 | 0.49 |
| 광주 | 1,794,391 | 1,615,990 | 1,153,943 | 1.23 | 1.14 | 0.82 |
| 대전 | 2,033,139 | 1,718,203 | 1,257,867 | 1.35 | 1.16 | 0.88 |
| 울산 | 1,090,762 | 809,817 | 436,681 | 0.97 | 0.74 | 0.41 |
| 평균(광역시) | 2,265,222 | 1,932,163 | 1,318,649 | 1.08 | 0.93 | 0.64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2012)

④ 기타 문화시설

인천의 지역문화복지시설은 ‘복지회관’이 15개소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 회관’이 7개소로 조사되었다. 특히 복지회관과 청소년회관은 지역별 편중이 크지 않고 군·구 전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문화 보급·전수시설의 경우 ‘문화원’이 총 10개소 설치되어 있지만 ‘국악원’과 ‘전수회관’은 인천시 전체에 1개소 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2-19] 군·구별 지역문화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 | 문화의집 | | | 복지회관 | | | 청소년회관 | | |
|-----|-------|-------|---------------------|-------|-------|-------|-------|-------|-------|
| | 2012년 | 2008년 | 2004년 ¹⁾ | 2012년 | 2008년 | 2004년 | 2012년 | 2008년 | 2004년 |
| 중구 | 0 | 0 | 0 | 2 | 2 | 1 | 0 | 0 | 1 |
| 동구 | 0 | 0 | 0 | 1 | 1 | 1 | 1 | 1 | 1 |
| 남구 | 0 | 0 | 0 | 3 | 3 | 2 | 1 | 1 | 1 |
| 연수구 | 0 | 0 | 0 | 2 | 2 | 3 | 1 | 1 | 1 |
| 남동구 | 0 | 0 | 0 | 1 | 1 | 2 | 1 | 1 | 0 |
| 부평구 | 0 | 0 | 0 | 2 | 2 | 3 | 0 | 0 | 1 |
| 계양구 | 0 | 0 | 0 | 2 | 2 | 1 | 1 | 1 | 1 |
| 서구 | 0 | 0 | 0 | 1 | 1 | 0 | 1 | 1 | 1 |
| 강화군 | 1 | 1 | 0 | 1 | 1 | 0 | 1 | 1 | 0 |
| 옹진군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계 | 1 | 1 | 0 | 15 | 15 | 13 | 7 | 7 | 7 |

자료: 문화의집: 사단법인 한국문화의집협회 홈페이지(2012), 복지회관, 청소년회관: 통계청, <한국도시통계>(2009)

[표 III-2-20] 군·구별 문화 보급·전수시설 현황

(단위 : 개소)

| | 문화원 | | | 국악원 | | | 전수회관 | | |
|-----|-------|-------|-------|-------|-------|-------|-------|-------|-------|
| | 2012년 | 2008년 | 2004년 | 2012년 | 2008년 | 2004년 | 2012년 | 2008년 | 2004년 |
| 중구 | 2 | 2 | 1 | 0 | 0 | 0 | 0 | 0 | 0 |
| 동구 | 0 | 0 | 0 | 0 | 0 | 0 | 0 | 0 | 1 |
| 남구 | 2 | 2 | 1 | 1 | 1 | 1 | 0 | 0 | 0 |
| 연수구 | 1 | 1 | 1 | 0 | 0 | 0 | 0 | 0 | 0 |
| 남동구 | 1 | 1 | 1 | 0 | 0 | 0 | 0 | 0 | 0 |
| 부평구 | 1 | 1 | 1 | 0 | 0 | 0 | 0 | 0 | 0 |
| 계양구 | 1 | 1 | 1 | 0 | 0 | 0 | 0 | 0 | 0 |
| 서구 | 1 | 1 | 1 | 0 | 0 | 0 | 0 | 0 | 0 |
| 강화군 | 1 | 1 | 0 | 0 | 0 | 0 | 0 | 0 | 0 |
| 옹진군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계 | 10 | 10 | 7 | 1 | 1 | 1 | 0 | 0 | 1 |

자료: 통계청, <한국도시통계>(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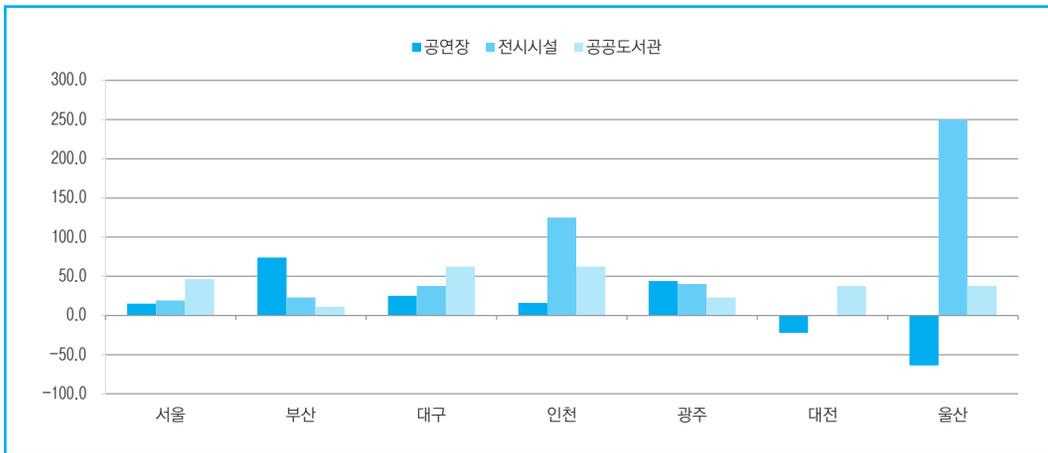
11) 문화의 집 2003년 조사 자료 없음

○ 유형별 시설 증가율

〈2008년 인천문화지표 조사연구〉 결과 대비 공연장, 전시시설, 공공 도서관의 시설 증가율을 살펴보면, 인천은 박물관 수 증가에 따라 ‘전시시설’이 125.0%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공공도서관’은 62.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광역시에서 문화시설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울산’ (250%)의 전시시설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Ⅲ-2-4] 유형별 시설 증가율

(단위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0 전국등록공연장 현황〉(2011), 〈201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2012)

[표 Ⅲ-2-21] 유형별 시설 증가율

(단위: %)

| | 공연장 | | 전시시설 | | 공공도서관 | |
|---------|-------|-------|-------|-------|-------|-------|
|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
| 서울 | 15.2 | 31.9 | 19.1 | 19.8 | 46.4 | 72.5 |
| 부산 | 73.9 | -10.7 | 23.1 | 44.4 | 11.1 | 17.5 |
| 인천 | 16.0 | 61.5 | 125.0 | 116.7 | 62.5 | 45.5 |
| 대구 | 25.0 | 10.7 | 37.5 | 33.3 | 62.5 | 33.3 |
| 광주 | 43.8 | 0.0 | 40.0 | 11.1 | 23.1 | 8.3 |
| 대전 | -22.2 | 0.0 | 0.0 | 26.7 | 37.5 | 23.1 |
| 울산 | -63.6 | 0.0 | 250.0 | 100.0 | 37.5 | 100.0 |
| 평균(광역시) | 19.8 | 10.3 | 46.9 | 55.4 | 36.5 | 37.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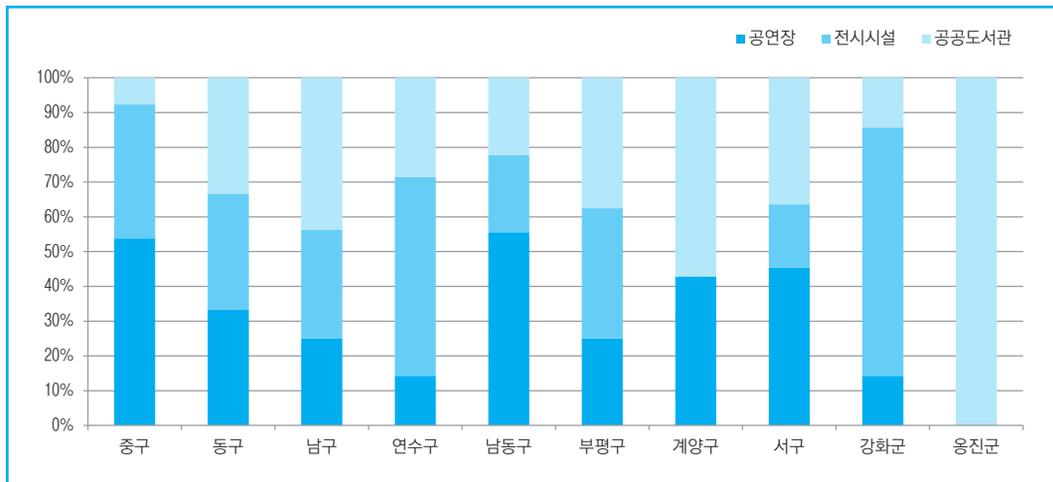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0 전국등록공연장 현황〉(2011), 〈201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2012)

○ 군·구별 시설분포

군·구별로 시설의 분포 정도를 살펴보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이 위치한 ‘남동구’의 공연장 비율이 55.6%로 가장 높았다. 반면 ‘남동구’의 전시시설 비율이 낮은 것은 예술회관의 전시관이 전시시설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박물관 2곳만이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이다. 2007년부터 ‘1동 1도서관 조성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는 ‘남구’는 공공도서관(43.8%) 비율이, ‘연수구’는 전시시설의(57.1%)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Ⅲ-2-5] 군·구별 문화시설분포

(단위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0 전국등록공연장 현황>(2011), <201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2012)

[표 III-2-22] 군·구별 문화시설분포

(단위: %)

| | 공연장 | | 전시시설 | | 공공도서관 | |
|-------|-------|-------|-------|-------|-------|-------|
|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
| 중구 | 53.8 | 71.4 | 38.5 | 14.3 | 7.7 | 14.3 |
| 동구 | 33.3 | 33.3 | 33.3 | 33.3 | 33.3 | 33.3 |
| 남구 | 25.0 | 44.4 | 31.3 | 33.3 | 43.8 | 22.2 |
| 연수구 | 14.3 | 0.0 | 57.1 | 60.0 | 28.6 | 40.0 |
| 남동구 | 55.6 | 85.7 | 22.2 | 0.0 | 22.2 | 14.3 |
| 부평구 | 25.0 | 16.7 | 37.5 | 33.3 | 37.5 | 50.0 |
| 계양구 | 42.9 | 75.0 | 0.0 | 0.0 | 57.1 | 25.0 |
| 서구 | 45.5 | 62.5 | 18.2 | 0.0 | 36.4 | 37.5 |
| 강화군 | 14.3 | 20.0 | 71.4 | 60.0 | 14.3 | 20.0 |
| 옹진군 | 0.0 | 0.0 | 0.0 | 0.0 | 100.0 | 100.0 |
| 계(평균) | 30.9 | 40.9 | 30.9 | 23.4 | 38.0 | 35.6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0 전국등록공연장 현황>(2011), <201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2012)

2) 활용도

(1) 시설유형별 가동률

공연시설과 전시시설의 가동률은 광역시간 비교를 위해 문예회관의 공연장 가동률을 조사하였다. 공연시설 가동률은 [전체가동일 ÷ {365일-(휴관일+정비점검일)}]을 통해 도출하며 전체 가동일은 (공연일+공연준비철수일)+(기타행사일+기타행사준비철수일)을 의미한다.

문예회관 공연장 가동률은 ‘대전’이 82.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광주’ 68.3%, ‘대구’ 67.5%, ‘부산’ 59.4% 등의 순이었다. ‘인천’ 문예회관의 공연시설 가동률은 광역시 평균인 64.1%보다 낮은 48.6%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으며 2008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에도 10.5%p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2-23] 문예회관 공연장 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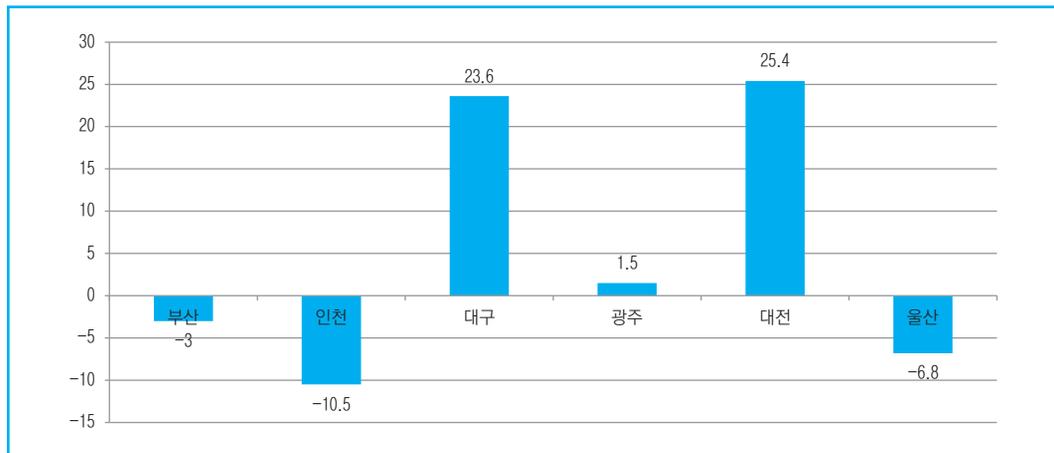
(단위 : 개소, %, %p)

| | 응답 공연장 | | 공연장 가동률 평균 | | 2008년 대비 가동률 증감 |
|---------|--------|-------|------------|-------|--------------------|
|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 |
| 서울 | 18 | 18 | 77.7 | 52.7 | △25.0 |
| 부산 | 13 | 12 | 59.4 | 62.4 | ▼3.0 |
| 인천 | 9 | 7 | 48.6 | 59.1 | ▼10.5 |
| 대구 | 12 | 12 | 67.5 | 43.9 | △23.6 |
| 광주 | 6 | 5 | 68.3 | 66.8 | △1.5 |
| 대전 | 3 | 3 | 82.1 | 56.7 | △25.4 |
| 울산 | 4 | 3 | 58.9 | 65.7 | ▼6.8 |
| 평균(광역시) | 7.8 | 7.0 | 64.1 | 59.1 | △5.0 |

자료 : 예술경영지원센터, <2010 문예회관 운영현황 조사>(2011)

[그림 III-2-6] 문예회관 공연장 가동률 증감(2008년 대비)

(단위 : %)



자료 : 예술경영지원센터, <2010 문예회관 운영현황 조사>(2011)

문예회관의 운영 주체는 공립, 민간위탁, 시설관리공단 및 사업소로 구분할 수 있다. 인천 문예회관 시설 가동률을 운영주체별로 살펴보면 인천에 위치한 전체 5개 문예회관 가운데 운영주체가 ‘공립’, ‘민간위탁’인 시설은 각각 1개소, ‘시설관리공단 및 사업소’가 주체인 경우는 3개소로 조사되었으며 이 가운데 1관 당 평균 공연 및 전시일수가 가장 많은 시설은 ‘공립’ 운영 시설이었다. 인천의 문화예술 행사가 가장 많이 열리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 시설 수가 적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III-2-24] 운영주체별 시설 대비 활용률(인천)

(단위 : 개소, 일)

| | 문예회관 수 | | 공연일수 | | 전시일수 | | 1관당 평균 | | | |
|--------------|--------|-------|-------|-------|-------|-------|--------|-------|-------|-------|
| | | | | | | | 공연일수 | | 전시일수 | |
|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
| 공립 | 1 | 1 | 228 | 353 | 287 | 0 | 287 | 353 | 287 | 0 |
| 민간위탁 | 1 | 2 | 116 | 176 | 107 | 0 | 107 | 88 | 107 | 0 |
| 시설관리공단 및 사업소 | 3 | 2 | 226 | 515 | 100 | 220 | 88 | 257 | 33 | 11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2012)

(2) 시설유형별 이용자 수

공연시설(문예회관), 전시시설, 공공도서관의 1개소 당 연평균 이용자 수를 조사하였다. 공연시설의 경우 민간 공연시설의 이용자 수 파악이 어려워 문예회관 1개소 당 연평균 이용자 수를 조사하였다.

‘인천’의 문예회관 1개소 당 연평균 이용자 수는 144,594명으로 2008년 대비 1개소 당 연평균 이용자 수가 7천 여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시시설의 경우 박물관 수가 크게 늘면서 2008년 12개소에서 2012년 27개소로 15개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개소 당 연평균 이용자 수 역시 크게 증가하여 2012년 60,918명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의 경우 2008년 16개소에서 2012년 26개소로 10개소 증가하였다.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도서관 1개소 당 연평균 이용자 수는 486,597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설유형별 1개소 당 이용자 수는 2008년 대비 전시시설과 공공도서관의 시설 수가 크게 증가한 점과 시설별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할 때, 2008년 대비 이용자 수의 증감을 단순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표 III-2-25] 시설유형별 1개소 당 연평균 이용자 수

(단위: 명)

| | 문예회관 | | 전시시설 | | 공공도서관 | |
|---------|---------|---------|---------|---------|---------|---------|
|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
| 부산 | 127,338 | 153,134 | 213,007 | 83,410 | 537,012 | 511,331 |
| 인천 | 144,594 | 151,509 | 60,918 | 50,845 | 486,597 | 559,051 |
| 대구 | 259,280 | 236,925 | 90,533 | 109,054 | 356,960 | 492,576 |
| 광주 | 250,406 | 132,132 | 146,146 | 81,460 | 470,380 | 387,082 |
| 대전 | 169,792 | 210,565 | 168,636 | 91,372 | 350,346 | 401,151 |
| 울산 | 230,036 | 83,224 | 61,420 | 110,963 | 419,427 | 674,676 |
| 평균(광역시) | 196,907 | 161,248 | 123,443 | 87,850 | 436,787 | 504,311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2012)

2. 문화행정

1) 충분성

(1) 문화행정인력 비율

문화행정인력은 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파악하였으며 광역시 별 본청 공무원 수를 비교하였다. 문화행정 공무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으로 본청 총 공무원의 5.5%로 조사되었다. ‘광주’ 5.1%, ‘대구’ 3.7% 등의 순이었으며 ‘인천’은 2.5%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공무원 수의 단순 비교만으로는 문화행정의 우위를 판단할 수 없다.

[표 III-2-26] 문화행정인력 비율

(단위: 명, %)

| | (본청) 문화담당 공무원 수 | | | (본청) 전체 공무원 수 | | | 문화행정 공무원 비율 | | |
|----|-----------------|-------|-------|---------------|---------|---------|-------------|-------|-------|
| | 2012년 | 2008년 | 2004년 | 2012년 | 2008년 | 2004년 | 2012년 | 2008년 | 2004년 |
| 부산 | 30 | 43 | 32 | 1,942 | 1,887 | 1,815 | 1.5 | 2.3 | 1.8 |
| 인천 | 38 | 27 | 22 | 1,520 | 1,447 | 1,077 | 2.5 | 1.9 | 2.0 |
| 대구 | 52 | 49 | 27 | 1,415 | 1,395 | 1,126 | 3.7 | 3.5 | 2.4 |
| 광주 | 58 | 58 | 19 | 1,132 | 1,045 | 930 | 5.1 | 5.6 | 2.0 |
| 대전 | 58 | 42 | 26 | 1,057 | 1,037 | 1,063 | 5.5 | 4.1 | 2.4 |
| 울산 | 21 | 27 | 24 | 956 | 954 | 867 | 2.2 | 2.8 | 2.8 |
| 평균 | 42.8 | 41.0 | 25.0 | 1,513.0 | 1,294.1 | 1,146.3 | 3.4 | 3.3 | 2.2 |

자료: 각 시별 홈페이지 및 통계 DB(2012)

(2) 문화담당 조직 및 인력 수

문화담당 조직 및 인력 수는 광역시간 비교를 위해 문화행정 조직을 구성하는 본청 공무원의 현원을 파악하였으며 이 가운데 문화예술, 문화재 관련 인력을 산출하였다. 관광과 체육, 도시디자인 관련 담당 과의 인력은 제외하였으나 문화시설 인력의 경우 담당 업무에 따라 일부 포함하였다.

문화담당 과는 광역시 간 편차가 크지 않았으나 문화담당 본청 공무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광주’와 ‘대전’이 각각 58명, ‘대구’ 52명 등의 순이었다. ‘인천’의 문화담당 본청 공무원은 38명으로 지난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증가한 결과이지만 광역시 평균인 42.8명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2-27] 문화담당 조직 및 인력 수

(단위 : 과, 명)

| | 문화담당 과 수 | 문화담당 공무원 수 | | |
|----|----------|------------|-------|-------|
| | | 2012년 | 2008년 | 2004년 |
| 부산 | 2 | 30 | 43 | 32 |
| 인천 | 2 | 38 | 27 | 22 |
| 대구 | 3 | 52 | 49 | 27 |
| 광주 | 3 | 58 | 58 | 19 |
| 대전 | 4 | 58 | 42 | 26 |
| 울산 | 1 | 21 | 27 | 24 |
| 평균 | 2.5 | 42.8 | 41.0 | 25.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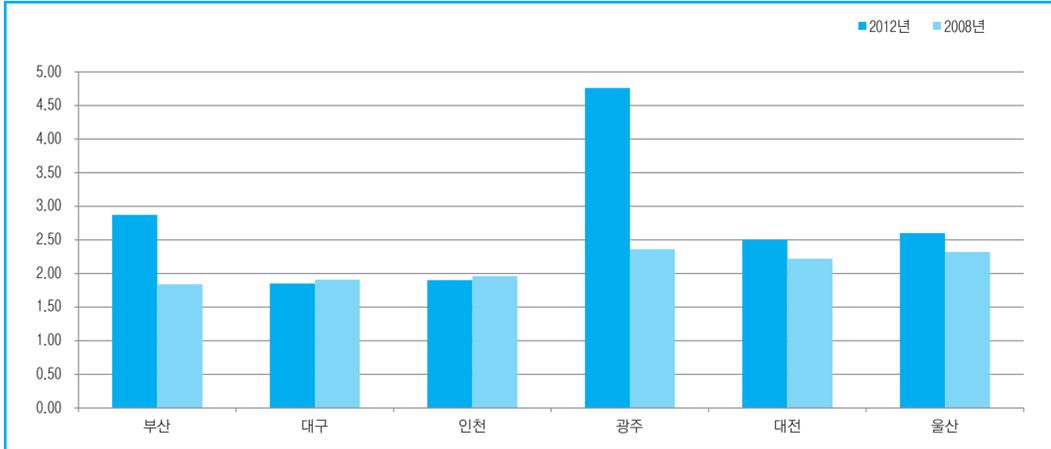
자료: 각 시별 시청 홈페이지(2012)

(3) 문화예술예산 비율

‘인천’의 일반회계 규모(3,951,595백만원)는 ‘부산’ (5,555,484백만원) 다음으로 큰 규모이나 이 가운데 문화예술 예산은 전체의 1.90%로 광역시 평균인 2.64%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광역시 대부분의 문화예술 예산비율이 증가한 것과 달리 ‘인천’은 문화예술 예산비율이 2008년 대비 0.06%p 하락하였다. 광역시 가운데 문화예술 예산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로 전체 예산 중 4.76%이며 ‘부산’ 2.87%, ‘울산’ 2.60% 등의 순이다.

[그림 III-2-7] 문화예술예산 비율

(단위 : %)



자료: 인천문화재단, <2011 인천문화예술연감>(2012)

[표 III-2-28] 문화예술예산규모 비율

(단위 : 백만원,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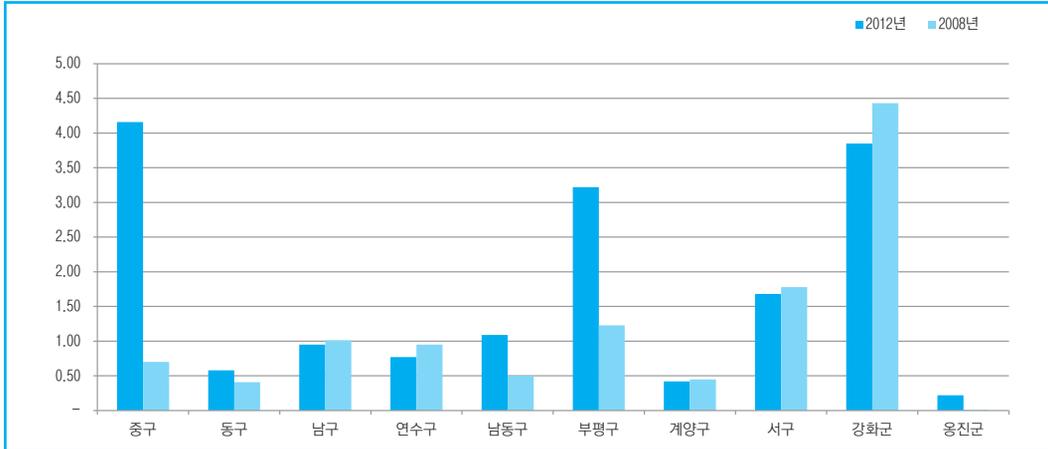
| | 일반회계 예산규모 | 문화예술 예산규모 | 문화예술예산비율 | | | 2008년 조사 대비 증감율 |
|-------|--------------|--------------|----------|-------|-------|--------------------|
| | | | 2012년 | 2008년 | 2004년 | |
| 부산 | 5,555,484 | 159,529 | 2.87 | 1.84 | 1.95 | △1.03 |
| 인천 | 3,951,595 | 75,027 | 1.90 | 1.96 | 1.76 | ▼0.06 |
| 대구 | 3,653,800 | 67,596 | 1.85 | 1.91 | 1.94 | ▼0.06 |
| 광주 | 2,340,319 | 111,403 | 4.76 | 2.36 | 3.13 | △2.40 |
| 대전 | 2,075,201 | 51,900 | 2.50 | 2.22 | 2.79 | △0.28 |
| 울산 | 1,573,824 | 40,905 | 2.60 | 2.32 | 2.37 | △0.28 |
| 계(평균) | 19,150,223 | 506,360 | 2.64 | 2.02 | 2.32 | △0.62 |

자료: 인천문화재단, <2011 인천문화예술연감>(2012)

군·구별로 문화예술 비율을 살펴보면, 문화예술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중구’로 4.16%이며 그 다음으로는 ‘강화군’ (3.85%), ‘부평구’ (3.22%) 등의 순이다. 가장 낮은 곳은 ‘옹진군’으로 0.22%로 조사되었다.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중구의 문화예술예산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전년대비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 ‘문화재 관리’, ‘테마박물관 조성’ 등과 관련한 ‘문화시설 확충’ 예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시설 확충’, ‘지역문화 활성화’, ‘문화재 관리’ 등과 관련하여 23억원 규모의 시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Ⅲ-2-8] 군·구별 문화예술예산 비율(군·구별 비교)

(단위 : %)



자료: 인천문화재단, <2011 인천문화예술연감>(2012)

[표 Ⅲ-2-29] 군·구별 문화예술예산 비율

(단위: %, %p)

| | 2012년 | 2008년 | 2004년 | 2008년 조세 대비 증감율 |
|-----|-------|-------|-------|-----------------|
| 중구 | 4.16 | 0.70 | 1.54 | △3.46 |
| 동구 | 0.58 | 0.41 | 0.50 | △0.17 |
| 남구 | 0.95 | 1.01 | 0.19 | ▼0.06 |
| 연수구 | 0.77 | 0.95 | 0.97 | ▼0.18 |
| 남동구 | 1.09 | 0.50 | 0.63 | △0.59 |
| 부평구 | 3.22 | 1.23 | 1.07 | △1.99 |
| 계양구 | 0.42 | 0.45 | 1.67 | ▼0.03 |
| 서구 | 1.68 | 1.78 | 2.23 | ▼0.10 |
| 강화군 | 3.85 | 4.43 | 0.28 | ▼0.58 |
| 옹진군 | 0.22 | 0.01 | 0.00 | △0.21 |
| 평균 | 1.69 | 1.15 | 0.97 | △0.55 |

자료: 인천문화재단, <2011 인천문화예술연감>(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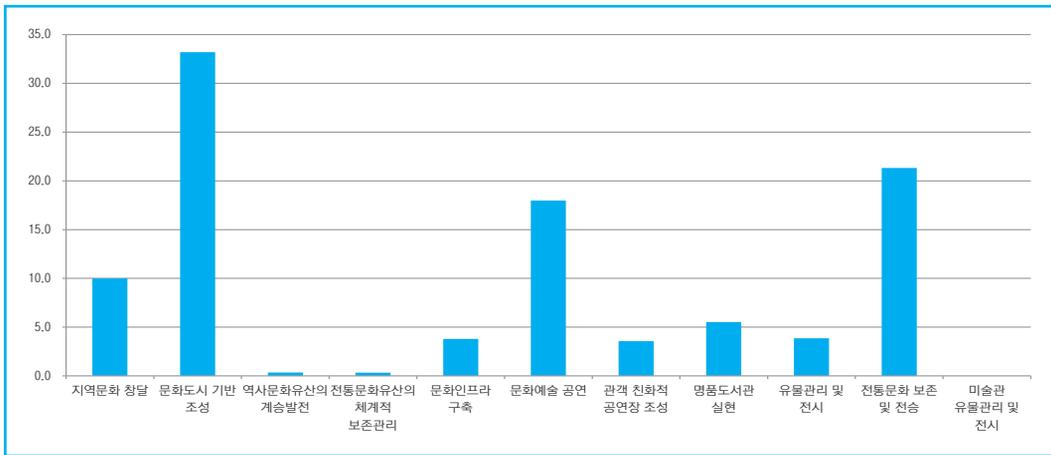
(4) 부문별 문화예술예산 비율

인천시 본청의 문화예술 정책별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문화도시 기반 조성’ 정책 예산으로 전체 문화예술 예산 가운데 33.2%를 차지한다. 이는 ‘문화도시 기반 조성’ 정책의 세부 사업이 문화기반시설 확충, 문화활동 활성화, 공공도서관이용 활성화 등 대

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 단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21.3%), ‘문화예술 공연’ (18.0%) 순으로 조사되었다. 문화재 관련 예산 중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항목의 예산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 5월 착공한 인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관련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림 III-2-9] 부문별 문화예술예산 비율

(단위 : %)



자료: 인천문화재단, <2011 인천문화예술연감>(2012)

[표 III-2-30] 부문별 문화예술예산 비율

(단위 : 백만원, %)

| | 내용 | 예산액 | | 예산비율 | |
|-------|------------------|--------|--------|-------|-------|
| | | 2011년 | 2008년 | 2011년 | 2008년 |
| 문화 예술 | 지역문화 창달 | 7,495 | 5,317 | 10.0 | 9.4 |
| | 문화도시 기반 조성 | 24,897 | 21,472 | 33.2 | 38.0 |
| | 역사문화유산의 계승발전 | 265 | | 0.4 | |
| |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 251 | | 0.3 | |
| | 문화인프라 구축 | 2,850 | | 3.8 | |
| | 문화예술 공연 | 13,482 | 11,864 | 18.0 | 21.0 |
| | 관객 친화적 공연장 조성 | 2,678 | 7,732 | 3.6 | 13.7 |
| | 명품도서관 실현 | 4,135 | 2,021 | 5.5 | 3.6 |
| | 유물관리 및 전시 | 2,897 | 1,131 | 3.9 | 2.0 |
| 문화재 |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 16,001 | 6,544 | 21.3 | 11.6 |
| | 미술관 유물관리 및 전시 | 0.0 | 350 | 0.0 | 0.6 |
| 계 | | 75,027 | 56,432 | 1.9 | 100.0 |

자료: 인천문화재단, <2011 인천문화예술연감>(2012)

3. 문화예술지원

1) 다양성

(1) 지원기관별 문화예술지원 규모

인천 문화예술지원기관은 인천광역시, 인천문화재단, 기초자치단체(남동구, 연수구)이다. 이 가운데 ‘인천문화재단’의 지원 건수는 전체 344건으로 2008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120여 건 증가하였으며 지원 총액 역시 924,943천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천시의 문화예술지원 건수는 인천문화재단의 1/3정도 수준이지만 건당 평균 지원액은 가장 많았다. 모든 지원기관의 지원건수, 지원액, 건당 평균 지원액 모두 2008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증가하였다.

[표 Ⅲ-2-31] 지원기관별 문화예술지원 규모

(단위 : 건, 천원)

| | 지원건수 | | 지원총액 | | 건당 평균 지원액 | |
|--------|-------|-------|-----------|-----------|-----------|-------|
|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
| 인천시 | 106 | 94 | 1,456,439 | 1,032,916 | 13,740 | 10988 |
| 인천문화재단 | 344 | 224 | 2,383,903 | 1,458,960 | 6,930 | 6513 |
| 남동구 | 22 | 14 | 41,000 | 35,000 | 1,864 | 2500 |
| 연수구 | 25 | 17 | 70,000 | 47,697 | 2,800 | 2806 |
| 계(평균) | 497 | 349 | 3,951,342 | 2,574,573 | 6,333 | 5,70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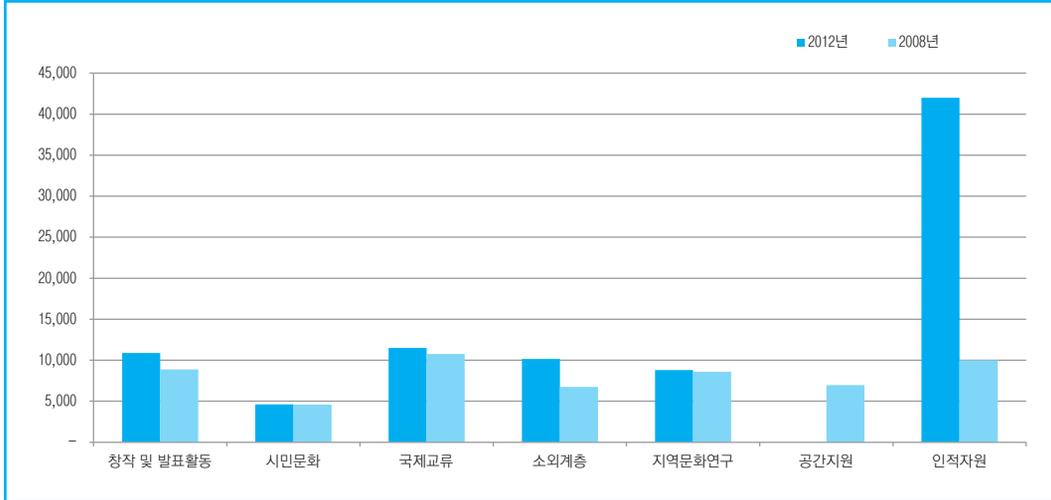
자료: 인천문화재단, <2011 인천문화예술연감>(2012)

(2) 지원분야별 문화예술지원 규모

문화예술 지원분야는 크게 ‘창작 및 발표활동’, ‘시민문화’, ‘국제교류’, ‘소외계층’, ‘지역문화연구’, ‘공간지원’, ‘인적지원’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 가운데 ‘시민문화’와 ‘창작 및 발표활동 지원’이 각각 230건, 200건으로 전체 497건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반면 ‘소외계층’, ‘지역문화연구’, ‘공간지원’, ‘인적지원’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II-2-10] 지원분야별 건당 평균 지원액

(단위 : 천원)



자료: 인천문화재단, <2011 인천문화예술연감>(2012)

[표 III-2-32] 지원분야별 문화예술지원 규모

(단위 : 건, 천원)

| | 지원건수 | | 지원총액 | | 건당 평균 지원액 | |
|-----------|-------|-------|-----------|-----------|-----------|--------|
|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
| 창작 및 발표활동 | 200 | 184 | 2,178,413 | 1,631,786 | 10,892 | 8,868 |
| 시민문화 | 230 | 120 | 1,061,028 | 550,997 | 4,613 | 4,592 |
| 국제교류 | 28 | 9 | 322,051 | 96,880 | 11,502 | 10,764 |
| 소외계층 | 10 | 12 | 101,600 | 81,100 | 10,160 | 6,758 |
| 지역문화연구 | 28 | 10 | 246,250 | 85,940 | 8,795 | 8,594 |
| 공간지원 | 0 | 4 | 0 | 27,870 | 0 | 6,968 |
| 인적지원 | 1 | 10 | 42,000 | 100,000 | 42,000 | 10,000 |
| 계(평균) | 497 | 349 | 3,951,342 | 2,574,573 | 7,950 | 7,377 |

자료: 인천문화재단, <2011 인천문화예술연감>(2012)

(3) 지원장르별 문화예술지원 규모

지원장르는 음악, 무용 등의 공연예술과 미술, 사진 등의 시각예술, 문학·학술, 전통예술, 다원예술, 문화일반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문화일반에는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거나 일반적인 문화행사 등이 포함된다. 지원건수는 ‘공연예술’ (225건), ‘시각예술’ (98건), ‘문화일반’

(68건)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건당 평균 지원액은 전체 9건의 지원을 받은 ‘다원예술’ (30,056천원)이 가장 많고 ‘전통예술’ (11,189천원), ‘문화일반’ (9,205천원)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2-33] 지원장르별 문화예술지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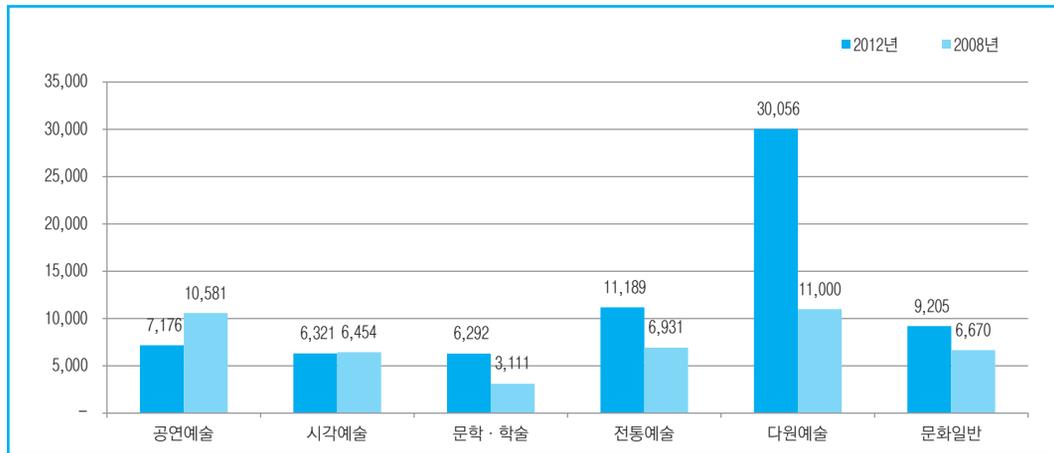
(단위 : 건, 천원)

| | 지원건수 | | 지원총액 | | 건당 평균 지원액 | |
|-------|-------|-------|-----------|-----------|-----------|--------|
|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
| 공연예술 | 225 | 105 | 1,614,605 | 1,111,023 | 7,176 | 10,581 |
| 시각예술 | 98 | 93 | 619,433 | 600,246 | 6,321 | 6,454 |
| 문학·학술 | 54 | 49 | 339,750 | 152,450 | 6,292 | 3,111 |
| 전통예술 | 43 | 34 | 481,144 | 235,662 | 11,189 | 6,931 |
| 다원예술 | 9 | 5 | 270,500 | 55,000 | 30,056 | 11,000 |
| 문화일반 | 68 | 63 | 625,910 | 420,192 | 9,205 | 6,670 |
| 계(평균) | 497 | 349 | 3,951,342 | 2,574,573 | 7,950 | 7,377 |

자료: 인천문화재단, <2011 인천문화예술연감>(2012)

[그림 Ⅲ-2-11] 지원장르별 건당 평균 지원액

(단위 : 천원)



자료: 인천문화재단, <2011 인천문화예술연감>(2012)

4. 문화예술교육

1) 다양성

(1) 문화예술교육 공공기관별 강좌

문화예술교육은 공공기관, 시설 학원, 개인 레슨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진행된 일반인 대상의 문화예술교육 강좌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2011년 한 해 인천의 공공기관 문화예술 강좌는 총 1,408건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가운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된 강좌가 6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민자치센터의 강좌가 가장 많은 것은 기관 수가 많고 접근성도 높기 때문이다.

[표 III-2-34] 문화예술교육 강좌(공공기관)

(단위 : 강좌, %)

| | 강좌 수 | 비율 |
|-----------|-------|-------|
| 도서관 | 135 | 9.6 |
| 문화원 | 116 | 8.2 |
| 문화회관 | 136 | 9.7 |
| 주민자치센터 | 669 | 47.5 |
| 청소년문화공간 | 55 | 3.9 |
| 박물관 | 67 | 4.8 |
| 복지관 | 105 | 7.5 |
| 평생학습관 | 25 | 1.8 |
| 기타 공공문화공간 | 100 | 7.1 |
| 합계 | 1,408 | 100.0 |

자료: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예술연감>(2012)

(2) 공공기관 문화예술 내용별 강좌

문화예술 교육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시각예술’이 457건으로 전체 32.5%를 차지했고 ‘음악’ 20.2%, ‘전통예술’ 10.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1,408건 가운데 ‘시각예술’ (32.5%), ‘음악’ (20.2%), ‘전통예술’ (10.4%) 강좌가 차지하는 총 비율은 63.1%로 다른 분야의

문화예술 교육 강좌 확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표 III-2-35] 문화예술 내용별 강좌(공공기관)

(단위 : 강좌, %)

| | 강좌 수 | 비율 |
|--------|-------|-------|
| 음악 | 285 | 20.2 |
| 무용 | 156 | 11.1 |
| 문학 | 112 | 8.0 |
| 시각예술 | 457 | 32.5 |
| 연극/뮤지컬 | 27 | 1.9 |
| 전통예술 | 146 | 10.4 |
| 미디어 | 22 | 1.6 |
| 기타 | 203 | 14.4 |
| 합계 | 1,408 | 100.0 |

자료: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예술연감>(2012)

제3절 문화자원

문화자원 영역은 현재 인천이 보유하고 있거나 잠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원으로, ‘문화예술인력’, ‘지역축제’, ‘문화유산’ 과 같은 관심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8 인천문화지표조사연구> 지표항목에 ‘지역축제’ 영역을 새롭게 설계하였으며 ‘축제특성별 지역문화축제 현황’, ‘지역별 문화축제 현황’ 세부지표를 추가하였다.

[표 Ⅲ-3-1] 문화자원 영역 지표항목

| 영역 | 관심영역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조사범위 | 비고 |
|---------------|--------|-------------------|--------------------|------|----|
| 문화자원 | 문화예술인력 | 충분성 | 장르별 문화예술인 비율 | ○ | |
| | | | 장르별 문화예술단체 비율 | ◎ | |
| | | | 전문예술법인 수 | ◎ | |
| | | | 무형문화재 1인당 전수·이수자 수 | ○ | |
| | 잠재성 | 문화예술 관련 학과 및 교수 수 | ○ | | |
| | | 장르별 시민문화예술동호회 비율 | ◎ | | |
| | 지역축제 | 충분성 | 축제특성별 지역문화축제 현황 | ◎ ● | |
| | | | 지역별 문화축제 현황 | ◎ | |
| | 문화유산 | 활용도 | 문화유산 수 | ○ | |
| | | | 문화유산 관련 공연 비율 | ◎ | |
| 문화유산 관련 예산 비율 | | | ◎ | | |

※ ○ : 광역시간 비교 / ● : 군·구간 비교 / ◎ : 인천

1. 문화예술인력

1) 충분성

(1) 장르별 문화예술인 비율

장르별 문화예술인 비율은 광역시간 비교분석을 위해 (사)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예총)와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이하 민예총)의 회원 수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¹²⁾

12) 민예총의 경우 일부지역의 분야별 회원 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부산, 인천에만 민예총 회원 수가 포함되어 있음

이를 통해 도출된 인천의 문화예술인 수는 총 3,193명으로 광역시 가운데 ‘울산’ (1,614명)을 제외하고 가장 적었다. 특히 ‘인천’과 ‘부산’ 조사 결과에는 민예총 회원 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천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수는 타 광역시에 비해 적은 수준이며 특히 인천과 유사한 규모의 ‘대구’의 예술인 수가 8,338명으로 조사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인천’의 문화예술인은 ‘시각예술’ (26.6%)과 ‘공연예술’ (25.7%)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존 문화예술 분야 구분에 속하지 않는 ‘기타’ (36.6%)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수가 많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표 III-3-2] 장르별 문화예술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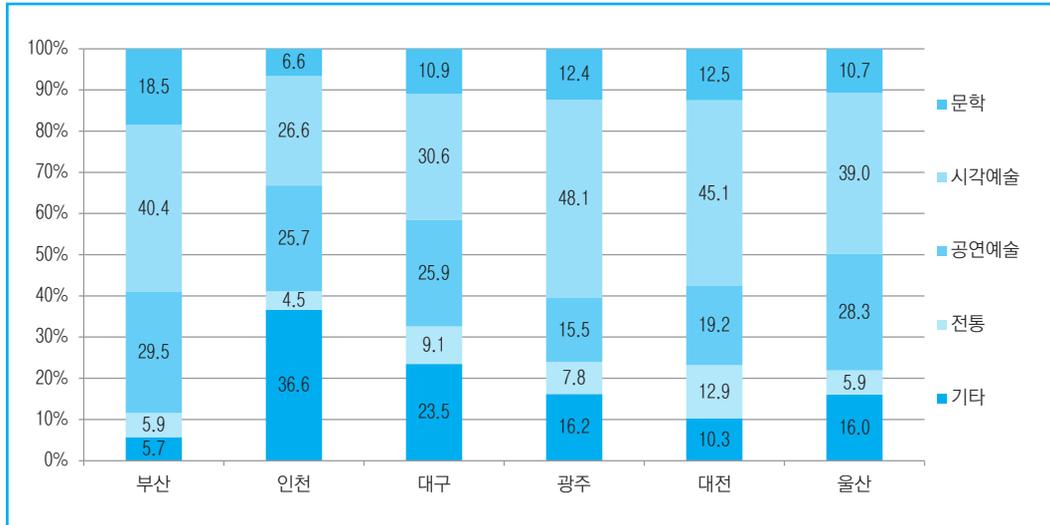
(단위: 명, %)

| | 문학 | 시각예술 | 공연예술 | 전통 | 기타 | 총계 |
|----|-------|-------|-------|------|-------|-------|
| 부산 | 1,176 | 2,564 | 1,872 | 376 | 361 | 6,349 |
| | 18.5 | 40.4 | 29.5 | 5.9 | 5.7 | 100.0 |
| 인천 | 210 | 850 | 820 | 144 | 1,169 | 3,193 |
| | 6.6 | 26.6 | 25.7 | 4.5 | 36.6 | 100.0 |
| 대구 | 905 | 2,550 | 2,162 | 762 | 1,959 | 8,338 |
| | 10.9 | 30.6 | 25.9 | 9.1 | 23.5 | 100.0 |
| 광주 | 560 | 2,166 | 699 | 350 | 730 | 4,505 |
| | 12.4 | 48.1 | 15.5 | 7.8 | 16.2 | 100.0 |
| 대전 | 500 | 1,800 | 768 | 516 | 410 | 3,994 |
| | 12.5 | 45.1 | 19.2 | 12.9 | 10.3 | 100.0 |
| 울산 | 173 | 629 | 457 | 96 | 259 | 1,614 |
| | 10.7 | 39.0 | 28.3 | 5.9 | 16.0 | 100.0 |

자료: 각 시도, 통계 DB(2010, 2011)

[그림 III-3-1] 장르별 문화예술인 비율

(단위 : %)



자료: 각 시도, 통계 DB(2010, 2011)

(2) 장르별 문화예술단체 비율

장르별 문화예술단체 수는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 DB 등록 단체 및 지원사업 응모 단체, 문화예술지원센터의 「2011 공연예술실태조사」, 각 협회 소속 단체 등을 통해 총 345개로 산출하였다. 타 광역시의 경우 장르별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정확한 집계는 없어 인천 내에서만 비교분석하였다.

인천의 문화예술 단체 중 ‘공연예술’ 단체는 227개 단체로 전체 345개 단체 가운데 65.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는 ‘시각예술’ 68개 단체, ‘문학·학술’ 27개 단체, ‘문화일반’ 14개 단체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공연단체의 수가 많이 집계된 것은 예술 활동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상대적으로 개인 작업이 많은 문학·학술과 문화일반, 시각예술의 경우 관련 단체수가 적게 집계된 것으로 파악된다.

[표 III-3-3] 장르별 문화예술 단체 비율

(단위 : 단체, %)

| | 문화예술단체 수 | | 문화예술단체 비율 | |
|-------|----------|-------|-----------|-------|
|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
| 문학·학술 | 27 | 18 | 7.8 | 9.1 |
| 시각예술 | 68 | 40 | 19.7 | 20.1 |
| 공연예술 | 227 | 109 | 65.8 | 54.8 |
| 문화일반 | 14 | 16 | 4.1 | 8.0 |
| 기타 | 9 | 16 | 2.6 | 8.0 |
| 계 | 345 | 199 | 100.0 | 100.0 |

자료: 인천문화재단DB 등

(3) 전문예술법인 수

전문예술법인 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문예술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를 기준으로 하였다.

2012년 현재 전국 인천 전문예술법인 단체는 13개로 2004년, 2008년 인천문화지표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수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전체 문화예술단체 대비 전문예술법인 수는 3.8%로 여전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문예술법인 제도는 세제지원 및 직접 지원을 통해 단체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540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다. 인천의 전문예술법인 단체들이 안정적, 지속적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전문예술법인제도에 대한 홍보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표 III-3-4] 전문예술법인 수

(단위 : 개)

| | 2012년 | 2008년 | 2004년 |
|---------------|-------|-------|-------|
| 전문예술법인 수(단체) | 13 | 9 | 11 |
| 문화예술 단체 수(단체) | 345 | 162 | 66 |
| 비율(%) | 3.8 | 5.6 | 16.7 |

자료: 전문예술법인 수: 예술경영지원센터, <전문예술법인단체 리스트>(2012), 문화예술 단체 수 : 인천문화재단 DB 등

(4) 무형문화재 1인당 전수·이수자 수

본 조사연구에서는 무형문화재 관련 인력을 기능 보유자, 전수·이수자(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장학생)으로 분류하고 그 수를 파악하였다. 무형문화재 1인당 전수·이수자 수는 인천이 8명으로 서울, 부산 다음으로 많았다. 그러나 전수·이수자 합계는 부산의 절반 수준이며 이에 따라 보유자 1인당 전수·이수자 수 또한 19명으로 보유자가 없는 대전, 울산은 제외하고는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5] 무형문화재 1인당 전수·이수자 수

(단위: 명)

| | 보유자 | | | 전수·이수자 | | | | | | | | | 보유자1인당 전수·이수자수 | | |
|----|-------|-------|-------|--------|-------|-------|-------|-------|-------|-------|-------|-------|-------------------|-------|-------|
| | | | | 전수교육조교 | | | 이수자 | | | 전수장학생 | | | | | |
| | 2012년 | 2008년 | 2004년 | 2012년 | 2008년 | 2004년 | 2012년 | 2008년 | 2004년 | 2012년 | 2008년 | 2004년 | 2012년 | 2008년 | 2004년 |
| 부산 | 10 | 10 | 19 | 18 | 17 | 13 | 304 | 234 | 169 | 3 | 6 | 5 | 32 | 26 | 10 |
| 인천 | 8 | 10 | 11 | 17 | 17 | 11 | 130 | 94 | 79 | 5 | 6 | 2 | 19 | 12 | 8 |
| 대구 | 2 | 2 | 1 | 0 | 0 | 0 | 92 | 70 | 41 | 0 | 1 | 1 | 46 | 36 | 42 |
| 광주 | 1 | 2 | 3 | 9 | 10 | 2 | 126 | 105 | 81 | 3 | 1 | 1 | 129 | 58 | 43 |
| 대전 | 0 | 0 | 0 | 0 | 1 | 1 | 94 | 71 | 36 | 0 | 1 | 3 | 0 | 0 | 0 |
| 울산 | 0 | 0 | 0 | 2 | 3 | 1 | 41 | 26 | 6 | 0 | 0 | 0 | 0 | 0 | 0 |

자료: 문화재청, <주요업무통계자료집>(2012.06)

2) 잠재성

(1) 문화예술 관련 학과 및 교수 수

문화예술 관련 학과 수는 각 광역시의 2년제 대학교와 4년제 대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학원은 중복 조사를 피하기 위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시도별 대학 목록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였고 전공분류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0 성별 문화인력 통계 DB」의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 문화인력 관련 전공분류’를 활용하되 미용산업 관련 학과는 제외하였다.

문화예술관련 학과 및 교수 수는 ‘부산’이 각각 84개 학과, 교수 4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는 문화예술 학과 뿐만 아니라 디자인, 영상, 콘텐츠 등의 학과가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파악된다. 반면 '인천'의 학과 및 전공 수는 20개로 광역시 평균인 37개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교수 수 또한 69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6] 문화예술 관련 학과 수 및 교수 수

(단위 : 개, 명)

| | 학과 및 전공 수 | | 교수 수 | |
|----|-----------|-------|--------|--------|
| | 2012 | 2008 | 2012 | 2008 |
| 부산 | 84 | 104 | 495 | 353 |
| 인천 | 20 | 25 | 69 | 87 |
| 대구 | 33 | 38 | 177 | 93 |
| 광주 | 35 | 62 | 235 | 230 |
| 대전 | 41 | 46 | 199 | 135 |
| 울산 | 12 | 13 | 37 | 48 |
| 평균 | 37.50 | 48.00 | 202.00 | 157.67 |

자료: 각 학교 홈페이지

(2) 분야별 시민문화예술동호회 비율

집계된 1,396개 동호회 가운데 '공연예술' 분야 동호회가 437개로 전체 31.3% 비율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시각예술' (103개), '문학' (61개)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항목 중에는 체육 동호회가 507개로 가장 활발하게 조직·운영되고 있었다.

[표 III-3-7] 분야별 시민문화예술동호회 비율

(단위 : 개, %)

| | 동호회 수 | 동호회 비율 |
|------|-------|--------|
| 공연예술 | 437 | 31.3 |
| 시각예술 | 103 | 7.4 |
| 문학 | 61 | 4.4 |
| 기타 | 795 | 56.9 |
| 계 | 1,396 | 100.0 |

자료 : 인천문화재단, <음악 교육 및 향유 기반 조성 연구>(2011)

2. 지역축제

1) 충분성

(1) 축제특성별 지역문화축제 현황

2011년 한 해 개최된 인천지역의 축제는 총 88건으로 이를 축제유형에 따라 ‘도시·관광’, ‘문화예술’, ‘자연·건강’, ‘전통·민속’, ‘청소년’, ‘지역축제’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 가운데 ‘문화예술’ 축제가 총 45건(51.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유형의 축제건수는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표 III-3-8] 축제특성별 지역문화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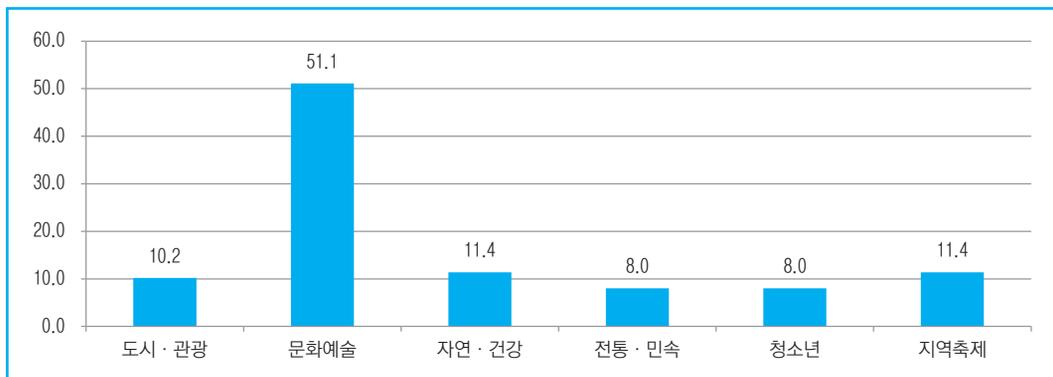
(단위: 건, %)

| | 건수 | 비율 |
|-------|----|-------|
| 도시·관광 | 9 | 10.2 |
| 문화예술 | 45 | 51.1 |
| 자연·건강 | 10 | 11.4 |
| 전통·민속 | 7 | 8.0 |
| 청소년 | 7 | 8.0 |
| 지역축제 | 10 | 11.4 |
| 전체 | 88 | 100.0 |

자료: 인천문화재단, <2011 인천문화예술연감>(2012)

[그림 III-3-2] 축제특성별 지역문화축제

(단위: %)



자료: 인천문화재단, <2011 인천문화예술연감>(2012)

(2) 지역별 문화축제 현황

인천 군·구별 문화축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한 해 동안 축제가 가장 많이 개최된 곳은 ‘남구’ (26.1%)와 ‘중구’ (23.9%)로 두 지역의 축제 개최비율이 인천시 전체의 과반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서구’ (12.5%), ‘남동구’ (10.2%)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계양구’와 ‘옹진군’은 각각 1건의 지역축제가 개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3-9] 군·구별 문화축제 현황

(단위: 회, %)

| | 축제 수 | 비율 |
|-----|------|-------|
| 중구 | 21 | 23.9 |
| 동구 | 4 | 4.5 |
| 남구 | 23 | 26.1 |
| 연수구 | 5 | 5.7 |
| 남동구 | 9 | 10.2 |
| 부평구 | 6 | 6.8 |
| 계양구 | 1 | 1.1 |
| 서구 | 11 | 12.5 |
| 강화군 | 7 | 8.0 |
| 옹진군 | 1 | 1.1 |
| 전체 | 88 | 100.0 |

자료: 인천문화재단, <2011 인천문화예술연감>(2012)

3. 문화유산

1) 활용도

(1) 문화유산 수

문화유산은 지정 문화재와 등록 문화재 수를 통해 확인하였다. 지정·등록 문화재는 유형별로 국가지정 문화재, 시 지정 문화재, 등록 문화재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유·무형 문화재를 모두 포함하였다. 인천의 문화재는 총 283점이었으며 이 가운데 ‘국가지정 문화재’ 61점, ‘시

지정 문화재’ 167점, ‘등록문화재’ 5점으로 조사되었다. 총 문화재 수로는 광역시 가운데 ‘부산’ (325점) 다음으로 많았다.

[표 Ⅲ-3-10] 문화유산 수

(단위: 점)

| | 지정 문화재 | | | | 등록문화재 | | 합계 | |
|----|----------|-------|----------|-------|-------|-------|-------|-------|
| | 국가지정 문화재 | | 시 지정 문화재 |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
|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 | | | |
| 서울 | 874 | 804 | 464 | 376 | 116 | 54 | 2,142 | 1,234 |
| 부산 | 40 | 39 | 246 | 193 | 12 | 8 | 325 | 240 |
| 인천 | 61 | 55 | 167 | 147 | 5 | 4 | 283 | 206 |
| 대구 | 66 | 50 | 146 | 132 | 8 | 8 | 262 | 190 |
| 광주 | 19 | 17 | 105 | 101 | 10 | 10 | 141 | 128 |
| 대전 | 6 | 3 | 173 | 137 | 16 | 14 | 182 | 154 |
| 울산 | 15 | 15 | 95 | 84 | 5 | 5 | 125 | 258 |

자료: 문화재청, <주요업무통계자료집>(2008.07, 2012.06)

(2) 문화유산 관련 공연 비율

2011년 인천문화예술활동 가운데 전통예술 관련 활동을 조사하였으며 인천문화재단의 <2011 인천문화예술연감>을 자료로 활용하였다.

인천의 무형문화재 관련 공연 주체는 개인과 단체, 무형문화재 지정 종목이 주체가 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2008년과 비교하여 전체 공연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인천도호부청사에서 열린 전통문화한마당, 전통연희단 잔치마당의 정규공연 등이 개최 일시별로 모두 계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체 공연 가운데 ‘단체 공연’이 총 150회로 가장 많은 공연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개인’ 22회, ‘무형문화재’ 22회 등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3-11] 문화유산 관련 공연 비율

(단위 : 회, %)

| | 공연 수 | | 비율 | |
|-------|-------|-------|-------|-------|
|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
| 개인 | 22 | 11 | 11.3 | 10.7 |
| 단체 | 150 | 49 | 77.4 | 47.6 |
| 무형문화재 | 22 | 43 | 11.3 | 41.7 |
| 계 | 194 | 103 | 100.0 | 100.0 |

자료 : 인천문화재단, <2011 인천문화예술연감>(2012)

(3) 문화유산 관련 예산 비율

문화유산 관련 예산 비율은 각 시의 일반회계를 기준으로¹³⁾ 문화 및 관광 등의 예산 가운데 문화유산(문화재)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하였다. 전체 문화·관광 예산 가운데 문화재 관련 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 18.4%였으며 '부산' 6.9%, '대전' 4.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인천'은 2008년 대비 1.8%p 감소한 2.8% 비율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울산의 문화재 관련 예산 비율이 높은 것은 문화유적 복원·정비 사업과 관련한 예산 배정액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Ⅲ-3-12] 문화유산 관련 예산 비율

(단위 : 백만원, %, %p)

| | 문화·관광 예산 규모 | | 문화재 관련 예산 | | 문화재 예산 비율 | | 2008년 대비 2012년 증감 |
|-------|-------------|-------------|------------|------------|-----------|-------|----------------------|
|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 |
| 부산 | 273,578,583 | 213,455,501 | 18,795,752 | 10,992,212 | 6.9 | 5.1 | △1.7 |
| 인천 | 631,569,842 | 150,489,378 | 17,501,450 | 6,893,914 | 2.8 | 4.6 | ▼1.8 |
| 대구 | 225,833,979 | 330,412,896 | 4,303,907 | 4,523,063 | 1.9 | 1.4 | ▼35.4 |
| 광주 | 245,100,686 | 118,623,452 | 6,299,499 | 3,231,144 | 2.6 | 2.7 | ▼0.2 |
| 대전 | 155,006,629 | 95,057,479 | 7,319,299 | 5,362,181 | 4.7 | 5.6 | ▼0.9 |
| 울산 | 115,602,765 | 88,084,232 | 21,217,898 | 23,619,748 | 18.4 | 26.8 | ▼8.5 |
| 계(평균) | 274,448,747 | 112,973,825 | 12,572,968 | 9,103,710 | 6.2 | 13.7 | ▼7.5 |

자료 : 각 시, <당해 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13) 대구광역시시의 경우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된 자료가 없어 부득이하게 특별회계가 포함된 자료를 활용함

제4절 문화활동

문화활동 영역은 ‘문화예술활동’과 ‘문화산업활동’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문화산업의 경우 기존 지표체계와 마찬가지로 문화산업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문화활동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인천시 문화산업의 전모 및 분야별 연구가 추진된 바 없고, 활용 가능한 통계자료 역시 광역 단위별 단순한 통계자료이기 때문이다.

[표 III-4-1] 문화활동 영역 지표항목

| 영역 | 관심영역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조사범위 | 비고 |
|------|--------|------|-----------------------|------|----|
| 문화활동 | 문화예술활동 | 다양성 | 분야별 문화예술 창작 및 발표활동 비율 | ◎ | |
| | | | 분야별 문화예술교육활동 비율 | ◎ | |
| | | | 공공단체 활동 비율 | ◎ | |
| | 문화산업활동 | 충분성 | 분야별 업체 비율 | ○ | |
| | | | 분야별 종사자 비율 | ○ | |
| | | | 분야별 매출액 | ○ | |

※ ○ : 광역시간 비교 / ● : 군·구간 비교 / ◎ : 인천

1. 문화예술활동

1) 다양성

(1) 분야별 문화예술 창작 및 발표활동 비율

분야별 문화예술 창작 및 발표활동은 인천문화재단의 <2011 인천문화예술연감>(2012)을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각 장르별 공연, 전시, 문예지 발간 등의 활동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2011년 한 해 분야별 활동 수는 ‘공연예술’이 894건으로 전체의 53.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시각예술’ 425건, ‘전통예술’ 200건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공연예술’과 ‘시각예술’을 합한 비율은 전체 78.9%로 두 분야의 창작활동 편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4-2] 분야별 문화예술 창작 및 발표활동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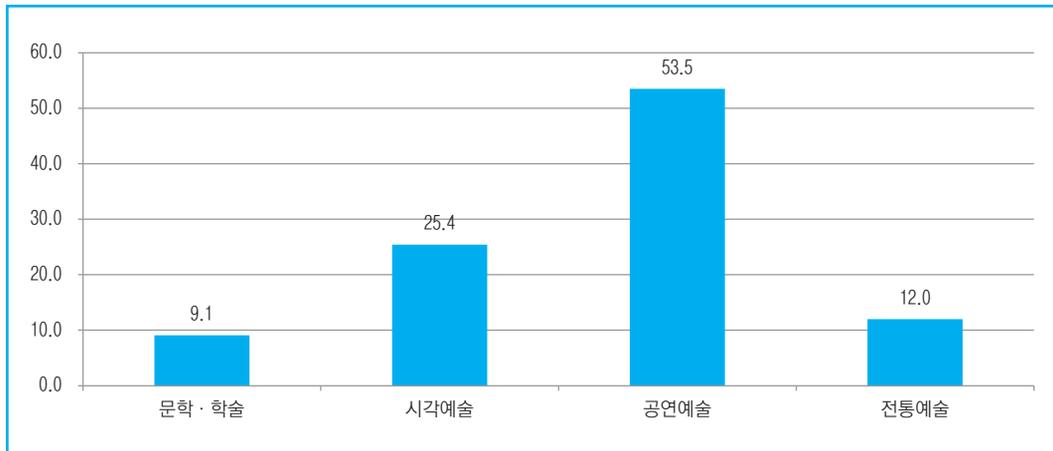
(단위 : 건, %)

| | 창작 및 발표활동 수 | | 창작 및 발표활동 비율 | |
|--------|-------------|-------|--------------|-------|
|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
| 문학(학술) | 152 | 119 | 9.1 | 9.9 |
| 시각예술 | 425 | 327 | 25.4 | 27.3 |
| 공연예술 | 894 | 648 | 53.5 | 54.1 |
| 전통예술 | 200 | 103 | 12.0 | 8.6 |
| 계 | 1,671 | 1,197 | 100.0 | 100.0 |

자료: 인천문화재단, <2011 인천문화예술연감>(2012)

[그림 III-4-1] 분야별 문화예술 창작 및 발표활동 비율

(단위 : %)



자료: 인천문화재단, <2011 인천문화예술연감>(2012)

이 가운데 ‘문학·학술’ 분야는 문학관련 행사 개최가 90건으로 가장 많았다. 문학관련 행사와 문예지 발간 건수는 2008년 대비 증가한 반면 ‘단행본 발간’은 전체 19건으로 2008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4-3] 문학·학술 분야 창작 및 발표활동 현황

(단위: 건, %)

| | 창작 및 발표활동 | | 창작 및 발표활동 비율 | |
|---------|-----------|-------|--------------|-------|
|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
| 단행본 발간 | 19 | 44 | 12.5 | 37.0 |
| 문예지 발간 | 43 | 26 | 28.3 | 21.8 |
| 문학관련 행사 | 90 | 49 | 59.2 | 41.2 |
| 계 | 152 | 119 | 100.0 | 100.0 |

자료: 인천문화재단, <2011 인천문화예술연감>(2012)

‘시각예술’은 ‘회화’ 장르가 총 18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사진’ 62건, ‘서예’ 19건 등으로 조사되었다. 2008년과 비교하여 전반적인 창작 발표활동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사진’이 62건으로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40건 늘어났다. 기타 분야에는 ‘설치’, ‘공예’, ‘디자인’ 등의 장르가 포함되었다.

[표 III-4-4] 시각예술 창작 및 발표활동 현황

(단위: 건, %)

| | 창작 및 발표활동 | | 창작 및 발표활동 비율 | |
|----|-----------|-------|--------------|-------|
|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
| 회화 | 184 | 202 | 41.8 | 61.8 |
| 사진 | 62 | 22 | 14.1 | 6.7 |
| 조소 | 9 | 11 | 2.0 | 3.4 |
| 서예 | 19 | 17 | 4.3 | 5.2 |
| 도예 | 12 | 6 | 2.7 | 1.8 |
| 기타 | 154 | 69 | 35.0 | 21.1 |
| 계 | 440 | 327 | 100.0 | 100.0 |

자료: 인천문화재단, <2011 인천문화예술연감>(2012)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음악(콘서트)’ (37.5%), ‘뮤지컬’ (15.9%)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2008년 인천문화지표 조사결과에 비해 전체 비중은 많이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극’의 경우 2008년 대비 활동 횟수가 크게 늘어 총 181건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4-5] 공연예술 창작 및 발표활동 현황

(단위: 회, %)

| | 창작 및 발표활동 | | 창작 및 발표활동 비율(%) | |
|---------|-----------|-------|-----------------|-------|
|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
| 음악(콘서트) | 298 | 294 | 37.5 | 45.4 |
| 연극 | 181 | 110 | 22.8 | 17.0 |
| 뮤지컬 | 126 | 122 | 15.9 | 18.8 |
| 무용 | 50 | 42 | 6.3 | 6.5 |
| 기타 | 139 | 80 | 17.5 | 12.3 |
| 계 | 794 | 648 | 100.0 | 100.0 |

자료: 인천문화재단, <2011 인천문화예술연감>(2012)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 및 발표활동은 총 194건으로 2008년 103건과 비교하여 증가하였다. 또한 2008년 조사 결과 전체 35%를 차지했던 ‘국악’ 장르의 발표활동은 줄어들었고 ‘종합’ (45.4%), ‘퓨전’ (14.9%) 장르의 발표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국악’ (16.0%), ‘굿/민속’ (13.4%) 등의 순이었다.

[표 III-4-6] 전통예술 창작 및 발표활동 현황

(단위: 회, %)

| | 창작 및 발표활동 | | 창작 및 발표활동 비율 | |
|------|-----------|-------|--------------|-------|
|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
| 국악 | 31 | 36 | 16.0 | 35.0 |
| 굿/민속 | 26 | 16 | 13.4 | 15.5 |
| 전통극 | 5 | 5 | 2.6 | 4.9 |
| 전통무용 | 2 | 5 | 1.0 | 4.9 |
| 종합 | 88 | 20 | 45.4 | 19.4 |
| 풍물 | 13 | 12 | 6.7 | 11.7 |
| 퓨전 | 29 | 9 | 14.9 | 8.7 |
| 계 | 194 | 103 | 100.0 | 100.0 |

자료: 인천문화재단, <2011 인천문화예술연감>(2012)

(2) 분야별 문화예술교육활동 비율

문화예술교육활동을 ‘문학·학술’,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기타’ 등으로 나눠 살펴보면 2011년 한 해 ‘시각예술’ 활동은 479강좌(34.0%), ‘공연예술’ 468강좌(33.2%)

등으로 비슷한 비율로 조사되었다. ‘시각예술’과 ‘공연예술’ 두 분야의 교육 비율은 전체의 67.2%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 두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인천문화지표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문학(학술)’ 교육 강좌가 크게 늘어난 반면 ‘전통예술’ 강좌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4-7] 분야별 문화예술교육활동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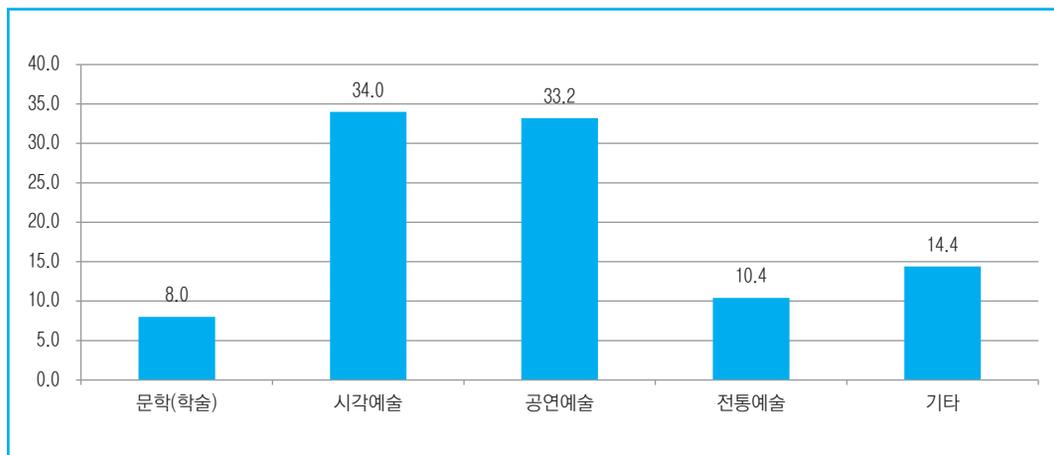
(단위 : 강좌, %)

| | 문화예술교육 강좌 수 | | 문화예술교육 강좌 비율 | |
|--------|-------------|-------|--------------|-------|
|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
| 문학(학술) | 112 | 44 | 8.0 | 3.6 |
| 시각예술 | 479 | 447 | 34.0 | 37.0 |
| 공연예술 | 468 | 505 | 33.2 | 41.8 |
| 전통예술 | 146 | 201 | 10.4 | 16.6 |
| 기타 | 203 | 11 | 14.4 | 0.9 |
| 계 | 1,408 | 1,208 | 100.0 | 100.0 |

자료: 인천문화재단, <2011 인천문화예술연감>(2012)

[그림 III-4-2] 장르별 문화예술교육활동 비율

(단위 : %)



자료: 인천문화재단, <2011 인천문화예술연감>(2012)

(3) 공공단체 활동 비율

공연예술분야의 활동주체는 시립, 구립예술단 등의 공공단체와 민간단체, 해외단체, 학생 및 교사, 개인 및 기타 단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1년 한 해 공공단체의 활동횟수는 총 51회로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공공단체의 공연 횟수는 많이 줄어든 반면 민간단체의 공연은 11.0%p 늘어난 73.8%로 조사되었다.

[표 III-4-8] 공공단체 활동 비율

(단위: 회, %)

| | 활동 수 | | 활동 비율 | |
|-----------|------|------|-------|-------|
| | 2012 | 2008 | 2012 | 2008 |
| 공공단체 | 51 | 93 | 6.4 | 14.4 |
| 민간단체 | 586 | 407 | 73.8 | 62.8 |
| 해외단체 | 21 | 24 | 2.6 | 3.7 |
| 학생 및 교사 | 31 | 33 | 3.9 | 5.1 |
| 개인 및 기타단체 | 105 | 91 | 13.2 | 14.0 |
| 계 | 795 | 648 | 100.0 | 100.0 |

자료: 인천문화재단, <2011천문화예술연감>(2012)

2. 문화산업활동

2008년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의 문화산업통계와 디지털콘텐츠산업통계가 통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문화콘텐츠산업통계>를 자료로 활용하였고 <2009 문화산업통계> 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문화산업을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등 9개 분야로 제한하였다.

1) 충분성

(1) 분야별 업체 비율¹⁴⁾

14) 2008년 이후 문화산업통계와 디지털콘텐츠산업통계가 통합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9년 기준조사 부터는 콘텐츠산업통계로 통합하여 조사가 이루어짐. 이에 2006년 본 인천문화지표 연구 결과에서 활용한 2006년 기준조사는 문화산업통계와 디지털콘텐츠산업통계의 표본수를 단순 합친 결과이며, 2009년 기준조사는 콘텐츠산

인천의 문화콘텐츠 산업체는 총 5,751개 업체로 광역시 가운데 부산, 대구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업체는 ‘음악’ 분야로 2,422개 업체가 있으며 ‘만화’ 582개 업체, ‘게임’ 1,026개 업체 등이 광역시 평균보다 많았다. 나머지 분야의 업체는 광역시 평균과 비슷하거나 적은 수준이었다.

[표 III-4-9] 분야별 업체 비율1

(단위: 개, %)

| | 출판 | | 만화 | | 음악 | | 게임 | | 애니메이션 | |
|---------|--------|--------|-------|-------|-------|-------|-------|-------|-------|-------|
|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
| 서울 | 10,019 | 11,773 | 3,110 | 3,487 | 8,212 | 8,408 | 5,178 | - | 169 | 137 |
| 부산 | 2,452 | 2,620 | 778 | 887 | 2,471 | 2,867 | 1,462 | - | 11 | 18 |
| 인천 | 1,201 | 1,325 | 582 | 566 | 2,422 | 2,343 | 1,026 | - | 6 | 5 |
| 대구 | 1,879 | 1,986 | 475 | 532 | 2,308 | 2,310 | 925 | - | 10 | 12 |
| 광주 | 1,122 | 1,174 | 319 | 372 | 1,343 | 1,310 | 892 | - | 20 | 15 |
| 대전 | 1,018 | 1,050 | 411 | 460 | 1,342 | 1,244 | 612 | - | 3 | 7 |
| 울산 | 508 | 538 | 192 | 251 | 1,067 | 1,058 | 469 | - | - | - |
| 평균(광역시) | 1,363 | 1,449 | 460 | 511 | 1,826 | 1,855 | 898 | - | 8 | 11 |
| 비율(광역시) | 27.6 | 34.6 | 9.3 | 12.2 | 37.0 | 44.3 | 18.2 | - | 0.2 | 0.3 |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콘텐츠산업통계>(2012)

[표 III-4-10] 분야별 업체 비율2

(단위: 개, %)

| | 방송 (독립제작 포함) | | 광고 | | 캐릭터 | | 지식정보 (애듀테인먼트) | | 계 | |
|---------|-----------------|-------|-------|-------|-------|-------|------------------|-------|--------|--------|
|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
| 서울 | 634 | 185 | 2,541 | 1,788 | 562 | 508 | 1,781 | 1,002 | 32,206 | 27,657 |
| 부산 | 27 | 26 | 205 | 460 | 137 | 121 | 58 | 31 | 7,682 | 7,047 |
| 인천 | 13 | 13 | 104 | 17 | 59 | 42 | 44 | 22 | 5,751 | 4,343 |
| 대구 | 17 | 16 | 317 | 391 | 79 | 71 | 49 | 23 | 6,193 | 5,357 |
| 광주 | 15 | 7 | 491 | 397 | 38 | 33 | 37 | 31 | 4,165 | 3,350 |
| 대전 | 10 | 9 | 311 | 272 | 46 | 39 | 33 | 20 | 3,540 | 3,111 |
| 울산 | 6 | 7 | 68 | 41 | 27 | 24 | 16 | 11 | 2,322 | 1,933 |
| 평균(광역시) | 15 | 13 | 249 | 263 | 64 | 55 | 40 | 23 | 4,942 | 4,190 |
| 비율(광역시) | 0.3 | 0.3 | 5.0 | 6.3 | 1.3 | 1.3 | 0.8 | 0.5 | 100.0 | 100.0 |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콘텐츠산업통계>(2012)

업통계로 처음 조사한 결과임. 그러므로 2010년 표본 규모는 2006년 표본 규모와 직접 비교할 수 없음.

(2) 분야별 종사자 비율

문화산업 분야별 종사자는 ‘부산’이 19,07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대구’ 16,359명, ‘인천’ 14,190명 등의 순이었다. 인천의 경우 ‘음악’ 분야의 종사자 수가 4,65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출판’ 4,101명, ‘게임’ 2,759명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4-11] 분야별 종사자 비율

(단위: 명)

| 구분 | 출판 | 만화 | 음악 | 게임 | 애니메이션 | 방송 | 광고 | 캐릭터 | 지식정보 (에듀 테인먼트) | 계 |
|---------|--------|-------|--------|--------|-------|--------|--------|--------|-------------------|---------|
| 서울 | 68,467 | 4,591 | 18,864 | 39,705 | 3,078 | 23,776 | 27,162 | 12,555 | 36,164 | 254,931 |
| 부산 | 5,382 | 517 | 4,978 | 3,133 | 149 | 1,115 | 949 | 1,183 | 756 | 19,077 |
| 인천 | 4,101 | 334 | 4,659 | 2,759 | 49 | 300 | 279 | 770 | 613 | 14,190 |
| 대구 | 4,762 | 349 | 4,536 | 2,609 | 81 | 1,114 | 892 | 887 | 615 | 16,359 |
| 광주 | 3,487 | 240 | 2,485 | 1,744 | 132 | 617 | 1,111 | 523 | 429 | 11,180 |
| 대전 | 2,821 | 235 | 2,479 | 2,287 | 19 | 636 | 770 | 504 | 471 | 10,618 |
| 울산 | 1,142 | 149 | 2,111 | 1,054 | - | 495 | 216 | 262 | 222 | 5,739 |
| 평균(광역시) | 3,616 | 304 | 3,541 | 2,264 | 72 | 713 | 703 | 688 | 518 | 12,861 |
| 비율(광역시) | 28.1 | 2.4 | 27.5 | 17.6 | 0.6 | 5.5 | 5.5 | 5.4 | 4.0 | 100.0 |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콘텐츠산업통계>(2012)

(3) 분야별 매출액

문화산업 총 매출액은 광역시 가운데 ‘부산’ (12,692백만원)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의 순이었다. 인천은 광역시 평균과 비교하여 만화, 음악, 게임, 캐릭터, 지식정보 분야의 매출액은 높았으나 만화, 애니메이션, 방송영상 독립제작 등 주로 영상분야의 매출액이 타 광역시에 비해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영상 분야의 업체 수 및 종사자 수가 적은 것과는 연관되며 향후 관련 업체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I-4-12] 분야별 매출액 1

(단위: 백만 원)

| 구분 | 출판 | 만화 | 음악 | 게임 | 애니메이션 |
|---------|------------|---------|-----------|-----------|---------|
| 서울 | 12,368,460 | 344,793 | 1,543,936 | 4,080,378 | 247,546 |
| 부산 | 553,724 | 23,273 | 120,871 | 127,351 | 12,692 |
| 인천 | 327,104 | 13,040 | 105,007 | 109,566 | 4,811 |
| 대구 | 478,936 | 11,380 | 107,020 | 112,283 | 6,328 |
| 광주 | 249,244 | 8,385 | 57,031 | 67,693 | 12,501 |
| 대전 | 227,714 | 9,747 | 56,600 | 90,799 | 1,527 |
| 울산 | 94,006 | 4,851 | 44,192 | 43,788 | - |
| 평균(광역시) | 321,788 | 11,779 | 81,787 | 91,913 | 66,310 |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콘텐츠산업통계>(2012)

[표 III-4-13] 분야별 매출액 2

(단위: 백만 원)

| 구분 | 방송영상 독립제작 | 광고 | 캐릭터 | 지식정보 (에듀테인먼트) | 계 |
|---------|-----------|-----------|-----------|------------------|------------|
| 서울 | 641,494 | 9,749,301 | 3,019,449 | 4,800,907 | 39,617,584 |
| 부산 | 5,322 | 74,229 | 241,498 | 51,370 | 1,295,312 |
| 인천 | 2,662 | 38,914 | 156,037 | 39,261 | 830,143 |
| 대구 | 3,340 | 64,611 | 180,879 | 41,518 | 1,041,511 |
| 광주 | 4,194 | 49,943 | 105,466 | 30,858 | 624,403 |
| 대전 | 1,050 | 23,980 | 113,195 | 39,011 | 602,437 |
| 울산 | 392 | 16,052 | 50,920 | 15,694 | 278,495 |
| 평균(광역시) | 2,827 | 44,622 | 141,333 | 36,285 | 778,717 |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콘텐츠산업통계>(2012)

제5절 2012 인천문화지표 조사 종합분석

생활환경의 편리성 면에서 볼 때 인천의 경쟁력은 타 광역시들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다. ‘인천’의 인구는 2,801,274명으로 2004년과 2008년에 비해 증가세에 있으며, 인구밀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인구밀도 자체는 울산 다음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강화군과 옹진군 등의 섬과 농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도로밀도 역시 인천의 교통 사정이 양호하지 못하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면적대비 도로연장(2.41km/km², 광역시 평균 2.91km/km²)이나 자동차 도로연장(2.67m/대, 광역시 평균 3.04m/대)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특히 자동차 도로연장의 경우 2008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도로면적의 확장속도보다 자동차 대수의 증가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수도 타 광역시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환경의 쾌적성에서도 인천은 전반적으로 타 광역시에 못미치는 결과가 나왔다. ‘녹지 비율’은 전국 광역시 중 최하위인 51.1%(전국 평균 69.5%)로 조사되었으며 대기오염도마저 전국 광역시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녹지비율이 적은 것과는 달리 공원 수와 면적에서는 평균을 웃도는 수치로 조사되었다.

교육환경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국평균에 수렴해 있으나 중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수(19명, 전국 평균 18명)와 학급 1개당 학생수(36명, 전국평균 34명)는 평균보다 높아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전반적인 행정환경은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와 2014 아시안게임 유치 등의 영향으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1인당 예산액이 광역시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2,808천 원, 전국평균 2,402천원) 재정자립도 역시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수치들은 대규모 사업들로 인해 인천이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설명해주지 못하는 난점이 있다.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215명(전국평균 219명)으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인구대비 공무원 수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환경의 측면에서 ‘인천’의 인구증가율은 1.51%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취업자와 구직활동 중인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 인구 비율 역시 광역시 중 가장 높았다. 다만 취

업률은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인천 지역의 주간인구지수 역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영향으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가 많지만, 동시에 서울로 출퇴근하는 비율이 높고 실업률도 높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의 경제적 토대가 견고하지 못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인천’의 ‘등록공연장’은 29개, ‘전시시설’은 27개, ‘공공도서관’은 26개로 2008년에 비해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전시시설과 공공도서관의 증가는 주목할만 하다. 이를 시설 1개소 당 인구수로 따져보면 ‘공연장’은 95,114명, ‘공공도서관’은 118,930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아 인구 대비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시시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다. 문화예산의 비율은 1.9%로 광역시 평균인 2.64%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문화예술지원의 경우 2008년에 비해 지원건수와 총액, 건당 평균 지원액이 모두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인천의 문화예술인과 단체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 관련 학과와 교수 수에서도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를 기록해 전반적으로 문화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제1절 2012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 체계

제2절 조사 개요

제3절 2004년·2008년·2012년 조사결과 시계열 분석

제4절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 비교분석

제5절 2012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 종합분석

제1절 2012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 체계

문화수요조사는 인천시민들의 문화 향유 실태 및 인천 문화 현실에 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자료는 인천시민 총 564명을 대상으로 1:1 개별면접 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2008년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 항목과 비교하여 역사문화 유적지, 문화예술교육, 창작·발표 활동 및 동호회 활동 등의 영역을 추가하였으며 문화예술행사 영역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 축제를 따로 분리하여 인천 지역축제 참여 경험 및 참여 축제 만족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012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는 여가활동, 문화예술 행사참여, 문화예술 시설이용, 지역 축제, 역사문화 유적지, 문화예술교육, 창작·발표 활동 및 동호회 활동, 문화의식 등 총 8개 관심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여가 활동 영역은 시민 여가활동 시간, 활동 유형 및 향후 희망하는 여가활동 유형을 조사하였다. 문화예술행사 참여 영역에서는 장르별 문화예술행사 관람실태, 주요 관람지역, 관련 지출 경험 및 지출액, 향후 희망하는 문화예술 행사와 인천지역 문화예술행사 만족도를 함께 설문하여 참여 유형 및 지출 형태, 만족도를 함께 분석하였다. 문화예술시설 이용 영역은 시설 이용실태 및 주요 항목별 시설 이용 만족도를 설문하였고, 지역축제는 인천 지역 축제 참가(관람) 경험, 관람이유, 참여 시 고려요소, 참여 축제의 만족도를 설문하였다. 역사문화유적지는 강화 지역과 강화 외 인천 지역 방문 경험을 나눠 설문하였으며 방문 경험과 방문계기, 방문 시 고려요소, 항목별 방문 만족도를 설문하였다. 문화예술교육 영역은 학교교육 외에 참여 경험이 있는 문화예술교육 분야, 교육 참여 이유(목적), 참여 기관 설문을 통해 공공기관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인천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보완점과 향후 희망하는 문화예술교육 분야 설문을 통해 시민 의견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창작·발표 활동 및 참여 활동은 공개적 문화예술 활동 경험 및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경험 여부, 향후 참여의향을 설문하였으며 참여를 위한 주요 요소를 함께 설문하였다. 주거만족도 영역은 항목별 현재 주거 환경 만족도와 미래 주거지 선택 시 중요도를 함께 설문하여 IPA분석을 통해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문화의식 영역은 인천 시민의 문화에 대한 이미지, 중요도, 인천 지역 문화

의식과 함께 향후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이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을 함께 설문하여 시민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IV-1-1] 2012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 체계

| 영역 | 관심 영역 | 평가항목 | 조사내용 | 비고 | |
|--------------------|---------------------|------|------------------------------|---|--|
| 인천시민 문화수요 조사 | 여가 활동 | 충분성 | 평일/주말 평균 여가시간 | | |
| | | 다양성 | 평일/주말 여가활동 유형 향후 희망 여가활동 | | |
| | 문화예술 행사참여 | 참여도 | | 장르별 문화예술행사 관람실태 -관람률, 관람이유, 관람지역, 고려요소, 정보출처 | |
| | | | | 문화예술행사 주요 관람지역 | |
| | | | | 문화예술관련 지출 경험 및 지출액 향후 희망 문화예술 행사 | |
| | | 만족도 | 인천지역 문화예술행사 만족도 | | |
| | 문화예술 시설이용 | 이용도 | 문화시설 이용실태-이용도, 이용 동기, 고려요소 | | |
| | | 만족도 | 1순위 이용시설 만족도 | | |
| | 지역 축제 | 참여도 | 인천 축제 참가(관람) 경험, 관람 이유, 고려요소 | | |
| | | 만족도 | 참여 축제 만족도 | | |
| | 역사문화 유적지 (전통문화) | 방문율 | 유적지 방문 경험, 방문계기, 고려요소 | | |
| | | 만족도 | 방문 만족도 | | |
| | 문화예술교육 (학교교육 제외) | 경험률 | | 문화예술교육 참여 -경험, 교육기관(매체), 교육 이유, 교육 분야 | |
| | | | | 보안점, 향후 희망 문화예술교육 분야 | |
| | | 만족도 | 교육만족도 | | |
| | 창작·발표 활동 및 참여 활동 | 경험률 | | 문화예술 창작·발표-경험, 분야 | |
| | | | | 문화예술 동호회 -참여율, 동호회 분야, 참여 계기, 운영 형식, 미 참여 이유 | |
| | | | | 향후 참여 의향, 희망 분야, 참여를 위한 요소 | |
| | 주거 만족도 | | | 현재 만족도, 미래 중요도 | |
| | 문화의식 | | | '문화' 연상 이미지 | |
| | | | 문화 중요도, 중요 이유 | | |
| | | | '문화도시' 이미지 | | |
| | | | 인천 고유의 특성 | | |
| | | | 향후 중점 수행 사업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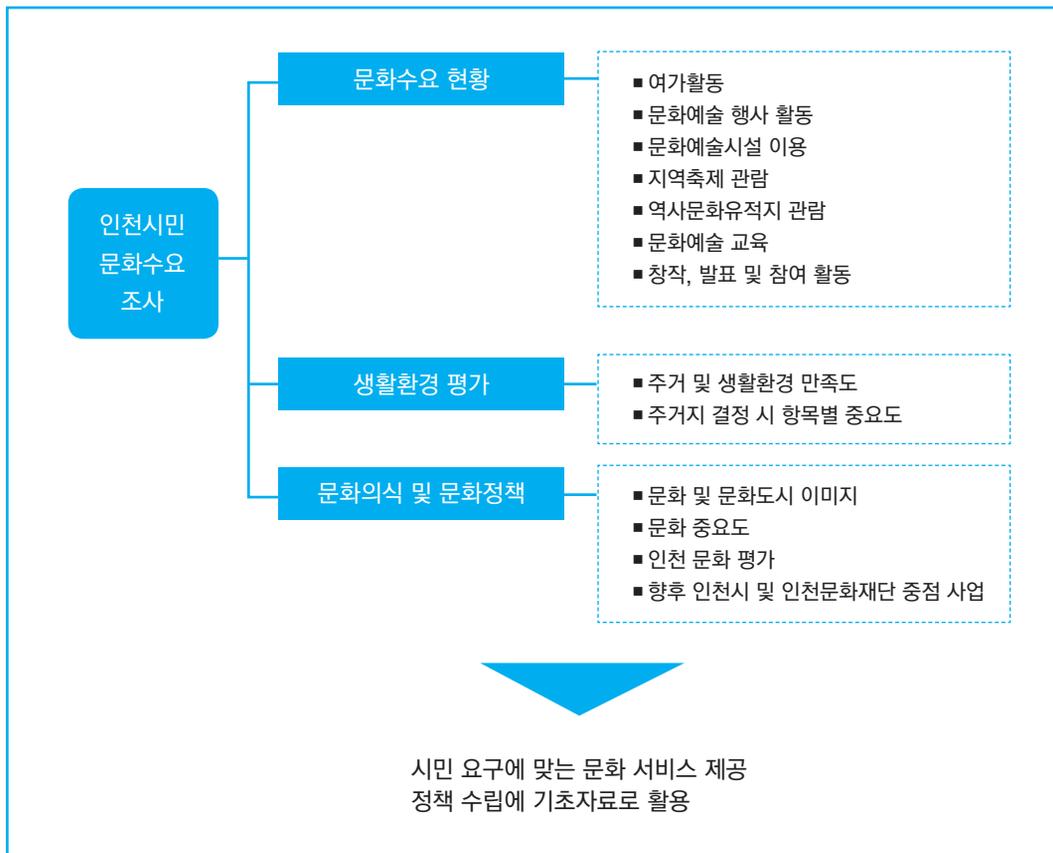
본 장에서는 2012년 인천시민들의 문화향수 실태와 문화의식에 대한 주요 결과를 정리하였다. 또한 인천시민의 문화향수 실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국 조사인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 및 <2004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 <2008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와의 비교를 통해 전국 평균 대비 인천시민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후에는 <2004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 <2008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와의 비교를 통해 시계열 분석을 시도하였다.

제2절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본 조사는 인천시민의 문화수요 현황과 생활환경 평가, 문화의식 및 문화정책 분석을 통해 시민 요구에 맞는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하였다.

[그림 IV-2-1] 2012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 구성



2. 조사 설계

본 조사는 20세 이상 인천시민 564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1:1 개별면접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표본 추출 방법은 성·연령·지역별 인구구성비례할당 무작위 추출을 활용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2년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총 11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표 IV-2-1] 조사 설계

| | |
|----------|---|
| 조사대상 | 20세 이상 인천시민 |
| 표본 수 | 564명 [95% 신뢰수준 표준오차 ±4.13%] |
| 조사방법 | 개별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
| 조사도구 | 구조화된 설문지 |
| 표본 추출 방법 | 성·연령·지역별 인구구성비례할당 무작위 추출 (proportionate Quota & Random Sampling) |
| 조사기간 | 2012년 8월 1일~2012년 8월 10일 |

3. 응답자 특성

본 설문조사는 20세 이상 인천시민 564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응답자의 특성별로 성, 연령, 거주 지역, 최종학력, 직업, 첫째 자녀 나이, 월 소득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연령별로는 20대부터 60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거주 지역은 인천시 10개 군·구를 북부, 중부, 동부, 남부 등 총 4개 권역으로 설계하였다. 최종학력은 중졸 이하, 고졸 이상 등 두 개 항목으로, 직업은 전문직·사무직, 생산·판매·자영, 학생·주부·기타 등 세 개 항목으로 분석하고, 월 소득의 경우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표 IV-2-2] 일반인 응답자 특성

| | | 응답자 특성 | |
|----------|----------------------|--------|-------|
| | | 명 | % |
| 전 체 | | (564) | 100.0 |
| 성별 | 남자 | (281) | 49.8 |
| | 여자 | (283) | 50.2 |
| 연령 | 20대 | (126) | 22.3 |
| | 30대 | (133) | 23.6 |
| | 40대 | (130) | 23.0 |
| | 50대 | (102) | 18.1 |
| | 60대 | (73) | 12.9 |
| 거주 지역 | 북부 (강화군, 서구, 계양구) | (168) | 29.8 |
| | 중부 (옹진군, 중구, 동구, 남구) | (158) | 28.0 |
| | 동부 (부평구) | (97) | 17.2 |
| | 남부 (연수구, 남동구) | (141) | 25.0 |
| 최종학력 | 중졸 이하 | (233) | 41.3 |
| | 고졸 이상 | (331) | 58.7 |
| 직업 | 전문직·사무직 | (201) | 35.6 |
| | 생산·판매·자영 | (209) | 37.1 |
| | 학생·주부·기타 | (154) | 27.3 |
| 첫째 자녀 나이 | 고등학생 이하 | (195) | 34.6 |
| | 대학생 이상 | (147) | 26.1 |
| | 자녀 없음 | (222) | 39.4 |
| 월 소득 | 300만원 미만 | (184) | 32.6 |
| | 400만원 미만 | (176) | 31.2 |
| | 500만원 미만 | (133) | 23.6 |
| | 500만원 이상 | (71) | 12.6 |

제3절 2004년·2008년·2012년 조사결과 시계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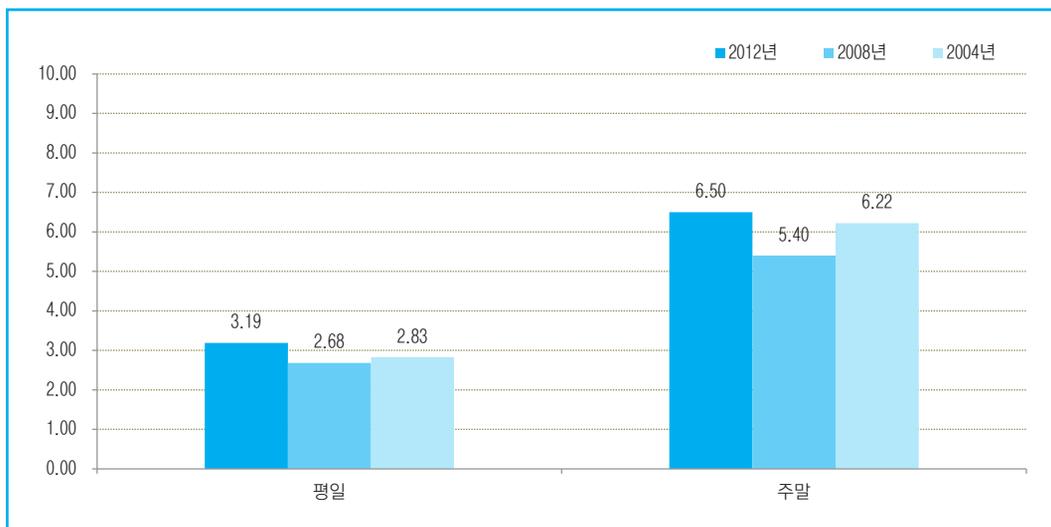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가 처음 시행된 2004년부터 2008년과 2012년의 조사결과 비교를 통해 12년 동안의 인천시민 문화수요 실태 변화를 알아보고자 세 설문조사에서 동일한 설문항목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결과 비교에 있어 2004년 조사 결과는 무응답을 응답비율에 포함시켰으나 2008년, 2012년 조사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문항은 같으나 응답항목이 변경되어 직접 비교가 어려운 경우 순위로 비교하였다.

1. 여가시간

〈2012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 결과 평일과 주말의 평균 여가시간은 각각 3.19시간과 6.50시간으로 2008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8년에는 2004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평일과 주말 여가시간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12년 조사결과는 2004년, 2008년 두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여가시간이 증가하였다.

[그림 IV-3-1] 여가시간

(단위 : 시간)



2. 여가활동 유형

평일 여가활동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TV 시청’이 29.8%로 가장 높았고 ‘휴식, 낮잠’ 27.1%, ‘운동’ 16.3% 등의 순이었다. 2008년 조사에서도 ‘TV시청’ 18.3%, ‘쉰다/낮잠’ 16.8%, ‘산책·스포츠 활동’ 9.7% 등 응답률에는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인 응답 순위는 같았다. 2012년 조사의 응답보기에는 ‘스마트 기기·컴퓨터 활용’이 추가되었고 전체 3.9% 응답률을 보였다. 2004년 조사에서는 ‘친구, 애인, 친지, 가족만남’ 14.3%, ‘수면, 휴식’ 13.0%, ‘TV 시청’ 11.2% 등으로 조사되었다. 평일 여가활동 유형을 시계열로 살펴보면 여가활동으로 ‘TV 시청’ 한다는 응답 비율이 2004년 11.2%에서 2012년 29.8%로 크게 증가하였고 ‘수면, 휴식’ 등의 응답을 역시 11.2%에서 27.1%로 크게 증가하였다. 2012년 응답 결과에서는 ‘TV 시청’ 과 ‘휴식, 낮잠’ 응답율이 전체 56.9%로 과반을 차지하였다.

[표 IV-3-1] 여가활동 유형(평일 상위 7순위)

(단위 : %)

| 여가활동 유형(평일) | | | | | | |
|-------------|---------------|------|---------------|------|-------------------|------|
| | 2012년 (n=564) | | 2008년 (n=500) | | 2004년 (n=1000) | |
| 1순위 | TV 시청 | 29.8 | TV시청 | 18.3 | 친구, 애인, 친지, 가족 만남 | 14.3 |
| 2순위 | 휴식, 낮잠 | 27.1 | 쉰다/낮잠 | 16.8 | 수면, 휴식 | 13.0 |
| 3순위 | 운동 | 16.3 | 산책·스포츠 활동 | 9.7 | TV시청 | 11.2 |
| 4순위 | 독서, 만화책 보기 | 6.2 | 동호회·모임·친구 | 9.3 | 문화 활동 및 관람 | 10.9 |
| 5순위 | 스마트 기기·컴퓨터 | 3.9 | 쇼핑·외식·가족대화 | 8.5 | 종교 활동 | 10.0 |
| 6순위 | 자기계발 | 3.5 | 인터넷·게임 | 8.0 | 쇼핑, 외식 | 6.6 |
| 7순위 | 음악 감상, 라디오 청취 | 2.3 | 종교 활동 | 6.7 | 산책, 드라이브 | 5.4 |

※ 2004년 조사결과에서 무응답 제외 후 재분석

※ 2004년, 2008년 조사결과는 응답률의 합이 100%로 되도록 분석한 결과임

주말 여가활동 유형을 살펴보면 2012년 조사에서는 ‘휴식, 낮잠’ 19.1%, ‘운동’ 16.1%, ‘TV 시청’ 15.2%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종교 활동’이라는 응답이 13.8%로 높게 나타났다. 2008년과 2004년 조사에서 각각 6.1%, 6.0%의 응답률을 보였던 ‘독서’는 2012년 조사에서는 상위순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표 IV-3-2] 여가활동 유형(주말 상위 7순위)

(단위 : %)

| 여가활동 유형(주말) | | | | | | |
|-------------|---------------|------|---------------|------|-------------------|------|
| | 2012년 (n=564) | | 2008년 (n=500) | | 2004년 (n=1000) | |
| 1순위 | 휴식, 낮잠 | 19.1 | TV시청 | 24.1 | TV시청 | 31.0 |
| 2순위 | 운동 | 16.1 | 쉼다/낮잠 | 18.7 | 수면, 휴식 | 14.6 |
| 3순위 | TV 시청 | 15.2 | 산책·스포츠 활동 | 10.7 | 인터넷 | 11.1 |
| 4순위 | 종교 활동 | 13.8 | 인터넷·게임 | 10.7 | 친구, 애인, 친지, 가족 만남 | 6.9 |
| 5순위 | 극장 영화관람 | 6.6 | 쇼핑·외식·가족대화 | 9.0 | 체육레저 활동 및 관람 | 6.4 |
| 6순위 | 관광/체험 | 4.4 | 동호회·모임·친구 | 7.3 | 독서 | 6.0 |
| 7순위 | 쇼핑, 외식 | 4.3 | 독서 | 6.1 | 문화 및 관람 | 5.4 |

※ 2004년 조사결과에서 무응답 제외 후 재분석

※ 2004년, 2008년 조사결과는 응답률의 합이 100%로 되도록 분석한 결과임

3. 향후 희망 여가활동 유형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향후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에 대해 질문¹⁵⁾하였다. 분석 결과 2012년 조사에서는 평일과 주말 모두 관광/체험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특히 평일과 주말 모두 공연관람, 음악활동 등의 문화예술활동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2008년에는 ‘산책, 스포츠 활동’ 14.5%, ‘등산, 낚시’ 10.0% 등 스포츠 관련 활동의 응답률이 높았다. 2008년의 예술활동 및 감상 활동 응답률은 2004년과 비교하여 낮았다. 2004년 조사결과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응답률이 6.3%였으나 2008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2012년 조사에서도 상위 순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15) 2012년에는 평일·주말을 구분하여 3순위 질문, 2004년에는 3순위 질문, 2004년에는 순위 없이 두 가지 응답으로 설문함

[표 IV-3-3] 향후 희망 여가활동 유형(상위 7순위)

(단위 : %)

| | 2012년 | | 2008년 | | 2004년 | | | |
|-----|--------|------|--------|------|--------------|------|--------------|------|
| | 평일 | 주말 | 평일 | 주말 | 평일 | 주말 | | |
| 1순위 | 관광·체험 | 19.0 | 관광/체험 | 30.7 | 여행 | 27.1 | 관광, 여행 | 26.9 |
| 2순위 | 운동 | 18.6 | 운동 | 14.2 | 산책, 스포츠활동 | 14.5 | 문화활동 및 관람 | 10.4 |
| 3순위 | 자기계발 | 14.2 | 공연 관람 | 8.2 | 등산, 낚시 | 10.0 | 체험활동 | 8.9 |
| 4순위 | 공연 관람 | 8.5 | 자기계발 | 7.1 | 예술감상 | 9.9 | 체육레저 활동 및 관람 | 8.8 |
| 5순위 | 휴식, 낮잠 | 5.7 | 종교 활동 | 5.0 | 쇼핑, 외식, 가족대화 | 9.1 | 자기계발강습 | 7.7 |
| 6순위 | 음악활동 | 5.7 | 휴식, 낮잠 | 4.6 | 동호회, 모임참가등 | 8.1 | 산책, 드라이브 | 7.1 |
| 7순위 | 사회활동 | 3.9 | 음악활동 | 4.6 | 체험활동 | 4.4 | 자원봉사활동 | 6.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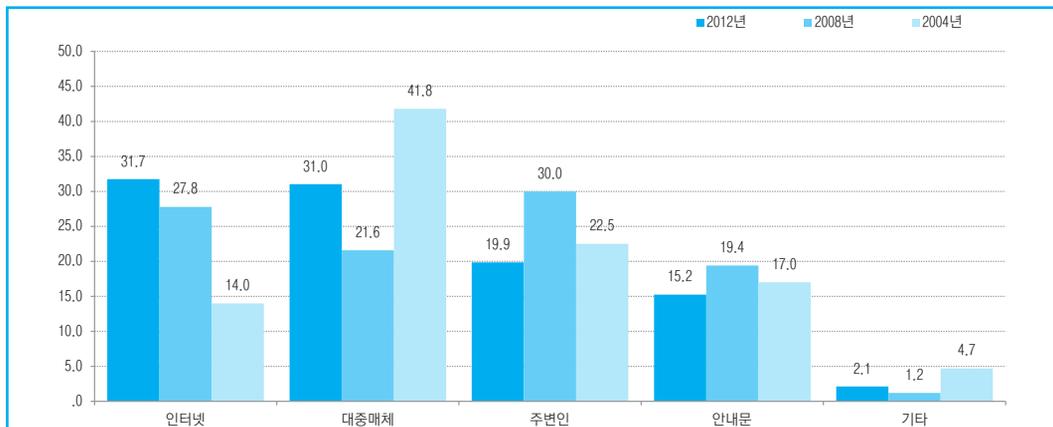
4. 문화예술행사 정보탐색 경로

문화예술행사 소식을 주로 어디에서 접하는지 설문한 결과 2012년에는 ‘인터넷’이 3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중매체’ 31.0%, ‘주변인’ 19.9%, ‘안내문’ 15.2%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2004년에는 ‘대중매체’에서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률이 41.8%로 매우 높게 조사되었으나 2008년과 2012년에는 대중매체를 통한 문화예술 정보 습득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2008년과 2004년에서 높게 나타났던 주변인을 통한 정보탐색 역시 감소하고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이 늘어났다.

[그림 IV-3-2] 문화예술행사 정보탐색 경로

(단위 : %)



5. 주로 이용하는 문화시설

2004년, 2008년에는 주요 이용 시설에 대한 3순위 응답률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이므로 이용 경험 여부와 빈도를 설문한 2012년 조사 결과값과 응답률을 직접 비교하는데는 무리가 있어 상위 10순위 응답 순위만을 비교 대상으로 하였다.¹⁶⁾

인천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천지역의 문화시설을 설문한 결과 2012년에도 2008년과 마찬가지로 공공도서관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이 1, 2순위를 차지하였다. 박물관의 총 개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박물관 이용 경험자 역시 늘어나 2012년 결과에는 박물관이 새롭게 3순위에 포함되었고 주민자치센터 이용 경험자 역시 증가하였다.

[표 IV-3-4] 주로 이용하는 인천지역 문화시설(상위 10순위)

(단위 : %)

| | 2012년 | | 2008년 | | 2004년 | |
|------|-------------|------|---------------------------|------|----------|------|
| 1순위 | 공공도서관 | 26.3 | 종합문화예술회관 | 20.6 | 공공도서관 | 21.2 |
| 2순위 | 종합문화예술회관 | 16.1 | 공공도서관 | 18.7 | 종합문화예술회관 | 20.3 |
| 3순위 | 사설문화시설 | 14.5 | 사설문화센터 | 12.2 | 구(군)민회관 | 12.3 |
| 4순위 | 주민자치센터 | 12.0 | 주민자치센터 | 11.7 | 여성문화회관 | 8.5 |
| 5순위 | 군·구 문예회관 | 8.9 | 구(군) 문화회관 | 11.6 | 사설문화센터 | 7.9 |
| 6순위 | 청소년·여성·노인시설 | 6.4 | 인천시립박물관 | 6.1 | 주민자치센터 | 7.0 |
| 7순위 | 박물관 | 6.1 | 청소년회관 또는 여성문화회관 | 5.9 | 시립박물관 | 6.2 |
| 8순위 | 소극장 | 5.4 | 지방문화원 | 3.5 | 지방문화원 | 4.7 |
| 9순위 | 전시시설 | 3.8 | 사회복지관 | 2.8 | 갤러리, 미술관 | 4.6 |
| 10순위 | 기타 | 0.6 | 소공연장(학산소극장, 부평문화사랑방 등) | 1.7 | 사회복지회관 | 3.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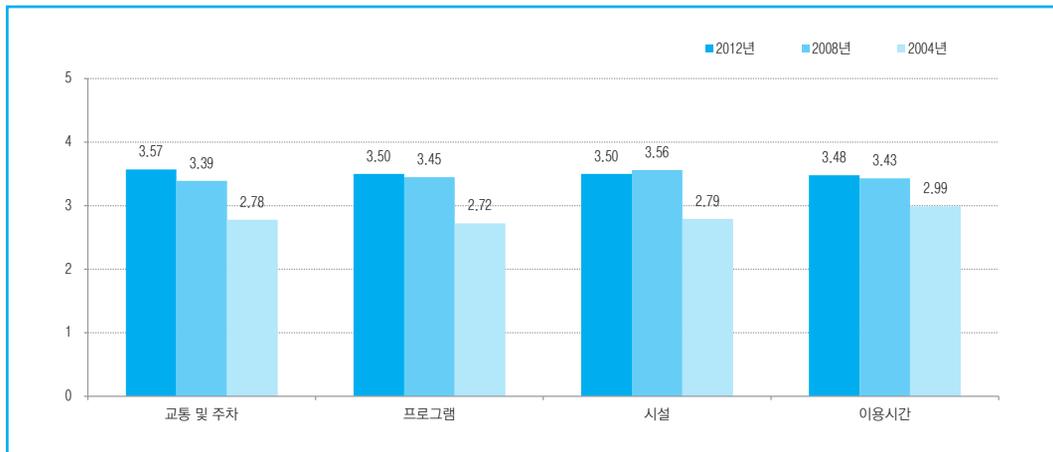
16) 2004년, 2008년 조사 결과값은 주요 이용시설 3순위 응답결과를 100%가 되도록 분석함. 2012년 조사 결과값은 이용 경험 여부를 기준으로 상위 10순위 결과값 임

6. 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문화시설을 이용한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시설의 이용시간, 프로그램, 시설, 교통 및 주차에 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¹⁷⁾ 2012년 조사 결과에서는 ‘교통 및 주차’에 관한 만족도가 3.57점으로 가장 높았고 ‘프로그램’과 ‘시설’이 각각 3.50점, ‘이용시간’이 3.48점 등의 순이었다. 2004년, 2008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시설 만족도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 꾸준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3-3] 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단위: 점)



7. 문화시설 이용 시 고려요소

‘문화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에 대해 설문한 결과 2012년 조사결과에서는 ‘행사 홍보 내용’이 3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시설의 규모와 수

17) 2012년 조사의 응답항목은 프로그램 내용 및 수준, 프로그램 관람 가능 시간, 시설 규모 및 수준, 시설 관리 상태, 편의·휴게시설 구비, 장소 접근성,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변시설, 시설 및 개최행사 안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시계열 비교를 위해 이용시간, 프로그램, 시설(시설 규모 및 수준, 시설 관리 상태, 편의·휴게시설 구비), 교통 및 주차 결과값만을 비교함. 세부사항은 수요조사 결과분석 참고

준' 21.6%, '시설 이용 가능 시간' 16.7%, '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15.2%, '편의·휴게시설 구비' 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4년 조사에서는 '시설 접근성'이 33.3%로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였다. 다음으로 '다목적 이용 편의성' 19.4%, '프로그램 우수성' 17.8%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2008년 조사 결과에서는 '프로그램(내용)의 수준'이 42.7%로 가장 높았으며 '교통·시간 편의성' 28.1%, '이용 비용' 19.7% 등으로 조사되어 프로그램 내용과 수준에 대한 응답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표 IV-3-5] 문화시설 이용 시 고려요소(상위 5순위)

(단위 : %)

| 1순위 | 2012년 | | 2008년 | | 2004년 | |
|-----|--------------|------|---------------|------|------------------|------|
| | 시설 행사 홍보 내용 | 33.2 | 프로그램(내용)의 수준 | 42.7 | 접근성 | 33.3 |
| 2순위 | 시설 규모 및 수준 | 21.6 | 교통 및 시간의 편의성 | 28.1 | 다목적 이용 편의성 | 19.4 |
| 3순위 | 시설 이용 가능 시간 | 16.7 | 비용의 적절성 | 19.7 | 프로그램 우수성 | 17.8 |
| 4순위 | 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15.2 | 다른 사람의 평판 | 4.5 | 비용, 시간신축성, 서비스수준 | 16.0 |
| 5순위 | 편의, 휴게시설 구비 | 4.8 | 출연진, 강사진의 유명도 | 4.2 | 이용편의성, 쾌적함 | 13.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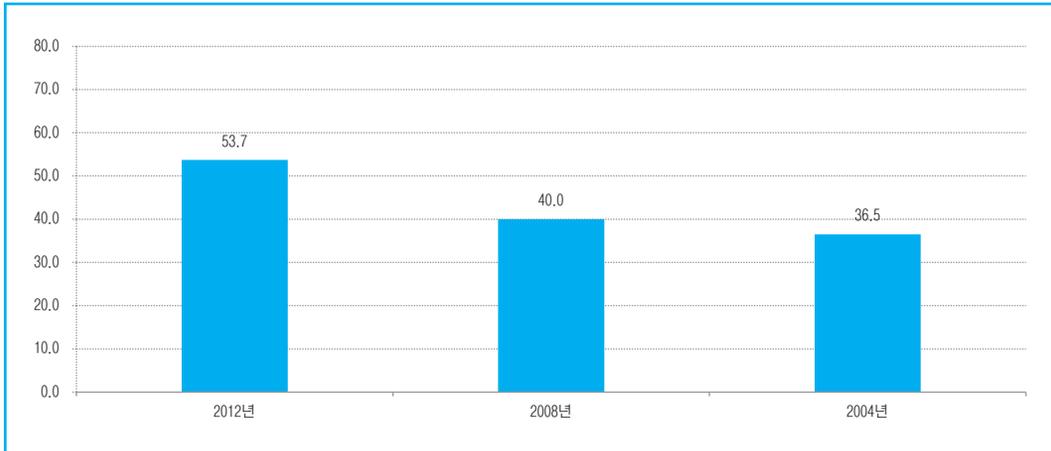
8. 지역축제 참여율

2012년과 2008년에는 지난 1년 간 지역축제 참가(관람) 경험 여부로 범위를 한정한 반면, 2004년에는 과거 경험한 인천지역 축제 전체를 대상으로 경험 여부를 물어보았다.

2004년에는 전체의 36.5%가 지역축제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2008년과 2012년에는 각각 40.0%와 53.7%가 지역축제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2008년과 2012년 조사에서는 응답 기준을 지난 1년으로 제한한 것을 감안할 때 지역 축제 참여(관람)율이 매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일 조건인 2008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도 13.7%p 상승하였다.

[그림 IV-3-4] 지역축제 참여(관람) 경험율

(단위 : %)



9. 지역축제 만족도

인천 지역축제 경험자를 대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인천 지역축제의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2004년 조사 결과는 지역축제 참관 후 느낀 점을 설문하여 순위 비교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2012년 조사에서는 ‘축제 개최 시기’ 5점 만점 기준 평균 3.74점, ‘축제 내용 및 주제’ 평균 3.56점, ‘축제 사전안내’ 평균 3.51점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2008년에는 ‘행사 내용 및 프로그램’ 평균 3.22점을 제외하고는 ‘축제 홍보’ 평균 2.97점, ‘안내 및 운영’ 평균 2.95점, ‘편의 휴게시설’ 평균 2.82점, ‘교통 및 주차’ 평균 2.73점 등 모두 3점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반면 2004년 조사에서는 ‘행사내용 부실’이 23.0%로 2순위였던 것에 반해 2008년과 2012년 조사에서는 각각 평균 3.22점, 평균 3.56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표 IV-3-6] 지역축제 만족도

| | 2012년 | | 2008년 | | 2004년 | |
|-----|-------------|-------|--------------|-------|----------------|-------|
| | 축제 개최 시기 | 3.74점 | 행사 내용 및 프로그램 | 3.22점 | 교통 불편 | 33.9% |
| 2순위 | 축제 내용 및 주제 | 3.56점 | 홍보 | 2.97점 | 행사내용부실 | 23.0% |
| 3순위 | 축제 사전안내 | 3.51점 | 안내 및 운영 | 2.95점 | 안내, 편의, 휴게시설부족 | 15.5% |
| 4순위 | 장소 접근성 | 3.43점 | 편의휴게시설 | 2.82점 | 홍보부족 | 14.6% |
| 5순위 | 함께 이용할 주변시설 | 3.38점 | 교통 및 주차 | 2.73점 | 행사 진행 미숙 | 10.1% |
| 6순위 | 편의/휴게시설 | 3.22점 | | | 기타 | 2.6% |

10. 문화연상 이미지

‘문화’라는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2012년에는 ‘대중음악, 영화 등의 대중문화’라는 응답비율이 33.2%로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음악, 미술 등의 예술’이라는 응답이 31.4%, ‘역사/전통 예술 및 문화재’ 14.9%, ‘즐겁고 윤택한 삶’ 9.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2008년에는 ‘풍요로운 여가’ 23.4%, ‘전통예술 및 문화재’ 22.0%, ‘대중문화연예’ 20.8%로 조사되었다. 2004년에는 ‘전통민속예술 및 문화재’ 20.1%, ‘순수예술’ 19.9%, ‘공공문화시설’ 1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4년,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전통과 문화재 연상 응답률은 감소하였고, 대중문화, 예술 연상 응답률은 증가하였다.

[표 IV-3-7] 문화연상 이미지(상위 7순위)

(단위 : %)

| | 2012년 | | 2008년 | | 2004년 | |
|-----|-----------------|------|------------|------|--------------|------|
| | 대중문화 | 33.2 | 풍요로운 여가 | 23.4 | 전통민속예술 및 문화재 | 20.1 |
| 2순위 | 예술 | 31.4 | 전통예술 및 문화재 | 22.0 | 순수예술 | 19.9 |
| 3순위 | 역사, 전통 예술 및 문화재 | 14.9 | 대중문화연예 | 20.8 | 공공문화시설 | 17.5 |
| 4순위 | 즐겁고 윤택한 삶 | 9.9 | 순수예술 | 18.4 | 생활양식 일반 | 11.6 |
| 5순위 | 생활양식 | 4.4 | 교양있는 삶 | 9.8 | 풍요로운 여가 | 9.1 |
| 6순위 | 문화상품 | 3.9 | 생활양식일반 | 5.4 | 아름다운 도시경관 | 6.9 |
| 7순위 | 한류 | 2.3 | | | 대중연예분야 | 5.6 |

11. 문화의 중요성

문화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2012년에는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은 15.2%, ‘중요하다’는 응답은 64.0%로 조사되었다. 2004년과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률은 점차 감소하였으나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표 IV-3-8] 문화의 중요성

(단위 : %, 점)

| | 2012년 | 2008년 | 2004년 |
|------------|-------|-------|-------|
| 전혀 중요하지 않음 | 0.0 | 0.6 | 0.2 |
| 중요하지 않음 | 1.1 | 5.2 | 2.6 |
| 보통 | 19.7 | 20.2 | 18.4 |
| 중요함 | 64.0 | 58.2 | 58.5 |
| 매우 중요함 | 15.2 | 15.8 | 20.3 |
| 5점 평균(점) | 3.93 | 3.83 | 3.9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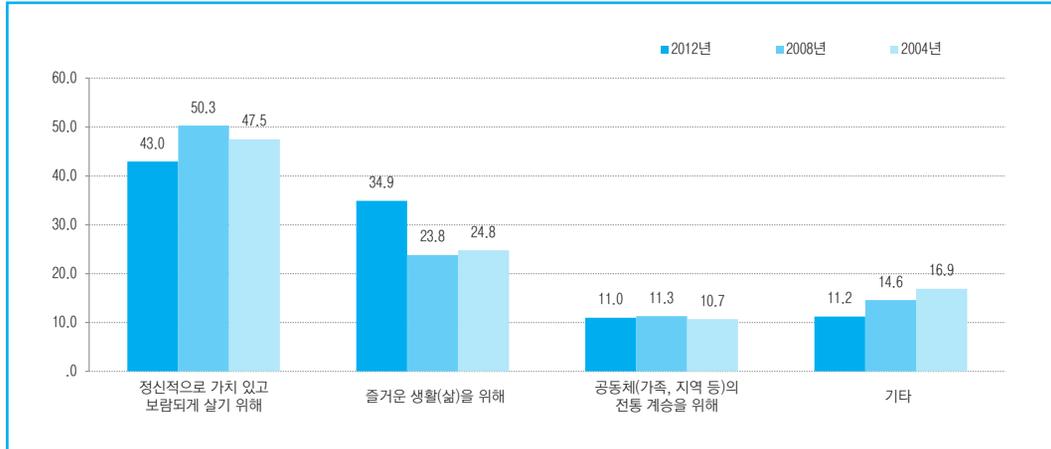
12. 문화가 중요한 이유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정신적으로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기 위해’라는 응답이 2004년, 2008년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즐거운 생활(삶)을 위해¹⁸⁾’라는 응답은 2004년, 2008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크게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18) 2004년, 2008년 조사에서는 응답항목이 ‘즐겁게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로 제시됨

[그림 IV-3-5] 문화가 중요한 이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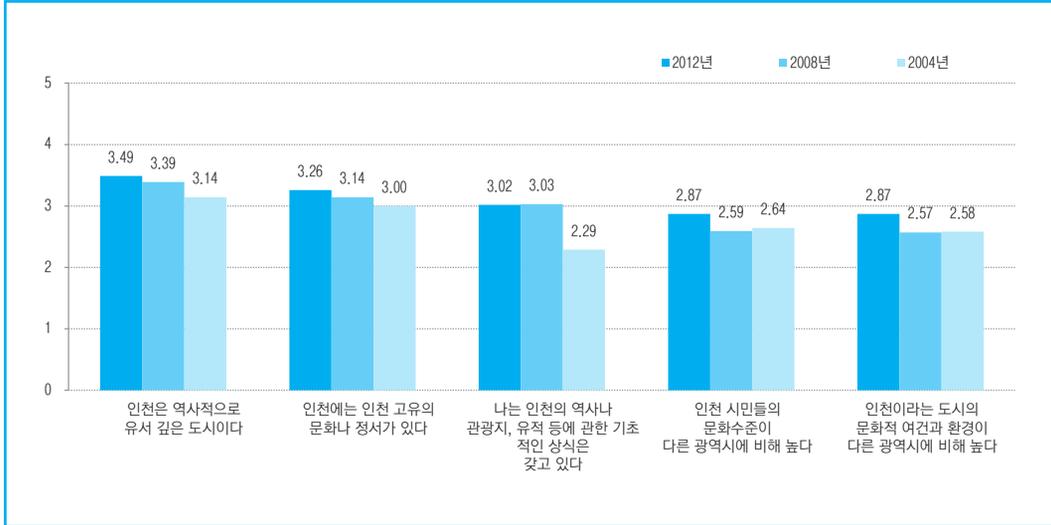
13. 인천의 특성

인천시민들이 생각하는 인천의 특성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설문하였다. 그 결과 ‘인천은 역사적으로 유서깊은 도시이다’ 평균 3.49점, ‘인천에는 인천 고유의 문화나 정서가 있다’ 평균 3.26점, ‘나는 인천의 역사나 관광지, 유적 등에 관한 기초적인 상식은 갖고 있다’ 평균 3.02점, ‘인천 시민들의 문화수준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 높다’ 평균 2.87점, ‘인천이라는 도시의 문화적 여건과 환경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 높다’ 평균 2.87점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2004년, 2008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전반적인 동의 정도가 높아졌으며 특히 ‘인천이라는 도시의 문화적 여건과 환경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 높다’와 ‘인천 시민들의 문화수준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 높다’는데 동의하는 정도가 다른 항목에 비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3-6] 인천의 특성

(단위: 점)



제4절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 비교분석¹⁹⁾

1. 문화예술행사

1) 장르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평소 주로 관람하는 문화예술행사를 관람 빈도에 따라 3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한 결과 ‘지역축제’가 1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대중문화 공연’이 11.2%, ‘연극’ 10.8%, ‘역사문화유적 답사, 체험’이 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는 지난 1년간 관람한 문화예술행사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영화’ 60.3%를 제외하면 ‘연극’ 11.2%, ‘미술전시회’ 9.5% 등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 ‘대중문화 공연’ 7.6%, ‘전통예술행사’ 5.7% 등의 순이었다.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의 응답항목에 지역축제가 제외되어 있어 직접 비교에는 무리가 따르나 인천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지역축제와 대중문화 공연을 더 많이 관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4-1] 장르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단위: %)

| | 인천(1순위) | 인천(1+2+3순위) | 전국 ²⁰⁾ |
|--------------------|---------|-------------|-------------------|
| 지역축제 | 19.3 | 36.9 | - |
| 대중문화 공연 | 11.2 | 25.5 | 7.6 |
| 연극 | 10.8 | 25.9 | 11.2 |
| 역사문화유적 답사, 체험 | 9.0 | 25.7 | - |
| 미술 전시회 | 5.7 | 20.2 | 9.5 |
| 전통예술 행사 | 3.7 | 11.7 | 5.7 |
| 클래식음악회, 오페라, 합창 | 3.5 | 9.6 | 4.8 |
| 문학관련 행사 | 2.1 | 8.0 | 3.8 |
| 무용 | 0.9 | 2.1 | 1.4 |
| 영화 | - | - | 60.3 |
| 문화예술 행사 전혀 관람하지 않음 | 33.7 | 33.7 | 32.8 |

19) 본문 내에서 〈2012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는 ‘인천’으로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는 ‘전국’으로 표기함

20)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 응답항목에는 ‘영화’가 포함, ‘지역축제’, ‘역사문화유적’ 미 포함되어 있음. 또한 문화향수실태조사의 경우 복수응답으로 구성되어 항목간 전체 합이 100%를 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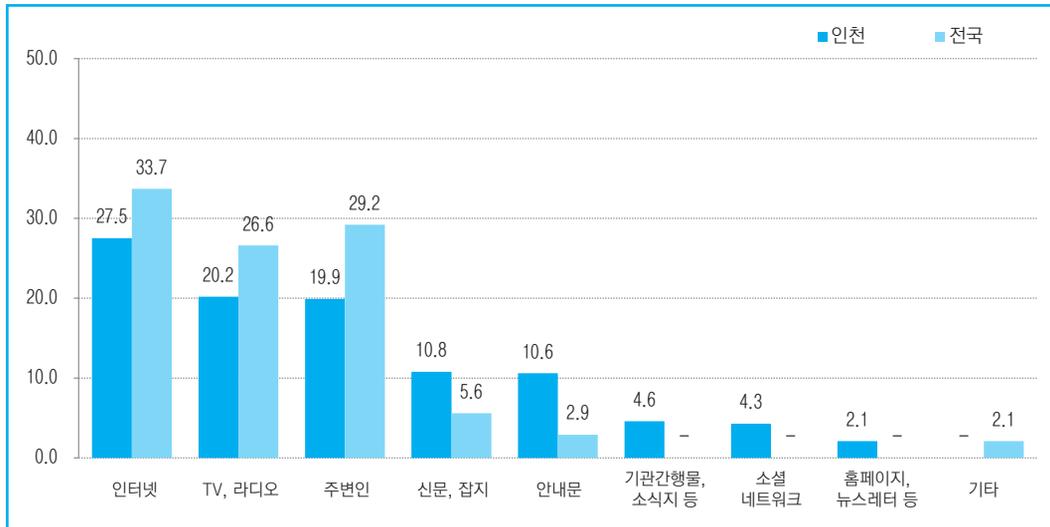
2) 문화예술행사 정보탐색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소식 및 정보탐색 경로를 물어본 결과 인천시민은 주로 ‘인터넷’ (27.5%)과 ‘TV, 라디오’ (20.2%), ‘주변인’ (19.9%)을 통해 습득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반면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의 경우, ‘인터넷’ (33.7%), ‘주변인’ (29.2%), ‘TV/라디오’ (26.6%) 등의 순으로 주요 정보탐색 경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응답 비율은 차이가 있었다. <2012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 결과는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신문/잡지, 안내문을 통한 정보습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관 간행물/소식지, 소셜네트워크, 홈페이지/뉴스레터(이메일) 등의 응답 항목은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인천 조사결과에서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림 IV-4-1] 문화예술행사 정보탐색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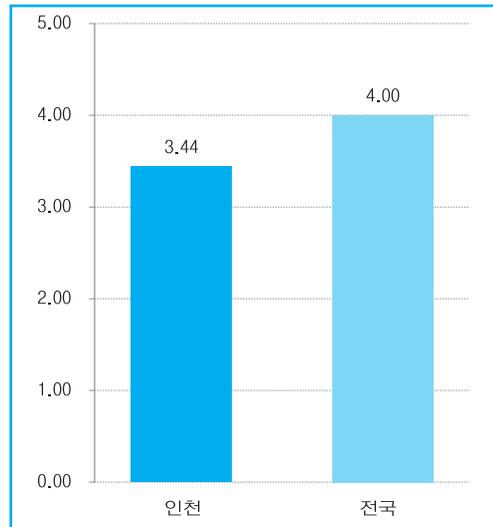
3) 문화예술행사 만족도

인천지역에서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은 전체 49.0%로 조사되어 5점 만점 기준 평균 3.44점으로 조사되었다.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는 만족도를 예술 행사 유형별로 평가하였기 때문에 〈2012 인천 시민문화수요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영화를 제외한 나머지 문화예술행사 만족도 평균을 산출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78.7%이며 5점 만점 평균 4.00점이다. 이는 인천시민들의 만족도인 평균 3.44점보다 높다.

[그림 IV-4-2] 문화예술행사 만족도

(단위: 점)



[표 IV-4-2] 문화예술행사 만족도

(단위: %, 점)

| | 인천 | 전국 |
|-------|------|------|
| 만족 | 49.0 | 78.7 |
| 보통 | 46.3 | 17.2 |
| 불만족 | 4.7 | 4.1 |
| 5점 평균 | 3.44 | 4.00 |

2. 문화예술 시설

1) 문화시설별 이용 만족도

1순위 이용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내용, 시설, 주변 환경 등 3가지 분

야 8개 항목으로 설문하였다.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의 경우 1순위 문화시설의 프로그램과 시설 만족도 두 항목만을 질문하였기 때문에 인천 시설만족도는 시설 규모 및 수준, 시설 관리 상태, 편의·휴게시설 구비 설문 결과 값의 평균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인천시민들의 1순위 이용시설 프로그램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 평균 3.50점으로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의 평균 3.89점에 비해 낮았으며 시설 만족도 역시 평균 3.4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012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 결과 불만족 응답률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았다.

[표 IV-4-3] 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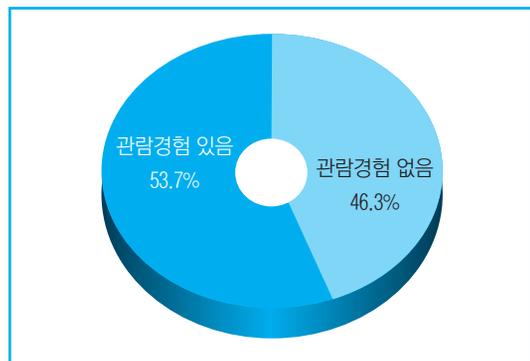
| | 인천 | | 전국 | |
|-------|------|------|------|------|
| | 프로그램 | 시설 | 프로그램 | 시설 |
| 만족 | 52.6 | 48.6 | 72.9 | 72.0 |
| 보통 | 42.9 | 43.4 | 22.6 | 22.0 |
| 불만족 | 4.6 | 8.0 | 3.6 | 5.3 |
| 5점 평균 | 3.50 | 3.48 | 3.89 | 3.88 |

3. 지역축제

1) 축제 관람률

<2012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 결과 ‘지역 축제에 참여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3.7%로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가 인천지역 축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V-4-3] 지역축제 관람(참여)률



2) 지역축제 만족도

최근 1년간 인천 지역축제에 참가(관람)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축제의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만족도 측정 항목은 축제 내용(프로그램) 및 주제, 축제 개최 시기, 축제에 대한 사전 안내(홍보), 장소 접근성, 편의, 휴게시설 구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변시설 등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의 경우 지역축제에 대한 만족도를 프로그램과 시설로 나누어 설문하였다. 시설에는 안내문, 교통편, 화장실 청결, 주변 상점 친절도 등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2012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의 지역축제 만족도 평가항목 가운데 장소 접근성, 편의/휴게시설 구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변시설 항목의 평균치를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의 ‘시설’ 항목과 비교하였다. <2012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 결과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평균 3.56점, ‘시설/환경 만족도’는 평균 3.34점으로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인 평균 3.64점, 평균 3.36점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V-4-4] 지역축제 만족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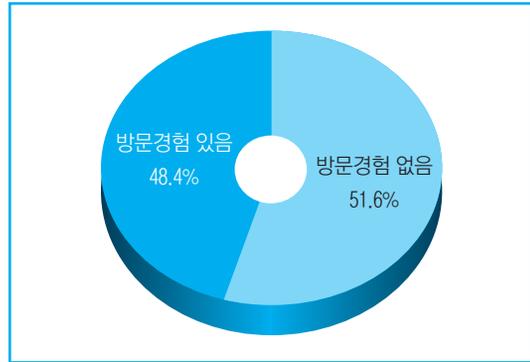
| | 인천 | | 전국 | |
|----------|------|-------|------|-------|
| | 프로그램 | 시설/환경 | 프로그램 | 시설/환경 |
| 만족 | 56.1 | 45.4 | 63.4 | 46.4 |
| 보통 | 40.3 | 41.7 | 29.1 | 40.8 |
| 불만족 | 3.6 | 12.9 | 7.6 | 12.8 |
| 5점 평균(점) | 3.56 | 3.34 | 3.64 | 3.36 |

4.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1)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경험률

지난 1년간 강화 또는 강화 외 인천지역의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경험을 설문한 결과 방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8.4%로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인 47.1%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IV-4-4]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경험률



2)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만족도

최근 1년간 인천의 역사문화유적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역사문화유적지의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만족도 측정 항목은 유적지 보존·관리 상태, 교육효과, 유적지에 대한 사전 안내, 장소 접근성, 편의·휴게시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변시설 등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의 경우 역사문화유적지에 대한 만족도를 보존상태와 편의시설로 나누어 설문하였다. 시설에는 안내문, 교통편, 화장실 청결, 주변상점 친절도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12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의 역사문화유적지 만족도 평가항목 가운데 장소 접근성, 편의·휴게시설 구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변시설 항목의 평균치를 향수조사의 '시설' 항목과 비교하였다. 조사결과 '보존상태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 평균 3.54점, '시설·환경 만족도'는 평균 3.35점으로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의 평균 3.80점, 평균 3.68점보다 낮았다.

[표 IV-4-5]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만족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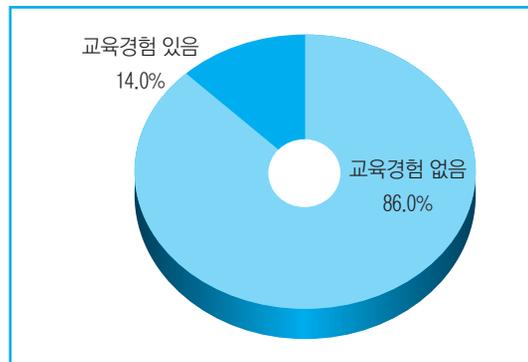
| | 인천 | | 전국 | |
|----------|------|-------|------|-------|
| | 보존상태 | 시설/환경 | 보존상태 | 시설/환경 |
| 만족 | 54.5 | 44.8 | 73.8 | 66.1 |
| 보통 | 41.3 | 44.7 | 21.2 | 26.2 |
| 불만족 | 4.2 | 10.5 | 5.1 | 7.7 |
| 5점 평균(점) | 3.54 | 3.35 | 3.80 | 3.68 |

5. 문화예술교육

1)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지난 1년간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조사한 결과, 인천시민의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은 14.0%로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인 9.2%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4-5]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2) 문화예술교육 기관(매체)

지난 1년간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기관(매체)을 질문한 결과 <2012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와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 모두 공공기관(부설기관)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온라인/방송 교육을 통한 교육 응답률 역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인천의 경우 동호회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파악되었다. 두 조사간 응답 방식에 차이가 있어 직접 비교는 무리가 있으나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

와 비교하면 인천의 ‘시민 문화예술 동호회’와 ‘동호회 활동 참여’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6] 문화예술교육 기관(매체)

(단위 : %)

| 인천(n=78) (1+2순위) | | 전국(n=229) (중복응답) | |
|------------------|------|------------------|------|
| 공공기관(부설기관) | 43.0 | 공공기관 부설기관 | 41.3 |
| 온라인, 교육방송 | 15.2 | 인터넷사이트 | 15.8 |
| 개인 레슨, 사설학원, 강습소 | 8.9 | 동호인모임 | 14.8 |
| 문화원 | 7.6 | 대학교 사회문화교실 | 11.2 |
| 동호회 | 3.8 | 사설학원 강습소 | 9.3 |
| 사설문화시설 | 2.5 | 사설단체 문화센터 | 6.9 |
| 문화센터 | 2.5 | 개인레슨 | 6.7 |
| | | 교육방송 | 5.3 |
| | | 기타 | 10.1 |

3) 분야별 문화예술교육 경험

지난 1년간 학교 교육 이외의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분야는 <2012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와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 모두 ‘문학’ (1.2%)과 ‘글쓰기’ (3.4%)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인천의 경우 역사문화(이론, 답사) 교육 경험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천조사 결과는 전반적으로 전국 조사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나 두 조사간의 모집단 구성에 큰 차이가 있어 직접 비교에는 무리가 있다.

[표 IV-4-7] 최근 1년간 분야별 문화예술교육 경험

(단위 : %)

| 인천(n=564) | | 전국(n=5000) (중복응답) | |
|-----------|-----|-------------------|-----|
| 글쓰기 및 독서 | 3.4 | 문학 | 1.2 |
| 역사문화 | 3.4 | 미술 | 1.2 |
| 미술 | 2.7 | 서양음악 | 0.6 |
| 연주 | 2.7 | 무용 | 0.6 |
| 가창 | 0.7 | 가요/연예 | 0.6 |
| 무용 | 0.7 | 전통예술 | 0.5 |
| 문화예술 이론 | 0.4 | 역사문화유산 | 0.5 |
| 연기, 연출 | 0.2 | 영화 | 0.4 |
| | | 연극 | 0.1 |

4) 향후 희망 문화예술교육 분야

향후 받고 싶은 문화예술교육 분야를 질문한 결과 인천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을 받고 싶지 않다’는 응답률은 22.3%로, 전국 조사에서는 동일 질문에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3.4%로 나타났다. 이는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인천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인천시민들은 ‘연주’ (21.1%), ‘가창’ (10.8%)과 같은 음악분야와 ‘연기, 연출’ (8.7%) 등의 공연예술에 관심이 높고, ‘미술’ (14.2%), ‘역사문화’ (9.4%)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4-8] 문화예술교육 희망분야(1년 이내)

(단위 : %)

| 인천(n=564) | | 전국(n=5000) (중복응답) | |
|-----------|------|-------------------|-----|
| 연주 | 21.1 | 미술 | 4.7 |
| 미술 | 14.2 | 문학 | 3.4 |
| 가창 | 10.8 | 전통예술 | 2.8 |
| 역사문화 | 9.4 | 서양음악 | 2.7 |
| 연기, 연출 | 8.7 | 가요/연예 | 2.5 |
| 글쓰기 및 독서 | 7.1 | 역사문화유산 | 2.1 |
| 무용 | 3.7 | 영화 | 1.8 |
| 문화예술 이론 | 2.7 | 연극 | 1.5 |
| | | 무용 | 1.1 |

5) 문화예술교육 만족도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받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46.8%의 응답자가 인천지역의 문화예술교육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 평균 3.42점이다.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73.4%로 인천시민의 문화예술교육 만족도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5점 만점 기준 평균 3.97점으로 인천의 평균 3.42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9] 문화예술교육 만족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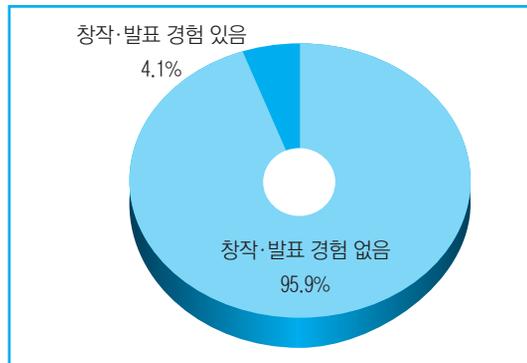
| | 인천(n=79) | 전국(n=229) |
|-------|----------|-----------|
| 만족 | 46.8 | 73.4 |
| 보통 | 49.4 | 20.9 |
| 불만족 | 3.8 | 2.7 |
| 5점 평균 | 3.42 | 3.97 |

6. 창작·발표 활동 및 참여

1) 문화예술 창작·발표 경험

지난 1년간 백일장 참가, 미술작품 창작·전시회, 각종 경연(콘테스트) 대회 참가, 연주회 및 불특정 다수가 관람 가능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하는 등의 공개적 창작·발표활동을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 4.1%로 나타났다.

[그림 IV-4-6] 문화예술 창작·발표 경험



2) 창작·발표 경험 분야

창작·발표 경험이 있는 응답자 23명을 대상으로 '창작·발표 경험 분야'를 질문하고, 이를 전체 응답자인 564명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응답한 분야는 '사진, 영상' (1.1%)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문학' (0.7%), '무용' (0.5%), '미술' (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는 미술 응답률이 1.2%로 가장 높았다. 이는 응답 조건이 중복응답이고 응답항목 가운데 '사진'이 '미술'에 포함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IV-4-10] 창작·발표 경험 분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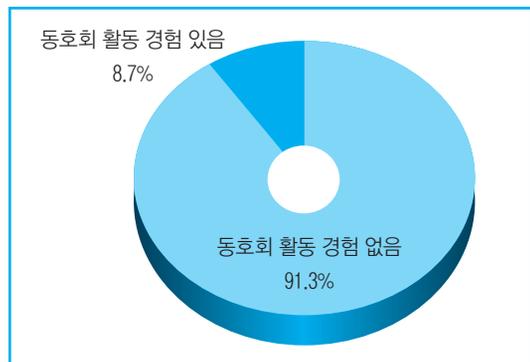
| | 인천(N=564) | 전국(N=5000) (중복응답) |
|--------|-----------|-------------------|
| 사진, 영상 | 1.1 | - |
| 문학 | 0.7 | 0.3 |
| 무용 | 0.5 | 0.2 |
| 미술 | 0.4 | 1.2 |
| 연주 | 0.4 | 0.0 |
| 가창 | 0.4 | 0.0 |
| 전통예술 | 0.4 | 0.3 |
| 기타 | - | 0.3 |
| 무응답 | 0.4 | 0.0 |

※ 인천 시민문화수요조사 응답항목에는 기타(클래식음악회/오페라, 연극, 대중가요콘서트, 영화) 미포함
 ※ 문화향수실태조사 응답항목에는 '사진' 이 미술에 포함

3) 문화예술 동호회 참여

지난 1년간 참여했거나 현재 활동 중인 문화예술 동호회가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서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 8.7%로 나타났다.

[그림 IV-4-7] 문화예술동호회 참여 경험



4) 분야별 동호회 활동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동호회 가운데 분야별 활동 여부를 설문하였다. 분야별 문화예술 동호회 가운데 가장 많은 응답률은 '연주' 관련 동호회가 2.1%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사진, 영상' 2.0%, '문학' 과 '가창' 이 1.2% 순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는 '미술' 이 0.8%로 가장 높았으며 '전통예술' 0.5%, '문학' 과 '무용' 이 각각 0.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V-4-11] 분야별 동호회 활동

(단위: %)

| | 인천(n=564) | 전국(n=5000) |
|------------|-----------|------------|
| 연주 | 2.1 | - |
| 사진, 영상 | 2.0 | - |
| 문학 | 1.2 | 0.4 |
| 가창 | 1.2 | - |
| 미술 | 0.9 | 0.8 |
| 전통예술 | 0.7 | 0.5 |
| 무용 | 0.7 | 0.4 |
| 연기, 연출(연극) | 0.2 | 0.1 |
| 역사문화 | 0.2 | 0.2 |
| 기타 | - | 1.2 |

※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 응답항목에는 기타(서양음악, 영화, 대중가요/연예) 미포함

※ 2010 문화향수 실태조사 응답항목에는 연주, 사진/영상, 가창 미포함

제5절 2012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 종합분석

인천 시민들의 여가시간은 2004년, 2008년 조사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일과 주말의 평균 여가시간은 각각 3.19시간과 6.50시간으로 2004년과 2008년의 같은 조사에 비해 증가했다. 그러나 <2010년 국민여가활동조사>를 통해 확인된 전국평균 4시간과 7시간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여가활동 유형은 'TV 시청'과 '낮잠·휴식', '운동'이 평일과 주말 모두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과 경제적 여유를 전제했을 때 희망 여가활동은 '관광·체험'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공연관람'과 '음악활동' 등 현재 즐기지 못하고 있는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욕구 역시 높게 나타났다.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의 문화시설은 '공공도서관'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이었다. 2004년과 2008년에는 주요 조사결과에 올라있지 않던 '박물관'이 이용하는 문화시설 3위로 조사되었다. 이는 2008년 이후 인천개항박물관, 짜장면 박물관을 비롯한 지역의 박물관이 다수 개관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이 문화시설 이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장소 접근성'으로 2008년의 '프로그램의 수준'이라는 답변과 차이를 보였다. 2004년 조사 이후 시설 이용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절대기준으로 볼 때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시민들이 주로 관람한 문화행사로는 '지역축제'가 꼽혔고, '대중문화공연'과 '연극'이 뒤를 이었다. 문화행사 관람을 위해 주로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프로그램의 내용 및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행사와 관련한 정보는 주로 'TV, 라디오'와 '주변인',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관람을 희망하는 문화예술행사는 '대중문화공연', '연극', '지역축제' 순으로 조사되었다. 시민들의 31%는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했는데 그 이유로는 대학로나 인사동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는 특정한 장소(거리)가 있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지역축제 참여율은 53.7%로 조사를 시작한 2004년 이후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축제에 대한 만족도 역시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역사문화유적지 방문경험은 51.1%로 인천시민 두 명 중 한 명은 지난 1년간 인천지역의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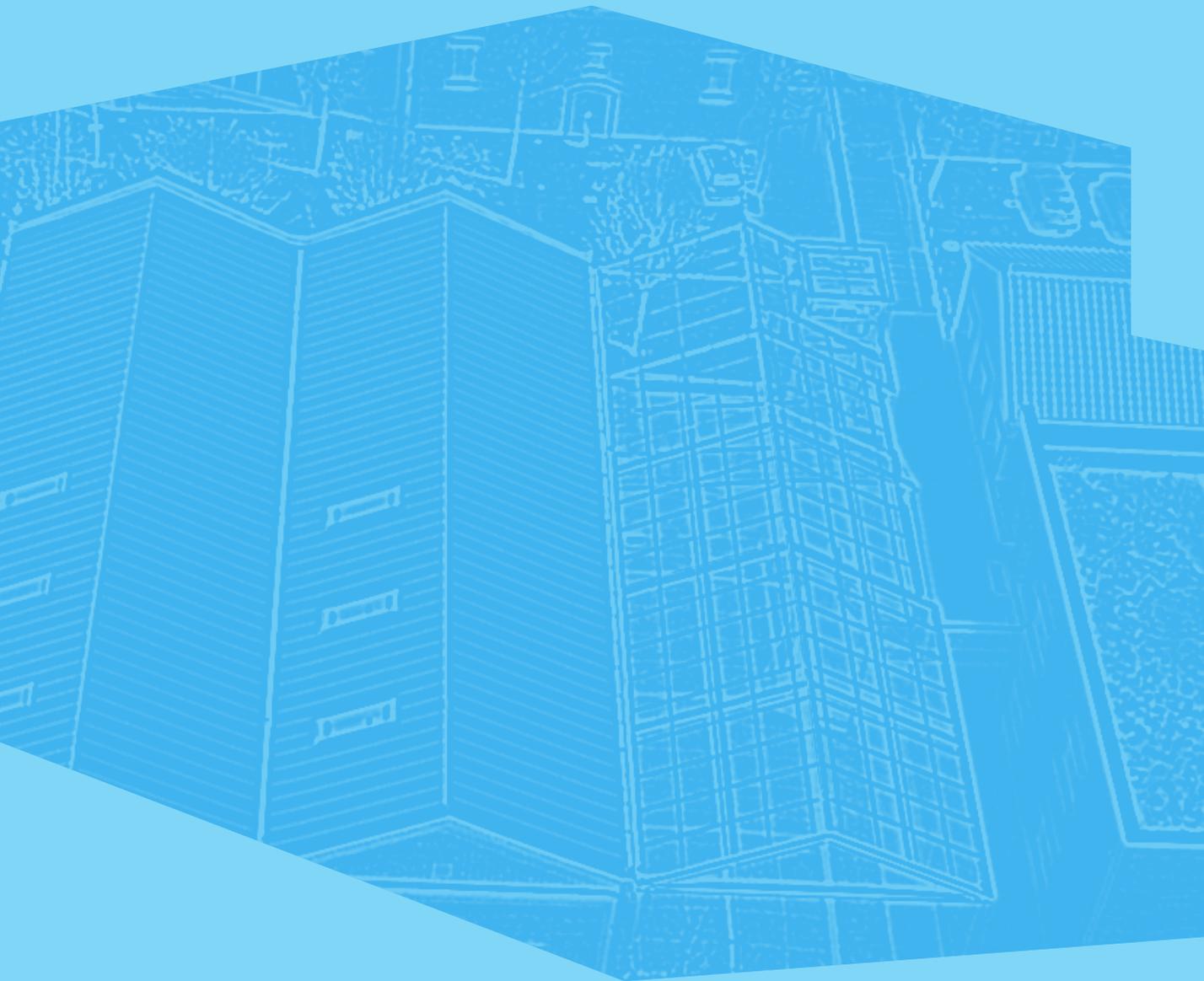
사문화유적지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역사문화유적을 방문한 시민들 중 절반은 ‘주변 여행 중 우연히 방문’한 것으로 계획적인 방문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만족도 조사 결과는 ‘유적지 보존 관리 상태’가 가장 높았고 ‘교육효과’와 ‘장소 접근성’이 그 뒤를 이었다. 역사문화유적 방문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 ‘장소 접근성’과 ‘유적지 보존 관리 상태’를 선택한 이들이 많았다.

인천시민의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은 14%로 전국 평균인 9.2%보다 높았다.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기관으로는 인천과 전국 조사 모두 공공기관이 가장 높았다. 동호회 활동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의 비율은 인천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화예술교육 경험 분야는 ‘글쓰기 및 독서’와 ‘역사문화’가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했으며, 향후 희망하는 문화예술교육 분야로는 ‘연주’, ‘미술’, ‘가창’, ‘역사문화’가 선호되었다.

문화예술 창작·발표 경험과 관련한 질문에는 95.9%가 ‘경험이 없다’고 답해 시민문화예술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는 동호회 참여에서도 그대로 연결되어 동호회 활동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1.3%에 이르렀다. ‘창작·발표 경험’은 ‘사진, 영상’과 ‘문학’ 등의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의 활동분야는 ‘연주’ 관련 동호회와 ‘사진·영상’ 순이었다.

시민들은 문화도시의 조건으로 ‘문화예술 행사에 시민참여가 활발한 도시’를 1순위로 꼽았고 ‘시민의 교양 및 의식 수준이 높은 도시’를 2순위로 선택했다.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개최’와 ‘문화예술교육 확대’를 선택했다. 이는 2008년 조사에서 인천문화재단이 수행한 과제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통한 시민문화향수 확대’가 제일 중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정책적 시사점



인천 시민들은 인천이 역사적 전통을 가진 유서 깊은 도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고유의 정서와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천이 다른 도시보다 문화적 환경이 빼어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인천은 문화도시로서의 잠재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으나, 시민들은 인천 문화에 대해 충분한 자긍심을 갖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시민의 문화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인천의 문화활동을 전반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첫걸음이다. 그러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개선이 단순히 캠페인성 사업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곤란하다. 인천시민의 33.7%는 문화예술 행사를 전혀 관람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문화예술 행사 참여만으로 시민들의 인식을 재단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문화예술 행사는 대부분의 기초지자체에서 연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축제참여 등을 모두 포함한 결과인 만큼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공공영역에서 문화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포함한 법과 제도, 정책운영의 방향 등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번 〈인천문화지표조사연구〉에서는 이를 몇 가지로 추려보았다. 범주는 2004년과 2008년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사고하되 이전과 같은 항목에 한정하지 않고 범위를 좀 더 넓혔다.

지표로 선정된 전 분야의 정책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이 장에서는 전체 분야에 대한 시사점을 모두 다루지 않고 분야를 한정했다. 이는 가장 핵심적인 분야의 정책방향을 확인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한 편으로는 지표들을 통합적으로 사고하여 판단한 결과이기도 하다. 전체 지표에 대한 시사점 분석은 향후 지표연구에 있어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문화행정의 충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행정 전체에서 문화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나 문화담당 조직과 인력을 살펴봤을 때, 약간의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인천은 전반적으로 문화행정의 기반이 충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책이 예산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지향을 드러낸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문화예산의 비율이 낮은 것은 인천의 문화행정의 현실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지표라고 봐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문화기반시설의 확충 및 활용도 제고의 필요성을 꼽았다. 문화시설의 운용은 지

역문화정책에서 가장 기본 바탕을 이루는 요소임에 틀림없다. 인천문화지표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기반시설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금까지의 변화와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여전히 기반조성 차원에서 필요한 시설들에 대한 논의를 담았다.

다음으로는 문화예술의 창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번 조사에서 인천시민들은 문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 떠올리는 것으로 ‘대중문화’를 꼽았다.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뉴미디어의 발달은 대중문화의 전면화를 넘어 시민들의 일상 자체를 대중문화에 종속시키는 현상을 낳고 있다. 물론, 대중문화의 발호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또 대중문화 자체를 부정적인 것만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러나, 예술이 주는 위안과 성찰적 힘을 생각해 보면 우리 시대가 대중문화와 예술간의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꼽아봤다.

다음은 생활문화예술진흥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활성화 문제다. 시민이 문화예술의 소비자이자 생산자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도와 정책의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예술에 대한 갈망과 욕구가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문화예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복원시키는 것도 삶의 안정성과 관계에 대한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최근 서울시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체가 주목받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문화예술은 이전의 혈연공동체를 대체할 새로운 공동체 구성을 위한 훌륭한 매개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역사문화도시로서 인천의 정체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봤다. 인천은 개항도시로서 역사적 전통과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다. 근현대 문화유산 또한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시민들의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에는 상당한 제한이 있어 보인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역사문화유산을 시민들과 함께 향유하고, 그 접근성을 높여가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후속과제 제안을 통해 문화지표 체계의 개선을 타진하였다. 한국사회는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의 9%를 차지할 만큼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지만, 이주민 정책과 관련한 현실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이주민 문제를 포괄하는 문화다양성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까닭

이다. 또, 문화활동의 영역으로 적극 포괄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보이는 사항들을 꼽아봤다. 각종 문화예술활동 연계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 생각되는 독서, 스마트 기기를 포함한 뉴미디어 활용에 대한 조사연구는 문화적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문화예술 활동이 정체되지 않게 하기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이라 생각된다.

1. 문화행정 기반 확충

문화정책을 집행하는 데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은 예산과 인력이다. 공공단위의 문화행정의 바로미터 역시 문화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숫자와 문화예산의 크기일 것이다. 물론, 공무원 조직의 구조 문제, 예산항목의 적절성과 배분의 문제를 동시에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량적인 수치 비교를 통해 나타나는 인천 문화행정의 충분성을 검토하는 것은 문화행정의 기반을 다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인천의 문화행정 담당인력은 모두 38명으로 2008년 27명에 비해 일정하게 증가했다. 전국 광역시 평균인 42.8명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지만, 증가폭으로 볼 때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자체 전체 공무원 수와 문화행정인력의 수를 헤아린 문화행정인력 비율에서도 인천은 2.5%를 기록해 광역시 평균 3.4%를 밑돌았다. 인천의 문화담당 부서는 문화예술과와 문화재과 두 개로 전국평균 2.5개에 비해 약간 부족한 편이다. 그러나 울산을 제외한 광역시에 문화재단이 있고, 문화재단이 지자체가 수행해오던 문화행정의 상당부분을 이관받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을 볼 때, 단순비교에는 어려움이 있다.

인천시는 문화예술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천시의 일반회계 규모는 광역시 중 부산 다음으로 크지만 문화예술예산은 75,027백만원으로 1.9%에 머물고 있다. 대구를 제외하면 광역시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국 평균 2.6%에도 한참 못 미친다. 그보다 더 문제인 것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문화예산이 점증하는 추세인데 비해 인천은 2008년 1.96%에 비해 예산비중이 낮아졌다는 사실이다. 문화가 삶의 질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난이 새삼스럽지는 않으나 문화예산 비중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활용도 제고

문화기반시설은 시민들의 문화향수와 문화복지를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다. 작품 창작과 발표공간으로, 각종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문화기반시설은 지역 문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요성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문화부에서는 해마다 문화기반시설 현황을 조사해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발간하고 있다. 그간 정부에서는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꾸준히 지역의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 결과, 상당수의 지역에서 문화기반시설은 획기적으로 증가했지만 한편으로 운영의 내실을 기하지 못하는 현상이 드물지 않게 노출된 것도 사실이다. 물론, 여전히 지역별로 볼 때 절대적인 시설부족이 눈에 띄는 경우도 많다. 문화기반 시설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2004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실행한 <전국 문화기반시설 최소기준수립 연구>가 가장 많이 인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연구에서 ‘문예회관’은 기초자치단체 당 1개관, ‘박물관·미술관’은 인구 9만명당 1개관, ‘공공도서관’은 인구 6만명당 1개관을 목표로 잡고 있다. 이는 2011년까지의 목표 기준이다. 이번 연구의 시설 관련 통계가 <2011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 볼 때, 정책 목표와 실제 현황 사이를 확인하고 비교하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인구구성, 지형을 비롯한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히 지자체 당 필요시설을 대입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 할 것이다. 다만, 이 기준은 일정 규모의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한 근거로 제공되는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1년까지의 기반시설 건립 목표와 현재 인천의 문화기반 시설을 비교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V-1] 기반시설 건립 목표와 현재 인천 문화기반 시설 비교

| | 건립 기준 | 현재 시설 수 | 목표 시설 수 | 필요 시설 수 | 현재 건립율 |
|---------|--------------|---------|---------|---------|--------|
| 문예회관 | 기초자치단체 당 1개관 | 5관 | 10관 | 5관 | 50% |
| 박물관·미술관 | 인구 9만명 당 1관 | 27관 | 31관 | 4관 | 87% |
| 공공도서관 | 인구 6만명 당 1관 | 26관 | 46관 | 20관 | 56% |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국문화기반시설최소기준수립연구>(2004),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2008 인천문화지표 조사연구〉 시점과 비교해 볼 때, ‘공공도서관’은 10개관, ‘박물관/미술관’은 14개 관이 늘어 큰 증가를 보였다. ‘문예회관’은 목표시설수 10개관에 5개 관이 운영 중으로 2008년과 비교해 변함이 없게 나타나 건립 기준율에 비추어 가장 진척율이 낮은 시설로 파악되었다. 박물관/미술관은 목표시설 수 31관에 현재 시설 수 27관으로 87%의 진척율을 보였으며, 공공도서관은 목표시설 수 46관에 현재시설 수 26관으로 56%의 건립율을 보였다.

○ 공연장

인천의 등록공연장은 총 29개로 2008년에 비해 4개 관이 늘어났다. 전국 광역시 현황을 비교한 결과로도 평균 24개를 상회하며 서울(189개), 부산(40개), 대구(35개)의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공연장 1개소 당 인구는 95,114명으로 서울의 두 배에 가깝다. 광역시 평균인 89,121명에 비해서도 많은 편이다. 이는 그만큼 공연장 수가 인구에 비해 충분하지 못하다는 뜻이다. 2008년의 공연장 1개소 당 인구수 104,976명과 비교해 볼 때,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충분치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공연장은 중구와 남구, 연수구, 부평구 등에서 확충되었다. 특히 2008년에는 공연장이 없던 연수구에 새로 시설이 들어선 것이 눈에 띈다. 그러나 옹진군에는 여전히 등록공연장이 전혀 없는 현실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운영주체별로 살펴볼 때 인천은 공공운영 공연장의 비율이 6대 광역시 단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운영 공연장의 비율은 ‘광역시’ 평균 47.3%인데 비해 ‘인천’의 비율은 79.3%에 이른다. 이는 등록공연장의 대부분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문예회관이나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8년에 비해 소공연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간 줄어들었다. 이는 전국 광역 단위 공연장 통계에서도 마찬가지다. 2008년의 인천문화지표 정책제안에서는 대공연장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인천시의 재정난에 비추어 볼때 당분간 대형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보인다. 게다가 대형시설 건립이 꼭 바람직한 것만도 아니다. 대형 문화시설이 가져다주는 이점이나 시설규모에 맞는 공연스케일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시설이 대형화하는 데 따르는 관리비용의 발생, 프로그램 수급과 모객

등 어려움 역시 만만찮다. 결국, 인천에 필요한 공연장 정책 방향은 대형공연장 신설보다는 현재 인구대비 공연장 수가 부족한 기초지자체에 소형공연장을 확충하는 것이다. 공연장 1개소 당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부평구(283,747명), 연수구(279,230명), 계양구(115,937명), 남구(105,969명)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V-2] 공연장 1개소 당 인구수(군·구별 비교)

(단위: 명)

| | 공연장 1개소 당 인구수 | | |
|-----|---------------|---------|----------|
| | 2012년 | 2008년 | 2004년 |
| 중구 | 13,270 | 18,383 | 40,126 |
| 동구 | 79,663 | 75,699 | 75,215 |
| 남구 | 105,969 | 138,891 | 217,465 |
| 연수구 | 279,230 | - | - |
| 남동구 | 94,685 | 65,007 | 136,512 |
| 부평구 | 283,747 | 570,283 | - |
| 계양구 | 115,937 | 114,112 | 171,092 |
| 서구 | 81,614 | 76,886 | 176,720 |
| 강화군 | 67,104 | 65,510 | 65,876 |
| 옹진군 | - | - | - |
| 평균 | 85,602 | 140,596 | 88,300.6 |

○ 전시시설

인천의 전시시설은 2008년 조사결과에 비해 12개 늘어난 27개소로 조사되었다.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전시시설 1개소 당 인구수도 2008년의 222,048명에 비해 102,159명으로 크게 낮아져 광역시 평균 149,572명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실제 운영 내용에서도 진전이 있었다. 2008년도 인천 전시시설의 학예직원은 19명으로 전체 평균 25.3명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학예직원 1명당 인구수 역시 140,241명으로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2012년 통계에서는 학예직원이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15명 증가하였으며, 학예직원 1명당 인구수도 73,873명으로 줄어들었다. 소장품 수 역시 175,374점으로 2008년(62,935점)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1인당 소장품 수(0.06점)에서는 여전히 전

국 평균(0.08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V-3] 학예직원 및 소장품 현황

(단위: 명, 점)

| | 학예직원 1명당 인구수 | | | 1인당 소장품 수 | | |
|---------|--------------|---------|---------|-----------|-------|-------|
| | 2012년 | 2008년 | 2004년 | 2012년 | 2008년 | 2004년 |
| 서울 | 24,970 | 25,355 | 39,389 | 0.23 | 0.17 | 0.16 |
| 부산 | 82,975 | 87,499 | 85,168 | 0.04 | 0.04 | 0.02 |
| 인천 | 73,873 | 140,241 | 288,456 | 0.06 | 0.02 | 0.01 |
| 대구 | 183,886 | 178,090 | 127,032 | 0.03 | 0.02 | 0.02 |
| 광주 | 42,783 | 56,538 | 175,191 | 0.08 | 0.05 | 0.08 |
| 대전 | 71,603 | 52,702 | 47,495 | 0.26 | 0.22 | 0.27 |
| 울산 | 225,260 | 49,998 | - | 0.01 | 0.01 | 0.00 |
| 평균(광역시) | 113,397 | 94,178 | 120,557 | 0.08 | 0.06 | 0.07 |

자료 : 문화관광체육부, <201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2012)

다양한 박물관의 신설에 힘입어 관련 지표가 크게 개선되었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전시시설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전시시설 중 22개소는 ‘박물관’이 차지하고 있었고, ‘미술관’은 2008년 조사결과에 비해 2개소 늘어난 5개소에 불과하다. 시립미술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송암미술관과 2009년 개관한 인천아트플랫폼 등이 운영 중이나 실제 운영현황을 보면 각종 데이터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V-4] 미술관 수 및 시설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명, 점)

| | 미술관수 | 1관당 평균 | | | |
|----|------|--------|-------|-------|---------|
| | | 직원수 | 학예직원수 | 소장자료 | 연 관람 인원 |
| 서울 | 32 | 11.88 | 2.59 | 4,005 | 130,193 |
| 부산 | 4 | 16.25 | 3.25 | 762 | 163,647 |
| 인천 | 5 | 2.80 | 1.40 | 2,063 | 1,839 |
| 대구 | 2 | 3.00 | 0.50 | 76 | 10,000 |
| 광주 | 6 | 16.33 | 3.67 | 3,998 | 46977 |
| 대전 | 4 | 9.25 | 1.50 | 3,286 | 117,422 |
| 울산 | - | - | - | - | -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2012)

특히 부진한 부분은 연 관람인원이다. <2012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 결과에서도 평소 관람하는 문화예술행사로 ‘미술전시회’를 꼽은 비율은 5.7%에 그치는 등 기반시설 부재로 인한 관심과 관람률이 매우 저조하다. 현재 논의 중인 인천시립미술관의 신설계획이 현실화된다면 많은 부분에서 지표개선이 예상되나, 단순한 수치만의 문제가 아닌 전반적으로 시각예술과 관련한 진흥정책이 함께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공공도서관

2008년과 비교해 볼 때, 인천의 공공도서관과 관련한 지표들은 상당부분 개선되었다. 우선 공공도서관 숫자는 16개에서 31개(2011년)로 늘어나 전국 광역시 평균 23개를 훨씬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다.²¹⁾ 이는 기초지자체의 지역 밀착형 작은 도서관 건립 정책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도서관 수는 늘어났지만 대부분 작은 도서관이어서 인구 1,000명당 공공도서관 좌석 수에서 괄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2008년 인천은 인구 1,000명당 공공도서관 4.81개의 좌석을 보유하고 있었고(전국 평균 5.95개), 2012년에는 총 좌석 수 14,088개로 1,000명당 좌석 수 5.11개(전국 평균 5.98개)를 기록했다.

<2012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에서도 공공도서관의 확대에 힘입어 ‘지난 1년간 많이 이용한 문화시설’로 공공도서관(26.3%)이 꼽혔다. 이는 2008년 가장 많이 이용한 문화시설로 문예회관(21%)이 꼽혔던 것과 비교되는 지점이다.

그러나 장서 수는 여전히 부족하다. 인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장서 수(총 2,396,288권)는 광역시 평균 2,265,22권을 상회하지만, 1인당 장서 수는 0.95권으로 광역시 단위 중 차하위를 기록했다.²²⁾ 전국 광역시의 1인당 장서 수 평균은 1.43권이었다.

아래의 표는 주요 국가들의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수와 1인당 장서 수를 인천의 통계와 비교

21) 2012년 12월 현재 인천광역시 전체 공공도서관 수는 47개로 조사되었으나 타 시도와 비교하기 위한 통계자료로써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과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의 자료(2011년 12월 31일 현재)에 의하면 전국 광역시의 공공도서관 수는 인천광역시(31개관), 부산광역시(31개관), 대구광역시(27개관), 대전광역시(22개관), 광주광역시(16개관), 울산광역시(11개관)의 순으로 조사됨.

22)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과에서 조사한 ‘국내 지역별 도서관수, 1관당 인구수, 1관당 장서수’ (2011년 12월 31일 현재)를 보면 주민 1인당 장서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제주도가 3.27권으로 1위를 기록했고, 서울시가 0.87권으로 전국 16개 시도중 최하위를 기록함. 인천시의 경우 0.95권으로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주민 1인당 장서수가 낮은 지자체로 나타남.

해 본 것이다. 1관당 인구수는 ‘미국’ 과 약 2.7배, ‘독일’ 과는 약 9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1인당 장서 수 역시 ‘미국’, ‘일본’ 과 약 3배 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V-5] 주요 국가별 공공도서관 이용 실태

(단위: 명, 권)

| | 1관당 인구수 | 1인당 장서 수 | 기준년도 |
|----|---------|----------|-----------|
| 인천 | 90,364 | 0.95 | 2011 |
| 미국 | 33,468 | 2.64 | 2009 |
| 영국 | 13,589 | 1.63 | 2008~2009 |
| 독일 | 10,060 | 1.52 | 2011 |
| 일본 | 39,813 | 3.13 | 2011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과,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한국도서관협회가 진행한 <한국도서관기준 개정 연구>²³⁾에서는 공공도서관의 기준 장서 수를 인구 1인당 2권으로 규정했다. 이는 OECD 주요국 평균치에 수렴하는 수치이다. 장서 수 확충을 위한 예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안에 책을 넣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오히려 ‘마을도서관’ 과 같이 자발적으로 형성된 주민인프라에 공적지원을 확대해 부족한 도서관의 역할을 대신하게 함으로써 책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직장인, 주부 등을 위해 모바일서비스로 제공되는 유비쿼터스 독서 환경을 장려하고 활성화 시키는 방법도 제안할 수 있다. 실제로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는 2012년 4월 ‘E-Book 전자도서관시스템’ 을 전국 최초로 개발하였는데, 인천 시민들이 ‘책 읽는 도시 인천 앱(어플)’ 을 다운받아 전자책을 읽고, 인천시 전 지역에 설치된 ‘스마트라이브러리’ 에서 제공하는 도서 및 문화정보를 QR코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2012년 4월 현재 하루 평균 약 350명이 600권의 전자책을 이용할 만큼 많은 인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현재도 꾸준히 이용률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천시는 2013년까지 도서관 60개관, 장서 30만권으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²⁴⁾

23) 윤희윤, 국립중앙도서관, 2010년 11월.

24) 김명성, 인천시 문화예술과 도서관정책 팀장, 굿모닝 인천 ‘시민과 함께 책을 펼치다’ 좌담(2012년 04월호)

또 <2014 비전과 실천전략>을 통해 ‘인구 5만 명당 공공도서관 1개관 확충 운영’, ‘걸어서 10분 거리 도서관’ 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단지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닌 도서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 문화기반시설 활용도 제고

문화기반시설을 인구비례에 따라 적정숫자로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각 시설들이 적절하게 활용되는 것이다.

각 문화기반시설의 이용자 수를 보면 인천은 문예회관과 전시시설의 활용면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예회관’은 144,594명으로 광역시 평균 196,907명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전시시설의 경우 이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 2012년 인천시 ‘전시시설’의 연 평균 이용자 수는 60,918명으로 전국 평균 123,443명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전시시설의 경우 박물관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 오히려 평균 이용자 수를 낮추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역시 시설의 수가 크게 늘어난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수’는 486,597명으로 전국 평균(436,787명)을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다.

[표 V-6] 시설유형별 1개소 당 연평균 이용자 수

(단위: 명)

| | 문예회관 | | 전시시설 | | 공공도서관 | |
|---------|---------|---------|---------|---------|---------|---------|
|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 2012년 | 2008년 |
| 부산 | 127,338 | 153,134 | 213,007 | 83,410 | 537,012 | 511,331 |
| 인천 | 144,594 | 236,925 | 60,918 | 109,054 | 486,597 | 492,576 |
| 대구 | 259,280 | 151,509 | 90,533 | 50,845 | 356,960 | 559,051 |
| 광주 | 250,406 | 132,132 | 146,146 | 81,460 | 470,380 | 387,082 |
| 대전 | 169,792 | 210,565 | 168,636 | 91,372 | 350,346 | 401,151 |
| 울산 | 230,036 | 83,224 | 61,420 | 110,963 | 419,427 | 674,676 |
| 평균(광역시) | 196,907 | 161,248 | 123,443 | 87,850 | 436,787 | 504,311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2012)

이처럼 시설은 만들어졌지만 시민들의 이용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여러 문화기반시설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사가 시설의 활성화/미활성화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

기에 이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추론만이 가능하다. <2012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에서 문화시설 이용시 주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을 조사한 결과 1위는 ‘장소 접근성’ (33.2%), 2위는 ‘시설 규모 및 수준’ (21.6%), 3위가 ‘시설 이용 가능 시간’ (16.7%), 4위가 ‘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15.2%) 순이었다. 이는 다시 말해 교통이 편리하고 자료와 설비가 갖추어져 있으며, 이용하기 편리한 시간을 제공하고 비용이 저렴한 시설을 시민들이 원한다는 뜻이다. 또, 문화예술행사 관람의 중요 고려 요인으로 ‘행사(프로그램) 내용 및 수준’ (35.1%), ‘개최 장소 및 접근성’ (21.5%), ‘행사(프로그램) 이용 가능 시간’ (19%), ‘관람(참여) 비용의 적절성’ (16.3%)을 꼽은 것도 마찬가지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기반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을 통해 이용자층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는 것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획역량을 높여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한편, 타겟홍보를 위한 시설별 홍보방안을 특화하고 내부의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 지역 단위 문화시설 확충

인천시민들의 지난 1년간 인천지역의 문화예술시설 이용 경험 비율은 ‘공공도서관’ (26.3%),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6.1%), ‘사설문화시설’ (14.5%), ‘주민자치센터’ (12.0%), ‘군·구문화회관’ (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거의 매일’ 이용하는 경우는 유일하게 ‘공공 도서관’이 3.7%를 기록했을 뿐 대부분 기관의 이용 빈도는 적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문화기반시설을 비롯한 시설 확대 정책은 ‘문화의 민주화’ 기초 아래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지역에서는 양 방향의 편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공공도서관은 인천시의 작은도서관 건립정책으로 생활권을 파고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형시설 위주의 건립 기초가 생활권역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를 보인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시설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기존의 문화의 민주화 정책 기초를 유지하며 시설 확대를 꾀하되, 생활권역의 중소 규모 문화시설 및 문화거점 확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천에서는 소규

모 공연장과 작은도서관 정책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지역단위, 생활권역에서 주민들이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문화시설·공간 운영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신규건립 외에도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인해 유휴공간화 된 곳을 리모델링하거나 재활용하는 것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공연, 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작은 규모의 시설을 생활문화예술·문화커뮤니티 활동을 진작하는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을 통해 규격화된 문화기반시설의 역할을 확장하는 모델을 모색해 볼 수 있다.

3.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

문화자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사람이다. 풍부한 인력이 갖춰지지 않고서는 아무리 잘 갖춰진 시설과 제도, 정책과 예산을 보유하고 있다 해도 한 도시가 문화적으로 성숙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화에서 예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문화는 점점 더 광범위한 범위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술 역시 문화의 한 파트로 위상이 조정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술이 문화의 핵심적인 영역인 것 역시 분명하다. 문화예술 창작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결국 예술에 종사하는 이들을 지원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준다는 이야기와 같다. 문화예술인과 관련 단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각종 환경을 구비해 주는 것이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의 키라고 할 수 있다.

‘인천’의 예술인 수는 광역시 가운데 울산을 제외하고 가장 적은 수준(총 3,193명)이다. 가장 예술인 수가 많은 ‘대구’의 경우 8,338명으로 인천의 두 배가 넘는 숫자를 보유하고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시각예술’(850명, 26.6%), ‘공연예술’(820명, 25.7%), ‘문학’(201명, 6.6%)순이었다. 특징적인 것은 2008년에 이어 특정 장르에 속하지 않는 예술인의 비율이 여전히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2008년 조사에서는 무려 39.7%(1165명)가 장르예술을 벗어난 ‘기타분야’라고 응답했고, 2012년에는 36.6%(1169명)가 ‘기타분야’로 조사되었다. 이는 단일 장르의 벽이 허물어지고 장르융합적인 활동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 맞춰 다원예술과 같은 실험적인 예술분야, 혹은 커뮤니티 아트와 같은 사회적 예술활동의 비중이 높은 것이 인천 예술활동의 특징이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2008년의 조사에서는 이를 근거로 ‘새롭고 실험

적인 문화예술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도시로서의 이미지 구축과 정책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후속 연구과제로 장르예술을 벗어난 예술인들의 활동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인천의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방향에 참고할 것을 제안해 본다.

예술인 수와 장르별 문화예술 활동 건수를 살펴보면, 각 장르별 예술인들의 활성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2008년에는 '공연예술'이 가장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으로 나타났는데 2012년에는 '전통예술'이 1.4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공연예술'이 1.1건, '문학·학술'이 0.7건으로 나타났으며 예술인 숫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된 '시각예술 분야'의 예술인 대비 활동건수는 0.5건으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예술인들의 활동지수를 예술인 수와 지원금의 비율과 함께 비교해 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V-7] 예술인 대비 지원비율 및 활동 수

(단위: %, 천원, 회)

| | 문화예술인 비율 | 지원비율 | 건당 평균 지원액 | 1인당 활동수 |
|-------|----------|------|-----------|---------|
| 공연예술 | 25.7 | 45.2 | 7,176 | 1.1 |
| 시각예술 | 26.6 | 19.7 | 6,321 | 0.5 |
| 문학·학술 | 6.6 | 10.8 | 6,292 | 0.7 |
| 전통예술 | 4.5 | 8.6 | 11,189 | 1.4 |
| 다원예술 | 36.6 | 1.8 | 30,056 | - |
| 문화일반 | | 13.6 | 9,205 | - |

전통예술 분야의 경우 예술인 비중에 비해 지원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 가장 높은 활동수를 보였으며 건당 평균 지원액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시각예술 분야에는 많은 예술가들이 분포해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지원비율이 낮았고, 이에 비례해 1인당 활동수도 적었다. 다원예술과 문화일반 분야는 예술인 비율이 높고 건당 지원액도 많았지만 지원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공연예술인은 비율도 높고 장르의 특성상 건당 평균지원액도 높았으며 1인당 활동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금과 장르별 활동상황을 보면 상대적으로 시각예술 분야가 보유한 예술인에 비해 활동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시각예술 분야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회화활동'이 42%를 차지하고 있다. 인위적으로 장르분포를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손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시각예술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르적 균형을 살리고 창작활동의 계기를 다양하게 제공해주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인천시 <2014 비전과 실천전략>에 공공예술사업을 확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런 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정책방향이 다. 창작활동에 대한 예술지원 방식은 한편으로 재원의 한계 등 제약 요인이 잠복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예산투입 정책만으로 문화예술 창작을 활성화시킬 수는 없다.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학의 문화예술 관련 학과와 전공을 확충하는 것을 포함하여 문화예술인을 길러내는 토대를 마련하고, 예술인들이 인천을 근거로 활동하는 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4. 생활문화예술진흥 및 공동체 활성화

생활예술, 혹은 생활문화예술은 낯설면서도 익숙한 개념이다. 이는 새로운 활동을 지칭한다기보다 이미 있는 활동들을 새롭게 구획하는 측면이 강하다. <생활예술 지원정책방안 연구>²⁵⁾에서는 생활예술을 “소수 전문가들의 예술 활동이나 소위 예술계라고 불리는 특정 제도나 집단 안에서의 활동에 대비하여 일상생활의 영역, 즉 일, 가족, 사교 등의 사적 영역에서 자기를 계발하고 표현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시민들을 수동적 향유자가 아닌 예술창조의 능동적인 주체로 파악하고 일상의 현장을 문화예술의 장으로 확장시키는 노력이 생활예술 정책의 요체가 된다는 이야기다. 이는 지금까지 문화예술지원에서 시민창작, 혹은 아마추어 예술지원이라는 항목으로 이야기되던 내용들과 유사성을 갖는 동시에 차별성을 지닌다. 유사한 점은 그것이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활동이라는 것이고, 차별성은 생활예술이 시민들의 예술활동을 비전문가의 그것으로 치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생활문화예술은 전문가를 흉내내고 따라하는 비전문가들의 완성되지 않은 활동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완결성을 갖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이다.

<2012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창작·발표 경험 매체 및 경험 분야를 물어본 결과, ‘경험 없음’이 95.9%로 나타났다. 향후 문화예술 창작·발표 활동 계획 역시, ‘향

25) 경희사이버대학교 연구지원팀, 2012

후 계획 없음'이 92.6%로 조사되었다. 지난 1년간 활동 경험이 있는 문화예술 동호회를 묻는 질문에도 '동호회 활동 하지 않음'으로 답한 비율이 91.3%였다.

도시가 활기를 띠려면 시민들의 작은 모임과 동호회가 활성화되는 것이 우선이다. 문화기반시설이나 각종 이벤트들로 도시의 문화적 성숙의 지표를 잡을 수도 있겠으나, 시민들의 문화적 활력이라는 차원에서는 문화예술을 비롯한 동호회 모임들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인천의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은 아직까지 본격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희망하는 문화예술 관련 활동을 물어본 결과, '문화예술 관련 동호회 활동'이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따라 새로운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시민들이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의 절반은 '시간이 없어서'였다. 그 밖에 '관심 있는 동호회가 없어서' (19.2%), '활동비용의 부담' (9.9%), '관련 정보 부족' (9.1%), '거주지(주요 활동지) 근처에 동호회가 없어서' (5.8%),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5.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예술 동호회에 대한 관심이 있어도 정책적인 지원이 함께 하지 않으면 관심이 동호회 참여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인천의 생활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일차적인 조사작업이 필요하다. 어떤 종류의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규모와 다양성을 확인하는 작업은 정책적 판단과 지원에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 현재 생활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임 간의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일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이미 인천에도 문화바람이라는 자생적 조직이 별도의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한 활동 확대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작은 모임들을 구성하고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익히고 나누는 활동을 통해 예술가와 소비자라는 오래된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 시대적 조류에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생활예술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는 결국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의 밑거름이 된다. 또, 문화예술교육과 더불어 새로운 예술수요 창출을 위한 첫 걸음이라는 면에서도 의미가 깊다. 문화와 예술에 익숙해지고 그 문법을 친숙하게 만들지 않는 한, 장시간의 노동과 화려한 대중문화에 부대끼는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 활동과 가까워지는 것은 쉽지 않

다. 나아가 이를 통해 전통적 공동체가 해체된 자리에서 문화를 매개로 한 새로운 공동체를 모색하는 일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5.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정책방향 확대

인천은 1883년 개항 이후 근대문물 도입의 관문으로 위상을 굳히며 유서깊은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역사문화유적 방문 경험을 묻는 질문에 방문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48.4%에 불과해 절반을 넘지 못했다. 방문 경험이 있는 이들의 절반 이상(52.4%)은 ‘주변 여행 중 우연히 방문’했다고 응답해 계획적인 방문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사유적지 방문 시 주요 고려요인은 ‘장소 접근성’ (27.5%), ‘유적지 보존 관리 상태’ (20.2%), ‘교육 효과’ (19.1%) 등으로 나타났다.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정책방향이 단지 문화유적 관람으로만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교육과 연구, 문화유산을 활용한 콘텐츠의 재창조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될 수 있다.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현재의 맥락과 함께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문화유산을 친숙하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6. 후속 과제

○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제안

한국은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수 증대로 급격히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인천 역시 거주 외국인의 수가 7만 3,588명(전체 인구 5.2%, ‘201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다문화 정책은 동화정책에 가까운 것으로 이주민들을 분리시키고 ‘결혼이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쪽짜리 활동이었다. 이제 불완전한 ‘다문화 정책’에서 이주민-선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삼는 ‘문화다양성 확보’로 정책 방향이 선회할 필요가 있다. 인천은 개항도시이면서, 국제공항이 위치한 한국의 관문이다. 인천시는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정책들을 어떻게 펼치고 있으며, 시민들은 문화다양성에 대해 어떤 인

식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주민들과 선주민들 간 교류활동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검토한다면 인천시 문화지표 연구에 새로운 관점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독서 관련 지표 개발 제안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삶의 변화를 끌어낸다는 점에서 독서활동은 문화지표의 중요한 포인트로 관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공공도서관과 관련한 지표들이 있지만 도서관 관련 정책은 독서활동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넓은 의미에서 독서를 문화활동으로 적극 포괄하여 문화지표 내에 포섭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 이용률과 연동된 독서량을 파악하고, 전자책 이용현황 등을 함께 분석하면 시민들의 문화활동을 더 폭넓게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를 통해 독서행위의 진작을 다양한 문화적 활동과 연계하는 방안의 모색이 가능해진다.

○ 스마트 기기 활용과 문화지표의 연계 고려

2000년대를 전후해 인터넷이 도입될 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한 이들은 많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들의 활용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조류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 기기는 아직까지 문화지표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스마트폰의 사용을 인터넷의 연장으로 보거나 단순한 여흥을 즐기기 위한 도구로만 파악해서는 안된다. 스마트 기기를 포함한 뉴미디어 활용의 상당한 부분은 문화적 맥락에 닿아 있다. 스마트 기기는 미디어 아트의 수단을 넘어 예술감상과 창작의 도구로 활용되기도 한다. 넓은 차원에서 문화적 행위로 포괄하여 문화지표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다.

문화공공성 지표 개발

제1절 문화공공성 논의와 논점

제2절 관련 개념 검토

제3절 문화공공성과 지표

제4절 인천 문화공공성 지표

제5절 인천 문화공공성 지표 적용 결과 및 제언

제1절 문화공공성 논의와 논점

문화분야 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최근에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 이를 바탕으로 문화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가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 적용하고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문화공공성 수준을 가늠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접근의 일환으로 이 분야 지표를 개발, 적용하려는 움직임은 여전히 초보적 수준이다. 이와 같은 실정에서 인천광역시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를 선도적으로 기획, 추진하려는 것은 이런 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문화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된 것은 계층간·지역간 문화적 차별과 소외 현상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동시에 문화에 대한 적극적 의미가 부각되면서이다. 문화 향유의 대상으로서 문화 분야 서비스 생산은 다른 재화나 용역과는 달리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에 반해, 문화 향유 기회가 사회적으로 균등하게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문화공공성 논의가 촉발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여러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통해 우리는 문화공공성이 가진 함의를 확인할 수 있고, 그 개념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1.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문화운동 대두

시장논리와 경쟁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경향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이를 비판적으로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다. 특히 문화운동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의식이 드러났는데, 그 핵심 내용은 시민들의 문화권과 문화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문화적 공공영역의 시장화는 소비문화의 팽창과 탈정치화를 가속화하여 소비인간, 시장사회로 몰아가며, 인간 본연의 창조적 능력과 사회적 공론의 장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권 부재의 사회는 자본의 욕망과 일방의 이데올로기를 전면화하

여 사회의 자율과 민주주의를 파탄으로 치닫게 합니다.”²⁵⁾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문화권 보장을 요구하는 문화운동의 흐름은 사회개혁의 한 측면으로 문화공공성을 적극 제기하는 것으로 모아졌다. 이는 문화공공성 자체에 문화운동의 기본방향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과도 통하는 것이었다.

이원재(2007)는 문화는 기본적으로 차이와 공유라는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데, 차이로서의 문화권은 “다양한 주체와 문화의 차이를 존중하고, 문화가 다양한 영역으로 발전하고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가리키며, 공유로서의 문화권은 “문화 전반에 대한 접근, 참여, 소통 등을 포괄하는 권리”로 본다. 그는 또 “문화권은 감성의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측면에서 생산 및 소통 수단을 물리적,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문화권은 사회주체들이 문화에 대한 접근, 참여, 소통 등 사회적 공유를 위해 필요한 각종 문화적 시스템을 확보하고, 문화적 활동을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제안한다. 그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문화공공성의 확장은 공공부문과 같은 물리적 공간과 대상만이 아니라 문화를 둘러싼 창작, 재현, 향유, 접근, 소통 등 공유로서의 문화권 전반이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의 구축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²⁶⁾

2. 문화예술 활동의 공공성 논의

문화예술 활동이 갖는 공공성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여러 논의가 촉발되었는데, 여기서도 그 핵심은 문화적 기본권 강화를 위한 문화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논의 및 논쟁의 역사적·현실적 결과를 통해 오늘의 문화공공성이 갖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²⁷⁾

이러한 논의가 촉발된 구체적 계기는 공공의 지원에 의해 운영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공성

25) 문화연대(2007), 사회권2(공공) : “창조적 공유지 보장과 문화 공공성”, 「토론회 자료집(문화권, 문화적 삶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연속토론회4)」

26) 정은희(2007), 창조적 공유지와 문화공공성, 사회권2(공공) : “창조적 공유지 보장과 문화 공공성”, 「토론회 자료집(문화권, 문화적 삶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연속토론회4)」, pp.6-14 참조.

27) 이해경(2001), 공공 예술지원과 예술의 공공성 : 영국의 경험, 「문화정책논총」 제13집, pp.275 참조.

확보 또는 강화에 대한 것이었다. 즉, 공공재원에 의존하는 민간 문화예술단체 또는 개인은 그 재원을 사회 또는 국가에 의존하는 만큼 공공의 이익에 부응하는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나 하는 것이다. 여기서 논쟁의 초점은 그 공공성의 근원에 대한 해석이라 할 수 있는데, “예술 그 자체가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공공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이었다.²⁸⁾

이혜경(2001)은 문화예술 활동이 갖는 공공성의 근원과 여러 측면의 이론적 해석을 영국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는데,²⁹⁾ 우선 “예술 자체가 공공성을 갖고 있으므로 공공지원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의 문화예술 활동의 공공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문화예술 활동이 궁극적으로 사회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므로 예술의 공공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예술의 공공성은 공공 예술지원에 대한 복지론적 설명의 전제가 된다. 예술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꼭 필요한 기본조건이므로, 예술의 분배가 시장에서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복지론적 입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성별, 연령, 재산, 거주지역, 교육정도를 막론하고 전 국민이 평등하게 예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입해야 하며, 특히 소외계층의 예술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간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예술은 공공지원을 받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어야 한다”는 당위론적 입장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예술 활동의 공공성은 공공지원에 대한 책임성을 의미하게 된다. 아울러 예술의 공공성은 예술지원과 예술단체의 운영이 공공토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 이는 예술의 공공성은 공공지원을 받는 예술기관의 운영에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28) 이혜경(2001), 앞의 책. pp.256 참조.

29) 이혜경(2001), 앞의 책 pp.257-260 참조.

3. 문화권 논의와 문화다양성 논쟁

문화권(또는 문화기본권)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면서 이로 인해 문화다양성 확보를 위한 주장들이 촉발되었는데, 이는 이것들이 문화공공성의 기본조건이란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기본전제는 문화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문화분야에서 그 다양성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넓고 깊게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미의 문화다양성은 시민들의 권리, 즉 문화권³⁰⁾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 문화권은 ‘차이’ 및 ‘접근과 참여’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화활동 또는 문화향유를 문화적 기본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주장에서 비롯되고 있다.³¹⁾

문화권을 정의하는 방식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함의들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차이’로서의 문화권이다. 사람들의 다양한 차이를 보호하고 문화가 다양한 영역으로 발전하고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서, 구체적인 다수의 삶의 양식과 문화적 취향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접근과 참여’로서의 문화권으로서 문화적 평등과 관련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계급과 연령, 성, 지역의 불평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문화생산물에 접근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면 결국 문화권은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민의 요구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취약계층(약자·소수자)에 대한 문화적 권리와 지방의 문화적 소외를 둘러싼 것으로 확대되었다. 취약계층과 지방의 문화다양성 확보는 문화권의 필요조건인데, 이는

30) 문화권은 학자들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 문화권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는 권리이면서 인권의 구체적인 실천영역이다(Halina Niec).
- 문화권은 문화유산이나 구체적인 사람들의 문화정체성, 문화발전을 보존하는 데 사용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대중들의 권리로 간주된다(Lyndel Prott).
- 문화권은 문화적 발전을 요구할 권리로서 집단성의 권리이다(Rodolfo Stavenhagen).
- 문화권은 집단성의 권리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권리이다(Elizabeth Evatt).
- 문화권은 보편성에 대한 욕망이라기보다는 다양성에 대한 욕망이다(Alice Tay).

이동연(2006) 한국사회 문화다양성의 현실과 대안적 문화정책 구상, 『문화다양성과 문화권: 한국사회의 현주소와 정책적 과제』(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포럼 자료집), pp.19 참조.

31) 문화권에 관한 이하의 내용은 이동연(2006. 앞의 책)의 논점을 요약한 것임

취약계층의 문화권 확보는 그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전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자 및 소수자의 문화적 배제는 이들의 사회경제적 배제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그것이 이들의 사회참여와 사회적 소통을 어렵게 해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³²⁾ 취약계층이 그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인프라를 활용, 공공부문이 마련한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서 이들이 문화적 배제(cultural exclusion)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문화 다양성 확보는 그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게 된다.

이처럼 취약계층의 문화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이들의 문화적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취약계층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소외집단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통해 우리사회가 보다 안정적이고 성숙한 바탕 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적 기본권은 이들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권리라는 측면과 아울러 우리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곧 자기 자신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스스로에 대한 이해 위에서 사회와의 관계를 형성하며 이를 통해 한 사회의 총체적인 가치와 문화를 구성하는데 가장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의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한 사회 내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의 문화다양성을 확보하는 데도 매우 핵심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³³⁾

지리적·지역적 소외계층의 문화다양성 확보 역시 국민 문화권 향상의 전제이다. 동시에 지방의 문화권 강화는 곧 문화다양성 향상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지방에서의 문화다양성 확보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요조건이란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문화산업의 발전 역시 지역사회가 가진 독특한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기본이라 할 때 문화다양성 확보와 깊이 연관된다.

32)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국민의 문화권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11조 1항).”

33) 김세훈(2006), 약자와 소수자의 문화권과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과 문화권: 한국사회의 현주소와 정책적 과제」(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포럼 자료집), pp.25-41 참조.

이처럼 문화다양성 문제는 문화영역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정치적 영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 시대의 총체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 또한 개별적이고 분절적인 접근보다는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문화다양성은 인간사회의 본질적인 요건이면서도 현실세계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정치경제의 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세계에서 문화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인식공유 노력과 함께 실질적인 행위와 정책³⁴⁾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4. 문화현장 공포와 문화공공성 논의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문화와 문화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그 실천적 의지가 담긴 문화현장이 공포되었다.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현장의 의미가 부각되었고 내용이 정리되었다. 그 가운데 문화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고, 개념도 정리되었다. 이처럼 문화현장의 제정은 그 과정 및 활동결과를 통해 문화공공성에 대한 이해를 광범위하게 확산시켰고,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을 통해 구체화하는 작업들이 진행되기도 했다.

문화현장은 문화공공성 확산과 실천의 계기가 되었는데, 현장의 전문과 항목들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문화현장에는 문화공공성에 대한 새롭고 신선한 언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공공연구기관과 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서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접근, 그리고 정책을 선언한 이 현장에는 “시민생활의 질을 높일 문화적 권리들을 확인하고 더불어 살기의 바탕이 될 문화적 가치들을 찾아내며 사회발전에 필요한 문화적 원칙들을 천명하여 품위 있는 삶의 토대를 다지고자 이 현장을 제정한다.”는 취지와 함께 문화기본권과 문화다양성,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문화적 권리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³⁵⁾

34) 임학순(2006), 문화상품·서비스와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과 문화권: 한국사회의 현주소와 정책적 과제」(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포럼 자료집), pp.43-61 참조.

35) 이영국(2005), 「문화현장 제정 의의」, 2005특별연구 연구보고서, 한국문화정책연구원, pp.40-59 참조.

▶ 문화현장에 표현된 문화공공성 관련 항목들

2. (창조, 참여, 향유의 평등한 권리) 문화적 권리는 시민의 평등한 권리이다. 모든 시민은 계층, 지역, 성별, 학벌, 신체조건, 소속집단, 종교, 인종 등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시민은 삶의 질을 높일 창조적 문화 환경과 여가를 누릴 권리,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을 받을 권리, 평생학습을 추구하여 스스로 기회를 창출할 권리, 모든 분야의 지식정보와 전달매체에 평등하게 접근하고 자유로운 표현수단을 가질 권리, 자신의 문화적 삶에 영향을 주는 공공정책의 결정과 그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4. (다양성의 원칙) 문화다양성은 개인적·집단적 정체성과 자주성의 토대이고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다원성의 원리이며 평화와 공존의 기틀이다. 시민은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미를 생산하고 가치를 표현하며, 자신이 원하지 않는 가치, 이념, 관습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순종을 강요받지 않는다. 시민은 나라 안팎의 다양한 문화들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여 세계의 문화다양성과 평화를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5. (약자와 소수자의 문화권) 사회적 경제적 약자와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는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 (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누구도 뒤처지거나 억눌리는 일 없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창조적인 문화환경 속에서 평화, 정의, 상호존중, 이해, 나눔의 정신을 가진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 (나) 정신적·신체적 장애인은 그 존엄성의 보장과 자립의 촉진,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개인적 발전을 기하는 데 필요한 문화적 지원을 제공받아야 한다.
 - (다) 불우한 환경의 여성, 노약자, 고아, 독거노인, 혼혈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경제적 소외의 조건 속에 살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그 생활수준을 개선하고 삶의 품위를 높이기 위한 문화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 (라) 외국인, 이주민,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언어적, 민족적 소수자와 소수 집단은 이 땅 어디에서나 시민과 동등한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자신들의 고

유문화를 향유하고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할 때에도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마) 성적소수자를 포함한 문화적·종교적 소수자와 소수집단은 자기 의사에 반하는 문화정체성을 강요받지 않는다.

7. (지역문화 창달의 원칙) 지역문화는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활력의 원천이며 지역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정체성의 토대이다. 지역문화를 가꾸어 나가는 일은 주민의 자주적 참여와 주민자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지역주민은 자기 고장의 언어, 민속, 전통 같은 고유의 표현형식들을 포함한 자생적 문화자원들을 보존하고 문화발전에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10. (경제발전의 문화적 토대 원칙) 문화는 경제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임과 동시에 경제발전의 궁극적 목표이다. 경제발전과 번영은 언제나 인간답고 품위 있는 삶의 실현이라는 문화적 목표를 지향해야 하며, 그 목표로부터 지속가능한 발전의 동력을 얻어내어야 한다.

제2절 관련 개념 검토

문화공공성 관련 선행연구와 논점을 종합하면, 문화공공성은 몇 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현재 이 개념은 이와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각각 해당 용도와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문화공공성 지표 개발을 위해서는 따라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는 이 개념을 일정한 범주로 구체화해서(confine & define), 거기에 이 연구에 부합하는 내용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문화공공성을 둘러싼 그간의 논의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유사 또는 관련 개념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공공성을 정의하고 이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들의 구성이 가능하다.

1. 문화권 · 문화향수권 · 보편적 문화복지

문화권과 문화향수권, 그리고 보편적 문화복지는 문화는 보편적 기본권이란 논거에서 비롯된 것이다. 문화는 그 어떤 조건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향유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게 되면 문화는 보편적 복지론처럼 능력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정부는 기본권 확보 차원에서 문화정책을 기획하고 제공해야 한다.

2. 문화민주주의

문화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논자들은 문화측면의 양극화 현상이 점차 심해지고 있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시급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문화양극화 극복이 시급하다는 것인데, 이는 곧 경제양극화로 이어진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개인의 문화적 감각·감성의 발달차이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연결된다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이는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국가적 아젠다가 되는 것이다.

3. 문화의 공공영역 확보

문화의 공공영역 확보는 문화는 공공재이므로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고 공급자로서의 비중이 더욱 커져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이를 더욱 확대해서 이해하면 이제 문화는 사회경제발전의 기본동력이므로 공공의 역할과 비중이 더욱 커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소위 문화적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므로 이 개념은 더욱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 즉, 공공재인 문화의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적극적 기능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한 측면에서 이 개념이 강조되는 것이다.

4. 문화다양성

문화는 기본적으로 계급적·공간적 다양성을 전제로 해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서비스를 공평하게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경제적 약자를 포함한 공동체 주체들이 함께 문화활동 및 교육에 참여해서 문화적 다양성을 강화해야 하고, 이들 중 어느 한 부류라도 문화향유권에서 배제되어선 안된다. 동시에 문화적 다양성은 공간적 구분으로 비롯된 문화향유의 배제로부터 지역사회가 자유로울 때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적 불공평이 해소될 때 비로소 문화공공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5. 문화우선주의

국민 또는 시민들의 보편적 문화향유권이 기본권이란 점을 전제로 이것이 사회경제 발전의 동력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화가 도시발전, 사회경제발전의 키워드이므로 국가 및 지역은 당연히 문화적 도시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문화우선주의란 어떻게 문화적 도시발전을 지향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 착안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하게 된다.

제3절 문화공공성과 지표

1. 문화공공성의 개념

앞의 유사·관련 개념 분석을 토대로 문화공공성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두 가지 측면의 접근으로 정리될 수 있다. 하나는 문화공공성을 문화우선주의 즉, 문화의 공적기능 강화와 문화의 공공영역 확보, 그리고 문화적 도시발전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문화민주주의 즉, 문화기본권과 문화향수권, 그리고 문화복지란 관점에서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식이다. 이를 종합하면, 문화공공성이란 문화의 공공영역을 확장하면서 공공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과 문화향유의 형평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측면을 동시에 살펴야 하는 것이다.

부연하면, 우선 문화공공성은 문화에 대한 공공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문화서비스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측면에서의 공공성의 강조라 할 수 있다. 이제 행정을 비롯한 공공부문은 보다 넓은 영역에서 문화서비스의 공급을 늘려야 하고 그 효율적 배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 또는 공동체 내의 문화향유에서 소외된 계층이나 주민들에 대한 공공부분의 관심과 배려, 정책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문화공공성은 강조되어야 한다. 민간 또는 시장 주도의 문화서비스 공급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한 문화향유권 배분을 교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의 문화공공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는 약자·소수자의 문화적 소외를 극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약자·소수자의 문화향유권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두 측면의 문화공공성 접근은 사회·경제·문화적 약자(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적 배려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비롯된 것인데, 마이너리티(여성·노인·외국인거주자·동성애자·독거인 등)에 대한 적극적 문화정책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도시발전 패러다임이 문화적 접근으로 전환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2. 인천의 문화공공성

문화공공성에 대한 앞의 정의는 이에 대한 논의가 규범적이고 당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이 시기 문화공공성에 대한 관심은 지역문화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의 반성과 비판 속에 촉발되었으며, 지역문화발전에 대한 공동체 관심의 추구와 공공의 문화정책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문화공공성 논의는 구체성과 지역성을 담보해야 하며 이는 ‘인천’이란 구체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표를 개발, 활용할 때 그 의미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3. 문화공공성 지표

문화공공성 지표란 앞서 정의한 특정 지역사회 또는 공동체의 문화공공성 수준을 기능하는 계량적 기준이라 할 수 있다. 개인·지역·도시의 문화수준과 문화발전을 계측하는 기준으로서, 이에 근거해서 문화공공성 수준과 한계, 문제점을 계량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곧 한 지역 또는 공동체의 문화공공성 확보를 위한 문화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판단하는 근거로 기능하게 되고, 문화공공성 향상을 위한 문화정책 수단개발과 추진의 합리적 근거가 된다. 이러한 정의와 속성에 근거해서 문화공공성지표가 정의되는 것이므로 이는 곧 환경변화에 따라 다른 형태를 띠게 되는 유동적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관점에서 이 시기 인천의 문화공공성 지표는 ① 조직운영 개방성과 안정성 ② 향유 평등성 ③ 지역 형평성 ④ 프로그램 다양성 ⑤ 시설 접근성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개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4. 문화공공성 지표 개발의 원칙과 기본 방향

첫째, 문화공공성 지표는 ‘인천’이라는 구체적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하여 인천의 ‘지역성·정체성’이 적극 반영되도록 한다. 문화는 기본적으로 지역적이고 분산적이므로 최대한

지역성과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지표를 고민하고, 지표가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곧 문화공공성지표가 인천의 문화수준과 향후 발전을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문화공공성 전 분야를 커버하되 중요도와 상징성, 그리고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를 감안, 적정 수의 현실적 지표를 개발한다. 현실적 지표라 함은 현재의 도시발전 수준과 통계수치 확보 가능성,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는 뜻이다. 이론적 측면에서는 전영역을 커버하는 많은 수의 지표를 고려할 수 있지만, 도시발전의 문화적 수준과 데이터 확보의 비용, 그리고 지표의 현실적 의미 등을 참작해서 실용적인 지표 개발에 방점을 둔다는 것이다.

셋째, 산식을 단순화해서 계량화가 용이하게 하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다. 산식의 단순화가 용이한 것은 아니나 객관적 현실 분석과 과학적 이해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단순한 계량화를 도모하도록 한다. 산식의 단순화가 현실 분석을 어렵게 하고 현황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선에서 단순화·계량화를 시도하도록 한다.

넷째, 지표 구상과 개발은 문화적 접근(다양성·개방성·자발성·분산성·지역성)을 기본으로 한다. 문화적 접근이라 함은 문화공공성 지표의 기획과 구상에 다양성과 개방성, 자발성, 분산성, 그리고 지역성과 같은 인문적 특성이 적극 감안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섯째, 문화우선주의 측면의 문화공공성 지표는 일반 문화지표에서 이미 개발, 활용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주로 문화민주주의 측면의 문화공공성 지표 개발에 치중하기로 한다.

제 4절 인천 문화공공성지표

1. 주요 관심영역과 평가항목

인천 문화공공성 지표는 조직운영, 향유, 지역, 프로그램, 시설 등 총 5개 관심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각 관심영역별로 조직운영의 '개방성' 및 '안정성', 향유 '평등성', 지역 '형평성', 프로그램 '다양성', 시설 '접근성' 등의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 공공 재원이 투입된 기관, 시설, 단체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과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고, 시민 공청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한 기관의 합리적 운영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조직운영의 '개방성'을 평가항목으로 설계하였다. 이는 조직 운영의 공개 정도와 주민참여 보장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 관련 기관, 시설, 단체 운영의 주요 목적이 시민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설 문화시설과의 경쟁 등과 같은 시장논리에서 벗어난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적 안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평가하기 위한 조직운영의 '안정성'도 평가항목으로 설계하였다.
- 경제적·사회적 제약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이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문화예술 향유의 '평등성'을 평가항목으로 설계하였다. 이는 일반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 시민은 물론 지리적으로 문화시설 또는 문화행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지원 사업을 조사하기 위해 지역 '형평성'을 평가항목으로 설계하였다. 이는 문화소외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사업 종류와 비중, 지역별 문화시설 분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창조하고 국내외 문화 교류를 통해 타 문화를 이해하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양성’을 주요한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지역 정체성과 문화 전통을 계승·재창조하는 사업,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비중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 시민들이 문화예술 환경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시설의 ‘접근성’을 평가항목으로 설계하였다. 이는 문화예술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편리성과 해당 문화시설 내부의 시설·정보 이용 편리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표 VI-4-1] 인천 문화공공성지표

| 관심 영역 | 평가 항목 | 평가지표 | 조사 대상 ³⁶⁾ | 조사방법 | 내용 | 비고 |
|-------|-------|--------------------|----------------------|-------|--|-----------------------------|
| 조직 운영 | 개방성 | 조직 운영 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 | 기관, 시설, 단체 | 자료 조사 | - 주요의사결정 기구의 개방성 - 시민단체 및 지역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 횟수, 사업유형 | |
| | 안정성 | 재정 지원 변동추이 | " | " | 운영지원 예산 증감 비율 | |
| 향유 | 평등성 | 활동·참여 지원 | 기관, 시설 | " | 시민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예산 | |
| | | 저소득층 대상 문화예술 활동 지원 | " | " | 저소득층 대상 문화예술 지원 사업 및 예산 | |
| 지역 | 형평성 | 문화소외지역주민 대상 문화예술사업 | 기관, 시설, 단체 | " | 문화소외지역주민 대상 문화예술사업 사업유형, 건수, 지원금 | 지리적·지역적 소외자 |
| | | 지역별 문화시설 분포 | - | " | 공연/전시시설/공공도서관 1개소 당 인구수 | 문화지표: 2. 문화환경 <문화시설 충분성> 활용 |
| 프로그램 | 다양성 | 지역정체성과 문화 전통 | 기관, 시설, 단체 | " | 지역정체성과 문화전통 계승 및 재창조 사업 종류 | |
| | | 문화교류 | | | 문화교류 사업 유형, 건수, 예산 | |
| 시설 | 접근성 | 문화시설 접근성 | 시설 | " | 도보 5분 이내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수단, 거리, 소요시간 | |
| | |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 | " | " | 이용자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구비 여부 (안내자료/수화/통역/휠체어 경사로/엘리베이터/휴게실/수유실) | |

36) 기관 :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인천문화재단, 부평구문화재단
 시설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군·구 문예회관, 인천아트플랫폼,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공립문화예술단체 : 인천시립예술단(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2. 조사 대상

문화공공성 지표 측정을 위한 조사 대상은 기관, 문화기반시설, 공립 문화예술단체 등이 해당되며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 VI-4-2] 문화공공성 지표 조사 대상

| 구분 | 범주 | 비고 |
|-----------|--|-------------|
| 기관 |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인천문화재단 부평구문화재단 | |
| 문화기반시설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군·구 문예회관 인천아트플랫폼 인천광역시립박물관 | |
| 공립 문화예술단체 | 인천시립예술단 | 구립예술단 추후 검토 |

3. 조사방법과 내용

- 조직운영의 개방성은 ‘주요의사결정 기구의 개방성’과 ‘시민단체 및 지역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횟수, 사업유형’ 등의 내용을 조사하는 것이다. ‘주요의사결정 기구의 개방성’은 이사회 등의 자료 공개 및 일반 시민의 참여 가능 여부 등을 의미한다. 또한 시민단체 및 지역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횟수와 사업유형이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 조직운영의 안정성은 재정 지원 변동 추이를 평가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기관, 시설, 단체의 운영지원 예산 증감 비율을 비교해 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조직운영 안정성의 척도를 예시하면 ① 5% 이상의 증가 추세인 경우 ‘양호’ ② 1% 내외의 증가 또는 감소 인 경우 ‘보통’ ③ 5% 이상의 감소 추세인 경우 ‘미흡’으로 평가될 수 있다.

- 향유 평등성은 일반시민 대상의 사업과 저소득층 대상의 문화향유 사업으로 구분되며 시민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예산과 저소득층 대상의 문화예술 지원 사업 및 예산의 비율을 비교해 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 지역 형평성은 문화소외지역 주민 대상의 문화예술사업의 유형, 건수, 지원금과 문화시설을 향유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되는 지역별 공연/전시시설/공공도서관 1개소 당 인구수를 비교해 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인천문화지표>의 '문화시설 충분성'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 프로그램 다양성은 지역정체성과 문화 전통 구현 사업의 작품 개발 건수, 문화교류 사업의 유형과 건수, 예산 등을 비교해 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 시설 접근성은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에 대하여 도보 5분 이내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수단이나 거리, 소요시간과 이용자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이 구비되어있는지의 여부를 비교해 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설 내에서의 이용 편리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용자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구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안내자료, 수화·통역 등의 전문인력 배치 여부, 휠체어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유무, 휴게실과 수유실 유무 등을 조사해야 한다. 시설 접근성은 기본적으로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제 5절 인천문화공공성 지표 적용 결과 및 제언

1. 지표 항목별 조사내용을 계수화하는 데 있어서 항목별로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또 항목별로 가중치 적용 여부 등의 문제는 추후의 검토 과제이다.
2. 문화공공성 지표를 문화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표개발의 목적에 대한 문화 주체들 간의 공론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즉, 문화공공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은 형성되어 있으나 개발된 지표를 적용한 조사대상 및 기관이나 시설 운영주체들 간에 공공성 실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충분치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3. 문화공공성 지표는 장기적으로 일반 문화지표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당분간은 독자적인 조사와 평가를 통해 지표의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4. 본 지표개발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으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공성 지표로 ‘문화지니계수’ (Gini coefficient of culture & Art)와 ‘문화예술 다양성 지표’ 등이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문화공공성을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지닌 지표들임에도 불구하고 지표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 문화지니계수: 문화지니계수는 경제학에서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파악하는 ‘소득지니계수’에서 착안한 지표로 문화예술불평등(culture inequality) 상태를 계량화 하는 지표이다. 문화예술을 통해 국민의 문화적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경제적 제약과 시간적 제약, 혹은 신체적 장애와 문화 인프라 부족 등으로 문화예술 향수와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소득계층과 세대, 직업군별로 문화격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화격차와 불평등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³⁷⁾

○ 문화예술 다양성 계수: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문화산업의 급속한 성장

37) ‘문화지니계수’의 정의 및 산출식은 『문화예술통계 중장기 발전 실행방안 연구』(문화체육관광부, 2011) 참조.

과 세계화 현상으로 인해 고유한 문화나 언어 등이 소멸되거나 특수 문화에 흡수 획일화 되는 현상 때문이다. 문화정체성과 문화다양성은 세계적인 정책의제로 대두하였으며, 2005년 제33회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문화다양성 협약」이 통과되었다. 즉 문화예술의 다양성은 혁신과 창조의 원천으로서 문화예술 생태계에 지속적인 활력을 보장하면서 전통의 창조적 발전을 가능케하는 요건이다. 문화예술의 다양성은 고유한(특수한) 문화예술이 얼마나 보존 유지되고 있는지, 문화예술을 구성하는 장르의 다양성은 유지 보존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의 문화예술의 흐름을 변화시키고 혁신하려는 새로운 흐름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등과 같은 요소들이다.

제2권

2012 인천예술인실태조사



2 0 1 2 인 천 예 술 인 실 태 조 사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기대효과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문화도시 창조를 위해 필요한 여러 선행 과제 가운데 지역 예술의 진흥과 발전은 매우 기본적인이고도 중요한 과제이다. 시민의 활발한 문화 활동 및 향유와 마찬가지로 지역 예술인들의 적극적 창작활동 역시 선행되어야 하며 적극적 창작 활동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과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천문화재단에서는 인천에 거주하거나 활동 중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인천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인천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환경 조건과 현실을 살펴보고 이들을 위한 적절한 정책적 시사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 지역의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형태와 활동 조건, 인천에서의 예술 활동 어려움 등에 대한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응답을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012 인천예술인실태조사>는 인천시 거주 또는 인천시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가운데 645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예술은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영상·미디어, 다원예술, 기타 등 총 7개 분야로 구분하여 설계하였다. 설문문의 내용은 전반적 문화예술 활동 형태, 문화예술 활동 공간, 단체 및 교류활동, 문화예술인 지원, 교육 및 훈련, 고용 및 복지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일부 유사한 설문문항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실시한 「2009 문화예술인실태조사」결과와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함께 수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인천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현황과 활동 여건, 적절한 지원 사업 등을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지원 사업 및 정책 방향 모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기대효과

〈2012 인천예술인실태조사〉는 인천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모든 예술인들의 활동 형태와 현실적 어려움, 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향후 적절한 지원 사업, 지원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활동 중인 모든 예술인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단체에 가입한 예술인을 중심으로 모집단 구성이 이뤄진 점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 모집단 구성을 위한 사전 조사가 이뤄지거나 분야별 표본 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대안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술 분야의 특성상 예술인의 수가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조사된 점에도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다원예술의 경우 응답자 수가 많지 않아 조사 결과를 해석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예술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졌다는 점과 시립 예술단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역시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는 점은 이 연구가 가진 의의 중 하나일 것이다.

향후 〈인천예술인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지속되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예술인 지원정책 수립과 지역 문화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2 인천예술인 실태조사 일반현황 분석

제1절 예술인 일반현황

제2절 문화예술 지원

제1절 예술인 일반현황

1. 분야별 예술인 비율

예술인에 대한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인 실태조사」가 있으나 이는 예술인 수에 대한 통계자료가 아닌 표본 조사 자료이므로 정책수립의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예술인 수는 광역시별 비교를 위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예총),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이하 민예총), 시도별 시립예술단 규모를 파악하였다.¹⁾

인천의 문화예술인은 총 3,193명으로 울산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산과 인천의 문화예술인 규모에 민예총 회원 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타 광역시에 비해 특히 적은 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예술인이 가장 많은 지역은 대구로 총 8,338명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는 ‘부산’ 6,349명, ‘광주’ 4,505명, ‘대전’ 3,994명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문화예술인 비율을 살펴보면 인천의 경우 ‘시각예술’, ‘공연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이 각각 26.6%, 25.7% 비율로 전체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전통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할 수 없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비율이 36.6%로 나타나고 있어, 6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1) 민예총의 경우 일부 지역의 분야별 회원 수가 공개되지 않아 부산, 인천에만 민예총 회원 수가 포함되어 있음

[표 II-1-1] 분야별 문화예술인 비율

(단위: 명, %)

| | 문학 | 시각예술 | 공연예술 | 전통 | 기타 | 총계 |
|----|-------|-------|-------|------|-------|-------|
| 부산 | 1,176 | 2,564 | 1,872 | 376 | 361 | 6,349 |
| | 18.5 | 40.4 | 29.5 | 5.9 | 5.7 | 100.0 |
| 대구 | 905 | 2,550 | 2,162 | 762 | 1,959 | 8,338 |
| | 10.9 | 30.6 | 25.9 | 9.1 | 23.5 | 100.0 |
| 인천 | 210 | 850 | 820 | 144 | 1,169 | 3,193 |
| | 6.6 | 26.6 | 25.7 | 4.5 | 36.6 | 100.0 |
| 광주 | 560 | 2,166 | 699 | 350 | 730 | 4,505 |
| | 12.4 | 48.1 | 15.5 | 7.8 | 16.2 | 100.0 |
| 대전 | 500 | 1,800 | 768 | 516 | 410 | 3,994 |
| | 12.5 | 45.1 | 19.2 | 12.9 | 10.3 | 100.0 |
| 울산 | 173 | 629 | 457 | 96 | 259 | 1,614 |
| | 10.7 | 39.0 | 28.3 | 5.9 | 16.0 | 100.0 |

참고: 각 시도, 통계 DB(2010, 2011)

2. 전문예술법인 수

전문예술법인 제도는 문화관광체육부 주관으로 세제지원 및 직접지원을 통해 예술 단체의 자생성 확보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에 전문예술법인이 많다는 것은 지원제도를 통한 안정적 단체 운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광역시 별 문화예술단체 수는 문화관광연구원의 <문화예술단체 실태조사> 모집단을 통해 도출할 수 있으나 관련 조사가 2006년 이후 중단되어 현실적으로 광역시 별 문화예술단체 수를 집계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지역의 문화예술 단체 및 전문예술법인으로 분석 대상을 제한하였다. 인천의 전체 예술단체 수는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 DB, 공모사업 지원단체, 예총과 민예총 소속 협회 등을 통해 총 345개 단체로 도출하였다. 이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문예술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는 총 13개 단체로 인천시 전체 문화예술 단체 대비 3.8%였다.

[표 II-1-2] 전문예술법인 수

| | 2012년(개) |
|--------------|----------|
| 전문예술법인 수(단체) | 13 |
| 문화예술단체 수(단체) | 345 |
| 비율(%) | 3.8 |

참고: 예술경영지원센터, <전문예술법인단체 리스트>(2012)

3.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비율

광역시 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수를 살펴보면, 인천 지역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8명으로 전체 광역시 대비 38.1%로 조사되었다. 광역시 가운데 부산 다음으로 많은 수치이며 부산과 인천에 있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수가 광역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표 II-1-3] 무형문화재 보유자 비율

(단위: 명, %)

|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수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비율 |
|--------|---------------|----------------|
| 부산 | 10 | 47.6 |
| 대구 | 2 | 9.5 |
| 인천 | 8 | 38.1 |
| 광주 | 1 | 4.8 |
| 대전 | 0 | 0.0 |
| 울산 | 0 | 0.0 |
| 계(광역시) | 21 | 100.0 |

참고: 문화재청, <주요업무 통계자료집(2012년 6월말 기준)>

제2절 문화예술 지원 현황

1. 6대 광역시 문화예술지원 현황

넓은 의미에서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창작활동 지원은 이를 위한 다양한 인적, 물적, 행정적 지원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재정 투입은 복합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술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좁은 의미에서 문화예술 지원은 예술가, 문화예술단체,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 자금 및 민간 자금이 교부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²⁾ 이에 문화예술분야 행정업무를 주관 또는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예산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그 지원 목적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재정’,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한 재정’, ‘문화시설의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재정’, ‘문화예술의 소비 및 참여 증진을 위한 재정’으로 구분³⁾하여 분석하였다. 문화예술과에 속한 지원항목이라도 이와 직접 관계가 없는 체육, 청소년, 관광 등의 항목은 제외하였으며, 담당부서 외에도 박물관, 미술관 등의 소속기관 예산은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구분 기준에 따라 6개 광역시의 2012년 문화예술 예산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2-1] 문화예술 지원현황(광역시 비교)

(단위: 천원)

| |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 활동지원 |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 문화예술 소비 및 참여증진 | 총 계 |
|----|-----------|-----------|--------------|----------------|-------------|
| 부산 | 822,050 | 3,626,665 | 80,951,154 | 29,103,784 | 114,503,653 |
| 대구 | 779,600 | 3,822,260 | 39,127,479 | 26,566,963 | 70,296,302 |
| 인천 | 1,260,295 | 3,751,180 | 68,924,545 | 12,133,966 | 86,069,986 |
| 광주 | 888,127 | 8,479,152 | 40,561,266 | 22,817,988 | 72,746,533 |
| 대전 | 1,027,841 | 4,800,506 | 52,900,045 | 19,351,921 | 78,080,313 |
| 울산 | 815,280 | 3,422,322 | 33,679,976 | 12,489,360 | 50,406,938 |

자료: 각 시, 2012 본예산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토대로 작성

2) 인천문화재단, 「인천지역 문화예술지원 실태조사」(2005).

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통계 증장기 발전 실행방안 연구」(2011), p. 157 참조.

문화예술 관련 예산 규모는 부산, 인천, 대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경우 문화예술 예산 중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1,260,295천원을 배정한 것으로 조사되어, 6개 광역시 중 ‘문화예술교육’에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지원액이 68,924,545천원으로 ‘부산’ 80,951,154천원 다음으로 높게 파악되었다.⁴⁾ 예술인과 예술단체 대상 지원활동에 해당하는 ‘문화예술 활동지원’ 항목의 경우 ‘광주’가 8,479,152천원으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고, ‘대전’ 4,800,506천원, ‘대구’ 3,822,260천원, ‘인천’ 3,751,180천원, ‘부산’ 3,626,665천원, ‘울산’ 3,422,322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천의 문화예술 예산 중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소비 및 참여증진’에 대한 예산은 12,133,966천원으로 6개 광역시 중 최하위로 조사되었다.

2. 인천시 군·구별 예술인 및 예술단체 지원 현황

인천시의 10개 군·구 가운데 예술인과 예술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한 곳은 남동구와 연수구, 남구, 부평구, 동구, 계양구, 서구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지원사업이 가장 활발한 곳은 ‘연수구’와 ‘남동구’로 각각 23건과 18건의 지원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구’ 11건, ‘계양구’ 7건, ‘서구’ 5건, ‘동구’ 2건 순으로 조사되었다. 연수구와 남동구의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한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의 10개 군·구 가운데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인천광역시의 문화예술 예산 중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예산이 높은 이유는 테마박물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등의 신규 문화기반시설 설립을 위한 예산액이 책정되었기 때문으로 조사됨

[표 II-2-2] 군·구별 예술인 및 예술단체 지원현황

(단위: 건, 천원)

| | 사업 수(건) | 총 사업액(천원) | 건당 지원액(천원) | 비고 |
|-----|---------|-----------|------------|----------|
| 연수구 | 23 | 66,000 | 2,870 | 문화예술진흥기금 |
| 남동구 | 18 | 58,000 | 3,222 | 문화예술진흥기금 |
| 동구 | 2 | 45,000 | 2,250 | |
| 남구 | 11 | 67,400 | 6,127 | |
| 부평구 | 1 | 12,025 | 12,025 | |
| 계양구 | 7 | 46,000 | 6,571 | |
| 서구 | 2 | 37,380 | 18,690 | |
| 합계 | 62 | 294,305 | 4,599 | |

자료: 2011 각 군·구별 지원사업 내역 분석

지원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시각예술’ 지원이 총 3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연예술’ 21건, ‘전통예술’ 6건, ‘문학’ 4건, ‘문화일반’ 2건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원총액 역시 ‘시각예술’이 123,500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연예술’ 115,225천원, ‘전통예술’ 40,080천원, ‘문학’ 8,500천원, ‘문화일반’ 7,000천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당 지원액은 ‘전통예술’이 6,680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연예술’ 5,487천원, ‘시각예술’ 3,984천원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I-2-3] 지원분야별 문화예술 지원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지원건수 | 지원총액 | 건당 지원액 | 지원금액비율 |
|------|------|---------|--------|--------|
| 시각예술 | 31 | 123,500 | 3,984 | 42.0 |
| 공연예술 | 21 | 115,225 | 5,487 | 39.2 |
| 전통예술 | 6 | 40,080 | 6,680 | 13.6 |
| 문학 | 4 | 8,500 | 2,125 | 2.9 |
| 문화일반 | 2 | 7,000 | 3,500 | 2.4 |
| 합계 | 64 | 294,305 | 4,599 | 100.0 |

자료: 2011 각 군·구별 지원사업 내역 분석

3. 문화재단 지원사업 현황

1) 인천·서울·경기문화재단 비전 및 목표

‘인천문화재단’은 <문화인천의 창의적 실현>을 비전으로 ‘문화예술생태계의 상생적 순환과 일상적 삶의 문화적 성숙을 위하여 최적의 문화예술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고품격 문화도시로 가는 데 기여한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지원 서비스 강화 (Promote)’, ‘지역성의 재창안 (Incubate)’, ‘문화예술교류 활성화 (Activate)’, ‘시민문화복지 증진 (Advance)’ 등 크게 4가지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서울문화재단’은 <예술로 활기찬 서울, 문화로 행복한 시민, 문화가 꿈, 문화 가꿈>을 비전으로 ‘시민 참여를 통한 문화거버넌스 강화’, ‘광역문화정책구현 역량 강화’, ‘문화예술생태계 자생력 및 네트워크 강화’,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통한 인간성 회복, 시민 행복감 제고’, ‘제휴·협력을 통한 사업 확산’, ‘운영 효율성 극대화 및 내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의 ‘꿈과 미와 힘’을 구현하여 신명나는 경기문화 창달>을 비전으로 ‘경기문화자원의 발굴과 역량강화’, ‘문화예술의 창조적 에너지 확산’, ‘융합과 창조의 경기문화 실현’을 목표로 ‘5대 전략 20개 과제’를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다.

[표 II-2-4] 인천·서울·경기문화재단 비전과 목표

| 구분 | 인천문화재단 | 서울문화재단 | 경기문화재단 |
|----|--|---|--|
| 비전 | 문화인천의 창의적 실현 | 예술로 활기찬 서울, 문화로 행복한 시민, 문화가 꿈, 문화 가꿈 | 경기도의 꿈과 미와 힘 |
| 목표 | 문화예술지원 서비스 강화 (Promote), 지역성의 재창안 (Incubate), 문화예술교류 활성화 (Activate), 시민문화복지 증진 (Advance) | 시민 참여를 통한 문화거버넌스 강화, 광역문화정책구현 역량 강화, 문화예술생태계 자생력 및 네트워크 강화,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통한 인간성 회복, 시민 행복감 제고, 제휴·협력을 통한 사업 확산’, ‘운영 효율성 극대화 및 내적 역량 강화’ | 경기문화자원의 발굴과 역량강화, 문화예술의 창조적 에너지 확산, 융합과 창조의 경기문화 실현 (5대 전략 20개 과제) |

출처 : 인천, 서울,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2) 문화재단별 지원사업 일반 현황(인천, 서울, 경기)

(1)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의 사업영역을 살펴보면 먼저 ‘(문화)예술지원’⁵⁾영역은 ‘예술표현활동지원’ (출판, 시각예술, 공연예술(무용, 음악, 연극), 전통문화예술), ‘인천미술활성화기획지원’, ‘우현상운영’ 등 총 7건의 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시민)문화사업’ 영역은 ‘인천문화예술대표인물조명’, ‘문화도시공동체지원’ 등 총 8건의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영역은 ‘문화예술교육 아카이브’,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 ‘예술강사지원’ 등 총 9건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출판(사업) 및 홍보마케팅’ 영역은 ‘플랫폼 출판’, ‘총서발간’, ‘인천문화예술연감발간’ 등 총 9건의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창작공간 및 운영기관’ 영역은 ‘인천영상위원회’, ‘인천아트플랫폼’, ‘트라이볼’ 등 총 3개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축제·교류’ 영역은 ‘문화매개자해외탐방’, ‘인천미술활성화기획사업’ 등 총 2건의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⁶⁾

(2)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의 사업영역을 살펴보면 ‘(문화)예술지원’ 영역은 ‘정기공모지원’과 ‘특성화공모지원’ 크게 2건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정기공모지원’은 ‘시민문화예술지원’⁷⁾(시민 예술활동지원, 시민축제지원, 서울문예회관 네트워크) 3건, ‘예술창작지원’ (문학,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시각예술, 예술 연구서적 발간지원) 8건, ‘서울예술축제지원’ (공모, 대표예술축제, 축제콘텐츠제작 및 교류지원) 3건 등 총 14건의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성화공모지원’은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유망예술육성 NArT’, ‘예술로희

5) ‘인천미술활성화기획지원’, ‘우현상운영’, ‘문화예술역량강화지원’ 등 지역의 정체성확립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예술인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타 문화재단과 구별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음

6) ‘서울문화재단’은 ‘축제·교류’ 지원을 별도의 지원사업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인천문화재단’은 축제 지원을 ‘시민문화사업’ (시민문화활동지원)영역에 포함하고 있음.

7) 정기공모 지원 중 ‘시민문화예술지원’ 사업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문화사업’ 영역으로 구분함.

망드림프로젝트' 3건의 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시민)문화사업' 영역은 '서울거리아티스트', '책 읽는 서울', '문화가 있는 놀이터' 등 총 3건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영역은 '어린이·청소년·창의예술교육가(TA) 창의예술교육' 등 총 5건의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연구출판(사업) 및 홍보마케팅' 영역은 'ISPA 2012 서울총회', '문화서울이미지 홍보강화', '고객감동경영' 등 총 5건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작공간 및 운영기관' 영역은 센터(서울연극센터 남산예술센터, 남산창작센터) 3개소, 연습실(대학로연습실) 1개소, 창작공간(서교예술실험센터, 금천예술공장, 신당창작아케이드, 연희문학창작촌, 문래 예술공장, 성북예술창작센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장애인창작스튜디오, 흥은예술창작센터) 9개소 등 총 14개소의 창작공간과 예술센터가 해당된다.

'축제·교류' 영역에는 '하이서울페스티벌', '청계천축제',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등 총 3건의 축제를 포함하고 있다.

(3)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은 '문화예술 공모지원사업', '공연예술단체 육성', '문화예술 기획사업', '전략적 문화 사업', '수익사업 및 마케팅 강화', '문화예술 홍보 강화', '문화예술계기성 사업', '재단 창립 15주년 사업', '경영기능 개선', '문화예술교육 사업', '문화바우처 사업',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운영', '문화시설 운영' 등 총 13개 영역으로 사업을 구분하고 있다.⁸⁾

'경기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 영역 지원사업은 '문화예술공모지원', '공연예술단체 육성', '문화예술기획' 등 총 3건이 해당된다.

'(시민)문화사업' 영역에는 '경기문화멤버십', '문화예술교육사업 개발', '국제교류 협력', '장애아동 문화 나눔 캠페인' 등 총 4건의 사업이 포함된다.

8) '경기문화재단'의 사업영역은 '인천·서울문화재단'과 비교했을 때 보다 다양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서울문화재단'의 사업영역을 기준으로 정리함. 세 문화재단의 공통으로 포함되는 사업을 정리한 결과 '(문화)예술지원', '(시민)문화사업', '(문화)예술교육', '연구출판(사업) 및 홍보마케팅', '창작 공간 및 운영기관', '축제·교류' 등 총 6개 영역으로 나타남. 경기문화재단의 사업 중 인천·서울문화재단의 사업영역을 기준으로 구분했을 때 포함되지 않는 사업들은 표기하지 않음. '전략적 문화사업'은 사업명칭 때문에 '문화사업' 영역으로 포함시킴. 또한 '문화바우처사업'은 일괄 삭제함.

‘(문화)예술교육영역’은 ‘문화예술교육 기획 지원, ‘경기예술강사 지원’, ‘토요문화학교운영’ 등 총 6건의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연구출판(사업) 및 홍보마케팅’ 영역은 ‘사이버경기문화재단 운영’, ‘「경기문화나루」 발간’, ‘문화관광자원 통합서비스(GAM)’ 등 총 6건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창작공간 및 운영기관’ 영역에는 ‘박물관’ (경기도박물관, 실학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4개소, ‘미술관’ (경기도미술관) 1개소, ‘창작센터’ (경기창작센터) 1개소, ‘아트센터’ (백남준아트센터) 1개소, ‘연구원’ (경기문화재단연구원) 1개소, ‘창조학교’ (경기창조학교) 1개소, ‘사업단’ (남한산성관광사업단) 1개소, ‘기타’ (재단사무처) 1개소 등 총 10개소의 문화시설과 기관이 속한다. ‘축제·교류’ 영역은 지원사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⁹⁾

(4) 문화재단별 지원사업 특징(인천, 서울, 경기)

인천·서울·경기문화재단의 사업영역을 살펴본 결과 ‘인천문화재단’의 경우 6개 사업영역 중에서 ‘(문화)예술지원’ 영역 대한 지원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창작공간 및 운영기관’ 영역, ‘연구출판(사업) 및 홍보마케팅’ 영역, ‘(문화)예술교육’ 영역에 ‘(시민)문화사업’ 영역 순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축제·교류’ 영역은 6개의 사업영역 중 지원액이 가장 적다.

‘서울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 영역도 지원액이 가장 높은 영역이다. 다음으로 ‘창작공간 및 운영기관’ 영역, ‘(문화)예술교육’ 영역, ‘연구출판(사업) 및 홍보마케팅’ 영역, ‘축제·교류’ 영역 순으로 지원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문화재단은 ‘(시민)문화사업’ 영역에 대한 지원은 6개 영역 중 가장 적다.

‘경기문화재단’은 ‘창작공간 및 운영기관’ 영역 지원액이 가장 높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 영역, ‘(문화)예술지원’ 영역, ‘연구출판(사업) 및 홍보마케팅’ 영역, ‘(시민)문화사업’ 영역 순으로 지원액이 높다.

조사결과 ‘인천문화재단’ 과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지원’ 영역을 ‘경기문화재단’은 ‘창작공간 및 운영기관’ 영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경기문화재단의 ‘국제교류 협력사업’은 ‘전략적 문화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음.

[표 II-2-5] 문화재단별 지원사업 일반 현황(인천, 서울, 경기)

| 구분 | 인천문화재단 ¹⁰⁾ | | 서울문화재단 | | 경기문화재단 | |
|---------------------------|---|----------------|--|----------------|--|----------------|
| | 세부사업 | 2012년 예산액 (천원) | 세부사업 ¹¹⁾ | 2012년 예산액 (천원) | 세부사업 | 2012년 예산액 (천원) |
| (문화) 예술 지원 | 예술표현 활동, 인천미술활성화기획, 우현상운영, 공연장상주단체육성, 레지던스프로그램, 문화예술역량강화, 국제교류기획 | 1,840,000 | 예술창작지원, 서울예술축제지원, 특성화공모지원 | 10,721,000 | 문화예술공모지원, ¹²⁾ 공연예술단체육성, 문화예술기획 ¹³⁾ | 1,914,000 |
| (시민) 문화 사업 | 인천문화예술대표인물조명, 문화도시공동체지원, 인천알츠, 찾아가는 문화활동, 인천사랑티켓, 시민문화활동, 시도기획지원, 인천문화예술관람지원 | 1,076,000 | 시민문화예술지원, 서울거리아티스트, 책 읽는 서울, 문화가 있는 놀이터 | 1,470,000 | 경기문화멤버십, 문화예술교육사업 개발, 국제교류 협력, 장애아동 문화 나눔 캠페인 | 358,810 |
| (문화) 예술 교육 ¹⁴⁾ | 문화예술교육 아카이브,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 예술강사지원,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양성, 문화예술교육 기획, 학교문화예술교육운영, 토요문화학교 | 1,459,792 | 어린이/청소년/ 창의예술교육가(TA)/ 문화매개자 창의예술교육, 서울형 창의예술교육 체계 구축 | 2,500,000 | 문화예술교육 기획 지원, 컨퍼런스 및 워크숍, 비평연구 및 협력체제 구성, 경기 문화예술교육 수립 추진, 경기예술강사 지원, 토요문화학교운영 | 2,554,580 |

10) 문화예술교육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바우처’에 대한 예산은 포함하지 않음.

11) 서울문화재단의 ‘시민문화예술지원’ 사업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문화사업’ 영역에 포함함.

12) ‘문화예술 공모지원사업’은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유망작가 예술프로젝트’,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이 포함됨.

13) ‘문화예술 기획사업’은 ‘전문예술 창작·발표’, ‘전문예술 연구·출판’, ‘커뮤니티와 아트’, ‘예술이 흐르는 공간’, 경기새천년 ‘굿음악제’가 포함되어 있음. ‘경기문화재단’의 ‘커뮤니티와 아트’와 ‘예술이 흐르는 공간’ 지원사업은 ‘인천’과 ‘서울문화재단’에 없는 유형의 지원사업이지만, ‘인천문화재단’의 ‘시민문화사업’영역 ‘지역공동체문화만들기’ 지원사업과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음.

14) ‘(문화)예술교육’영역의 경우 인천, 서울, 경기문화재단 모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강사 지원사업’ 등 지원사업의 성격이나 유형은 비슷함. 그러나 경기문화재단의 경우 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라 경기도의 9개 시(市) 문화재단(고양, 부천, 성남, 수원, 안양, 오산, 용인, 하남, 화성)과 연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특징이 있음.

제2권 2012 인천예술인실태조사

| | | | | | | |
|------------------------------------|---|-----------|---|------------|---|---------------------------|
| 연구 출판 (사업) 및 홍보 마케팅 | 플랫폼 출판, 총서발간, 문화예술DB구축, 인천문화예술연감발간, 문화예술자료 체계화, 한국근대미술관(개관준비), 인천 AALA 문학포럼, 문화예술조사연구, 목요포럼 운영 | 1,626,400 | ISPA 2012 서울총회, 문화서울이미지 홍보강화, 고객감동경영, 문화예술간행물 발간, 문화예술정보시스템 운영 | 1,765,600 | 사이버경기문화재단 운영, 「경기문화나루」 발간, 출판 콘텐츠 관리, 문화예술홍보 네트워크 구축, SNS를 통한 소통 활성화, 문화관광자원 통합서비스(GAM) | 579,084 |
| 창작 공간 및 운영 기관 | 인천영상위원회, 인천아트플랫폼, 트라이블 | 1,641,000 | 서울연극센터, 대학교연습실, 남산예술센터, 남산창작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금천예술공장, 신당창작아케이드, 연희문학창작촌, 문래 예술공장, 성북예술창작센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장애인창작스튜디오, 흥은예술창작센터 | 10,285,465 | 경기문화재단 사무처, 경기도박물관, 실학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경기도미술관, 경기창작센터,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문화재단연구원, 경기창조학교, 남한산성관광사업단 | 31,908,419 ¹⁵⁾ |
| 축제 교류 | 문화매개자해외탐방, 인천미술활성화기획사업 | 130,000 | 하이서울페스티벌, 청계천축제,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 3,806,000 | | |

15) 경기도문화재단사무처 운영비와 예비비 항목 제외 금액임.

2012 인천예술인실태조사 결과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주요 조사결과 요약

제3절 2012 인천예술인실태조사 결과

제 1절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본 조사의 목적은 인천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실태 및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통계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예술인 활동 지원 정책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조사 방법

1) 모집단

조사 대상자는 인천에 거주하거나 인천 지역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이다. 조사대상자 명부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인천지부」(이하 예총)의 회원협회(국악협회, 문인협회, 미술협회, 사진작가협회, 연극협회, 음악협회, 영화인협회, 강화지부)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인천지회」(이하 민예총) 회원,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 DB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이 가운데 연락처 확보가 가능한 인천예술인 총 1,9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645명이 응답하였다.

2) 조사방법 및 기간

설문조사는 2012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실시하였고, 조사방법은 1:1 면접 조사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팩스, 이메일 조사를 병행하였다. 설문 조사사업은 (주) 메가리서치에서 담당하였다.

[표 III-1-1] 조사 방법

| | 내용 |
|-------|-----------------------------|
| 조사 대상 | 인천시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는 예술인 |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1:1 개별면접 조사 |
| 조사 규모 | 645명 [95% 신뢰수준 표준오차 ±4.13%] |
| 조사 기간 | 2012년 8월 1일~8월 21일 |

3) 조사 내용

설문은 예술인들이 공통으로 응답하는 6개의 문항과 7개 분야별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공통 설문지의 조사영역은 문화예술 활동, 문화예술 활동 공간, 단체 및 교류활동, 문화예술인 지원, 교육 및 훈련, 고용 및 복지 등이며, 분야별 설문은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영상/미디어, 다원예술,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하였다.

[표 III-1-2] 인천예술인실태조사 내용

| 구분 | 내용 |
|-----------------------|---|
| [공통] 문화예술 활동 | 주요 예술 활동 형태 주요 예술 활동 방식 현재 활동 부문에서의 예술 활동 종사 기간, 인천지역에서의 예술 활동 종사 기간 주요 예술 활동 지역(인천지역 활동 이유) 가장 발전, 낙후된 인천 예술분야 예술 활동 창작 및 홍보 활용 매체(활용 이유) 지난 1년간 문화예술 분야 관련 자원봉사 또는 재능기부 경험/대상/형태 향후 1년 이내 문화예술 분야 관련 자원봉사 또는 재능기부 의향 |
| [공통] 문화예술 활동 공간 | 예술 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공간 창작 공간 형태(임대료) 인천 내 발표 공간 이용에 대한 애로사항 |
| [공통] 단체 및 교류 활동 | 예술 활동 관련 단체 가입 여부 및 이유 소속 단체 내 예술 활동 및 지원에 대한 만족도 최근 3년간 발표 및 창작활동 위한 문화예술 교류 여부, 총 교류 횟수, 교류 형태 (교류 분야, 지역, 주기, 방법) |

| 구분 | 내용 | |
|---------------------|---|--|
| [공통] 문화예술인 지원 | <p>지난 3년간 창작 활동 관련 지원 여부/횟수/분야 지원받은 사업 유형 인천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지원사업 속성별 평가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정성 및 형평성 평가 바람직한 예술인 지원 방식 인천문화재단 예술지원 사업의 개선점 사업 및 정책에 예술인 의견 반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 인천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문화예술인이 노력할 점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인천시·인천문화재단의 역할</p> | |
| [공통] 교육 및 훈련 | <p>문화예술관련 교육 경험 및 도움정도 평가 최종 전공 분야(활동중인 문화예술 분야와 최종 전공의 일치 정도)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문화예술 재교육 예술인을 위한 행정 및 실무 관련 교육 개설 희망 프로그램</p> | |
| [공통] 고용 및 복지 | <p>문화예술 활동 이외의 경제활동 목적의 종사 직업 문화예술 활동 이외의 종사 직업 취업 상태 직업과 현재 활동하는 문화예술 분야와의 연관성 문화예술 활동 이외의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이유 예술인들의 노후대비를 위한 지원 형태</p> | |
| 예술 분야별 | 문학 | <p>주로 활동하는 문학 부문/문학부문 활동 시작 시기/첫 활동 방식 지난 3년간 문학 분야 활동 내용 인천지역 문학 분야 창작 및 발표 활동의 애로사항 인천 문학 분야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사업)</p> |
| | 시각 예술 | <p>주로 활동하는 시각예술 부문 지난 3년간 시각예술 분야 활동 내용 인천지역 시각예술 분야 창작 및 발표 활동의 애로사항 인천 시각예술 분야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사업)</p> |
| | 공연 예술 | <p>주로 활동하는 공연예술 부문 지난 3년간 공연예술 분야 활동 내용 인천지역 공연예술 분야 창작 및 발표 활동의 애로사항 인천 공연예술 분야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사업)</p> |
| | 전통 예술 | <p>주로 활동하는 전통예술 부문 지난 3년간 전통예술 분야 활동 내용 인천지역 전통예술 분야 창작 및 발표 활동의 애로사항 인천 전통예술 분야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사업)</p> |
| | 영상/ 미디어 | <p>주로 활동하는 영상·미디어 부문 지난 3년간 영상·미디어 분야 활동 내용 인천지역 영상·미디어 분야 창작 및 발표 활동의 애로사항 인천 영상·미디어 분야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사업)</p> |

| 구분 | | 내용 |
|--------|-------|--|
| 예술 분야별 | 다원 예술 | 주로 활동하는 다원예술 부문 지난 3년간 다원예술 분야 활동 내용 인천지역 다원예술 분야 창작 및 발표 활동의 애로사항 인천 다원예술 분야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사업) |
| | 기타 | 주로 활동하는 부문 지난 3년간 활동 내용 인천지역 창작 및 발표 활동의 애로사항 인천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사업) |

3. 응답자 특성

본 설문에는 총 645명이 응답하였으며 활동 분야별로 ‘시각예술’ 275명, ‘공연예술’ 187명, ‘전통예술’ 52명, ‘영상미디어’ 10명 등이다. 공연예술인의 경우 ‘일반예술인’ 74명과 ‘시립예술단 소속 예술인’ 1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령별로는 ‘20대’ 58명, ‘30대’ 84명, ‘40대’ 149명, ‘50대’ 225명, ‘60대’ 이상 124명으로 40대 이상 장년층 응답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력별로는 ‘무학’ 1명, ‘중졸’ 12명, ‘고졸’ 107명, ‘대졸’ 298명, ‘대학원 수료’ 64명, ‘석사·박사’ 156명 등으로 고학력이 두드러졌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고위관리직’ 18명, ‘전문직’ 91명, ‘준 전문직’ 21명, ‘사무직’ 23명, ‘서비스 판매’ 38명, ‘육체노동자’ 19명 등이며 ‘직업이 없다’는 응답자는 전체 299명 46.4%로 조사되었다. 창작활동을 통한 연간 소득별로 살펴보면 창작활동 ‘소득이 없거나 연간 1,2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자가 전체 232명, 36.0%로 나타났고 ‘1,200만원~2,4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은 137명, ‘2,400만원~3,600만원 미만’은 95명, ‘36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은 123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1-3] 응답자 특성

| | | 표본수(명) | % |
|------------------|----------------------|--------|-------|
| | | (645) | 100.0 |
| 활동분야 | 문학 | 111 | 17.2 |
| | 시각예술 | 275 | 42.6 |
| | 공연예술 | 187 | 29.0 |
| | 전통예술 | 52 | 8.1 |
| | 영상·미디어 | 10 | 1.6 |
| | 다원예술 | 1 | 0.2 |
| | 기타 | 9 | 1.4 |
| 성별 | 남성 | 324 | 50.2 |
| | 여성 | 317 | 49.1 |
| | 무응답 | 4 | 0.6 |
| 연령별 | 20대 | 58 | 9.0 |
| | 30대 | 84 | 13.0 |
| | 40대 | 149 | 23.1 |
| | 50대 | 225 | 34.9 |
| | 60대 이상 | 124 | 19.2 |
| | 무응답 | 5 | 0.8 |
| 학력별 | 무학 | 1 | 0.2 |
| | 중졸 | 12 | 1.9 |
| | 고졸 | 107 | 16.6 |
| | 대졸 | 298 | 46.2 |
| | 대학원 수료 | 64 | 9.9 |
| | 석사·박사 | 156 | 24.2 |
| | 무응답 | 7 | 1.1 |
| 직업별 | 고위관리직 | 18 | 2.8 |
| | 전문직 | 91 | 14.1 |
| | 준 전문직 | 21 | 3.3 |
| | 사무직 | 23 | 3.6 |
| | 서비스 판매 | 38 | 5.9 |
| | 육체 노동자 | 19 | 2.9 |
| | 기타 | 72 | 11.2 |
| | 직업 없음 | 299 | 46.4 |
| 창작활동을 통한 연간소득 | 없음 | 64 | 9.9 |
| | 없음 | 72 | 11.2 |
| | 1200만원 미만 | 160 | 24.8 |
| | 1,200만원 ~ 2,400만원 미만 | 137 | 21.2 |
| | 2,400만원 ~ 3,600만원 미만 | 95 | 14.7 |
| | 3,600만원 이상 | 123 | 19.1 |
| 무응답 | 58 | 9.0 | |

제 2절 주요 조사결과 요약

1. 공통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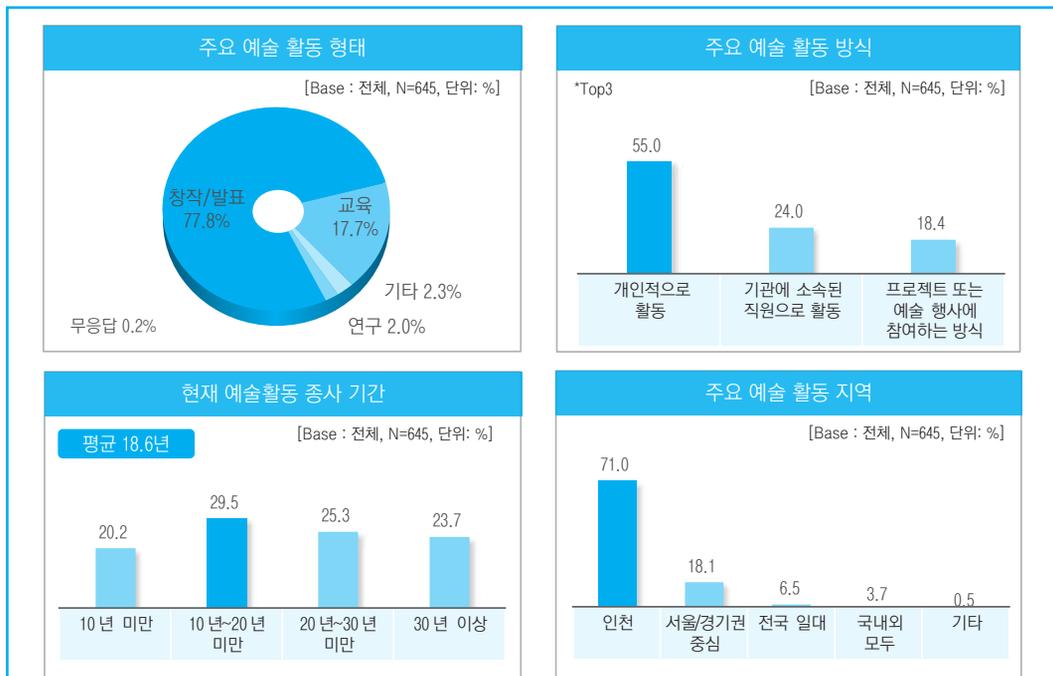
1) 문화예술 활동 주요 현황

문화예술인의 주요 예술 활동 형태 비율은 ‘창작/발표’가 77.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예술 활동 방식은 ‘개인적으로 활동’ (55.0%)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예술 활동에 종사한 기간에 대한 설문에는 ‘10년~20년 미만’ (29.5%)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예술 활동 종사 기간은 평균 18.6년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예술 활동 지역에 대한 설문은 ‘인천’ (71.0%)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Ⅲ-2-1] 문화예술 활동 주요 현황



2) 인천의 가장 발전한 예술분야

인천의 예술분야 가운데 가장 발전한 분야를 묻는 설문에는 ‘음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미술’이 22.2%의 응답비율을 보였다. 반면 ‘음악’과 ‘미술’ 분야 외에 ‘건축’, ‘문학’, ‘연극’ 등의 분야는 응답률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림 Ⅲ-2-2] 인천의 가장 발전한 예술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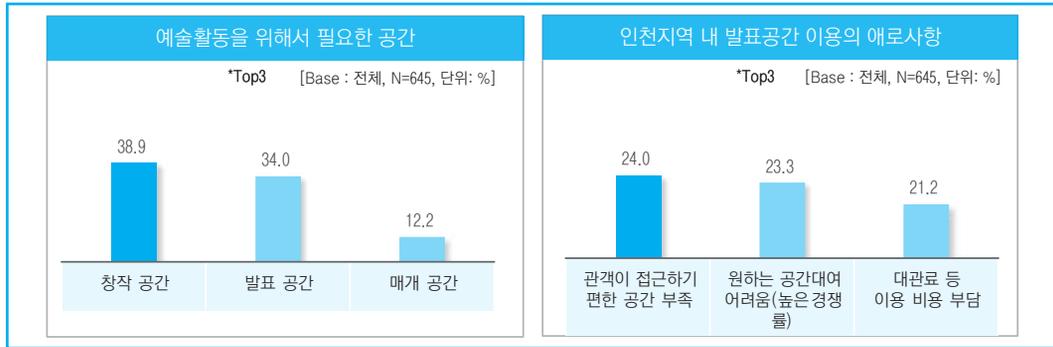


3) 문화예술 활동 공간에 대한 수요

예술 활동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공간을 묻는 설문에는 ‘창작 공간’ (38.9%)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발표 공간’ (34.0%), ‘매개 공간’ (12.2%) 순으로 응답했다.

인천지역 내 발표공간을 이용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설문에는 ‘관객이 접근하기 편한 공간 부족’ (24.0%), ‘높은 경쟁률로 원하는 공간 대여 어려움’ (23.3%), ‘대관료 등 이용비용 부담’ (21.2%) 순으로 응답비율이 나타났다.

[그림 III-2-3] 문화예술 활동 공간에 대한 수요 및 이용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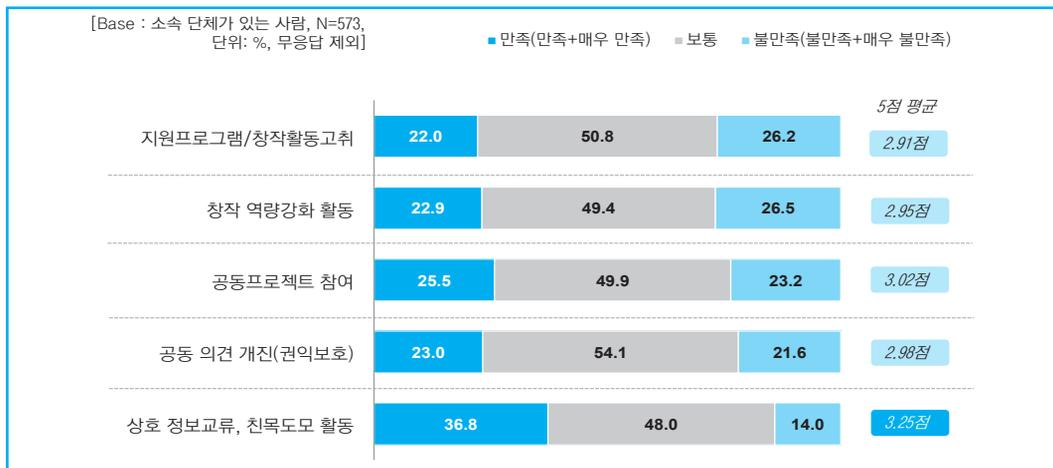


4) 소속 단체 내 예술 활동 및 지원에 대한 만족도

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소속 단체 내 예술 활동 및 지원의 내용별로 만족 정도를 물어본 결과, ‘상호 정보교류, 친목도모 활동’의 만족도가 5점 만점 기준 평균 3.2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지원프로그램/창작활동고취’의 경우 5점 만점 기준 평균 2.91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림 III-2-4] 소속 단체 내 예술 활동 및 지원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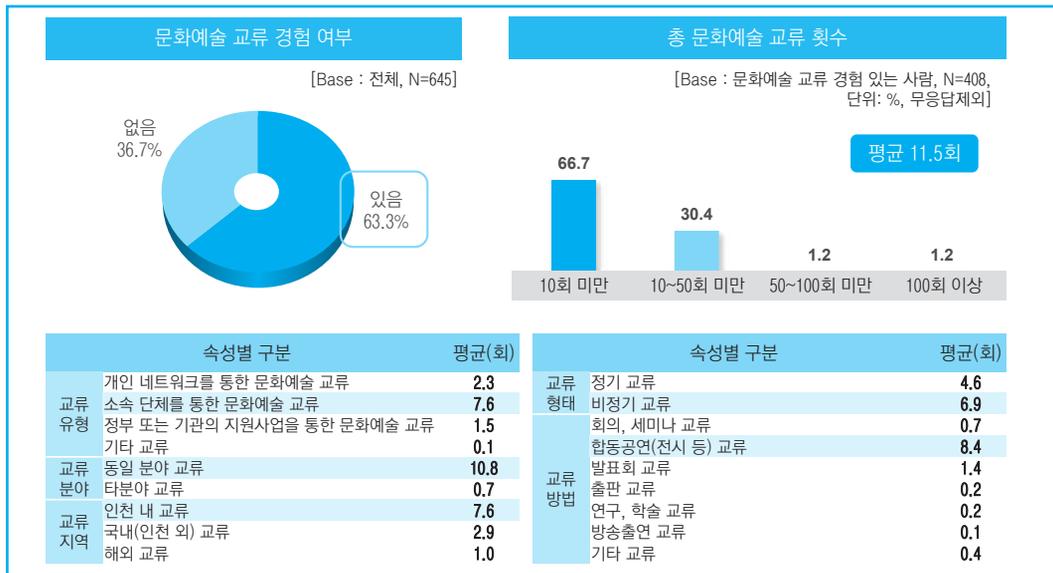


5) 최근 3년간 발표 및 창작활동 위한 문화예술 교류 현황

최근 3년간 발표 및 창작활동을 위한 문화예술 교류의 경험여부를 묻는 설문에는 ‘있음’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3.3%이고, 총 교류 횟수는 평균 6.8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속성별로 문화예술 교류 횟수, 교류분야, 교류지역, 교류형태, 교류방법 등을 살펴보면, 먼저 ‘소속 단체를 통한 문화예술 교류’ 평균 7.6회, ‘동일 분야간 교류’ 평균 10.8회, ‘인천 내 교류’ 평균 7.6회, ‘비 정기 교류’ 평균 6.9회, ‘합동공연(전시 등) 교류’ 평균 8.4회 등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II-2-5] 최근 3년간 발표 및 창작활동 위한 문화예술 교류 현황



6) 지난 3년간 창작활동 관련 지원 여부 및 횟수

지난 3년간 창작활동과 관련한 지원을 받은 경험 여부에 대한 설문에는 전반적으로 ‘없음’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있다’ 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지원 경험이 있는 경우

에 ‘인천문화재단’을 통한 지원 경험이 26.0%로 가장 높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한 경험(9.3%), ‘기초자치단체(군·구)’를 통한 경험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Ⅲ-2-6] 지난 3년간 창작활동 관련 지원 여부 및 횟수

| 지난 3년간 창작 활동 관련 지원 현황 | | |
|-----------------------|----------|------|
| 지원 주체 | 지원 여부(%) | |
| | 있음 | 없음 |
| 문화예술진흥기금(중앙) | 9.3 | 90.7 |
| 인천시 비영리 민간단체지원사업 | 4.2 | 95.8 |
| 기초자치단체(군, 구) | 8.5 | 91.5 |
| 인천문화재단 | 26.0 | 74.0 |
| 기타 공공기관 | 6.4 | 93.6 |
| 기업(메세나 포함)이나 개인 | 2.2 | 97.8 |
| 타도시 지방정부 | 3.7 | 96.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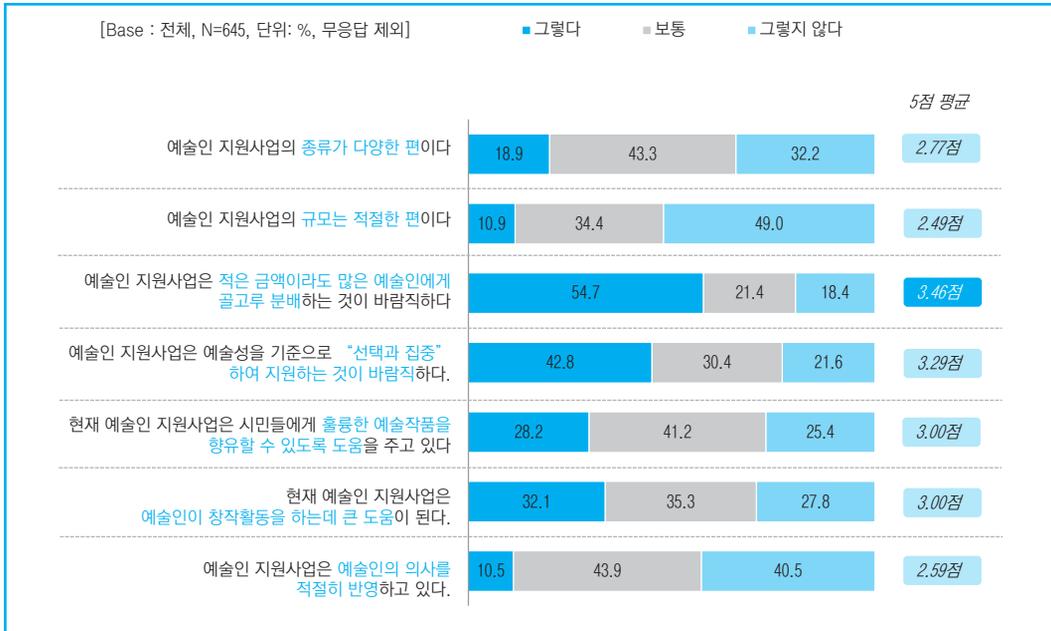
전체 n=645

7) 인천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속성별 동의 정도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예술인 지원사업은 적은 금액이라도 많은 예술인에게 골고루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가 5점 만점 기준 평균 3.46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예술성을 기준으로 선택과 집중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가 평균 3.29점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예술인 지원사업의 규모는 적절한 편이다’라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는 5점 만점 기준 평균 2.49점으로 가장 낮았다.

[그림 III-2-7] 인천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속성별 평가



8)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공정성 및 형평성 평가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선정이 공정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는 5점 만점 기준 평균 2.78점으로 나타났으며, 공정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심사과정/절차의 투명성 부족’ (35.8%)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예술인 지원사업이 각 분야별로 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는 5점 만점 기준 평균 3.03점으로 나타났고, 지원을 많이 받는 분야는 ‘공연예술 분야’ (37.1%)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림 III-2-8]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공정성 및 형평성 평가



9) 인천지역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의 역할

인천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한 인천시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문화예술 창작지원 예산 확충’ (38.0%)과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29.8%)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천문화재단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설문에는 ‘문화예술 창작지원 예산 확충’ (33.6%)과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10.5%)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그 외에 ‘문화예술 홍보 및 정보 접근성 지원 강화’ (10.4%)와 ‘신진예술인 지원 강화’ (8.5%)라고 응답한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2-9]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의 역할

[Base : 전체, N=564, 단위: %] *Top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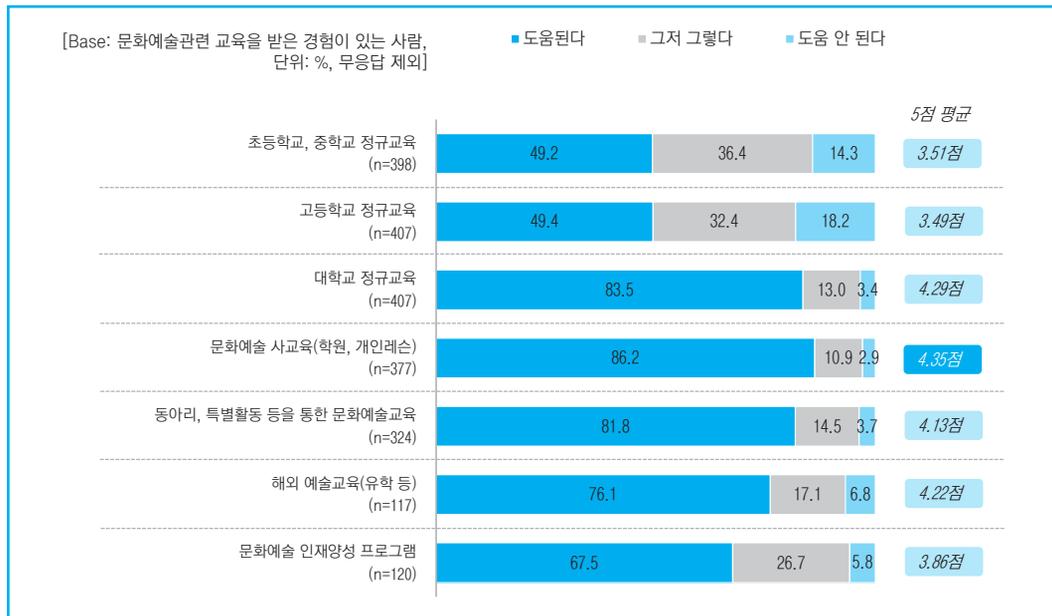
| 인천시가 해야 할 일 | % | | 인천문화재단이 해야 할 일 | % | |
|------------------------|------|---------|-------------------------|------|---------|
| | 1순위 | 1+2+3순위 | | 1순위 | 1+2+3순위 |
| 문화예술 창작지원 예산 확충 | 38.0 | 63.1 | 문화예술 창작지원 예산 확충 | 33.6 | 43.7 |
|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 29.8 | 46.4 |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 10.5 | 18.4 |
| 문화예술 관련 법, 제도 정비 | 7.4 | 16.3 | 문화예술 홍보 및 정보 접근성 지원/강화 | 10.4 | 26.5 |
| 신진예술인 지원 강화 | 4.5 | 9.6 | 신진예술인 지원 강화 | 8.5 | 18.0 |
| 문화예술 홍보 및 정보 접근성 지원/강화 | 3.4 | 10.2 | 문화예술 국제 교류 활성화 | 6.5 | 11.5 |
| 문화예술 국제 교류 활성화 | 3.3 | 8.7 | 문화예술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6.4 | 16.1 |
| 문화예술관련 교육여건 확충 | 2.8 | 6.7 | 시민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 | 5.7 | 19.1 |

10) 문화예술관련 교육의 문화예술 분야 활동 도움정도

문화예술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교육 도움 정도를 물어본 결과,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문화예술 사교육(학원, 개인레슨)’이 문화예술 분야의 활동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5점 만점 기준 평균 4.35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고등학교 정규교육’은 문화예술 분야 활동 도움 정도가 5점 만점 기준 평균 3.4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Ⅲ-2-10] 문화예술관련 교육의 문화예술 분야 활동 도움 정도



2. 분야별 설문

1) 문학

문학부문에서 주로 활동하는 문학 분야를 묻는 설문에는 ‘시’ (55.9%)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소설’ (16.2%), ‘수필’ (11.7%), ‘아동문학’ (9.0%)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문학부문 활동 내용을 묻는 설문은 ‘문학잡지 게재’ 평균 15.6편, ‘개인 작품집 발간’ 평균 2.1권, ‘단체 작품집 발간’ 평균 4.1권, ‘문학행사 기획 및 운영’ 평균 4.0회, ‘문학 분야 관련 연구’는 평균 3.8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학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을 묻는 질문에 ‘문학창작 지원금 및 수혜자 확대’ (71.2%)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Ⅲ-2-11] 문학 분야 활동 현황



2) 시각예술

시각예술 부문의 주요 활동 분야는 ‘서양화’ (37.5%)가 가장 높은 응답비율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사진’ (17.1%), ‘한국화’ (12.0%), ‘공예’ (7.6%), ‘서예’ (7.3%) 순으로 응답비율을 보였다.

시각예술 부문에서 지난 3년간 ‘개인 전시’는 평균 3.4회, ‘단체 전시’ 평균 17.8회, ‘기획 전시’ 평균 6.2회로 나타났으며, ‘평론·논문’ 평균 9.1편, ‘전시/행사 기획 및 운영’ 평균 4.4회, 시각예술 부문 ‘관련 연구’는 평균 3.1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각예술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을 묻는 설문에는 ‘지원금 및 수혜자 확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4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2-12] 시각예술 분야 활동 현황



3) 공연예술

공연예술 부문에서 주로 활동하는 분야를 묻는 설문에는 ‘음악’ 56.7%, ‘연극’ 20.9%, ‘무용’ 17.1% 순으로 응답비율이 나타났다.

지난 3년간 공연예술 ‘창작 작품’ 발표 횟수는 평균 16.1회, ‘공연 레퍼토리’ 평균 29.4회, ‘개인 발표’ 평균 25.8회, ‘단체발표회’ 평균 74.9회로 조사되었다. 공연예술 관련 ‘평론·논문’은 평균 4.4편, ‘공연 기획 및 운영’ 평균 43.9회, 공연예술 ‘관련 연구’ 평균 11.9건 등으로 조사되었다.

공연예술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을 묻는 설문에는 ‘지원금 및 수혜자 확대’가 45.5%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그림 III-2-13] 공연예술 분야 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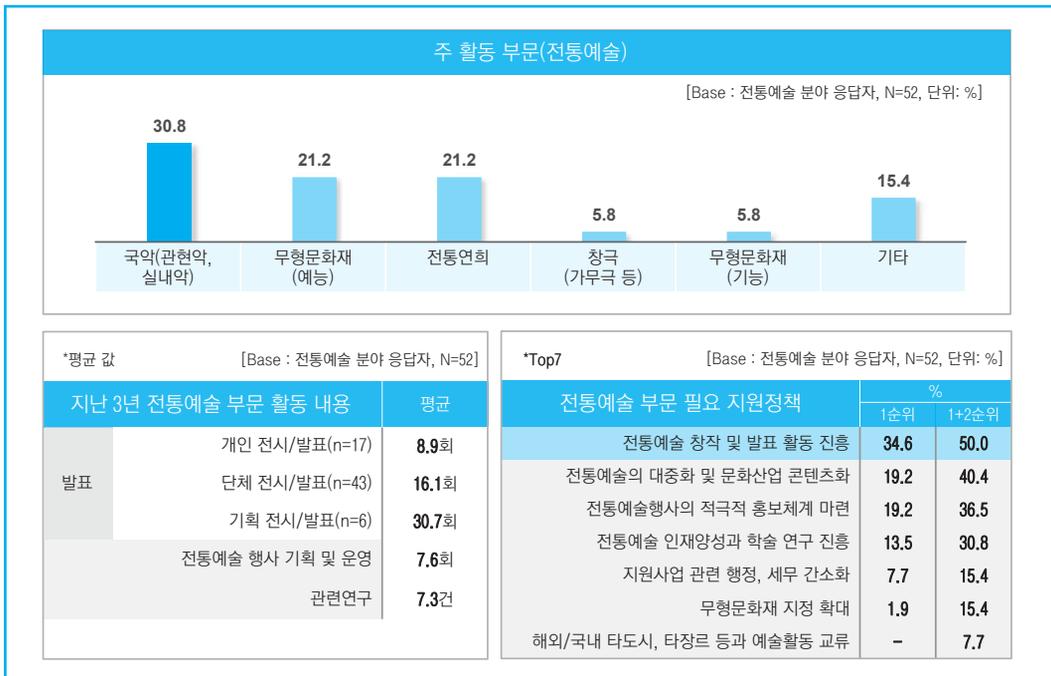
4) 전통예술

전통예술 부문에서 주로 활동하는 분야를 묻는 설문에는 ‘국악’ (30.8%), ‘무형문화재(예능)’와 ‘전통연희’ (21.2%) 등의 순으로 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전통예술 부문의 활동에 대한 설문은 ‘기획 전시·발표’ 평균 30.7회, ‘단체 전시·발표’ 평균 16.1회, ‘개인 전시·발표’ 평균 8.9회, ‘전통예술 행사 기획 및 운영’ 평균 7.6회, 전통예술 ‘관련 연구’ 평균 7.3건으로 조사되었다.

전통예술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을 묻는 설문에는 ‘전통예술 창작 및 발표 활동 진흥’이 34.6%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그림 III-2-14] 전통예술 분야 활동 현황



제3절 2012 인천예술인실태조사 결과

1. 공통설문

1) 문화예술 활동

(1) 주요 예술 활동 형태

인천의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주요 예술활동 형태를 물어본 결과, ‘창작/발표’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7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육’ 17.7%, ‘연구’ 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분야별 ‘창작·발표’ 형태에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분야는 ‘문학’으로 87.4%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시각예술’ (80.4%), ‘영상·미디어’ (80.0%), ‘공연예술’ (76.5%), ‘전통예술’ (53.8%) 순으로 나타났다.

예술활동 형태 중 ‘교육’분야의 경우, ‘전통예술’ 분야가 응답비율 36.5%로 ‘교육’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예술분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영상·미디어’ (20.0%), ‘시각예술’ (18.5%), ‘공연예술’ (16.0%) 순으로 조사되었다. 공연예술 분야 예술인은 시립예술단 소속 예술인 응답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교육’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일반예술인은 28.4%, 시립예술단은 8.0%로 응답비율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공연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반예술인의 예술 활동은 ‘전통예술’ 분야의 예술인 다음으로 ‘교육’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결과 인천의 문화예술인의 예술 활동 형태는 ‘창작·발표’ 형태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교육’과 ‘연구’, ‘기타’ 예술 활동은 ‘창작·발표’ 형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III-3-1] 주요 예술 활동 형태

N=645(전체),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창작·발표 | 교육 | 연구 | 기타 | 무응답 |
|--------|-------|-------|------|------|------|-----|
| 총계 | (645) | 77.8 | 17.7 | 2.0 | 2.3 | 0.2 |
| 문학 | (111) | 87.4 | 9.0 | 3.6 | 0.0 | 0.0 |
| 시각예술 | (275) | 80.4 | 18.5 | 0.7 | 0.4 | 0.0 |
| 공연예술 | (187) | 76.5 | 16.0 | 0.5 | 6.4 | 0.5 |
| 전통예술 | (52) | 53.8 | 36.5 | 9.6 | 0.0 | 0.0 |
| 영상·미디어 | (10) | 80.0 | 20.0 | 0.0 | 0.0 | 0.0 |
| 다원예술 | (1) | 100.0 | 0.0 | 0.0 | 0.0 | 0.0 |
| 기타 | (9) | 44.4 | 22.2 | 11.1 | 22.2 | 0.0 |

‘교육’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교육 활동 종류를 물어본 결과, ‘개인교습’, ‘방과 후 예술 강사’가 각각 2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정교사, 준교사’(15.8%), ‘대학 강사’(15.8%) 순으로 응답비율을 보였다.

각 분야별 예술교육 활동 종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먼저 ‘문학’의 경우, ‘방과 후 예술강사’의 응답비율이 3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교사, 준교사’, ‘지역시설강사’가 각각 20.0%, ‘대학교수’, ‘대학 강사’는 각각 10.0%의 응답비율을 보였다.

시각예술의 경우, 예술교육 활동 종류 중 가장 많은 응답비율을 보인 것은 ‘방과 후 예술 강사’(25.5%)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교사, 준교사’(19.6%), ‘개인교습’, ‘대학 강사’ 각각 11.8%, ‘대학교수’(5.9%), ‘지역시설강사’(2.0%) 순으로 응답비율을 보였다.

공연예술 분야의 경우, ‘개인교습’이 30.0%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정교사, 준교사’(19.0%), ‘대학강사’, ‘방과 후 예술 강사’, ‘지역시설강사’, ‘대학교수’가 각각 9.5% 순으로 응답 비율이 나타났다. 공연예술 분야의 경우 시립예술단 소속 예술인이 포함되어 있어 두 집단의 응답을 나눠서 살펴보면, 일반예술인의 경우 예술교육 활동 종류는 ‘개인교습’이 38.1%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정교사, 준교사’ 19.0%로 응답비율이 나타났다. 공연예술 분야의 ‘기타’ 응답률이 20.0%로 나타난 것은 시립예술단 소속 응답자의 응답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전통예술 분야의 경우, ‘개인교습’이 42.1%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방

과 후 예술 강사'가 26.3%, '대학 강사', '지역시설강사', '대학교수'가 각각 10.5% 순으로 응답비율이 나타났다.

[표 III-3-2] 예술교육 활동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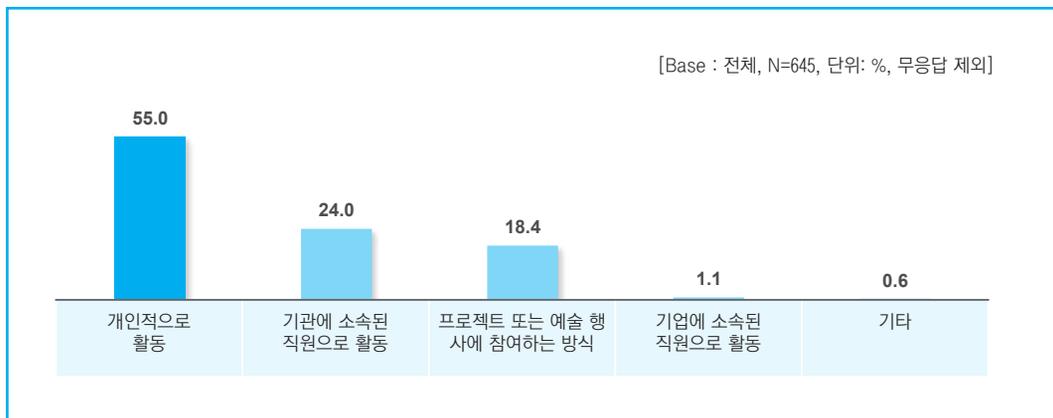
N=114(전체), 단위 : %

| 구분 | 사례 수 | 개인 교습 | 방과후 예술강사 | 정교사, 준교사 | 대학 강사 | 지역 시설 강사 | 대학 교수 | 기타 | 무응답 |
|--------|-------|----------|-------------|-------------|----------|-------------|----------|------|------|
| 총계 | (114) | 21.1 | 21.1 | 15.8 | 10.5 | 7.0 | 5.3 | 18.4 | 0.9 |
| 문학 | (10) | 0.0 | 30.0 | 20.0 | 10.0 | 20.0 | 10.0 | 10.0 | 0.0 |
| 시각예술 | (51) | 11.8 | 25.5 | 19.6 | 11.8 | 2.0 | 5.9 | 23.5 | 0.0 |
| 공연예술 | (30) | 30.0 | 10.0 | 13.3 | 10.0 | 10.0 | 6.7 | 20.0 | 0.0 |
| 전통예술 | (19) | 42.1 | 26.3 | 0.0 | 10.5 | 10.5 | 0.0 | 10.5 | 0.0 |
| 영상·미디어 | (2) | 50.0 | 0.0 | 50.0 | 0.0 | 0.0 | 0.0 | 0.0 | 0.0 |
| 기타 | (2) | 0.0 | 0.0 | 50.0 | 0.0 | 0.0 | 0.0 | 0.0 | 50.0 |

(2) 주요 예술 활동 방식

인천의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주요 예술활동 방식을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55.0%가 '개인적으로 활동'한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 활동' (24.0%), '프로젝트 또는 예술 행사에 참여하는 방식' (18.4%), '기업에 소속된 직원으로 활동' (1.1%), '기타' (0.6%) 순으로 응답비율이 나타났다.

[그림 III-3-1] 주요 예술활동 방식



인천의 문화예술인의 분야별 주요 예술 활동 방식을 살펴보면, 먼저 문학 분야에서는 ‘개인적으로 활동’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기업에 소속된 직원으로 활동’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9%로 가장 낮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시각예술 분야는 ‘프로젝트 또는 예술행사에 참여 방식’으로 예술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1.1%로 ‘개인적으로 활동’ (70.5%)하는 방식에 이어 높은 비율을 보였다.

공연예술의 경우 ‘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 활동’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공연예술 분야의 설문대상에는 시립예술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구분하여 일반예술인의 응답만 살펴보면, ‘개인적으로 활동’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7.8%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 활동’ (27.0%), ‘프로젝트 또는 예술행사에 참여방식’ (21.6%) 순으로 응답 비율이 조사되었다.

전통예술의 경우 주요 예술 활동 방식은 ‘개인적으로 활동’ (40.4%) 다음으로 ‘프로젝트 또는 예술행사에 참여방식’ (38.5%)으로 응답비율이 나타났다. 영상·미디어의 경우는 ‘프로젝트 또는 예술행사에 참여방식’ (60.0%)으로 활동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활동’ (30.0%) 하는 것보다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조사결과 영상·미디어 분야를 제외하고 개인적 예술 활동이 많았으며, 프로젝트 또는 예술행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활동하는 예술인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 활동하거나 기업에 소속된 직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공연예술과 전통예술 분야를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3-3] 주요 예술 활동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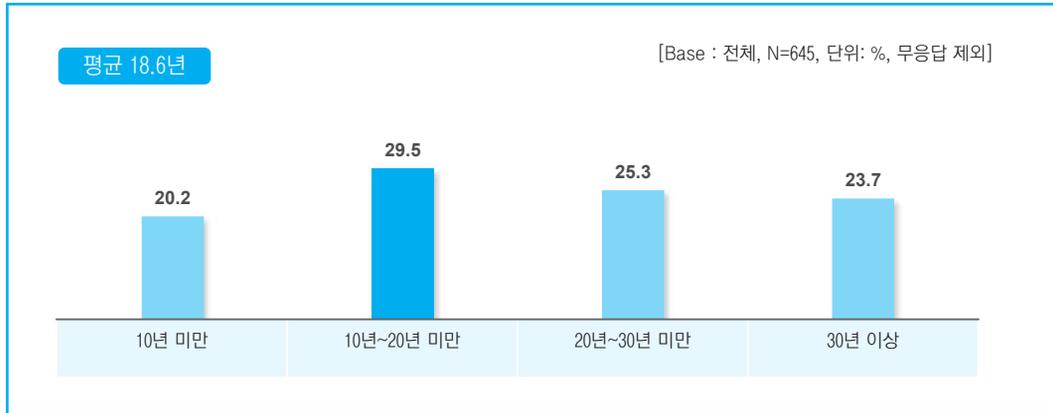
N=645(전체), 단위 : %

| 구분 | 사례 수 | 개인적으로 활동 | 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 활동 | 프로젝트 또는 예술행사에 참여 방식 | 기업에 소속된 직원으로 활동 | 기타 | 무응답 |
|--------|-------|----------|-----------------|---------------------|-----------------|-----|-----|
| 총계 | (645) | 55.0 | 24.0 | 18.4 | 1.1 | 0.6 | 0.8 |
| 문학 | (111) | 74.8 | 10.8 | 12.6 | 0.9 | 0.9 | 0.0 |
| 시각예술 | (275) | 70.5 | 8.0 | 21.1 | 0.0 | 0.4 | 0.0 |
| 공연예술 | (187) | 27.3 | 57.8 | 9.1 | 2.1 | 1.1 | 2.7 |
| 전통예술 | (52) | 40.4 | 21.2 | 38.5 | 0.0 | 0.0 | 0.0 |
| 영상·미디어 | (10) | 30.0 | 0.0 | 60.0 | 10.0 | 0.0 | 0.0 |
| 다원예술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 기타 | (9) | 33.3 | 22.2 | 33.3 | 11.1 | 0.0 | 0.0 |

(3) 현재 활동 부문에서의 예술 활동 종사 기간

현재 활동하고 있는 예술부문에서의 예술활동 종사 기간을 물어본 결과, 평균 18.6년으로 조사되었으며, 예술 활동 종사기간이 '10년에서 19년'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20년~29년' 25.3%, '10년 미만' 20.2%, '30년~39년' 15.5%, '40년 이상' 8.2%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78.5%가 현재 활동 부문에서 '10년 이상'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II-3-2] 현재 활동 부문에서의 예술 활동 종사 기간



각 예술 분야별로 현재 활동 부문에서의 예술활동 종사 기간을 살펴보면, '시각예술' 분야가 평균 24.8년으로 예술 활동 종사 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연예술' 분야 평균 14.8년, '문학' 평균 17.2년, '영상·미디어' 평균 16.0년, '전통예술' 평균 15.5년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영상·미디어'의 경우 사례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조사결과 '시각예술' 분야의 경우 예술 활동 종사 기간이 '20년 이상'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2.8%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시각예술' 분야를 제외한 분야는 '20년 미만'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4.7%~72.2%까지 조사되었다.

[표 III-3-4] 현재 활동 부문에서의 예술활동 종사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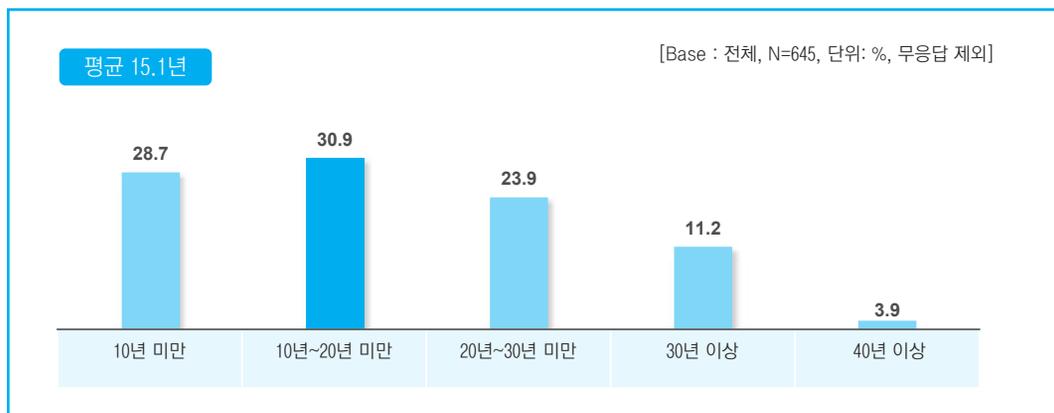
N=645(전체), 단위: %, 년

| 구분 | 사례 수 | 10년 미만 | 10~19년 | 20~29년 | 30~39년 | 40년 이상 | 무응답 | 평균(년) |
|--------|-------|--------|--------|--------|--------|--------|-----|-------|
| 총계 | (645) | 20.2 | 29.5 | 25.3 | 15.5 | 8.2 | 1.4 | 18.6 |
| 문학 | (111) | 24.3 | 41.4 | 21.6 | 8.1 | 4.5 | 0.0 | 17.2 |
| 시각예술 | (275) | 8.7 | 18.5 | 33.1 | 25.5 | 14.2 | 0.0 | 24.8 |
| 공연예술 | (187) | 32.1 | 32.6 | 19.3 | 8.6 | 2.7 | 4.8 | 14.8 |
| 전통예술 | (52) | 23.1 | 48.1 | 17.3 | 5.8 | 5.8 | 0.0 | 15.5 |
| 영상·미디어 | (10) | 40.0 | 30.0 | 10.0 | 10.0 | 10.0 | 0.0 | 16.0 |
| 다원예술 | (1) | 0.0 | 0.0 | 0.0 | 100.0 | 0.0 | 0.0 | 33.0 |
| 기타 | (9) | 33.3 | 44.4 | 22.2 | 0.0 | 0.0 | 0.0 | 12.9 |

(4) 인천지역에서의 예술활동 기간

응답자의 총 예술활동 종사 기간 가운데 인천지역에서의 예술활동 기간을 물어본 결과, 예술분야의 전체 평균은 15.1년으로 조사되었으며, '10년~20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응답비율 중 3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10년 미만' 28.7%, '20년~29년' 23.9%, '30년~39년' 11.2%, '40년 이상' 3.9%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응답자 중 66.9%가 10년 이상 인천지역에서 예술활동에 종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II-3-3] 인천지역에서의 예술활동 종사 기간



응답자 활동 분야별로 인천지역에서의 예술활동 기간을 살펴보면, ‘시각예술’이 평균 21.1년으로 인천에서의 예술활동 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문학’ 평균 14.4년, ‘전통예술’ 평균 13.9년, ‘공연예술’ 평균 11.2년, ‘영상·미디어’ 평균 9.4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시각예술’ 분야의 경우 인천지역에서 예술활동에 종사한 기간이 20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0.8%로 타 분야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영상·미디어’와 ‘다원예술’의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III-3-5] 인천지역에서의 예술활동 종사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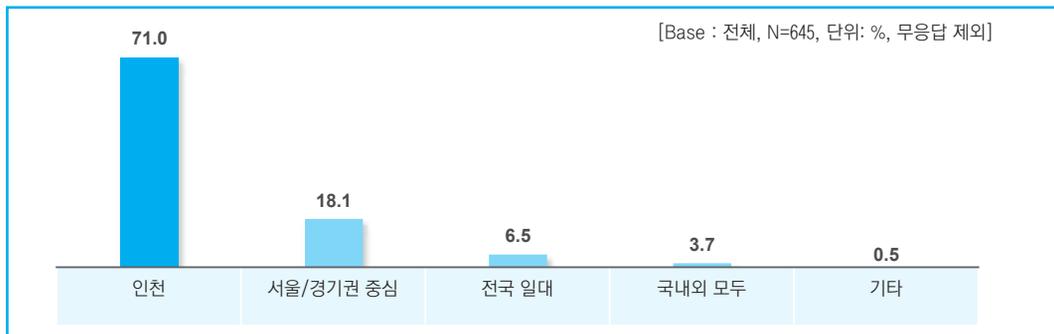
N=645(전체), 단위: %, 년

| 구분 | 사례수 | 10년 미만 | 10~19년 | 20~29년 | 30~39년 | 40년 이상 | 무응답 | 평균(년) |
|--------|-------|--------|--------|--------|--------|--------|-----|-------|
| 총계 | (645) | 28.7 | 30.9 | 23.9 | 11.2 | 3.9 | 1.6 | 15.1 |
| 문학 | (111) | 30.6 | 44.1 | 18.9 | 3.6 | 2.7 | 0.0 | 14.4 |
| 시각예술 | (275) | 13.5 | 25.5 | 34.2 | 19.3 | 7.3 | 0.4 | 21.0 |
| 공연예술 | (187) | 46.0 | 27.8 | 15.5 | 5.9 | 0.0 | 4.8 | 11.2 |
| 전통예술 | (52) | 34.6 | 44.2 | 11.5 | 5.8 | 3.8 | 0.0 | 13.9 |
| 영상·미디어 | (10) | 70.0 | 10.0 | 20.0 | 0.0 | 0.0 | 0.0 | 9.4 |
| 다원예술 | (1) | 0.0 | 0.0 | 0.0 | 100.0 | 0.0 | 0.0 | 33.0 |
| 기타 | (9) | 33.3 | 44.4 | 22.2 | 0.0 | 0.0 | 0.0 | 12.1 |

(5) 주요 예술 활동 지역

주요 예술 활동 지역을 물어본 설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1.0%가 ‘인천’ 지역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서울·경기권 중심’ (18.1%), ‘전국 일대’ (6.5%), ‘국내외 모두’ (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4] 주요 예술활동 지역



구체적으로 활동 분야에 관계없이 ‘인천’ 지역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문학’ 과 ‘공연예술’ 의 경우 상대적으로 ‘서울·경기권 중심’ 으로 활동한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통예술’ 의 경우 주요 활동 지역이 인천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8.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시각예술’ (73.5%), ‘공연예술’ (70.1%)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3-6] 주요 예술활동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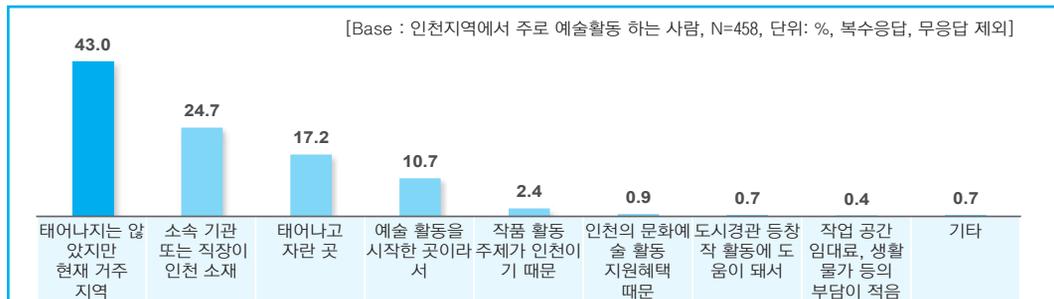
N=645(전체),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인천 | 서울/경기권 중심 | 전국 일대 | 국내외 모두 | 기타 | 무응답 |
|--------|-------|------|-----------|-------|--------|-----|-----|
| 총계 | (645) | 71.0 | 18.1 | 6.5 | 3.7 | 0.5 | 0.2 |
| 문학 | (111) | 59.5 | 27.0 | 11.7 | 0.9 | 0.9 | 0.0 |
| 시각예술 | (275) | 73.5 | 15.6 | 5.8 | 4.7 | 0.4 | 0.0 |
| 공연예술 | (187) | 70.1 | 19.8 | 4.8 | 4.3 | 0.5 | 0.5 |
| 전통예술 | (52) | 88.5 | 5.8 | 1.9 | 3.8 | 0.0 | 0.0 |
| 영상·미디어 | (10) | 60.0 | 30.0 | 10.0 | 0.0 | 0.0 | 0.0 |
| 다원예술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 기타 | (9) | 77.8 | 11.1 | 11.1 | 0.0 | 0.0 | 0.0 |

(6) 인천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이유

주요 예술활동 지역이 ‘인천’ 이라는 응답자 458명을 대상으로 인천 지역에서 예술 활동 하는 이유를 설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3.0%가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현재 거주 지역’ 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소속 기관 또는 직장이 인천 소재’ 라고 응답한 비율이 24.7%, ‘태어나고 자란 곳’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7.2%, ‘예술 활동을 시작한 곳이라서’ 라고 응답한 비율이 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작품 활동 주제’ 또는 ‘지원혜택’ 등 예술 창작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그림 Ⅲ-3-5] 인천지역에서 예술활동하는 이유



‘문학’ 분야 응답자는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현재 거주 지역이라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5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각예술’과 ‘전통예술’도 각각 55.4%와 45.7%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반면 ‘소속기관 또는 직장이 인천 소재’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분야는 ‘공연예술’로 64.1%로 나타났다. 이는 ‘공연예술’의 경우 시립예술단 소속 응답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일반예술인’의 경우 인천지역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에서 ‘현재 거주지역이라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44.4%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시립예술단’의 경우 인천지역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이유로 ‘소속기관 또는 직장이 인천’ 때문으로 응답한 비율이 89.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조사결과 인천지역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이유로 ‘현재 거주 지역이라서’, ‘소속 기관 및 직장 소재지가 인천이기 때문에’, ‘태어나고 자란 곳이라서’ 인천에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인천의 예술 활동 지원 혜택’이나 ‘작업 공간 임대료’ 등 때문에 인천에서 예술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II-3-7] 인천지역에서 예술활동 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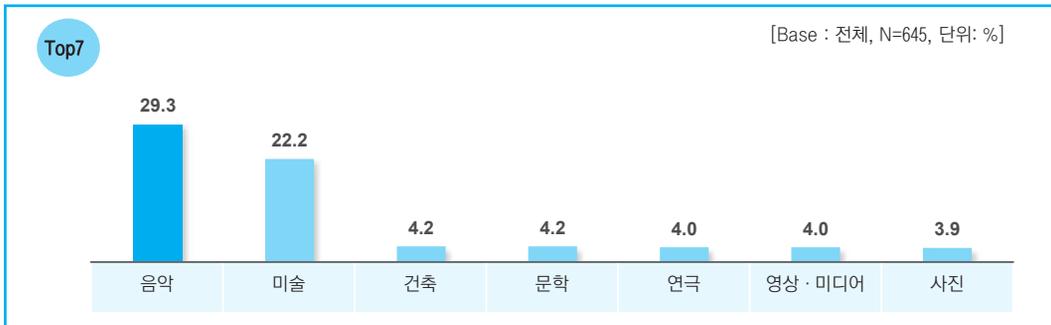
N=458(인천지역에서 예술활동 하는 사람), 복수응답,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현재 거주 지역 이라서 | 소속 기관, 직장 소재 | 태어나고 자란 곳 | 예술 활동을 시작한 곳 | 작품 활동 주제가 인천 | 인천 문화 예술 활동 지원 혜택 | 도시 경관 등이 창작 활동에 도움 | 작업 공간 임대료 등의 부담 적음 | 기타 | 무응답 |
|--------|-------|-----------------|-----------------|--------------|-----------------|-----------------|----------------------|-----------------------|-----------------------|-----|-----|
| 총계 | (458) | 43.0 | 24.7 | 17.2 | 10.7 | 2.4 | 0.9 | 0.7 | 0.4 | 0.7 | 0.2 |
| 문학 | (66) | 57.6 | 12.1 | 12.1 | 13.6 | 3.0 | 1.5 | 0.0 | 0.0 | 0.0 | 0.0 |
| 시각예술 | (202) | 55.4 | 7.4 | 20.3 | 12.9 | 2.0 | 0.0 | 1.0 | 1.0 | 0.5 | 0.0 |
| 공연예술 | (131) | 16.0 | 64.1 | 10.7 | 5.3 | 1.5 | 1.5 | 0.0 | 0.0 | 0.8 | 0.8 |
| 전통예술 | (46) | 45.7 | 8.7 | 26.1 | 13.0 | 2.2 | 2.2 | 0.0 | 0.0 | 2.2 | 0.0 |
| 영상·미디어 | (6) | 50.0 | 16.7 | 0.0 | 16.7 | 33.3 | 0.0 | 16.7 | 0.0 | 0.0 | 0.0 |
| 기타 | (7) | 28.6 | 14.3 | 57.1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7) 가장 발전한 인천의 예술분야

인천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가장 발전한 인천의 예술분야를 묻는 설문에는, 전체 응답자 29.3%가 ‘음악’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미술’ (22.2%), ‘건축’ (4.2%), ‘문학’ (4.2%) 등의 순으로 응답비율이 나타났다. ‘연극’, ‘영상·미디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4.0%로 ‘음악’과 ‘미술’을 제외한 분야는 인천에서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II-3-6] 가장 발전한 인천의 예술분야



인천의 예술분야 중 가장 발전한 분야를 묻는 설문에 대한 응답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학’ 분야에서는 ‘미술’ (24.3%), ‘음악’ (17.1%), ‘문학’ (17.1%) 순으로 응답하였고, ‘시각예술’ 역시 ‘미술’ (24.3%), ‘음악’ (17.1%)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3-8] 가장 발전한 인천의 예술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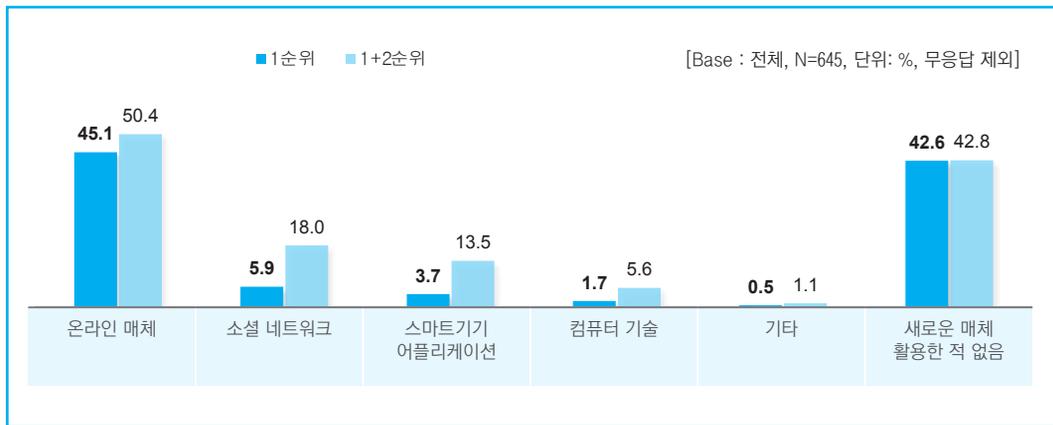
N=645(전체),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음악 | 미술 | 건축 | 문학 | 연극 | 영상/미디어 | 사진 |
|--------|-------|------|------|------|------|-----|--------|-----|
| 총계 | (645) | 29.3 | 22.2 | 4.2 | 4.2 | 4.0 | 4.0 | 3.9 |
| 문학 | (111) | 17.1 | 24.3 | 0.9 | 17.1 | 9.0 | 10.8 | 6.3 |
| 시각예술 | (275) | 19.6 | 29.8 | 6.5 | 0.7 | 3.3 | 3.3 | 5.5 |
| 공연예술 | (187) | 48.1 | 10.7 | 3.7 | 2.7 | 2.7 | 1.6 | 1.1 |
| 전통예술 | (52) | 40.4 | 17.3 | 0.0 | 1.9 | 3.8 | 3.8 | 1.9 |
| 영상·미디어 | (10) | 30.0 | 10.0 | 10.0 | 0.0 | 0.0 | 0.0 | 0.0 |
| 다원예술 | (1)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기타 | (9) | 22.2 | 44.4 | 0.0 | 0.0 | 0.0 | 0.0 | 0.0 |

(8) 예술활동 창작 및 홍보 활용 매체

예술활동 창작 및 홍보를 위해 활용한 매체는 ‘온라인 매체’라고 응답한 비율이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새로운 매체 활용한 적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2.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7] 예술활동 창작 및 홍보 활용 매체



각 분야별로 예술활동 창작 및 홍보 활용 매체에 대한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분야는 ‘시각예술’ (47.3%), ‘공연예술’ (45.5%)로 나타났다. 반면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적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분야는 ‘문학’ (42.6%), ‘전통예술’ (48.1%), ‘영상·미디어’ (60.0%)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예술 창작 및 홍보 활용 매체는 ‘온라인 매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셜네트워크, 스마트기기 어플리케이션 등 새로운 매체를 예술활동 창작 및 홍보 활용 매체로 이용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응답자의 연령대가 높은 것과 관련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III-3-9] 예술활동 창작 및 홍보 활용 매체

N=645(전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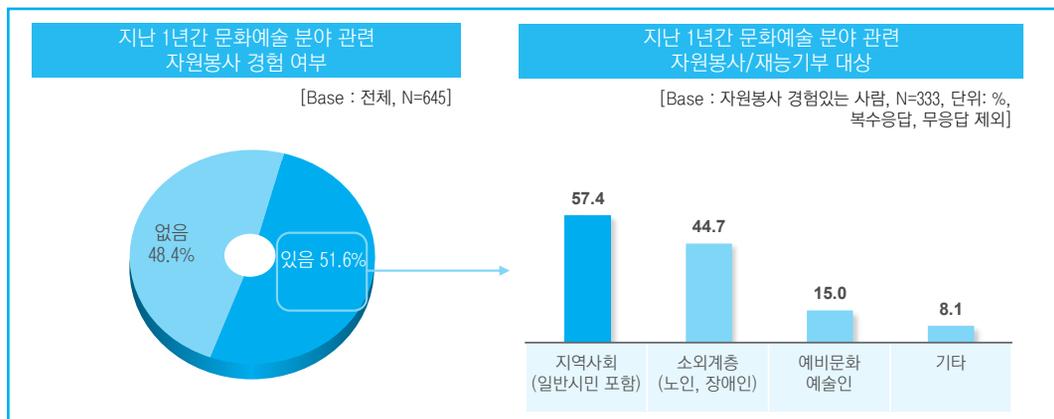
| 구분 (1순위 기준) | 사례수 | 온라인 매체 | 소셜 네트워크 | 스마트 기기 | 컴퓨터 기술 | 기타 | 새로운 매체 활용한적 없음 | 무응답 |
|----------------|-------|-----------|------------|-----------|-----------|-----|-------------------|-----|
| 총계 | (645) | 45.1 | 5.9 | 3.7 | 1.7 | 0.5 | 42.6 | 0.5 |
| 문학 | (111) | 39.6 | 1.8 | 1.8 | 0.0 | 0.9 | 55.9 | 0.0 |
| 시각예술 | (275) | 47.3 | 2.2 | 2.5 | 1.8 | 0.0 | 46.2 | 0.0 |
| 공연예술 | (187) | 45.5 | 14.4 | 7.0 | 2.1 | 1.1 | 28.3 | 1.6 |
| 전통예술 | (52) | 44.2 | 1.9 | 1.9 | 3.8 | 0.0 | 48.1 | 0.0 |
| 영상·미디어 | (10) | 30.0 | 0.0 | 10.0 | 0.0 | 0.0 | 60.0 | 0.0 |
| 다원예술 | (1) | 0.0 | 0.0 | 0.0 | 0.0 | 0.0 | 100.0 | 0.0 |
| 기타 | (9) | 66.7 | 22.2 | 0.0 | 0.0 | 0.0 | 11.1 | 0.0 |

(9) 지난 1년간 문화예술 분야 관련 자원봉사·재능기부 경험 및 대상

지난 1년간 문화예술 분야 관련 ‘자원봉사·재능기부 경험’을 물어본 결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1.6%로 나타나 ‘경험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 48.4%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 1년간 문화예술 분야 관련 ‘자원봉사·재능기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333명에게 그 대상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57.4%가 ‘지역사회(일반시민 포함)’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소외계층(노인, 장애인)’(44.7%), ‘예비문화 예술인’(15.0%), ‘기타’(8.1%) 순으로 응답했다.

[그림 III-3-8] 지난 1년간 문화예술 분야 관련 자원봉사·재능기부 경험 및 대상



각 예술 활동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통예술’ (80.8%)과 ‘공연예술’ (59.4%) 분야 예술인들이 ‘자원봉사·재능기부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예술의 경우 ‘일반예술인’ (79.7%)이 ‘시립예술단’ (54.0%)보다 관련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 경험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분야는 ‘문학’ (65.8%)과 ‘시각예술’ (52.4%)로 조사되었다.

[표 III-3-10] 지난 1년간 문화예술 분야 관련 자원봉사·재능기부 경험

N=645(전체),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있다 | 없음 |
|--------|-------|------|-------|
| 총계 | (645) | 51.6 | 48.4 |
| 문학 | (111) | 34.2 | 65.8 |
| 시각예술 | (275) | 47.6 | 52.4 |
| 공연예술 | (187) | 59.4 | 40.6 |
| 전통예술 | (52) | 80.8 | 19.2 |
| 영상·미디어 | (10) | 40.0 | 60.0 |
| 다원예술 | (1) | 0.0 | 100.0 |
| 기타 | (9) | 77.8 | 22.2 |

각 분야별 ‘지난 1년간 문화예술 분야 관련 자원봉사·재능기부’의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 대상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57.4%), ‘소외계층’ (44.7%), ‘예비문화예술인’ (15.0%) 순으로 조사되었다. ‘문학’ (55.3%), ‘시각예술’ (60.3%), ‘공연예술’ (57.7%) 분야 응답자는 ‘지역사회’ 대상의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통예술’ 분야 응답자는 ‘소외계층’ (81.0%) 대상의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표 III-3-11] 지난 1년간 문화예술 분야 관련 자원봉사·재능기부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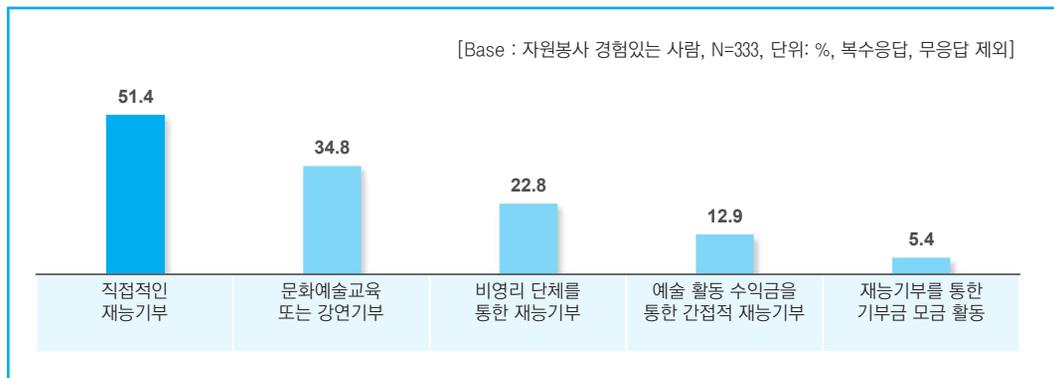
N=333(지난 1년간 문화예술 분야 관련 자원봉사·재능기부 유경험자), 복수응답,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지역사회 | 소외계층 | 예비 문화예술인 | 기타 | 무응답 |
|--------|-------|------|------|----------|------|-----|
| 총계 | (333) | 57.4 | 44.7 | 15.0 | 8.1 | 0.9 |
| 문학 | (38) | 55.3 | 18.4 | 18.4 | 13.2 | 2.6 |
| 시각예술 | (131) | 60.3 | 39.7 | 19.1 | 9.2 | 0.0 |
| 공연예술 | (111) | 57.7 | 48.6 | 11.7 | 7.2 | 1.8 |
| 전통예술 | (42) | 47.6 | 81.0 | 2.4 | 2.4 | 0.0 |
| 영상·미디어 | (4) | 50.0 | 0.0 | 75.0 | 0.0 | 0.0 |
| 기타 | (7) | 71.4 | 28.6 | 14.3 | 14.3 | 0.0 |

(10) 지난 1년간 문화예술 분야 관련 자원봉사·재능기부 형태

지난 1년간 문화예술 분야 관련 ‘자원봉사·재능기부 형태’를 물어본 결과, ‘직접적인 재능기부’가 5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 또는 강연기부’ (34.8%), ‘비영리 단체를 통한 재능기부’ (2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3-9] 지난 1년간 문화예술 분야 관련 자원봉사·재능기부 형태



각 분야별로 ‘지난 1년간 문화예술 분야 관련 자원봉사·재능기부 형태’를 살펴보면, ‘직접적인 재능기부’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분야는 ‘시각예술’ (50.4%), ‘공연예술’ (49.5%), ‘전통예술’ (71.4%)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교육 기부 및 강연기부’ 응답비율이 높은 분야는 ‘문학’ (52.6%)으로 나타났으며, ‘공연예술’ 분야의 경우 일반예술인은 ‘직접적인 재능기부’ (62.7%)와 ‘문화예술 교육기부 및 강연기부’ (37.3%), ‘비영리단체를 통한 재능기부’ (30.8%) 순으로 나타나는 반면, 시립예술단 소속 예술인의 경우 ‘비영리단체를 통한 재능기부’ (30.8%)가 ‘문화예술 교육기부 및 강연기부’ (23.1%)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2] 지난 1년간 문화예술 분야 관련 자원봉사·재능기부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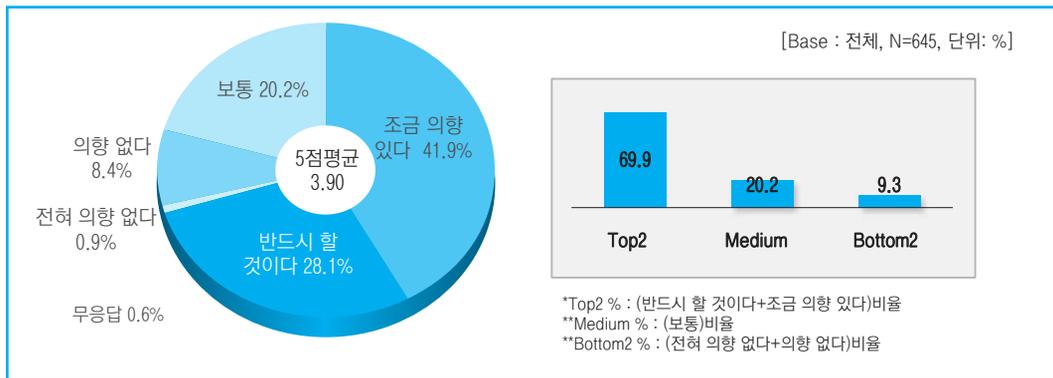
N=333(지난 1년간 문화예술 분야 관련 자원봉사·재능기부 유경험자), 복수응답,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직접적인 재능기부 | 문화예술 교육기부/강연기부 | 비영리 단체를 통한 재능 기부 | 예술 활동 수익금을 통한 간접적 재능기부 | 재능기부를 통한 기부금 모금 활동 | 무응답 |
|--------|-------|-----------|----------------|------------------|------------------------|--------------------|-----|
| 총계 | (333) | 51.4 | 34.8 | 22.8 | 12.9 | 5.4 | 2.4 |
| 문학 | (38) | 34.2 | 52.6 | 23.7 | 7.9 | 2.6 | 0.0 |
| 시각예술 | (131) | 50.4 | 38.2 | 17.6 | 13.7 | 6.1 | 0.0 |
| 공연예술 | (111) | 49.5 | 30.6 | 25.2 | 14.4 | 7.2 | 7.2 |
| 전통예술 | (42) | 71.4 | 21.4 | 23.8 | 9.5 | 0.0 | 0.0 |
| 영상·미디어 | (4) | 50.0 | 0.0 | 75.0 | 0.0 | 0.0 | 0.0 |
| 기타 | (7) | 71.4 | 42.9 | 42.9 | 28.6 | 14.3 | 0.0 |

(11) 향후 1년 이내 문화예술 분야 관련 자원봉사·재능기부 의향

향후 1년 이내에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해서 자원봉사 또는 재능기부를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69.9%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III-3-10] 향후 1년 이내 문화예술 분야 관련 자원봉사·재능기부 의향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통예술’ 분야 예술인이 5점 만점 기준 평균 4.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연예술’ 평균 4.0점, ‘시각예술’ 평균 3.8점, ‘문학’ 평균 3.7점, ‘영상·미디어’ 평균 3.6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13] 향후 1년 이내 문화예술 분야 관련 자원봉사·재능기부 의향

N=645(전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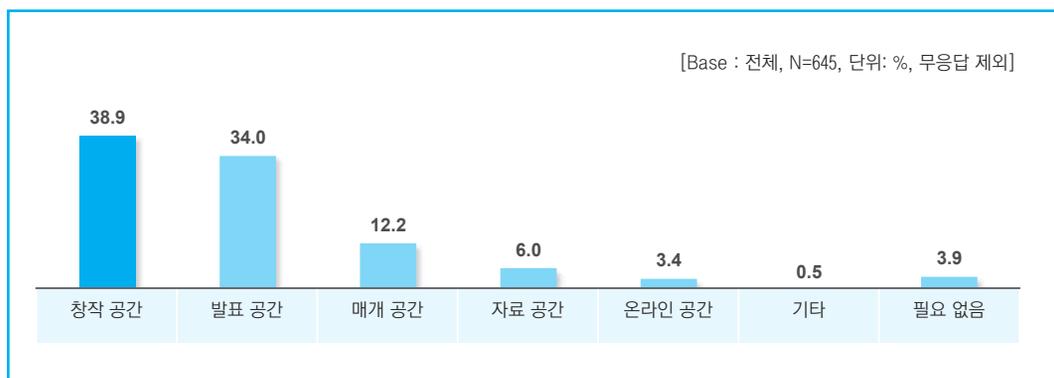
| 구분 | 사례수 | 전혀 의향 없음 | 의향 없음 | 보통 | 조금 의향 있다 | 반드시 할 것이다 | 무응답 | 평균(점) |
|--------|-------|-------------|-------|-------|-------------|--------------|-----|-------|
| 총계 | (645) | 0.9 | 8.4 | 20.2 | 41.9 | 28.1 | 0.6 | 3.9 |
| 문학 | (111) | 0.0 | 11.7 | 23.4 | 47.7 | 17.1 | 0.0 | 3.7 |
| 시각예술 | (275) | 1.1 | 10.9 | 18.2 | 43.6 | 26.2 | 0.0 | 3.8 |
| 공연예술 | (187) | 1.6 | 3.2 | 23.5 | 39.0 | 30.5 | 2.1 | 4.0 |
| 전통예술 | (52) | 0.0 | 3.8 | 11.5 | 34.6 | 50.0 | 0.0 | 4.3 |
| 영상·미디어 | (10) | 0.0 | 20.0 | 20.0 | 40.0 | 20.0 | 0.0 | 3.6 |
| 다원예술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3.0 |
| 기타 | (9) | 0.0 | 11.1 | 11.1 | 22.2 | 55.6 | 0.0 | 4.2 |

2) 문화예술 활동 공간

(1) 예술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공간

예술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공간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38.9%가 ‘창작 공간’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발표 공간’ (34.0%), ‘매개 공간’ (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11] 예술 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공간



예술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공간을 묻는 설문에 대한 각 분야별 응답을 살펴보면, 먼저 ‘창작 공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문학’ (37.8%), ‘시각예술’ (41.8%), ‘공연예술’ (35.8%), ‘영상·미디어’ (60.0%) 분야로 나타났다. 반면 ‘전통예술’ 분야의 경우 ‘발표 공간’이라는 응답률이 48.1%로 조사되었다. ‘공연예술’ 분야의 경우 ‘창작 공간’이 예술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공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지만, 일반예술인과 시립예술단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일반예술인은 ‘창작 공간’ (25.7%)보다 ‘발표 공간’ (40.5%)이 예술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공간이라고 응답한 반면, 시립예술단은 ‘창작 공간’ (42.5%)이 ‘발표 공간’ (21.2%) 보다 예술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공간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14] 예술 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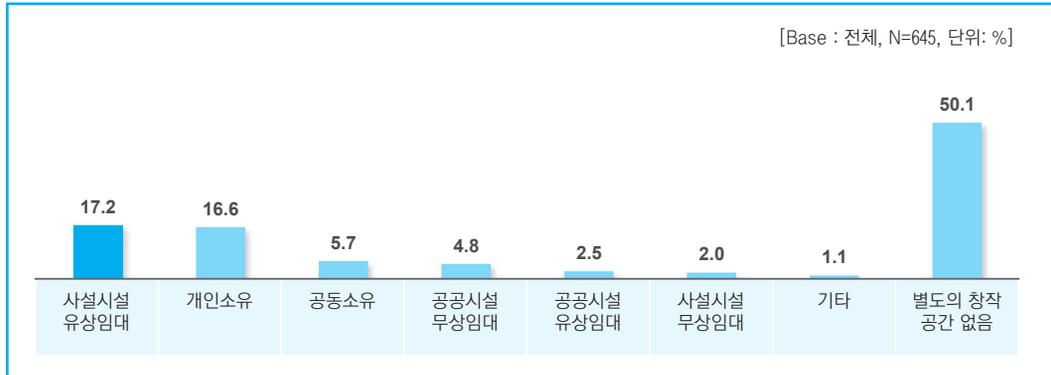
N=645(전체),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창작 공간 | 발표 공간 | 매개 공간 | 자료 공간 | 온라인 공간 | 기타 | 필요 없음 | 무응답 |
|--------|-------|-------|-------|-------|-------|--------|-----|-------|-----|
| 총계 | (645) | 38.9 | 34.0 | 12.2 | 6.0 | 3.4 | 0.5 | 3.9 | 1.1 |
| 문학 | (111) | 37.8 | 27.9 | 10.8 | 4.5 | 8.1 | 0.9 | 9.0 | 0.9 |
| 시각예술 | (275) | 41.8 | 37.5 | 9.1 | 4.7 | 1.8 | 0.0 | 5.1 | 0.0 |
| 공연예술 | (187) | 35.8 | 28.9 | 16.6 | 10.2 | 3.7 | 1.1 | 0.5 | 3.2 |
| 전통예술 | (52) | 34.6 | 48.1 | 11.5 | 3.8 | 1.9 | 0.0 | 0.0 | 0.0 |
| 영상·미디어 | (10) | 60.0 | 30.0 | 10.0 | 0.0 | 0.0 | 0.0 | 0.0 | 0.0 |
| 다원예술 | (1) | 0.0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 기타 | (9) | 33.3 | 22.2 | 44.4 | 0.0 | 0.0 | 0.0 | 0.0 | 0.0 |

(2) 창작 공간의 형태

인천의 예술인들에게 직접 사용하는 자택 외의 창작 공간(창작, 연습, 집필 공간 등)의 형태를 물어본 설문조사 결과, ‘별도의 창작 공간 없음’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50.1%로 나타났으며 창작 공간이 있는 경우 ‘사설시설 유상임대’ (17.2%), ‘개인소유’ (16.6%)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예술활동을 위해 ‘창작 공간’ (38.9%)이 가장 필요하다고 조사된 결과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Ⅲ-3-12] 창작 공간의 형태



창작 공간의 형태를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학’의 경우 ‘개인소유’ (6.3%), ‘사설시설 유상임대’ (5.4%) 순으로 응답비율이 조사되었으며, ‘시각예술’에서는 ‘사설시설 유상임대’ (25.8%), ‘개인소유’ (24.0%) 순으로 나타났다. ‘공연예술’의 응답비율은 ‘사설시설 유상임대’ (11.8%), ‘개인소유’ (11.2%)로 응답하였고, ‘전통예술’은 ‘개인소유’ (21.2%), ‘사설시설 유상임대’ (13.5%)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통예술’의 경우 ‘개인소유’ (21.2%)가 ‘사설시설 유상임대’ (13.5%)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별도의 창작 공간 없음’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은 분야는 ‘문학’ (79.3%), ‘영상·미디어’ (70.0%), ‘공연예술’ (54.5%), ‘전통예술’ (50.0%), ‘시각예술’ (35.3%)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3-15] 창작 공간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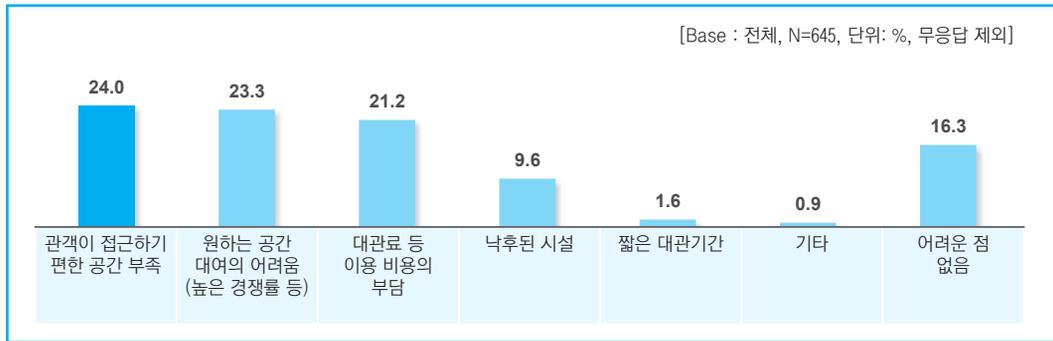
N=645(전체), 단위: %

| 구분 | 사례수 | 사설시설 유상임대 | 개인소유 | 공동소유 | 공공시설 무상임대 | 공공시설 유상임대 | 사설시설 무상임대 | 기타 | 별도의 창작 공간 없음 |
|--------|-------|-----------|-------|------|-----------|-----------|-----------|-----|--------------|
| 총계 | (645) | 17.2 | 16.6 | 5.7 | 4.8 | 2.5 | 2.0 | 1.1 | 50.1 |
| 문학 | (111) | 5.4 | 6.3 | 3.6 | 4.5 | 0.0 | 0.9 | 0.0 | 79.3 |
| 시각예술 | (275) | 25.8 | 24.0 | 6.2 | 3.3 | 2.2 | 2.5 | 0.7 | 35.3 |
| 공연예술 | (187) | 11.8 | 11.2 | 7.0 | 7.0 | 4.8 | 1.1 | 2.7 | 54.5 |
| 전통예술 | (52) | 13.5 | 21.2 | 5.8 | 5.8 | 1.9 | 1.9 | 0.0 | 50.0 |
| 영상·미디어 | (10) | 10.0 | 0.0 | 0.0 | 10.0 | 0.0 | 10.0 | 0.0 | 70.0 |
| 다원예술 | (1) | 0.0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 기타 | (9) | 44.4 | 11.1 | 0.0 | 0.0 | 0.0 | 11.1 | 0.0 | 33.3 |

(3) 인천 내 발표 공간 이용에 대한 애로사항

인천 내에서 예술인이 발표 공간(전시장, 공연장, 교육장, 회의장 등)을 이용하는데 겪는 어려운 점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관객이 접근하기 편한 공간 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원하는 공간 대여의 어려움(높은 경쟁률 등)’(23.3%), ‘대관료 등 이용비용의 부담’(21.2%)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발표 공간을 이용하는데 ‘어려운 점 없음’이라는 응답률은 16.3%로 나타났다.

[그림 III-3-13] 인천 내 발표 공간 이용에 대한 애로사항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시각예술’의 경우는 ‘원하는 공간 대여의 어려움’(29.8%)과 ‘관객이 접근하기 편한 공간부족’(29.1%)이라는 응답률이 높았다. ‘공연예술’의 경우 ‘관객이 접근하기 편한 공간부족’(27.0%)과 ‘대관료 등 이용비용의 부담’(17.1%) 순으로 응답하였다. ‘공연예술’ 분야 응답자 중 일반예술인은 인천 내 발표 공간 이용에 대한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관객이 접근하기 편한 공간부족’(27.0%)과 ‘원하는 공간 대여의 어려움’(24.3%) 순으로 응답한 반면, 시립예술단 소속 예술인은 ‘낙후된 시설’(31.9%)과 ‘관객이 접근하기 편한 공간부족’(21.2%) 순으로 응답해 차이를 보였다.

‘전통예술’ 분야는 ‘원하는 공간 대여의 어려움’(34.6%), ‘대관료 등 이용비용의 부담’(34.6%)이 높게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인천 내 발표 공간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관객이 접근하기 편한 공간부족’(24.0%), ‘원하는 공간 대여의 어려움’(23.5%), ‘대관료 등 이용비용의 부담’(21.2%)을 애로사항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3-16] 인천 내 발표 공간 이용에 대한 애로사항

N=645(전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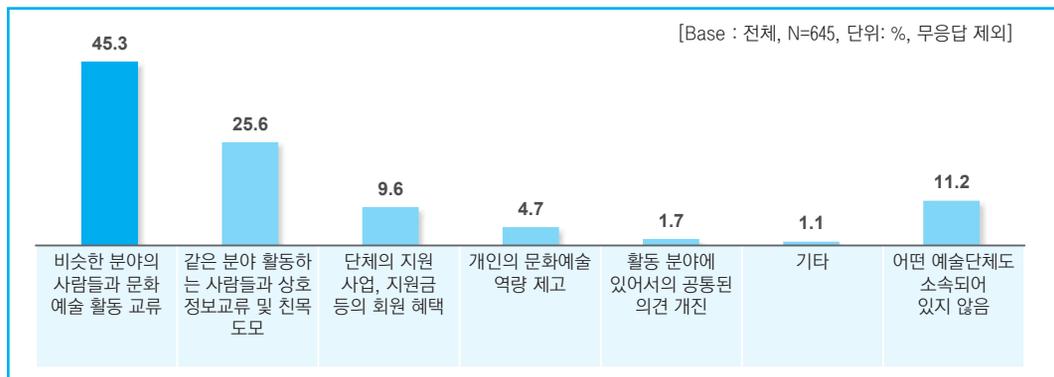
| 구분 | 사례수 | 관객이 접근하기 편한 공간 부족 | 원하는 공간 대여의 어려움 | 대관료 등 이용 비용의 부담 | 낙후된 시설 | 짧은 대관 기간 | 기타 | 어려운 점 없음 | 무응답 |
|--------|-------|-------------------|----------------|-----------------|--------|----------|-----|----------|------|
| 총계 | (645) | 24.0 | 23.3 | 21.2 | 9.6 | 1.6 | 0.9 | 16.3 | 3.1 |
| 문학 | (111) | 16.2 | 20.7 | 17.1 | 5.4 | 0.0 | 0.9 | 39.6 | 0.0 |
| 시각예술 | (275) | 29.1 | 29.8 | 22.9 | 4.0 | 2.2 | 1.5 | 10.5 | 0.0 |
| 공연예술 | (187) | 23.5 | 12.8 | 17.1 | 20.9 | 1.6 | 0.5 | 12.8 | 10.7 |
| 전통예술 | (52) | 11.5 | 34.6 | 34.6 | 9.6 | 1.9 | 0.0 | 7.7 | 0.0 |
| 영상·미디어 | (10) | 30.0 | 20.0 | 20.0 | 10.0 | 0.0 | 0.0 | 20.0 | 0.0 |
| 다원예술 | (1) | 0.0 | 0.0 | 0.0 | 0.0 | 0.0 | 0.0 | 100.0 | 0.0 |
| 기타 | (9) | 44.4 | 11.1 | 33.3 | 0.0 | 0.0 | 0.0 | 11.1 | 0.0 |

3) 단체 및 교류 활동

(1) 예술 활동 관련 단체 가입 이유

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단체에 가입한 가장 큰 이유로 '비슷한 분야의 사람들과 문화예술 활동 교류' 라는 응답률이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같은 분야 활동하는 사람들과 상호 정보교류 및 친목도모' (25.6%), '단체의 지원사업, 지원금 등의 회원 혜택' (9.6%), '개인의 문화예술 역량 제고' (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14] 예술 활동 관련 단체 가입 이유



‘문학’과 ‘시각예술’ 분야의 경우 ‘정보교류/친목도모’를 위한 예술 활동 관련 단체에 가입한다는 응답률이 각각 31.5%, 31.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연예술’ 분야는 ‘회원혜택’(23.6%)과 ‘소속단체 없음’(19.8%)이라는 응답이 높는데 이는 시립예술단 소속 응답자의 응답률이 높게 반영된 결과이다. ‘전통예술’ 분야의 경우 ‘문화예술활동교류’를 위해 예술 활동 관련 단체에 가입한다는 응답률이 6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3-17] 예술 활동 관련 단체 가입 이유

N=645(전체),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문화예술 활동교류 | 정보교류/ 친목도모 | 회원 혜택 | 개인역량 제고 | 공통된 의견 개선 | 기타 | 소속 단체 없음 | 무응답 |
|--------|-------|--------------|---------------|----------|------------|--------------|-----|-------------|-----|
| 총계 | (645) | 45.3 | 25.6 | 9.6 | 4.7 | 1.7 | 1.1 | 11.2 | 0.9 |
| 문학 | (111) | 51.4 | 31.5 | 2.7 | 4.5 | 0.0 | 0.0 | 9.9 | 0.0 |
| 시각예술 | (275) | 52.4 | 31.6 | 3.6 | 3.6 | 2.2 | 0.7 | 5.8 | 0.0 |
| 공연예술 | (187) | 28.3 | 14.4 | 23.0 | 6.4 | 2.1 | 2.7 | 19.8 | 3.2 |
| 전통예술 | (52) | 61.5 | 15.4 | 9.6 | 5.8 | 0.0 | 0.0 | 7.7 | 0.0 |
| 영상·미디어 | (10) | 40.0 | 30.0 | 10.0 | 0.0 | 10.0 | 0.0 | 10.0 | 0.0 |
| 다원예술 | (1)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기타 | (9) | 11.1 | 55.6 | 0.0 | 0.0 | 0.0 | 0.0 | 33.3 | 0.0 |

(2) 최근 3년간 발표 및 창작활동 위한 문화예술 교류 여부 및 횟수

전체 응답자 가운데 ‘최근 3년간 발표 및 창작활동을 위해 문화예술 교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예술인은 63.3%이며, ‘문화예술 교류’ 횟수는 평균 6.8회로 조사되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발표 및 창작활동을 위한 문화예술 교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시각예술’(76.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평균 교류 횟수는 ‘전통예술’이 평균 15.2회로 가장 많았다. 공연예술 분야의 경우 문화예술 경험은 일반예술인(67.6%)이 시립예술단(32.7%) 응답자보다 많은 반면, 평균 교류 횟수는 시립예술단 응답자가 평균 7.8회로 일반예술인(평균 5.5회)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18] 최근 3년간 발표 및 창작활동을 위한 문화예술 교류 여부 및 횟수

N=645(전체), 단위 : % / N=408(최근 3년 문화 예술 교류 경험자), 단위 : 회

| 구분 | 사례수 | 문화예술 교류 여부 | | 문화예술 교류 횟수 | |
|--------|-------|------------|-------|------------|-------|
| | | 있다 | 없음 | 전체 평균 | 경험자평균 |
| 총계 | (645) | 63.3 | 36.7 | 6.8 | 11.5 |
| 문학 | (111) | 59.5 | 40.5 | 4.4 | 7.3 |
| 시각예술 | (275) | 76.4 | 23.6 | 7.1 | 9.3 |
| 공연예술 | (187) | 46.5 | 53.5 | 6.9 | 15.5 |
| 전통예술 | (52) | 65.4 | 34.6 | 9.9 | 15.2 |
| 영상·미디어 | (10) | 60.0 | 40.0 | 3.2 | 5.3 |
| 다원예술 | (1) | 0.0 | 100.0 | 0.0 | 0.0 |
| 기타 | (9) | 77.8 | 22.2 | 6.3 | 8.1 |

(3) 문화예술 교류 유형별 횟수

① 교류 유형

문화예술 교류 유형별 평균 횟수는 ‘소속 단체를 통한 문화예술 교류’가 평균 7.6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개인 네트워크를 통한 문화예술 교류’ 평균 2.3회, ‘정부 또는 기관의 지원사업을 통한 문화예술 교류’ 평균 1.5회 등으로 조사되었다. 공연예술 분야의 경우 ‘소속 단체를 통한 문화예술 교류’ 평균 횟수가 10.2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9] 최근 3년간 문화예술 교류 유형별 평균 횟수

N=408(최근 3년 문화 예술 교류 경험자), 단위 : 회

| 구분 | 사례수 | 개인 네트워크 | 소속 단체 | 정부/기관 지원사업 | 기타 |
|--------|-------|---------|-------|------------|-----|
| 총계 | (408) | 2.3 | 7.6 | 1.5 | 0.1 |
| 문학 | (66) | 2.2 | 4.4 | 0.7 | 0.0 |
| 시각예술 | (210) | 1.7 | 6.6 | 0.8 | 0.2 |
| 공연예술 | (85) | 2.6 | 10.2 | 2.7 | 0.0 |
| 전통예술 | (34) | 4.2 | 9.6 | 1.1 | 0.4 |
| 영상·미디어 | (6) | 3.2 | 2.0 | 0.2 | 0.0 |
| 기타 | (7) | 2.3 | 2.9 | 2.0 | 1.0 |

② 교류 지역

문화예술 교류 지역별 평균 횟수는 ‘인천 내 지역 교류’ 평균 7.6회, ‘국내(인천 외)지역 교류’ 평균 2.9회, ‘해외 지역 교류’ 평균 1.0회로 나타났다.

예술분야의 대부분이 ‘인천 내’ 지역에서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공연예술’ (평균 11.8회) 분야와 ‘전통예술’ (평균 11.4회) 분야가 다른 예술분야에 비해서 ‘인천 내 지역의 교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연예술’ 분야의 경우 ‘인천 내’ 교류는 시립예술단이 평균 23.6회로 일반예술인(평균 4.0회)보다 더 많은 교류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20] 최근 3년간 문화예술 교류 지역별 평균 횟수

N=408(최근 3년 문화 예술 교류 경험자, 단위: 회)

| 구분 | 사례수 | 인천 내 | 인천 외 | 해외 |
|--------|-------|------|------|-----|
| 총계 | (408) | 7.6 | 2.9 | 1.0 |
| 문학 | (66) | 3.7 | 3.6 | 0.1 |
| 시각예술 | (210) | 5.2 | 2.6 | 1.5 |
| 공연예술 | (85) | 11.8 | 3.0 | 0.7 |
| 전통예술 | (34) | 11.4 | 3.1 | 0.7 |
| 영상·미디어 | (6) | 4.0 | 1.2 | 0.2 |
| 기타 | (7) | 3.0 | 4.1 | 1.0 |

③ 교류 방법

문화예술 교류 방법별 평균 횟수는 ‘합동공연(전시 등)’가 평균 8.4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발표회’ 평균 1.4회, ‘회의/세미나’ 평균 0.7회, ‘기타’ 평균 0.4회, ‘출판’ 평균 0.2회, ‘연구, 학술’ 평균 0.2회, ‘방송출연’ 평균 0.1회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각 예술분야별로는 대부분 ‘합동공연(전시 등)’ (평균 8.4회) 방법으로 교류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공연예술’ 분야의 ‘합동공연’ 횟수가 평균 13.6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예술’ 분야의 경우 시립예술단 소속 응답자의 ‘합동공연’ 횟수는 평균 25.5회로 일반예술인의 ‘합동공연’ 횟수 평균 5.8회와 차이를 보였다. 반면 ‘문학’ 분야의 경우 ‘회의, 세미나’ 평균 2.2회, ‘발표회’ 평균 2.3회, ‘합동공연(전시 등)’ 평균 1.4

회, ‘출판’ 평균 1.1회 등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21] 최근 3년간 문화예술 교류 방법별 평균 횟수

N=408(최근 3년 문화 예술 교류 경험자), 단위: 회

| 구분 | 사례수 | 회의, 세미나 | 합동공연 (전시 등) | 발표회 | 출판 | 연구, 학술 | 방송출연 | 기타 |
|--------|-------|---------|-------------|-----|-----|--------|------|-----|
| 총계 | (408) | 0.7 | 8.4 | 1.4 | 0.2 | 0.2 | 0.1 | 0.4 |
| 문학 | (66) | 2.2 | 1.4 | 2.0 | 1.1 | 0.3 | 0.2 | 0.2 |
| 시각예술 | (210) | 0.6 | 7.2 | 1.1 | 0.1 | 0.1 | 0.1 | 0.1 |
| 공연예술 | (85) | 0.4 | 13.6 | 1.1 | 0.0 | 0.1 | 0.1 | 0.2 |
| 전통예술 | (34) | 0.6 | 6.9 | 3.3 | 0.2 | 0.7 | 0.4 | 3.2 |
| 영상·미디어 | (6) | 0.8 | 1.3 | 1.0 | 0.2 | 0.0 | 0.5 | 1.5 |
| 기타 | (7) | 1.1 | 3.9 | 0.9 | 0.9 | 0.0 | 0.0 | 1.4 |

4) 문화예술인 지원

(1) 지원기관별 문화예술 지원 여부

지난 3년 간 다음과 같은 지원기관별 문화예술 지원 경험을 묻은 결과, ‘인천문화재단’ (26.0%)을 통해 지원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9.3%), ‘기초자치단체’ (8.5%), ‘인천시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4.2%)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학’은 ‘문화예술진흥기금’ (18.9%) 지원 경험이, ‘시각예술’은 ‘인천문화재단’ (32.0%), ‘전통예술’은 ‘기초자치단체(군,구)’ (17.3%)에 대한 지원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22] 지원기관별 문화예술 지원 여부

N=645(전체),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문화예술 진흥기금 | 인천시 비영리 민간단체지원사업 | 기초자치단체 (군·구) | 인천 문화재단 | 기타 공공기관 | 기업/ 개인 | 타도시 지방정부 |
|--------|-------|--------------|---------------------|-----------------|------------|------------|-----------|-------------|
| 총계 | (645) | 9.3 | 4.2 | 8.5 | 26.0 | 6.4 | 2.2 | 3.7 |
| 문학 | (111) | 18.9 | 1.8 | 6.3 | 27.0 | 6.3 | 0.0 | 0.9 |
| 시각예술 | (275) | 6.5 | 1.5 | 9.1 | 32.0 | 6.5 | 0.7 | 2.5 |
| 공연예술 | (187) | 8.0 | 4.3 | 5.9 | 15.0 | 5.3 | 4.3 | 8.0 |
| 전통예술 | (52) | 9.6 | 21.2 | 17.3 | 28.8 | 9.6 | 3.8 | 0.0 |
| 영상·미디어 | (10) | 0.0 | 0.0 | 0.0 | 20.0 | 0.0 | 10.0 | 10.0 |
| 다원예술 | (1) | 0.0 | 100.0 | 100.0 | 100.0 | 100.0 | 0.0 | 0.0 |
| 기타 | (9) | 11.1 | 11.1 | 22.2 | 44.4 | 0.0 | 11.1 | 0.0 |

(2) 지원 분야

지난 3년간 창작 활동과 관련하여 지원한 분야에 대해 물어본 결과, 지원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27.1%는 ‘현 문화예술 활동 분야’에 지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지원 경험 없음’이라는 응답률은 59.7%로 나타났다.

예술분야별로 살펴보면, ‘현 문화예술 활동분야’, ‘타 분야’ 모두 ‘전통예술’ 분야의 응답률이 각각 34.6%, 1.9%로 나타나 타 예술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3-23] 지원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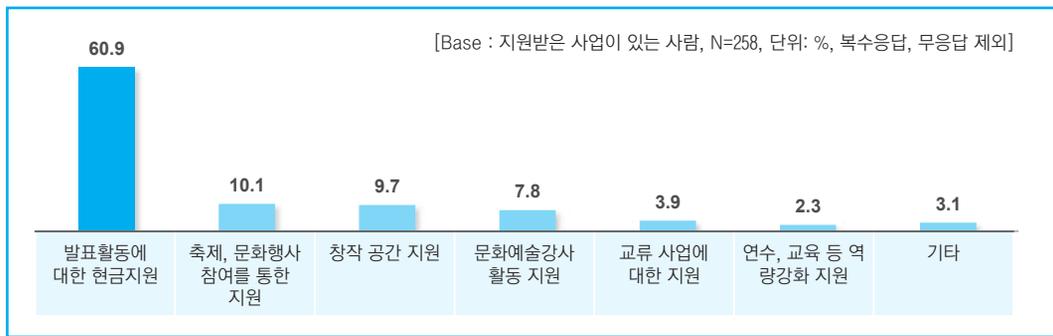
N=645(전체), 복수응답,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지원 경험 있음 | | 지원 경험 없음 | 무응답 |
|--------|-------|----------------|-----|----------|-------|
| | | 현 문화예술 활동분야 | 타분야 | | |
| 총계 | (645) | 27.1 | 0.3 | 59.7 | 12.9 |
| 문학 | (111) | 29.7 | 0.0 | 56.8 | 13.5 |
| 시각예술 | (275) | 30.2 | 0.0 | 54.2 | 15.6 |
| 공연예술 | (187) | 18.7 | 0.5 | 72.2 | 8.6 |
| 전통예술 | (52) | 34.6 | 1.9 | 55.8 | 7.7 |
| 영상·미디어 | (10) | 30.0 | 0.0 | 50.0 | 20.0 |
| 다원예술 | (1) | 0.0 | 0.0 | 0.0 | 100.0 |
| 기타 | (9) | 33.3 | 0.0 | 44.4 | 22.2 |

(3) 지원받은 사업 유형

지원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258명)에게 지원받은 사업 유형을 물어본 결과, ‘발표활동에 대한 현금지원’이 60.9%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축제, 문화행사 참여를 통한 지원’ (10.1%), ‘창작 공간 지원’ (9.7%), ‘문화예술강사 활동 지원’ (7.8%), ‘교류 사업에 대한 지원’ (3.9%), ‘연수, 교육 등 역량강화 지원’ (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3-15] 지원받은 사업 유형



지원받은 사업 유형에서 ‘발표활동 현금지원’ 항목은 ‘전통예술’ 부문이 69.6%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공연예술’ 분야의 경우 일반예술인(75.7%)은 시립예술단 소속 예술인(33.3%)과 비교하여 발표활동에 대한 현금지원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24] 지원받은 사업 유형

N=258(지원받은 사업이 있는 사람), 복수응답, 단위: %

| 구분 | 사례수 | 발표활동 현금지원 | 축제, 문화 행사참여 | 창작 공간 지원 | 문화예술 강사활동 지원 | 교류 사업 지원 | 연수, 교육 등 역량 강화 지원 | 기타 | 무응답 |
|--------|-------|-----------|-------------|----------|--------------|----------|-------------------|------|-------|
| 총계 | (258) | 60.9 | 10.1 | 9.7 | 7.8 | 3.9 | 2.3 | 3.1 | 18.6 |
| 문학 | (47) | 53.2 | 2.1 | 10.6 | 8.5 | 0.0 | 0.0 | 6.4 | 29.8 |
| 시각예술 | (125) | 63.2 | 6.4 | 12.8 | 6.4 | 2.4 | 0.8 | 1.6 | 21.6 |
| 공연예술 | (52) | 63.5 | 21.2 | 7.7 | 5.8 | 7.7 | 5.8 | 1.9 | 7.7 |
| 전통예술 | (23) | 69.6 | 17.4 | 0.0 | 17.4 | 4.3 | 4.3 | 4.3 | 4.3 |
| 영상·미디어 | (5) | 40.0 | 20.0 | 0.0 | 0.0 | 0.0 | 0.0 | 20.0 | 20.0 |
| 다원예술 | (1)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100.0 |
| 기타 | (5) | 40.0 | 20.0 | 0.0 | 20.0 | 40.0 | 20.0 | 0.0 | 0.0 |

(4) 인천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지원사업 속성별 평가

인천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은 금액의 다수 예술인 분배가 바람직한 정도’ 항목이 5점 만점 기준 평균 3.4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이 바람직한 정도’는 평균 3.29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천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이 ‘시민의 예술작품 향유에 도움이 된다’,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항목은 각각 평균 3.0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원사업 종류의 다양성’, ‘지원사업 규모의 적절성’, ‘예술인의 의사 반영 정도’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II-3-25] 인천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지원사업 속성별 평가

N=645(전체), 단위: 점

| 구분 | 사례수 | 지원사업 종류의 다양성 | 지원사업 규모의 적절성 | 적은 금액의 다수 예술인 분배가 바람직한 정도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이 바람직한 정도 | 시민의 예술작품 향유에 도움 | 창작 활동에 도움 | 예술인의 의사 반영 정도 |
|--------|-------|--------------|--------------|---------------------------|------------------------|-----------------|-----------|---------------|
| 총계 | (645) | 2.77 | 2.49 | 3.46 | 3.29 | 3.00 | 3.00 | 2.59 |
| 문학 | (111) | 2.77 | 2.41 | 3.35 | 3.23 | 2.83 | 2.84 | 2.44 |
| 시각예술 | (275) | 2.91 | 2.57 | 3.59 | 3.24 | 3.07 | 3.22 | 2.69 |
| 공연예술 | (187) | 2.62 | 2.41 | 3.35 | 3.35 | 2.95 | 2.86 | 2.53 |
| 전통예술 | (52) | 3.00 | 2.75 | 3.63 | 3.35 | 3.21 | 2.94 | 2.56 |
| 영상·미디어 | (10) | 2.30 | 2.20 | 3.70 | 3.20 | 2.90 | 2.90 | 2.80 |
| 다원예술 | (1) | 4.00 | 3.00 | 4.00 | 4.00 | 5.00 | 4.00 | 5.00 |
| 기타 | (9) | 3.13 | 3.00 | 3.44 | 3.44 | 3.11 | 3.44 | 3.11 |

(5)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 지원사업 평가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설문한 결과 5점 만점 기준 평균 2.78점, 평균 3.03점으로 조사되었다. ‘예술인 지원사업 선정의 공정성’과 ‘예술인 지원사업의 분야별 형평성’ 항목 모두 상대적으로 ‘공연예술’ 분야 예술인이 평균 2.71점, 평균 2.91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II-3-26]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 지원사업 평가

N=645(전체), 단위: 점

| 구분 | 사례수 | 예술인 지원사업 선정의 공정성 | 예술인 지원사업의 분야별 형평성 |
|--------|-------|------------------|-------------------|
| 총계 | (645) | 2.78 | 3.03 |
| 문학 | (111) | 2.89 | 2.94 |
| 시각예술 | (275) | 2.76 | 3.15 |
| 공연예술 | (187) | 2.71 | 2.91 |
| 전통예술 | (52) | 2.92 | 3.16 |
| 영상·미디어 | (10) | 2.50 | 3.00 |
| 다원예술 | (1) | 4.00 | 4.00 |
| 기타 | (9) | 3.56 | 3.33 |

(6) 바람직한 예술인 지원 방식

바람직한 예술인 지원 방식을 물어본 결과 ‘현금’이 62.9%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문화예술 수요시장 형성 및 홍보지원’ (17.8%), ‘공간 지원’ (10.7%), ‘콘텐츠 구입’ (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16] 바람직한 예술인 지원 방식



분야별로 살펴보면, ‘현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예술분야는 ‘문학’으로 전체 응답자 가운데 73.0%의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전통예술’ (69.2%), ‘시각예술’ (61.1%), ‘공연예술’ (57.2%) 등으로 조사되었다. ‘영상·미디어’와 ‘다원예술’의 응답률은 높게 나타났으나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III-3-27] 바람직한 예술인 지원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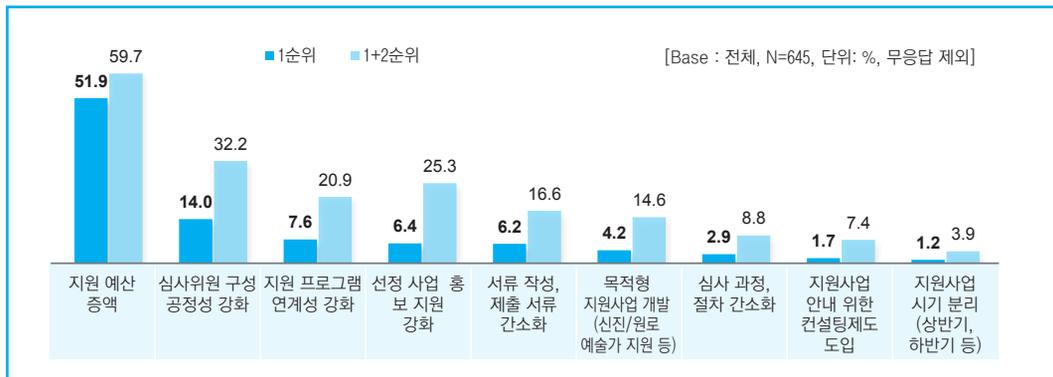
N=645(전체),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현금 | 문화예술 수요시장 형성 및 홍보지원 | 공간 지원 | 콘텐츠 구입 | 기타 | 무응답 |
|--------|-------|-------|------------------------|-------|--------|-----|-----|
| 총계 | (645) | 62.9 | 17.8 | 10.7 | 5.0 | 1.1 | 2.5 |
| 문학 | (111) | 73.0 | 10.8 | 7.2 | 8.1 | 0.9 | 0.0 |
| 시각예술 | (275) | 61.1 | 18.2 | 14.5 | 5.1 | 1.1 | 0.0 |
| 공연예술 | (187) | 57.2 | 23.0 | 5.9 | 3.7 | 1.6 | 8.6 |
| 전통예술 | (52) | 69.2 | 15.4 | 13.5 | 1.9 | 0.0 | 0.0 |
| 영상·미디어 | (10) | 80.0 | 0.0 | 10.0 | 10.0 | 0.0 | 0.0 |
| 다원예술 | (1) | 100.0 | 0.0 | 0.0 | 0.0 | 0.0 | 0.0 |
| 기타 | (9) | 55.6 | 22.2 | 22.2 | 0.0 | 0.0 | 0.0 |

(7) 인천문화재단 예술지원 사업 개선점

인천문화재단 예술지원 사업의 개선점 설문 결과, ‘지원 예산 증액을 통한 지원건수 및 사업 당 지원액 증액’이 51.9%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심사위원 구성의 공정성 강화’가 14.0%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원 프로그램의 연계성 강화’ (7.6%), ‘선정된 사업에 대한 홍보 지원 강화’ (6.4%), ‘서류 작성 및 제출 서류 간소화’ (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17] 인천문화재단 예술지원 사업의 개선점



인천문화재단 예술지원 사업의 개선점을 응답자 활동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원 예산 증액’이라는 응답률이 ‘문학’ (64.0%), ‘전통예술’ (53.8%), ‘공연예술’ (52.9%), ‘시각예술’

(46.5%)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문학’의 경우 ‘서류 작성, 제출서류 간소화’라는 응답률이 10.8%로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영상·미디어’와 ‘다원예술’ 분야의 경우 응답률은 높으나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표 III-3-28] 인천문화재단 예술지원 사업의 개선점

N=645(전체), 1순위,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지원 예산 증액 | 심사 위원 구성 공정성 강화 | 지원 프로그램 연계성 강화 | 선정 사업 홍보 지원 강화 | 서류 작성, 제출 서류 간소화 | 목적형 지원 사업 개발 | 심사 과정, 절차 간소화 | 연중 컨설팅 제도 도입 | 지원 사업 시기 분리 | 무응답 |
|--------|-------|----------|-----------------|----------------|----------------|------------------|--------------|---------------|--------------|-------------|------|
| 총계 | (645) | 51.9 | 14.0 | 7.6 | 6.4 | 6.2 | 4.2 | 2.9 | 1.7 | 1.2 | 3.9 |
| 문학 | (111) | 64.0 | 9.9 | 3.6 | 4.5 | 10.8 | 2.7 | 2.7 | 0.9 | 0.0 | 0.9 |
| 시각예술 | (275) | 46.5 | 18.5 | 7.6 | 7.3 | 6.9 | 4.4 | 4.7 | 1.5 | 1.8 | 0.7 |
| 공연예술 | (187) | 52.9 | 9.6 | 8.0 | 4.8 | 3.2 | 4.8 | 1.1 | 3.2 | 0.5 | 11.8 |
| 전통예술 | (52) | 53.8 | 15.4 | 11.5 | 11.5 | 3.8 | 3.8 | 0.0 | 0.0 | 0.0 | 0.0 |
| 영상·미디어 | (10) | 50.0 | 10.0 | 10.0 | 10.0 | 10.0 | 0.0 | 0.0 | 0.0 | 10.0 | 0.0 |
| 다원예술 | (1)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기타 | (9) | 33.3 | 11.1 | 22.2 | 0.0 | 0.0 | 11.1 | 11.1 | 0.0 | 11.1 | 0.0 |

(8) 사업 및 정책에 예술인 의견 반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

사업 및 정책에 예술인 의견 반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문화예술 지원 컨설팅 서비스’가 39.1%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적극적인 현장평가’ (31.8%), ‘상설 평가기구 설치’ (13.0%), ‘지원사업 설명회’ (12.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II-3-18] 사업 및 정책에 예술인 의견 반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



활동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연예술’ 분야는 ‘문화예술지원 컨설팅 서비스’라는 응답률이 44.9%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문학’ 분야는 ‘적극적인 현장평가’와 ‘상설 평가 기구 설치’라는 응답률이 각각 33.3%와 17.1%로 높게 나타났다. ‘전통예술’ 분야의 경우 ‘지원사업 설명회’ (17.3%)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III-3-29] 사업 및 정책에 예술인 의견 반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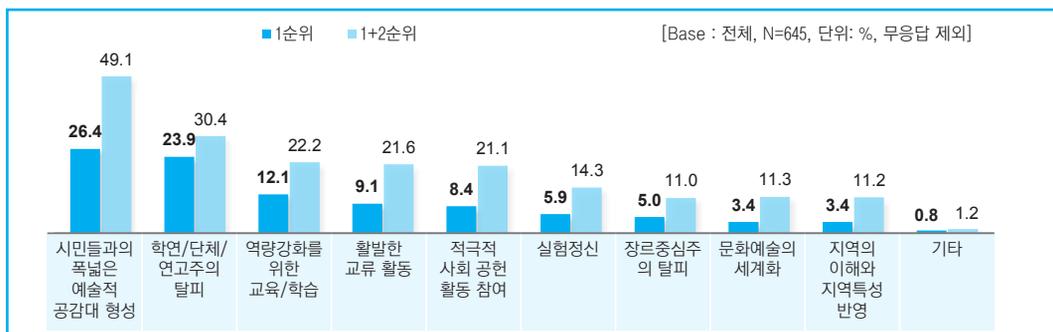
N=645(전체),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문화예술 지원 컨설팅 서비스 | 적극적인 현장평가 | 상설 평가 기구 설치 | 지원사업 설명회 | 기타 | 무응답 |
|--------|-------|-----------------|-----------|-------------|----------|------|-----|
| 총계 | (645) | 39.1 | 31.8 | 13.0 | 12.4 | 0.9 | 2.8 |
| 문학 | (111) | 36.9 | 33.3 | 17.1 | 9.9 | 1.8 | 0.9 |
| 시각예술 | (275) | 36.4 | 34.5 | 14.2 | 13.8 | 0.7 | 0.4 |
| 공연예술 | (187) | 44.9 | 25.7 | 11.2 | 9.1 | 0.5 | 8.6 |
| 전통예술 | (52) | 34.6 | 40.4 | 7.7 | 17.3 | 0.0 | 0.0 |
| 영상·미디어 | (10) | 50.0 | 10.0 | 10.0 | 20.0 | 10.0 | 0.0 |
| 다원예술 | (1) | 0.0 | 100.0 | 0.0 | 0.0 | 0.0 | 0.0 |
| 기타 | (9) | 44.4 | 22.2 | 0.0 | 33.3 | 0.0 | 0.0 |

(9) 인천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문화예술인이 노력할 점

인천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문화예술인이 노력할 점을 물어본 결과 ‘시민들과의 폭넓은 예술적 공감대 형성’이 26.4%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학연/단체/연고주의 탈피’가 23.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학습’ (12.1%), ‘활발한 교류 활동’ (9.1%), ‘적극적 사회 공헌 활동 참여’ (8.4%) 등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II-3-19] 인천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문화예술인이 노력할 점



이를 문화예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학’ 분야의 경우 ‘학연·단체·연고주의 탈피’(29.7%)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시각예술’(25.1%), ‘공연예술’(26.7%), ‘전통예술’(32.7%), ‘영상·미디어’(30.0%) 분야는 ‘공감대 형성’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표 III-3-30] 인천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문화예술인이 노력할 점

N=645(전체), 1순위,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공감대 형성 | 학연/단체/연고주의 탈피 | 역량 강화 위한 교육/학습 | 교류 활동 | 사회 공헌 활동 참여 | 실험 정신 | 장르 중심주의 탈피 | 문화 예술의 세계화 | 지역 이해, 지역 특성 반영 | 기타 | 무응답 |
|--------|-------|--------|---------------|----------------|-------|-------------|-------|------------|------------|-----------------|-----|-----|
| 총계 | (645) | 26.4 | 23.9 | 12.1 | 9.1 | 8.4 | 5.9 | 5.0 | 3.4 | 3.4 | 0.8 | 1.7 |
| 문학 | (111) | 25.2 | 29.7 | 9.0 | 9.9 | 7.2 | 6.3 | 8.1 | 1.8 | 2.7 | 0.0 | 0.0 |
| 시각예술 | (275) | 25.1 | 22.9 | 10.2 | 10.9 | 10.5 | 7.3 | 4.7 | 3.3 | 3.3 | 1.8 | 0.0 |
| 공연예술 | (187) | 26.7 | 23.0 | 17.1 | 5.9 | 4.8 | 4.3 | 3.2 | 4.8 | 4.3 | 0.0 | 5.9 |
| 전통예술 | (52) | 32.7 | 21.2 | 11.5 | 9.6 | 7.7 | 3.8 | 7.7 | 3.8 | 1.9 | 0.0 | 0.0 |
| 영상·미디어 | (10) | 30.0 | 20.0 | 10.0 | 10.0 | 20.0 | 10.0 | 0.0 | 0.0 | 0.0 | 0.0 | 0.0 |
| 다원예술 | (1) | 0.0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기타 | (9) | 33.3 | 11.1 | 11.1 | 11.1 | 22.2 | 0.0 | 0.0 | 0.0 | 11.1 | 0.0 | 0.0 |

(10)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인천시의 역할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인천시의 역할을 설문한 결과 ‘문화예술 창작지원 예산 확충’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29.8%)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의견(2% 미만)으로는 ‘시민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 ‘원로예술가 복리후생 지원’, ‘문화예술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문화예술 자생능력 강화’, ‘지역 정체성 강화와 전통문화 활성화’ 등의 응답이 있었다.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인천시의 역할은 ‘문화예술 창작지원 예산 확충’이 38.0%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부분에 대한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분야는 ‘문학’(46.8%), ‘공연예술’(36.4%), ‘시각예술’(36.0%), ‘전통예술’(32.7%) 순으로 나타났다. ‘영상·미디어’ 분야와 ‘다원예술’ 분야는 응답률은 높으나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표 III-3-31]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해 인천시의 노력

N=645(전체), 1순위, Top7,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창작 지원 예산 확충 | 기반 시설 확충 | 관련 법, 제도 정비 | 신진 예술인 지원 강화 | 홍보 및 정보 접근성 지원 강화 | 국제교류 활성화 | 관련 교육 여건 확충 |
|--------|-------|-------------------|-------------|----------------|--------------------|-------------------------|-------------|-------------------|
| 총계 | (645) | 38.0 | 29.8 | 7.4 | 4.5 | 3.4 | 3.3 | 2.8 |
| 문학 | (111) | 46.8 | 27.0 | 8.1 | 4.5 | 0.9 | 0.9 | 3.6 |
| 시각예술 | (275) | 36.0 | 34.9 | 6.9 | 4.0 | 4.0 | 3.3 | 2.2 |
| 공연예술 | (187) | 36.4 | 25.7 | 8.0 | 4.3 | 4.3 | 5.3 | 2.7 |
| 전통예술 | (52) | 32.7 | 25.0 | 3.8 | 9.6 | 3.8 | 1.9 | 3.8 |
| 영상·미디어 | (10) | 60.0 | 20.0 | 10.0 | 0.0 | 0.0 | 0.0 | 0.0 |
| 다원예술 | (1) | 0.0 | 100.0 | 0.0 | 0.0 | 0.0 | 0.0 | 0.0 |
| 기타 | (9) | 33.3 | 22.2 | 22.2 | 0.0 | 0.0 | 0.0 | 11.1 |

(11)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인천문화재단의 역할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인천문화재단의 역할을 설문한 결과 ‘문화예술 창작지원 예산 확충’이 33.6%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10.5%)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의견(4% 미만)으로는 ‘문화예술 자생능력 강화’, ‘지역 정체성 강화와 전통문화 활성화’, ‘원로 예술가 복리후생 지원’ 등의 응답이 있었다.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인천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한 응답을 문화예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창작 지원 예산 확충’이라는 응답비율은 상대적으로 ‘문학’ (43.2%), ‘시각예술’ (37.5%), ‘전통예술’ (38.5%) 등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홍보 및 정보 접근성 지원 강화’의 경우 ‘공연 예술’ 분야에서 13.4%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3-32]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인천문화재단의 역할

N=645(전체), 1순위, Top7,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창작지원 예산 확충 | 기반 시설 확충 | 홍보 및 정보 접근성 지원 강화 | 신진 예술인 지원 강화 | 국제 교류 활성화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시민 참여 기회 확대 |
|--------|-------|---------------|-------------|-------------------------|-----------------|--------------|-------------------|----------------|
| 총계 | (645) | 33.6 | 10.5 | 10.4 | 8.5 | 6.5 | 6.4 | 5.7 |
| 문학 | (111) | 43.2 | 10.8 | 9.9 | 9.0 | 2.7 | 7.2 | 5.4 |
| 시각예술 | (275) | 37.5 | 13.8 | 8.7 | 7.6 | 8.0 | 4.0 | 5.1 |
| 공연예술 | (187) | 23.0 | 5.9 | 13.4 | 11.2 | 7.5 | 8.0 | 5.3 |
| 전통예술 | (52) | 38.5 | 11.5 | 11.5 | 3.8 | 3.8 | 7.7 | 9.6 |
| 영상·미디어 | (10) | 20.0 | 10.0 | 10.0 | 10.0 | 0.0 | 10.0 | 10.0 |
| 다원예술 | (1) | 0.0 | 0.0 | 0.0 | 0.0 | 100.0 | 0.0 | 0.0 |
| 기타 | (9) | 11.1 | 0.0 | 0.0 | 0.0 | 0.0 | 22.2 | 11.1 |

5) 교육 및 훈련

(1) 문화예술관련 교육 도움 정도

현재 문화예술관련 활동에 있어 문화예술관련 교육의 도움 정도를 설문한 결과,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교육은 ‘문화예술 사교육’으로 5점 만점 기준 평균 4.35점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은 ‘대학교 정규교육’ (평균 4.29점), ‘해외 예술교육(유학 등)’ (평균 4.22점), ‘문화예술교육(동아리, 특별활동 등)’ (평균 4.13점)이 상대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학’의 경우 ‘문화예술 교육(동아리, 특별활동 등)’ 5점 만점 기준 평균 4.23점, ‘문화예술인재양성프로그램’ 평균 4.19점으로 나타났고, ‘시각예술’의 경우 ‘대학교 정규교육’ 평균 4.38점, ‘공연예술’은 ‘해외예술교육’ 평균 4.30점, ‘전통예술’은 ‘문화예술 사교육’ 평균 4.56점 등으로 차이를 보였다.

[표 III-3-33] 문화예술관련 교육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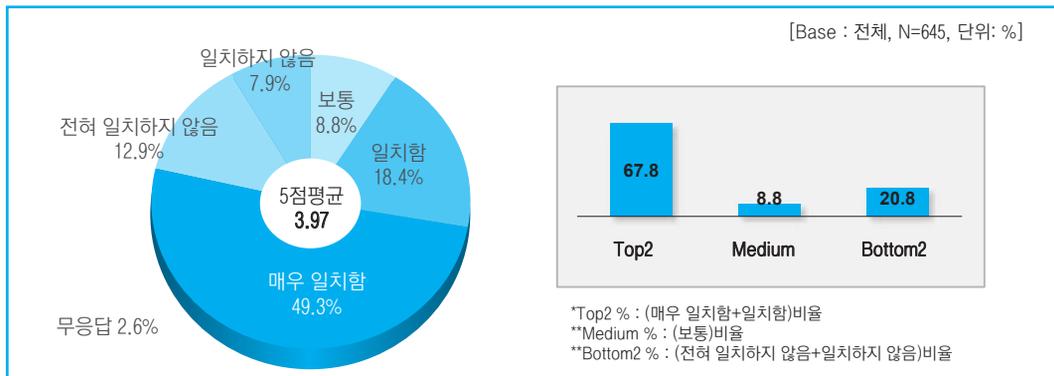
N=398(문화예술관련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단위: 점

| 구분 | 초등학교, 중학교 정규교육 | | 고등학교 정규교육 | | 대학교 정규교육 | | 문화예술 사교육 | | 문화예술 교육(동아리, 특별활동 등) | | 해외 예술교육 (유학 등) | | 문화예술 인재양성 프로그램 | |
|--------|----------------|-------|-----------|-------|----------|-------|----------|-------|----------------------|-------|----------------|-------|----------------|-------|
| | 사례 수 | 5점 평균 | 사례 수 | 5점 평균 | 사례 수 | 5점 평균 | 사례 수 | 5점 평균 | 사례 수 | 5점 평균 | 사례 수 | 5점 평균 | 사례 수 | 5점 평균 |
| 총계 | (398) | 3.51 | (407) | 3.49 | (407) | 4.29 | (377) | 4.35 | (324) | 4.13 | (117) | 4.22 | (120) | 3.86 |
| 문학 | (75) | 3.40 | (76) | 3.28 | (68) | 4.25 | (33) | 3.97 | (60) | 4.23 | (3) | 3.33 | (16) | 4.19 |
| 시각예술 | (182) | 3.53 | (182) | 3.41 | (169) | 4.38 | (174) | 4.22 | (137) | 4.20 | (38) | 4.03 | (39) | 3.97 |
| 공연예술 | (108) | 3.56 | (115) | 3.64 | (137) | 4.23 | (120) | 4.45 | (90) | 4.01 | (66) | 4.30 | (49) | 3.69 |
| 전통예술 | (25) | 3.12 | (26) | 3.38 | (21) | 4.48 | (41) | 4.56 | (27) | 4.26 | (7) | 4.14 | (11) | 4.27 |
| 영상·미디어 | (4) | 4.00 | (4) | 3.75 | (6) | 4.33 | (5) | 4.40 | (5) | 4.20 | (1) | 3.00 | (3) | 4.00 |
| 다원예술 | (1) | 3.00 | (1) | 3.00 | (1) | 4.00 | (1) | 4.00 | (0) | 0.0 | (0) | 0.0 | (0) | 0.0 |
| 기타 | (3) | 3.67 | (3) | 3.67 | (5) | 4.20 | (3) | 5.00 | (5) | 4.60 | (2) | 5.00 | (2) | 4.50 |

(2) 문화예술 분야와 최종 전공의 일치 정도

현재 활동 중인 문화예술 분야와 최종 전공과의 일치 정도는 5점 만점 기준 평균 3.97점으로 나타났다. 최종 전공과 현재 활동 중인 문화예술분야가 일치한다는 응답비율은 67.8%(매우 일치함 49.3% + 일치함 18.4%)로 나타났다.

[그림 III-3-20] 문화예술 분야와 최종 전공의 일치 정도



응답자 활동 분야별로 문화예술 분야와 최종 전공의 일치 정도를 살펴보면, ‘공연예술’이 평균 4.38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전통예술’은 평균 3.0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II-3-34] 문화예술 분야와 최종 전공의 일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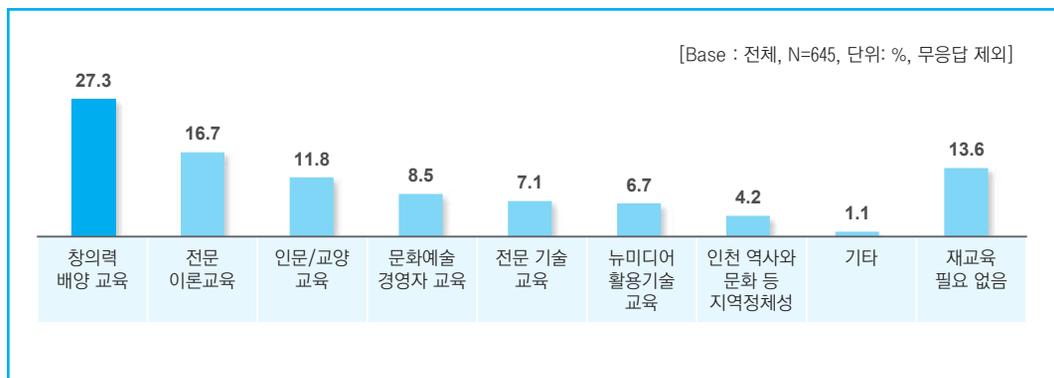
N=645(전체),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전혀 일치하지 않음 | 일치하지 않음 | 보통 | 일치함 | 매우 일치함 | 무응답 | 평균(점) |
|--------|-------|------------|---------|------|-------|--------|------|-------|
| 총계 | (645) | 12.9 | 7.9 | 8.8 | 18.4 | 49.3 | 2.6 | 3.97 |
| 문학 | (111) | 11.7 | 10.8 | 12.6 | 18.0 | 45.9 | 0.9 | 3.76 |
| 시각예술 | (275) | 16.0 | 8.0 | 10.5 | 15.6 | 48.4 | 1.5 | 3.73 |
| 공연예술 | (187) | 5.3 | 1.6 | 3.7 | 25.1 | 59.4 | 4.8 | 4.38 |
| 전통예술 | (52) | 25.0 | 17.3 | 11.5 | 11.5 | 30.8 | 3.8 | 3.06 |
| 영상·미디어 | (10) | 10.0 | 20.0 | 10.0 | 10.0 | 40.0 | 10.0 | 3.56 |
| 다원예술 | (1) | 0.0 | 0.0 | 0.0 | 100.0 | 0.0 | 0.0 | 4.00 |
| 기타 | (9) | 22.2 | 33.3 | 0.0 | 11.1 | 33.3 | 0.0 | 3.00 |

(3)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문화예술 재교육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문화예술 재교육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 ‘창의력 배양 교육’이 27.3%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소속분야별) ‘전문 이론교육’ (16.7%), ‘인문/교양 교육’ (11.8%), ‘문화예술 경영자 교육’ (8.5%), ‘전문 (문화예술 재연)기술 교육’ (7.1%), ‘뉴미디어 활용기술 교육’ (6.7%), ‘인천의 역사와 문화 등 지역정체성 교육’ (4.2%)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전체 응답 중 ‘재교육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3.6%로 나타났다.

[그림 III-3-21]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문화예술 재교육



문화예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창의력 배양’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한 비율은 ‘시각예술’ 분야가 31.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문학’ 분야의 경우 ‘인문·교육’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17.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연예술’ 분야의 경우 일반예술인은 ‘창의력 배양’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28.4%로 가장 높은 반면 시립예술단 소속 예술인은 ‘전문이론’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16.8%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그림 III-3-35]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문화예술 재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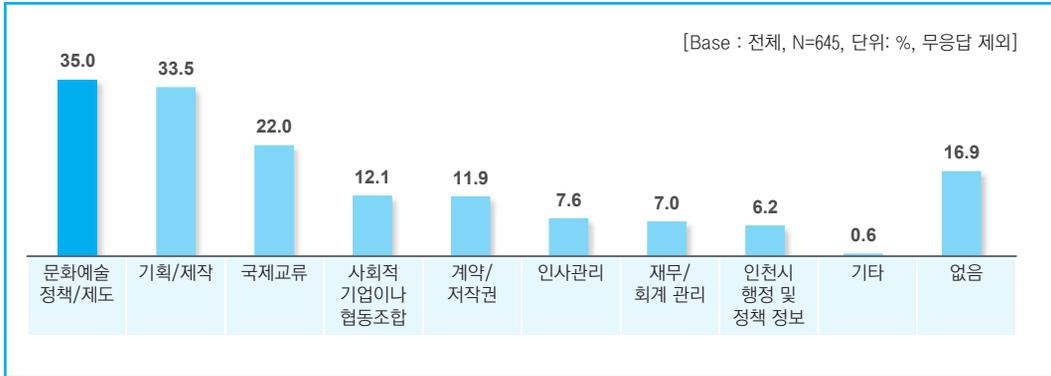
N=645(전체),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창의력 배양 | 전문이론 | 인문·교양 | 문화예술 경영자 | 전문기술 | 뉴미디어 활용 | 인천지역 정체성 | 기타 | 재교육 필요 없음 | 무응답 |
|--------|-------|--------|-------|-------|----------|------|---------|----------|-----|-----------|-----|
| 총계 | (645) | 27.3 | 16.7 | 11.8 | 8.5 | 7.1 | 6.7 | 4.2 | 1.1 | 13.6 | 2.9 |
| 문학 | (111) | 30.6 | 16.2 | 17.1 | 4.5 | 3.6 | 5.4 | 8.1 | 2.7 | 10.8 | 0.9 |
| 시각예술 | (275) | 31.3 | 19.3 | 10.9 | 5.5 | 5.8 | 9.1 | 2.5 | 0.0 | 15.6 | 0.0 |
| 공연예술 | (187) | 20.9 | 13.9 | 9.1 | 11.8 | 10.2 | 4.8 | 4.8 | 2.1 | 12.8 | 9.6 |
| 전통예술 | (52) | 26.9 | 17.3 | 11.5 | 13.5 | 9.6 | 3.8 | 1.9 | 0.0 | 15.4 | 0.0 |
| 영상·미디어 | (10) | 30.0 | 10.0 | 10.0 | 0.0 | 20.0 | 10.0 | 10.0 | 0.0 | 10.0 | 0.0 |
| 다원예술 | (1) | 0.0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기타 | (9) | 0.0 | 0.0 | 33.3 | 66.7 | 0.0 | 0.0 | 0.0 | 0.0 | 0.0 | 0.0 |

(4) 예술인을 위한 행정 및 실무 관련 교육 개설 희망 프로그램

예술인을 위한 행정 및 실무 관련 교육 개설 희망 프로그램에 대해 물어본 결과, ‘문화예술 정책·제도’가 35.0%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획·제작’(33.5%), ‘국제교류’(22.0%),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12.1%), ‘계약·저작권’(11.9%), ‘인사관리’(7.6%), ‘재무·회계 관리’(7.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예술인을 위한 행정 및 실무 관련 교육 개설 희망 프로그램이 ‘없음’이라는 응답율도 16.9%로 나타났다.

[그림 III-3-21] 예술인을 위한 행정 및 실무 관련 교육 개설 희망 프로그램



분야별로는 ‘문화예술정책·제도’라는 응답비율이 높은 예술분야는 ‘문학’ (46.8%), ‘공연예술’ (35.8%), ‘전통예술’ (30.0%) 순으로 조사되었다. ‘시각예술’ 분야에서 행정 및 실무관련 교육 프로그램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기획제작’ (36.0%)이었다. 또한 ‘공연예술’ 분야의 경우 일반예술인은 ‘기획제작’ (40.5%)과 관련된 교육을 희망한 반면, 시립예술단 소속 응답자는 ‘문화예술정책제도’ (35.4%)과 관련된 교육을 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36] 예술인을 위한 행정 및 실무 관련 교육 개설 희망 프로그램

N=645(전체), 복수응답, 단위: %

| 구분 | 사례수 | 문화예술 정책제도 | 기획 제작 | 국제 교류 | 사회적 기업 협동 조합 | 계약 저작권 | 인사 관리 | 재무 회계 관리 | 인천시 행정정책 정보 | 기타 | 없음 | 무응답 |
|--------|-------|-----------|-------|-------|--------------|--------|-------|----------|-------------|-----|------|-----|
| 총계 | (645) | 35.0 | 33.5 | 22.0 | 12.1 | 11.9 | 7.6 | 7.0 | 6.2 | 0.6 | 15.0 | 3.4 |
| 문학 | (111) | 46.8 | 22.5 | 20.7 | 9.0 | 14.4 | 4.5 | 1.8 | 7.2 | 0.0 | 17.1 | 2.7 |
| 시각예술 | (275) | 28.4 | 36.0 | 26.2 | 11.6 | 15.3 | 1.8 | 7.3 | 7.3 | 1.1 | 20.4 | 0.4 |
| 공연예술 | (187) | 35.8 | 34.2 | 20.9 | 11.8 | 8.0 | 17.1 | 9.6 | 4.8 | 0.0 | 5.3 | 9.6 |
| 전통예술 | (52) | 46.2 | 36.5 | 7.7 | 13.5 | 1.9 | 11.5 | 5.8 | 3.8 | 1.9 | 21.2 | 0.0 |
| 영상·미디어 | (10) | 30.0 | 50.0 | 10.0 | 30.0 | 0.0 | 10.0 | 10.0 | 10.0 | 0.0 | 10.0 | 0.0 |
| 다원예술 | (1) | 0.0 | 0.0 | 100.0 | 0.0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 기타 | (9) | 22.2 | 44.4 | 22.2 | 44.4 | 22.2 | 0.0 | 11.1 | 0.0 | 0.0 | 0.0 | 0.0 |

6) 고용 및 복지

(1) 직업 현황⁷⁾

문화예술 활동 이외에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 질문한 결과, 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전문직'이 14.1%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판매직' (5.9%), '사무직' (3.6%), '준전문직' (3.3%), '고위관리직' (2.8%), '기능직' (1.6%)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업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46.4%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활동 분야별로 살펴보면 '시각예술'은 '전문직' (18.2%)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고, '전통예술'은 '서비스·판매직' (13.5%)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Ⅲ-3-37] 직업 현황

N=645(전체),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전문직 | 서비스 판매직 | 사무직 | 준 전문직 | 고위 관리직 | 기능직 | 농임 어업 | 단순 노무직 | 장치, 기계 관련직 | 기타 | 직업 없음 | 무응답 |
|-----------------------|--------|------|------------|------|----------|-----------|-----|----------|-----------|------------------|------|----------|------|
| 2009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 (2000) | 47.9 | 5.9 | 5.0 | 8.4 | 3.4 | 1.7 | 1.4 | 0.2 | 1.7 | 2.3 | 23.8 | 0.4 |
| 총계 | (645) | 14.1 | 5.9 | 3.6 | 3.3 | 2.8 | 1.6 | 0.6 | 0.5 | 0.3 | 11.2 | 46.4 | 9.9 |
| 문학 | (111) | 16.2 | 5.4 | 9.0 | 2.7 | 4.5 | 3.6 | 1.8 | 0.0 | 0.0 | 11.7 | 41.4 | 3.6 |
| 시각예술 | (275) | 18.2 | 5.5 | 2.9 | 3.3 | 2.9 | 1.5 | 0.4 | 1.1 | 0.7 | 14.2 | 44.7 | 4.7 |
| 공연예술 | (187) | 9.1 | 3.2 | 1.6 | 2.1 | 1.6 | 0.0 | 0.0 | 0.0 | 0.0 | 8.0 | 50.3 | 24.1 |
| 전통예술 | (52) | 7.7 | 13.5 | 0.0 | 7.7 | 1.9 | 3.8 | 1.9 | 0.0 | 0.0 | 7.7 | 51.9 | 3.8 |
| 영상·미디어 | (10) | 10.0 | 20.0 | 10.0 | 0.0 | 0.0 | 0.0 | 0.0 | 0.0 | 0.0 | 10.0 | 50.0 | 0.0 |
| 다원예술 | (1)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100.0 | 0.0 |
| 기타 | (9) | 11.1 | 22.2 | 11.1 | 11.1 | 11.1 | 0.0 | 0.0 | 0.0 | 0.0 | 0.0 | 33.3 | 0.0 |

7) <2009 문화예술인실태조사>의 경우 직업 유무와 직업 종류를 설문한데 반해, <2012 인천예술인실태조사>에서는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주요 문화예술 활동 이외의 다른 직업 유무'를 설문하여 두 결과 값의 차이가 있음. 이에 두 결과 값을 단순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있음.

(2) 취업 상태

문화예술 활동 이외에 종사하고 있는 직업으로 현재의 취업 상태를 질문한 결과, '정규직(정식사원, 정식 단원)'이 13.3%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고용주·사업주'가 12.2%, '기간제·계약직·임시직·축탁직'이 12.1%, '자유전문직(프리랜서)'이 4.5% 순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활동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분야 모두 '정규직'이라는 응답비율이 각각 18.0%, 14.5%, 11.2%로 높게 나타났다. '전통예술'의 경우 '고용주·사업주'가 17.3%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3-38] 문화예술 활동 이외의 종사 직업 취업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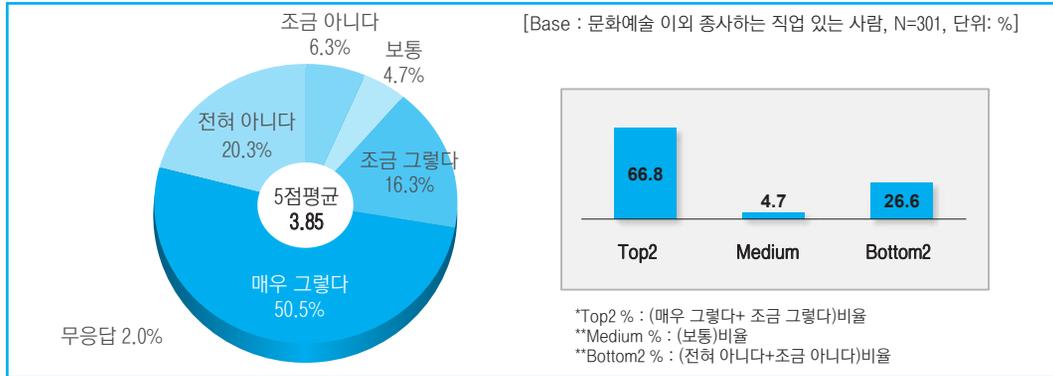
N=645(전체),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정규직 | 기간제·계약·임시·축탁 | 고용주·사업주 | 자유전문직(프리랜서) | 파트타임·기간제근로자 | 파견·용역근로자 | 기타 | 직업없음 | 무응답 |
|--------|-------|------|--------------|---------|-------------|-------------|----------|-----|-------|------|
| 총계 | (645) | 13.3 | 12.1 | 12.2 | 4.5 | 2.5 | 0.2 | 0.2 | 46.4 | 8.7 |
| 문학 | (111) | 18.0 | 10.8 | 17.1 | 8.1 | 0.9 | 0.0 | 0.0 | 41.4 | 3.6 |
| 시각예술 | (275) | 14.5 | 13.1 | 13.5 | 4.7 | 3.6 | 0.0 | 0.4 | 44.7 | 5.5 |
| 공연예술 | (187) | 11.2 | 10.7 | 5.9 | 2.1 | 1.6 | 0.0 | 0.0 | 50.3 | 18.2 |
| 전통예술 | (52) | 7.7 | 15.4 | 17.3 | 1.9 | 1.9 | 0.0 | 0.0 | 51.9 | 3.8 |
| 영상·미디어 | (10) | 0.0 | 10.0 | 10.0 | 20.0 | 10.0 | 0.0 | 0.0 | 50.0 | 0.0 |
| 다원예술 | (1)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100.0 | 0.0 |
| 기타 | (9) | 11.1 | 11.1 | 22.2 | 0.0 | 0.0 | 11.1 | 0.0 | 33.3 | 11.1 |

(3) 직업과 현재 활동하는 문화예술 분야와의 연관성

직업과 현재 활동하는 문화예술 분야와의 연관된 정도는 5점 만점 기준 평균 3.85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직업과 현재 활동하는 문화예술 분야가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6.8%(매우 그렇다 50.5% + 조금 그렇다 16.3%), 보통은 4.7%, 관련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6.6%(조금 아니다 6.3% + 전혀 아니다 20.3%)로 조사되었다.

[그림 III-3-22] 직업과 현재 활동하는 문화예술 분야와의 연관성



응답자 활동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연예술’이 평균 4.48점(기타 4.20점 제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각예술’은 평균 3.68점, ‘전통예술’은 평균 3.52점, ‘문학’은 평균 3.13점 등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39] 직업과 현재 활동하는 문화예술 분야와의 연관성

N=301(문화예술 이외 종사하는 직업 있는 사람),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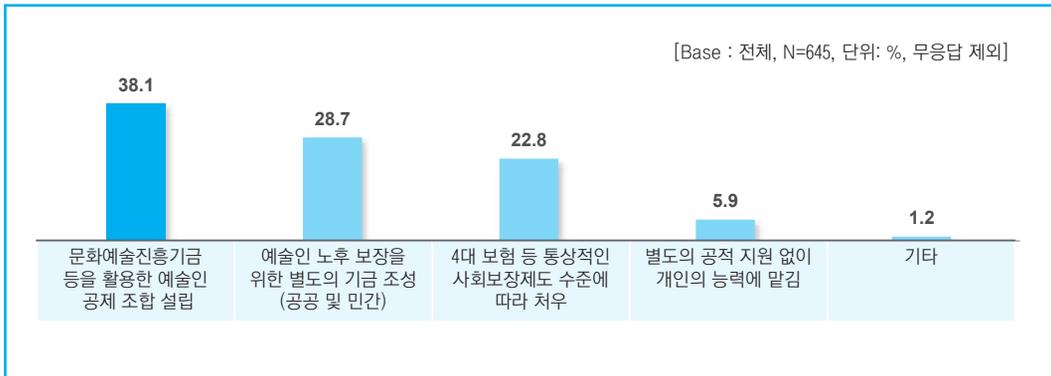
| 구분 | 사례수 | 전혀 아니다 | 조금 아니다 | 보통이다 | 조금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무응답 | 평균(점) |
|--------|-------|--------|--------|------|--------|--------|------|-------|
| 총계 | (301) | 20.3 | 6.3 | 4.7 | 16.3 | 50.5 | 2.0 | 3.85 |
| 문학 | (61) | 26.2 | 13.1 | 9.8 | 23.0 | 27.9 | 0.0 | 3.13 |
| 시각예술 | (140) | 22.9 | 5.7 | 2.9 | 15.7 | 51.4 | 1.4 | 3.68 |
| 공연예술 | (66) | 6.1 | 1.5 | 3.0 | 15.2 | 69.7 | 4.5 | 4.48 |
| 전통예술 | (23) | 30.4 | 4.3 | 4.3 | 4.3 | 56.5 | 0.0 | 3.52 |
| 영상·미디어 | (5) | 40.0 | 20.0 | 0.0 | 0.0 | 40.0 | 0.0 | 2.80 |
| 기타 | (6) | 0.0 | 0.0 | 16.7 | 33.3 | 33.3 | 16.7 | 4.20 |

(4) 예술인들의 노후대비를 위한 지원 형태

예술인들의 노후대비를 위한 지원 형태에 대한 의견을 질문한 결과,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을 활용한 예술인 공제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38.1%로 가장 높은 비율로 확인되었다. 그 다음으로 ‘예술인 노후 보장을 위한 별도의 기금 조성’ (28.7%), ‘4대 보험 등 통상적인 사회보장제도 수준에 따라 처우’ (22.8%), ‘별도의 공적 지원 없이 개인의 능력에 맡김’ (5.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II-3-23] 예술인들의 노후대비를 위한 지원 형태



응답자 활동 분야별로 살펴보면, ‘시각예술’ 분야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을 활용한 예술인 공제조합 설립’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문학’ 분야는 ‘예술인 노후 보장을 위한 별도의 기금 조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연예술’에서는 ‘사회 보장제도 수준에 따라 처우’ (31.6%)와 ‘문화예술 진흥기금 등을 활용한 예술인 공제 조합 설립’ (29.9%)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III-3-40] 예술인들의 노후대비를 위한 지원 형태

N=645(전체),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문화예술 진흥기금 등을 활용한 예술인 공제 조합 설립 | 예술인 노후 보장을 위한 기금조성 | 사회보장제도 수준에 따라 처우 | 별도의 공적 지원 없이 개인의 능력에 맡김 | 기타 | 무응답 |
|--------|-------|-------------------------------|--------------------|------------------|-------------------------|-----|-----|
| 총계 | (645) | 38.1 | 28.7 | 22.8 | 5.9 | 1.2 | 3.3 |
| 문학 | (111) | 28.8 | 31.5 | 27.9 | 9.0 | 0.9 | 1.8 |
| 시각예술 | (275) | 46.2 | 29.1 | 15.3 | 5.8 | 2.5 | 1.1 |
| 공연예술 | (187) | 29.9 | 26.7 | 31.6 | 3.2 | 0.0 | 8.6 |
| 전통예술 | (52) | 40.4 | 30.8 | 21.2 | 7.7 | 0.0 | 0.0 |
| 영상·미디어 | (10) | 40.0 | 30.0 | 20.0 | 10.0 | 0.0 | 0.0 |
| 다원예술 | (1) | 0.0 | 100.0 | 0.0 | 0.0 | 0.0 | 0.0 |
| 기타 | (9) | 66.7 | 0.0 | 22.2 | 11.1 | 0.0 | 0.0 |

7) 4대 보험 가입 여부 및 형식

(1) 건강보험(의료보험) 가입 형식

건강보험(의료보험) 가입 형식을 질문한 결과 ‘사업장’이라는 응답이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지역’이 31.8%, ‘피부양자’가 29.3%, ‘가입 안 함’이 1.6%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건강보험(의료보험) 가입 형식을 응답자 활동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학’과 ‘전통예술’에서 ‘피부양자’로 가입되어 있다는 응답률이 각각 44.1%,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연예술’의 경우 사업장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응답률이 55.1%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시립예술단의 높은 응답률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표 Ⅲ-3-41] 건강보험(의료보험) 가입 형식

N=645(전체),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사업장 | 지역 | 피부양자 | 가입안함 | 무응답 |
|----------------|--------|------|-------|------|------|-----|
| 2009 문화예술인실태조사 | (2000) | 36.0 | 37.4 | 25.0 | 1.3 | 0.4 |
| 총계 | (645) | 35.2 | 31.8 | 29.3 | 1.6 | 2.2 |
| 문학 | (111) | 31.5 | 23.4 | 44.1 | 0.0 | 0.9 |
| 시각예술 | (275) | 25.5 | 40.7 | 32.7 | 0.7 | 0.4 |
| 공연예술 | (187) | 55.1 | 22.5 | 12.8 | 3.2 | 6.4 |
| 전통예술 | (52) | 19.2 | 34.6 | 42.3 | 3.8 | 0.0 |
| 영상·미디어 | (10) | 20.0 | 50.0 | 30.0 | 0.0 | 0.0 |
| 다원예술 | (1) | 0.0 | 100.0 | 0.0 | 0.0 | 0.0 |
| 기타 | (9) | 77.8 | 11.1 | 11.1 | 0.0 | 0.0 |

(2) 국민연금 가입 형식

국민연금 가입 형식을 질문한 결과 ‘사업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지역’이 23.6%, ‘공무원 연금’이 13.0%, ‘사립학교 연금’이 1.2%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가입 안 함’은 30.9%로 나타났다.

활동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학’ (38.7%) 분야와 ‘시각예술’ (34.5%), ‘전통예술’ (42.3%) 분야에서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연예술’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해 ‘공무원 연금’ 가입 비율이 31.6%로 높게 나타난 것은 시립예술단 소속 응답자의 높은 응답률이 반영된 결과이다.

[표 III-3-42] 국민연금 가입 형식

N=645(전체),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사업장 (직장, 학교 포함) | 지역 가입자 | 공무원 연금 | 사립학교 연금 | 가입 안함 | 무응답 |
|----------------|--------|-----------------------|-----------|-----------|------------|----------|-----|
| 2009 문화예술인실태조사 | (2000) | 31.6 | 23.7 | 2.9 | 1.0 | 40.1 | 0.8 |
| 총계 | (645) | 29.1 | 23.6 | 13.0 | 1.2 | 30.9 | 2.2 |
| 문학 | (111) | 36.0 | 18.0 | 4.5 | 1.8 | 38.7 | 0.9 |
| 시각예술 | (275) | 25.8 | 31.6 | 6.2 | 1.8 | 34.5 | 0.0 |
| 공연예술 | (187) | 29.9 | 13.4 | 31.6 | 0.5 | 17.6 | 7.0 |
| 전통예술 | (52) | 21.2 | 32.7 | 3.8 | 0.0 | 42.3 | 0.0 |
| 영상·미디어 | (10) | 30.0 | 10.0 | 10.0 | 0.0 | 50.0 | 0.0 |
| 다원예술 | (1) | 0.0 | 100.0 | 0.0 | 0.0 | 0.0 | 0.0 |
| 기타 | (9) | 77.8 | 11.1 | 0.0 | 0.0 | 11.1 | 0.0 |

(3) 산재보험 가입 여부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질문한 결과 ‘가입했다’는 응답률이 25.6%로 나타났고, ‘가입 안함’이라는 응답률은 60.8%로 조사되었다. 가입 여부를 모른다는 응답비율은 전체 12.2%로 확인되었다.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응답자 활동 분야별로 살펴보면, 산재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자 중에서 ‘공연예술’ 분야의 응답비율이 39.6%로 가장 높았고, ‘전통예술’이 19.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공연예술’ 분야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시립예술단 소속 응답자의 높은 응답률이 반영된 결과이다.

[표 III-3-43] 산재보험 가입 여부

N=645(전체),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가입함 | 가입안함 | 모름 | 무응답 |
|----------------|--------|------|-------|------|-----|
| 2009 문화예술인실태조사 | (2000) | 29.5 | 62.1 | 8.5 | 0.0 |
| 총계 | (645) | 25.6 | 60.8 | 12.2 | 1.4 |
| 문학 | (111) | 21.6 | 64.9 | 12.6 | 0.9 |
| 시각예술 | (275) | 18.2 | 76.7 | 5.1 | 0.0 |
| 공연예술 | (187) | 39.6 | 34.8 | 21.4 | 4.3 |
| 전통예술 | (52) | 19.2 | 65.4 | 15.4 | 0.0 |
| 영상·미디어 | (10) | 30.0 | 50.0 | 20.0 | 0.0 |
| 다원예술 | (1) | 0.0 | 100.0 | 0.0 | 0.0 |
| 기타 | (9) | 44.4 | 44.4 | 11.1 | 0.0 |

(4) 국민연금 가입 여부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질문한 결과 ‘가입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33.2%로 나타났고, ‘가입 안 함’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56.6%로 조사되었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대해 ‘모름’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8.8%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응답자 활동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민연금을 ‘가입했다’는 응답률은 ‘공연예술’ 분야에서 54.0%로 가장 높았고, ‘전통예술’ 분야에서 17.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공연예술’ 분야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시립예술단 소속 예술인의 높은 응답률이 반영된 결과이다.

[표 III-3-44] 국민연금 가입 형식

N=645(전체),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가입함 | 가입안함 | 모름 | 무응답 |
|----------------|--------|------|-------|------|-----|
| 2009 문화예술인실태조사 | (2000) | 29.5 | 62.1 | 8.5 | 0.0 |
| 총계 | (645) | 33.2 | 56.6 | 8.8 | 1.4 |
| 문학 | (111) | 27.0 | 62.2 | 9.9 | 0.9 |
| 시각예술 | (275) | 24.0 | 72.7 | 3.3 | 0.0 |
| 공연예술 | (187) | 54.0 | 27.3 | 14.4 | 4.3 |
| 전통예술 | (52) | 17.3 | 67.3 | 15.4 | 0.0 |
| 영상·미디어 | (10) | 30.0 | 50.0 | 20.0 | 0.0 |
| 다원예술 | (1) | 0.0 | 100.0 | 0.0 | 0.0 |
| 기타 | (9) | 55.6 | 44.4 | 0.0 | 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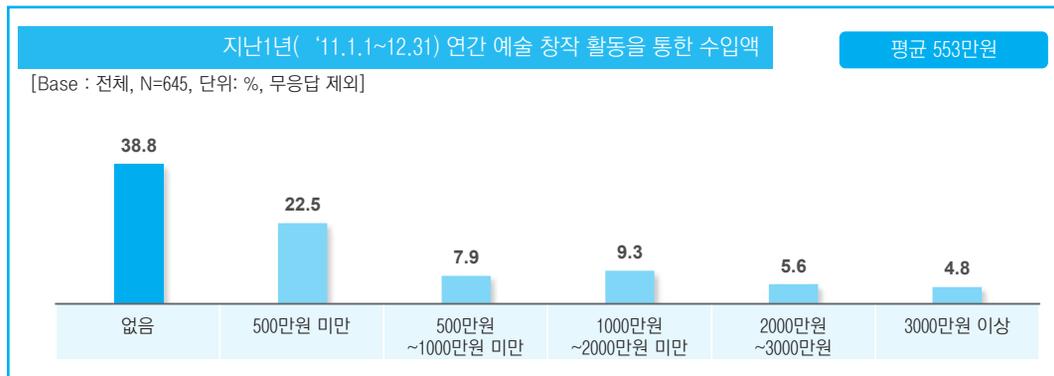
8) 수입과 지출

(1) 수입

① 연간 예술 창작 활동 수입액⁸⁾

지난 1년간 예술 창작 활동을 통한 수입액을 질문한 결과, 전체 평균 553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500만원 미만'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2.5%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창작활동 수입이 '없음' 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38.8%로 나타났다. 창작 활동 수입액이 '없음' 이거나 '500만원 미만' 인 예술인 응답자가 전체 과반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II-3-24] 연간 예술 창작 활동 수입액



응답자 활동 분야별로 연간 예술 창작 활동 수입액을 질문한 결과, '공연예술'이 평균 808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시립예술단 소속 응답자의 응답률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공연예술' 분야 일반예술인의 평균소득은 58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시각예술' 평균 427만원, '전통예술' 평균 283만원, '문학' 평균 168만원 등으로 조사되었다.

8) 예술 창작 활동 수입이란 원고료, 출연료, 작품료, 로열티, 예술단체 단원의 급여 등 예술 작품의 창작과 실연을 통해 얻은 수입을 의미함(지원금 제외)

[표 III-3-45] 연간 예술 창작 활동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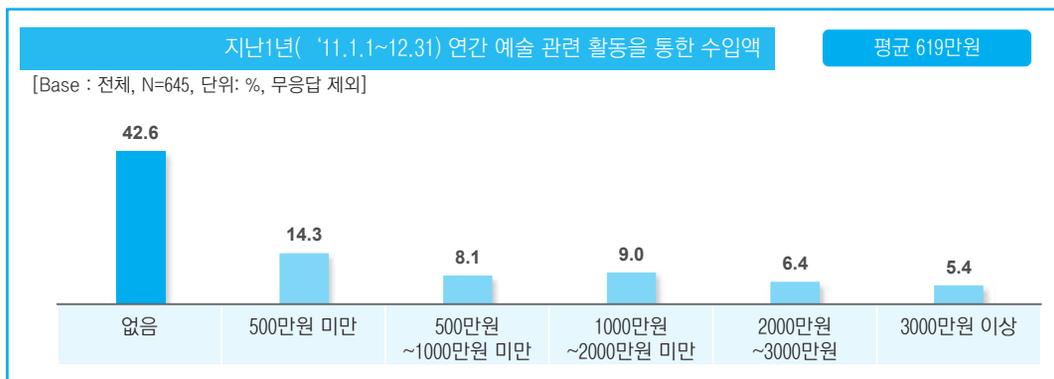
N=645(전체),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없음 | 500만원 미만 | 500만원 ~1000만원 미만 | 1000만원 ~2000만원 미만 | 2000만원 ~3000만원 미만 | 3000만원 이상 | 무응답 | 평균 (만원) |
|--------|-------|------|----------|------------------|-------------------|-------------------|-----------|-------|---------|
| 총계 | (645) | 38.8 | 22.5 | 7.9 | 9.3 | 5.6 | 4.8 | 14.3 | 553.6 |
| 문학 | (111) | 35.1 | 51.4 | 6.3 | 3.6 | 1.8 | 0.9 | 2.7 | 167.6 |
| 시각예술 | (275) | 51.6 | 19.6 | 9.1 | 7.6 | 2.9 | 4.0 | 6.9 | 426.9 |
| 공연예술 | (187) | 20.3 | 8.0 | 5.9 | 13.4 | 12.8 | 10.2 | 35.3 | 808.0 |
| 전통예술 | (52) | 46.2 | 26.9 | 11.5 | 11.5 | 1.9 | 0.0 | 3.8 | 283.1 |
| 영상·미디어 | (10) | 30.0 | 40.0 | 10.0 | 20.0 | 10.0 | 0.0 | 0.0 | 457.0 |
| 다원예술 | (1) | 0.0 | 0.0 | 0.0 | 0.0 | 0.0 | 0.0 | 100.0 | - |
| 기타 | (9) | 44.4 | 11.1 | 11.1 | 22.2 | 0.0 | 0.0 | 11.1 | 342.2 |

② 연간 예술 관련 활동 수입액⁹⁾

지난 1년 간 예술 관련 활동을 통한 수입액을 설문한 결과 ‘없음’이라고 응답한 예술인은 42.6%로 조사되었다.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연간 ‘1,0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2.4%로 조사되었다.

[그림 III-3-25] 연간 예술 관련 활동 수입액



9) 예술 관련 활동 수입이란 예술교육이나 강연, 문학 작품 이외에 글을 써서 받은 원고료 등을 의미함

지난 1년간 예술 관련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은 평균 618만원이었고 예술 관련 활동 수입액이 '5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률은 14.3%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분야별로 살펴보면 연간 예술 관련 활동 수입액은 '공연예술'이 평균 867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전통예술'이 평균 533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46] 연간 예술 관련 활동 수입액

N=645(전체),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없음 | 500만원 미만 | 500만원 ~1000만원 미만 | 1000만원 ~2000만원 미만 | 2000만원 ~3000만원 미만 | 3000만원 이상 | 무응답 | 평균 (만원) |
|--------|-------|------|----------|------------------|-------------------|-------------------|-----------|-------|---------|
| 총계 | (645) | 42.6 | 14.3 | 8.1 | 9.0 | 6.4 | 5.4 | 14.3 | 618.6 |
| 문학 | (111) | 62.2 | 21.6 | 6.3 | 2.7 | 1.8 | 2.7 | 2.7 | 225.2 |
| 시각예술 | (275) | 53.1 | 14.2 | 8.7 | 9.5 | 4.4 | 4.0 | 6.2 | 478.3 |
| 공연예술 | (187) | 15.0 | 8.0 | 7.5 | 9.6 | 11.8 | 11.2 | 36.9 | 867.4 |
| 전통예술 | (52) | 46.2 | 15.4 | 11.5 | 13.5 | 9.6 | 0.0 | 3.8 | 533.3 |
| 영상·미디어 | (10) | 60.0 | 30.0 | 0.0 | 10.0 | 0.0 | 0.0 | 0.0 | 206.0 |
| 다원예술 | (1) | 0.0 | 0.0 | 0.0 | 0.0 | 0.0 | 0.0 | 100.0 | - |
| 기타 | (9) | 22.2 | 33.3 | 11.1 | 33.3 | 0.0 | 0.0 | 0.0 | 436.7 |

〈2009 문화예술인실태조사〉¹⁰⁾와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검토한 결과, 문화 예술 활동 수입 항목에서는 두 조사 모두 '없음'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연간 수입액이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47] 문화예술 활동 수입(09 문화예술인실태조사와 비교)

N=645(전체),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없음 | 120만원 이하 | 121만원 ~240만원 | 241만원 ~600만원 | 601만원 ~1200만원 | 1201만원 ~2400만원 | 2401만원 이상 | 무응답 |
|-----------------|----------|--------|------|----------|--------------|--------------|---------------|----------------|-----------|------|
| 2012 인천예술인 실태조사 | 예술 창작 활동 | (645) | 38.8 | 13.5 | 4.5 | 10.5 | 5.7 | 6.2 | 6.5 | 14.3 |
| | 예술 관련 활동 | (645) | 42.6 | 7.6 | 2.9 | 8.8 | 7.6 | 8.4 | 7.8 | 14.3 |
| 2009 문화예술인실태조사 | | (2000) | 37.4 | 5.1 | 2.6 | 6.9 | 10.8 | 13.8 | 20.2 | 3.4 |

10) 〈2012 인천예술인실태조사〉와 〈2009 문화예술인실태조사〉에서 조사됨. 문화예술 활동 수입을 비교하기 위해 연평균 수입액으로 환산하여 정리된 결과이다.

(2) 지출

① 예술 창작 활동 지출액¹¹⁾

지난 1년간 예술 창작 활동 지출비는 평균 43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5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은 39.1%, 지출비가 ‘없음’이라는 응답은 14.6%로 나타났다.

[표 III-3-48] 연간 예술 창작 활동 지출액

N=645(전체),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없음 | 500만원 미만 | 500만원 ~1000만원 미만 | 1000만원 ~2000만원 미만 | 2000만원 ~3000만원 미만 | 3000만원 이상 | 무응답 | 평균 (만원) |
|--------|-------|------|----------|------------------|-------------------|-------------------|-----------|-------|---------|
| 총계 | (645) | 14.6 | 39.1 | 14.6 | 13.8 | 3.4 | 2.0 | 12.6 | 432.0 |
| 문학 | (111) | 31.5 | 53.2 | 6.3 | 4.5 | 0.9 | 0.9 | 2.7 | 208.2 |
| 시각예술 | (275) | 2.9 | 42.2 | 23.6 | 20.0 | 3.6 | 3.3 | 4.4 | 643.7 |
| 공연예술 | (187) | 18.7 | 22.5 | 8.6 | 11.8 | 4.3 | 0.5 | 33.7 | 342.6 |
| 전통예술 | (52) | 25.0 | 53.8 | 3.8 | 9.6 | 3.8 | 1.9 | 1.9 | 401.6 |
| 영상·미디어 | (10) | 20.0 | 50.0 | 0.0 | 20.0 | 0.0 | 10.0 | 0.0 | 587.0 |
| 다원예술 | (1) | 0.0 | 0.0 | 0.0 | 0.0 | 0.0 | 0.0 | 100.0 | - |
| 기타 | (9) | 11.1 | 22.2 | 44.4 | 0.0 | 11.1 | 0.0 | 11.1 | 491.1 |

11) 예술 창작 활동 지출액이란 공연이나 전시, 출판 등의 활동이나 예술창작 활동 관련 재료비, 도구 수선비 등 제반 비용을 의미함

2. 분야별 설문

1) 문학

(1) 응답자 특성

문학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1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응답자 특성은 ‘주요 활동분야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창작활동을 통한 연간소득별’ 등 총 6가지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주요 활동분야별’ 구분은 ‘시’, ‘소설’, ‘수필’, ‘아동문학’, ‘평론·이론’, ‘시조’, ‘희곡’, ‘복합문학’ 등 8개 유형의 문학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시’ (55.9%)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소설’ (16.2%), ‘수필’ (11.7%), ‘아동문학’ (9.0%), ‘평론·이론’ (4.5%)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시조’, ‘희곡’, ‘복합문학’은 1% 미만의 비율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45.9%로 나타났고, ‘여성’은 54.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가 4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60대 이상’이 29.7%, ‘40대’가 21.6%, ‘30대’가 4.5%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과반수의 응답자가 ‘대졸’ (52.3%)로 나타났다. ‘석사·박사’는 18.0%로 나타났고, ‘대학원 수료’는 9.9%, ‘고졸’은 18.0%, ‘중졸’은 0.9%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직업 없음’이 4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전문직’이 16.2%, ‘사무직’이 9.0%, ‘서비스 판매’와 ‘육체 노동자’가 5.4%, ‘고위관리직’이 4.5%, ‘준 전문직’이 2.7%로 나타났다.

‘창작활동을 통한 연간소득별’로는 ‘1,200만원 미만’이 38.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1,200~2,400만원 미만’이 20.7%로 나타났다. 또한 ‘2,400~3,600만원 미만’의 연간소득을 가진 응답자는 9.0%로 나타났고, ‘3,600만원 이상’은 18.9%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 ‘소득이 없음’은 11.7%로 조사되었다.

[표 III-3-49] 문학 응답자 특성

N=111(전체), 단위 : %

| 전체 | | 사례수 (111) | 백분율 100.0 |
|-------------------|--------------------|--------------|--------------|
| 주요 활동분야별 | 시 | (62) | 55.9 |
| | 소설 | (18) | 16.2 |
| | 수필 | (13) | 11.7 |
| | 아동문학 | (10) | 9.0 |
| | 평론·이론 | (5) | 4.5 |
| | 시조 | (1) | 0.9 |
| | 희곡 | (1) | 0.9 |
| | 복합문학 | (1) | 0.9 |
| 성별 | 남성 | (51) | 45.9 |
| | 여성 | (60) | 54.1 |
| 연령별 | 30대 | (5) | 4.5 |
| | 40대 | (24) | 21.6 |
| | 50대 | (48) | 43.2 |
| | 60대 이상 | (33) | 29.7 |
| | 무응답 | (1) | 0.9 |
| 학력별 | 중졸 | (1) | 0.9 |
| | 고졸 | (20) | 18.0 |
| | 대졸 | (58) | 52.3 |
| | 대학원 수료 | (11) | 9.9 |
| | 석사·박사 | (20) | 18.0 |
| | 무응답 | (1) | 0.9 |
| 직업직 | 고위관리직 | (5) | 4.5 |
| | 전문직 | (18) | 16.2 |
| | 준 전문직 | (3) | 2.7 |
| | 사무직 | (10) | 9.0 |
| | 서비스 판매 | (6) | 5.4 |
| | 육체 노동자 | (6) | 5.4 |
| | 기타 | (13) | 11.7 |
| | 직업 없음 | (46) | 41.4 |
| | 무응답 | (4) | 3.6 |
| 창작활동을 통한 연간소득별 | 없음 | (13) | 11.7 |
| | 1200만원 미만 | (43) | 38.7 |
| | 1,200만원~2,400만원 미만 | (23) | 20.7 |
| | 2,400만원~3,600만원 미만 | (10) | 9.0 |
| | 3,600만원 이상 | (21) | 18.9 |
| 무응답 | (1) | 0.9 | |

(2) 활동부문

주로 활동하는 문학부문을 질문한 결과, '시'가 55.9%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소설' (16.2%), '수필' (11.7%), '아동문학' (9.0%), '평론·이론' (4.5%), '시조' (0.9%), '복합문학' (0.9%), '희곡' (0.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50] 주로 활동하는 문학 분야

N=111(문학분야 응답자), 단위 : %

| | 사례수 | 시 | 소설 | 수필 | 아동문학 | 평론·이론 | 시조 | 복합문학 | 희곡 |
|----|-------|------|------|------|------|-------|-----|------|-----|
| 총계 | (111) | 55.9 | 16.2 | 11.7 | 9.0 | 4.5 | 0.9 | 0.9 | 0.9 |

(3) 활동 시작 시기

각 문학부문의 '활동 시작 시기'를 질문한 결과, '1990년 이후~2000년 이전'이 40.5%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2000년 이후~2010년 이전' (35.1%), '1990년 이전' (22.5%), '2010년 이후' (1.8%)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문학 분야별로 '소설'은 '2000년 이후~2010년 이전' (50.5%)에 활동을 시작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시'는 '1990년 이후~2000년 이전' (40.3%)에, '수필'은 '1990년 이후~2000년 이전' (61.5%)에, '아동문학'은 '1990년 이후~2000년 이전' (40.0%)에, '희곡'은 '2000년 이후~2010년 이전' (100.0%), '평론·이론'은 '2000년 이후~2010년 이전'과 '1990년 이전' (40.0%), '복합문학'은 '1990년 이후~2000년 이전' (100.0%)부터 활동을 시작했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3-51] 문학부문 활동 시작 시기

N=111(문학분야 응답자), 단위 : %

| | 사례수 | 1990년 이후~2000년 이전 | 2000년 이후~2010년 이전 | 1990년 이전 | 2010년 이후 |
|-------|-------|-------------------|-------------------|----------|----------|
| 총계 | (111) | 40.5 | 35.1 | 22.5 | 1.8 |
| 소설 | (18) | 33.3 | 50.0 | 16.7 | 0.0 |
| 시 | (62) | 40.3 | 35.5 | 21.0 | 3.2 |
| 시조 | (1) | 0.0 | 100.0 | 0.0 | 0.0 |
| 수필 | (13) | 61.5 | 7.7 | 30.8 | 0.0 |
| 아동문학 | (10) | 40.0 | 30.0 | 30.0 | 0.0 |
| 희곡 | (1) | 0.0 | 100.0 | 0.0 | 0.0 |
| 평론·이론 | (5) | 20.0 | 40.0 | 40.0 | 0.0 |
| 복합문학 | (1) | 100.0 | 0.0 | 0.0 | 0.0 |

(4) 해당 문학부문의에서의 첫 활동 방식

주로 활동하는 문학 부문에서의 첫 활동 방식(데뷔방식)을 질문한 결과, ‘문예지 추천 또는 신인문학상 수상’이 64.9%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일간지 신춘문에 당선’ (11.7%), ‘동인활동 참여’ (8.1%), ‘공모전 입상’ (6.3%), ‘작품집 출간’ (4.5%), ‘기타’ (4.5%)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문학 분야별로 살펴보면 ‘시’ (69.4%), ‘수필’ (69.2%), ‘아동문학’ (50.0%)의 과반수는 ‘문예지 추천, 신인문학상 수상’으로 첫 활동을 시작했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표 Ⅲ-3-52] 해당 문학부문의에서의 첫 활동 방식

N=111(문학분야 응답자),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문예지 추천, 신인문학상 수상 | 일간지 신춘문에 당선 | 동인활동 참여 | 공모전 입상 | 작품집 출간 | 기타 |
|-------|-------|---------------------|----------------|------------|-----------|-----------|------|
| 총계 | (111) | 64.9 | 11.7 | 8.1 | 6.3 | 4.5 | 4.5 |
| 시 | (62) | 69.4 | 6.5 | 8.1 | 6.5 | 4.8 | 4.8 |
| 시조 | (1) | 0.0 | 100.0 | 0.0 | 0.0 | 0.0 | 0.0 |
| 수필 | (13) | 69.2 | 0.0 | 15.4 | 0.0 | 0.0 | 15.4 |
| 아동문학 | (10) | 50.0 | 20.0 | 10.0 | 10.0 | 10.0 | 0.0 |
| 희곡 | (1) | 0.0 | 100.0 | 0.0 | 0.0 | 0.0 | 0.0 |
| 평론·이론 | (5) | 40.0 | 40.0 | 20.0 | 0.0 | 0.0 | 0.0 |
| 복합문학 | (1) | 0.0 | 0.0 | 0.0 | 0.0 | 100.0 | 0.0 |

(5) 지난 3년간 문학 분야 활동 내용

① 문학잡지 게재

‘지난 3년간 문학잡지 게재 활동 내용’을 질문한 결과, 평균 작품 13.5편으로 응답하였고 작품 ‘6~10편’이 25.2%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5편’과 ‘11~20편’을 게재했다는 응답비율이 각각 22.5%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문학 분야별 문학잡지 게재 평균을 살펴봤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시’ 평균 17편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수필’ 평균 13.2편, ‘아동문학’ 평균 12.3편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53] 문학잡지 게재 활동 내용

N=111(문학분야 응답자), 단위 : %, 편

| 구분 | 사례수 | 없음 | 1~5편 | 6~10편 | 11~20편 | 21~29편 | 30~39편 | 40~49편 | 50편 이상 | 평균(편) | 경험자 평균(편) |
|-------|-------|------|-------|-------|--------|--------|--------|--------|--------|-------|-----------|
| 총계 | (111) | 13.5 | 22.5 | 25.2 | 22.5 | 1.8 | 6.3 | 1.8 | 6.3 | 13.5 | 15.6 |
| 소설 | (18) | 33.3 | 38.9 | 22.2 | 0.0 | 5.6 | 0.0 | 0.0 | 0.0 | 4.3 | 6.4 |
| 시 | (62) | 8.1 | 19.4 | 27.4 | 22.6 | 1.6 | 9.7 | 1.6 | 9.7 | 17.0 | 18.5 |
| 시조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0.0 | 0.0 | 10.0 | 10.0 |
| 수필 | (13) | 7.7 | 15.4 | 15.4 | 53.8 | 0.0 | 0.0 | 0.0 | 7.7 | 13.2 | 14.3 |
| 아동문학 | (10) | 10.0 | 20.0 | 30.0 | 30.0 | 0.0 | 0.0 | 10.0 | 0.0 | 12.3 | 13.7 |
| 희곡 | (1) | 0.0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5.0 | 5.0 |
| 평론·이론 | (5) | 40.0 | 20.0 | 20.0 | 20.0 | 0.0 | 0.0 | 0.0 | 0.0 | 5.6 | 9.3 |
| 복합문학 | (1) | 0.0 | 0.0 | 0.0 | 0.0 | 0.0 | 100.0 | 0.0 | 0.0 | 30.0 | 30.0 |

② 작품집(단행본)발간

지난 3년간 개인 작품집 활동은 평균 0.9권으로 조사되었으며, 장르별로는 ‘아동문학’이 평균 2.2권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설’, ‘시’ 부문이 각각 평균 0.8권 등의 순이다. 단체 작품집 활동의 경우 평균 2.3권으로 조사되었으며 분야별로 ‘수필’ 평균 8.2권, ‘아동문학’ 평균 4.2권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54] 작품집(단행본)발간 권수

N=111(문학분야 응답자), 단위 : 권

| 구분 | 사례수 | 개인 작품집 | | 단체 작품집 | |
|-------|-------|--------|--------|--------|--------|
| | | 평균 | 경험자 평균 | 평균 | 경험자 평균 |
| 총계 | (111) | 0.9 | 2.1 | 2.3 | 4.1 |
| 소설 | (18) | 0.8 | 1.7 | 3.1 | 0.0 |
| 시 | (62) | 0.8 | 2.0 | 3.9 | 0.0 |
| 시조 | (1) | 0.0 | 0.0 | 0.0 | 0.0 |
| 수필 | (13) | 0.7 | 1.5 | 8.2 | 8.2 |
| 아동문학 | (10) | 2.2 | 3.7 | 4.2 | 4.2 |
| 희곡 | (1) | 0.0 | 0.0 | 2.0 | 2.0 |
| 평론·이론 | (5) | 0.0 | 0.0 | 3.0 | 3.0 |
| 복합문학 | (1) | 0.0 | 0.0 | 0.0 | 0.0 |

③ 문학행사 기획 및 운영

지난 3년간 ‘문학행사 기획 및 운영’ 활동 경험이 있다는 응답비율은 전체 20% 미만이고, 운영횟수는 평균 0.8건로 조사되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시’와 ‘수필’이 평균 0.8건로 가장 많았고, ‘아동문학’은 평균 0.7건이었다. 그 밖에 ‘소설’ 평균 0.4회, ‘평론·이론’ 평균 1.4건 등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55] 문학행사 기획 및 운영 횟수

N=111(문학분야 응답자), 단위 : %, 건

| 구분 | 사례수 | 없음 | 2회 | 3회 | 5회 | 6회 이상 | 평균(건) | 경험자 평균(건) |
|-------|-------|-------|------|------|------|-------|-------|-----------|
| 총계 | (111) | 81.1 | 6.3 | 5.4 | 4.5 | 2.7 | 0.8 | 4.0 |
| 소설 | (18) | 88.9 | 0.0 | 5.6 | 5.6 | 0.0 | 0.4 | 4.0 |
| 시 | (62) | 82.3 | 4.8 | 4.8 | 3.2 | 4.8 | 0.8 | 4.6 |
| 시조 | (1)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 수필 | (13) | 76.9 | 7.7 | 7.7 | 7.7 | 0.0 | 0.8 | 3.3 |
| 아동문학 | (10) | 80.0 | 10.0 | 0.0 | 10.0 | 0.0 | 0.7 | 3.5 |
| 희곡 | (1)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 평론·이론 | (5) | 40.0 | 40.0 | 20.0 | 0.0 | 0.0 | 1.4 | 2.3 |
| 복합문학 | (1)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6) 문학 분야 창작 및 발표 활동의 애로사항

인천에서 창작 및 발표 활동을 하는데 어려운 점을 복수응답으로 물어본 결과, ‘행정당국의 관심 및 지원 부족’이 42.3%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역 문예지 등 발표 지면 부족’이 37.8%, ‘수입이 적거나 일정치 않아 예술 활동 몰입 어려움’이 35.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어려운 점 없음’이라는 응답비율은 전체 32.4%로 나타났다.

문학 분야별로는 ‘소설’ (50.0%) 과 ‘수필’ (53.8%), ‘아동문학’ (60.0%)은 ‘행정 당국의 관심 및 지원 부족’이라는 응답율이 높았고, ‘시’ (50.0%)는 ‘지역 문예지 등 발표지면 부족’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평론·이론’은 ‘문인들의 인맥·학연·단체 중심 활동’ (40.0%)과 ‘전문정보수집 어려움’ (40.0%)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사례수가 적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표 III-3-56] 문학 분야 창작 및 발표 활동의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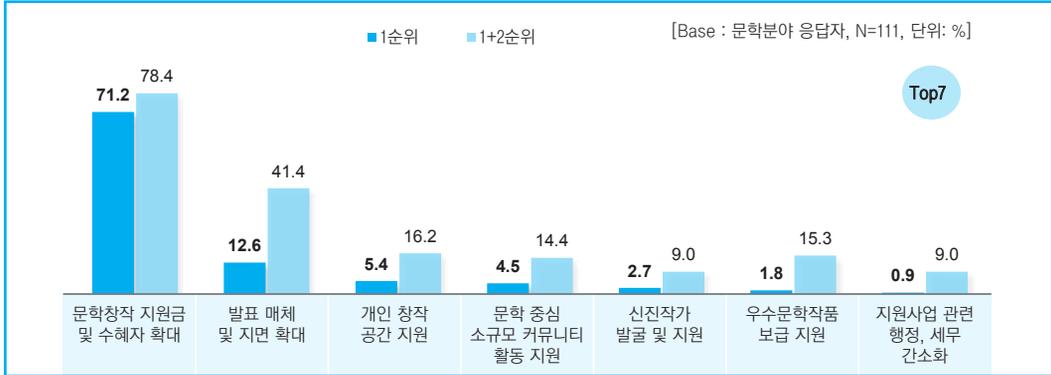
N=111(문학분야 응답자), 복수응답,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행정 당국의 관심, 지원 부족 | 지역 문예지 등 발표 지면 부족 | 수입이 적거나 일정치 않아 예술 활동 몰입 어려움 | 인맥·학연·단체 중심 활동 | 창작물 유통 어려움, 홍보 부족 | 독자 및 관심 부족 | 전문 정보 수집 어려움 | 기타 | 없음 |
|-------|-------|------------------|-------------------|-----------------------------|----------------|-------------------|------------|--------------|-----|-------|
| 총계 | (111) | 42.3 | 37.8 | 35.1 | 13.5 | 11.7 | 8.1 | 4.5 | 0.9 | 32.4 |
| 소설 | (18) | 50.0 | 33.3 | 33.3 | 16.7 | 16.7 | 5.6 | 0.0 | 0.0 | 22.2 |
| 시 | (62) | 35.5 | 50.0 | 35.5 | 8.1 | 14.5 | 11.3 | 3.2 | 1.6 | 27.4 |
| 시조 | (1) | 0.0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100.0 |
| 수필 | (13) | 53.8 | 23.1 | 30.8 | 30.8 | 0.0 | 7.7 | 0.0 | 0.0 | 38.5 |
| 아동문학 | (10) | 60.0 | 10.0 | 50.0 | 10.0 | 0.0 | 0.0 | 10.0 | 0.0 | 50.0 |
| 희곡 | (1)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0.0 | 0.0 | 0.0 |
| 평론·이론 | (5) | 20.0 | 0.0 | 20.0 | 40.0 | 0.0 | 0.0 | 40.0 | 0.0 | 80.0 |
| 복합문학 | (1) | 100.0 | 0.0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7) 인천 문학 분야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사업)

인천 문학 분야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사업)을 물어본 결과(1순위 기준) ‘문학 창작 지원금 및 수혜자 확대’가 71.2%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발표 매체 및 지면 확대’ (12.6%), ‘개인 창작공간 지원’ (5.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문학 중심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 지원’ (4.5%), ‘신진작가 발굴 및 지원’ (2.7%), ‘우수문학작품 보급 지원’ (1.8%), ‘지원사업 관련 행정, 세무 간소화’ (0.9%)로 나타났다. 그 밖에 기타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 ‘해외/국내 타도시, 타장르 등과 예술 활동 교류’, ‘저작권, 심의기준 관련 자문 시스템 구축’,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온라인 발표 지원’ 등의 의견이 조사되었다.

[그림 III-3-26] 인천 문학 분야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사업)



문학 장르별로 살펴보면, 소설 부문 응답자의 경우 ‘개인 창작 공간 지원’, 시와 수필 부문은 ‘발표 매체 및 지면 확대’에 관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3-57] 인천 문학 분야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사업)

N=111(문학분야 응답자), 1순위,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문학창작 지원금 및 수혜자 확대 | 발표 매체 및 지면 확대 | 개인 창작 공간 지원 | 문학 중심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 지원 | 신진작가 발굴 및 지원 | 우수 문학작품 보급 지원 | 지원 사업 관련 행정, 세무 간소화 | 예술 활동 교류 (해외, 국내, 타장르 등) |
|-------|-------|-------------------|---------------|-------------|----------------------|--------------|---------------|---------------------|--------------------------|
| 총계 | (111) | 71.2 | 12.6 | 5.4 | 4.5 | 2.7 | 1.8 | 0.9 | 0.9 |
| 소설 | (18) | 61.1 | 11.1 | 16.7 | 0.0 | 5.6 | 5.6 | 0.0 | 0.0 |
| 시 | (62) | 66.1 | 16.1 | 4.8 | 6.5 | 1.6 | 1.6 | 1.6 | 1.6 |
| 시조 | (1)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수필 | (13) | 84.6 | 7.7 | 0.0 | 7.7 | 0.0 | 0.0 | 0.0 | 0.0 |
| 아동문학 | (10)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희곡 | (1)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평론·이론 | (5) | 60.0 | 20.0 | 0.0 | 0.0 | 20.0 | 0.0 | 0.0 | 0.0 |
| 복합문학 | (1)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2) 시각예술

(1) 응답자 특성

시각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2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응답자 특성은 ‘주요 활동분야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창작활동을 통한 연간소득별’ 등 총 6가지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주요 활동분야별’ 구분은 ‘한국화’, ‘서양화’, ‘문인화’, ‘서예’, ‘판화’, ‘조각’, ‘만화·일러스트’, ‘공예’, ‘사진’, ‘평론·이론’, ‘뉴미디어 및 설치’, ‘복합시각예술’, ‘기타’ 등 13개 장르로 구성하였다. 응답자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장르는 ‘서양화’ (37.5%)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사진’ (17.1%), ‘한국화’ (12.0%), ‘공예’ (7.6%), ‘서예’ (7.3%), ‘조각’ (5.1%), ‘문인화’ (4.0%), ‘복합시각예술’ (3.6%), ‘뉴미디어 및 설치’ (1.5%)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 ‘판화’, ‘평론·이론’, ‘만화·일러스트’는 1% 미만의 비율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58.5%였고, ‘여성’은 41.5%였다.

‘연령별’로는 ‘50대’가 4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60대 이상’이 28.7%, ‘40대’가 18.2%, ‘30대’가 6.5%, ‘20대’가 1.5%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의 응답자가 ‘대졸’ (43.3%)로 나타났다. ‘석사·박사’는 25.1%, ‘대학원 수료’는 12.4%, ‘고졸’은 17.1%, ‘중졸’은 1.8%로 나타났다. 그 외에 ‘무학’은 0.4%였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직업 없음’이 4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전문직’ 18.2%, ‘서비스 판매’ 5.5%, ‘육체 노동자’ 3.6%, ‘준 전문직’ 3.3%, ‘사무직’과 ‘고위관리직’이 각각 2.9%로 나타났다. 그 외에 ‘기타’ 14.2%, ‘무응답’ 4.7%였다.

‘창작활동을 통한 연간소득별’로 살펴보면 ‘1,200만원 미만’이 2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3,600만원 이상’이 22.2%로 조사되었다. 또한 연간소득 ‘2,400만원~3,600만원 미만’ 응답자는 12.7%, ‘1,200만원~2,400만원 미만’이 17.5%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 ‘소득이 없음’은 16.4%, ‘무응답’은 4.4%였다.

[표 III-3-58] 시각예술 응답자 특성

N=275(전체), 단위 : %

| 전체 | | 사례수 (275) | 백분율 100.0 |
|------------------|--------------------|--------------|--------------|
| 주요 활동분야 | 한국화 | (33) | 12.0 |
| | 서양화 | (103) | 37.5 |
| | 문인화 | (11) | 4.0 |
| | 서예 | (20) | 7.3 |
| | 판화 | (2) | 0.7 |
| | 조각 | (14) | 5.1 |
| | 만화·일러스트 | (1) | 0.4 |
| | 공예 | (21) | 7.6 |
| | 사진 | (47) | 17.1 |
| | 평론·이론 | (2) | 0.7 |
| | 뉴미디어 및 설치 | (4) | 1.5 |
| | 복합시각예술 | (10) | 3.6 |
| | 기타 | (7) | 2.5 |
| 성 | 남성 | (161) | 58.5 |
| | 여성 | (114) | 41.5 |
| 연령 | 20대 | (4) | 1.5 |
| | 30대 | (18) | 6.5 |
| | 40대 | (50) | 18.2 |
| | 50대 | (124) | 45.1 |
| | 60대 이상 | (79) | 28.7 |
| 학력 | 무학 | (1) | 0.4 |
| | 중졸 | (5) | 1.8 |
| | 고졸 | (47) | 17.1 |
| | 대졸 | (119) | 43.3 |
| | 대학원 수료 | (34) | 12.4 |
| | 석사·박사 | (69) | 25.1 |
| | 고위관리직 | (8) | 2.9 |
| 직업 | 전문직 | (50) | 18.2 |
| | 준 전문직 | (9) | 3.3 |
| | 사무직 | (8) | 2.9 |
| | 서비스 판매 | (15) | 5.5 |
| | 육체 노동자 | (10) | 3.6 |
| | 기타 | (39) | 14.2 |
| | 직업 없음 | (123) | 44.7 |
| | 무응답 | (13) | 4.7 |
| | 없음 | (45) | 16.4 |
| 창작활동을 통한 연간소득 | 1,200만원 미만 | (74) | 26.9 |
| | 1,200만원~2,400만원 미만 | (48) | 17.5 |
| | 2,400만원~3,600만원 미만 | (35) | 12.7 |
| | 3,600만원 이상 | (61) | 22.2 |
| | 무응답 | (12) | 4.4 |

(2) 활동부문

주로 활동하는 시각예술 부문을 질문한 결과, ‘서양화’가 37.5%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사진’ (17.1%), ‘한국화’ (12.0%), ‘공예’ (7.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조각’은 5.1%, ‘문인화’ (4.0%), ‘복합시각예술’ (3.6%), ‘뉴미디어 및 설치’ (1.5%)로 나타났다. 그 밖에 ‘판화’, ‘평론·이론’은 각각 0.7%, ‘만화·일러스트’ 0.4%, ‘기타’는 2.5%로 조사되었다.

[표 III-3-59] 주로 활동하는 시각예술 부문

N=275(시각예술 분야 응답자),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서양화 | 사진 | 한국화 | 서예 | 공예 | 조각 | 문인화 | 복합 시각 예술 | 뉴 미디어 및 설치 | 판화 | 평론·이론 | 만화·일러스트 | 기타 |
|----|-------|------|------|------|-----|-----|-----|-----|----------|------------|-----|-------|---------|-----|
| 총계 | (275) | 37.5 | 17.1 | 12.0 | 7.3 | 7.6 | 5.1 | 4.0 | 3.6 | 1.5 | 0.7 | 0.7 | 0.4 | 2.5 |

(3) 지난 3년간 시각예술 분야 활동 내용

① 전시(발표)

지난 3년간 개인 전시 활동 내용을 질문한 결과, ‘개인 전시’는 평균 1.4회(경험자평균 2.5회), ‘단체 전시’는 평균 16.4회(경험자평균 17.8회), ‘기획 전시’는 평균 2.9회(경험자평균 4.4회)로 조사되었다. 시각예술 장르별로는 개인 전시의 경우 ‘서양화’ (평균 2.1회), ‘조각’ (평균 2.5회) 등의 장르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전시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 전시 횟수의 평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르는 ‘서양화’ (평균 18.9회)로 조사되었으며, 기획 전시 횟수의 평균 비율이 높은 장르는 ‘조각’ (평균 7.0회)으로 나타났다. ‘뉴 미디어 및 설치’, ‘복합시각 예술’ 장르의 전시(발표)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표 Ⅲ-3-60] 개인 전시 발표 활동 횟수

N=275(시각예술 분야 전체), 단위: 회

| 구분 | 사례수 | 개인 전시 | | 단체 전시 | | 기획 전시 | |
|-----------|-------|-------|--------|-------|--------|-------|--------|
| | | 평균 | 경험자 평균 | 평균 | 경험자 평균 | 평균 | 경험자 평균 |
| 총계 | (275) | 1.4 | 2.5 | 16.4 | 17.8 | 2.9 | 4.4 |
| 한국화 | (33) | 1.5 | 2.2 | 17.6 | 18.1 | 2.2 | 3.7 |
| 서양화 | (103) | 2.1 | 2.9 | 18.9 | 19.5 | 3.1 | 6.2 |
| 문인화 | (11) | 1.3 | 2.3 | 16.2 | 22.3 | 1.7 | 3.8 |
| 서예 | (20) | 0.6 | 1.4 | 8.8 | 9.2 | 1.4 | 5.4 |
| 판화 | (2) | 3.0 | 6.0 | 32.5 | 65.0 | 0.0 | 0.0 |
| 조각 | (14) | 2.5 | 3.5 | 29.1 | 34.0 | 7.0 | 8.9 |
| 만화·일러스트 | (1) | 0.0 | 0.0 | 0.0 | 0.0 | 0.0 | 0.0 |
| 공예 | (21) | 1.0 | 1.8 | 18.9 | 20.9 | 1.6 | 3.3 |
| 사진 | (47) | 0.6 | 2.0 | 9.0 | 9.8 | 1.7 | 5.3 |
| 평론·이론 | (2) | 0.0 | 0.0 | 1.5 | 3.0 | 0.0 | 0.0 |
| 뉴미디어 및 설치 | (4) | 2.3 | 3.0 | 29.8 | 29.8 | 14.0 | 14.0 |
| 복합시각예술 | (10) | 1.4 | 1.8 | 17.6 | 19.6 | 8.3 | 10.4 |
| 기타 | (7) | 1.4 | 2.5 | 4.1 | 5.8 | 3.1 | 7.3 |

② 평론·논문

지난 3년간 평론·논문 활동 내용을 질문한 결과, 평균 0.9편(경험자평균 9.1회)의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편'이라는 응답은 5.8%, '2편'은 2.2%, '3편'과 '4편'이라는 응답은 각각 0.4%, '5편 이상'이라는 응답은 1.1%로 조사되었다.

[표 Ⅲ-3-61] 평론·논문 발표 편수

N=275(시각예술 분야 전체), 단위: %, 편

| 구분 | 사례수 | 없음 | 1편 | 2편 | 3편 | 4편 | 5편 이상 | 평균(편) | 경험자평균(편) |
|-----------|-------|-------|------|------|------|-----|-------|-------|----------|
| 총계 | (275) | 90.2 | 5.8 | 2.2 | 0.4 | 0.4 | 1.1 | 0.9 | 9.1 |
| 한국화 | (33)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서양화 | (103) | 90.3 | 5.8 | 2.9 | 0.0 | 1.0 | 0.0 | 0.2 | 1.6 |
| 문인화 | (11) | 90.9 | 9.1 | 0.0 | 0.0 | 0.0 | 0.0 | 0.1 | 1.0 |
| 서예 | (20) | 95.0 | 5.0 | 0.0 | 0.0 | 0.0 | 0.0 | 0.1 | 1.0 |
| 판화 | (2)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조각 | (14) | 78.6 | 21.4 | 0.0 | 0.0 | 0.0 | 0.0 | 0.2 | 1.0 |
| 만화·일러스트 | (1)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공예 | (21) | 81.0 | 14.3 | 4.8 | 0.0 | 0.0 | 0.0 | 0.2 | 1.3 |
| 사진 | (47) | 97.9 | 0.0 | 2.1 | 0.0 | 0.0 | 0.0 | 0.0 | 2.0 |
| 평론·이론 | (2) | 50.0 | 0.0 | 0.0 | 0.0 | 0.0 | 50.0 | 100.0 | 200.0 |
| 뉴미디어 및 설치 | (4) | 25.0 | 25.0 | 25.0 | 0.0 | 0.0 | 25.0 | 2.3 | 3.0 |
| 복합시각예술 | (10) | 80.0 | 10.0 | 0.0 | 10.0 | 0.0 | 0.0 | 0.4 | 2.0 |
| 기타 | (7) | 85.7 | 0.0 | 0.0 | 0.0 | 0.0 | 14.3 | 0.7 | 5.0 |

③ 전시·행사 기획 및 운영

지난 3년간 전시·행사 기획 및 운영 횟수를 질문한 결과, 평균 1.2건(경험자 평균 4.4건)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건’ (5.1%), ‘2건’ (6.9%), ‘3건’ (5.1%), ‘4건’ (0.4%), ‘5~9건’ (6.5%), ‘10건 이상’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9%로 나타났다.

장르별로 살펴보면 ‘문인화’ (1.9건), ‘한국화’ (1.3건), ‘서양화’ (1.3건) 장르에서 전시·행사 기획 및 운영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예술 분야에서 전시·행사 기획 및 운영 횟수의 평균이 1건 이상인 장르는 ‘한국화’ (1.3건), ‘서양화’ (1.3건), ‘문인화’ (1.9건), ‘복합시각예술’ (1.4건) 등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62] 전시/행사 기획 및 운영 횟수

N=275(시각예술 분야 전체), 단위: %, 건

| 구분 | 사례수 | 없음 | 1건 | 2건 | 3건 | 4건 | 5~9건 | 10건 이상 | 평균(건) | 경험자 평균(건) |
|-----------|-------|-------|------|------|------|-----|------|--------|-------|-----------|
| 총계 | (275) | 73.1 | 5.1 | 6.9 | 5.1 | 0.4 | 6.5 | 2.9 | 1.2 | 4.4 |
| 한국화 | (33) | 75.8 | 0.0 | 6.1 | 6.1 | 0.0 | 6.1 | 6.1 | 1.3 | 5.3 |
| 서양화 | (103) | 68.9 | 4.9 | 8.7 | 4.9 | 1.0 | 8.7 | 2.9 | 1.3 | 4.3 |
| 문인화 | (11) | 81.8 | 9.1 | 0.0 | 0.0 | 0.0 | 0.0 | 9.1 | 1.9 | 10.5 |
| 서예 | (20) | 85.0 | 5.0 | 0.0 | 5.0 | 0.0 | 5.0 | 0.0 | 0.5 | 3.0 |
| 판화 | (2)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조각 | (14) | 64.3 | 21.4 | 7.1 | 7.1 | 0.0 | 0.0 | 0.0 | 0.6 | 1.6 |
| 만화·일러스트 | (1)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공예 | (21) | 71.4 | 4.8 | 19.0 | 0.0 | 0.0 | 4.8 | 0.0 | 0.7 | 2.5 |
| 사진 | (47) | 83.0 | 4.3 | 0.0 | 2.1 | 0.0 | 8.5 | 2.1 | 0.9 | 5.0 |
| 평론·이론 | (2) | 50.0 | 0.0 | 0.0 | 0.0 | 0.0 | 0.0 | 50.0 | 15.0 | 30.0 |
| 뉴미디어 및 설치 | (4) | 50.0 | 0.0 | 0.0 | 50.0 | 0.0 | 0.0 | 0.0 | 1.5 | 3.0 |
| 복합시각예술 | (10) | 50.0 | 10.0 | 10.0 | 20.0 | 0.0 | 10.0 | 0.0 | 1.4 | 2.8 |
| 기타 | (7) | 71.4 | 0.0 | 28.6 | 0.0 | 0.0 | 0.0 | 0.0 | 0.6 | 2.0 |

(4) 시각예술 분야 창작 및 발표 활동의 애로사항

시각예술 분야 예술인이 인천에서 창작 및 발표 활동을 하는데 겪는 어려운 점을 복수응답으로 질문한 결과, ‘수입이 적거나 일정치 않아 예술 활동 몰입 어려움’이 50.2%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행정 당국의 관심, 재정지원 부족’ (45.1%), ‘유통시스템 부재’ (22.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그리고 ‘전시시설 이용 정보 부족’ (17.8%), ‘발표기회 부족’ (15.6%), ‘창작공간 부족’ (15.3%), ‘교류부족’ (5.5%), ‘전문정보수집 어려움’ (2.5%)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어려운 점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16.0%로 조사되었다.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시각예술 장르별 활동의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한국화’의 경우 ‘행정 당국의 관심 및 지원 부족’과 ‘유통시스템 부재’, ‘문인화’의 경우 ‘행정 당국의 관심 및 지원 부족’, ‘서양화’, ‘서예’, ‘조각’, ‘공예’, ‘복합시각예술’ 분야의 경우 ‘적거나 불안정한 수입’이라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II-3-63] 시각예술 분야 창작 및 발표 활동의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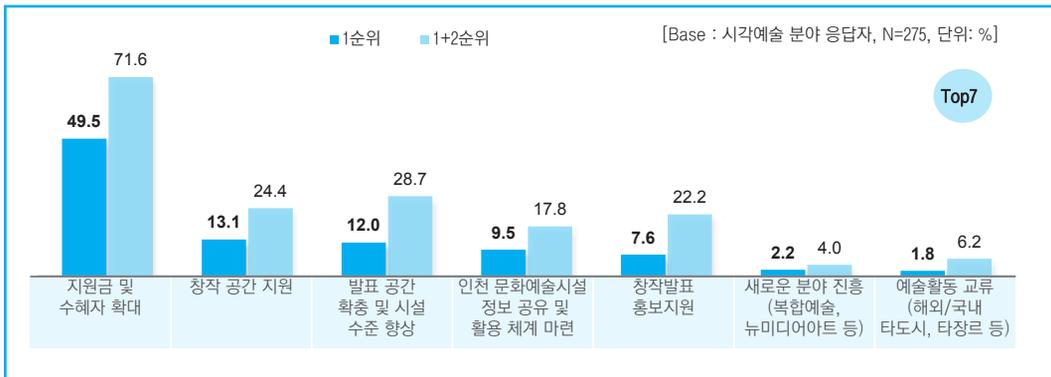
N=275(시각예술 분야 응답자), 복수응답,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적거나 불안정한 수입 | 행정 당국의 관심 및 지원 부족 | 유통 시스템 부재 | 전시 시설 이용 정보 부족 | 발표 기회 부족 | 창작 공간 부족 | 교류 부족 | 전문 정보 수집 어려움 | 기타 | 없음 |
|-----------|-------|-------------|-------------------|-----------|----------------|----------|----------|-------|--------------|------|-------|
| 총계 | (275) | 50.2 | 45.1 | 22.5 | 17.8 | 15.6 | 15.3 | 5.5 | 2.5 | 2.9 | 16.0 |
| 한국화 | (33) | 39.4 | 45.5 | 42.4 | 33.3 | 9.1 | 12.1 | 3.0 | 3.0 | 0.0 | 6.1 |
| 서양화 | (103) | 53.4 | 52.4 | 27.2 | 16.5 | 14.6 | 12.6 | 4.9 | 1.9 | 3.9 | 8.7 |
| 문인화 | (11) | 27.3 | 45.5 | 27.3 | 0.0 | 18.2 | 9.1 | 0.0 | 0.0 | 9.1 | 45.5 |
| 서예 | (20) | 55.0 | 45.0 | 15.0 | 20.0 | 15.0 | 15.0 | 0.0 | 0.0 | 0.0 | 25.0 |
| 판화 | (2) | 0.0 | 50.0 | 0.0 | 0.0 | 50.0 | 0.0 | 0.0 | 0.0 | 0.0 | 50.0 |
| 조각 | (14) | 57.1 | 35.7 | 28.6 | 7.1 | 14.3 | 28.6 | 14.3 | 0.0 | 0.0 | 7.1 |
| 만화·일러스트 | (1) | 0.0 | 0.0 | 0.0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 공예 | (21) | 66.7 | 19.0 | 14.3 | 28.6 | 14.3 | 19.0 | 0.0 | 0.0 | 4.8 | 19.0 |
| 사진 | (47) | 51.1 | 51.1 | 10.6 | 19.1 | 19.1 | 14.9 | 10.6 | 0.0 | 2.1 | 19.1 |
| 평론·이론 | (2) | 0.0 | 50.0 | 0.0 | 0.0 | 100.0 | 50.0 | 0.0 | 0.0 | 0.0 | 0.0 |
| 뉴미디어 및 설치 | (4) | 50.0 | 25.0 | 0.0 | 0.0 | 50.0 | 0.0 | 0.0 | 25.0 | 0.0 | 50.0 |
| 복합시각예술 | (10) | 60.0 | 10.0 | 0.0 | 0.0 | 0.0 | 40.0 | 10.0 | 10.0 | 0.0 | 50.0 |
| 기타 | (7) | 28.6 | 57.1 | 28.6 | 14.3 | 14.3 | 0.0 | 14.3 | 28.6 | 14.3 | 0.0 |

(5) 인천 시각예술분야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사업)

인천 시각예술분야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사업)을 질문한 결과(1순위) ‘지원금 및 수혜자 확대’에 대한 응답률이 4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창작공간 지원’ (13.1%), ‘발표 공간 확충 및 시설 수준 향상’ (12.0%), ‘인천 문화예술시설의 정보 공유 및 활용 체계 마련’ (9.5%), ‘창작발표 홍보지원’ (7.6%) 등으로 나타났다. 소수 응답으로는 ‘복합예술, 뉴미디어아트 등 새로운 분야 진흥’ (2.2%), ‘해외/국내 타도시, 타장르 등과 예술 활동 교류’ (1.8%) 등이 있다. 그 밖에 기타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 ‘신진작가 발굴 및 지원사업’ (1.5%), ‘지원사업 관련 행정, 세무 간소화’ (1.5%) 등이 있다.

[그림 Ⅲ-3-27] 인천 시각예술 분야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사업)



분야별로는 ‘서양화’와 ‘조각’의 경우 ‘창작 공간 지원’, ‘발표 공간 확충 및 시설 수준 향상’에서, ‘조각’과 ‘공예’의 경우 ‘창작 발표 홍보 지원’에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3-64] 인천 시각예술 분야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사업)

N=275(시각예술 분야 응답자), 1순위,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지원금, 수혜자 확대 | 창작 공간 지원 | 발표 공간 확충, 시설 수준 향상 | 인천 문예 시설 정보 공유, 활용 체계 | 창작 발표 홍보 지원 | 새로운 분야 진흥 | 예술 활동 교류 | 행정, 세무 간소화 | 신진 작가 발굴, 지원 사업 | 기타 | 없음 |
|-----------|-------|-------------|----------|--------------------|-----------------------|-------------|-----------|----------|------------|-----------------|------|-----|
| 총계 | (275) | 49.5 | 13.1 | 12.0 | 9.5 | 7.6 | 2.2 | 1.8 | 1.5 | 1.5 | 0.7 | 0.7 |
| 한국화 | (33) | 48.5 | 6.1 | 12.1 | 12.1 | 9.1 | 3.0 | 3.0 | 0.0 | 0.0 | 0.0 | 6.1 |
| 서양화 | (103) | 47.6 | 13.6 | 13.6 | 11.7 | 6.8 | 0.0 | 2.9 | 1.0 | 2.9 | 0.0 | 0.0 |
| 문인화 | (11) | 36.4 | 18.2 | 18.2 | 18.2 | 9.1 | 0.0 | 0.0 | 0.0 | 0.0 | 0.0 | 0.0 |
| 서예 | (20) | 85.0 | 0.0 | 5.0 | 1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판화 | (2)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조각 | (14) | 42.9 | 28.6 | 14.3 | 0.0 | 14.3 | 0.0 | 0.0 | 0.0 | 0.0 | 0.0 | 0.0 |
| 만화 · 일러스트 | (1) | 0.0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공예 | (21) | 57.1 | 9.5 | 0.0 | 9.5 | 19.0 | 0.0 | 4.8 | 0.0 | 0.0 | 0.0 | 0.0 |
| 사진 | (47) | 51.1 | 10.6 | 12.8 | 6.4 | 8.5 | 4.3 | 0.0 | 2.1 | 2.1 | 2.1 | 0.0 |
| 평론 · 이론 | (2) | 0.0 | 0.0 | 50.0 | 5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뉴미디어 및 설치 | (4) | 0.0 | 0.0 | 0.0 | 0.0 | 0.0 | 50.0 | 0.0 | 50.0 | 0.0 | 0.0 | 0.0 |
| 복합시각예술 | (10) | 20.0 | 50.0 | 20.0 | 0.0 | 0.0 | 10.0 | 0.0 | 0.0 | 0.0 | 0.0 | 0.0 |
| 기타 | (7) | 57.1 | 14.3 | 14.3 | 0.0 | 0.0 | 0.0 | 0.0 | 0.0 | 0.0 | 14.3 | 0.0 |

3) 공연예술

(1) 응답자 특성

공연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2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응답자 특성은 ‘주요 활동분야별’, ‘공연예술인 소속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창작 활동을 통한 연간소득별’ 등 총 7가지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주요 활동분야별’ 구분은 ‘음악’, ‘연극’, ‘무용’, ‘평론·이론’, ‘복합공연예술’, ‘기타’ 등의 6개 유형의 공연예술 분야로 구성하였다. 주요 활동분야는 ‘음악’ (56.7%)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연극’ (20.9%), ‘무용’ (17.1%), ‘평론·이론’ (1.1%), ‘복합공연예술’ (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39.0%, ‘여성’은 58.8%로 나타났고 ‘무응답’은 4명(2.1%)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25.1%, ‘30대’가 26.7%, ‘40대’가 29.9%, ‘50대’가 15.0%, ‘60대 이상’이 1.6% 등으로 조사되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의 응답자가 ‘대졸’ (49.7%)로 나타났다. ‘석사·박사’는 31.6%로 나타났고, ‘대학원 수료’는 5.9%, ‘고졸’은 9.6%로 나타났다. 그리고 ‘무응답’은 6명(3.2%)이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직업 없음’이 50.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전문직’이 9.1%, ‘서비스 판매’가 3.2%, ‘준 전문직’이 2.1%, ‘사무직’과 ‘고위관리직’이 각각 1.6%로 나타났다. 그 외에 ‘기타’는 8.0%, ‘무응답’이 24.1%였다.

‘창작활동을 통한 연간소득별’로 살펴보면 ‘2,400만원~3,600만원 미만’의 연간소득을 가진 응답자가 23.0%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1,200만원~2,400만원 미만’이 22.5%, ‘3,600만원 이상’이 15.5%, ‘1,200만원 미만’이 13.9%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 ‘소득이 없음’은 2.1%, ‘무응답’은 23.0%였다.

[표 III-3-65] 공연예술 응답자 특성

N=275(전체), 단위 : %

| 전체 | | 사례수 | 백분율 |
|------------------|--------------------|-------|-------|
| | | (275) | 100.0 |
| 주요 활동분야 | 음악 | (106) | 56.7 |
| | 연극 | (39) | 20.9 |
| | 무용 | (32) | 17.1 |
| | 평론·이론 | (2) | 1.1 |
| | 복합공연예술 | (2) | 1.1 |
| | 기타 | (5) | 2.7 |
| | 무응답 | (1) | 0.5 |
| 공연예술인 소속 | 일반예술인 | (74) | 39.6 |
| | 시립예술단 | (113) | 60.4 |
| 성 | 남성 | (73) | 39.0 |
| | 여성 | (110) | 58.8 |
| | 무응답 | (4) | 2.1 |
| 연령 | 20대 | (47) | 25.1 |
| | 30대 | (50) | 26.7 |
| | 40대 | (56) | 29.9 |
| | 50대 | (28) | 15.0 |
| | 60대 이상 | (3) | 1.6 |
| | 무응답 | (3) | 1.6 |
| 학력 | 고졸 | (18) | 9.6 |
| | 대졸 | (93) | 49.7 |
| | 대학원 수료 | (11) | 5.9 |
| | 석사·박사 | (59) | 31.6 |
| | 무응답 | (6) | 3.2 |
| 직업 | 고위관리직 | (3) | 1.6 |
| | 전문직 | (17) | 9.1 |
| | 준 전문직 | (4) | 2.1 |
| | 사무직 | (3) | 1.6 |
| | 서비스 판매 | (6) | 3.2 |
| | 기타 | (15) | 8.0 |
| | 직업 없음 | (94) | 50.3 |
| | 무응답 | (45) | 24.1 |
| 창작활동을 통한 연간소득 | 없음 | (4) | 2.1 |
| | 1,200만원 미만 | (26) | 13.9 |
| | 1,200만원~2,400만원 미만 | (42) | 22.5 |
| | 2,400만원~3,600만원 미만 | (43) | 23.0 |
| | 3,600만원 이상 | (29) | 15.5 |
| | 무응답 | (43) | 23.0 |

(2) 활동부문

주로 활동하는 공연예술부문을 질문한 결과, ‘음악’이 5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연극’ (20.9%), ‘무용’ (17.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음악’ 부문 활동 예술인 비율이 과반 이상인 것은 응답자 대상에 시립예술단(합창단, 교향악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그밖에 ‘평론·이론’ (1.1%), ‘복합공연예술’ (1.1%), ‘기타’ (2.7%)로 나타났다.

[표 III-3-66] 주로 활동하는 공연예술 부문

N=187(공연예술 분야 응답자),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음악 | 연극 | 무용 | 평론·이론 | 복합공연예술 | 기타 | 무응답 |
|----|-------|------|------|------|-------|--------|-----|-----|
| 총계 | (187) | 56.7 | 20.9 | 17.1 | 1.1 | 1.1 | 2.7 | 0.5 |

(3) 지난 3년간 공연예술 분야 활동 내용

① 공연

공연예술 분야의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공연 활동 수를 질문한 결과 창작 작품의 경우 지난 3년간 평균 4.6회(경험자 평균 16.1회)의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레퍼토리’는 평균 6.6회(경험자 평균 29.4회)의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부적으로는 일반예술인 평균 3.2회(경험자 평균 14.0회), 시립예술단 소속 응답자 평균 8.8회(경험자 평균 39.8회)가 반영된 결과이다.

‘개인 발표’의 경우 최근 3년 평균 4.3회(경험자 평균 25.8회) 활동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체발표회’ 활동의 경우 평균 47.7회(경험자 평균 74.9회) 활동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세부적으로 일반 예술인 평균 14.9회(경험자 평균 23.9회), 시립예술단 소속 응답자 평균 69.2회(경험자 평균 107.1회)가 반영된 결과이다.

주 활동 분야별로는 시립예술단 소속 응답자 비율이 높은 음악 장르의 평균 발표활동 횟수가 많았으며 연극, 무용 분야의 발표활동 횟수 역시 다른 분야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67] 공연예술 분야 활동 수

N=187(공연예술 분야 응답자), 단위 : 회

| 구분 | 사례수 | 창작 작품 | | 레퍼토리 | | 개인 발표 | | 단체발표회 | |
|--------|-------|-------|-----------|------|-----------|-------|-----------|-------|-----------|
| | | 평균 | 경험자 평균 | 평균 | 경험자 평균 | 평균 | 경험자 평균 | 평균 | 경험자 평균 |
| 총계 | (187) | 4.6 | 16.1 | 6.6 | 29.4 | 4.3 | 25.8 | 47.7 | 74.9 |
| 음악 | (106) | 5.2 | 69.5 | 5.5 | 48.9 | 7.3 | 35.3 | 79.4 | 110.8 |
| 연극 | (39) | 2.4 | 4.8 | 1.7 | 6.6 | 0.1 | 1.0 | 4.5 | 8.1 |
| 무용 | (32) | 6.1 | 9.3 | 15.8 | 29.8 | 0.5 | 3.0 | 8.9 | 16.8 |
| 평론·이론 | (2)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복합공연예술 | (2) | 1.5 | 3.0 | 10.0 | 20.0 | 0.0 | 0.0 | 1.5 | 3.0 |
| 기타 | (5) | 3.8 | 4.8 | 10.8 | 27.0 | 1.2 | 3.0 | 4.6 | 11.5 |
| 무응답 | (1) | 0.0 | 0.0 | 0.0 | 0.0 | 0.0 | 0.0 | 8.0 | 8.0 |

② 평론·논문

지난 3년간의 평론/논문 발표 횟수를 질문한 결과, 전체 평균 0.2편(경험자평균 4.4편)의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야별로는 평론·이론 분야 평균 10.0편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서 낮게 나타났다.

[표 III-3-68] 평론·논문 발표 횟수

N=187(공연예술 분야 응답자), 단위 : %, 편

| 구분 | 사례수 | 없음 | 1편 | 2편 | 3편 | 4편 | 5편 이상 | 평균 (편) | 경험자 평균(편) |
|--------|-------|-------|-----|------|-----|-----|----------|-----------|--------------|
| 총계 | (187) | 95.2 | 1.6 | 0.5 | 1.1 | 0.5 | 1.1 | 0.2 | 4.4 |
| 음악 | (106) | 98.1 | 0.0 | 0.0 | 0.9 | 0.9 | 0.0 | 0.1 | 3.5 |
| 연극 | (39) | 97.4 | 0.0 | 0.0 | 2.6 | 0.0 | 0.0 | 0.1 | 3.0 |
| 무용 | (32) | 87.5 | 9.4 | 0.0 | 0.0 | 0.0 | 3.1 | 0.3 | 2.0 |
| 평론·이론 | (2) | 50.0 | 0.0 | 0.0 | 0.0 | 0.0 | 50.0 | 10.0 | 20.0 |
| 복합공연예술 | (2)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기타 | (5) | 80.0 | 0.0 | 20.0 | 0.0 | 0.0 | 0.0 | 0.4 | 0.0 |
| 무응답 | (1)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2.0 |

③ 공연 기획 및 운영

공연예술 분야의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공연 기획 및 운영 활동 수를 질문한 결과 지난 3년간 평균 6.1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경험자 평균으로 계산하면 평균 43.9건의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시립예술단 소속 응답자의 공연 활동 경험자 평균 78.3건이 반영된 결과이다. 주 활동 분야별로는 연극(평균 8.8건), 음악(평균 7.4건)의 공연 기획 및 운영 횟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69] 공연 기획 및 운영 횟수

N=187(공연예술 분야 응답자), 단위 : %, 건

| 구분 | 사례수 | 없음 | 1~4 건 | 5~9 건 | 10~19 건 | 20~29 건 | 30~49 건 | 50~99 건 | 100건 이상 | 평균 (건) | 경험자 평균(건) |
|--------|-------|-------|----------|----------|------------|------------|------------|------------|------------|-----------|--------------|
| 총계 | (187) | 86.1 | 4.3 | 2.7 | 1.6 | 1.1 | 0.5 | 1.1 | 2.7 | 6.1 | 43.9 |
| 음악 | (106) | 86.8 | 4.7 | 0.9 | 0.9 | 0.9 | 0.9 | 0.9 | 3.8 | 7.4 | 55.8 |
| 연극 | (39) | 79.5 | 5.1 | 2.6 | 5.1 | 2.6 | 0.0 | 2.6 | 2.6 | 8.8 | 42.9 |
| 무용 | (32) | 90.6 | 3.1 | 6.3 | 0.0 | 0.0 | 0.0 | 0.0 | 0.0 | 0.4 | 4.0 |
| 평론·이론 | (2)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복합공연예술 | (2) | 50.0 | 0.0 | 50.0 | 0.0 | 0.0 | 0.0 | 0.0 | 0.0 | 2.5 | 5.0 |
| 기타 | (5)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무응답 | (1)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4) 공연예술 분야 창작 및 발표 활동의 애로사항

인천에서 창작 및 발표 활동을 하는데 어려운 점을 복수응답으로 질문한 결과, '수입이 적거나 일정치 않아 예술 활동 몰입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5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행정 당국의 관심, 재정지원 부족'이 36.9%, '연습공간 부족 또는 임대료 부담'과 '저조한 공연 관람률'이 각각 19.8%, '시설 수준 미흡'이 17.6%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공연시설, 발표기회 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6%, '교류부족'은 9.1%, '전문정보수집의 어려움'은 3.2% 등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70] 공연예술 분야 창작 및 발표 활동의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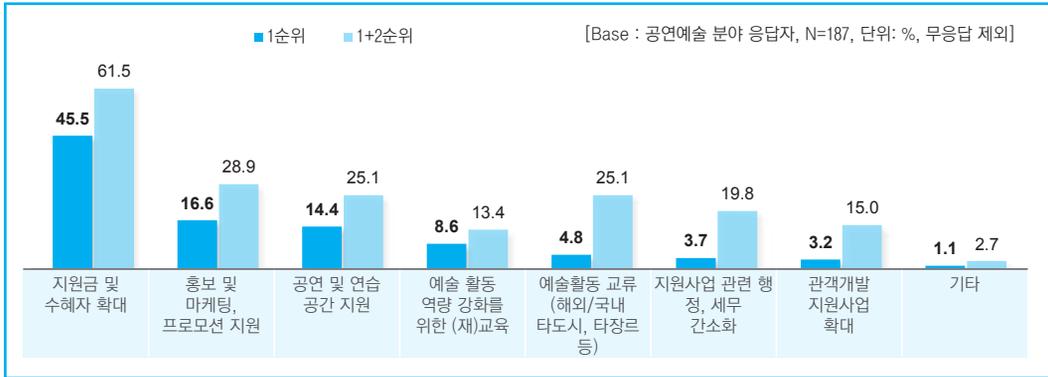
N=187(공연예술 분야 응답자), 복수응답,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적거나 불안정한 수입 | 행정 관심, 재정 지원 부족 | 연습 공간 부족, 임대료 부담 | 낮은 공연 관람률 | 시설 수준 미흡 | 공연 시설, 발표 기회 부족 | 교류 부족 | 전문 정보 수집 어려움 | 기타 | 없음 | 무응답 |
|--------|-------|-------------|-----------------|------------------|-----------|----------|-----------------|-------|--------------|------|------|-----|
| 총계 | (187) | 56.1 | 36.9 | 19.8 | 19.8 | 17.6 | 9.6 | 9.1 | 3.2 | 4.3 | 5.9 | 1.1 |
| 음악 | (106) | 60.4 | 35.8 | 22.6 | 6.6 | 27.4 | 8.5 | 4.7 | 0.9 | 4.7 | 2.8 | 1.9 |
| 연극 | (39) | 61.5 | 38.5 | 10.3 | 48.7 | 2.6 | 7.7 | 15.4 | 2.6 | 0.0 | 10.3 | 0.0 |
| 무용 | (32) | 37.5 | 46.9 | 25.0 | 28.1 | 6.3 | 9.4 | 12.5 | 9.4 | 6.3 | 6.3 | 0.0 |
| 평론·이론 | (2) | 0.0 | 0.0 | 50.0 | 0.0 | 0.0 | 50.0 | 0.0 | 50.0 | 50.0 | 0.0 | 0.0 |
| 복합공연예술 | (2) | 100.0 | 50.0 | 0.0 | 0.0 | 0.0 | 50.0 | 0.0 | 0.0 | 0.0 | 0.0 | 0.0 |
| 기타 | (5) | 60.0 | 0.0 | 0.0 | 20.0 | 20.0 | 20.0 | 20.0 | 0.0 | 0.0 | 40.0 | 0.0 |
| 무응답 | (1) | 0.0 | 0.0 | 0.0 | 100.0 | 0.0 | 0.0 | 100.0 | 0.0 | 0.0 | 0.0 | 0.0 |

(5) 인천 공연예술 분야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사업)

인천 공연예술분야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사업)을 물어본 결과(1순위), ‘지원금 및 수혜자 확대’가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홍보 및 마케팅, 프로모션 지원’ (16.6%), ‘공연 및 연습 공간 지원’ (14.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이라는 응답은 8.6%로 나타났고, 그 외에 ‘해외·국내 타도시, 타장르 등과 예술 활동 교류’ (4.8%), ‘지원사업 관련 행정, 세무 간소화’ (3.7%), ‘관객개발 지원사업 확대’ (3.2%) 등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Ⅲ-3-28] 인천 공연예술 분야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사업)



주 활동 공연예술 분야별로는 ‘음악’, ‘무용’의 경우 ‘지원금 수혜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각각 50.0%, 43.8%로 높았고, ‘연극’의 경우 상대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17.9%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Ⅲ-3-71] 인천 공연예술 분야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사업)

N=187(공연예술 분야 응답자), 1순위,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지원금, 수혜자 확대 | 홍보, 프로모션 지원 | 공연, 연습공간 지원 |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 예술 교류 | 행정, 세무 간소화 | 관객 개발 지원 사업 확대 | 기타 | 무응답 |
|--------|-------|-------------|-------------|-------------|--------------|-------|------------|----------------|-----|-----|
| 총계 | (187) | 45.5 | 16.6 | 14.4 | 8.6 | 4.8 | 3.7 | 3.2 | 1.1 | 2.1 |
| 음악 | (106) | 50.0 | 14.2 | 17.0 | 3.8 | 6.6 | 2.8 | 0.0 | 1.9 | 3.8 |
| 연극 | (39) | 38.5 | 12.8 | 12.8 | 17.9 | 0.0 | 10.3 | 7.7 | 0.0 | 0.0 |
| 무용 | (32) | 43.8 | 28.1 | 6.3 | 6.3 | 6.3 | 0.0 | 9.4 | 0.0 | 0.0 |
| 평론·이론 | (2) | 50.0 | 0.0 | 0.0 | 50.0 | 0.0 | 0.0 | 0.0 | 0.0 | 0.0 |
| 복합공연예술 | (2) | 0.0 | 50.0 | 50.0 | 0.0 | 0.0 | 0.0 | 0.0 | 0.0 | 0.0 |
| 기타 | (5) | 20.0 | 20.0 | 20.0 | 40.0 | 0.0 | 0.0 | 0.0 | 0.0 | 0.0 |
| 무응답 | (1)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4) 전통예술

(1) 응답자 특성

전통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응답자 특성은 ‘주요 활동분야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창작활동을 통한 연간소득별’ 등 총 6가지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주요 활동분야별’ 구분은 ‘창극’, ‘전통연희’, ‘국악’, ‘무형문화재(예능)’, ‘무형문화재(기능)’, ‘기타’ 등의 6개 유형의 공연예술 분야로 구성하였다. 응답자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국악’ (30.8%)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전통연희’ (21.2%)와 ‘무형문화재’ (21.2%), ‘창극’ (5.8%)과 ‘무형문화재’ (5.8%)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는 8명(15.4%)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44.2%, ‘여성’은 55.8%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42.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40대’는 21.2%, ‘60대 이상’은 13.5%, ‘20대’와 ‘30대’가 11.5%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의 응답자가 ‘고졸’ (36.5%)로 나타났다. ‘석사·박사’는 9.6%로 나타났고, ‘대학원 수료’는 7.7%, ‘대졸’은 34.6%, ‘중졸’은 11.5%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직업 없음’이 5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서비스 판매’가 13.5%, ‘전문직’과 ‘준 전문직’, ‘기타’가 7.7%, ‘육체 노동자’가 5.8%, ‘고위관리직’이 1.9%로 나타났다.

‘창작활동을 통한 연간소득별’로 살펴보면 ‘1,200만원~2,400만원 미만’의 연간소득을 가진 응답자가 30.8%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1,200만원 미만’이 25.0%, ‘3,600만원 이상’이 17.3%, ‘2,400만원~3,600만원 미만’이 9.6%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 ‘소득이 없음’은 15.4%로 나타났다.

[표 III-3-72] 전통예술 응답자 특성

N=275(전체), 단위 : %

| 전체 | | 사례수 | 백분율 |
|---------------|--------------------|------|-------|
| | | (52) | 100.0 |
| 주요 활동분야 | 창극(가무극 등) | (3) | 5.8 |
| | 전통연희 | (11) | 21.2 |
| | 국악(관현악, 실내악) | (16) | 30.8 |
| | 무형문화재(예능) | (11) | 21.2 |
| | 무형문화재(기능) | (3) | 5.8 |
| | 기타 | (8) | 15.4 |
| 성 | 남성 | (23) | 44.2 |
| | 여성 | (29) | 55.8 |
| 연령 | 20대 | (6) | 11.5 |
| | 30대 | (6) | 11.5 |
| | 40대 | (11) | 21.2 |
| | 50대 | (22) | 42.3 |
| | 60대 이상 | (7) | 13.5 |
| 학력 | 중졸 | (6) | 11.5 |
| | 고졸 | (19) | 36.5 |
| | 대졸 | (18) | 34.6 |
| | 대학원 수료 | (4) | 7.7 |
| | 석사·박사 | (5) | 9.6 |
| 직업 | 고위관리직 | (1) | 1.9 |
| | 전문직 | (4) | 7.7 |
| | 준 전문직 | (4) | 7.7 |
| | 서비스 판매 | (7) | 13.5 |
| | 육체 노동자 | (3) | 5.8 |
| | 기타 | (4) | 7.7 |
| | 직업 없음 | (27) | 51.9 |
| | 무응답 | (2) | 3.8 |
| 창작활동을 통한 연간소득 | 없음 | (8) | 15.4 |
| | 1,200만원 미만 | (13) | 25.0 |
| | 1,200만원~2,400만원 미만 | (16) | 30.8 |
| | 2,400만원~3,600만원 미만 | (5) | 9.6 |
| | 3,600만원 이상 | (9) | 17.3 |
| | 무응답 | (1) | 1.9 |

(2) 활동부문

주로 활동하는 전통예술부문에서 ‘국악(관현악, 실내악)’의 활동비율이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무형문화재(예능)’와 ‘전통연희’가 각각 21.2%, ‘창극(가무극 등)’과 ‘무형문화재(기능)’가 5.8%, ‘기타’가 15.4%로 조사되었다.

[표 Ⅲ-3-73] 주로 활동하는 전통예술 부문

N=52(전통예술 분야 응답자),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국악 (관현악, 실내악) | 무형문화재 (예능) | 전통연희 | 창극 (가무극 등) | 무형문화재 (기능) | 기타 |
|----|------|------------------|---------------|------|---------------|---------------|------|
| 총계 | (52) | 30.8 | 21.2 | 21.2 | 5.8 | 5.8 | 15.4 |

(3) 지난 3년간 전통예술 분야 활동 내용

① 발표

전통예술 분야에서 활동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개인 전시·발표’ 수를 질문한 결과 지난 3년간 평균 2.9회(경험자평균 8.9회)의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발표가 가장 활발한 분야는 ‘무형문화재(예능)’ 평균 6.7회로 나타났다.

전통예술 분야의 ‘단체 전시·발표’의 경우 지난 3년간 평균 13.3회(경험자평균 16.0회)의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단체전시·발표’가 상대적으로 가장 활발한 분야는 ‘국악’ (평균 21.8회), ‘무형문화재’ (평균 19.8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통예술 분야의 ‘기획 전시·발표’의 경우 전체 평균 3.5회(경험자 평균 30.7회)의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통예술 분야의 ‘기획 전시·발표’ 횟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국악’ 분야로 평균 10.0회로 나타났다.

[표 III-3-74] 전시 및 발표(공연) 횟수

N=52(전통예술 분야 전체), 단위: 회

| 구분 | 사례수 | 개인 전시·발표 | | 단체 전시·발표 | | 기획 전시·발표 | |
|-----------|------|----------|--------------|----------|--------------|----------|--------------|
| | | 평균(회) | 경험자 평균(회) | 평균(회) | 경험자 평균(회) | 평균(회) | 경험자 평균(회) |
| 총계 | (52) | 2.9 | 8.9 | 13.3 | 16.0 | 3.5 | 30.7 |
| 창극 | (3) | 1.7 | 5.0 | 1.3 | 2.0 | 0.0 | 0.0 |
| 전통연희 | (11) | 3.3 | 9.0 | 6.5 | 6.5 | 1.2 | 13.0 |
| 국악 | (16) | 1.4 | 4.4 | 21.8 | 26.8 | 10.0 | 53.3 |
| 무형문화재(예능) | (11) | 6.7 | 14.8 | 19.8 | 21.8 | 0.0 | 0.0 |
| 무형문화재(기능) | (3) | 4.7 | 7.0 | 8.0 | 8.0 | 3.3 | 10.0 |
| 기타 | (8) | 0.0 | 0.0 | 3.0 | 6.0 | 0.1 | 1.0 |

② 전통예술 행사 기획 및 운영

전통예술 분야의 행사 기획 및 운영 활동 횟수를 질문한 결과 지난 3년간 평균 1.6건(경험자 평균 7.5건)의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통예술 분야의 행사 기획 및 운영 활동 횟수를 세부 빈도별로 살펴보면 '5~9건'이 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건 이상'이 5.8%, '1건', '2건', '3건', '4건'이 각각 1.9%로 조사되었다. 전통예술 분야별로는 '전통연희'(평균 3.1회), '국악'(평균 1.4회)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창극, 무형문화재(기능) 등의 분야는 평균횟수는 많으나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III-3-75] 전통예술 행사 기획 및 운영 횟수

N=52(전통예술 분야 전체), 단위: %, 건

| 구분 | 사례수 | 없음 | 1건 | 2건 | 3건 | 4건 | 5~9건 | 10건 이상 | 평균(건) | 경험자 평균(건) |
|-----------|------|------|------|-----|-----|-----|------|-----------|-------|--------------|
| 총계 | (52) | 78.8 | 1.9 | 1.9 | 1.9 | 1.9 | 7.7 | 5.8 | 1.6 | 7.5 |
| 창극 | (3) | 33.3 | 33.3 | 0.0 | 0.0 | 0.0 | 33.3 | 0.0 | 2.0 | 3.0 |
| 전통연희 | (11) | 63.6 | 0.0 | 0.0 | 9.1 | 9.1 | 9.1 | 9.1 | 3.1 | 8.5 |
| 국악 | (16) | 87.5 | 0.0 | 6.3 | 0.0 | 0.0 | 0.0 | 6.3 | 1.4 | 11.0 |
| 무형문화재(예능) | (11) | 90.9 | 0.0 | 0.0 | 0.0 | 0.0 | 9.1 | 0.0 | 0.5 | 5.0 |
| 무형문화재(기능) | (3) | 66.7 | 0.0 | 0.0 | 0.0 | 0.0 | 33.3 | 0.0 | 2.0 | 6.0 |
| 기타 | (8) | 87.5 | 0.0 | 0.0 | 0.0 | 0.0 | 0.0 | 12.5 | 1.3 | 10.0 |

(4) 전통예술 분야 창작 및 발표 활동의 애로사항

인천에서 창작 및 발표 활동을 하는데 어려운 점을 복수응답으로 질문한 결과, ‘수입이 적거나 일정치 않아 예술 활동 몰입 어려움’이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행정 당국의 관심, 재정지원 부족’ (48.1%), ‘전통예술에 대한 시민 관심 저조’ (38.5%), ‘발표기회 부족’ (21.2%)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교류부족’은 5.8%, ‘후학 양성의 어려움’, ‘관련 분야 예술인 부족’, ‘전문정보 수집 어려움’ 등이 각각 3.8%로 나타났다. 반면, 애로사항이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7.3%로 조사되었다.

[표 III-3-76] 전통예술 분야 창작 및 발표 활동의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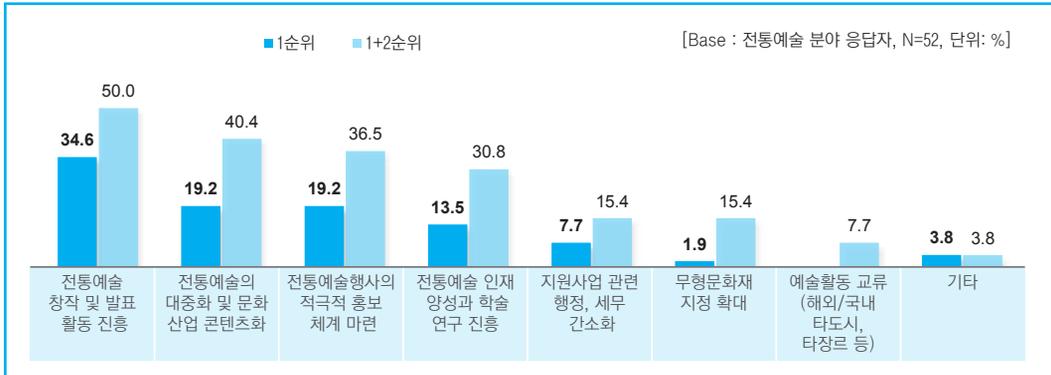
N=52(전통예술 분야 응답자), 복수응답,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적거나 불안정한 수입 | 행정 당국의 관심, 재정 지원 부족 | 시민들의 관심 저조 | 발표 기회 부족 | 교류 부족 | 후학 양성의 어려움 | 관련 분야 예술인 부족 | 전문 정보 수집 어려움 | 없음 |
|-----------|------|-------------|---------------------|------------|----------|-------|------------|--------------|--------------|------|
| 총계 | (52) | 55.8 | 48.1 | 38.5 | 21.2 | 5.8 | 3.8 | 3.8 | 3.8 | 17.3 |
| 창극 | (3) | 100.0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전통연희 | (11) | 72.7 | 27.3 | 36.4 | 18.2 | 0.0 | 0.0 | 9.1 | 0.0 | 36.4 |
| 국악 | (16) | 68.8 | 50.0 | 37.5 | 25.0 | 0.0 | 6.3 | 0.0 | 0.0 | 12.5 |
| 무형문화재(예능) | (11) | 27.3 | 54.5 | 54.5 | 27.3 | 9.1 | 0.0 | 0.0 | 0.0 | 18.2 |
| 무형문화재(기능) | (3) | 33.3 | 66.7 | 33.3 | 0.0 | 0.0 | 0.0 | 33.3 | 33.3 | 0.0 |
| 기타 | (8) | 37.5 | 37.5 | 37.5 | 25.0 | 25.0 | 12.5 | 0.0 | 12.5 | 12.5 |

(5) 인천 전통예술 분야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사업)

인천 전통예술분야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사업)을 질문한 결과(1순위), ‘전통예술 창작 및 발표활동 진흥’이 34.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전통예술의 대중화 및 문화산업 콘텐츠화’ (19.2%), ‘전통예술행사의 적극적 홍보체계 마련’ (19.2%), ‘전통예술 인재 양성과 학술연구 진흥’ (13.5%)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지원사업 관련 행정, 세무 간소화’ (7.7%), ‘무형문화재 지정 확대’ (1.9%), ‘해외 · 국내 타도시, 타장르 등과 예술 활동 교류’ (7.7%) 등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II-3-29] 인천 전통예술 분야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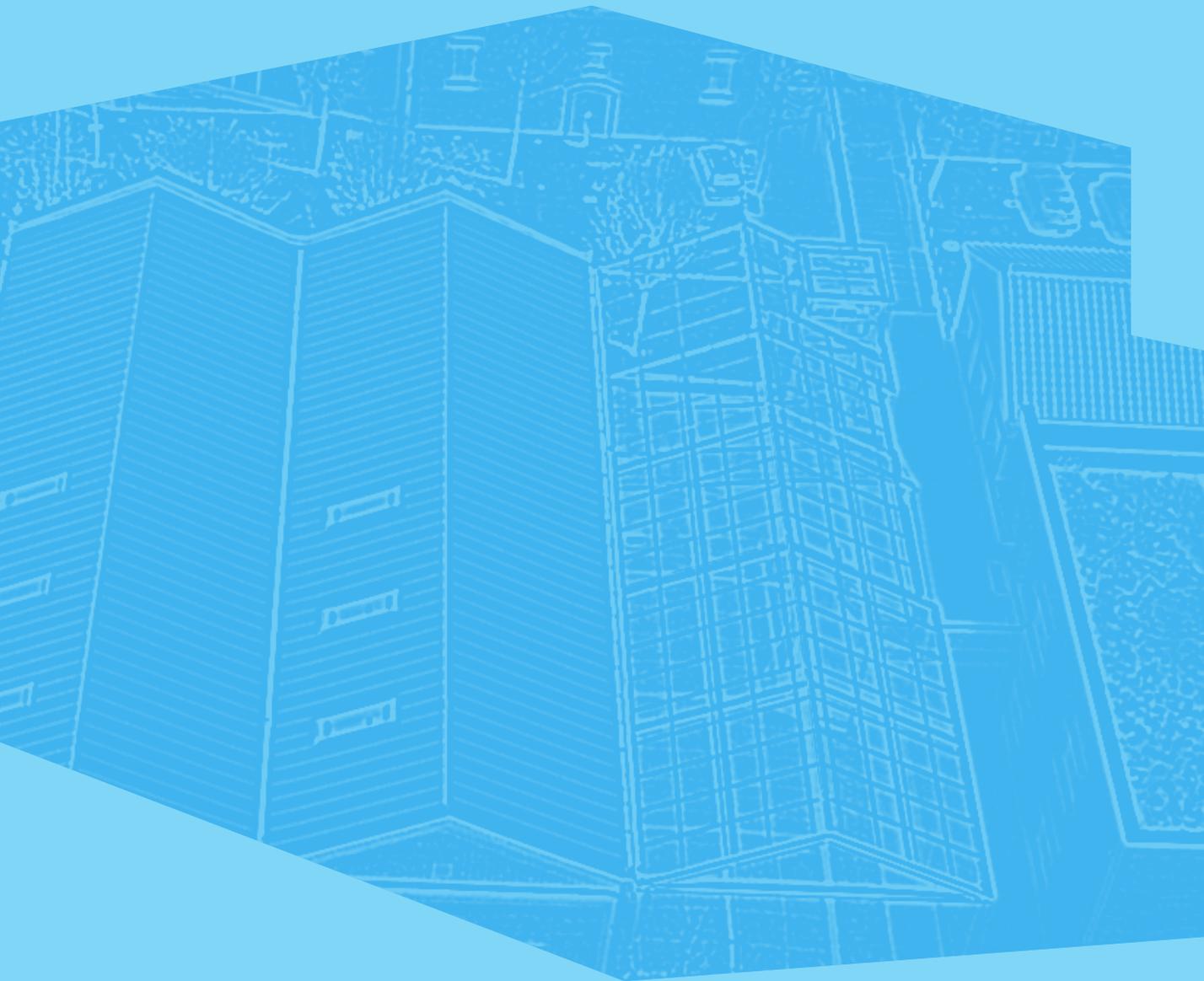
장르별로 살펴보면 전통연희 분야의 경우 ‘전통예술행사 적극적 홍보 체계 마련’, 국악 분야는 ‘전통예술 창작 및 발표 활동 진흥’과 ‘전통 예술의 대중화 및 문화산업 콘텐츠화’ 등에 대한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3-77] 인천 전통예술 분야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사업)

N=52(전통예술 분야 응답자), 1순위, 단위: %

| 구분 | 사례수 | 전통예술 창작 및 발표 활동 진흥 | 전통 예술의 대중화 및 문화산업 콘텐츠화 | 전통예술 행사 적극적 홍보 체계 마련 | 전통예술 인재 양성, 학술연구 진흥 | 지원사업 관련 행정, 세무 간소화 | 무형문화재 지정 확대 | 기타 |
|-----------|------|--------------------|------------------------|----------------------|---------------------|--------------------|-------------|-----|
| 총계 | (52) | 34.6 | 19.2 | 19.2 | 13.5 | 7.7 | 1.9 | 3.8 |
| 창극 | (3) | 0.0 | 0.0 | 33.3 | 0.0 | 66.7 | 0.0 | 0.0 |
| 전통연희 | (11) | 27.3 | 9.1 | 36.4 | 9.1 | 0.0 | 9.1 | 9.1 |
| 국악 | (16) | 43.8 | 43.8 | 12.5 | 0.0 | 0.0 | 0.0 | 0.0 |
| 무형문화재(예능) | (11) | 54.5 | 9.1 | 0.0 | 18.2 | 9.1 | 0.0 | 9.1 |
| 무형문화재(기능) | (3) | 33.3 | 0.0 | 0.0 | 66.7 | 0.0 | 0.0 | 0.0 |
| 기타 | (8) | 12.5 | 12.5 | 37.5 | 25.0 | 12.5 | 0.0 | 0.0 |

정책적 시사점



1. 예술인 활동 토대 확충

1) 전체 인구 대비 예술인 비율

본 조사연구로 집계된 인천의 예술인은 3,193명으로 인천시 전체 인구의 0.12%로 6대 광역시의 전체 인구 대비 예술인의 비율 중 최저 수치이다. 예술인 통계조사과정의 문제일 수 있으며, 예술인의 개념이나 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수가 적다는 것은 문화예술 환경과 토대가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 내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요 예술인단체의 협조를 받아 별도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기초로 지역예술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표 IV-1-1] 인구 대비 문화예술인 비율

(단위: 명, %)

| | 광역시별 인구 | 문화예술인 | 문화예술인 비율 |
|----|-----------|-------|----------|
| 부산 | 3,414,950 | 6,349 | 0.19 |
| 인천 | 2,662,509 | 3,193 | 0.12 |
| 대구 | 2,446,418 | 8,338 | 0.34 |
| 대전 | 1,501,859 | 3,994 | 0.27 |
| 광주 | 1,475,745 | 4,505 | 0.31 |
| 울산 | 1,082,567 | 1,614 | 0.15 |

자료: 통계청, <2010 인구총조사>

2) 후속 세대의 양성

현재 인천지역 예술인의 연령층을 보면 20~30대는 적고 40~50대가 많다. 예술인의 연령층이 20~30대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인천지역 문화예술분야의 장래를 생각할 때, 후속세대의 양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012 인천문화지표조사연구>에서 인천의 문화예술 관련 학과(20개) 및 교수(69명) 수는 울

산을 제외한 광역시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예술인 숫자와 비율은 2008년도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 주요한 요인으로 지역 내에 예술인력 양성 교육기관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할 수 있다.

후속 세대의 양성을 위해서는 신진 예술가 양성을 위한 지원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학, 문화일반, 전시기획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신진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작업실을 지원하고, 작가들의 프로모션을 담당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지금보다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타 지역이나 외국의 신진 예술인력을 유치하여 교류와 협력을 통해 활성화·다양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2. 예술인의 생활안정화 방안

1) 예술인의 생활안정화 대책수립

현재 문화예술인의 취업 상태를 보면 46.4%가 미취업 상태이고 취업된 경우에도 임시직인 경우가 12.1%이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비율이 56.6%이다. 창작활동을 통한 연간 수입액이 없거나 '1,0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4.2%이다. 또한 예술 관련 활동을 통한 수입액도 연간 '1,0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5.0%('없음' 포함)로 나타나 많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중 전체 응답자의 17.5%에 해당하는 시립예술단원이 직업예술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많은 예술인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 빈곤을 에너지로 창작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선입견을 벗어나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획기적인 생활대책과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로써 문화예술인이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의 토대 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술인복지법」(시행 2012.11.18.)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예술인이 지역, 성별 등

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의 취약한 경제활동구조와 미흡한 보상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예술 복지프로그램 도입과 예술 창작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예술인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예술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2) 예술인의 활동 영역 다각화

2012년 11월,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되고 예술인복지재단이 출범하였지만 현재 확보되어 있거나 앞으로 조성 가능한 수준의 문화예술영역의 재원을 고려할 때,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원은 시급성에 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도시관리영역, 관광·레저 등 인접 영역과의 연계를 통해서 일자리와 활동을 창출하고 이로써 간접적으로 문화예술인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 경제기반을 마련하는 방안 또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술인의 직업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직업역량강화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과 직업 전환 프로그램 등을 개발·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3.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1) 지원기회의 확대와 신청절차의 간소화

‘현재 지원사업 선정이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5점 만점 기준 평균 2.78점으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다. 심사과정·절차 및 심사위원 구성이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이라는 대답과 신청 기회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대답이 대부분이었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지원 자체가 쉽지 않고 둘째, 심사과정이 비생산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또한 이 같은 결과를 기반으로 첫 지원신

청 우대, 신청 및 정산과정 간소화, 지원 프로그램의 분야별, 금액별 다양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지원금에 대한 벽을 낮추고 신청 과정과 정산 절차를 간소화하여 예술활동을 위한 지원 신청을 수월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사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지적은 인천문화재단의 지원방향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평가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심사위원진과 선정된 작품 및 사업의 경향성을 검토하여 공정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2) 기초단계의 지원 확대

2000년대 이래로 문화예술영역의 기초는 ‘선택과 집중’ 이었고 인천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는 뛰어난 성과를 가시화하는 데는 유용하나, 예술활동의 토대인 신진 예술인의 비중이 낮고 역량강화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일종의 ‘장벽’ 처럼 여겨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예술지원방법에 대한 예술인들의 의견이 ‘골고루 지원’ (3.46)을 원하는 응답이 ‘선택과 집중’ (3.29)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처럼 반분되고 있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선택과 집중’에서 소외되었다고 여기고 있는 예술인 비율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으로서 본 조사연구가 전문예술인을 중심으로 진행된 점을 감안할 때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

특히 시민영역의 비전문예술인의 활동과 신진예술인 비율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으로, 본 조사연구가 전문예술인을 중심으로 진행된 점을 감안할 때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 특히 시민영역의 비전문예술인의 활동과 신진예술인 활동의 간격이 크지 않고 시민영역의 문화예술이 전체문화예술영역의 발전을 지탱하는 기반임을 상기할 때 예술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원책 마련은 중요 과제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중견예술가에 대한 지원은 기초단계 및 시민예술 활동의 지원방식과 별도로 추진되어야 한다. 기존의 선택과 집중의 형태를 응용하되 기초예술단계의 지원이 지역 내 활동을 전제로 한다면 이는 인천문화예술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제고하는 등 단계별로 적절한 목표와 요구에 따라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3) 문화예술교류의 확대

문화예술인의 교류는 단순한 친목도모나 인맥 관리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조류와 경향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본 조사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예술인은 주로 ‘친목도모’를 교류의 기본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창작활동 고취’나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2.9점 내외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예술인의 역량 강화와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지역 내 예술인의 교류와 협력 작업을 자극하고 고무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4) 문화예술교육의 강화

현재 교육경험에서 제도적인 학교정규교육 외에는 개인레슨과 같은 사교육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예술인의 재교육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예술인으로 진입하는 경로는 대부분 정규교육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고학력자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그 외 동아리, 개인교습 등을 거쳐 예술인으로 양성되고 있다. 이는 대체로 제도교육과 그 주변을 이루는 사교육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문화예술계 진입을 위한 다양한 경로와 기회가 안배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하게도 현재 인천예술인들은 ‘창의력 배양교육’ 등 재교육의 필요에 대해서는 88.4%가 동의하고 있어 예술인 재교육 및 역량강화에 대한 수요 또한 대단히 높다. 따라서 이는 지역 예술인의 창작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이 꼭 필요한 과제의 하나라 하겠다.

인천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한 광역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2010년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예술인들의 재교육 및 창작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5) 시민과 예술인의 재능 연계

현재 문화예술 분야 관련 자원봉사·재능기부의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51.6%이며 ‘없다’는 응답자는 48.4%로 자원봉사·재능기부 부분에서 인천지역 예술인의 공적 인식이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향후의 의향에서 5점 만점 기준 평균 3.9점으로 무려 90.7%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따라서 문화예술인의 자발적 의욕을 공적으로 가시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생활과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연계하고 이로써 일상적 차원의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6) 인천문화재단 지원사업의 특징

인천문화재단의 사업영역을 6개 영역으로 정리하여 살펴보면 ‘(문화)예술지원’ 영역의 지원액이 가장 높다. 다음으로 ‘창작공간 및 운영기관’ 영역, ‘연구출판(사업) 및 홍보마케팅’ 영역, ‘(문화)예술교육’, ‘(시민)문화사업’ 영역 순으로 지원액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축제·교류’ 영역은 6개의 사업영역 중 지원액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교류사업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²⁾ 전반적으로 전문예술인이 주요 지원대상인 ‘문화예술지원’ 영역은 지원액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문화도시기본계획」(2010)과 「민선 5기, 인천광역시 문화예술 기본계획」(2011)에서는 문화시민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하며 ‘지역주민들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예술 정책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인천문화재단의 경우 이러한 문화정책 변화에 따라 2010년 <시민문화활동지원사업>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민문화지원’ 영역의 지원액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향후 인천시민들이 수동적 예술향유자를 넘어 예술창조의 능동적 주체로서 참여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삶과 결합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12) ‘인천문화재단’은 축제지원을 ‘시민문화사업’ 영역에 포함하고 있다.

4. 분야별 현황과 지원 요구

인천 예술인들의 활동 방식은 전통적인 장르활동 형태(창작 발표)가 중심을 이루는 가운데 교육분야 등에 종사하는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예술인은 대학 등 제도 교육분야에서 양성되어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점차 고학력화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개인활동을 중심으로 단체와 기관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파악된다.

활동지역은 70% 이상이 인천에 국한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 간 교류를 전제로 하는 양적·질적 확대 또한 지원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인천의 예술인들은 가장 발전한 분야를 음악과 미술로, 낙후된 분야를 연극과 문학으로 답변하고 있다. 이는 시립예술단원들이 공연예술 분야로 응답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를 제외하면 미술 분야가 가장 발전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시립극단 등의 답변을 감안하면 연극분야의 낙후 정도는 수치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응답자 특성을 분석할 때 전통, 시각예술이 최다인데 공연예술과 문학 순으로 파악될 수 있다. 장르적 특성을 감안할 때 공연예술분야는 특히 인적으로 열악함을 알 수 있다.

대체로 교류 및 재교육이 미흡하고 문화예술지원사업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문화예술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제도적 장벽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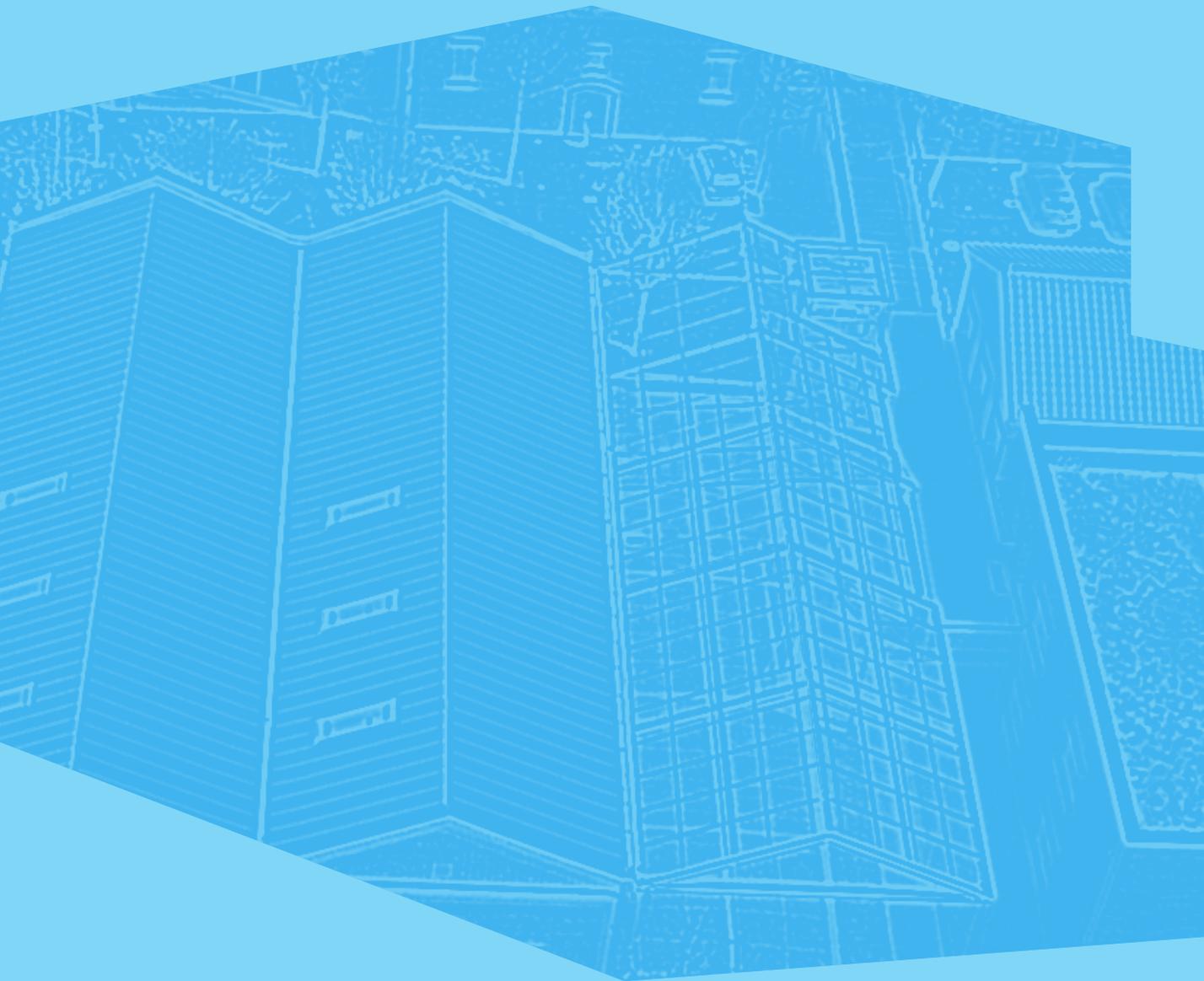
또한 구체적인 활동 지원 방법으로 지원금과 활동 공간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기본으로 활동을 위한 발표 공간 및 창작 공간 등의 지원과 연계가 필요하다.

현재 문화예술계 진입은 주로 대학의 전공 등에 의한 것이므로 실제 예술 활동 및 문화예술 지원제도와 정책에 대한 교육, 기획·제작에 대한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다.

예술 창작 및 홍보를 위해 새로운 홍보매체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답변이 40%를 상회하고 온라인 매체가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는 결과를 통해 예술인들의 홍보 및 홍보매체 활용이 매우 소극적이고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는 높은 연령대의 응답자가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향후 예술창작 지원뿐만 아니라 기획 및 문화예술행사 홍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이 필요하다.

2012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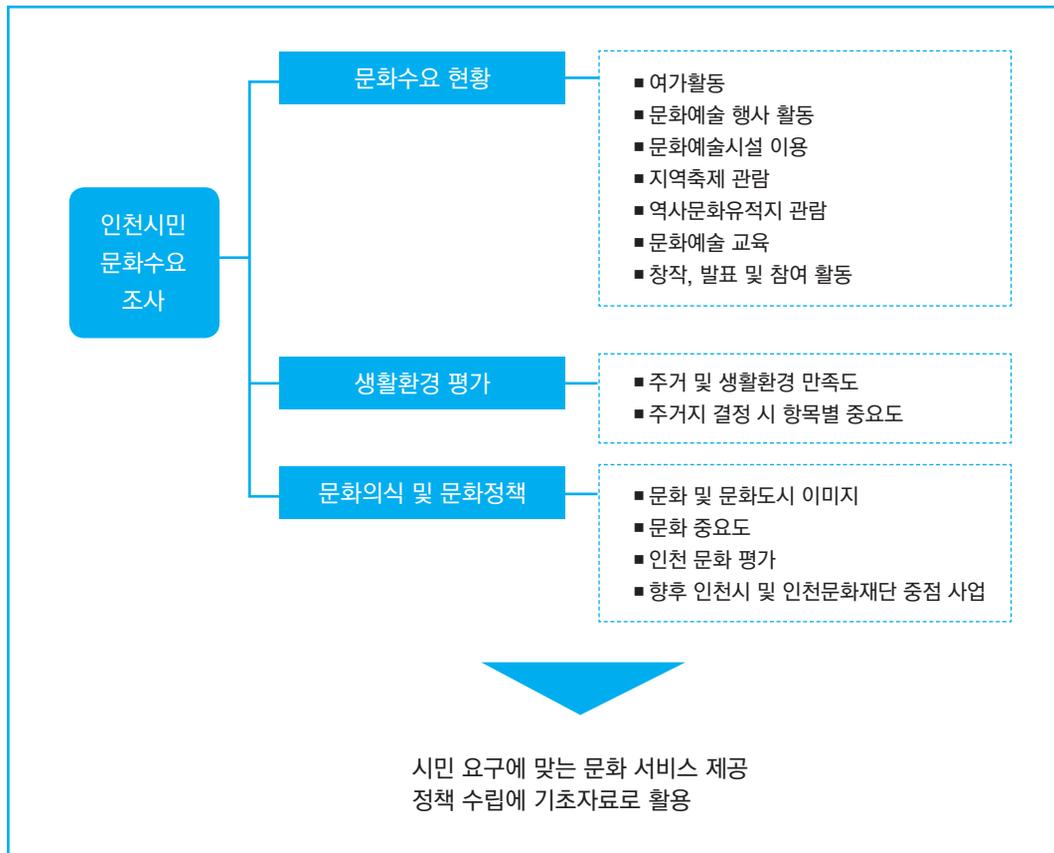


1.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본 조사는 인천시민의 문화수요 현황과 생활환경 평가, 문화의식 및 문화정책 분석을 통해 시민 요구에 맞는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하였다.

[그림 1] 2012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 구성



2) 조사 설계

본 조사는 20세 이상 인천시민 564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1:1 개별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표본 추출 방법은 성·연령·지역별 인구구성비례할당 무작위 추출을 활용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2년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총 11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표 1] 조사 설계

| | |
|----------|---|
| 조사방법 | 개별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
| 조사도구 | 구조화된 설문지 |
| 표본 수 | 564명 [95% 신뢰수준 표준오차 ±4.13%] |
| 표본 추출 방법 | 성·연령·지역별 인구구성비례할당 무작위 추출 (proportionate Quota & Random Sampling) |
| 조사기간 | 2012년 8월 1일 ~ 2012년 8월 10일 |

3) 응답자 특성

본 설문조사는 20세 이상 인천시민 총 564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응답자 특성별로 ‘성’, ‘연령’, ‘거주 지역’, ‘최종학력’, ‘직업’, ‘첫째 자녀 나이’, ‘월 소득’을 조사하였다. 연령별로는 20대부터 60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거주 지역은 인천시 10개 군·구를 ‘북부’, ‘중부’, ‘동부’, ‘남부’ 등 총 4개 권역으로 설계하였다. 권역별로 ‘북부’ 지역은 총 168명, ‘중부’ 지역 158명, ‘동부’ 지역 97명, ‘남부’ 지역 141명으로 구성하였다. 최종학력은 ‘중졸 이하’, ‘고졸 이상’ 등 두 개 항목으로, 직업은 ‘전문직·사무직’, ‘생산·판매·자영’, ‘학생·주부·기타’ 등 3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월 소득의 경우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표 2] 일반인 응답자 특성

| | | 응답자 특성 | |
|----------|----------------------|--------|-------|
| | | 명 | % |
| 전 체 | | (564) | 100.0 |
| 성별 | 남자 | (281) | 49.8 |
| | 여자 | (283) | 50.2 |
| 연령 | 20대 | (126) | 22.3 |
| | 30대 | (133) | 23.6 |
| | 40대 | (130) | 23.0 |
| | 50대 | (102) | 18.1 |
| | 60대 | (73) | 12.9 |
| 거주 지역 | 북부 (강화군, 서구, 계양구) | (168) | 29.8 |
| | 중부 (옹진군, 중구, 동구, 남구) | (158) | 28.0 |
| | 동부 (부평구) | (97) | 17.2 |
| | 남부 (연수구, 남동구) | (141) | 25.0 |
| 최종학력 | 중졸 이하 | (233) | 41.3 |
| | 고졸 이상 | (331) | 58.7 |
| 직업 | 전문직·사무직 | (201) | 35.6 |
| | 생산·판매·자영 | (209) | 37.1 |
| | 학생·주부·기타 | (154) | 27.3 |
| 첫째 자녀 나이 | 고등학생 이하 | (195) | 34.6 |
| | 대학생 이상 | (147) | 26.1 |
| | 자녀 없음 | (222) | 39.4 |
| 월 소득 | 300만원 미만 | (184) | 32.6 |
| | 400만원 미만 | (176) | 31.2 |
| | 500만원 미만 | (133) | 23.6 |
| | 500만원 이상 | (71) | 12.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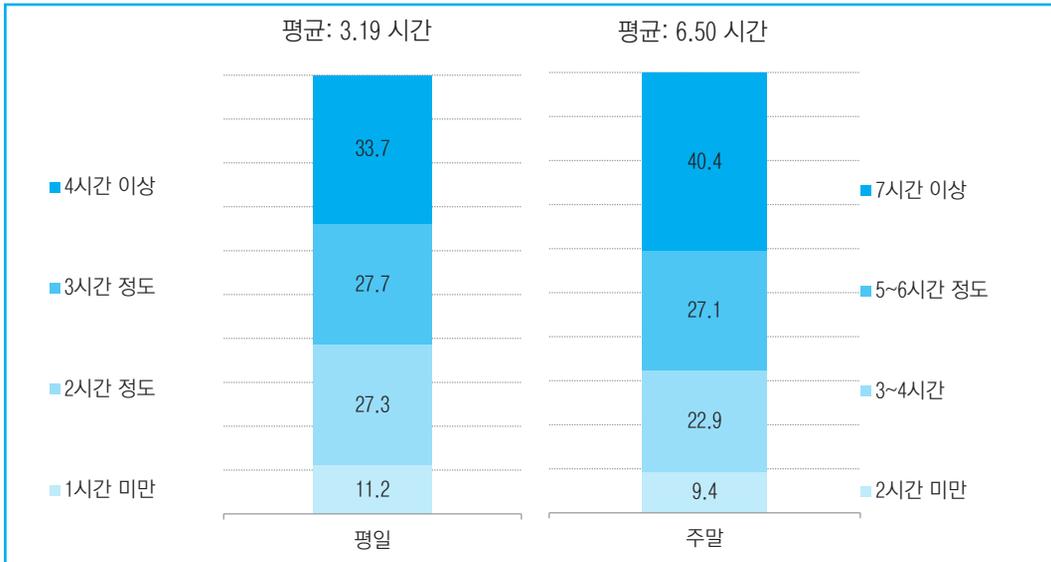
2. 조사 결과

1) 여가활동

(1) 하루 평균 여가시간

지난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평균 3.19시간, 주말 평균 6.50시간으로 나타났다.

[그림 2] 하루 평균 여가시간(평일/주말)



평일에는 ‘여성’ (평균 3.41시간), ‘60대’ (평균 3.45시간), ‘동부’ 지역(평균 3.43시간) 응답자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에는 ‘남성’ (평균 6.77시간), ‘20대’ (평균 7.12시간), ‘동부’ 지역(평균 7.39시간), 월 평균 소득 ‘500만원 미만’ (평균 6.98시간) 응답자의 여가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하루 평균 여가시간(평일/주말)

(단위 : 시간)

| 구분 | | 사례수 | 평일 하루 여가시간(평균) | 주말 하루 여가시간(평균) |
|-------|----------|-------|----------------|----------------|
| 총계 | | (564) | 3.19 | 6.50 |
| 성별 | 남성 | (281) | 2.96 | 6.77 |
| | 여성 | (283) | 3.41 | 6.24 |
| 연령 | 20대 | (126) | 3.38 | 7.12 |
| | 30대 | (133) | 3.08 | 6.13 |
| | 40대 | (130) | 3.05 | 6.32 |
| | 50대 | (102) | 3.06 | 6.27 |
| | 60대 | (73) | 3.45 | 6.77 |
| 거주 지역 | 북부 | (168) | 3.13 | 6.83 |
| | 중부 | (158) | 3.06 | 5.75 |
| | 동부 | (97) | 3.43 | 7.39 |
| | 남부 | (141) | 3.22 | 6.35 |
| 월 소득 | 300만원 미만 | (184) | 3.17 | 6.32 |
| | 400만원 미만 | (176) | 3.33 | 6.38 |
| | 500만원 미만 | (133) | 3.03 | 6.98 |
| | 500만원 이상 | (71) | 3.15 | 6.4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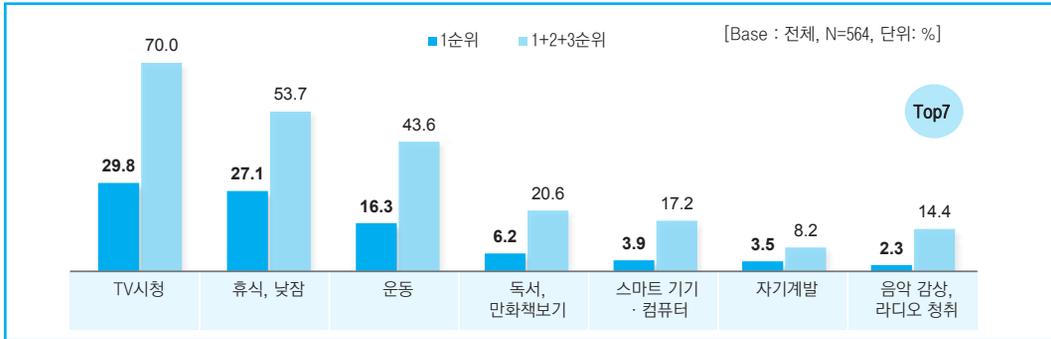
(2) 여가활동 유형

① 평일 여가활동 유형

평일에는 텔레비전(29.8%)을 보거나 휴식(27.1%), 운동(16.3%) 등 주로 집에서 여가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예술 감상(평균 4.1시간) 및 창작 활동(평균 1.1시간)을 하는 경우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 평일 여가시간 활용방법



[표 4] 평일 여가시간 활용방법

(단위 :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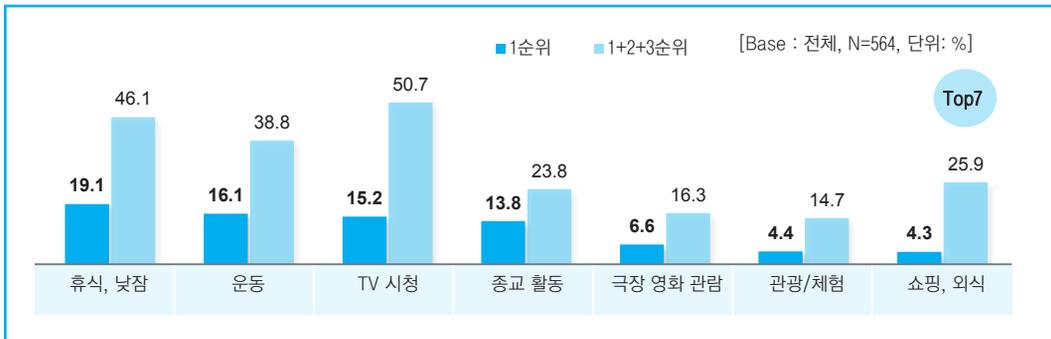
| 구분 | | 사례수 | 예술 감상(공연, 전시회, 영화관람 등) | 예술창작(그림, 공예, 사진촬영 등) |
|-------|----------|-------|------------------------|----------------------|
| 총계 | | (564) | 4.1 | 1.1 |
| 성별 | 남성 | (281) | 4.6 | 0.4 |
| | 여성 | (283) | 3.5 | 1.8 |
| 연령 | 20대 | (126) | 8.7 | 1.6 |
| | 30대 | (133) | 4.5 | 0.8 |
| | 40대 | (130) | 1.5 | 2.3 |
| | 50대 | (102) | 2.9 | 0.0 |
| | 60대 | (73) | 1.4 | 0.0 |
| 거주 지역 | 북부 | (168) | 1.8 | 0.0 |
| | 중부 | (158) | 5.7 | 1.3 |
| | 동부 | (97) | 6.2 | 1.0 |
| | 남부 | (141) | 3.5 | 2.1 |
| 월 소득 | 300만원 미만 | (184) | 3.3 | 1.1 |
| | 400만원 미만 | (176) | 5.1 | 1.7 |
| | 500만원 미만 | (133) | 3.8 | 0.0 |
| | 500만원 이상 | (71) | 4.2 | 1.4 |

② 주말 여가시간을 보내는 방법

주말에는 ‘휴식, 낮잠’ (19.1%)과 더불어 ‘운동’ (16.1%), ‘TV 시청’ (15.2%) 등의 순으로 조사되어 평일 여가활동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편, 주말 여가활동은 평일 여가활동에 비해 ‘종교 활동’ (13.8%), ‘극장 영화관람’ (6.6%), ‘관광·체험’ (4.4%) 등 외부 활동을 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4] 주말 여가시간 활용방법



예술활동 중 ‘예술창작’ 활동보다는 ‘예술감상’ 활동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예술감상 활동의 경우 ‘20대’ (23.0%), ‘중부’ 지역(13.3%) 응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예술창작’ 활동의 경우에는 타 지역에 비하여 ‘남부’ 지역(6.4%)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5] 주말 여가시간 활용방법

(단위 :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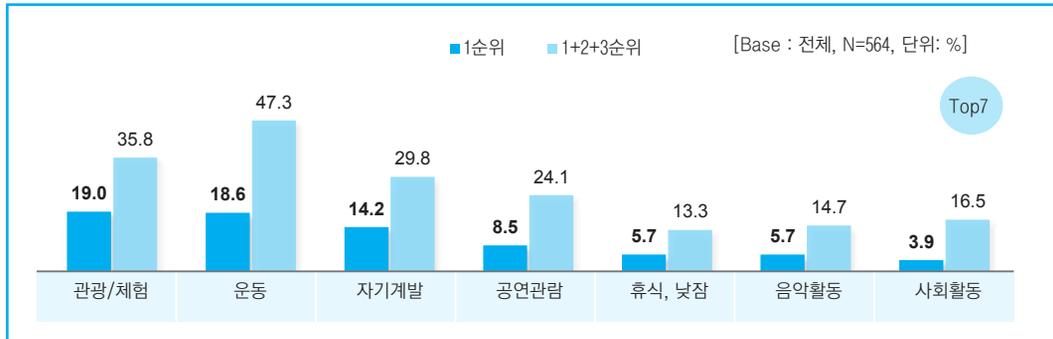
| 구분 | | 사례수 | 예술감상(공연, 전시회, 영화관람 등) | 예술창작(그림, 공예, 사진촬영 등) |
|-------|----------|-------|-----------------------|----------------------|
| 총계 | | (564) | 11.0 | 2.7 |
| 성별 | 남성 | (281) | 7.8 | 2.1 |
| | 여성 | (283) | 14.1 | 3.2 |
| 연령 | 20대 | (126) | 23.0 | 1.6 |
| | 30대 | (133) | 8.3 | 5.3 |
| | 40대 | (130) | 10.8 | 3.1 |
| | 50대 | (102) | 6.9 | 1.0 |
| | 60대 | (73) | 1.4 | 1.4 |
| 거주 지역 | 북부 | (168) | 8.3 | 1.2 |
| | 중부 | (158) | 13.3 | 1.9 |
| | 동부 | (97) | 12.4 | 1.0 |
| | 남부 | (141) | 10.6 | 6.4 |
| 월 소득 | 300만원 미만 | (184) | 13.0 | 0.5 |
| | 400만원 미만 | (176) | 8.5 | 5.1 |
| | 500만원 미만 | (133) | 11.3 | 1.5 |
| | 500만원 이상 | (71) | 11.3 | 4.2 |

(3) 향후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

① 향후 희망 여가활동(평일)

향후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평일에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관광·체험'이 19.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운동' (18.6%), '자기계발' (14.2%), '공연관람' (8.5%)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그림 5] 향후 하고 싶은 여가활동(평일)



향후 평일에 하고 싶은 여가활동에 대해 ‘관광·체험’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남성’ (23.8%), ‘50대’ (23.5%), 월 소득 ‘500만원 이상’ (22.5%)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 향후 하고 싶은 여가활동(평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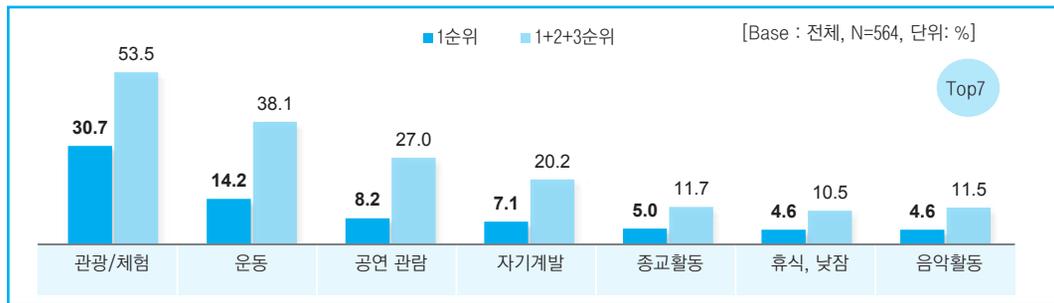
N=564(전체), 1순위 응답, Top7,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관광·체험 | 운동 | 자기계발 | 공연관람 | 휴식, 낮잠 | 음악활동 | 사회활동 | |
|-------|----------|-------|------|------|------|--------|------|------|-----|
| 총계 | (564) | 19.0 | 18.6 | 14.2 | 8.5 | 5.7 | 5.7 | 3.9 | |
| 성별 | 남성 | (281) | 23.8 | 19.6 | 11.4 | 6.8 | 3.9 | 5.3 | 4.3 |
| | 여성 | (283) | 14.1 | 17.7 | 17.0 | 10.2 | 7.4 | 6.0 | 3.5 |
| 연령 | 20대 | (126) | 18.3 | 11.9 | 19.8 | 11.1 | 4.8 | 7.9 | 3.2 |
| | 30대 | (133) | 18.0 | 19.5 | 12.0 | 8.3 | 7.5 | 3.0 | 4.5 |
| | 40대 | (130) | 18.5 | 20.0 | 15.4 | 6.2 | 4.6 | 5.4 | 3.1 |
| | 50대 | (102) | 23.5 | 22.5 | 8.8 | 10.8 | 3.9 | 5.9 | 2.0 |
| | 60대 | (73) | 16.4 | 20.5 | 13.7 | 5.5 | 8.2 | 6.8 | 8.2 |
| 거주 지역 | 북부 | (168) | 11.3 | 23.2 | 18.5 | 8.9 | 6.0 | 10.1 | 5.4 |
| | 중부 | (158) | 19.6 | 20.9 | 16.5 | 8.2 | 1.9 | 3.8 | 2.5 |
| | 동부 | (97) | 34.0 | 18.6 | 14.4 | 8.2 | 4.1 | 2.1 | 2.1 |
| | 남부 | (141) | 17.0 | 10.6 | 6.4 | 8.5 | 10.6 | 5.0 | 5.0 |
| 월 소득 | 300만원 미만 | (184) | 17.4 | 19.6 | 10.9 | 9.8 | 5.4 | 7.6 | 2.2 |
| | 400만원 미만 | (176) | 18.2 | 17.6 | 19.3 | 6.8 | 5.7 | 5.7 | 4.5 |
| | 500만원 미만 | (133) | 20.3 | 19.5 | 11.3 | 9.8 | 6.0 | 5.3 | 5.3 |
| | 500만원 이상 | (71) | 22.5 | 16.9 | 15.5 | 7.0 | 5.6 | 1.4 | 4.2 |

② 향후 희망 여가활동(주말)

향후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주말에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로는 ‘관광·체험’이 30.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운동’ (14.2%), ‘공연 관람’ (8.2%), ‘자기계발’ (7.1%)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그림 6] 향후 하고 싶은 여가활동(주말)



향후 주말에 하고 싶은 여가활동에 대해 ‘관광·체험’이라는 응답은 ‘남성’ (32.4%), ‘40대’ (33.8%), 월 소득 ‘500만원 이상’ (33.8%)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 향후 하고 싶은 여가활동(주말)

N=564(전체), 1순위 응답, Top7, 단위: %

| 구분 | 사례수 | 관광·체험 | 운동 | 공연 관람 | 자기계발 | 종교 활동 | 휴식, 낮잠 | 음악활동 | |
|-------|----------|-------|------|-------|------|-------|--------|------|-----|
| 총계 | (564) | 30.7 | 14.2 | 8.2 | 7.1 | 5.0 | 4.6 | 4.6 | |
| 성별 | 남성 | (281) | 32.4 | 16.7 | 7.1 | 6.4 | 3.6 | 3.2 | 4.3 |
| | 여성 | (283) | 29.0 | 11.7 | 9.2 | 7.8 | 6.4 | 6.0 | 4.9 |
| 연령 | 20대 | (126) | 27.0 | 7.1 | 15.9 | 6.3 | 2.4 | 7.1 | 4.8 |
| | 30대 | (133) | 33.1 | 15.0 | 9.0 | 6.8 | 2.3 | 3.8 | 3.8 |
| | 40대 | (130) | 33.8 | 14.6 | 3.8 | 7.7 | 4.6 | 3.1 | 4.6 |
| | 50대 | (102) | 28.4 | 20.6 | 6.9 | 8.8 | 5.9 | 5.9 | 3.9 |
| | 60대 | (73) | 30.1 | 15.1 | 2.7 | 5.5 | 13.7 | 2.7 | 6.8 |
| 거주 지역 | 북부 | (168) | 25.0 | 23.2 | 9.5 | 11.3 | 1.8 | 3.0 | 6.0 |
| | 중부 | (158) | 36.1 | 11.4 | 9.5 | 8.2 | 7.0 | 1.3 | 4.4 |
| | 동부 | (97) | 39.2 | 13.4 | 7.2 | 4.1 | 6.2 | 7.2 | 4.1 |
| | 남부 | (141) | 25.5 | 7.1 | 5.7 | 2.8 | 5.7 | 8.5 | 3.5 |
| 월 소득 | 300만원 미만 | (184) | 29.3 | 15.2 | 9.8 | 4.9 | 3.8 | 3.3 | 6.5 |
| | 400만원 미만 | (176) | 31.8 | 11.4 | 6.8 | 8.5 | 6.8 | 4.0 | 5.1 |
| | 500만원 미만 | (133) | 29.3 | 16.5 | 9.8 | 5.3 | 5.3 | 7.5 | 3.0 |
| | 500만원 이상 | (71) | 33.8 | 14.1 | 4.2 | 12.7 | 2.8 | 4.2 | 1.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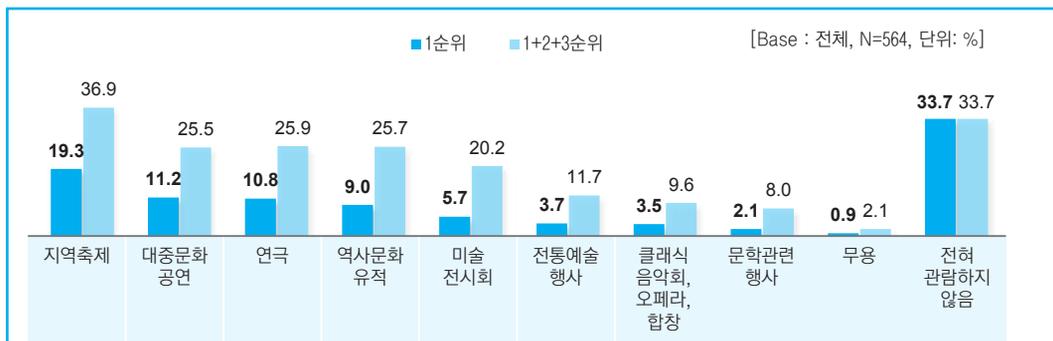
2) 문화예술 행사

(1) 평소 관람하는 문화예술행사

평소에 주로 관람하는 문화예술행사로는 ‘지역축제’가 1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대중문화 공연’ (11.2%), ‘연극’ (10.8%), ‘역사문화 유적’ (9.0%), ‘미술 전시회’ (5.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평소에 문화예술행사를 전혀 관람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3.7%로 가장 많았다.

[그림 7] 평소 관람하는 문화예술행사



평소 주로 관람하는 문화예술행사가 ‘지역축제’라는 응답은 ‘여성’ (20.1%), ‘60대’ (24.7%), 월 소득 ‘400만원 미만’ (22.2%)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중문화 공연’의 경우 ‘20대’ (13.5%)와 ‘50대’ (13.7%), ‘북부’ 지역(12.5%)의 응답률이 높았다. 또한 ‘연극’과 ‘역사문화유적’의 경우 ‘20대’와 ‘30대’, ‘60대’의 응답 양상이 대조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부’ 지역 응답자의 경우 문화예술행사를 ‘전혀 관람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8] 평소 관람하는 문화예술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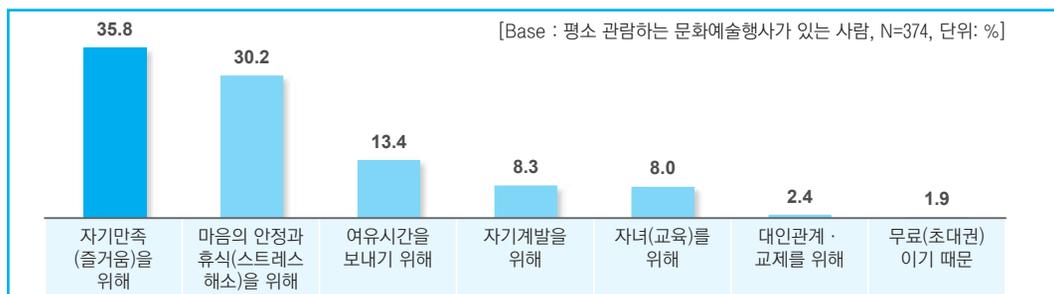
N=564(전체), 1순위 응답, Top 7,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지역 축제 | 대중 문화 공연 | 연극 | 역사 문화 유적 | 미술 전시회 | 전통 예술 행사 | 클래식 음악회, 오페라, 합창 | 문학 관련 행사 | 무용 | 전혀 관람하지 않음 | |
|-------|----------|-------|----------|------|----------|--------|----------|------------------|----------|-----|------------|------|
| 총계 | (564) | 19.3 | 11.2 | 10.8 | 9.0 | 5.7 | 3.7 | 3.5 | 2.1 | 0.9 | 33.7 | |
| 성별 | 남성 | (281) | 18.5 | 11.7 | 9.6 | 10.0 | 3.9 | 3.9 | 2.5 | 2.1 | 0.4 | 37.4 |
| | 여성 | (283) | 20.1 | 10.6 | 12.0 | 8.1 | 7.4 | 3.5 | 4.6 | 2.1 | 1.4 | 30.0 |
| 연령 | 20대 | (126) | 13.5 | 13.5 | 17.5 | 4.8 | 7.1 | 3.2 | 2.4 | 2.4 | 0.0 | 35.7 |
| | 30대 | (133) | 15.8 | 11.3 | 18.0 | 8.3 | 7.5 | 3.8 | 4.5 | 3.0 | 1.5 | 26.3 |
| | 40대 | (130) | 23.8 | 8.5 | 4.6 | 8.5 | 7.7 | 5.4 | 3.8 | 1.5 | 0.8 | 35.4 |
| | 50대 | (102) | 21.6 | 13.7 | 6.9 | 10.8 | 2.0 | 2.0 | 2.9 | 2.0 | 2.0 | 36.3 |
| | 60대 | (73) | 24.7 | 8.2 | 2.7 | 16.4 | 1.4 | 4.1 | 4.1 | 1.4 | 0.0 | 37.0 |
| 거주 지역 | 북부 | (168) | 23.8 | 12.5 | 6.5 | 7.7 | 3.6 | 6.5 | 0.0 | 0.6 | 0.6 | 38.1 |
| | 중부 | (158) | 8.2 | 10.8 | 14.6 | 9.5 | 8.9 | 3.8 | 5.7 | 3.2 | 0.6 | 34.8 |
| | 동부 | (97) | 16.5 | 9.3 | 10.3 | 21.6 | 6.2 | 3.1 | 6.2 | 4.1 | 2.1 | 20.6 |
| | 남부 | (141) | 28.4 | 11.3 | 12.1 | 1.4 | 4.3 | 0.7 | 3.5 | 1.4 | 0.7 | 36.2 |
| 월 소득 | 300만원 미만 | (184) | 18.5 | 8.2 | 10.9 | 10.9 | 4.9 | 3.8 | 5.4 | 2.2 | 1.6 | 33.7 |
| | 400만원 미만 | (176) | 22.2 | 10.8 | 11.9 | 9.1 | 5.7 | 4.5 | 2.3 | 2.3 | 0.0 | 31.3 |
| | 500만원 미만 | (133) | 19.5 | 12.0 | 10.5 | 5.3 | 6.8 | 3.8 | 2.3 | 1.5 | 0.8 | 37.6 |
| | 500만원 이상 | (71) | 14.1 | 18.3 | 8.5 | 11.3 | 5.6 | 1.4 | 4.2 | 2.8 | 1.4 | 32.4 |

(2) 문화예술행사 관람 이유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는 이유로 ‘자기만족(즐거움)을 위해’라는 응답률이 35.8%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마음의 안정과 휴식(스트레스 해소)을 위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2%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8] 문화예술행사 관람 이유



‘자기만족(즐거움)을 위해’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한다는 응답은 ‘여성’ (39.4%), ‘40대’ (44.0%), ‘부평구’ 지역(53.2%), 월 소득 ‘400만원 미만’ (39.7%)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기계발을 위해’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한다는 응답은 ‘20대’ (17.3%), ‘남부’ 지역(10.0%), 월 소득 ‘500만원 미만’ (10.8%) 응답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 ‘자녀(교육)을 위해’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한다는 응답은 ‘30대’ (15.3%), ‘중부’ 지역(11.7%)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

[표 9] 문화예술행사 관람 이유

N=374(평소 관람하는 문화예술행사가 있는 사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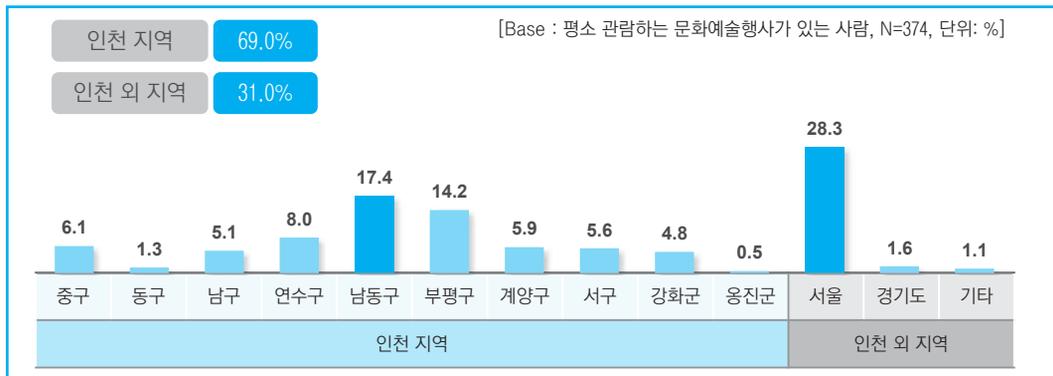
| 구분 | 사례수 | 자기 만족 (즐거움) | 마음의 안정과 휴식 | 여유 시간 보내기 | 자기 계발 | 자녀 (교육) | 대인관계 · 교제 | 무료 (초대권) | |
|-------|----------|-------------|------------|-----------|-------|---------|-----------|----------|-----|
| 총계 | (374) | 35.8 | 30.2 | 13.4 | 8.3 | 8.0 | 2.4 | 1.9 | |
| 성별 | 남성 | (176) | 31.8 | 31.3 | 16.5 | 9.7 | 6.8 | 1.7 | 2.3 |
| | 여성 | (198) | 39.4 | 29.3 | 10.6 | 7.1 | 9.1 | 3.0 | 1.5 |
| 연령 | 20대 | (81) | 34.6 | 22.2 | 16.0 | 17.3 | 0.0 | 6.2 | 3.7 |
| | 30대 | (98) | 36.7 | 30.6 | 10.2 | 4.1 | 15.3 | 2.0 | 1.0 |
| | 40대 | (84) | 44.0 | 27.4 | 7.1 | 7.1 | 11.9 | 0.0 | 2.4 |
| | 50대 | (65) | 27.7 | 41.5 | 13.8 | 7.7 | 6.2 | 1.5 | 1.5 |
| | 60대 | (46) | 32.6 | 32.6 | 26.1 | 4.3 | 2.2 | 2.2 | 0.0 |
| 거주 지역 | 북부 | (104) | 32.7 | 38.5 | 10.6 | 7.7 | 5.8 | 2.9 | 1.9 |
| | 중부 | (103) | 30.1 | 31.1 | 12.6 | 9.7 | 11.7 | 1.0 | 3.9 |
| | 동부 | (77) | 53.2 | 18.2 | 10.4 | 5.2 | 9.1 | 3.9 | 0.0 |
| | 남부 | (90) | 31.1 | 30.0 | 20.0 | 10.0 | 5.6 | 2.2 | 1.1 |
| 월 소득 | 300만원 미만 | (122) | 36.1 | 26.2 | 17.2 | 5.7 | 9.0 | 4.1 | 1.6 |
| | 400만원 미만 | (121) | 39.7 | 32.2 | 6.6 | 9.1 | 9.1 | 1.7 | 1.7 |
| | 500만원 미만 | (83) | 32.5 | 32.5 | 15.7 | 10.8 | 6.0 | 1.2 | 1.2 |
| | 500만원 이상 | (48) | 31.3 | 31.3 | 16.7 | 8.3 | 6.3 | 2.1 | 4.2 |

(3) 문화예술행사 관람 지역

인천 시민들의 문화예술행사 관람지역을 물어본 결과 인천 내에서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한다는 응답이 69.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인천 지역 내에서는 ‘남동구’ (17.4%), ‘부평구’ (14.2%)에서 문화예술행사 관람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남동구’ (17.4%)와 ‘부평구’ (14.2%)에서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한다는 응답률이 관내 타 지역에 비해서 높았다.

인천 외 지역에서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는 경우 ‘서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8.3%로 나타나 인천 외 지역에서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서울 지역에서 문화소비가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9] 문화예술행사 관람 지역



인천 지역에서 문화예술행사를 주로 관람한다는 응답은 ‘남성’ (71.0%), ‘60대’ (82.6%), 월 소득 ‘500만원 미만’ (18.1%)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 지역에서 문화예술행사를 주로 관람한다는 응답자는 ‘여성’ (29.8%), ‘20대’ (42.0%)와 ‘30대’ (30.6%), 월 소득 ‘500만원 이상’ (33.3%)인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

[표 10] 문화예술 관람지역

N=374(평소 관람하는 문화예술행사가 있는 사람),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인천 | 서울 | 경기도 |
|----------|----------|-------|------|------|-----|
| 총계 | | (374) | 69.0 | 28.3 | 1.6 |
| 성별 | 남성 | (176) | 71.0 | 26.7 | 1.1 |
| | 여성 | (198) | 67.2 | 29.8 | 2.0 |
| 연령 | 20대 | (81) | 56.8 | 42.0 | 1.2 |
| | 30대 | (98) | 66.3 | 30.6 | 1.0 |
| | 40대 | (84) | 69.0 | 27.4 | 2.4 |
| | 50대 | (65) | 78.5 | 18.5 | 1.5 |
| | 60대 | (46) | 82.6 | 15.2 | 2.2 |
| 거주 지역 | 북부 | (104) | 74.0 | 23.1 | 1.0 |
| | 중부 | (103) | 56.3 | 39.8 | 3.9 |
| | 동부 | (77) | 57.1 | 40.3 | 0.0 |
| | 남부 | (90) | 87.8 | 11.1 | 1.1 |
| 월 소득 | 300만원 미만 | (122) | 68.0 | 31.1 | 0.8 |
| | 400만원 미만 | (121) | 68.6 | 28.1 | 1.7 |
| | 500만원 미만 | (83) | 74.7 | 21.7 | 3.6 |
| | 500만원 이상 | (48) | 62.5 | 33.3 | 0.0 |

(4) 인천 지역 문화예술행사 관람 만족도

인천 지역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는 257명을 대상으로 인천 지역 문화예술행사 관람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 5점 만점 기준 평균 3.44점으로 긍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천 지역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관람 만족도는 ‘여성’ (평균 3.52점), ‘60대’ (평균 3.58점), 월 소득 ‘500만원 이상’ (평균 3.59점)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1] 인천 지역 문화예술행사 관람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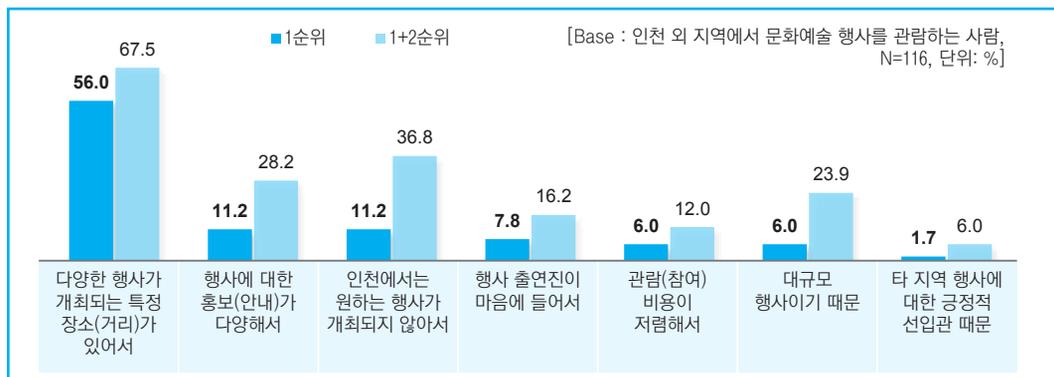
N=257(평소 관람하는 문화예술행사가 있는 사람), 단위 : %, 점

| 구분 | 사례수 | 불만족 | 보통 | 만족 | 5점 평균 | |
|-------|----------|-------|------|------|-------|------|
| 총계 | (257) | 4.7 | 46.3 | 49.0 | 3.44 | |
| 성별 | 남성 | (125) | 6.4 | 48.0 | 45.6 | 3.37 |
| | 여성 | (132) | 3.0 | 44.7 | 52.3 | 3.52 |
| 연령 | 20대 | (46) | 2.2 | 45.7 | 52.2 | 3.50 |
| | 30대 | (65) | 7.7 | 38.5 | 53.8 | 3.43 |
| | 40대 | (57) | 8.8 | 45.6 | 45.6 | 3.35 |
| | 50대 | (51) | 2.0 | 58.8 | 39.2 | 3.41 |
| | 60대 | (38) | 0.0 | 44.7 | 55.3 | 3.58 |
| 거주 지역 | 북부 | (77) | 5.2 | 37.7 | 57.1 | 3.49 |
| | 중부 | (57) | 3.5 | 59.6 | 36.8 | 3.33 |
| | 동부 | (44) | 6.8 | 59.1 | 34.1 | 3.32 |
| | 남부 | (79) | 3.8 | 38.0 | 58.2 | 3.54 |
| 월 소득 | 300만원 미만 | (83) | 6.0 | 44.6 | 49.4 | 3.41 |
| | 400만원 미만 | (83) | 4.8 | 51.8 | 43.4 | 3.39 |
| | 500만원 미만 | (62) | 4.8 | 40.3 | 54.8 | 3.50 |
| | 500만원 이상 | (29) | 0.0 | 48.3 | 51.7 | 3.59 |

(5) 인천 외 지역 문화예술행사 관람 이유

인천 외 지역에서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는 이유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는 특정 장소(거리)가 있어서' 라는 응답률이 56.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행사에 대한 홍보(안내)가 다양해서' 와 '인천에서는 원하는 행사가 개최되지 않아서' 라는 응답률이 각각 11.2%로 나타났다.

[그림 10] 인천 외 지역 문화예술행사 관람 이유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는 특정 장소(거리)가 있어서’ 라는 응답은 ‘남성’ (60.8%), ‘20대’ (65.7%)와 ‘60대’ (75.0%), ‘동부’ 지역(72.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행사에 대한 홍보(안내)가 다양해서’ 라는 의견은 ‘20대’ (14.3%), ‘북부’ 지역(25.9%), 월 소득 ‘40만원 미만’ (15.8%) 응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인천에는 원하는 행사가 개최되지 않아서’ 라는 응답은 ‘여성’ (13.8%), ‘40대’ (19.2%)와 ‘50대’ (21.4%) 응답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12] 인천 외 지역 문화예술행사 관람 이유

N=116(인천 외 지역에서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는 사람), 1순위 응답,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특정 장소 (거리)가 있어서 | 행사에 대한 홍보 다양해서 | 인천에는 원하는 행사가 개최되지 않아서 | 행사 출연진이 마음에 들어서 | 관람 (참여) 비용이 저렴해서 | 대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 타 지역 행사에 대한 긍정적 선입관 | |
|-------|---------|-----------------|----------------|-----------------------|-----------------|------------------|--------------|---------------------|-----|
| 총계 | (116) | 56.0 | 11.2 | 11.2 | 7.8 | 6.0 | 6.0 | 1.7 | |
| 성별 | 남성 | (51) | 60.8 | 11.8 | 7.8 | 5.9 | 9.8 | 3.9 | 0.0 |
| | 여성 | (65) | 52.3 | 10.8 | 13.8 | 9.2 | 3.1 | 7.7 | 3.1 |
| 연령 | 20대 | (35) | 65.7 | 14.3 | 5.7 | 5.7 | 2.9 | 5.7 | 0.0 |
| | 30대 | (33) | 63.6 | 12.1 | 6.1 | 12.1 | 0.0 | 6.1 | 0.0 |
| | 40대 | (26) | 34.6 | 11.5 | 19.2 | 7.7 | 15.4 | 7.7 | 3.8 |
| | 50대 | (14) | 42.9 | 0.0 | 21.4 | 7.1 | 14.3 | 7.1 | 7.1 |
| | 60대 | (8) | 75.0 | 12.5 | 12.5 | 0.0 | 0.0 | 0.0 | 0.0 |
| 거주 지역 | 북부 | (27) | 44.4 | 25.9 | 14.8 | 3.7 | 0.0 | 7.4 | 3.7 |
| | 중부 | (45) | 51.1 | 8.9 | 15.6 | 11.1 | 11.1 | 2.2 | 0.0 |
| | 동부 | (33) | 72.7 | 6.1 | 0.0 | 6.1 | 0.0 | 12.1 | 3.0 |
| | 남부 | (11) | 54.5 | 0.0 | 18.2 | 9.1 | 18.2 | 0.0 | 0.0 |
| 월 소득 | 30만원 미만 | (39) | 64.1 | 7.7 | 12.8 | 2.6 | 7.7 | 5.1 | 0.0 |
| | 40만원 미만 | (38) | 44.7 | 15.8 | 13.2 | 10.5 | 5.3 | 5.3 | 5.3 |
| | 50만원 미만 | (21) | 61.9 | 9.5 | 4.8 | 14.3 | 9.5 | 0.0 | 0.0 |
| | 50만원 이상 | (18) | 55.6 | 11.1 | 11.1 | 5.6 | 0.0 | 16.7 | 0.0 |

(6) 문화예술행사 관람의 중요 고려 요인

문화예술행사 관람을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행사(프로그램) 내용 및 수준’이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개최 장소 및 접근성’ (21.5%), ‘행사(프로그램) 이용 가능 시간’ (19.0%), ‘관람(참여)비용의 적절성’ (16.3%)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문화예술행사 관람시 ‘행사(프로그램) 내용 및 수준’을 중요 고려요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여성’ (39.6%)이 ‘남성’ (30.6%)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30대 연령층에서 문화예술행사 관람시 ‘행사(프로그램) 내용 및 수준’을 중요한 고려요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타 연령층에 비해서 높았다. 한편, 개최 장소 및 접근성의 경우 ‘남성’ (23.8%)이 ‘여성’ (19.1%)보다, 그리고 ‘60대’ (34.2%)에서 중요한 고려 요인이라고 응답했다.

[표 13] 문화예술행사 관람의 중요 고려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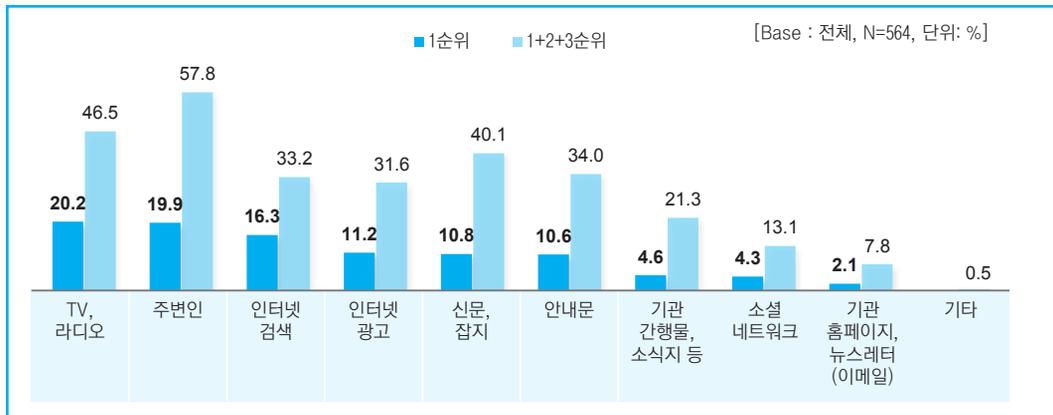
N=564(전체),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행사 (프로그램) 내용 및 수준 | 개최 장소 및 접근성 | 행사 (프로그램) 이용 가능 시간 | 관람(참여) 비용의 적절성 | 개최 장소 주변시설 | 선호하는 출연진 또는 강사 | |
|---------|----------|----------------------------|----------------|-----------------------------|----------------------|---------------|----------------------|-----|
| 총계 | (564) | 35.1 | 21.5 | 19.0 | 16.3 | 5.5 | 2.7 | |
| 성별 | 남성 | (281) | 30.6 | 23.8 | 19.6 | 16.4 | 7.1 | 2.5 |
| | 여성 | (283) | 39.6 | 19.1 | 18.4 | 16.3 | 3.9 | 2.8 |
| 연령 | 20대 | (126) | 38.1 | 14.3 | 18.3 | 19.0 | 7.1 | 3.2 |
| | 30대 | (133) | 40.6 | 18.0 | 22.6 | 9.8 | 6.0 | 3.0 |
| | 40대 | (130) | 36.9 | 20.0 | 14.6 | 18.5 | 6.2 | 3.8 |
| | 50대 | (102) | 21.6 | 27.5 | 26.5 | 20.6 | 2.9 | 1.0 |
| | 60대 | (73) | 35.6 | 34.2 | 11.0 | 13.7 | 4.1 | 1.4 |
| 월 소득 | 300만원 미만 | (184) | 32.1 | 21.2 | 19.0 | 17.9 | 7.6 | 2.2 |
| | 400만원 미만 | (176) | 43.2 | 18.8 | 18.2 | 14.8 | 4.5 | 0.6 |
| | 500만원 미만 | (133) | 26.3 | 23.3 | 21.1 | 18.8 | 6.8 | 3.8 |
| | 500만원 이상 | (71) | 39.4 | 25.4 | 16.9 | 11.3 | 0.0 | 7.0 |

(7) 문화예술행사 소식(정보) 취득 경로

문화예술행사 소식(정보)을 얻는 경로를 조사한 결과 ‘TV, 라디오’ (20.2%), ‘주변인’ (19.9%)이라는 응답이 1,2위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인터넷 검색’ (16.3%), ‘인터넷 광고’ (11.2%), ‘신문, 잡지’ (10.8%), ‘안내문’ (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문화예술행사 소식(정보) 취득 경로



‘TV, 라디오’를 통해 문화예술행사 소식을 얻는다는 응답은 ‘남성’ (20.6%), ‘60대’ (31.5%), ‘동부’ 지역(34.5%), 월 소득 ‘300만원 미만’ (24.5%)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주변인’을 통해 문화예술행사 소식을 얻는다는 응답은 ‘여성’ (22.3%), ‘60대’ (30.1%), ‘북부’ 지역(24.4%), 월 소득 ‘500만원 이상’ (23.9%) 응답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20대, 30대’의 경우 ‘인터넷 검색’과 ‘인터넷 광고’를 통해 문화예술행사 소식을 접한다는 응답률이 40대 이상의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4] 문화예술행사 소식(정보) 취득 경로

N=564(전체), 1순위 응답,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TV, 라디오 | 주변인 | 인터넷 검색 | 인터넷 광고 | 신문, 잡지 | 안내문 | 기관 간행물, 소식지 | 소셜 네트 워크 | 기관 홈페이지, 뉴스 레터 | |
|----------|----------|------------|------|-----------|-----------|-----------|------|-------------------|----------------|-------------------------|-----|
| 총계 | (564) | 20.2 | 19.9 | 16.3 | 11.2 | 10.8 | 10.6 | 4.6 | 4.3 | 2.1 | |
| 성별 | 남성 | (281) | 20.6 | 17.4 | 17.8 | 12.8 | 12.8 | 9.6 | 3.9 | 3.6 | 1.4 |
| | 여성 | (283) | 19.8 | 22.3 | 14.8 | 9.5 | 8.8 | 11.7 | 5.3 | 4.9 | 2.8 |
| 연령 | 20대 | (126) | 18.3 | 15.9 | 21.4 | 15.1 | 8.7 | 7.1 | 3.2 | 9.5 | 0.8 |
| | 30대 | (133) | 13.5 | 18.0 | 22.6 | 16.5 | 8.3 | 8.3 | 4.5 | 4.5 | 3.8 |
| | 40대 | (130) | 21.5 | 18.5 | 16.2 | 10.8 | 10.8 | 15.4 | 3.1 | 2.3 | 1.5 |
| | 50대 | (102) | 21.6 | 21.6 | 10.8 | 4.9 | 16.7 | 9.8 | 7.8 | 2.9 | 3.9 |
| | 60대 | (73) | 31.5 | 30.1 | 4.1 | 4.1 | 11.0 | 13.7 | 5.5 | 0.0 | 0.0 |
| 거주 지역 | 북부 | (168) | 20.8 | 24.4 | 10.7 | 6.0 | 16.7 | 8.3 | 6.0 | 5.4 | 1.8 |
| | 중부 | (158) | 15.8 | 12.0 | 22.2 | 11.4 | 15.2 | 12.7 | 1.9 | 5.7 | 3.2 |
| | 동부 | (97) | 24.7 | 16.5 | 11.3 | 28.9 | 2.1 | 8.2 | 2.1 | 4.1 | 2.1 |
| | 남부 | (141) | 21.3 | 25.5 | 19.9 | 5.0 | 5.0 | 12.8 | 7.8 | 1.4 | 1.4 |
| 월 소득 | 300만원 미만 | (184) | 24.5 | 19.0 | 14.1 | 11.4 | 10.9 | 9.8 | 4.3 | 4.3 | 1.6 |
| | 400만원 미만 | (176) | 17.6 | 19.9 | 17.6 | 6.3 | 12.5 | 14.2 | 5.1 | 5.1 | 1.7 |
| | 500만원 미만 | (133) | 18.0 | 18.8 | 15.0 | 14.3 | 12.8 | 10.5 | 4.5 | 3.0 | 3.0 |
| | 500만원 이상 | (71) | 19.7 | 23.9 | 21.1 | 16.9 | 2.8 | 4.2 | 4.2 | 4.2 | 2.8 |

(8) 최근 한 달 문화예술 관련 활동 지출 경험 및 비용

① 음악, 무용

최근 한 달 간 ‘음악, 무용’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에 지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59명 (10.5%)으로 나타났다.

‘음악, 무용’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에 지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총 지출 비용을 물어본 결과, ‘5만 원 이하’가 4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5~10만원’ 23.7%, ‘10~15만원’ 16.9%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음악, 무용’ 관련 지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총 59명 가운데 지출 비용이 ‘5만 원 이하’라는 응답비율은 ‘남성’ (58.3%), ‘중부’ (51.5%)와 ‘남부’ (70.0%)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15만원 이상 지출했다는 응답은 ‘여성’ (17.2%), ‘20대’ (25.0%)와 ‘30대’ (18.8%), ‘중부’ 지역(12.1%), 월 소득 ‘400만원 미만’ (13.3%) 응답자에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15] [음악,무용]활동 지출 비용

N=59(음악, 무용 활동 지출 경험 있는 사람)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총 지출 비용 | | | | | |
|------|----------|---------|--------|---------|---------|---------|-----|
| | | 5만원 이하 | 5~10만원 | 10~15만원 | 15~20만원 | 20만원 이상 | |
| 총계 | (59) | 49.2 | 23.7 | 16.9 | 8.5 | 1.7 | |
| 성별 | 남성 | (24) | 58.3 | 25.0 | 16.7 | 0.0 | 0.0 |
| | 여성 | (35) | 42.9 | 22.9 | 17.1 | 14.3 | 2.9 |
| 연령 | 20대 | (8) | 50.0 | 12.5 | 12.5 | 25.0 | 0.0 |
| | 30대 | (16) | 37.5 | 37.5 | 6.3 | 12.5 | 6.3 |
| | 40대 | (17) | 41.2 | 23.5 | 29.4 | 5.9 | 0.0 |
| | 50대 | (11) | 72.7 | 18.2 | 9.1 | 0.0 | 0.0 |
| | 60대 | (7) | 57.1 | 14.3 | 28.6 | 0.0 | 0.0 |
| 거주 | 북부 | (5) | 20.0 | 60.0 | 20.0 | 0.0 | 0.0 |
| | 중부 | (33) | 51.5 | 18.2 | 18.2 | 9.1 | 3.0 |
| | 동부 | (11) | 36.4 | 45.5 | 9.1 | 9.1 | 0.0 |
| | 남부 | (10) | 70.0 | 0.0 | 20.0 | 10.0 | 0.0 |
| 월 소득 | 300만원 미만 | (25) | 44.0 | 20.0 | 24.0 | 12.0 | 0.0 |
| | 400만원 미만 | (15) | 60.0 | 13.3 | 13.3 | 13.3 | 0.0 |
| | 500만원 미만 | (11) | 45.5 | 27.3 | 18.2 | 0.0 | 9.1 |
| | 500만원 이상 | (8) | 50.0 | 50.0 | 0.0 | 0.0 | 0.0 |

② 전시, 공연

최근 한 달 간 ‘전시, 공연’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에 지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121명 (21.5%)으로 나타났다.

‘전시, 공연’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에 지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총 지출 비용을 질문한 결과, ‘5만 원 이하’가 6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5~10만원’ 24.0%, ‘10~15만원’ 11.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전시, 공연’ 활동 지출 경험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총 지출 비용이 ‘5만 원 이하’라는 응답 비율은 ‘여성’ (66.7%), ‘60대’ (73.3%), ‘중부’ 지역(65.3%), 월 소득 ‘400만원 미만’ (64.1%) 응답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총 비용이 1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은 ‘20대’ (18.2%)와 ‘30대(18.9%)’, ‘북부’ 지역 (24.1%), 월 소득 ‘400만원 미만’ (20.5%) 응답자에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16] [전시, 공연]활동 지출 비용

N=121(전시/공연 활동 지출 경험 있는 사람)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총 지출 비용 | | | | |
|-------|----------|---------|--------|---------|---------|-----|
| | | 5만원 이하 | 5~10만원 | 10~15만원 | 15~20만원 | |
| 총계 | (121) | 62.8 | 24.0 | 11.6 | 1.7 | |
| 성별 | 남성 | (55) | 58.2 | 27.3 | 10.9 | 3.6 |
| | 여성 | (66) | 66.7 | 21.2 | 12.1 | 0.0 |
| 연령 | 20대 | (22) | 63.6 | 18.2 | 18.2 | 0.0 |
| | 30대 | (37) | 54.1 | 27.0 | 16.2 | 2.7 |
| | 40대 | (32) | 65.6 | 25.0 | 6.3 | 3.1 |
| | 50대 | (15) | 66.7 | 26.7 | 6.7 | 0.0 |
| | 60대 | (15) | 73.3 | 20.0 | 6.7 | 0.0 |
| 거주 지역 | 북부 | (29) | 62.1 | 13.8 | 20.7 | 3.4 |
| | 중부 | (49) | 65.3 | 22.4 | 10.2 | 2.0 |
| | 동부 | (29) | 62.1 | 34.5 | 3.4 | 0.0 |
| | 남부 | (14) | 57.1 | 28.6 | 14.3 | 0.0 |
| 월 소득 | 300만원 미만 | (44) | 63.6 | 25.0 | 11.4 | 0.0 |
| | 400만원 미만 | (39) | 64.1 | 15.4 | 15.4 | 5.1 |
| | 500만원 미만 | (24) | 62.5 | 29.2 | 8.3 | 0.0 |
| | 500만원 이상 | (14) | 57.1 | 35.7 | 7.1 | 0.0 |

③ 도서, 영화

최근 한 달 간 ‘도서, 영화’ 관람 활동 지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318명(56.4%)으로 나타났다.

‘도서, 영화’ 관람 활동 지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총 지출 비용을 질문한 결과, ‘5만 원 이하’가 71.4%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 (76.0%), ‘60대’ (77.4%), ‘북부’ (78.7%)와 ‘남부’ (78.5%)지역, 월 소득 ‘500만원 이상’ (76.1%)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총 지출 비용이 15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은 ‘60대’ (6.4%), ‘남부’ 지역(6.2%), 월 소득 ‘500만원 이상’ (8.6%) 응답자의 응답률이 높았다.

[표 17] [도서, 영화]활동 지출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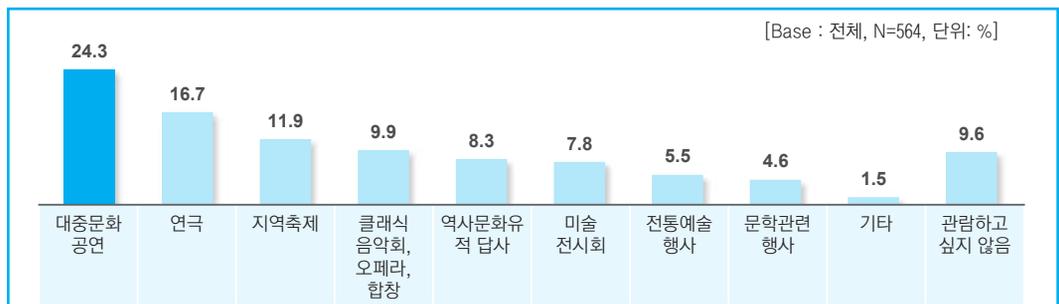
N=318(도서/영화 활동 지출 경험 있는 사람)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총 지출 비용 | | | | |
|-------|----------|-------|---------|--------|---------|---------|---------|
| | | | 5만원 이하 | 5~10만원 | 10~15만원 | 15~20만원 | 20만원 이상 |
| 총계 | | (318) | 71.4 | 19.8 | 4.1 | 2.5 | 2.2 |
| 성별 | 남성 | (151) | 66.2 | 23.2 | 6.0 | 2.6 | 2.0 |
| | 여성 | (167) | 76.0 | 16.8 | 2.4 | 2.4 | 2.4 |
| 연령 | 20대 | (94) | 75.5 | 19.1 | 2.1 | 3.2 | 0.0 |
| | 30대 | (77) | 66.2 | 19.5 | 7.8 | 2.6 | 3.9 |
| | 40대 | (72) | 70.8 | 19.4 | 4.2 | 2.8 | 2.8 |
| | 50대 | (44) | 68.2 | 25.0 | 4.5 | 0.0 | 2.3 |
| | 60대 | (31) | 77.4 | 16.1 | 0.0 | 3.2 | 3.2 |
| 거주 지역 | 북부 | (61) | 78.7 | 16.4 | 1.6 | 3.3 | 0.0 |
| | 중부 | (118) | 66.1 | 22.9 | 5.9 | 3.4 | 1.7 |
| | 동부 | (74) | 67.6 | 23.0 | 5.4 | 0.0 | 4.1 |
| | 남부 | (65) | 78.5 | 13.8 | 1.5 | 3.1 | 3.1 |
| 월 소득 | 300만원 미만 | (110) | 70.0 | 21.8 | 3.6 | 1.8 | 2.7 |
| | 400만원 미만 | (99) | 72.7 | 20.2 | 4.0 | 3.0 | 0.0 |
| | 500만원 미만 | (63) | 68.3 | 22.2 | 4.8 | 1.6 | 3.2 |
| | 500만원 이상 | (46) | 76.1 | 10.9 | 4.3 | 4.3 | 4.3 |

(9) 향후 관람 희망 문화예술행사 분야

향후 관람하고 싶은 문화예술행사 분야는 ‘대중문화 공연’이 24.3%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연극’ (16.7%), ‘지역축제’ (11.9%), ‘클래식 음악회, 오페라, 합창’ (9.9%), ‘역사문화유적 답사’ (8.3%), ‘미술 전시회’ (7.8%), ‘전통예술 행사’ (5.5%), ‘문학관련 행사’ (4.6%), ‘기타’ (1.5%), ‘관람하고 싶지 않음’ (9.6%)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2] 향후 관람 희망 문화예술행사 분야



‘대중문화공연’의 경우 ‘남성’ (28.5%), ‘20대’ (42.9%), ‘북부’ (29.2%)와 ‘동부’ (27.8%)지역의 응답률이 높았다. ‘연극’의 경우에는 ‘여성’ (19.1%), ‘30대’ (22.6%), ‘중부’ (19.6%) 지역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남부’ 지역의 경우 ‘관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21.3%로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18] 향후 관람 희망 문화예술행사 분야

N=564(전체),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대중문화공연 | 연극 | 지역축제 | 클래식음악회 오페라 합창 | 역사문화 유적 답사 | 미술 전시회 | 전통 예술 행사 | 문학 관련 행사 | 기타 | 관람 하고 싶지 않음 | |
|----------|----------|--------|------|------|---------------------|------------------|-----------|----------------|----------------|-----|----------------------|------|
| 총계 | (564) | 24.3 | 16.7 | 11.9 | 9.9 | 8.3 | 7.8 | 5.5 | 4.6 | 1.4 | 9.6 | |
| 성별 | 남성 | (281) | 28.5 | 14.2 | 11.4 | 7.8 | 11.0 | 6.8 | 6.0 | 3.9 | 0.4 | 10.0 |
| | 여성 | (283) | 20.1 | 19.1 | 12.4 | 12.0 | 5.7 | 8.8 | 4.9 | 5.3 | 2.5 | 9.2 |
| 연령 | 20대 | (126) | 42.9 | 21.4 | 5.6 | 5.6 | 3.2 | 4.0 | 3.2 | 4.0 | 2.4 | 7.9 |
| | 30대 | (133) | 21.8 | 22.6 | 12.0 | 9.8 | 7.5 | 9.0 | 4.5 | 6.0 | 0.8 | 6.0 |
| | 40대 | (130) | 16.9 | 14.6 | 14.6 | 12.3 | 8.5 | 12.3 | 6.2 | 1.5 | 1.5 | 11.5 |
| | 50대 | (102) | 24.5 | 11.8 | 14.7 | 9.8 | 9.8 | 6.9 | 4.9 | 7.8 | 1.0 | 8.8 |
| | 60대 | (73) | 9.6 | 8.2 | 13.7 | 13.7 | 16.4 | 5.5 | 11.0 | 4.1 | 1.4 | 16.4 |
| 거주 지역 | 북부 | (168) | 29.2 | 13.1 | 14.9 | 4.8 | 8.3 | 8.9 | 6.5 | 6.0 | 1.8 | 6.5 |
| | 중부 | (158) | 22.8 | 19.6 | 8.2 | 14.6 | 10.1 | 8.9 | 5.7 | 3.8 | 0.6 | 5.7 |
| | 동부 | (97) | 27.8 | 16.5 | 10.3 | 13.4 | 10.3 | 8.2 | 3.1 | 4.1 | 2.1 | 4.1 |
| | 남부 | (141) | 17.7 | 17.7 | 13.5 | 8.5 | 5.0 | 5.0 | 5.7 | 4.3 | 1.4 | 21.3 |
| 월 소득 | 300만원 미만 | (184) | 22.8 | 15.2 | 12.5 | 10.9 | 7.1 | 9.2 | 8.2 | 5.4 | 0.0 | 8.7 |
| | 400만원 미만 | (176) | 24.4 | 17.0 | 9.1 | 10.2 | 9.7 | 8.0 | 4.0 | 2.8 | 2.3 | 12.5 |
| | 500만원 미만 | (133) | 26.3 | 17.3 | 15.8 | 9.0 | 7.5 | 7.5 | 3.8 | 4.5 | 2.3 | 6.0 |
| | 500만원 이상 | (71) | 23.9 | 18.3 | 9.9 | 8.5 | 9.9 | 4.2 | 5.6 | 7.0 | 1.4 | 1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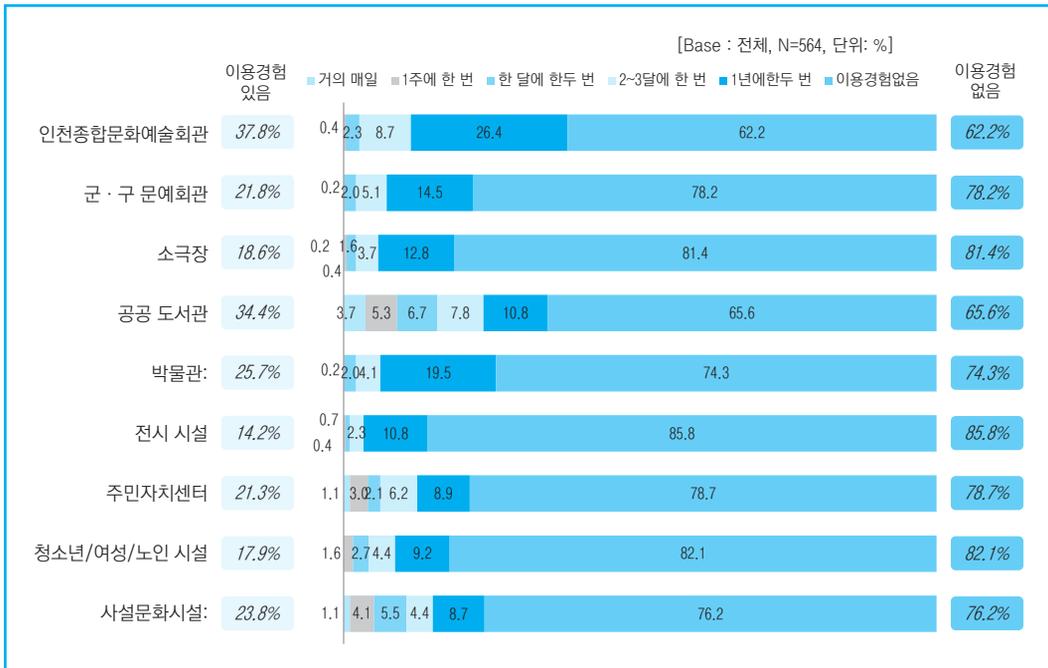
3) 문화예술시설

(1) 지난 1년간 인천지역 문화시설 이용 빈도

지난 1년간 인천 지역의 문화예술시설 이용 경험 비율을 살펴보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이용 비율이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공공 도서관’ (34.4%), ‘박물관’ (25.7%), ‘시설문화시설’ (23.8%), ‘군·구 문예회관’ (21.8%), ‘주민자치센터’ (21.3%)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인천지역 문화시설 가운데 ‘거의 매일’ 이용하는 시설은 ‘공공 도서관’이 3.7%로 나타났으며, ‘공공 도서관’을 제외한 시설들의 이용 빈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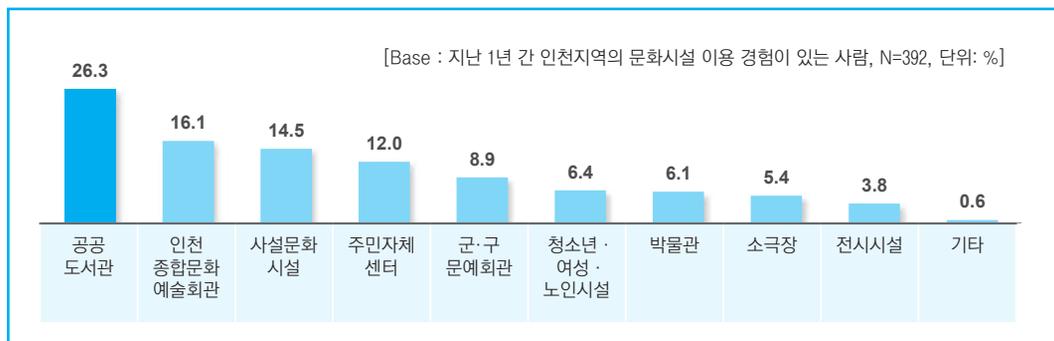
[그림 13] 문화예술시설 이용 경향



(2)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이용한 인천 지역 문화시설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이용한 인천 지역의 문화시설은 ‘공공 도서관’ (26.3%)이며, 다음으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6.1%), ‘사설문화시설’ (14.5%), ‘주민자체센터’ (12.0%) 등의 순으로 문화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4]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이용한 인천지역 문화시설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이용한 인천지역 문화시설을 ‘공공 도서관’ 으로 ‘남성’ (31.6%), ‘20대’ (34.5%), ‘중부’ 지역(37.8%), 월 소득 ‘500만원 미만’ (33.0%) 응답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여성’ 응답자의 이용율이 높은 곳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17.2%), 사설문화시설(16.7%), 청소년, 여성, 노인시설(8.9%)로 나타났으며 ‘남성’ 응답자의 경우 박물관 (8.5%), 소극장(6.8%), 전시시설(5.6%)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9]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이용한 인천지역 문화시설

N=392(지난 1년 간 인천지역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공공 도서관 | 종합 문예 회관 | 사설 문화 시설 | 주민 자체 센터 | 군·구 문예 회관 | 청소년· 여성· 노인 시설 | 박물관 | 소극장 | 전시 시설 | 기타 | |
|----------|----------|-----------|----------------|----------------|----------------|-----------------|-------------------------|------|------|----------|-----|-----|
| 총계 | (392) | 26.3 | 16.1 | 14.5 | 12.0 | 8.9 | 6.4 | 6.1 | 5.4 | 3.8 | 0.6 | |
| 성별 | 남성 | (177) | 31.6 | 14.7 | 11.9 | 9.6 | 7.3 | 3.4 | 8.5 | 6.8 | 5.6 | 0.6 |
| | 여성 | (215) | 21.9 | 17.2 | 16.7 | 14.0 | 10.2 | 8.8 | 4.2 | 4.2 | 2.3 | 0.5 |
| 연령 | 20대 | (87) | 34.5 | 16.1 | 21.8 | 6.9 | 10.3 | 3.4 | 1.1 | 3.4 | 2.3 | 0.0 |
| | 30대 | (106) | 28.3 | 13.2 | 17.9 | 10.4 | 8.5 | 4.7 | 7.5 | 5.7 | 2.8 | 0.9 |
| | 40대 | (87) | 21.8 | 20.7 | 12.6 | 11.5 | 8.0 | 5.7 | 6.9 | 4.6 | 8.0 | 0.0 |
| | 50대 | (63) | 20.6 | 9.5 | 9.5 | 15.9 | 9.5 | 9.5 | 9.5 | 11.1 | 3.2 | 1.6 |
| | 60대 | (49) | 22.4 | 22.4 | 4.1 | 20.4 | 8.2 | 12.2 | 6.1 | 2.0 | 2.0 | 0.0 |
| 거주 지역 | 북부 | (119) | 15.1 | 19.3 | 6.7 | 12.6 | 11.8 | 12.6 | 9.2 | 7.6 | 5.0 | 0.0 |
| | 중부 | (119) | 37.8 | 11.8 | 21.8 | 14.3 | 3.4 | 3.4 | 3.4 | 2.5 | 0.0 | 1.6 |
| | 동부 | (59) | 30.5 | 13.6 | 11.9 | 8.5 | 10.2 | 0.0 | 10.2 | 11.9 | 3.4 | 0.0 |
| | 남부 | (95) | 23.2 | 18.9 | 16.8 | 10.5 | 11.6 | 6.3 | 3.2 | 2.1 | 7.4 | 0.0 |
| 월 소득 | 300만원 미만 | (134) | 27.6 | 11.9 | 12.7 | 16.4 | 7.5 | 10.4 | 5.2 | 6.0 | 2.2 | 0.0 |
| | 400만원 미만 | (126) | 19.8 | 19.0 | 14.3 | 10.3 | 11.9 | 4.0 | 7.9 | 5.6 | 6.3 | 0.8 |
| | 500만원 미만 | (88) | 33.0 | 18.2 | 17.0 | 6.8 | 5.7 | 4.5 | 5.7 | 4.5 | 3.4 | 1.1 |
| | 500만원 이상 | (44) | 27.3 | 15.9 | 15.9 | 13.6 | 11.4 | 4.5 | 4.5 | 4.5 | 2.3 | 0.0 |

(3) 인천 지역 문화시설 만족도

인천 지역의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 수준이 높은 편으로 특히 ‘장소 접근성’ (평균 3.57점), ‘시설 관리상태’ (평균 3.53점), ‘프로그램 내용 및 수준’ (평균 3.50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주변 쇼핑상점, 음식점과 같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변시설’ (평균 3.32점)과 ‘시설 및 개최행사 안내’ (평균 3.33점)에 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20] 인천 지역 문화시설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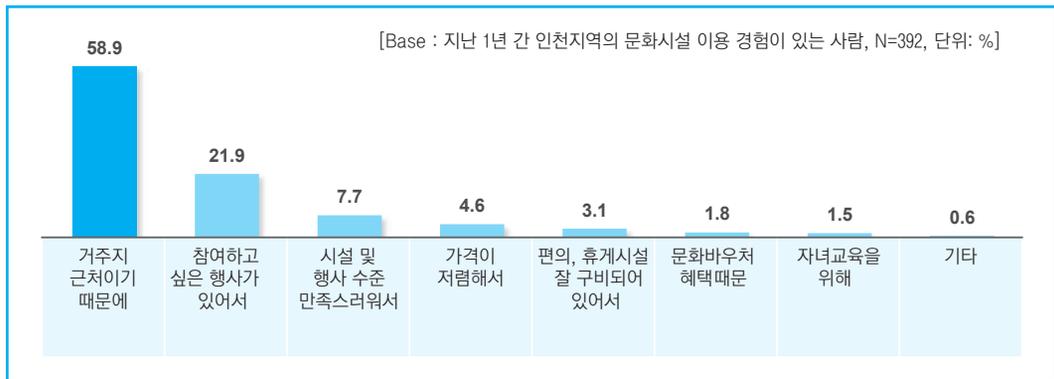
N=392(인천지역 문화시설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 Top 5, 단위 : 개소

| | 전체 평균 | 종합 문예회관 | 군/구 문예회관 | 소극장 | 공공 도서관 | 박물관 |
|-------------------|-------|------------|-------------|------|--------|------|
| 사례수 | (392) | (63) | (35) | (21) | (103) | (24) |
| 프로그램 내용 및 수준 | 3.50 | 3.54 | 3.63 | 3.67 | 3.50 | 3.63 |
| 프로그램 관람 가능 시간 | 3.48 | 3.46 | 3.63 | 3.62 | 3.45 | 3.54 |
| 시설 규모 및 수준 | 3.47 | 3.44 | 3.57 | 3.62 | 3.49 | 3.46 |
| 시설 관리 상태 | 3.53 | 3.49 | 3.60 | 3.33 | 3.65 | 3.58 |
| 편의, 휴게 시설 구비 | 3.43 | 3.33 | 3.40 | 3.43 | 3.50 | 3.38 |
| 장소 접근성 | 3.57 | 3.51 | 3.71 | 3.57 | 3.62 | 3.58 |
|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변 시설 | 3.32 | 3.33 | 3.34 | 3.67 | 3.25 | 3.29 |
| 시설 및 개최행사 안내 | 3.33 | 3.38 | 3.46 | 3.57 | 3.28 | 3.29 |

(4) 인천지역 문화시설 이용 이유

인천지역 문화시설 이용한 이유로는 ‘거주지 근처이기 때문’ (58.9%)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참여하고 싶은 행사가 있어서’ (21.9%), ‘시설 및 행사 수준이 만족스러워서’ (7.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5] 인천지역 문화시설 이용 이유



‘40대’ (63.2%), ‘중부’ (67.2%)와 ‘남부’ (64.2%)지역, 월 소득 ‘400만원 미만’ (61.1%)의 응답자의 경우 ‘거주지 근처이기 때문에’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여성’ (23.3%), ‘30대’ (23.6%), ‘북부’ (28.6%)와 ‘동부’ (28.8%)지역 응답자의 경우 ‘참여하고 싶은 행사가 있어서’ 라는 항목에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21] 인천지역 문화시설 이용 이유

N=392(인천지역 문화시설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거주지 근처 | 참여 희망 행사 개최 | 시설, 행사 수준 만족 | 가격 저렴 | 편의, 휴게 시설 구비 | 문화 바우처 혜택 | 자녀 교육 | 기타 |
|-------|----------------|--------|-------------|--------------|-------|--------------|-----------|-------|-----|
| 총계 | (392) | 58.9 | 21.9 | 7.7 | 4.6 | 3.1 | 1.8 | 1.5 | 0.5 |
| 성별 | 남성 (177) | 59.9 | 20.3 | 7.3 | 4.5 | 3.4 | 2.3 | 1.7 | 0.6 |
| | 여성 (215) | 58.1 | 23.3 | 7.9 | 4.7 | 2.8 | 1.4 | 1.4 | 0.5 |
| 연령 | 20대 (87) | 59.8 | 19.5 | 6.9 | 5.7 | 4.6 | 1.1 | 2.3 | 0.0 |
| | 30대 (106) | 61.3 | 23.6 | 8.5 | 1.9 | 1.9 | 0.9 | 1.9 | 0.0 |
| | 40대 (87) | 63.2 | 17.2 | 8.0 | 3.4 | 4.6 | 1.1 | 1.1 | 1.1 |
| | 50대 (63) | 55.6 | 22.2 | 6.3 | 9.5 | 1.6 | 3.2 | 1.6 | 0.0 |
| | 60대 (49) | 49.0 | 30.6 | 8.2 | 4.1 | 2.0 | 4.1 | 0.0 | 2.0 |
| 거주 지역 | 북부 (119) | 47.1 | 28.6 | 8.4 | 7.6 | 3.4 | 1.7 | 3.4 | 0.0 |
| | 중부 (119) | 67.2 | 16.0 | 5.0 | 3.4 | 3.4 | 1.7 | 1.7 | 1.7 |
| | 동부 (59) | 57.6 | 28.8 | 8.5 | 1.7 | 3.4 | 0.0 | 0.0 | 0.0 |
| | 남부 (95) | 64.2 | 16.8 | 9.5 | 4.2 | 2.1 | 3.2 | 0.0 | 0.0 |
| 월 소득 | 300만원 미만 (134) | 59.7 | 18.7 | 9.0 | 5.2 | 3.0 | 3.7 | 0.7 | 0.6 |
| | 400만원 미만 (126) | 61.1 | 23.0 | 11.1 | 3.2 | 1.6 | 0.0 | 0.0 | 0.4 |
| | 500만원 미만 (88) | 55.7 | 22.7 | 3.4 | 6.8 | 4.5 | 0.0 | 4.5 | 1.3 |
| | 500만원 이상 (44) | 56.8 | 27.3 | 2.3 | 2.3 | 4.5 | 4.5 | 2.3 | 0.0 |

(5) 인천지역 문화시설 이용 시 중요 고려 요인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 전체 응답자의 33.2%가 ‘장소 접근성(주변 교통 상황, 대중교통 이용 편의 등)’ 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시설 규모 및 수준(자료, 설비 등)’ (21.6%), ‘시설 이용 가능 시간’ (16.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6] 인천지역 문화시설 이용 시 중요 고려 요인



인천지역 문화시설 이용 시 ‘장소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남성’ (35.2%), ‘50대’ (41.2%), 월 소득 ‘300만원 미만’ (38.6%) 응답자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설 규모 및 수준’의 경우 ‘30대’ (25.6%), ‘북부’ (28.6%) 지역, 월 소득 ‘400만원 미만’ (23.9%)인 응답자가 중요 고려요인으로 꼽았다.

성별 주요 고려 요인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장소 접근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 2, 3, 4위로 꼽고 있는 요인들(시설규모수준, 시설이용 가능시간, 시설이용에 드는 비용)간의 응답비율의 차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22] 인천지역 문화시설 이용 시 중요 고려 요인

N=564(전체),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장소 접근성 | 시설 규모, 수준 | 시설 이용 가능 시간 | 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편의, 휴게 시설 구비 정도 | 시설 관리 상태 | 주변 시설 | 기타 |
|-------|----------------|--------|-----------|-------------|--------------|-----------------|----------|-------|-----|
| 총계 | (564) | 33.2 | 21.6 | 16.7 | 15.2 | 4.8 | 4.3 | 4.1 | 0.2 |
| 성별 | 남성 (281) | 35.2 | 24.6 | 14.9 | 12.8 | 4.3 | 4.3 | 3.9 | 0.0 |
| | 여성 (283) | 31.1 | 18.7 | 18.4 | 17.7 | 5.3 | 4.2 | 4.2 | 0.4 |
| 연령 | 20대 (126) | 26.2 | 19.8 | 18.3 | 19.8 | 3.2 | 6.3 | 6.3 | 0.0 |
| | 30대 (133) | 32.3 | 25.6 | 12.0 | 16.5 | 4.5 | 3.8 | 4.5 | 0.8 |
| | 40대 (130) | 32.3 | 23.1 | 17.7 | 15.4 | 5.4 | 3.1 | 3.1 | 0.0 |
| | 50대 (102) | 41.2 | 17.6 | 19.6 | 10.8 | 3.9 | 4.9 | 2.0 | 0.0 |
| | 60대 (73) | 37.0 | 20.5 | 16.4 | 11.0 | 8.2 | 2.7 | 4.1 | 0.0 |
| 거주 지역 | 북부 (168) | 29.8 | 28.6 | 16.7 | 11.9 | 3.6 | 4.2 | 5.4 | 0.0 |
| | 중부 (158) | 29.7 | 19.0 | 27.8 | 13.9 | 4.4 | 3.2 | 1.9 | 0.0 |
| | 동부 (97) | 41.2 | 21.6 | 9.3 | 19.6 | 2.1 | 3.1 | 3.1 | 0.0 |
| | 남부 (141) | 35.5 | 16.3 | 9.2 | 17.7 | 8.5 | 6.4 | 5.7 | 0.7 |
| 월 소득 | 300만원 미만 (184) | 38.6 | 19.0 | 16.8 | 10.9 | 4.9 | 4.3 | 4.9 | 0.5 |
| | 400만원 미만 (176) | 31.8 | 23.9 | 15.3 | 15.9 | 5.1 | 6.3 | 1.7 | 0.0 |
| | 500만원 미만 (133) | 27.1 | 21.8 | 20.3 | 18.8 | 3.8 | 2.3 | 6.0 | 0.0 |
| | 500만원 이상 (71) | 33.8 | 22.5 | 12.7 | 18.3 | 5.6 | 2.8 | 4.2 | 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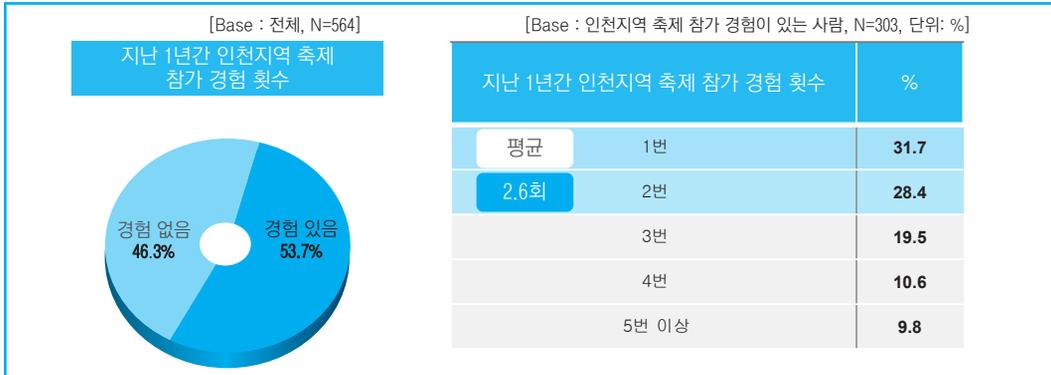
5) 지역축제

(1) 지난 1년간 인천 지역축제 참가 경험 여부 및 횟수

지난 1년간 ‘인천 지역축제 관람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03명(53.7%)으로 나타났다.

축제 참가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축제 참가 횟수는 ‘1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3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은 2.6회이다.

[그림 17] 인천 지역축제 참가 경험 여부 및 횟수



인천 지역축제 참가 경험에 대한 응답률은 ‘여성’ (58.3%), ‘60대’ (65.8%), ‘북부’ (60.7%) 지역, 월 소득 ‘400만원 미만’ (56.3%) 응답자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동부’ 지역의 경우 39.2%로 낮게 나타났다.

[표 23] 인천 지역축제 참가 경험 여부

N=564(전체),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경험 있음 | 경험 없음 |
|-------|----------------|-------|-------|
| 총계 | (564) | 53.7 | 46.3 |
| 성별 | 남성 (281) | 49.1 | 50.9 |
| | 여성 (283) | 58.3 | 41.7 |
| 연령 | 20대 (126) | 41.3 | 58.7 |
| | 30대 (133) | 54.9 | 45.1 |
| | 40대 (130) | 55.4 | 44.6 |
| | 50대 (102) | 56.9 | 43.1 |
| | 60대 (73) | 65.8 | 34.2 |
| 거주 지역 | 북부 (168) | 60.7 | 39.3 |
| | 중부 (158) | 51.3 | 48.7 |
| | 동부 (97) | 39.2 | 60.8 |
| | 남부 (141) | 58.2 | 41.8 |
| 월 소득 | 300만원 미만 (184) | 54.3 | 45.7 |
| | 400만원 미만 (176) | 56.3 | 43.8 |
| | 500만원 미만 (133) | 48.9 | 51.1 |
| | 500만원 이상 (71) | 54.9 | 45.1 |

인천 지역축제 참가 횟수는 ‘여성’ (평균 2.65회), ‘40대’ (평균 2.92회), ‘북부’ (평균 3.31회) 지역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동부’ 지역과 ‘남부’ 지역의 경우 각각 평균 2.26회, 평균 2.29회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24] 인천지역 축제 참가 경험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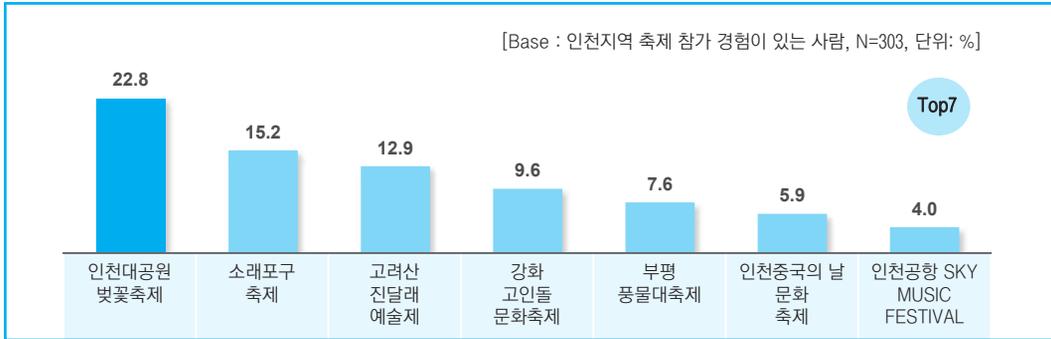
N=303(인천지역 축제 참가 경험이 있는 사람), 단위 : %, 회

| 구분 | 사 례 수 | 1번 | 2번 | 3번 | 4번 | 5회 이상 | 평균 | |
|-------|----------|-------|------|------|------|-------|------|------|
| 총계 | (303) | 31.7 | 28.4 | 19.5 | 10.6 | 9.9 | 2.60 | |
| 성별 | 남성 | (138) | 32.6 | 26.1 | 19.6 | 10.9 | 10.9 | 2.54 |
| | 여성 | (165) | 30.9 | 30.3 | 19.4 | 10.3 | 9.1 | 2.65 |
| 연령 | 20대 | (52) | 44.2 | 38.5 | 5.8 | 9.6 | 1.9 | 1.90 |
| | 30대 | (73) | 31.5 | 26.0 | 24.7 | 9.6 | 8.2 | 2.63 |
| | 40대 | (72) | 26.4 | 26.4 | 20.8 | 16.7 | 9.7 | 2.92 |
| | 50대 | (58) | 37.9 | 19.0 | 17.2 | 8.6 | 17.2 | 2.72 |
| | 60대 | (48) | 18.8 | 35.4 | 27.1 | 6.3 | 12.5 | 2.69 |
| 거주 지역 | 북부 | (102) | 13.7 | 29.4 | 25.5 | 13.7 | 17.6 | 3.13 |
| | 중부 | (81) | 42.0 | 23.5 | 18.5 | 7.4 | 8.6 | 2.41 |
| | 동부 | (38) | 39.5 | 18.4 | 23.7 | 15.8 | 2.6 | 2.26 |
| | 남부 | (82) | 40.2 | 36.6 | 11.0 | 7.3 | 4.9 | 2.29 |
| 월 소득 | 300만원 미만 | (100) | 34.0 | 29.0 | 15.0 | 12.0 | 10.0 | 2.70 |
| | 400만원 미만 | (99) | 28.3 | 30.3 | 24.2 | 10.1 | 7.1 | 2.39 |
| | 500만원 미만 | (65) | 29.2 | 23.1 | 21.5 | 10.8 | 15.4 | 3.02 |
| | 500만원 이상 | (39) | 38.5 | 30.8 | 15.4 | 7.7 | 7.7 | 2.18 |

(2) 가장 기억에 남는 인천지역 축제

지난 1년간 경험한 인천 축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축제를 물어본 결과 ‘인천대공원 벚꽃축제’가 22.8%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소래포구 축제’ (15.2%), ‘고려산 진달래 예술제’ (12.9%), ‘강화 고인돌 문화축제’ (9.6%)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8] 가장 기억에 남는 인천지역 축제



가장 기억에 남는 인천지역 축제가 ‘인천대공원 벚꽃축제’라는 응답은 ‘여성’ (27.3%), ‘30대’ (37.0%), 월 소득 ‘500만원 이상’ (25.6%)인 응답자에서, ‘소래포구 축제’라고 응답한 경우는 ‘60대’ (22.9%) 연령층에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천 중국의 날 문화축제’와 ‘인천공항 SKY MUSIC FESTIVAL’을 가장 기억에 남는 인천지역축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지역은 ‘중부’ (각각 13.6%, 7.4%) 지역이다.

[표 25] 가장 기억에 남는 인천지역 축제

N=303(인천지역 축제 참가 경험이 있는 사람), Top7, 단위: %

| 구분 | 사례수 | 인천 대공원 벚꽃축제 | 소래포구 축제 | 고려산 진달래 예술제 | 강화 고인돌 문화축제 | 부평풍물 대축제 | 인천 중국의 날 문화축제 | 인천공항 SKY MUSIC FESTIVAL | |
|-------|----------|-------------|---------|-------------|-------------|----------|---------------|-------------------------|-----|
| 총계 | (303) | 22.8 | 15.2 | 12.9 | 9.6 | 7.6 | 5.9 | 4.0 | |
| 성별 | 남성 | (138) | 17.4 | 16.7 | 12.3 | 9.4 | 8.7 | 6.5 | 5.1 |
| | 여성 | (165) | 27.3 | 13.9 | 13.3 | 9.7 | 6.7 | 5.5 | 3.0 |
| 연령 | 20대 | (52) | 25.0 | 17.3 | 5.8 | 5.8 | 3.8 | 0.0 | 1.9 |
| | 30대 | (73) | 37.0 | 8.2 | 8.2 | 8.2 | 9.6 | 6.8 | 4.1 |
| | 40대 | (72) | 19.4 | 8.3 | 20.8 | 11.1 | 11.1 | 5.6 | 4.2 |
| | 50대 | (58) | 15.5 | 24.1 | 10.3 | 17.2 | 5.2 | 3.4 | 5.2 |
| | 60대 | (48) | 12.5 | 22.9 | 18.8 | 4.2 | 6.3 | 14.6 | 4.2 |
| 거주 지역 | 북부 | (102) | 15.7 | 10.8 | 23.5 | 14.7 | 4.9 | 3.9 | 3.9 |
| | 중부 | (81) | 18.5 | 11.1 | 6.2 | 6.2 | 6.2 | 13.6 | 7.4 |
| | 동부 | (38) | 23.7 | 13.2 | 13.2 | 10.5 | 18.4 | 5.3 | 2.6 |
| | 남부 | (82) | 35.4 | 25.6 | 6.1 | 6.1 | 7.3 | 1.2 | 1.2 |
| 월 소득 | 300만원 미만 | (100) | 23.0 | 17.0 | 17.0 | 7.0 | 10.0 | 3.0 | 3.0 |
| | 400만원 미만 | (99) | 23.2 | 17.2 | 9.1 | 9.1 | 2.0 | 7.1 | 5.1 |
| | 500만원 미만 | (65) | 20.0 | 13.8 | 12.3 | 12.3 | 9.2 | 9.2 | 3.1 |
| | 500만원 이상 | (39) | 25.6 | 7.7 | 12.8 | 12.8 | 12.8 | 5.1 | 5.1 |

(3) 인천 지역축제 참가 이유

인천 지역축제 참가 경험이 있는 응답자 303명을 대상으로 인천지역 축제 참가한 이유를 물어본 결과, ‘사전 홍보를 접하고 축제에 관심이 생겨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유명한(대규모) 축제를 경험하고 싶어서’ 25.7%, ‘우연히(사전 참여 의도 없었음)’ 13.5%, ‘자녀(교육)를 위해서’ 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전 홍보를 접하고 축제에 관심이 생겨서’라는 응답은 ‘60대’ 연령층에서 43.8%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명한 축제를 경험하고 싶어서’라는 응답은 ‘20대’ 연령층에서 30.8%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20대’의 경우 ‘우연히’라는 응답이 25.6%로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26] 인천 지역축제 참가 이유

N=303(인천지역 축제 참가 경험이 있는 사람),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사전 홍보 접하고 관심 생겨서 | 경험 하고 싶어서 | 우연히 | 자녀 (교육) 위해 | 주변, 네티즌 평가가 좋아서 | 자기 계발을 위해 | 축제 상품 구입 | 기타 | |
|----------|----------|---------------------------|-----------------|------|------------------|--------------------------|-----------------|----------------|-----|-----|
| 총계 | (303) | 31.4 | 25.7 | 13.5 | 10.2 | 7.6 | 6.3 | 4.3 | 1.0 | |
| 성별 | 남성 | (138) | 33.3 | 25.4 | 13.8 | 7.2 | 8.7 | 6.5 | 3.6 | 1.4 |
| | 여성 | (165) | 29.7 | 26.1 | 13.3 | 12.7 | 6.7 | 6.1 | 4.8 | 0.6 |
| 연령 | 20대 | (52) | 26.9 | 30.8 | 25.0 | 3.8 | 5.8 | 3.8 | 1.9 | 1.9 |
| | 30대 | (73) | 26.0 | 23.3 | 9.6 | 20.5 | 9.6 | 6.8 | 4.1 | 0.0 |
| | 40대 | (72) | 29.2 | 26.4 | 12.5 | 13.9 | 11.1 | 1.4 | 5.6 | 0.0 |
| | 50대 | (58) | 34.5 | 24.1 | 12.1 | 6.9 | 1.7 | 13.8 | 3.4 | 3.4 |
| | 60대 | (48) | 43.8 | 25.0 | 10.4 | 0.0 | 8.3 | 6.3 | 6.3 | 0.0 |
| 거주 지역 | 북부 | (102) | 40.2 | 28.4 | 6.9 | 3.9 | 6.9 | 5.9 | 6.9 | 1.0 |
| | 중부 | (81) | 35.8 | 13.6 | 13.6 | 14.8 | 7.4 | 8.6 | 3.7 | 2.5 |
| | 동부 | (38) | 39.5 | 7.9 | 34.2 | 10.5 | 5.3 | 2.6 | 0.0 | 0.0 |
| | 남부 | (82) | 12.2 | 42.7 | 12.2 | 13.4 | 9.8 | 6.1 | 3.7 | 0.0 |
| 월 소득 | 300만원 미만 | (100) | 35.0 | 30.0 | 11.0 | 6.0 | 6.0 | 9.0 | 3.0 | 0.0 |
| | 400만원 미만 | (99) | 31.3 | 25.3 | 11.1 | 10.1 | 10.1 | 5.1 | 5.1 | 2.0 |
| | 500만원 미만 | (65) | 32.3 | 24.6 | 18.5 | 12.3 | 4.6 | 1.5 | 4.6 | 1.5 |
| | 500만원 이상 | (39) | 20.5 | 17.9 | 17.9 | 17.9 | 10.3 | 10.3 | 5.1 | 0.0 |

(4) 인천 지역축제 만족도

인천 지역축제에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 축제의 각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 ‘축제 개최 시기’에 대한 만족도가 5점 만점 기준 평균 3.74점으로 가장 높았고 ‘축제 내용 및 주제’가 평균 3.56점, ‘축제 사전 안내’가 평균 3.51점, ‘장소 접근성’이 평균 3.43점으로 조사되었다.

축제 시기와 주제, 홍보 등에 관한 항목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았으나 음식점, 상점 등의 ‘함께 이용할 만한 주변시설’ (평균 3.38점)과 축제 장소 주변의 ‘편의, 휴게시설’ (평균 3.22점)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축제 개최 시기’ 만족도는 ‘20대’ (평균 3.96점), ‘북부’ (평균 3.92점) 지역, 월 소득 ‘400만원 미만’ (평균 3.80점) 응답자의 비율이 높고, ‘축제 내용 및 주제’는 ‘20대’ (평균 3.69점), ‘남부’ (평균 3.77점) 지역, 월 소득 ‘300만원 미만’ (평균 3.62점) 응답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27] 인천 지역축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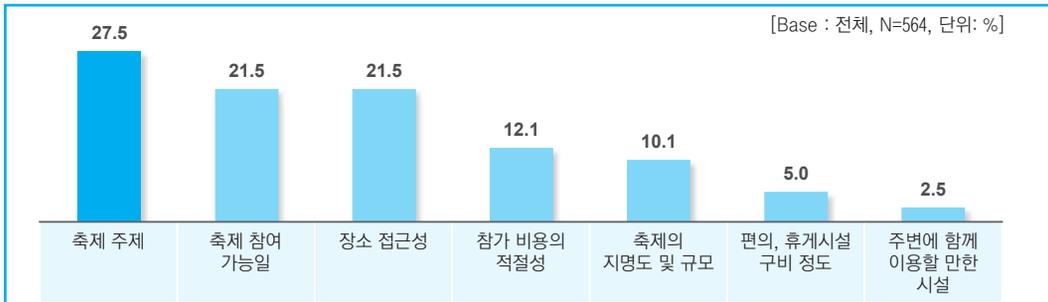
N=303(인천지역 축제 참가 경험이 있는 사람), 단위: 점

| 구분 | 사례수 | 축제 개최 시기 | 축제 내용 및 주제 | 축제 사전 안내 | 장소 접근성 | 주변시설 | 편의, 휴게시설 |
|-------|----------------|----------|------------|----------|--------|------|----------|
| 총계 | (303) | 3.74 | 3.56 | 3.51 | 3.43 | 3.38 | 3.22 |
| 성별 | 남성 (138) | 3.80 | 3.59 | 3.59 | 3.38 | 3.33 | 3.19 |
| | 여성 (165) | 3.68 | 3.54 | 3.44 | 3.47 | 3.41 | 3.24 |
| 연령 | 20대 (52) | 3.96 | 3.69 | 3.60 | 3.46 | 3.50 | 3.44 |
| | 30대 (73) | 3.66 | 3.62 | 3.38 | 3.44 | 3.34 | 3.14 |
| | 40대 (72) | 3.68 | 3.51 | 3.49 | 3.39 | 3.33 | 3.21 |
| | 50대 (58) | 3.71 | 3.48 | 3.52 | 3.47 | 3.29 | 3.09 |
| | 60대 (48) | 3.75 | 3.52 | 3.65 | 3.40 | 3.46 | 3.27 |
| 거주 지역 | 북부 (102) | 3.92 | 3.65 | 3.66 | 3.59 | 3.59 | 3.43 |
| | 중부 (81) | 3.47 | 3.35 | 3.20 | 3.14 | 2.94 | 2.91 |
| | 동부 (38) | 3.37 | 3.37 | 3.29 | 3.34 | 3.24 | 2.82 |
| | 남부 (82) | 3.95 | 3.77 | 3.74 | 3.56 | 3.61 | 3.44 |
| 월 소득 | 300만원 미만 (100) | 3.72 | 3.62 | 3.62 | 3.54 | 3.44 | 3.34 |
| | 400만원 미만 (99) | 3.80 | 3.60 | 3.48 | 3.37 | 3.29 | 3.10 |
| | 500만원 미만 (65) | 3.77 | 3.60 | 3.43 | 3.38 | 3.43 | 3.22 |
| | 500만원 이상 (39) | 3.59 | 3.28 | 3.44 | 3.36 | 3.33 | 3.21 |

(5) 인천 지역축제 참가 시 중요 고려 요인

인천 지역축제 참가 시 중요 고려 요인은 ‘축제 주제’가 27.5%로 응답률이 가장 높고, ‘축제 참여 가능일(개최시기)’ (21.5%), ‘장소 접근성’ (21.5%), ‘참가 비용의 적절성’ (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9] 인천 지역축제 참가 시 중요 고려 요인



인천 지역축제 참가 시 중요 고려 요인이 ‘축제 주제’라는 응답은 ‘여성’ (31.1%), ‘20대’ (34.9%), 월 소득 ‘300만원 미만’ (30.4%) 응답자에서, ‘축제 참여 가능 일’이라는 응답은 ‘50대’ (26.5%), 월 소득 ‘500만원 미만’ (30.8%)인 응답자에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8] 인천 지역축제 참가 시 중요 고려 요인

N=564(전체),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축제 주제 | 축제 참여 가능 일 (개최시기) | 장소 접근성 | 참가 비용의 적절성 | 축제의 지명도 및 규모 | 편의, 휴게시설 구비 정도 | 주변에 함께 이용할 만한 시설 |
|----------|----------------|-------|-------------------------|-----------|------------------|--------------------|----------------------|------------------------|
| 총계 | (564) | 27.5 | 21.5 | 21.5 | 12.1 | 10.1 | 5.0 | 2.5 |
| 성별 | 남성 (281) | 23.8 | 19.2 | 26.7 | 11.7 | 11.0 | 5.0 | 2.5 |
| | 여성 (283) | 31.1 | 23.7 | 16.3 | 12.4 | 9.2 | 4.9 | 2.5 |
| 연령 | 20대 (126) | 34.9 | 22.2 | 10.3 | 14.3 | 9.5 | 4.8 | 4.0 |
| | 30대 (133) | 27.8 | 17.3 | 24.1 | 9.0 | 12.0 | 6.8 | 3.0 |
| | 40대 (130) | 26.9 | 20.0 | 25.4 | 10.8 | 12.3 | 3.1 | 1.5 |
| | 50대 (102) | 25.5 | 26.5 | 19.6 | 15.7 | 5.9 | 5.9 | 1.0 |
| | 60대 (73) | 17.8 | 23.3 | 31.5 | 11.0 | 9.6 | 4.1 | 2.7 |
| 거주 지역 | 북부 (168) | 22.6 | 21.4 | 21.4 | 11.3 | 14.9 | 6.5 | 1.8 |
| | 중부 (158) | 29.1 | 28.5 | 23.4 | 6.3 | 6.3 | 2.5 | 3.8 |
| | 동부 (97) | 34.0 | 17.5 | 28.9 | 9.3 | 5.2 | 5.2 | 0.0 |
| | 남부 (141) | 27.0 | 16.3 | 14.2 | 21.3 | 12.1 | 5.7 | 3.5 |
| 월 소득 | 300만원 미만 (184) | 30.4 | 20.1 | 22.3 | 10.9 | 9.2 | 3.8 | 3.3 |
| | 400만원 미만 (176) | 30.1 | 18.2 | 21.0 | 10.8 | 10.8 | 7.4 | 1.7 |
| | 500만원 미만 (133) | 20.3 | 30.8 | 20.3 | 15.0 | 8.3 | 4.5 | 0.8 |
| | 500만원 이상 (71) | 26.8 | 15.5 | 22.5 | 12.7 | 14.1 | 2.8 | 5.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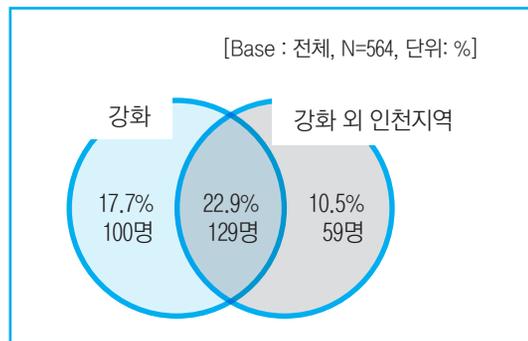
6) 역사문화유적지

(1) 지난 1년간 방문 경험이 있는 역사문화유적지

지난 1년간 인천지역 역사문화유적지를 방문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비율은 총 51.1%(228명)였으며, 세부적으로는 강화와 강화 외 인천지역 모두 방문 22.9%(129명), 강화지역만 방문 17.7%(100명), 강화 외 인천지역만 방문 10.5%(59명)로 나타났다.

‘여성’ (56.2%), ‘50대’ (58.8%)와 ‘60대’

[그림 20] 지난 1년간 인천지역의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경험



(58.9%), ‘북부’ 지역 거주자(63.7%)의 인천지역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경험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9] 지난 1년간 인천지역의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경험

N=564(전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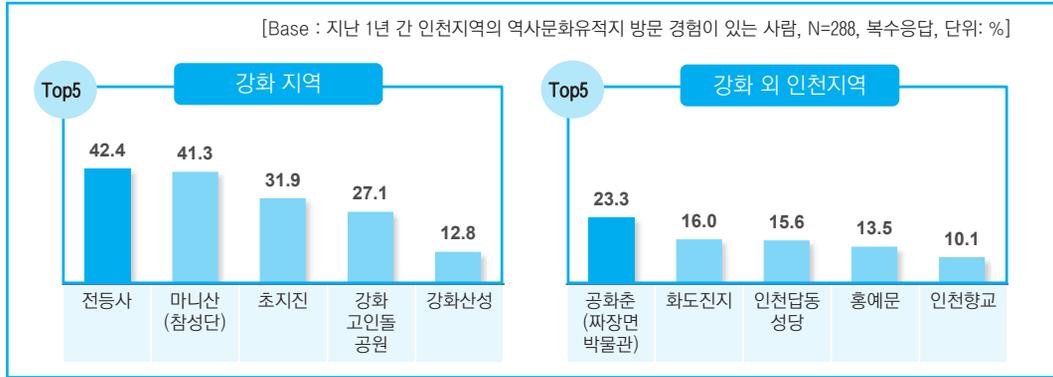
| 구분 | 사례수 | 없음 | 있음 | | | | |
|----------|----------|-------|------------------|-------------|------------------|------|------|
| | | | 강화 인천지역 모두 있음 | 강화지역만 있음 | 강화 외 인천지역만 있음 | | |
| 총계 | (564) | 48.9 | 51.1 | 22.9 | 17.7 | 10.5 | |
| 성별 | 남성 | (281) | 54.1 | 45.9 | 19.9 | 17.1 | 8.9 |
| | 여성 | (283) | 43.8 | 56.2 | 25.8 | 18.4 | 12.0 |
| 연령 | 20대 | (126) | 69.0 | 31.0 | 5.6 | 13.5 | 11.9 |
| | 30대 | (133) | 44.4 | 55.6 | 20.3 | 22.6 | 12.8 |
| | 40대 | (130) | 44.6 | 55.4 | 29.2 | 15.4 | 10.8 |
| | 50대 | (102) | 41.2 | 58.8 | 28.4 | 22.5 | 7.8 |
| | 60대 | (73) | 41.1 | 58.9 | 38.4 | 13.7 | 6.8 |
| 거주 지역 | 북부 | (168) | 36.3 | 63.7 | 20.8 | 32.7 | 10.1 |
| | 중부 | (158) | 48.1 | 51.9 | 30.4 | 9.5 | 12.0 |
| | 동부 | (97) | 47.4 | 52.6 | 26.8 | 15.5 | 10.3 |
| | 남부 | (141) | 66.0 | 34.0 | 14.2 | 10.6 | 9.2 |
| 월 소득 | 300만원 미만 | (184) | 45.1 | 54.9 | 23.9 | 22.8 | 8.2 |
| | 400만원 미만 | (176) | 47.7 | 52.3 | 24.4 | 13.1 | 14.8 |
| | 500만원 미만 | (133) | 57.9 | 42.1 | 17.3 | 14.3 | 10.5 |
| | 500만원 이상 | (71) | 45.1 | 54.9 | 26.8 | 22.5 | 5.6 |

지난 1년간 인천지역의 역사문화유적지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강화 지역’과 ‘강화 외 인천지역’으로 구분하여 방문 비율을 조사하였다.

강화지역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경험자(229명)가 가장 많이 방문한 역사문화유적지 5곳은 ‘전등사’ (53.3%), ‘마니산(참성단)’ (52.0%), ‘초지진’ (40.2%), ‘강화고인돌공원’ (34.1%), ‘강화산성’ (16.2%) 순으로 조사되었다.

강화 외 인천지역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경험자(188명)가 가장 많이 방문한 역사문화유적지 5곳은 ‘공화춘(짜장면 박물관)’ (35.6%), ‘화도진지’ (24.5%), ‘인천답동성당’ (23.9%), ‘홍예문’ (20.7%), ‘인천향교’ (15.4%)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1] 지난 1년간 방문 경험이 있는 역사문화유적지



지난 1년간 ‘강화지역’의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경험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전등사’ (49.0%, 56.8%)와 ‘마니산(참성단)’ (47.1%, 50.6%) 방문 경험비율이 높고, 연령별로는 ‘20대’ (41.7%)와 ‘50대’ (61.5%), ‘60대’ (60.5%)는 ‘전등사’, ‘40대’ (56.9%)와 ‘50대’ (55.8%)는 ‘마니산(참성단)’을 방문한 경험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0] 지난 1년간 방문 경험이 있는 역사문화유적지 [강화지역]

N=229(지난 1년간 강화지역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경험이 있는 사람), 복수응답, Top5, 단위: %

| 구분 | 사례수 | 강화지역 | | | | |
|-------|---------------|------|----------|------|---------|------|
| | | 전등사 | 마니산(참성단) | 초지진 | 강화고인돌공원 | 강화산성 |
| 총계 | (229) | 53.3 | 52.0 | 40.2 | 34.1 | 16.2 |
| 성별 | 남성 (104) | 49.0 | 47.1 | 37.5 | 30.8 | 18.3 |
| | 여성 (125) | 56.8 | 56.0 | 42.4 | 36.8 | 14.4 |
| 연령 | 20대 (24) | 41.7 | 37.5 | 25.0 | 20.8 | 8.3 |
| | 30대 (57) | 43.9 | 49.1 | 22.8 | 28.1 | 14.0 |
| | 40대 (58) | 55.2 | 56.9 | 50.0 | 34.5 | 19.0 |
| | 50대 (52) | 61.5 | 55.8 | 48.1 | 48.1 | 21.2 |
| | 60대 (38) | 60.5 | 52.6 | 50.0 | 31.6 | 13.2 |
| 거주 지역 | 북부 (107) | 47.7 | 42.1 | 29.9 | 35.5 | 9.3 |
| | 중부 (82) | 47.6 | 45.1 | 40.2 | 24.4 | 14.6 |
| | 동부 (51) | 33.3 | 35.3 | 33.3 | 25.5 | 19.6 |
| | 남부 (48) | 31.3 | 39.6 | 20.8 | 14.6 | 10.4 |
| 월 | 300만원 미만 (86) | 69.8 | 57.0 | 48.8 | 34.9 | 15.1 |
| | 400만원 미만 (66) | 48.5 | 48.5 | 39.4 | 31.8 | 16.7 |
| 소득 | 500만원 미만 (42) | 42.9 | 50.0 | 31.0 | 38.1 | 14.3 |
| | 500만원 이상 (35) | 34.3 | 48.6 | 31.4 | 31.4 | 20.0 |

‘강화 외 지역’ 역사문화 유적지 방문 경험의 경우 ‘남성’과 ‘여성’ (35.8%, 35.5%) 모두, ‘60대 이상’ (54.5%), ‘동부’ 지역(37.3%) 응답자의 공화춘 방문 경험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역사문화유적지인 ‘공화춘’, ‘화도진지’, ‘인천답동성당’, ‘홍예문’이 모두 중부 지역에 있는 유적지임을 감안할 때 인천 중부지역 외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방문 경험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31] 지난 1년간 방문 경험이 있는 역사문화유적지 [강화 외 지역]

N=188(지난 1년간 강화 외 인천지역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경험이 있는 사람), 복수응답, Top5,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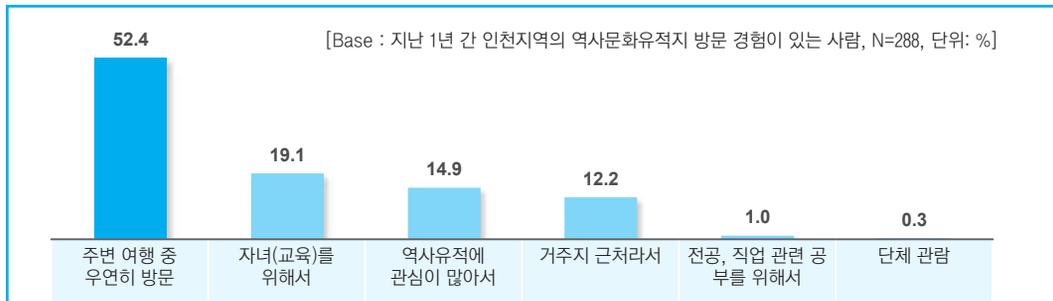
| 구분 | 사례수 | 강화 외 지역 | | | | | |
|----------|----------|-----------------|------|------------|------|------|------|
| | | 공화춘 (짜장면박물관) | 화도진지 | 인천 답동성당 | 홍예문 | 인천향교 | |
| 총계 | (188) | 35.6 | 24.5 | 23.9 | 20.7 | 15.4 | |
| 성별 | 남성 | (81) | 35.8 | 23.5 | 18.5 | 23.5 | 16.0 |
| | 여성 | (107) | 35.5 | 25.2 | 28.0 | 18.7 | 15.0 |
| 연령 | 20대 | (22) | 18.2 | 18.2 | 9.1 | 13.6 | 9.1 |
| | 30대 | (44) | 40.9 | 27.3 | 27.3 | 20.5 | 13.6 |
| | 40대 | (52) | 26.9 | 21.2 | 23.1 | 23.1 | 15.4 |
| | 50대 | (37) | 35.1 | 27.0 | 21.6 | 13.5 | 13.5 |
| | 60대 | (33) | 54.5 | 27.3 | 33.3 | 30.3 | 24.2 |
| 거주 지역 | 북부 | (107) | 10.3 | 8.4 | 6.5 | 7.5 | 12.1 |
| | 중부 | (82) | 29.3 | 26.8 | 30.5 | 26.8 | 9.8 |
| | 동부 | (51) | 37.3 | 17.6 | 9.8 | 13.7 | 5.9 |
| | 남부 | (48) | 27.1 | 12.5 | 16.7 | 4.2 | 10.4 |
| 월 소득 | 300만원 미만 | (59) | 37.3 | 25.4 | 22.0 | 20.3 | 16.9 |
| | 400만원 미만 | (69) | 27.5 | 26.1 | 24.6 | 18.8 | 14.5 |
| | 500만원 미만 | (37) | 37.8 | 21.6 | 27.0 | 18.9 | 16.2 |
| | 500만원 이상 | (23) | 52.2 | 21.7 | 21.7 | 30.4 | 13.0 |

(2) 인천 지역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이유

지난 1년간 인천 지역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경험이 있는 응답자 288명을 대상으로 방문 이유를 물어본 결과, 52.4%가 ‘주변 여행 중 우연히 방문’ 했다고 응답해 계획적인 방문이 아닌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자녀(교육)을 위해서’ (18.1%), ‘역사 유적에 관심이 많아서’ (14.9%), ‘거주지 근처라서’ (12.2%)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2] 인천 지역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이유



[표 32] 인천 지역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이유(방문지 별)

N=288(지난 1년간 인천지역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경험이 있는 사람), 단위: %, 무응답 제외

| 구분 | 사례수 | 주변 여행 중 우연히 방문 | 자녀(교육)을 위해서 | 역사유적에 관심이 많아서 | 거주지 근처라서 | 기타 | |
|----------------|----------------------|----------------|-------------|---------------|----------|------|-----|
| 총계 | (288) | 52.4 | 18.1 | 14.9 | 12.2 | 2.4 | |
| 역사문화 유적지 방문 경험 | 강화 및 강화 외 인천지역 모두 있음 | (129) | 42.6 | 20.2 | 24.0 | 11.6 | 1.6 |
| | 강화지역만 있음 | (100) | 56.0 | 17.0 | 10.0 | 14.0 | 3.0 |
| | 강화 외 인천지역만 있음 | (59) | 67.8 | 15.3 | 3.4 | 10.2 | 3.4 |

‘인천 지역의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이유’는 ‘여성’의 경우 ‘자녀(교육)을 위해서’ 방문한다는 응답이 23.3%로 ‘남성’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60대’에서 ‘역사 유적에 관심이 많아서’ 방문한다는 응답비율이 30.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3] 인천 지역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이유(응답자 특성별)

N=288(지난 1년간 인천지역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경험이 있는 사람), 단위 : %, 무응답 제외

| 구분 | 사례수 | 주변 여행 중 우연히 방문 | 자녀 (교육)를 위해서 | 역사유적에 관심 많아서 | 거주지 근처라서 | 전공, 직업 관련 공부를 위해서 | 기타 | |
|----------------|----------|----------------------|--------------------|-----------------|-------------|-------------------------|-----|-----|
| 총계 | (288) | 52.4 | 19.1 | 14.9 | 12.2 | 1.0 | 0.3 | |
| 성별 | 남성 | (129) | 58.1 | 13.2 | 16.3 | 10.1 | 1.6 | 0.8 |
| | 여성 | (159) | 47.8 | 23.9 | 13.8 | 13.8 | 0.6 | 0.0 |
| 연령 | 20대 | (39) | 66.7 | 10.3 | 5.1 | 17.9 | 0.0 | 0.0 |
| | 30대 | (74) | 47.3 | 32.4 | 9.5 | 10.8 | 0.0 | 0.0 |
| | 40대 | (72) | 50.0 | 22.2 | 12.5 | 12.5 | 1.4 | 1.4 |
| | 50대 | (60) | 48.3 | 13.3 | 20.0 | 15.0 | 3.3 | 0.0 |
| | 60대 | (43) | 58.1 | 7.0 | 30.2 | 4.7 | 0.0 | 0.0 |
| 거주 지역 | 북부 | (107) | 45.8 | 19.6 | 14.0 | 19.6 | 0.9 | 0.0 |
| | 중부 | (82) | 42.7 | 24.4 | 18.3 | 11.0 | 2.4 | 1.2 |
| | 동부 | (51) | 60.8 | 19.6 | 17.6 | 2.0 | 0.0 | 0.0 |
| | 남부 | (48) | 75.0 | 8.3 | 8.3 | 8.3 | 0.0 | 0.0 |
| 첫째 자녀 연령 | 고등학생 이하 | (97) | 54.6 | 16.5 | 19.6 | 8.2 | 1.0 | 0.0 |
| | 대학생 이상 | (76) | 48.7 | 18.4 | 14.5 | 14.5 | 2.6 | 1.3 |
| | 자녀 없음 | (115) | 53.0 | 21.7 | 11.3 | 13.9 | 0.0 | 0.0 |
| 월 소득 | 300만원 미만 | (101) | 47.5 | 18.8 | 20.8 | 11.9 | 1.0 | 0.0 |
| | 400만원 미만 | (92) | 54.3 | 18.5 | 14.1 | 12.0 | 1.1 | 0.0 |
| | 500만원 미만 | (56) | 51.8 | 21.4 | 12.5 | 14.3 | 0.0 | 0.0 |
| | 500만원 이상 | (39) | 61.5 | 17.9 | 5.1 | 10.3 | 2.6 | 2.6 |

(3) 인천지역의 역사문화유적지 만족도

인천지역의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유적지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유적지 보존·관리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5점 만점 기준 평균 3.54점으로 가장 높고, ‘교육효과’가 평균 3.51점, ‘장소 접근성’이 평균 3.41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변시설’은 평균 3.36점, ‘유적지 사전안내’는 평균 3.35점, ‘편의, 휴게시설 구비’는 평균 3.30점으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북부’(평균 3.70점)와 ‘남부’(평균 3.71점) 지역, ‘30대’(평균 3.66점) 응답자의 경우 ‘유적지 보존 관리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인천지역의 역사문화유적지 만족도

N=288(지난 1년간 인천지역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경험이 있는 사람), 단위: 점, 무응답 제외

| 구분 | | 사례수 | 유적지 보존·관리 상태 | 교육효과 | 유적지 사전안내 | 장소 접근성 | 편의, 휴게시설 구비 |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변시설 |
|-------|----------|-------|--------------|------|----------|--------|-------------|------------------|
| 총계 | | (288) | 3.54 | 3.51 | 3.35 | 3.41 | 3.30 | 3.36 |
| 성별 | 남성 | (129) | 3.53 | 3.52 | 3.36 | 3.36 | 3.20 | 3.31 |
| | 여성 | (159) | 3.55 | 3.50 | 3.34 | 3.45 | 3.38 | 3.40 |
| 연령 | 20대 | (39) | 3.51 | 3.44 | 3.28 | 3.62 | 3.26 | 3.33 |
| | 30대 | (74) | 3.66 | 3.47 | 3.36 | 3.36 | 3.32 | 3.38 |
| | 40대 | (72) | 3.43 | 3.56 | 3.21 | 3.33 | 3.26 | 3.29 |
| | 50대 | (60) | 3.53 | 3.50 | 3.33 | 3.40 | 3.23 | 3.38 |
| | 60대 | (43) | 3.53 | 3.58 | 3.63 | 3.42 | 3.44 | 3.42 |
| 거주 지역 | 북부 | (107) | 3.70 | 3.69 | 3.50 | 3.63 | 3.54 | 3.52 |
| | 중부 | (82) | 3.28 | 3.16 | 3.07 | 3.10 | 3.11 | 3.01 |
| | 동부 | (51) | 3.45 | 3.49 | 3.25 | 3.37 | 3.14 | 3.37 |
| | 남부 | (48) | 3.71 | 3.73 | 3.58 | 3.48 | 3.25 | 3.56 |
| 월 소득 | 300만원 미만 | (101) | 3.50 | 3.56 | 3.40 | 3.39 | 3.35 | 3.35 |
| | 400만원 미만 | (92) | 3.60 | 3.55 | 3.35 | 3.43 | 3.26 | 3.34 |
| | 500만원 미만 | (56) | 3.59 | 3.48 | 3.34 | 3.41 | 3.29 | 3.41 |
| | 500만원 이상 | (39) | 3.44 | 3.31 | 3.23 | 3.38 | 3.28 | 3.36 |

(4)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시 중요 고려 요인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 ‘장소 접근성’이 27.5%로 응답률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유적지 보존, 관리 상태’(20.2%), ‘교육 효과’(19.1%), ‘방문 비용 적절성’(13.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남성과 여성’(각각 26.3%, 28.6%) 모두 ‘장소 접근성’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30대’의 경우에는 ‘교육효과’를 고려한다는 응답이 24.8%로 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월 소득이 많을수록 ‘유적지 보존·관리 상태’를 고려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35]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시 중요 고려요인

N=564(전체), 단위 : %, 무응답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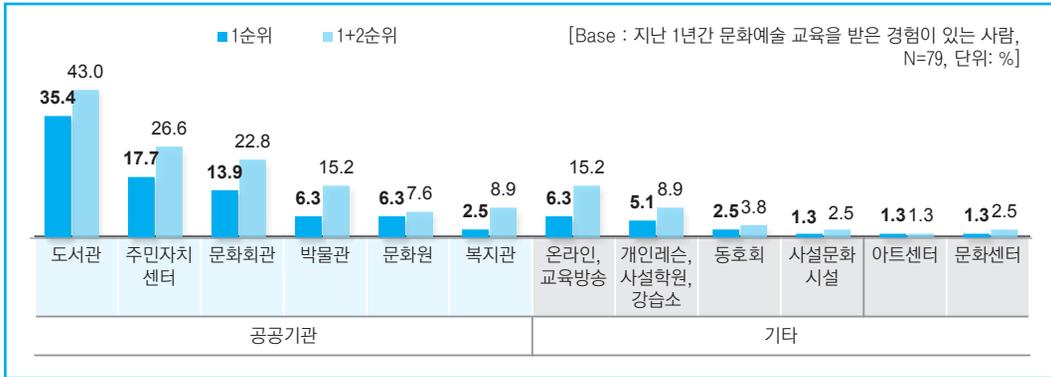
| 구분 | | 사례수 | 장소 접근성 | 유적지 보존·관리 상태 | 교육 효과 | 방문 비용 적절성 |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변시설 | 편의, 휴게시설 구비정도 |
|-------|----------|-------|--------|--------------|-------|-----------|------------------|---------------|
| 총계 | | (564) | 27.5 | 20.2 | 19.1 | 13.7 | 12.6 | 6.9 |
| 성별 | 남성 | (281) | 26.3 | 21.7 | 19.9 | 13.2 | 12.1 | 6.8 |
| | 여성 | (283) | 28.6 | 18.7 | 18.4 | 14.1 | 13.1 | 7.1 |
| 연령 | 20대 | (126) | 30.2 | 18.3 | 15.9 | 15.1 | 15.1 | 5.6 |
| | 30대 | (133) | 22.6 | 22.6 | 24.8 | 15.0 | 9.0 | 6.0 |
| | 40대 | (130) | 30.8 | 19.2 | 20.0 | 10.0 | 11.5 | 8.5 |
| | 50대 | (102) | 28.4 | 25.5 | 15.7 | 10.8 | 12.7 | 6.9 |
| | 60대 | (73) | 24.7 | 13.7 | 17.8 | 19.2 | 16.4 | 8.2 |
| 거주 지역 | 북부 | (168) | 18.5 | 20.8 | 19.0 | 18.5 | 14.9 | 8.3 |
| | 중부 | (158) | 31.0 | 21.5 | 15.8 | 14.6 | 13.9 | 3.2 |
| | 동부 | (97) | 24.7 | 22.7 | 20.6 | 9.3 | 12.4 | 10.3 |
| | 남부 | (141) | 36.2 | 16.3 | 22.0 | 9.9 | 8.5 | 7.1 |
| 월 소득 | 300만원 미만 | (184) | 27.7 | 16.8 | 20.1 | 14.7 | 9.8 | 8.6 |
| | 400만원 미만 | (176) | 28.4 | 16.5 | 20.5 | 14.2 | 15.9 | 6.5 |
| | 500만원 미만 | (133) | 28.6 | 24.1 | 16.5 | 13.5 | 11.3 | 4.1 |
| | 500만원 이상 | (71) | 22.5 | 31.0 | 18.3 | 9.9 | 14.1 | 6.8 |

7) 문화예술 교육

(1) 지난 1년간 문화예술 교육 받은 경험이 있는 기관·매체

지난 1년간 문화예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이용한 기관·매체는 ‘도서관’이 35.4%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주민자치센터’ (17.7%), ‘문화회관’ (13.9%), ‘박물관’ (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3] 지난 1년간 문화예술 교육 받은 경험이 있는 기관·매체



‘40대’ (50.0%)와 ‘50대’ (50.0%), 월 소득 ‘500만원 미만’ (40.0%)인 응답자는 ‘도서관’을 통해서, ‘20대’ (30.8%), ‘북부’ (25.0%) 지역 응답자의 경우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문화예술 교육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6] 지난 1년간 문화예술 교육 받은 경험이 있는 기관·매체

N=79(지난 1년간 문화예술교육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1순위 응답, 단위: %

| 구분 | 사례수 | 공공기관 | | | | | |
|-------|---------------|------|--------|------|------|------|------|
| | | 도서관 | 주민자치센터 | 문화회관 | 박물관 | 문화원 | 복지관 |
| 총계 | (79) | 35.4 | 17.7 | 13.9 | 6.3 | 6.3 | 2.5 |
| 성별 | 남성 (35) | 34.3 | 14.3 | 17.1 | 11.4 | 5.7 | 0.0 |
| | 여성 (44) | 36.4 | 20.5 | 11.4 | 2.3 | 6.8 | 4.5 |
| 연령 | 20대 (13) | 23.1 | 30.8 | 0.0 | 7.7 | 7.7 | 7.7 |
| | 30대 (21) | 23.8 | 23.8 | 9.5 | 14.3 | 4.8 | 4.8 |
| | 40대 (16) | 50.0 | 12.5 | 12.5 | 6.3 | 6.3 | 0.0 |
| | 50대 (16) | 50.0 | 6.3 | 25.0 | 0.0 | 6.3 | 0.0 |
| | 60대 (13) | 30.8 | 15.4 | 23.1 | 0.0 | 7.7 | 0.0 |
| 거주 지역 | 북부 (20) | 35.0 | 25.0 | 0.0 | 15.0 | 5.0 | 10.0 |
| | 중부 (21) | 33.3 | 14.3 | 14.3 | 4.8 | 9.5 | 0.0 |
| | 동부 (16) | 37.5 | 12.5 | 18.8 | 6.3 | 6.3 | 0.0 |
| | 남부 (22) | 36.4 | 18.2 | 22.7 | 0.0 | 4.5 | 0.0 |
| 월 소득 | 300만원 미만 (33) | 36.4 | 15.2 | 18.2 | 6.1 | 3.0 | 6.1 |
| | 400만원 미만 (21) | 33.3 | 19.0 | 14.3 | 4.8 | 9.5 | 0.0 |
| | 500만원 미만 (15) | 40.0 | 33.3 | 0.0 | 6.7 | 0.0 | 0.0 |
| | 500만원 이상 (10) | 30.0 | 0.0 | 20.0 | 10.0 | 20.0 | 0.0 |

(2) 문화예술 교육을 받은 이유

문화예술 교육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로는 '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을 위해' 라는 응답이 63.3%로 가장 많았다.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이유는 '여성' (68.2%), '20대' (69.2%), 월 소득 '400만원 미만' (81.0%)의 응답자의 경우 '능력 향상 및 자기 계발을 위해' 라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40대' (25.0%), '북부' (25.6%) 지역과 '중부' (28.6%) 지역, 월 소득 '300만원 미만' (24.2%) 응답자의 경우 '자기만족(즐거움)을 위해' 문화예술 교육을 받는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37] 문화예술 교육을 받은 이유

N=79(지난 1년간 문화예술교육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능력 향상 및 자기 계발을 위해 | 자기만족(즐거움)을 위해 | 교양을 쌓기 위해 |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위해 | 관련 분야 취업을 위해 | |
|-------|----------|-------------------|---------------|-----------|----------------|--------------|-----|
| 총계 | (79) | 63.3 | 16.5 | 11.4 | 6.3 | 2.5 | |
| 성별 | 남성 | (35) | 57.1 | 17.1 | 11.4 | 8.6 | 5.7 |
| | 여성 | (44) | 68.2 | 15.9 | 11.4 | 4.5 | 0.0 |
| 연령 | 20대 | (13) | 69.2 | 0.0 | 15.4 | 15.4 | 0.0 |
| | 30대 | (21) | 61.9 | 19.0 | 14.3 | 4.8 | 0.0 |
| | 40대 | (16) | 56.3 | 25.0 | 6.3 | 6.3 | 6.3 |
| | 50대 | (16) | 68.8 | 12.5 | 12.5 | 6.3 | 0.0 |
| | 60대 | (13) | 61.5 | 23.1 | 7.7 | 0.0 | 7.7 |
| 거주 지역 | 북부 | (20) | 55.0 | 25.0 | 10.0 | 10.0 | 0.0 |
| | 중부 | (21) | 52.4 | 28.6 | 14.3 | 0.0 | 4.8 |
| | 동부 | (16) | 75.0 | 6.3 | 6.3 | 12.5 | 0.0 |
| | 남부 | (22) | 72.7 | 4.5 | 13.6 | 4.5 | 4.5 |
| 월 소득 | 300만원 미만 | (33) | 45.5 | 24.2 | 12.1 | 15.2 | 3.0 |
| | 400만원 미만 | (21) | 81.0 | 4.8 | 9.5 | 0.0 | 4.8 |
| | 500만원 미만 | (15) | 73.3 | 6.7 | 20.0 | 0.0 | 0.0 |
| | 500만원 이상 | (10) | 70.0 | 30.0 | 0.0 | 0.0 | 0.0 |

(3) 문화예술 교육을 받은 분야

문화예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에게 교육받은 문화예술교육 분야를 물어본 결과 ‘글쓰기 및 독서’, ‘역사문화’ 분야가 각각 24.1%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미술’ (19.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4] 문화예술 교육을 받은 분야



‘글쓰기 및 독서’는 ‘여성’ (29.5%), ‘60대’ (53.8%), 월 소득 ‘400만원 미만’ (33.3%)에서 교육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역사 문화’는 ‘여성’ (29.5%), ‘50대’ (43.8%), ‘중부’ (28.6%) 지역과 ‘북부’ (25.0%) 지역에 교육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8] 분야별 문화예술 교육 경험

N=79(지난 1년간 문화예술교육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글쓰기 및 독서 | 역사 문화 | 미술 | 연주 | 가창 | 무용 | 문화 예술 이론 | 연기, 연출 |
|----------|----------|-------------|----------|------|------|------|------|-------------|-----------|
| 총계 | (79) | 24.1 | 24.1 | 19.0 | 19.0 | 5.1 | 5.1 | 2.5 | 1.3 |
| 성별 | 남성 | (35) | 17.1 | 17.1 | 28.6 | 25.7 | 5.7 | 2.9 | 0.0 |
| | 여성 | (44) | 29.5 | 29.5 | 11.4 | 13.6 | 4.5 | 6.8 | 2.3 |
| 연령 | 20대 | (13) | 0.0 | 15.4 | 23.1 | 23.1 | 23.1 | 0.0 | 7.7 |
| | 30대 | (21) | 28.6 | 23.8 | 14.3 | 14.3 | 0.0 | 19.0 | 0.0 |
| | 40대 | (16) | 31.3 | 18.8 | 25.0 | 18.8 | 0.0 | 0.0 | 6.3 |
| | 50대 | (16) | 6.3 | 43.8 | 25.0 | 25.0 | 0.0 | 0.0 | 0.0 |
| | 60대 | (13) | 53.8 | 15.4 | 7.7 | 15.4 | 7.7 | 0.0 | 0.0 |
| 거주 지역 | 북부 | (20) | 25.0 | 25.0 | 15.0 | 10.0 | 5.0 | 15.0 | 0.0 |
| | 중부 | (21) | 23.8 | 28.6 | 14.3 | 19.0 | 4.8 | 4.8 | 4.8 |
| | 동부 | (16) | 25.0 | 18.8 | 25.0 | 18.8 | 6.3 | 0.0 | 6.3 |
| | 남부 | (22) | 22.7 | 22.7 | 22.7 | 27.3 | 4.5 | 0.0 | 0.0 |
| 월 소득 | 300만원 미만 | (33) | 24.2 | 18.2 | 27.3 | 15.2 | 6.1 | 3.0 | 3.0 |
| | 400만원 미만 | (21) | 33.3 | 28.6 | 14.3 | 19.0 | 0.0 | 4.8 | 0.0 |
| | 500만원 미만 | (15) | 20.0 | 26.7 | 6.7 | 33.3 | 6.7 | 6.7 | 0.0 |
| | 500만원 이상 | (10) | 10.0 | 30.0 | 20.0 | 10.0 | 10.0 | 10.0 | 0.0 |

지난 1년간 교육받은 기관 혹은 매체별로 살펴보면, 도서관에서 ‘글쓰기 및 독서’ 교육을 받은 경험자가 42.9%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전체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39] 기관별 문화예술 교육 경험

N=79(지난 1년간 문화예술교육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글쓰기 및 독서 | 역사 문화 | 미술 | 연주 | 가창 | 무용 | 문화 예술 이론 | 연기, 연출 |
|--|-----------|-------------|----------|-------|-------|------|------|-------------|-----------|
| 총계 | (79) | 24.1 | 24.1 | 19.0 | 19.0 | 5.1 | 5.1 | 2.5 | 1.3 |
| 지난 1년간 문화 예술 교육 받은 기관 및 매체 | 문화회관 | (11) | 0.0 | 27.3 | 36.4 | 27.3 | 9.1 | 0.0 | 0.0 |
| | 도서관 | (28) | 42.9 | 28.6 | 10.7 | 10.7 | 3.6 | 3.6 | 0.0 |
| | 박물관 | (5) | 0.0 | 60.0 | 40.0 | 0.0 | 0.0 | 0.0 | 0.0 |
| | 복지관 | (2) | 0.0 | 0.0 | 50.0 | 0.0 | 0.0 | 0.0 | 50.0 |
| | 주민자치센터 | (14) | 28.6 | 0.0 | 14.3 | 28.6 | 14.3 | 14.3 | 0.0 |
| | 문화원 | (5) | 20.0 | 0.0 | 0.0 | 20.0 | 0.0 | 20.0 | 40.0 |
| | 사설문화시설 | (1) | 0.0 | 100.0 | 0.0 | 0.0 | 0.0 | 0.0 | 0.0 |
| | 동호회 | (2) | 0.0 | 50.0 | 0.0 | 50.0 | 0.0 | 0.0 | 0.0 |
| | 개인 레슨 등 | (4) | 0.0 | 0.0 | 25.0 | 75.0 | 0.0 | 0.0 | 0.0 |
| | 온라인, 교육방송 | (5) | 40.0 | 60.0 | 0.0 | 0.0 | 0.0 | 0.0 | 0.0 |
| | 아트센터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0.0 |
| 문화센터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0.0 | |

(4) 교육 받은 문화예술교육 만족도

문화예술 교육 경험자에게 ‘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 5점 만점 기준 평균 3.42점으로 보통의 만족도를 보였다.

‘여성’ 과 ‘50대’ 의 만족도가 각각 평균 3.50점, 평균 3.63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부’ 지역 응답자의 만족도는 평균 3.52점, 월 소득 ‘500만원 이상’ 응답자의 만족도가 평균 3.60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0] 교육 받은 문화예술교육 만족도(응답자 특성별)

N=79(지난 1년간 문화예술교육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단위 : %, 점

| 구분 | | 사례수 | 만족 | 보통 | 불만족 | 5점 평균 |
|-------|----------|------|------|------|------|-------|
| 총계 | | (79) | 3.8 | 49.4 | 46.8 | 3.42 |
| 성별 | 남성 | (35) | 5.7 | 54.3 | 40.0 | 3.31 |
| | 여성 | (44) | 2.3 | 45.5 | 52.3 | 3.50 |
| 연령 | 20대 | (13) | 15.4 | 30.8 | 53.8 | 3.38 |
| | 30대 | (21) | 4.8 | 52.4 | 42.9 | 3.33 |
| | 40대 | (16) | 0.0 | 68.8 | 31.3 | 3.31 |
| | 50대 | (16) | 0.0 | 37.5 | 62.5 | 3.63 |
| | 60대 | (13) | 0.0 | 53.8 | 46.2 | 3.46 |
| 거주 지역 | 북부 | (20) | 5.0 | 50.0 | 45.0 | 3.35 |
| | 중부 | (21) | 0.0 | 47.6 | 52.4 | 3.52 |
| | 동부 | (16) | 6.3 | 43.8 | 50.0 | 3.44 |
| | 남부 | (22) | 4.5 | 54.5 | 40.9 | 3.36 |
| 월 소득 | 300만원 미만 | (33) | 3.0 | 51.5 | 45.5 | 3.42 |
| | 400만원 미만 | (21) | 9.5 | 47.6 | 42.9 | 3.29 |
| | 500만원 미만 | (15) | 0.0 | 53.3 | 46.7 | 3.47 |
| | 500만원 이상 | (10) | 0.0 | 40.0 | 60.0 | 3.60 |

‘지난 1년간 문화예술 교육을 받은 기관 및 매체’ 가운데 ‘사설문화시설’, ‘동호회’, ‘아트센터’, ‘문화센터’의 만족도가 모두 5점 만점 기준 평균 4.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41] 교육 받은 문화예술교육 만족도(기관·매체별)

N=79(지난 1년간 문화예술교육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단위 : %, 점

| 구분 | | 사례수 | 불만족 | 보통 | 만족 | 5점 평균 |
|--|-----------|------|------|-------|-------|-------|
| 총계 | | (79) | 3.8 | 49.4 | 46.8 | 3.42 |
| 지난 1년간 문화 예술 교육 받은 기관 및 매체 | 문화회관 | (11) | 0.0 | 45.5 | 54.5 | 3.55 |
| | 도서관 | (28) | 0.0 | 60.7 | 39.3 | 3.39 |
| | 박물관 | (5) | 20.0 | 60.0 | 20.0 | 2.80 |
| | 복지관 | (2) | 0.0 | 50.0 | 50.0 | 3.50 |
| | 주민자치센터 | (14) | 7.1 | 42.9 | 50.0 | 3.43 |
| | 문화원 | (5) | 20.0 | 40.0 | 40.0 | 3.20 |
| | 사설문화시설 | (1) | 0.0 | 0.0 | 100.0 | 4.00 |
| | 동호회 | (2) | 0.0 | 0.0 | 100.0 | 4.00 |
| | 개인 레슨 등 | (4) | 0.0 | 50.0 | 50.0 | 3.50 |
| | 온라인, 교육방송 | (5) | 0.0 | 60.0 | 40.0 | 3.40 |
| | 아트센터 | (1) | 0.0 | 0.0 | 100.0 | 4.00 |
| 문화센터 | (1) | 0.0 | 0.0 | 100.0 | 4.00 | |

(5) 인천 지역 문화예술 교육에서 우선시되어야 할 점

인천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점은 ‘교육 프로그램 홍보 활성화’라는 응답률이 23.9%로 가장 높았고 ‘교육 시간 다양화(주말, 야간교육 등)’ (23.6%), ‘교육시설(기관)이 많아져야 함’ (21.5%), ‘교육시설 환경의 개선’ (14.5%), ‘수강료가 저렴해져야 함’ (1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프로그램 홍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남성’ (26.3%), ‘30대’ (30.8%), 월 소득 ‘500만원 미만’ (28.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 시간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20대’ (30.2%), ‘동부’ (34.0%) 지역과 ‘남부’ (31.2%) 지역에서, ‘교육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북부’ (22.6%) 지역과 ‘동부’ (20.6%)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42] 문화예술교육에서 우선시 되어야 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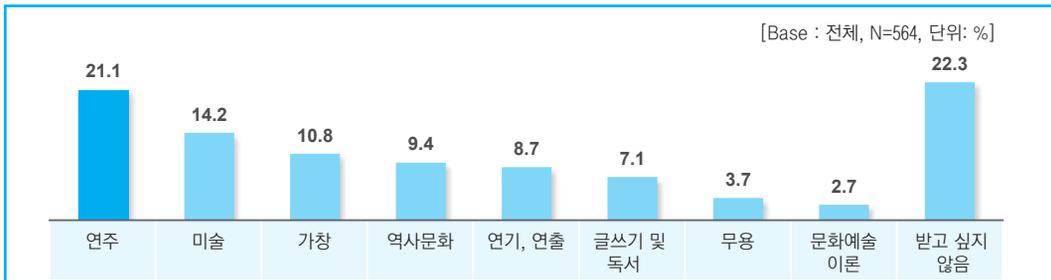
N=564(전체),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교육 프로그램 홍보를 활성화해야 한다 | 교육 시간을 다양화해야 한다 | 교육 시설(기관)이 많아져야 한다 | 교육 시설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 수강료가 저렴해져야 한다 | 교육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 교육 수준에 깊이가 있어야 한다 | 교육 프로그램 다양해져야 한다 | |
|-------|----------|----------------------|-----------------|--------------------|--------------------|---------------|----------------|-------------------|------------------|-----|
| 총계 | (564) | 23.9 | 23.6 | 21.5 | 14.5 | 12.4 | 3.7 | 0.2 | 0.2 | |
| 성별 | 남성 | (281) | 26.3 | 19.9 | 18.5 | 14.6 | 14.9 | 5.3 | 0.0 | 0.4 |
| | 여성 | (283) | 21.6 | 27.2 | 24.4 | 14.5 | 9.9 | 2.1 | 0.4 | 0.0 |
| 연령 | 20대 | (126) | 19.8 | 30.2 | 18.3 | 15.1 | 11.1 | 5.6 | 0.0 | 0.0 |
| | 30대 | (133) | 30.8 | 21.8 | 20.3 | 12.0 | 12.0 | 2.3 | 0.8 | 0.0 |
| | 40대 | (130) | 23.8 | 22.3 | 22.3 | 17.7 | 10.8 | 3.1 | 0.0 | 0.0 |
| | 50대 | (102) | 25.5 | 21.6 | 22.5 | 12.7 | 11.8 | 4.9 | 0.0 | 1.0 |
| | 60대 | (73) | 16.4 | 20.5 | 26.0 | 15.1 | 19.2 | 2.7 | 0.0 | 0.0 |
| 거주 지역 | 북부 | (168) | 21.4 | 13.7 | 26.2 | 22.6 | 10.1 | 6.0 | 0.0 | 0.0 |
| | 중부 | (158) | 28.5 | 20.9 | 26.6 | 8.2 | 11.4 | 3.8 | 0.0 | 0.6 |
| | 동부 | (97) | 22.7 | 34.0 | 10.3 | 20.6 | 9.3 | 2.1 | 1.0 | 0.0 |
| | 남부 | (141) | 22.7 | 31.2 | 17.7 | 7.8 | 18.4 | 2.1 | 0.0 | 0.0 |
| 월 소득 | 300만원 미만 | (184) | 21.2 | 22.8 | 19.0 | 17.9 | 15.2 | 3.3 | 0.5 | 0.0 |
| | 400만원 미만 | (176) | 21.6 | 20.5 | 30.1 | 13.6 | 10.8 | 2.8 | 0.0 | 0.6 |
| | 500만원 미만 | (133) | 28.6 | 27.8 | 18.8 | 12.0 | 7.5 | 5.3 | 0.0 | 0.0 |
| | 500만원 이상 | (71) | 28.2 | 25.4 | 11.3 | 12.7 | 18.3 | 4.2 | 0.0 | 0.0 |

(6) 향후 1년 이내 희망 문화예술 교육

향후 1년 이내 희망하는 문화예술 교육 분야는 ‘연주’가 21.1%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미술’ (14.2%), ‘가창’ (10.8%), ‘역사문화’ (9.4%), ‘연기,연출’ (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5] 향후 1년 이내 희망 문화예술 교육



향후 1년 이내 희망하는 문화예술 교육이 ‘연주’라는 응답률은 ‘여성’ (21.9%), ‘50대’ (25.5%), 월 소득 ‘500만원 미만’ (30.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문화예술교육을 받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여성’ (30.2%), ‘중부’ (29.7%) 지역, 월소득 ‘400만원 미만’ (31.8%)에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43] 향후 1년 이내 희망 문화예술 교육

N=564(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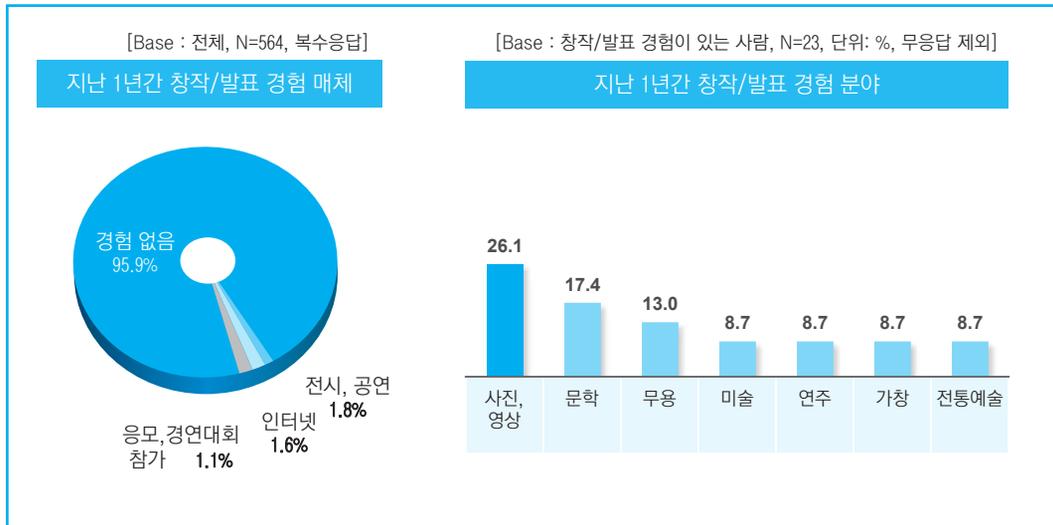
| 구분 | 사례수 | 연주 | 미술 | 가창 | 역사 문화 | 연기, 연출 | 글쓰기, 독서 | 무용 | 문화 예술 이론 | 받고 싶지 않음 |
|-------|----------------|------|------|------|-------|--------|---------|-----|----------|----------|
| 총계 | (564) | 21.1 | 14.2 | 10.8 | 9.4 | 8.7 | 7.1 | 3.7 | 2.7 | 22.3 |
| 성별 | 남성 (281) | 20.3 | 13.2 | 12.5 | 10.3 | 8.9 | 5.7 | 3.6 | 2.8 | 22.8 |
| | 여성 (283) | 21.9 | 15.2 | 9.2 | 8.5 | 8.5 | 8.5 | 3.9 | 2.5 | 21.9 |
| 연령 | 20대 (126) | 13.5 | 12.7 | 16.7 | 6.3 | 6.3 | 6.3 | 6.3 | 1.6 | 30.2 |
| | 30대 (133) | 22.6 | 16.5 | 11.3 | 8.3 | 9.0 | 8.3 | 3.8 | 1.5 | 18.8 |
| | 40대 (130) | 23.8 | 15.4 | 5.4 | 8.5 | 13.1 | 5.4 | 2.3 | 6.2 | 20.0 |
| | 50대 (102) | 25.5 | 12.7 | 10.8 | 13.7 | 5.9 | 6.9 | 2.9 | 1.0 | 20.6 |
| | 60대 (73) | 20.5 | 12.3 | 9.6 | 12.3 | 8.2 | 9.6 | 2.7 | 2.7 | 21.9 |
| 거주 지역 | 북부 (168) | 20.2 | 13.1 | 7.7 | 6.5 | 8.9 | 8.3 | 4.8 | 4.2 | 26.2 |
| | 중부 (158) | 17.7 | 10.1 | 12.7 | 12.0 | 7.6 | 5.7 | 3.2 | 1.3 | 29.7 |
| | 동부 (97) | 24.7 | 15.5 | 8.2 | 14.4 | 8.2 | 9.3 | 2.1 | 0.0 | 17.5 |
| | 남부 (141) | 23.4 | 19.1 | 14.2 | 6.4 | 9.9 | 5.7 | 4.3 | 4.3 | 12.8 |
| 월 소득 | 300만원 미만 (184) | 20.7 | 15.8 | 10.9 | 8.7 | 7.1 | 13.0 | 2.7 | 2.2 | 19.0 |
| | 400만원 미만 (176) | 11.4 | 18.2 | 6.3 | 10.8 | 8.5 | 5.7 | 5.1 | 2.3 | 31.8 |
| | 500만원 미만 (133) | 30.8 | 8.3 | 13.5 | 9.0 | 8.3 | 3.0 | 3.0 | 3.0 | 21.1 |
| | 500만원 이상 (71) | 28.2 | 11.3 | 16.9 | 8.5 | 14.1 | 2.8 | 4.2 | 4.2 | 9.9 |

8) 창작, 발표 및 참여 활동

(1) 지난 1년간 창작, 발표 경험 매체 및 경험 분야

지난 1년간 창작, 발표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은 전체 4.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경험 분야는 ‘사진, 영상’ (26.1%), ‘문학’ (17.4%), ‘무용’ (13.0%) 등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6] 지난 1년간 창작, 발표 경험 매체 및 경험 분야



지난 1년간 창작, 발표의 경험이 있는 경우, ‘전시, 공연’을 경험했다는 응답률은 ‘남성’ (3.2%), ‘50대’ (4.9%), ‘북부’ (2.4%) 지역, 월 소득 ‘500만원 이상’ (2.8%)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모, 경연 대회참가’ 경험자는 ‘30대’ (2.3%), ‘동부’ (3.1%) 지역, 월 소득 ‘300만원 미만’ (2.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4] 지난 1년간 창작, 발표 경험 매체

N=564(전체),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전시, 공연 | 인터넷 | 응모, 경연 대회참가 | 경험 없음 | |
|-------|----------|--------|-----|-------------|-------|------|
| 총계 | (564) | 1.8 | 1.6 | 1.1 | 95.9 | |
| 성별 | 남성 | (281) | 3.2 | 1.4 | 0.7 | 95.0 |
| | 여성 | (283) | 0.4 | 1.8 | 1.4 | 96.8 |
| 연령 | 20대 | (126) | 0.0 | 0.0 | 0.8 | 99.2 |
| | 30대 | (133) | 1.5 | 0.8 | 2.3 | 95.5 |
| | 40대 | (130) | 2.3 | 1.5 | 0.8 | 95.4 |
| | 50대 | (102) | 4.9 | 3.9 | 1.0 | 92.2 |
| | 60대 | (73) | 0.0 | 2.7 | 0.0 | 97.3 |
| 거주 지역 | 북부 | (168) | 2.4 | 1.2 | 0.6 | 95.8 |
| | 중부 | (158) | 1.9 | 1.9 | 1.3 | 94.9 |
| | 동부 | (97) | 1.0 | 3.1 | 3.1 | 94.8 |
| | 남부 | (141) | 1.4 | 0.7 | 0.0 | 97.9 |
| 월 소득 | 300만원 미만 | (184) | 2.2 | 1.6 | 2.7 | 94.6 |
| | 400만원 미만 | (176) | 1.1 | 1.7 | 0.0 | 97.2 |
| | 500만원 미만 | (133) | 1.5 | 1.5 | 0.0 | 97.0 |
| | 500만원 이상 | (71) | 2.8 | 1.4 | 1.4 | 94.4 |

지난 1년간 창작, 발표 경험분야에 대한 응답으로 ‘사진, 영상’은 ‘여성’ (33.3%), ‘60대’ (50.0%), 월 소득 ‘400만원 미만’ (40.0%)에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문학’은 ‘동부’ (40.0%) 지역, ‘남부’ (33.3%)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45] 지난 1년간 창작, 발표 경험 분야

N=23(창작, 발표 경험이 있는 사람),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사진, 영상 | 문학 | 무용 | 미술 | 연주 | 가창 | 전통예술 | 무응답 | |
|-------|----------|--------|------|------|------|------|-------|------|------|------|
| 총계 | (23) | 26.1 | 17.4 | 13.0 | 8.7 | 8.7 | 8.7 | 8.7 | 8.7 | |
| 성별 | 남성 | (14) | 21.4 | 14.3 | 21.4 | 14.3 | 14.3 | 7.1 | 7.1 | 0.0 |
| | 여성 | (9) | 33.3 | 22.2 | 0.0 | 0.0 | 0.0 | 11.1 | 11.1 | 22.2 |
| 연령 | 20대 | (1) | 0.0 | 0.0 | 0.0 | 0.0 | 100.0 | 0.0 | 0.0 | 0.0 |
| | 30대 | (6) | 16.7 | 16.7 | 16.7 | 16.7 | 0.0 | 16.7 | 16.7 | 0.0 |
| | 40대 | (6) | 33.3 | 0.0 | 16.7 | 0.0 | 0.0 | 16.7 | 16.7 | 16.7 |
| | 50대 | (8) | 25.0 | 37.5 | 0.0 | 12.5 | 12.5 | 0.0 | 0.0 | 12.5 |
| | 60대 | (2) | 50.0 | 0.0 | 50.0 | 0.0 | 0.0 | 0.0 | 0.0 | 0.0 |
| 거주 지역 | 북부 | (7) | 42.9 | 0.0 | 14.3 | 14.3 | 14.3 | 0.0 | 0.0 | 14.3 |
| | 중부 | (8) | 12.5 | 12.5 | 25.0 | 0.0 | 12.5 | 12.5 | 12.5 | 12.5 |
| | 동부 | (5) | 40.0 | 40.0 | 0.0 | 0.0 | 0.0 | 20.0 | 0.0 | 0.0 |
| | 남부 | (3) | 0.0 | 33.3 | 0.0 | 33.3 | 0.0 | 0.0 | 33.3 | 0.0 |
| 월 소득 | 300만원 미만 | (10) | 30.0 | 20.0 | 0.0 | 10.0 | 10.0 | 0.0 | 20.0 | 10.0 |
| | 400만원 미만 | (5) | 40.0 | 0.0 | 20.0 | 20.0 | 0.0 | 0.0 | 0.0 | 20.0 |
| | 500만원 미만 | (4) | 0.0 | 50.0 | 25.0 | 0.0 | 25.0 | 0.0 | 0.0 | 0.0 |
| | 500만원 이상 | (4) | 25.0 | 0.0 | 25.0 | 0.0 | 0.0 | 50.0 | 0.0 | 0.0 |

(2) 향후 문화예술 창작, 발표 활동 계획

향후 문화예술 창작, 발표 활동 계획을 물어본 결과, '향후 계획 없다'는 응답률이 전체 92.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향후 '인터넷'을 통한 문화예술 창작, 발표 활동 계획이 있다는 응답률은 '남성' (3.2%), '50대' (4.9%), '북부' (5.4%) 지역, 월 소득 '300만원 미만' (4.3%)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6] 향후 문화예술 창작, 발표 활동 계획

N=564(전체),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인터넷 | 전시, 공연 | 응모, 경연 대회참가 | 기타 | 향후 계획 없음 | |
|----------|----------|-------|--------|----------------|-----|-------------|------|
| 총계 | (564) | 3.0 | 2.3 | 2.0 | 0.2 | 92.6 | |
| 성별 | 남성 | (281) | 3.2 | 2.8 | 1.8 | 0.0 | 92.2 |
| | 여성 | (283) | 2.8 | 1.8 | 2.1 | 0.4 | 92.9 |
| 연령 | 20대 | (126) | 0.8 | 0.8 | 1.6 | 0.0 | 96.8 |
| | 30대 | (133) | 3.8 | 3.8 | 3.8 | 0.8 | 88.0 |
| | 40대 | (130) | 3.8 | 1.5 | 2.3 | 0.0 | 92.3 |
| | 50대 | (102) | 4.9 | 2.9 | 1.0 | 0.0 | 91.2 |
| | 60대 | (73) | 1.4 | 2.7 | 0.0 | 0.0 | 95.9 |
| 거주 지역 | 북부 | (168) | 5.4 | 4.2 | 1.2 | 0.0 | 89.3 |
| | 중부 | (158) | 2.5 | 1.9 | 1.3 | 0.0 | 94.3 |
| | 동부 | (97) | 1.0 | 1.0 | 5.2 | 1.0 | 91.8 |
| | 남부 | (141) | 2.1 | 1.4 | 1.4 | 0.0 | 95.0 |
| 월 소득 | 300만원 미만 | (184) | 4.3 | 2.2 | 2.7 | 0.5 | 90.2 |
| | 400만원 미만 | (176) | 1.7 | 2.3 | 0.6 | 0.0 | 95.5 |
| | 500만원 미만 | (133) | 3.0 | 3.0 | 1.5 | 0.0 | 92.5 |
| | 500만원 이상 | (71) | 2.8 | 1.4 | 4.2 | 0.0 | 91.5 |

(3) 지난 1년간 활동 경험이 있는 문화예술 동호회

지난 1년간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8.7%로 나타났으며, ‘연주’ (2.1%), ‘사진, 영상’ (2.0%), ‘문학’ (1.2%), ‘가창’ (1.2%), ‘미술’ (0.9%) 등의 동호회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주’ 동호회의 경우 ‘여성’ (2.5%), ‘50대’ (3.9%), 월 소득 ‘300만원 미만’ (2.7%)에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7] 지난 1년간 활동 경험이 있는 문화예술 동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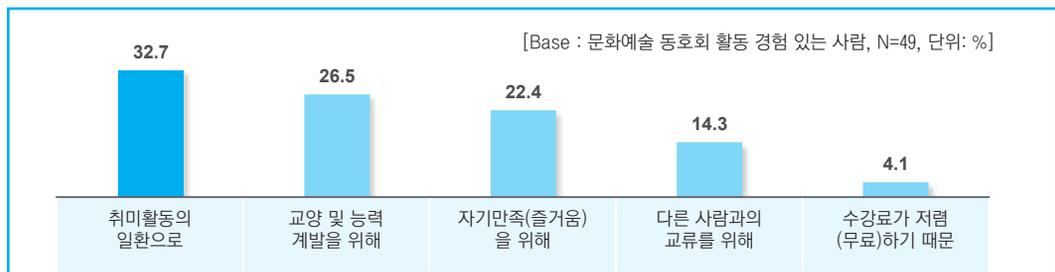
N=564(전체), 복수응답, 단위: %

| 구분 | 사례수 | 연주 | 사진, 영상 | 문학 | 가창 | 미술 | 전통 예술 | 무용 | 연기, 연출 | 역사 문화 | 활동 하지 않음 |
|-------|----------------|-----|--------|-----|-----|-----|-------|-----|--------|-------|----------|
| 총계 | (564) | 2.1 | 2.0 | 1.2 | 1.2 | 0.9 | 0.7 | 0.7 | 0.2 | 0.2 | 91.3 |
| 성별 | 남성 (281) | 1.8 | 2.5 | 1.1 | 1.8 | 1.4 | 0.7 | 1.1 | 0.0 | 0.4 | 90.0 |
| | 여성 (283) | 2.5 | 1.4 | 1.4 | 0.7 | 0.4 | 0.7 | 0.4 | 0.4 | 0.0 | 92.6 |
| 연령 | 20대 (126) | 0.0 | 1.6 | 0.0 | 0.8 | 0.0 | 0.8 | 0.0 | 0.0 | 0.0 | 96.8 |
| | 30대 (133) | 2.3 | 1.5 | 0.0 | 0.8 | 1.5 | 0.0 | 1.5 | 0.8 | 0.0 | 92.5 |
| | 40대 (130) | 3.1 | 1.5 | 0.8 | 3.1 | 0.0 | 1.5 | 0.8 | 0.0 | 0.0 | 90.0 |
| | 50대 (102) | 3.9 | 2.9 | 3.9 | 0.0 | 2.0 | 0.0 | 0.0 | 0.0 | 0.0 | 88.2 |
| | 60대 (73) | 1.4 | 2.7 | 2.7 | 1.4 | 1.4 | 1.4 | 1.4 | 0.0 | 1.4 | 86.3 |
| 거주 지역 | 북부 (168) | 1.8 | 3.0 | 0.0 | 1.2 | 0.6 | 1.2 | 1.8 | 0.6 | 0.0 | 90.5 |
| | 중부 (158) | 3.8 | 0.6 | 2.5 | 1.9 | 0.6 | 0.6 | 0.0 | 0.0 | 0.6 | 89.2 |
| | 동부 (97) | 0.0 | 4.1 | 1.0 | 1.0 | 0.0 | 0.0 | 0.0 | 0.0 | 0.0 | 93.8 |
| | 남부 (141) | 2.1 | 0.7 | 1.4 | 0.7 | 2.1 | 0.7 | 0.7 | 0.0 | 0.0 | 92.9 |
| 월 소득 | 300만원 미만 (184) | 2.7 | 4.3 | 1.1 | 2.2 | 1.1 | 1.1 | 1.1 | 0.0 | 0.0 | 87.5 |
| | 400만원 미만 (176) | 2.3 | 0.6 | 0.6 | 0.6 | 0.6 | 0.0 | 0.0 | 0.0 | 0.0 | 96.0 |
| | 500만원 미만 (133) | 1.5 | 0.0 | 1.5 | 0.8 | 0.8 | 0.8 | 0.8 | 0.0 | 0.8 | 93.2 |
| | 500만원 이상 (71) | 1.4 | 2.8 | 2.8 | 1.4 | 1.4 | 1.4 | 1.4 | 1.4 | 0.0 | 85.9 |

(4)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계기

문화예술 동호회는 ‘취미활동의 일환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교양 및 능력 계발을 위해’ (26.5%), ‘자기만족(즐거움)을 위해’ (22.4%),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위해’ (14.3%), ‘수강료가 저렴(무료)하기 때문’ (4.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7]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계기



‘취미활동의 일환으로’라는 응답률은 ‘남성’ (35.7%), ‘20대’ (75.0%), 월소득 ‘500만원 미만’ (66.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8]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계기

N=49(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취미활동의 일환으로 | 교양 및 능력 계발을 위해 | 자기만족 (즐거움)을 위해 |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위해 | 수강료가 저렴(무료) 하기 때문 |
|-------|----------|------|------------|----------------|----------------|----------------|-------------------|
| 총계 | | (49) | 32.7 | 26.5 | 22.4 | 14.3 | 4.1 |
| 성별 | 남성 | (28) | 35.7 | 17.9 | 17.9 | 21.4 | 7.1 |
| | 여성 | (21) | 28.6 | 38.1 | 28.6 | 4.8 | 0.0 |
| 연령 | 20대 | (4) | 75.0 | 0.0 | 25.0 | 0.0 | 0.0 |
| | 30대 | (10) | 40.0 | 20.0 | 30.0 | 10.0 | 0.0 |
| | 40대 | (13) | 15.4 | 53.8 | 7.7 | 7.7 | 15.4 |
| | 50대 | (12) | 25.0 | 25.0 | 33.3 | 16.7 | 0.0 |
| | 60대 | (10) | 40.0 | 10.0 | 20.0 | 30.0 | 0.0 |
| 거주 지역 | 북부 | (16) | 37.5 | 18.8 | 25.0 | 12.5 | 6.3 |
| | 중부 | (17) | 29.4 | 35.3 | 23.5 | 5.9 | 5.9 |
| | 동부 | (6) | 33.3 | 16.7 | 16.7 | 33.3 | 0.0 |
| | 남부 | (10) | 30.0 | 30.0 | 20.0 | 20.0 | 0.0 |
| 월 소득 | 300만원 미만 | (23) | 30.4 | 26.1 | 21.7 | 17.4 | 4.3 |
| | 400만원 미만 | (7) | 14.3 | 42.9 | 28.6 | 0.0 | 14.3 |
| | 500만원 미만 | (9) | 66.7 | 11.1 | 11.1 | 11.1 | 0.0 |
| | 500만원 이상 | (10) | 20.0 | 30.0 | 30.0 | 20.0 | 0.0 |

(5) 활동 경험이 있는 동호회의 운영 형태

동호회 활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관람, 학습 중심의 감상활동’ (46.9%), ‘직접 창작 및 연주, 공연 중심의 창작활동’ (38.8%) 동호회에서 주로 활동했으며, 상대적으로 ‘문예봉사, 재능 기부 등’ (14.3%)의 활동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8] 활동 경험 동호회의 운영 형태



동호회의 운영 형태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관람, 학습 중심의 감상활동’ 동호회는 ‘남성’ (53.6%), ‘20대’ (75.0%), 월 소득 ‘300만원 미만’ (52.2%)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문예봉사, 재능 기부 등’의 동호회의 경우 ‘여성’ (23.8%), ‘50대’ (25.0%)와 ‘60대’ (20.0%), 월 소득 ‘500만원 이상’ (30.0%)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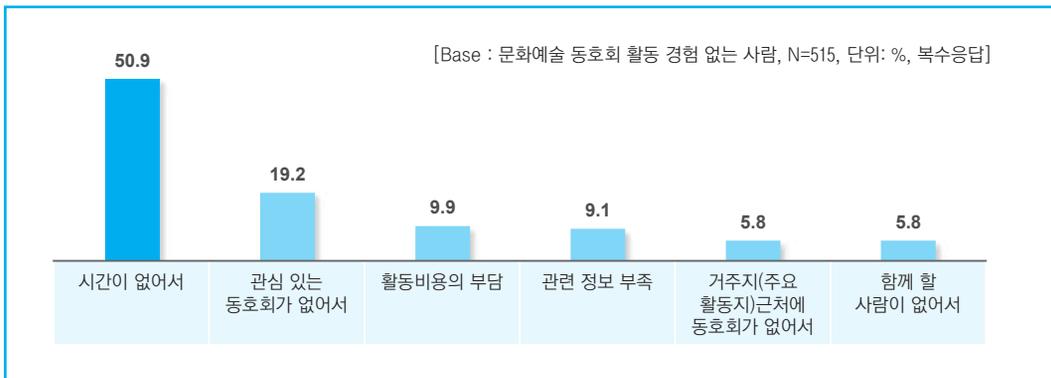
[표 49] 활동 경험 동호회의 운영 형태

N=49(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관람, 학습 중심의 감상활동 | 직접 창작 및 연주, 공연 중심의 창작활동 | 문예봉사, 재능 기부 등 | |
|-------|----------|-----------------|-------------------------|---------------|------|
| 총계 | (49) | 46.9 | 38.8 | 14.3 | |
| 성별 | 남성 | (28) | 53.6 | 39.3 | 7.1 |
| | 여성 | (21) | 38.1 | 38.1 | 23.8 |
| 연령 | 20대 | (4) | 75.0 | 25.0 | 0.0 |
| | 30대 | (10) | 60.0 | 40.0 | 0.0 |
| | 40대 | (13) | 38.5 | 46.2 | 15.4 |
| | 50대 | (12) | 25.0 | 50.0 | 25.0 |
| | 60대 | (10) | 60.0 | 20.0 | 20.0 |
| 거주 지역 | 북부 | (16) | 50.0 | 37.5 | 12.5 |
| | 중부 | (17) | 47.1 | 35.3 | 17.6 |
| | 동부 | (6) | 50.0 | 33.3 | 16.7 |
| | 남부 | (10) | 40.0 | 50.0 | 10.0 |
| 월 소득 | 300만원 미만 | (23) | 52.2 | 39.1 | 8.7 |
| | 400만원 미만 | (7) | 42.9 | 42.9 | 14.3 |
| | 500만원 미만 | (9) | 44.4 | 44.4 | 11.1 |
| | 500만원 이상 | (10) | 40.0 | 30.0 | 30.0 |

(6)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하지 않는 이유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50.9%)라는 응답률이 과반을 차지했으며, 그 외 ‘관심 있는 동호회가 없어서’ (19.2%), ‘활동비용의 부담’ (9.9%), ‘관련 정보 부족’ (9.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9]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하지 않는 이유

‘남성’ (54.2%), ‘60대’ (58.7%), ‘남부’ (64.9%) 지역과 ‘동부’ (54.9%) 지역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시간 부족’을, ‘50대’ (25.6%), ‘동부’ (26.4%) 지역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관심 있는 동호회가 없어서’를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응답했다.

[표 50]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하지 않는 이유

N=515(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경험 없는 사람), 복수응답,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시간이 없어서 | 관심 있는 동호회가 없어서 | 활동비용이 부담돼서 | 관련 정보가 부족해서 | 거주지 근처에 동호회가 없어서 |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
|-------|----------------|---------|----------------|------------|-------------|------------------|--------------|
| 총계 | (515) | 50.9 | 19.2 | 9.9 | 9.1 | 5.8 | 5.8 |
| 성별 | 남성 (253) | 54.2 | 16.2 | 9.9 | 9.1 | 5.9 | 5.5 |
| | 여성 (262) | 47.7 | 22.1 | 9.9 | 9.2 | 5.7 | 6.1 |
| 연령 | 20대 (122) | 47.5 | 21.3 | 12.3 | 8.2 | 5.7 | 6.6 |
| | 30대 (123) | 52.8 | 14.6 | 7.3 | 8.9 | 10.6 | 6.5 |
| | 40대 (117) | 48.7 | 18.8 | 12.0 | 11.1 | 4.3 | 5.1 |
| | 50대 (90) | 50.0 | 25.6 | 7.8 | 11.1 | 0.0 | 5.6 |
| | 60대 (63) | 58.7 | 15.9 | 9.5 | 4.8 | 7.9 | 4.8 |
| 거주 지역 | 북부 (152) | 40.8 | 16.4 | 17.8 | 9.2 | 10.5 | 7.2 |
| | 중부 (141) | 46.1 | 19.9 | 9.9 | 12.1 | 5.0 | 7.1 |
| | 동부 (91) | 54.9 | 26.4 | 3.3 | 7.7 | 5.5 | 3.3 |
| | 남부 (131) | 64.9 | 16.8 | 5.3 | 6.9 | 1.5 | 4.6 |
| 월 소득 | 300만원 미만 (161) | 58.4 | 19.3 | 9.3 | 7.5 | 5.0 | 3.1 |
| | 400만원 미만 (169) | 48.5 | 17.2 | 12.4 | 9.5 | 5.9 | 6.5 |
| | 500만원 미만 (124) | 47.6 | 21.0 | 8.1 | 8.9 | 6.5 | 8.1 |
| | 500만원 이상 (61) | 44.3 | 21.3 | 8.2 | 13.1 | 6.6 | 6.6 |

(7) 문화예술 관련 분야 활동 참여의향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서 활동 '참여 의향이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28.4%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참여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여성' (29.3%), '30대' (30.8%)와 '40대' (30.8%), '남부' (31.9%) 지역, 월소득 '500만원 이상' (40.8%)에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51] 문화예술 관련 분야 활동 참여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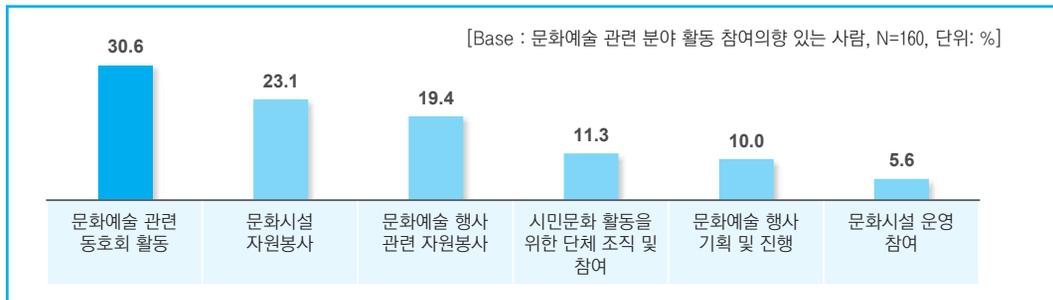
N=564(전체),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있다 | 없음 | 잘 모르겠음 |
|-------|----------|-------|------|------|--------|
| 총계 | | (564) | 28.4 | 48.6 | 23.0 |
| 성별 | 남성 | (281) | 27.4 | 54.1 | 18.5 |
| | 여성 | (283) | 29.3 | 43.1 | 27.6 |
| 연령 | 20대 | (126) | 24.6 | 52.4 | 23.0 |
| | 30대 | (133) | 30.8 | 46.6 | 22.6 |
| | 40대 | (130) | 30.8 | 45.4 | 23.8 |
| | 50대 | (102) | 28.4 | 47.1 | 24.5 |
| | 60대 | (73) | 26.0 | 53.4 | 20.5 |
| 거주 지역 | 북부 | (168) | 25.6 | 54.2 | 20.2 |
| | 중부 | (158) | 26.6 | 52.5 | 20.9 |
| | 동부 | (97) | 30.9 | 43.3 | 25.8 |
| | 남부 | (141) | 31.9 | 41.1 | 27.0 |
| 월 소득 | 300만원 미만 | (184) | 27.2 | 44.6 | 28.3 |
| | 400만원 미만 | (176) | 27.3 | 53.4 | 19.3 |
| | 500만원 미만 | (133) | 24.8 | 54.1 | 21.1 |
| | 500만원 이상 | (71) | 40.8 | 36.6 | 22.5 |

(8) 희망하는 문화예술 관련 활동

희망하는 문화예술 관련 활동은 ‘문화예술 관련 동호회 활동’ (30.6%), ‘문화시설 자원봉사’ (23.1%), ‘문화예술 행사관련 자원봉사’ (1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0] 희망 문화예술 관련 활동



‘문화예술 관련 동호회 활동’의 경우 ‘남성’ (32.5%), ‘50대’ (51.7%), 월 소득 ‘500만원 이상’ (34.5%)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52] 희망 문화예술 관련 활동

N=160(문화예술 관련 분야 활동 참여의향 있는 사람,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문화예술 관련 동호회 활동 | 문화시설 자원봉사 | 문화예술 행사 관련 자원 봉사 | 시민문화 활동을 위한 단체 조직 및 참여 | 문화예술 행사 기획 및 진행 | 문화시설 운영 참여 |
|----------|----------|-------|----------------------|--------------|------------------------|---------------------------------|-----------------------|---------------|
| 총계 | | (160) | 30.6 | 23.1 | 19.4 | 11.3 | 10.0 | 5.6 |
| 성별 | 남성 | (77) | 32.5 | 18.2 | 19.5 | 10.4 | 10.4 | 9.1 |
| | 여성 | (83) | 28.9 | 27.7 | 19.3 | 12.0 | 9.6 | 2.4 |
| 연령 | 20대 | (31) | 32.3 | 22.6 | 16.1 | 9.7 | 12.9 | 6.5 |
| | 30대 | (41) | 29.3 | 29.3 | 9.8 | 14.6 | 12.2 | 4.9 |
| | 40대 | (40) | 25.0 | 15.0 | 40.0 | 5.0 | 7.5 | 7.5 |
| | 50대 | (29) | 51.7 | 13.8 | 17.2 | 6.9 | 6.9 | 3.4 |
| | 60대 | (19) | 10.5 | 42.1 | 5.3 | 26.3 | 10.5 | 5.3 |
| 거주 지역 | 북부 | (43) | 27.9 | 16.3 | 25.6 | 11.6 | 11.6 | 7.0 |
| | 중부 | (42) | 40.5 | 23.8 | 11.9 | 14.3 | 4.8 | 4.8 |
| | 동부 | (30) | 33.3 | 10.0 | 23.3 | 10.0 | 20.0 | 3.3 |
| | 남부 | (45) | 22.2 | 37.8 | 17.8 | 8.9 | 6.7 | 6.7 |
| 월 소득 | 300만원 미만 | (50) | 30.0 | 20.0 | 18.0 | 10.0 | 16.0 | 6.0 |
| | 400만원 미만 | (48) | 33.3 | 29.2 | 20.8 | 10.4 | 4.2 | 2.1 |
| | 500만원 미만 | (33) | 24.2 | 24.2 | 18.2 | 12.1 | 12.1 | 9.1 |
| | 500만원 이상 | (29) | 34.5 | 17.2 | 20.7 | 13.8 | 6.9 | 6.9 |

(9) 문화예술 관련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것

문화예술 관련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 기회(프로그램)마련’ (40.0%)과 ‘프로그램 홍보 및 충분한 정보제공’ (39.4%)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림 31] 문화예술 관련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것



‘다양한 활동기회(프로그램) 마련’이라는 응답률은 ‘여성’ (41.0%), ‘60대’ (63.2%), 월소득 ‘500만원 미만’ (48.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프로그램 홍보 및 충분한 정보제공’은 ‘남성’ (41.6%), ‘30대’ (43.9%)와 ‘50대’ (44.8%)에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53] 문화예술 관련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것

N=160(문화예술 관련 분야 활동 참여의향 있는 사람),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다양한 활동 기회 마련 | 프로그램 홍보 및 정보제공 | 활동 관련 사전 교육 제공 | 금전적 보상 (활동비 지급 등) | 활동하기 위한 시간 |
|-------|---------------|--------------|----------------|----------------|-------------------|------------|
| 총계 | (160) | 40.0 | 39.4 | 10.0 | 8.8 | 1.9 |
| 성별 | 남성 (77) | 39.0 | 41.6 | 7.8 | 9.1 | 2.6 |
| | 여성 (83) | 41.0 | 37.3 | 12.0 | 8.4 | 1.2 |
| 연령 | 20대 (31) | 32.3 | 35.5 | 12.9 | 16.1 | 3.2 |
| | 30대 (41) | 34.1 | 43.9 | 17.1 | 2.4 | 2.4 |
| | 40대 (40) | 37.5 | 40.0 | 12.5 | 10.0 | 0.0 |
| | 50대 (29) | 44.8 | 44.8 | 0.0 | 6.9 | 3.4 |
| | 60대 (19) | 63.2 | 26.3 | 0.0 | 10.5 | 0.0 |
| 거주 지역 | 북부 (43) | 41.9 | 41.9 | 11.6 | 4.7 | 0.0 |
| | 중부 (42) | 35.7 | 47.6 | 9.5 | 7.1 | 0.0 |
| | 동부 (30) | 40.0 | 26.7 | 6.7 | 20.0 | 6.7 |
| | 남부 (45) | 42.2 | 37.8 | 11.1 | 6.7 | 2.2 |
| 월 소득 | 300만원 미만 (50) | 32.0 | 44.0 | 10.0 | 14.0 | 0.0 |
| | 400만원 미만 (48) | 43.8 | 35.4 | 4.2 | 10.4 | 6.3 |
| | 500만원 미만 (33) | 48.5 | 33.3 | 12.1 | 6.1 | 0.0 |
| | 500만원 이상 (29) | 37.9 | 44.8 | 17.2 | 0.0 | 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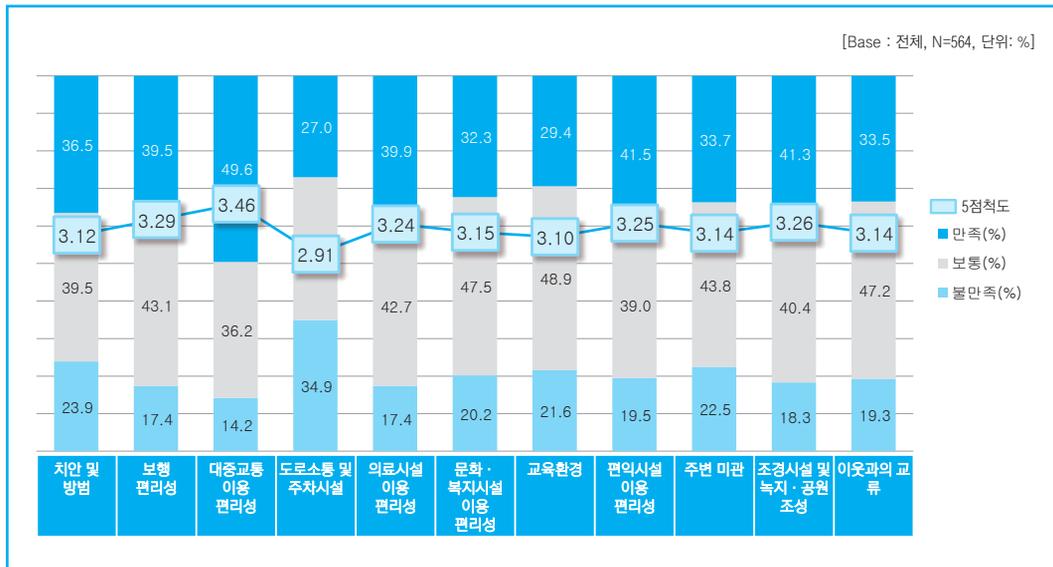
9) 주거만족도 및 문화의식

(1) 인천의 주거 및 생활환경 항목별 만족도

인천의 주거 및 생활환경에 대해서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 (평균 3.46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보행 편리성’ (평균 3.29점), ‘조경시설 및 녹지, 공원 조성’ (평균 3.26점) 등의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도로소통 및 주차시설’의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 평균 2.91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로 나타났다.

[그림 32] 인천의 주거 및 생활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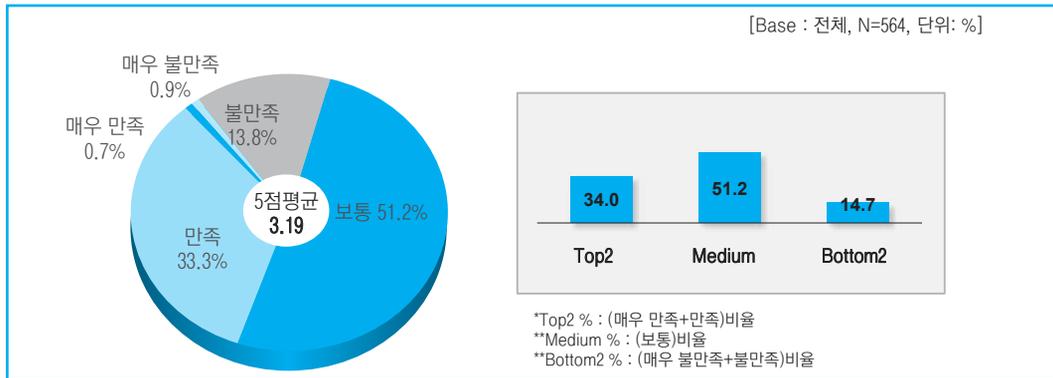


(2) 인천의 주거 및 생활환경 종합 만족도

인천의 주거 및 생활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 평균 3.19점으로 나타났으며, ‘40대’ (평균 3.24점) 월소득 ‘500만원 미만’ (평균 3.32점) 응답자에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남부’ 지역(평균 2.99점), 월 소득 ‘300만원 미만’ (평균 3.05점)과

‘500만원 이상’ (평균 3.08점) 응답자의 종합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33] 인천의 주거 및 생활환경 종합 만족도



[표 54] 인천의 주거 및 생활환경 종합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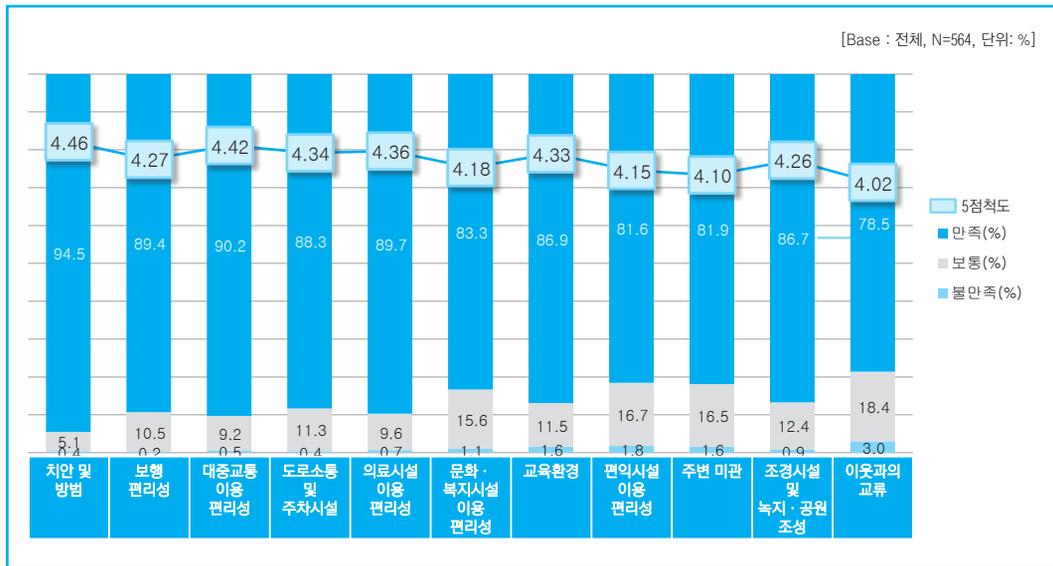
N=564(전체), 단위: %, 점

| 구분 | 사례수 | 만족 | 보통 | 불만족 | 5점 평균 | |
|-------|----------|-------|------|------|-------|------|
| 총계 | (564) | 34.0 | 51.2 | 14.7 | 3.19 | |
| 성별 | 남성 | (281) | 35.2 | 51.6 | 13.2 | 3.22 |
| | 여성 | (283) | 32.9 | 50.9 | 16.3 | 3.16 |
| 연령 | 20대 | (126) | 34.1 | 46.0 | 19.8 | 3.15 |
| | 30대 | (133) | 34.6 | 51.1 | 14.3 | 3.20 |
| | 40대 | (130) | 33.1 | 57.7 | 9.2 | 3.24 |
| | 50대 | (102) | 35.3 | 48.0 | 16.7 | 3.17 |
| | 60대 | (73) | 32.9 | 53.4 | 13.7 | 3.19 |
| 거주 지역 | 북부 | (168) | 38.7 | 42.9 | 18.5 | 3.21 |
| | 중부 | (158) | 43.7 | 48.1 | 8.2 | 3.35 |
| | 동부 | (97) | 29.9 | 57.7 | 12.4 | 3.19 |
| | 남부 | (141) | 20.6 | 60.3 | 19.1 | 2.99 |
| 월 소득 | 300만원 미만 | (184) | 21.7 | 62.5 | 15.8 | 3.05 |
| | 400만원 미만 | (176) | 40.9 | 45.5 | 13.6 | 3.28 |
| | 500만원 미만 | (133) | 42.9 | 45.9 | 11.3 | 3.32 |
| | 500만원 이상 | (71) | 32.4 | 46.5 | 21.1 | 3.08 |

(3) 주거지 결정시 항목별 중요도

향후 주거지 결정시 주요 고려사항은 ‘치안 및 방법’ (평균 4.46점),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 (평균 4.42점), ‘교육환경’ (평균 4.33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주거지 결정시 항목별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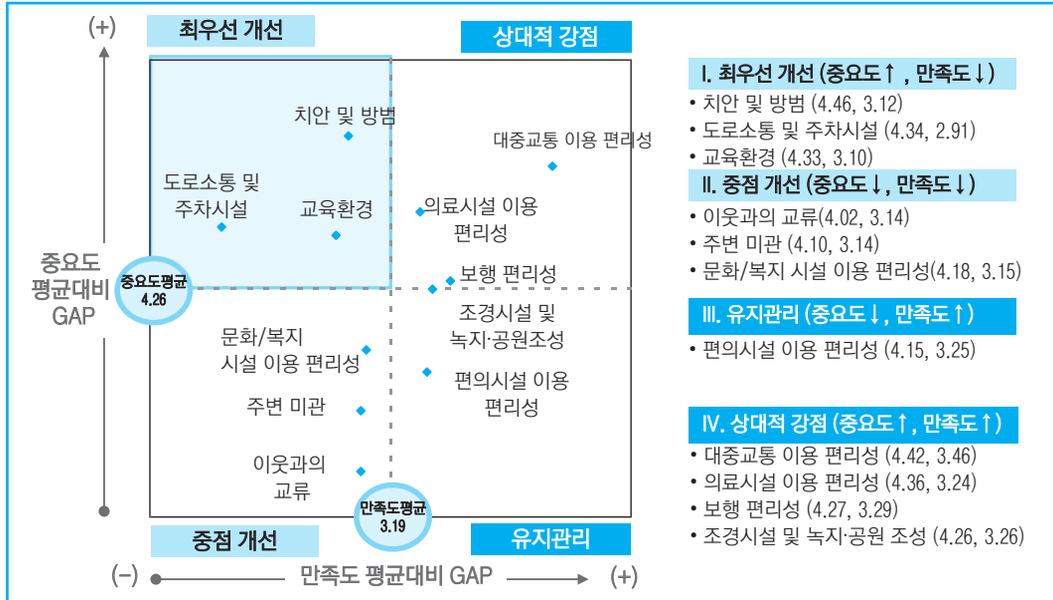
(4) 인천시민의 주거, 생활환경 및 주거지 결정 항목 IPA분석

IPA분석이란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의 약자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항목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평가하여 상대적인 중요도와 성취도를 동시에 비교 분석하는 평가기법이다.

만족도와 중요도를 활용한 IPA분석을 통해 도출된 최우선 개선사항으로는 ‘치안 및 방법’ 과 ‘도로소통 및 주차시설’, ‘교육환경’ 이었고, 중점 개선사항은 ‘이웃과의 교류’와 ‘주변 미관’, 그리고 ‘문화·복지 시설 이용 편리성’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 과 ‘의료시설 이용 편리성’, ‘보행 편리성’, ‘조경시설 및 녹지·공원 조성’ 항목들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아 상대적 강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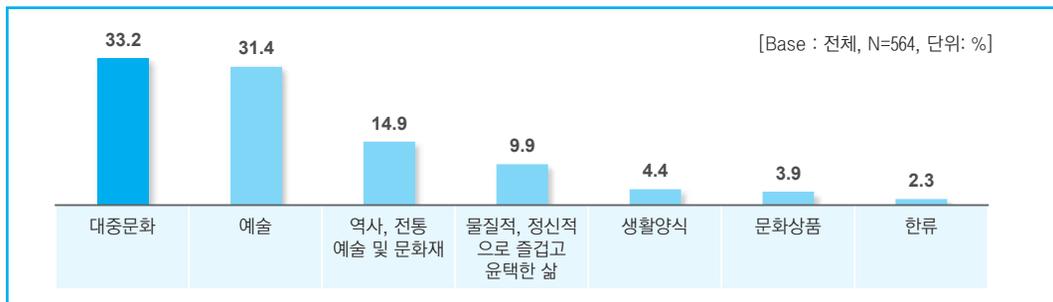
[그림 35] 인천의 주거 및 생활환경 및 주거지 결정 항목 IPA분석



(5) 문화에 대한 최초 상기 의미

‘문화’를 ‘대중문화’ 혹은 ‘예술’로 인식하는 비율은 전체 64.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림 36] 문화 최초 상기 의미



특히 ‘대중문화’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 (35.2%), ‘40대’ (34.6%), 월 소득 500만원 이상 (38.0%)에서, ‘예술’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 (33.6%), ‘60대’ (34.2%)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55] 문화 최초 상기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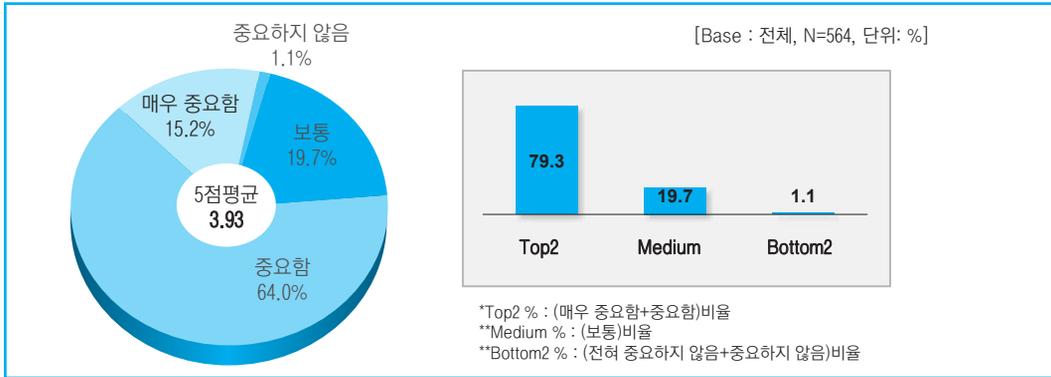
N=564(전체),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대중문화 | 예술 | 역사, 전통 예술 및 문화재 | 물질적, 정신적 즐겁고 윤택한 삶 | 생활양식 | 문화상품 | 한류 | |
|----------|----------|-------|------|-----------------------|-----------------------------|------|------|-----|-----|
| 총계 | (564) | 33.2 | 31.4 | 14.9 | 9.9 | 4.4 | 3.9 | 2.3 | |
| 성별 | 남성 | (281) | 35.2 | 29.2 | 16.0 | 8.2 | 3.6 | 4.6 | 3.2 |
| | 여성 | (283) | 31.1 | 33.6 | 13.8 | 11.7 | 5.3 | 3.2 | 1.4 |
| 연령 | 20대 | (126) | 31.0 | 29.4 | 15.1 | 8.7 | 6.3 | 4.0 | 5.6 |
| | 30대 | (133) | 33.8 | 33.1 | 13.5 | 10.5 | 2.3 | 3.8 | 3.0 |
| | 40대 | (130) | 34.6 | 33.8 | 13.8 | 7.7 | 6.9 | 2.3 | 0.8 |
| | 50대 | (102) | 33.3 | 26.5 | 22.5 | 11.8 | 2.0 | 2.9 | 1.0 |
| | 60대 | (73) | 32.9 | 34.2 | 8.2 | 12.3 | 4.1 | 8.2 | 0.0 |
| 거주 지역 | 북부 | (168) | 37.5 | 29.2 | 14.9 | 4.8 | 4.8 | 4.8 | 4.2 |
| | 중부 | (158) | 20.9 | 41.1 | 15.2 | 12.0 | 4.4 | 3.8 | 2.5 |
| | 동부 | (97) | 40.2 | 19.6 | 19.6 | 14.4 | 3.1 | 2.1 | 1.0 |
| | 남부 | (141) | 36.9 | 31.2 | 11.3 | 10.6 | 5.0 | 4.3 | 0.7 |
| 월 소득 | 300만원 미만 | (184) | 32.6 | 28.3 | 13.6 | 12.5 | 5.4 | 4.9 | 2.7 |
| | 400만원 미만 | (176) | 32.4 | 35.2 | 12.5 | 8.0 | 5.1 | 4.0 | 2.8 |
| | 500만원 미만 | (133) | 32.3 | 35.3 | 18.0 | 8.3 | 1.5 | 3.0 | 1.5 |
| | 500만원 이상 | (71) | 38.0 | 22.5 | 18.3 | 11.3 | 5.6 | 2.8 | 1.4 |

(6) 문화가 중요한 정도

‘문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은 5점 만점 기준 평균 3.93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문화를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7] 문화 중요도



‘30대’ (평균 3.99점)와 ‘50대’ (평균 4.00점), ‘북부’ (평균 4.12점) 지역 거주자 및 월소득 ‘500만원 이상’ (평균 4.08점) 응답자가 ‘문화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6] 문화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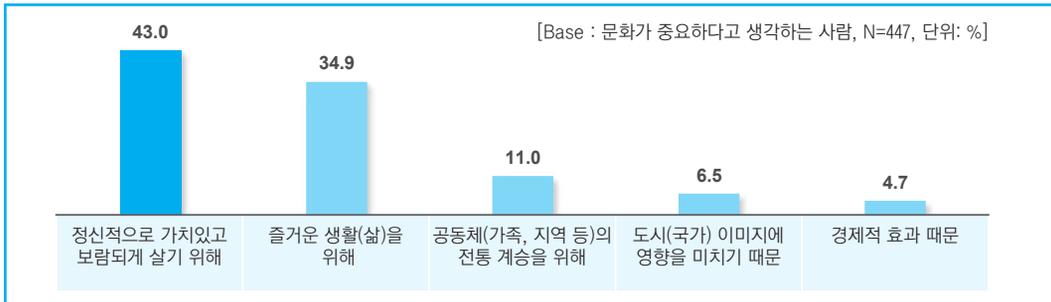
N=564(전체), 단위: %, 점

| 구분 | 사례수 | 중요함 | 보통 | 중요하지 않음 | 5점 평균 | |
|-------|----------|-------|------|---------|-------|------|
| 총계 | (564) | 79.3 | 19.7 | 1.1 | 3.93 | |
| 성별 | 남성 | (281) | 77.9 | 21.4 | 0.7 | 3.94 |
| | 여성 | (283) | 80.6 | 18.0 | 1.4 | 3.93 |
| 연령 | 20대 | (126) | 77.8 | 21.4 | 0.8 | 3.90 |
| | 30대 | (133) | 82.7 | 15.8 | 1.5 | 3.99 |
| | 40대 | (130) | 78.5 | 20.8 | 0.8 | 3.92 |
| | 50대 | (102) | 80.4 | 18.6 | 1.0 | 4.00 |
| | 60대 | (73) | 75.3 | 23.3 | 1.4 | 3.82 |
| 거주 지역 | 북부 | (168) | 92.3 | 7.7 | 0.0 | 4.12 |
| | 중부 | (158) | 72.2 | 26.6 | 1.3 | 3.84 |
| | 동부 | (97) | 75.3 | 22.7 | 2.1 | 3.92 |
| | 남부 | (141) | 74.5 | 24.1 | 1.4 | 3.84 |
| 월 소득 | 300만원 미만 | (184) | 73.9 | 25.5 | 0.5 | 3.87 |
| | 400만원 미만 | (176) | 79.5 | 19.9 | 0.6 | 3.90 |
| | 500만원 미만 | (133) | 82.7 | 15.8 | 1.5 | 3.98 |
| | 500만원 이상 | (71) | 85.9 | 11.3 | 2.8 | 4.08 |

(7) 문화가 중요한 이유

‘문화가 중요한 이유’는 ‘정신적으로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기 위해’ (43.0%)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즐거운 생활(삶)을 위해’ (34.9%)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그림 38] 문화가 중요한 이유



‘동부’ (50.7%) 지역과 ‘남부’ (48.6%) 지역, 월 소득 ‘500만원 이상’ (59.0%)에서 ‘정신적으로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기 위해’ 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57] 문화가 중요한 이유

N=447(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단위: %

| 구분 | 사례수 | 정신적으로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기 위해 | 즐거운 생활(삶)을 위해 | 공동체의 전통 계승을 위해 | 도시(국가)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 경제적 효과 때문 |
|-------|----------------|------------------------|---------------|----------------|------------------------|-----------|
| 총계 | (447) | 43.0 | 34.9 | 11.0 | 6.5 | 4.7 |
| 성별 | 남성 (219) | 44.3 | 34.2 | 13.2 | 3.7 | 4.6 |
| | 여성 (228) | 41.7 | 35.5 | 8.8 | 9.2 | 4.8 |
| 연령 | 20대 (98) | 46.9 | 33.7 | 9.2 | 8.2 | 2.0 |
| | 30대 (110) | 38.2 | 42.7 | 10.0 | 5.5 | 3.6 |
| | 40대 (102) | 40.2 | 30.4 | 12.7 | 9.8 | 6.9 |
| | 50대 (82) | 48.8 | 32.9 | 8.5 | 4.9 | 4.9 |
| | 60대 (55) | 41.8 | 32.7 | 16.4 | 1.8 | 7.3 |
| 거주 지역 | 북부 (155) | 41.3 | 27.1 | 12.9 | 7.7 | 11.0 |
| | 중부 (114) | 35.1 | 44.7 | 13.2 | 6.1 | 0.9 |
| | 동부 (73) | 50.7 | 28.8 | 12.3 | 5.5 | 2.7 |
| | 남부 (105) | 48.6 | 40.0 | 4.8 | 5.7 | 1.0 |
| 월 소득 | 300만원 미만 (136) | 41.2 | 39.0 | 8.1 | 9.6 | 2.2 |
| | 400만원 미만 (140) | 37.1 | 39.3 | 9.3 | 6.4 | 7.9 |
| | 500만원 미만 (110) | 43.6 | 30.9 | 15.5 | 5.5 | 4.5 |
| | 500만원 이상 (61) | 59.0 | 23.0 | 13.1 | 1.6 | 3.3 |

(8) 문화도시의 의미

‘문화도시’란 ‘문화예술 행사에 시민 참여가 활발한 도시’ (32.8%)라는 인식이 높으며, ‘시민의 교양 및 의식 수준이 높은 도시’ (20.4%) 등의 의미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 문화도시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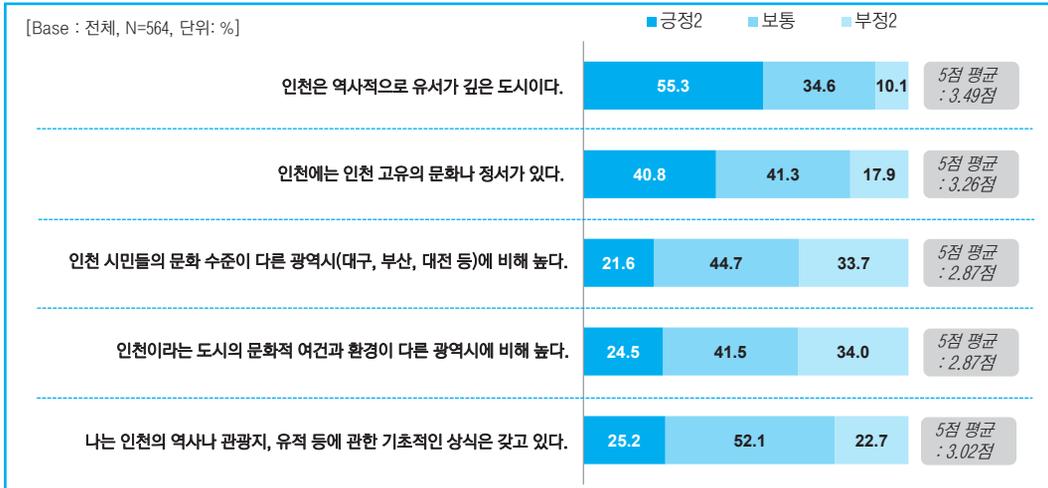
N=564(전체),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문화 예술 행사에 시민 참여 활발한 도시 | 시민 교양 및 의식 수준 높은 도시 | 문화 예술 행사가 자주 개최 되는 도시 | 주변 미관이 쾌적, 아름다운 도시 | 특색 있는 지역 문화 가진 도시 | 유명 문화 예술인 많이 배출 하는 도시 | 유서 깊은 역사를 가진 도시 | 물질적 정신적 윤택한 도시 |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시 |
|-------|----------|------------------------|---------------------|-----------------------|--------------------|-------------------|-----------------------|-----------------|----------------|---------------|
| 총계 | (564) | 32.8 | 20.4 | 12.6 | 12.6 | 12.4 | 5.1 | 3.7 | 0.2 | 0.2 |
| 성별 | 남성 | (281) | 31.7 | 18.5 | 13.5 | 12.8 | 11.0 | 7.5 | 4.3 | 0.4 |
| | 여성 | (283) | 33.9 | 22.3 | 11.7 | 12.4 | 13.8 | 2.8 | 3.2 | 0.0 |
| 연령 | 20대 | (126) | 31.7 | 20.6 | 12.7 | 12.7 | 11.9 | 4.0 | 5.6 | 0.8 |
| | 30대 | (133) | 34.6 | 18.0 | 15.0 | 15.8 | 9.0 | 4.5 | 2.3 | 0.0 |
| | 40대 | (130) | 32.3 | 20.8 | 10.8 | 11.5 | 13.8 | 6.9 | 3.8 | 0.0 |
| | 50대 | (102) | 33.3 | 19.6 | 10.8 | 6.9 | 19.6 | 3.9 | 5.9 | 0.0 |
| | 60대 | (73) | 31.5 | 24.7 | 13.7 | 16.4 | 6.8 | 6.8 | 0.0 | 0.0 |
| 거주 지역 | 북부 | (168) | 34.5 | 14.3 | 17.9 | 10.7 | 12.5 | 6.5 | 3.6 | 0.0 |
| | 중부 | (158) | 27.8 | 19.6 | 13.9 | 13.9 | 12.0 | 6.3 | 5.7 | 0.0 |
| | 동부 | (97) | 36.1 | 23.7 | 8.2 | 16.5 | 11.3 | 2.1 | 2.1 | 0.0 |
| | 남부 | (141) | 34.0 | 26.2 | 7.8 | 10.6 | 13.5 | 4.3 | 2.8 | 0.7 |
| 월 소득 | 300만원 미만 | (184) | 35.9 | 16.8 | 13.6 | 15.2 | 12.0 | 3.3 | 2.7 | 0.0 |
| | 400만원 미만 | (176) | 27.3 | 22.2 | 14.8 | 14.2 | 10.8 | 7.4 | 2.8 | 0.6 |
| | 500만원 미만 | (133) | 36.8 | 19.5 | 10.5 | 7.5 | 14.3 | 4.5 | 6.8 | 0.0 |
| | 500만원 이상 | (71) | 31.0 | 26.8 | 8.5 | 11.3 | 14.1 | 5.6 | 2.8 | 0.0 |

(9) 인천 문화 항목별 동의 정도 평가

‘인천은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도시이다’ (평균 3.49점)라는 항목에는 동의하지만 ‘타 광역시 대비 시민들의 문화수준 및 문화적 여건, 환경 수준’ (각 평균 2.87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9] 인천 문화 항목별 동의 정도 평가



[표 59] 인천 문화 항목별 동의 정도 평가

N=564(전체), 단위: 점

| 구분 | 사례수 |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도시이다 | 고유의 문화, 정서가 있다 | 시민 문화수준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 높다 | 문화적 여건, 환경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 높다 | 인천의 역사, 관광지, 유적 등의 기초적인 상식 있다 |
|-------|----------------|------------------|----------------|------------------------|---------------------------|-------------------------------|
| 총계 | (564) | 3.49 | 3.26 | 2.87 | 2.87 | 3.02 |
| 성별 | 남성 (281) | 3.49 | 3.27 | 2.90 | 2.95 | 3.06 |
| | 여성 (283) | 3.50 | 3.24 | 2.83 | 2.79 | 2.98 |
| 연령 | 20대 (126) | 3.48 | 3.30 | 2.84 | 2.85 | 2.91 |
| | 30대 (133) | 3.52 | 3.30 | 2.92 | 2.93 | 3.07 |
| | 40대 (130) | 3.42 | 3.23 | 2.88 | 2.83 | 2.93 |
| | 50대 (102) | 3.53 | 3.17 | 2.84 | 2.85 | 3.20 |
| | 60대 (73) | 3.55 | 3.26 | 2.81 | 2.88 | 3.04 |
| 거주 지역 | 북부 (168) | 3.57 | 3.28 | 2.89 | 2.93 | 3.16 |
| | 중부 (158) | 3.53 | 3.41 | 3.06 | 3.07 | 3.12 |
| | 동부 (97) | 3.45 | 3.07 | 2.64 | 2.66 | 2.68 |
| | 남부 (141) | 3.40 | 3.18 | 2.77 | 2.72 | 2.98 |
| 월 소득 | 300만원 미만 (184) | 3.34 | 3.15 | 2.80 | 2.77 | 2.99 |
| | 400만원 미만 (176) | 3.59 | 3.35 | 2.99 | 3.01 | 3.05 |
| | 500만원 미만 (133) | 3.57 | 3.30 | 2.86 | 2.89 | 3.10 |
| | 500만원 이상 (71) | 3.52 | 3.21 | 2.72 | 2.73 | 2.89 |

(10)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 필요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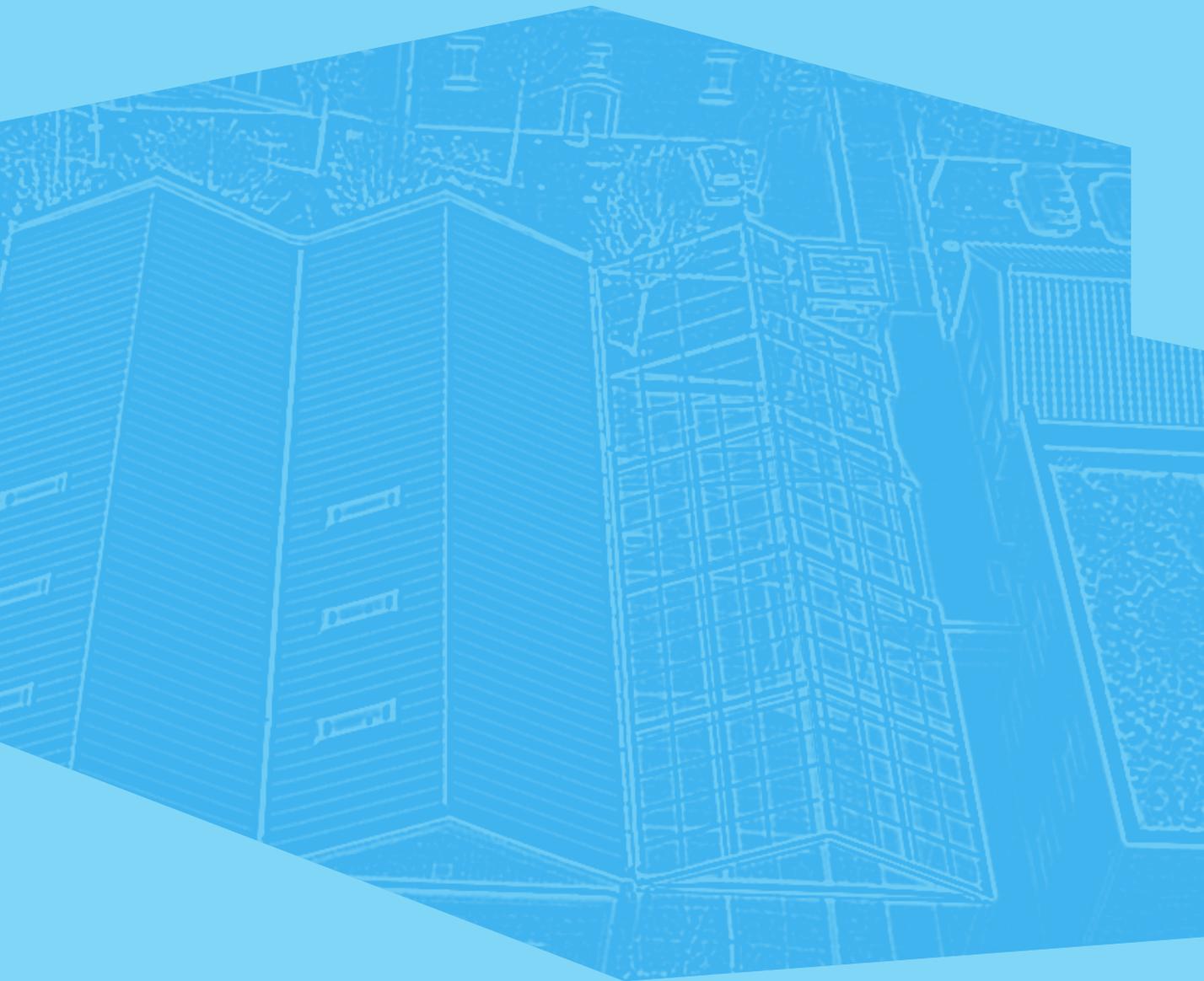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 (30.5%), ‘문화예술 교육 확대’ (22.0%) 등의 사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개최’는 ‘20대’ (32.5%), ‘여성’ (31.8%), ‘중부’ (35.4%) 지역에서 응답률이 높았고, ‘문화예술 교육 확대’는 ‘남성’ (27.0%), ‘40대’ (26.9%)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표 60]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 필요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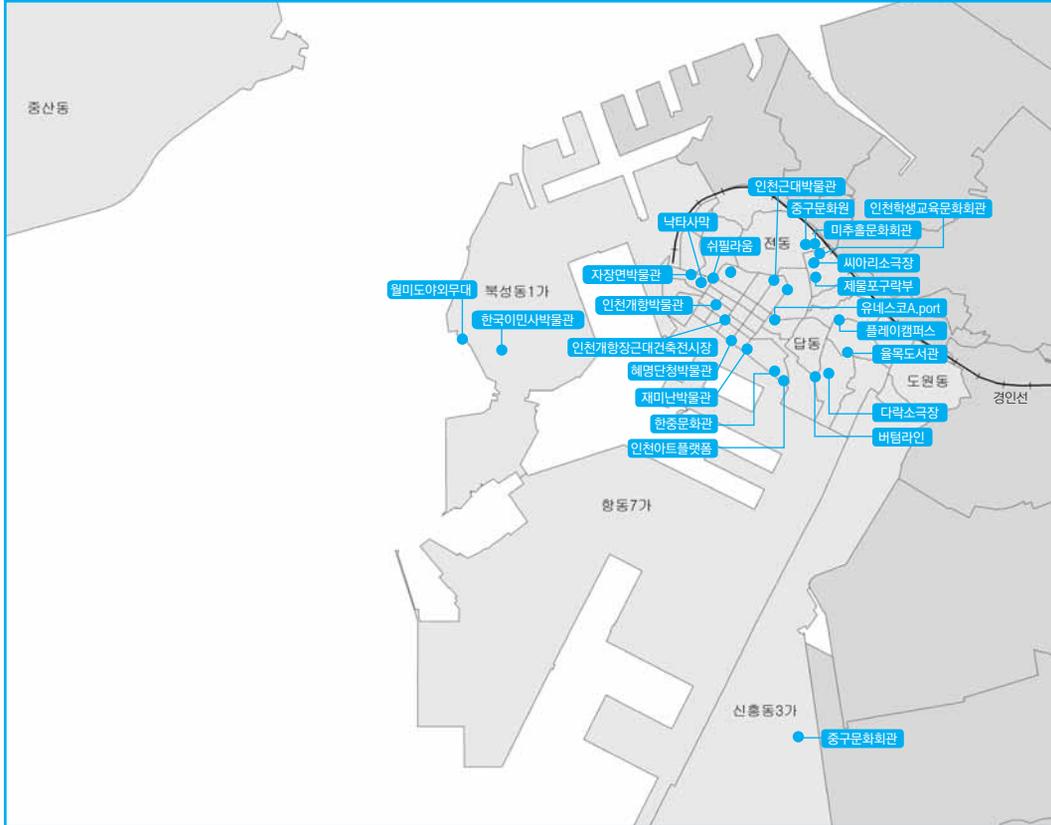
N=564(전체), 단위 : %

| 구분 | 사례수 |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개최 | 문화예술 교육 확대 | 문화시설 확충 | 역사문화와 첨단문화의 조화 | 인천 문화예술인 양성 | 국내외 문화교류 활성화 | |
|-------|----------|----------------|------------|---------|----------------|-------------|--------------|-----|
| 총계 | (564) | 30.5 | 22.0 | 17.6 | 12.8 | 10.6 | 6.6 | |
| 성별 | 남성 | (281) | 29.2 | 27.0 | 13.2 | 14.2 | 10.0 | 6.4 |
| | 여성 | (283) | 31.8 | 17.0 | 21.9 | 11.3 | 11.3 | 6.7 |
| 연령 | 20대 | (126) | 32.5 | 18.3 | 16.7 | 14.3 | 10.3 | 7.9 |
| | 30대 | (133) | 31.6 | 22.6 | 16.5 | 8.3 | 15.0 | 6.0 |
| | 40대 | (130) | 31.5 | 26.9 | 10.8 | 13.8 | 8.5 | 8.5 |
| | 50대 | (102) | 29.4 | 18.6 | 20.6 | 14.7 | 10.8 | 5.9 |
| | 60대 | (73) | 24.7 | 23.3 | 28.8 | 13.7 | 6.8 | 2.7 |
| 거주 지역 | 북부 | (168) | 32.7 | 18.5 | 14.9 | 14.3 | 13.7 | 6.0 |
| | 중부 | (158) | 35.4 | 19.0 | 17.1 | 10.1 | 10.1 | 8.2 |
| | 동부 | (97) | 25.8 | 24.7 | 15.5 | 16.5 | 12.4 | 5.2 |
| | 남부 | (141) | 25.5 | 27.7 | 22.7 | 11.3 | 6.4 | 6.4 |
| 월 소득 | 300만원 미만 | (184) | 31.5 | 22.3 | 16.8 | 13.6 | 9.2 | 6.5 |
| | 400만원 미만 | (176) | 34.1 | 19.3 | 19.3 | 9.7 | 10.8 | 6.8 |
| | 500만원 미만 | (133) | 31.6 | 21.8 | 15.8 | 14.3 | 9.8 | 6.8 |
| | 500만원 이상 | (71) | 16.9 | 28.2 | 18.3 | 15.5 | 15.5 | 5.6 |

인천시 문화시설 분포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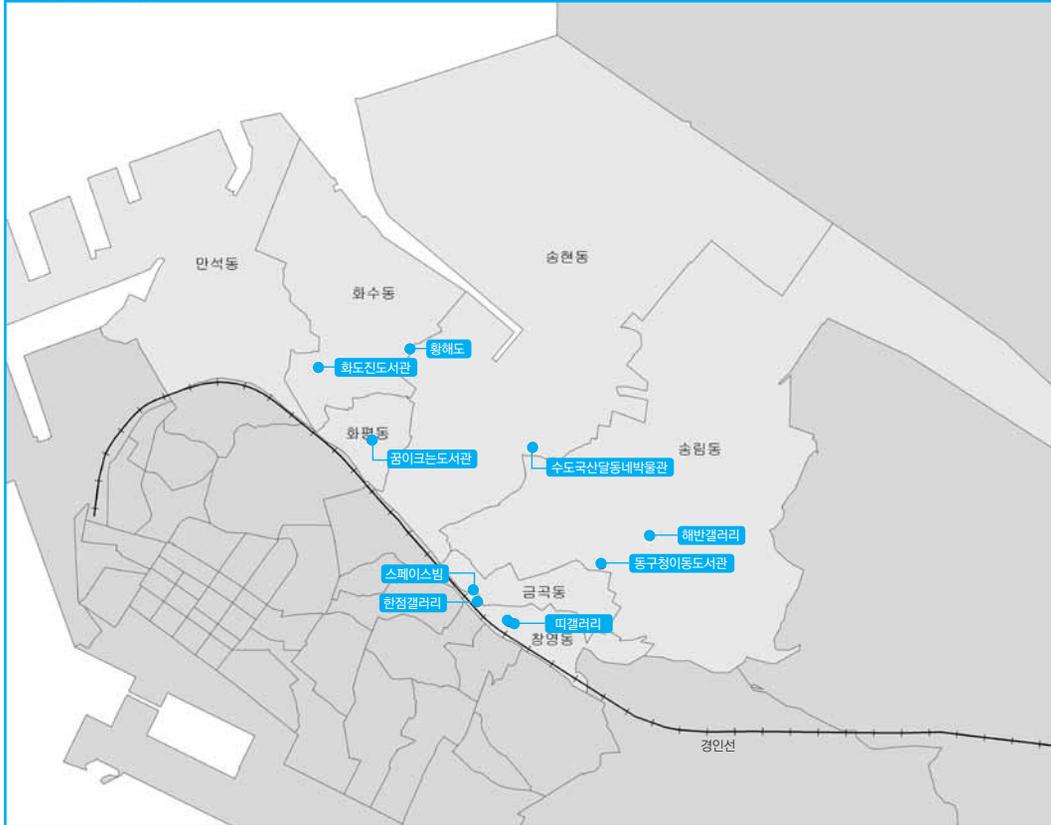


중구 문화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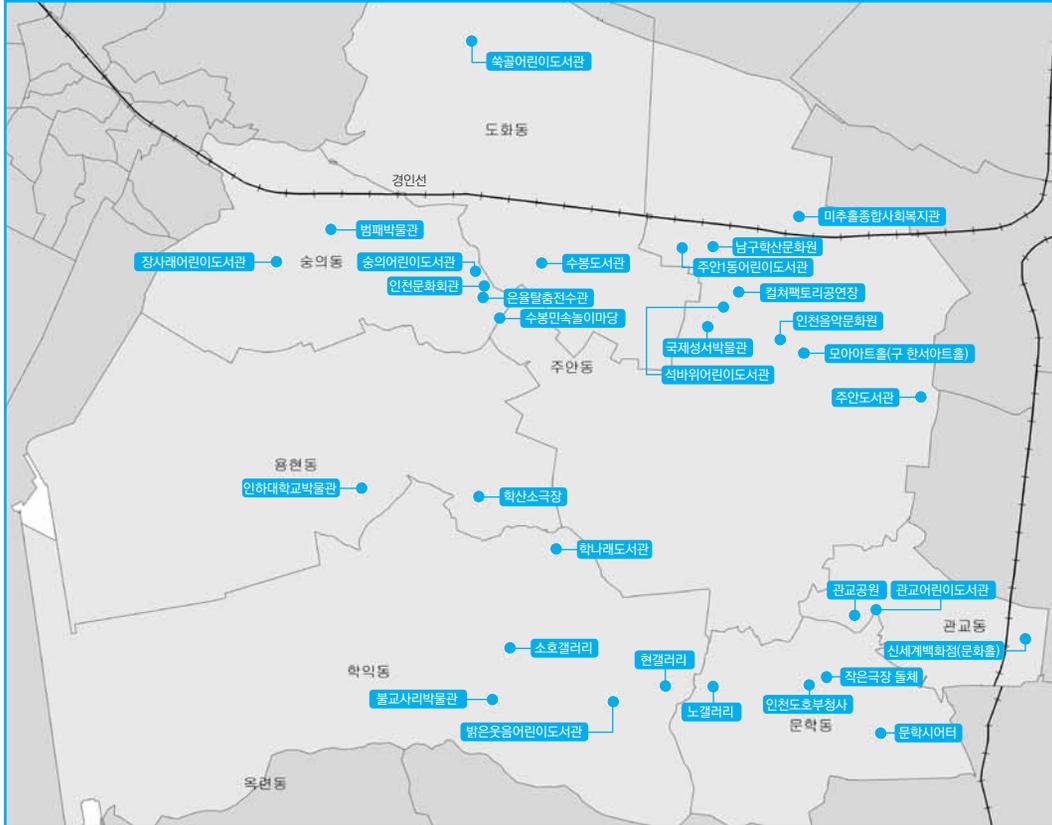
| | | | |
|------------|---------------|---------------|---------------|
| 중구문화회관 | 032-760-6403 | 인천근대박물관 | 032-764-1988 |
| 미추홀문화회관 | 032-765-0220 | 자장면박물관 | 032-760-7823 |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 032-777-9140 | 한국이민사박물관 | 032-440-4710 |
| (구)제물포구락부 | 032-765-0261 |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 032-760-7132 |
| 한중문화관 | 032-760-7860 | 인천아트플랫폼 | 032-760-1005 |
| 중구문화원 | 032-761-2778 | 영종도서관 | 032-745-6000 |
| 시아리소극장 | 032-762-5579 | 울목도서관 | 032-770-3800 |
| 월미도 야외무대 | 032-760-7133 | 플레이캠퍼스 | 070-8627-6783 |
| 쉬필라움 | 070-7520-9516 | 다락소극장 | 032-4419-1959 |
| 해명단청박물관 | 032-868-5898 | 버텀라인 | 032-766-8211 |
| 인천개항박물관 | 032-760-7508 | 유네스코 A 포트 | 032-762-2406 |
| 재미난박물관 | 032-765-0780 | 낙타사막 | 032-765-9516 |

동구 문화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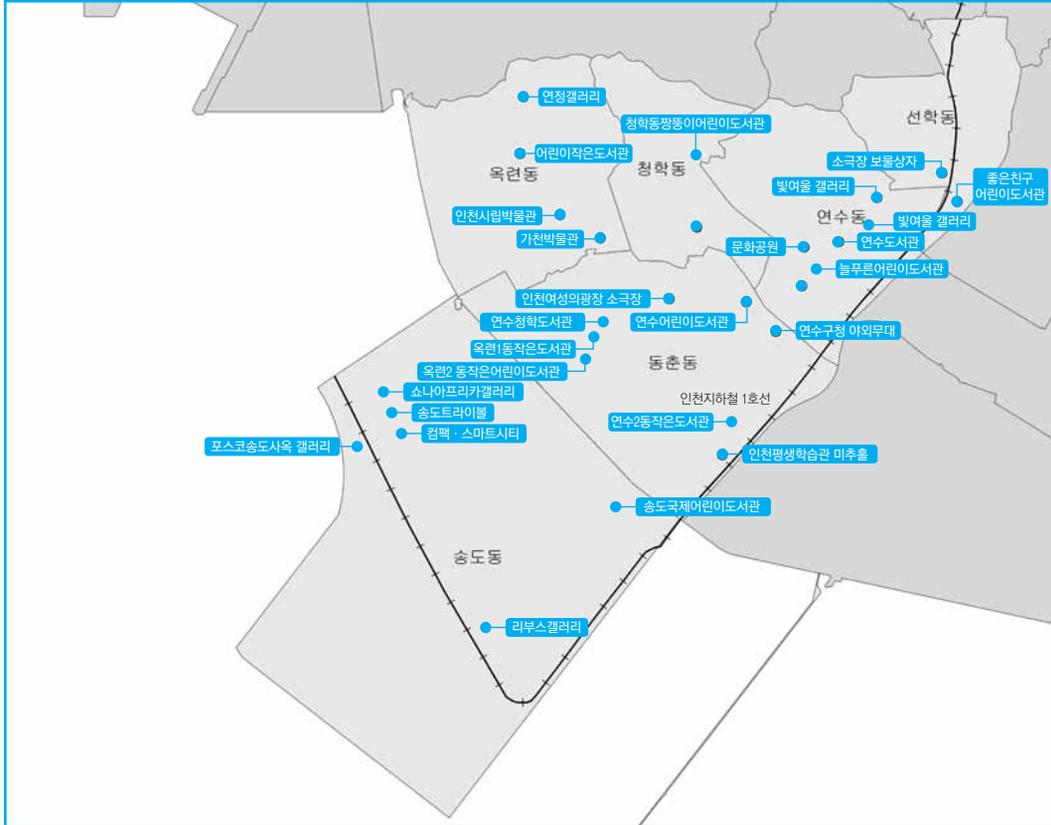
| | |
|------------|---------------|
|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 032-770-6131 |
| 화도진도서관 | 032-760-4100 |
| 꿈이크는도서관 | 032-764-3223 |
| 송림도서관 | 032-770-6797 |
| 동구청이동도서관 | 032-770-6907 |
| 해반갤러리 | 032-761-0555 |
| 띠 갤러리 | 010-3320-6482 |
| 한점 갤러리 | 070-8227-0857 |
| 스페이스 빔 | 032-422-8630 |
| 사진공간 배다리 | 070-4142-0897 |

남구 문화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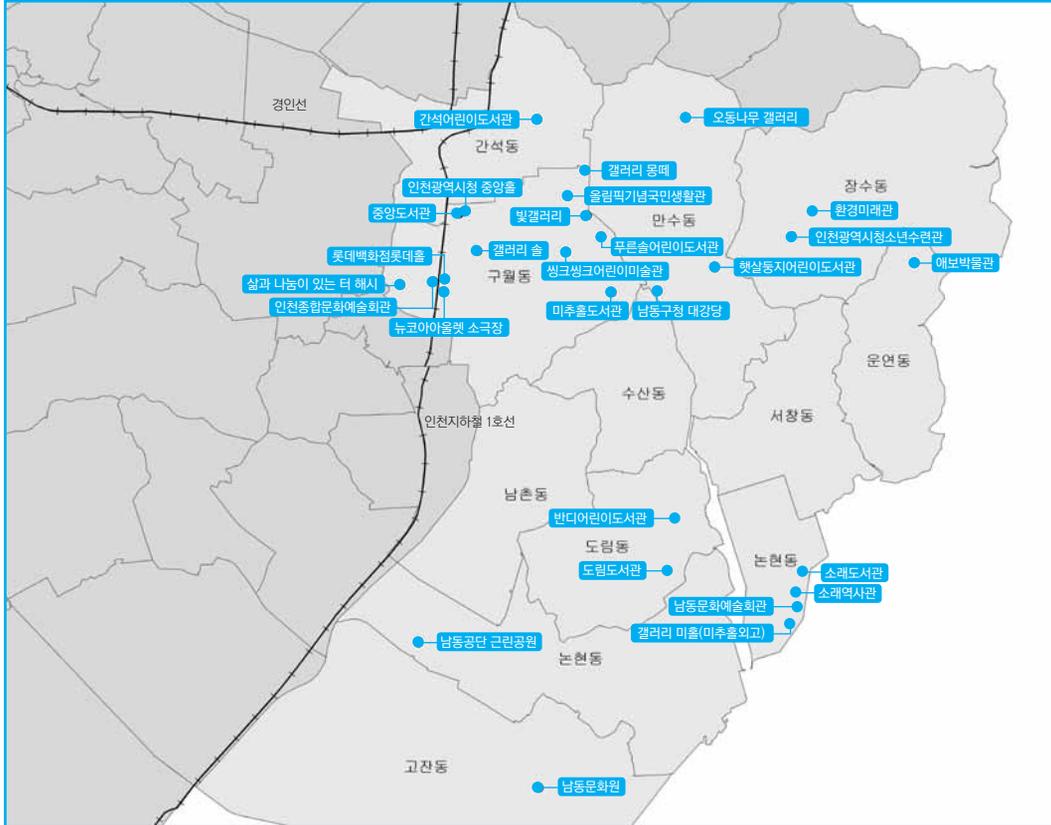
| | | | |
|------------|--------------|----------------|--------------|
| 인천(수봉)문화회관 | 032-866-2019 | 독정골어린이도서관 | 032-872-0043 |
| 문학시어터 | 032-433-3777 | 석바위어린이도서관 | 032-422-0651 |
| 남구학산문화원 | 032-880-4763 | 주안1동어린이도서관 | 032-872-0814 |
| 학산소극장 | 032-880-4763 | 밝은웃음어린이도서관 | 032-876-2430 |
| 범패박물관 | 032-886-0029 | 작은극장 돌체 | 032-772-7361 |
| 인하대학교박물관 | 032-860-8260 |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 032-876-8081 |
| 국제성서박물관 | 032-874-0385 | 인천도호부청사 | 032-425-3493 |
| 송암미술관 | 032-440-6770 | 은울탈춤전수관 | 032-875-9953 |
| 불교사리박물관 | 032-875-2384 | 수봉민속놀이마당 | 032-887-4298 |
| 수봉도서관 | 032-870-9100 | 노 갤러리 | 032-421-2337 |
| 학나래도서관 | 032-880-4303 | 혜원갤러리 | 032-422-8863 |
| 주안도서관 | 032-450-9123 | 소호 갤러리 | 032-872-7277 |
| 쑥골어린이도서관 | 032-872-8630 | 현 갤러리 | 032-872-4121 |
| 복사꽃어린이도서관 | 032-865-8632 | 인천음악문화원 | 032-429-0248 |
| 관교어린이도서관 | 032-421-2630 | 컬처팩토리 공연장 | 032-867-9168 |
| 송의어린이도서관 | 032-822-0182 | 모아아트홀(구 한서아트홀) | 032-430-3348 |
| 장사래어린이도서관 | 032-886-5055 | 신세계백화점(문화홀) | 032-430-1167 |

연수구 문화시설



| | | | |
|--------------|----------------|-------------|--------------|
| 인천여성의광장 | 032-815-7101 | 청학동장동어린이도서관 | 032-817-1449 |
| 연수구청 야외무대 | 032-810-7085 | 좋은친구들어린이도서관 | - |
| 인천평생학습관 미추홀 | 032-899-1588 | 연수어린이도서관 | 032-749-8200 |
| 인천시립박물관 | 032-440-6750~2 | 소극장 보물상자 | 032-813-8040 |
| 가천박물관 | 032-833-4747 | 리부스갤러리 | 032-830-7063 |
| 송도 트라이블 | 032-760-1013 | 빛여울 갤러리 | 032-810-6329 |
| 컴팩 · 스마트시티 | 032-850-6000 | 연정갤러리 | 032-834-5481 |
| 연수도서관 | 032-814-7551 | 쇼나아프리카갤러리 | 032-832-1215 |
| 늘푸른어린이도서관 | 032-818-0645 | 포스코송도사옥 갤러리 | 032-478-3464 |
| 어린이작은도서관 | 032-831-8618 |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 032-749-8220 |
| 연수청학도서관 | 032-749-8270 | 옥련1동작은도서관 | 032-749-6026 |
| 옥련2동작은어린이도서관 | 032-749-6084 | 연수2동작은도서관 | 032-749-6244 |

남동구 문화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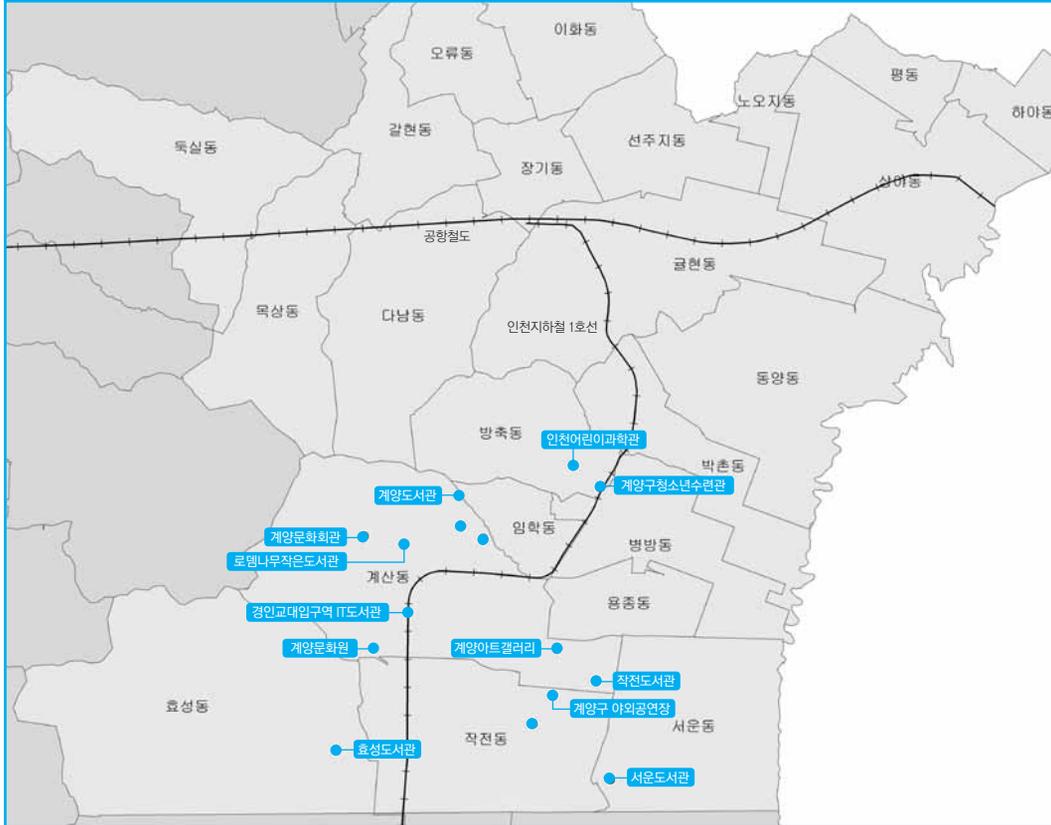
| | | | |
|--------------|----------------|----------------|----------------|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032-427-8401 | 소래도서관 | 032-453-5940~7 |
| 남동문화예술회관 | 032-453-5710 | 간석어린이도서관 | 032-440-3992 |
| 남동문화원 | 032-468-1715 | 푸른솔어린이도서관 | 032-463-3178 |
| 인천시청 중앙홀 | 032-440-2114 | 반디어린이도서관 | 032-432-0557 |
| 남동구청 대강당 | 032-466-3811 | 햇살동지어린이도서관 | 032-463-8161 |
| 인천대공원 야외음악당 | 032-440-6529 |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 | 032-465-6827 |
| 중앙도서관 | 032-421-1152 | 삶과 나눔이 있는 터 해시 | 032-423-0442 |
| 씽크씽크 어린이 미술관 | 032-473-2288 | 갤러리 몽떼 | 032-468-5550 |
| 환경미래관 | 032-466-7768 | 갤러리 솔 | 032-439-3379 |
| 애보박물관 | 032-466-3181 | 빛 갤러리 | 032-466-2220 |
| 소래역사관 | 032-453-2130 | 갤러리 미홀(미추홀외고) | 032-442-0963 |
|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 032-468-8182 | 오동나무 갤러리 | 032-463-3007 |
| 미추홀도서관 | 032-462-3900 | 롯데백화점 샬롯데홀 | 032-450-3806 |
| 도림도서관 | 032-432-2226 | 뉴코아아울렛 소극장 | 032-430-5888 |
| 서창도서관 | 032-453-5950~7 | | |

부평구 문화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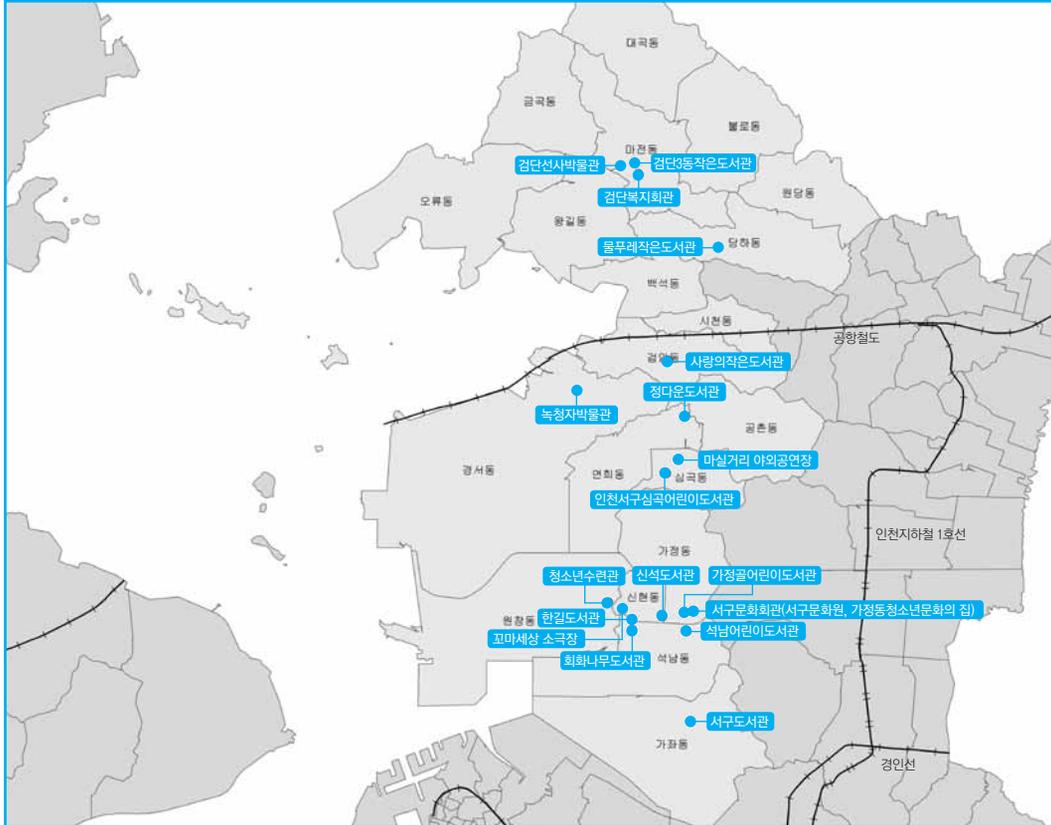
| | | | |
|-----------------|---------------|----------------|---------------|
| 부평아트센터 | 032-500-2000 | 희망찬작은도서관 | 032-509-8623 |
| 인천여성문화회관 | 032-511-3141 | 청개구리어린이도서관 | 032-521-2040 |
| 부평문화원 | 032-505-9001 | 달팽이어린이도서관 | 032-526-5204 |
| 부개문화사랑방 | 032-505-8017 | 인표어린이도서관 | 032-529-8609 |
| 부평문화사랑방 | 032-505-5995 | 부평아트하우스 | 032-521-4870 |
| 부평구청 | 032-509-6114 | 품앗이어린이도서관 | 032-504-4020 |
| 부평역사박물관 | 032-515-6471 | 신나는어린이도서관 | 032-521-3763 |
| 한국선교역사기념관 | 032-515-9559 | 꿈나무작은도서관 | 032-509-7894 |
| 갈산밀알도서관 | 032-509-7937 | 샘터작은도서관 | 032-509-8600 |
| 갈산도서관 | 032-440-3992 | 아름드리어린이도서관 | 032-528-7845 |
| 부개도서관 | 032-440-3992 | 맑은샘어린이도서관 | 032-507-1933 |
| 부평기적의도서관 | 032-505-0612 | 구울담갤러리 | 032-528-6030 |
| 북구도서관 | 032-363-5000 | 아트홀 소풍 | 032-442-8017 |
| 삼산도서관 | 032-330-7014 | 잔치마당 아트홀 | 032-529-1458 |
| 산곡골향기도서관 | 032-509-8625 | 레미어린이극장 | 032-507-2227 |
| 누리보듬도서관 | 032-229-3263 | 2001아울렛 어린이소극장 | 032-363-5528 |
| 부평도서관 | 032-526-9301 | SP 갤러리 | 032-514-7501 |
| 이주노동자도서관DREAM | 032-576-8114 | 부개어린이도서관 | 070-4468-5320 |
| 청소년인문학도서관Do'ing | 070-8247-3669 | 초록갤러리 | 032-505-5353 |
| 진달래어린이도서관 | 032-261-0313 | 아트트리스 | 032-524-5996 |
| 꿈땅어린이도서관 | 032-528-1882 | | |

계양구 문화시설



| | | | |
|-----------|--------------|-----------|----------------|
| 계양문화원 | 032-450-5753 | 작전도서관 | 032-555-9734~5 |
| 계양문화회관 | 032-551-6604 | 동양도서관 | 032-541-1800 |
| 인천어린이과학관 | 032-550-3300 | 효성도서관 | 032-547-3862 |
| 계양구청소년수련관 | 032-546-7646 | 서운작은도서관 | 032-556-8597 |
| 계양구 야외공연장 | 032-450-5873 | 로템나무작은도서관 | 032-549-7212 |
| 계양도서관 | 032-540-4400 | 계양아트갤러리 | 032-551-5701 |

서구 문화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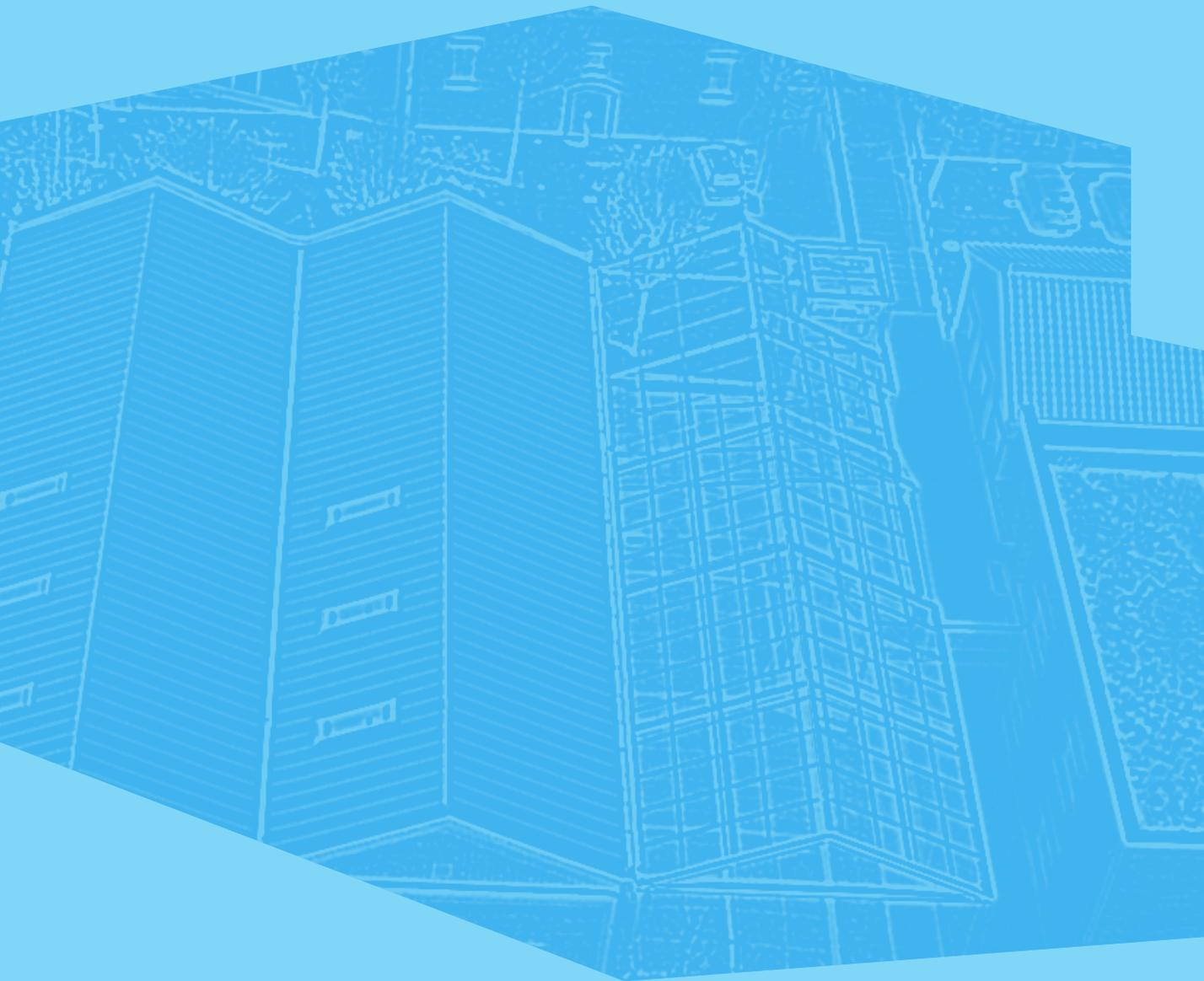
| | | | |
|------------|--------------|--------------|--------------|
| 서구문화회관 | 032-583-2362 | 회화나무도서관 | 032-560-3116 |
| 검단복지회관 | 032-561-4115 | 가정골어린이도서관 | 032-571-8920 |
| 청소년수련관 | 032-577-7979 | 심곡어린이도서관 | 032-575-2600 |
| 마실거리 야외공연장 | 032-560-4345 | 사랑의작은도서관 | 032-560-3014 |
| 녹청자박물관 | 032-560-2932 | 검단3동작은도서관 | 032-562-3402 |
| 검단선사박물관 | 032-440-6795 | 물푸레작은도서관 | 032-563-1739 |
| 서구도서관 | 032-578-0862 | 석남어린이도서관 | 032-575-2600 |
| 신석도서관 | 032-571-9457 | 인천서구심곡어린이도서관 | 032-568-0133 |
| 한길도서관 | 032-582-6083 | 꼬마세상소극장 | 032-572-4281 |
| 정다운도서관 | 032-562-1202 | | |

응진군 문화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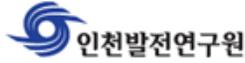


| | | | |
|---------|--------------|----------|--------------|
| 백령도서관 | 032-899-3086 | 대청도서관 | 032-836-9500 |
| 영흥작은도서관 | 032-886-7710 | 배미꾸미조각공원 | 032-752-7215 |
| 기독교역사관 | - | | |

2012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 설문지



본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 | | | | |
|----|--|--|--|--|--|
| ID | | | | | |
|----|--|--|--|--|--|

2012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

인천문화재단과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인천시민의 문화향수 실태를 파악하고자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인천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 및 사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본 설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사기간 : 2012년 7월

주관기관 : 인천문화재단

조사기관 : (주)메가리서치

연구기관 : 인천발전연구원

담당연구원 : 이종민 팀장(☎ 02-3447-2900)

담당자 : 전은주 초빙연구원(☎ 032-260-2694)

담당수퍼바이저 : 이귀숙 팀장(☎ 02-6261-6220)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립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 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면접원 사전 기록 사항

| | | | | | |
|--------|-------|-------|------|--------|------------------------|
| 거주 지역 | ① 중구 | ② 동구 | ③ 남구 | ④ 연수구 | ⑤ 남동구 |
| | ⑥ 부평구 | ⑦ 계양구 | ⑧ 서구 | ⑨ 강화군 | ⑩ 옹진군 |
| 응답자 성명 | | | | 응답자 연령 | _____세 (→20세 미만 설문 중단) |
| 응답자 성별 | ① 남자 | ② 여자 | 전화번호 | | |
| 조사원 이름 | | | | | |

II. 문화예술 행사

※ 문화예술 행사 : 문학, 미술, 음악 등의 예술 또는 지역문화, 역사 등을 주제로 한 공연, 전시, 답사, 체험, 교육 등

문4. 귀하께서 평소 관람하신 문화예술행사를 관람 빈도에 따라 1~3순위로 응답해주시시오. (상업 영화 관람 제외)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1) 문학관련 행사(작가와의 대화, 낭송회 등)
- 2) 미술 전시회(회화, 공예, 건축, 사진, 디자인 등)
- 3) 대중문화 공연(콘서트, 미술 등)
- 4) 전통예술 행사(국악, 한국무용, 민속놀이 등)
- 5) 클래식음악회, 오페라, 합창
- 6) 연극(뮤지컬, 인형극 포함)
- 7) 무용(발레, 현대 무용 등)
- 8) 지역축제(영화제 포함)
- 9) 역사문화유적 (답사, 체험)
- 10) 기타()
- 11) 문화예술 행사 전혀 관람(참여)하지 않음(→문7.로 이동)

문5. 귀하께서 문화예술 행사를 관람(참여)하시는 가장 큰 이유(동기)는 무엇입니까?

- 1) 자기만족(즐거움)을 위해서
- 2) 마음의 안정과 휴식(스트레스 해소)을 위해서
- 3) 자기 계발을 위해서
- 4) 여유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 5) 자녀(교육)를 위해서
- 6) 대인 관계 · 교제를 위해서
- 7) 무료(초대권)이기 때문에
- 8) 기타()

문6. 문화예술 행사를 관람(참여)하시는 곳은 주로 어디입니까? (하나만 응답)

| | | | | |
|-----------------------|--------|---------|----------|--------|
| 인천 지역 (문6-1. 응답) | 1) 중구 | 2) 동구 | 3) 남구 | 4) 연수구 |
| | 5) 남동구 | 6) 부평구 | 7) 계양구 | 8) 서구 |
| | 9) 강화군 | 10) 옹진군 | | |
| 인천 외 지역 (문6-2. 응답) | 11) 서울 | 12) 경기도 | 13)기타() | |

문6-1. (문6의 인천 지역 응답자만) 인천 지역에서 관람(참여)하신 문화예술 행사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 1) 매우 불만
- 2) 불만
- 3) 보통
- 4) 만족
- 5) 매우 만족

문6-2. (문6의 인천 외 지역 응답자만) 인천 외 지역에서 문화예술 행사를 주로 관람(참여)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중에 따라 1,2 순위 응답)

문9. 귀하께서는 최근 1달 간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 행사 참여, 콘텐츠 구매, (문화예술 관련)기타 활동에 따른 지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총 지출 비용은 얼마입니까?

| 구분 | 항목 | 지출 경험 | 총 지출 비용 | | | | |
|----|---|---|---------------------------------|---------------------------------|----------------------------------|----------------------------------|----------------------------------|
| 1 | 음악, 무용 등 문화예술교육 수강료 (악기구매 등 재료비 미포함) | <input type="checkbox"/> ① 있다 <input type="checkbox"/> ② 없다 | <input type="checkbox"/> 5만원 이하 | <input type="checkbox"/> 5~10만원 | <input type="checkbox"/> 10~15만원 | <input type="checkbox"/> 15~20만원 | <input type="checkbox"/> 20만원 이상 |
| 2 | 전시, 공연 관람 등 문화예술 행사 참여 | <input type="checkbox"/> ① 있다 <input type="checkbox"/> ② 없다 | <input type="checkbox"/> 5만원 이하 | <input type="checkbox"/> 5~10만원 | <input type="checkbox"/> 10~15만원 | <input type="checkbox"/> 15~20만원 | <input type="checkbox"/> 20만원 이상 |
| 3 | 도서 구매 및 영화(비디오)관람 (다운로드 포함) | <input type="checkbox"/> ① 있다 <input type="checkbox"/> ② 없다 | <input type="checkbox"/> 5만원 이하 | <input type="checkbox"/> 5~10만원 | <input type="checkbox"/> 10~15만원 | <input type="checkbox"/> 15~20만원 | <input type="checkbox"/> 20만원 이상 |
| 4 | 기타 활동() | <input type="checkbox"/> ① 있다 <input type="checkbox"/> ② 없다 | 총 _____ 원 | | | | |

문10. 귀하께서는 향후 관람(참여)하고 싶은 문화예술 행사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분야입니까?

- | | |
|----------------------------|----------------------------------|
| 1) 문학관련 행사(작가와의 대화, 낭송회 등) | 2) 미술 전시회(회화, 공예, 건축, 사진, 디자인 등) |
| 3) 대중문화 공연(콘서트, 미술 등) | 4) 전통예술 행사(국악, 한국 무용, 민속놀이 등) |
| 5) 클래식음악회, 오페라, 합창 | 6) 연극(뮤지컬, 인형극 포함) |
| 7) 무용(발레, 현대 무용 등) | 8) 지역축제(영화제 포함) |
| 9) 역사문화유적 답사(체험) | 10) 기 타 () |
| 11) 문화예술 행사 관람하고 싶지 않음 | |

III. 문화예술시설

문11. 귀하께서는 지난 1년 간 인천 지역의 문화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상업 영화관 제외)

| 구분 | 항목 | 이용 경험 없음 | 거의 매일 | 1주에 한 번 | 한 달에 한두 번 | 2~3 달에 한 번 | 1년에 한두 번 |
|----|--|----------------|----------|------------|--------------|------------------|-------------|
| 1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2 | 군·구문화회관: 계양/서구/남동문화회관, 부평아트센터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3 | 소극장: 학산소극장, 작은극장 돌체, 영화공간 주안, 아트홀 소풍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4 | 공공 도서관(사설, 대학 도서관 제외)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5 | 박물관: 시립박물관, 부평역사박물관, 검단선사박물관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6 | 전시 시설: 아트플랫폼, 송암 미술관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7 | 주민자치센터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8 | 청소년/여성/노인 시설: 청소년 수련관, 학생교육 문화회관, 여성문화회관, 노인 복지관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9 | 사설문화시설: 대학부설, 백화점, 대형마트 문화센터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10 | 기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문11-1. 귀하께서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이용하신 인천 지역의 문화시설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이 시설을 기준으로 다음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구분 | 내가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이용한 인천 지역의 문화시설은 _____이다. |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 만족 |
|----|--|-----------|-----|----|----|----------|
| 1 | 프로그램 내용 및 수준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 프로그램 관람(시설 이용) 가능 시간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 시설 규모 및 수준(음향, 설비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 시설 관리 상태(청결, 시설 고장 여부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 편의, 휴게시설(화장실, 주차장 등) 구비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 장소 접근성(주변 교통 상황, 대중교통 이용 편의, 이동 소요시간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변 시설(음식점, 쇼핑 상점, 공원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 시설 및 개최행사 안내(홍보)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11-2. 귀하께서 인천 지역의 문화시설을 이용한 가장 큰 이유(동기)는 무엇입니까?

- 1) 참여하고 싶은 행사(프로그램)가 있어서
- 2) 거주지(활동지역) 근처이기 때문에
- 3) 시설(자료) 및 행사(프로그램) 수준이 만족스러워서
- 4) 가격이 저렴해서
- 5) 편의, 휴게시설(화장실, 주차장) 등이 잘 구비되어 있어서
- 6) 문화바우처 혜택 때문에
- 7) 기타 ()

문12 귀하께서 문화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다음 중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1) 시설 이용 가능 시간
- 2) 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3) 시설 규모 및 수준(자료, 설비 등)
- 4) 시설 관리 상태(청결, 시설 낙후 정도 등)
- 5) 편의, 휴게시설 구비(화장실, 주차시설 등) 정도
- 6) 장소 접근성(주변 교통 상황, 대중교통 이용 편의 등)
- 7)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변시설(음식점, 쇼핑 상점, 공원 등)
- 8) 기타 ()

IV. 지역축제

*지역축제란 지역의 자연, 전통(민속), 특산물 등을 주제로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
 인천 지역축제의 예: 강화 고려산 진달래 축제, 인천소래포구축제,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 부평 풍물 대축제, 주안미디어축제 등

문13.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인천 지역축제에 참가(관람)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지난 1년 간 총 몇 번 정도 참가(관람)하셨습니까?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축제는 무엇입니까?

- 1) 있다 (총 _____ 번, 기억 남는 축제 번호: _____) (→문13-1.로 이동)
- 2) 없다 (→문14.로 이동)

| | | | |
|----|--|--|--|
| 보기 | <input type="checkbox"/> ① 강화고인돌 문화축제 | <input type="checkbox"/> ⑨ 삼량성 역사문화축제 | <input type="checkbox"/> □ 인천평생학습축제 |
| | <input type="checkbox"/> ② 강화도약속축제 | <input type="checkbox"/> ⑩ 서곶문화예술제 | <input type="checkbox"/> □ 인천해양축제 |
| | <input type="checkbox"/> ③ 고려산 진달래 축제 | <input type="checkbox"/> ⑪ 소래포구축제 | <input type="checkbox"/> □ 자장면 축제 |
| | <input type="checkbox"/> ④ 만국공원축제 | <input type="checkbox"/> ⑫ 인천 아시아 한올타리 문화제 | <input type="checkbox"/> □ 주안미디어문화축제 |
| | <input type="checkbox"/> ⑤ 무의도 여름바다 춤 축제 | <input type="checkbox"/> ⑬ 인천중국의날 문화축제 | <input type="checkbox"/> □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
| | <input type="checkbox"/> ⑥ 배다리 문화축전 | <input type="checkbox"/> ⑭ 인천공항 SKY MUSIC FESTIVAL | <input type="checkbox"/> □ 흥예문 예술축제 |
| | <input type="checkbox"/> ⑦ 부평풍물대축제 | <input type="checkbox"/> ⑮ 인천국제클라운마임축제 | <input type="checkbox"/> □ 기타() |
| | <input type="checkbox"/> ⑧ 비타민 연극축제 | <input type="checkbox"/> □ 인천대공원 벚꽃축제 | |

문13-1. (인천 지역축제 경험자만) 인천 지역축제를 참가(관람)하신 가장 큰 이유(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 1) 사전 홍보를 접하고 축제에 관심이 생겨서
- 2) 자녀(교육)를 위해서
- 3) 유명한(대규모) 축제를 경험하고 싶어서
- 4) 자기 계발을 위해
- 5) 주변, 네티즌의 평가(의견)가 좋아서
- 6) 우연히(사전 참여 의도 없었음)
- 7) 축제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 8) 기타 ()

문13-2. (인천 지역축제 경험자만) 가장 기억에 남는 인천 지역축제의 다음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구분 | 항목 |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 만족 |
|----|---|--------|-----|----|----|-------|
| 1 | 축제 내용(프로그램) 및 주제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 축제 개최 시기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 축제에 대한 사전 안내(홍보)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 장소 접근성(주변 교통 상황, 대중교통 이용 편의, 이동 소요시간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 편의, 휴게시설 구비(화장실, 주차시설, 쉼터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변시설(음식점, 관광지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14. 귀하께서 축제에 참가(관람) 하고자 하실 때, 다음 중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1) 축제 주제
- 2) 축제 참여 가능 일(시간)
- 3) 축제의 지명도 및 규모
- 4) 참가(관람) 비용의 적절성
- 5) 편의, 휴게시설 구비(화장실, 주차시설 등) 정도
- 6) 장소 접근성(대중교통 이용 편의, 이동 소요시간 등)
- 7) 주변에 함께 이용할 만한 시설(음식점, 관광지 등)
- 8) 기타 ()

V. 역사문화유적지

*역사문화유적지란 조상·선조로부터 물려받고 현재에 보존하며, 미래에 세대에게 물려줄 재산을 말함.

예 : 전등사, 돈대, 고인돌, 보, 개항기 유적, 도호부청사, 향교, 산성 등

문15. [보기카드 제공]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보기카드에 있는 강화 또는 강화 외 인천 지역에 있는 역사문화 유적지를 방문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방문 경험이 있는 역사문화유적지 번호를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 강화 및 인천 지역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경험이 없는 경우 문16.으로 이동

| | | | | | |
|------------------|-------------------------------|--------------------------------------|-----------------------------------|---|---|
| 강화 | 1) 있다 () | ①강화고인돌공원 | ②마니산(참성단) | ③전등사 | ④광성보 |
| | 2) 없다 | ⑤초지진 | ⑥덕진진 | ⑦고려궁지 | ⑧용흥궁(철종 외가) |
| 강화 외 인천 지역 | 1) 있다 () | ⑨강화향교 | ⑩성공회강화성당(강화읍) | ⑪강화산성 | ⑫기타() |
| | 2) 없다 | ⑬인천담동성당 | ⑭인천개항박물관 | ⑮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 <input type="checkbox"/> (구)인천일본은행 인천지점 |
| | | <input type="checkbox"/> 공화춘(짜장면박물관) | <input type="checkbox"/> 성공회내동교회 | <input type="checkbox"/> 인천중동우체국(인천우체국) | <input type="checkbox"/> 일본우선주식회사 인천지점 |
| | | <input type="checkbox"/> (구)제물포구락부 | <input type="checkbox"/> 흥예문 | <input type="checkbox"/> 화도진지 | <input type="checkbox"/> 인천도호부청사 |
| | <input type="checkbox"/> 인천향교 | <input type="checkbox"/> 논현포대 | <input type="checkbox"/> 인천녹청자도요지 | <input type="checkbox"/> 부평도호부청사 | |
| | <input type="checkbox"/> 부평향교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문15-1. (문 15. 방문 경험자만) 귀하께서 인천 지역 역사문화유적지를 방문하신 가장 큰 이유(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 1) 역사유적에 관심이 많아서
- 2) 전공, 직업 관련 공부를 위해서
- 3) 주변 여행 중(지나던 길에) 우연히 방문
- 4) 자녀(교육)를 위해서
- 5) 거주지 근처라서
- 6) 기타 ()

문15-2. (문 15. 방문 경험자만) 귀하께서 방문하신 인천 지역 역사문화유적지의 다음과 같은 항목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구분 | 항목 | 만족도 | | | | |
|----|---------------------------------|--------|-----|----|----|-------|
| | |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 만족 |
| 1 | 유적지 보존, 관리 상태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 교육 효과(정보 제공, 체험 행사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 유적지에 대한 사전 안내(홍보)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 장소 접근성(주변 교통 상황,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 편의, 휴게시설(화장실, 주차시설, 쉼터 등) 구비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변시설(주변 유적지, 음식점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16. 귀하께서 역사문화유적지를 방문하고자 하실 때, 다음 중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1) 방문 비용 적절성
- 2) 유적지 보존, 관리 상태
- 3) (자녀 및 본인을 위한) 교육 효과
- 4) 편의, 휴게시설(화장실, 주차시설, 쉼터 등) 구비 정도
- 5)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변시설(주변 유적지, 음식점 등)
- 6) 장소 접근성(주변 교통 상황,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이동 소요시간 등)
- 7) 기타 ()

VI. 문화예술 교육 (학교 교육 제외)

문17.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문화예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어떤 기관 혹은 매체를 이용하셨습니까? (교육 기간 및 횟수 기준 1, 2순위 응답, 공공기관은 인천시 소재의 기관을 말함)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 | |
|------------------|-------|---|
| 1) 있다 | 공공 기관 | 1) 문화회관 2) 도서관 3) 박물관 4) 복지관 5) 주민자치센터 6) 문화원 7) 기타 공공기관() |
| | 기타 | 8) 사설문화시설(대학부설, 사설단체 등) 9) 동호회 10) 개인 레슨, 사설학원, 강습소 11) 온라인, 교육방송(텔레비전, 라디오) 12) 기타() |
| 2) 없다(→문18.로 이동) | | |

문17-1. (문17. 문화예술 교육 경험자만) 문화예술 교육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1) 교양을 쌓기 위해
- 2)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위해
- 3) 능력 향상 및 자기 계발을 위해
- 4) 관련 분야 취업을 위해
- 5) 자기만족(즐거움)을 위해
- 6) 기 타 ()

문17-2. (문17. 문화예술 교육 경험자만) 1순위 기관 혹은 매체를 통해 받은 문화예술 교육은 다음 중 무엇이었습니까?

- 1) 글쓰기 및 독서(고전강독 등)
- 2) 미술(회화, 공예, 건축, 사진, 디자인 등)
- 3) 연주(서양, 전통 악기)
- 4) 가창(노래, 합창, 판소리 등)
- 5) 연기, 연출(연극, 뮤지컬 등)
- 6) 무용(발레, 고전, 현대무용 등)
- 7) 역사문화(이론, 답사 등)
- 8) 문화예술 이론
- 9) 기 타 ()

문17-3. (문17. 문화예술 교육 경험자만) 귀하께서 경험한 1순위 기관 혹은 매체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불만족
- 2) 불만족
- 3) 보통
- 4) 만족
- 5) 매우 만족

문18. 인천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교육 시설(기관)이 많아져야 한다
- 2) 수강료가 저렴해져야 한다
- 3) 교육 시설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 4) 교육 프로그램 홍보를 활성화해야 한다
- 5) 교육 대상(유아, 노인 등)을 확대해야 한다
- 6) 교육 시간을 다양화해야 한다(주말, 야간 교육 등)
- 7) 기 타 ()

문19. 귀하께서는 향후 1년 이내에 받고 싶은 문화예술 교육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무엇입니까?

- 1) 글쓰기 및 독서(고전강독 등)
- 2) 미술(회화, 공예, 건축, 사진, 디자인 등)
- 3) 연주(서양, 전통 악기)
- 4) 가창(노래, 합창, 판소리 등)

- 7) 전통예술(국악, 민속놀이 등)
- 8) 무용(발레, 고전, 현대무용 등)
- 9) 역사문화(이론, 답사 등)
- 10) 기타 ()
- 11) 동호회 활동 하지 않음(문22-3.로 이동)

문22-1.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 1) 교양 및 능력 계발을 위해
- 2)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위해
- 3) 자기만족(즐거움)을 위해
- 4) 취미활동의 일환으로
- 5) 수강료가 저렴(무료)하기 때문에
- 6) 기타 ()

문22-2. 귀하께서 참여했거나 활동 중인 동호회는 어떤 형식으로 운영됩니까?

- 1) 직접 창작 및 연주, 공연 중심의 창작활동
- 2) 관람, 학습 중심의 감상활동
- 3) 문예봉사, 재능 기부 등

문22-3. (문22.의 11) 동호회 비활동 응답자만)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시간이 없어서
- 2) 활동비용이 부담돼서
- 3) 관심 있는 동호회가 없어서
- 4) 거주지(주요 활동지) 근처에 동호회가 없어서
- 5) 관련 정보가 부족해서
- 6)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 7) 기타 ()

문23. 귀하께서는 문화예술 관련 분야 자원봉사, 동호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 1) 있다(→23-1.로 이동)
- 2) 없다(→24.로 이동)
- 3) 잘 모르겠다(→24.로 이동)

문23-1. 참여한다면, 다음 중 어떤 활동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 1) 문화예술 행사 관련 자원 봉사
- 2) 문화시설 자원봉사
- 3) 문화예술 행사 기획 및 진행
- 4) 문화시설 운영 참여
- 5) 문화예술 관련 동호회 활동
- 6) 시민문화 활동을 위한 단체 조직 및 참여
- 7) 기타 ()

문23-2. 귀하께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1) 다양한 활동 기회(프로그램) 마련
- 2) 프로그램 홍보 및 충분한 정보제공
- 3) 활동 관련 사전 교육 제공
- 4) 금전적 보상(활동비 지급 등)
- 5) 기타 ()

VIII. 기타 항목

문24. 다음은 인천의 주거 및 생활환경 일반에 대한 항목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구분 | 항목 |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 만족 |
|----|------------------------------|-----------|-----|----|----|-------|
| 1 | 치안 및 방법(범죄예방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 보행 편리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 도로소통 및 주차시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 의료시설 이용 편리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 문화/복지 시설 이용 편리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 교육환경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 편익시설 이용 편리성(백화점, 교육시설, 은행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 주변 미관(거리 경관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 조경시설 및 녹지·공원조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 11 | 이웃과의 교류(공동체 형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24-1. 위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인천의 주거 및 생활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문25. 앞으로 귀하께서 주거지를 결정할 때 다음의 항목들은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하실 겁니까?

| 구분 | 항목 | 전혀 중요하지 않음 | 중요하지 않음 | 보통 | 중요함 | 매우 중요함 |
|----|------------------------------|------------------|------------|----|-----|-----------|
| 1 | 치안 및 방법(범죄예방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 보행 편리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 도로소통 및 주차시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 의료시설 이용 편리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 문화/복지 시설 이용 편리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 교육환경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 편익시설 이용 편리성(백화점, 교육시설, 은행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 주변 미관(거리 경관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 조경시설 및 녹지·공원조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 11 | 이웃과의 교류(공동체 형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30. 귀하께서 생각하는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 다음 중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이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1)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 | 2) 문화예술 교육 확대 | 3) 인천 문화예술인 양성 |
| 4) 역사문화와 첨단문화의 조화 | 5) 문화시설 확충 | 6) 국내외 문화교류 활성화 |
| 7) 기타 () | | |

IX. 응답자 특성

DQ1.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1) 중졸 이하 | 2) 고교 재학 또는 고졸 |
| 3) 대학 재학 또는 대졸(초대졸 포함) | 4) 대학원 재학 이상 |

DQ2.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 | |
|----------------------------|------------------------------------|
| 1) 전문직(의료인, 법조인, 교사, 교수 등) | 2) 생산직(제조업, 농어업 등 1,2차 산업 종사자) |
| 3) 사무직(공무원, 회사원, 관리업무 등) | 4) 판매/서비스업(상점, 영업, 운수업, 요식업 등 종사자) |
| 5) 자영업 | 6) 주부 |
| 7) 학생/재수생 | 8) 무직 |
| 9) 기타 () | |

DQ3. 귀하께서는 혹시 함께 거주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있다면, 첫째 자녀의 연령은 어느 정도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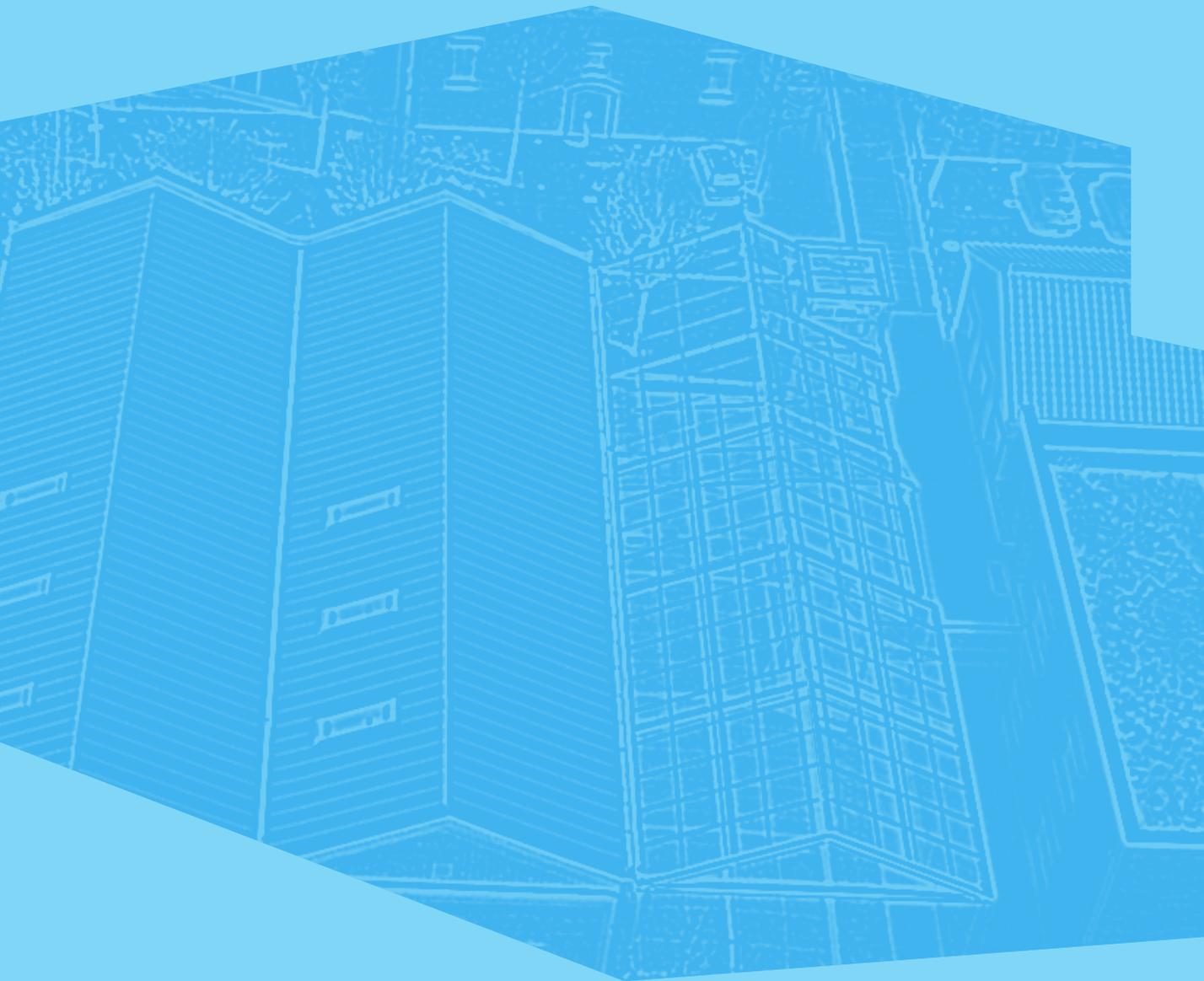
- | | | |
|------------|-----------|----------|
| 1) 초등학교 이하 | 2) 초등학교 | 3) 중학생 |
| 4) 고등학교 | 5) 대학생 이상 | 6) 자녀 없음 |

DQ4. 귀하의 월평균 소득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동거가족 기준)

- | | | |
|-------------------|-------------------|-------------------|
| 1) 월 100만원 미만 | 2) 월 100~200만원 미만 | 3) 월 200~300만원 미만 |
| 4) 월 300~400만원 미만 | 5) 월 400~500만원 미만 | 6) 월 500만원 이상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

2012 인천예술인실태조사 설문지



- S5. 귀하께서 인천에서 창작 및 발표 활동을 하시는데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2개 선택)
- 1) 문인들의 인맥/학연/단체 중심 활동
 - 2) 지역 문예지 등 발표 지면 부족
 - 3) 수입이 적거나 일정치 않아 예술 활동 몰입 어려움
 - 4) 행정당국의 관심 및 지원 부족
 - 5) 창작물 유통의 어려움 및 홍보 부족
 - 6) 독자 및 관심 부족
 - 7) 관련 전문 정보 수집 어려움(아카이브 등의 부재)
 - 8) 기타()
 - 9) 어려운 점 없음
- S6.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다음 중 인천 문학 분야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사업)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응답)
- 1순위_____ 2순위_____
- 1) 문학창작 지원금 및 수혜자 확대
 - 2) 발표 매체 및 지면 확대
 - 3) 문학 중심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 지원
 - 4) 저작권, 심의기준 관련 자문 시스템 구축
 - 5) 개인 창작 공간 지원
 - 6) 지원사업 관련 행정, 세무 간소화
 - 7) 온라인 발표(블로그 운영, 전자책, POD출판 등) 지원
 - 8) 신진작가 발굴 및 지원
 - 9) 우수문학작품 보급 지원
 - 10) 해외/국내 타도시, 타장르 등과 예술 활동 교류
 - 11)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12) 기타()

시각예술 분야

- S1.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떤 시각예술 부문에서 주로 활동하십니까? (가장 비중이 높은 1가지 분야만 선택, 복합시각예술은 복합된 장르 모두 기재)
- 1) 한국화
 - 2) 서양화
 - 3) 문인화
 - 4) 서예
 - 5) 판화
 - 6) 조각
 - 7) 만화/일러스트
 - 8) 공예
 - 9) 사진
 - 10) 건축
 - 11) 평론/이론
 - 12) 뉴미디어 및 설치
 - 13) 복합시각예술 ()
 - 14) 기타 ()

공연예술 분야

S1.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떤 공연예술 부문에서 주로 활동하십니까? (가장 비중이 높은 1가지 분야만 선택, 복합공연예술은 복합된 장르 모두 기재)

- 1) 음악 ① 관현악, 교성곡, 실내악, 성악, 합창, 지휘, 오페라 등
② 대중음악 (가수, 작곡/작사, 연주 등)
- 2) 연극 (창작극, 번역극, 마임, 닌버벌, 뮤지컬 등)
- 3) 무용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 비보이댄스 등)
- 4) 평론/이론
- 5) 복합공연예술 ()
- 6) 기타 ()

S2. 귀하의 지난 3년간 공연예술 분야의 활동 내용을 아래의 표에 작성해주시시오.

| 구분 | 지난 3년간 활동 내용 | |
|---------------|-------------------|------------------|
| 1) 공연 | ① 창작 작품 _____편(곡) | □ 레퍼토리 _____편(곡) |
| | ① 개인 발표 _____회 | □ 단체발표회 _____회 |
| 2) 평론/논문 | _____편 | |
| 3) 공연 기획 및 운영 | _____건(회) | |
| 4) 관련 연구 | _____건(회) | |
| 5) 기타 () | | |

S3. 귀하께서 인천에서 창작 및 발표 활동을 하시는 데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2개 선택)

- 1) 공연시설 부족으로 인한 발표기회 부족
- 2) 시설의 수준 미흡
- 3) 연습 공간 부족 또는 임대료 부담
- 4) 수입이 적거나 일정치 않아 예술 활동 몰입 어려움
- 5) 행정 당국의 관심, 재정 지원 부족
- 6) 다른 예술인(국내외, 타장르 등)과의 교류 부족
- 7) 저조한 공연 관람률
- 8) 관련 전문 정보 수집 어려움(아카이브 등의 부재)
- 9) 기타 ()
- 10) 어려운 점 없음

S4.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다음 중 인천 공연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사업)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응답)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1) 공연 및 연습 공간 지원
- 2) 지원금 및 수혜자 확대
- 3) 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
- 4) 지원사업 관련 행정, 세무 간소화
- 5) 홍보 및 마케팅, 프로모션 지원
- 6) 해외/국내 타도시, 타장르 등과 예술 활동 교류
- 7) 관객개발 지원사업(사랑티켓 발급 사업 등) 확대
- 8) 기타 ()

전통예술 분야

S1.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떤 전통예술 부문에서 주로 활동하십니까? (가장 비중이 높은 1가지 분야만 선택, 무형문화재는 활동 분야 기재, 복합분야는 혼합 장르 모두 기재)

- 1) 창극(가무극 등)
- 2) 전통연희
- 3) 국악(관현악, 실내악)
- 4) 전통공예
- 5) 무형문화재 (예능) (활동분야: _____)
- 6) 무형문화재 (기능) (활동분야: _____)
- 7) 기타()

S2. 귀하의 지난 3년간 전통예술 분야의 활동 내용을 아래의 표에 맞추어 적어주십시오.

| 구 분 | 지난 3년간 활동 내용 |
|--------------------|--|
| 1) 발표 | ① 개인전시/발표(공연) _____회 ② 단체전시/발표(공연) _____회 ① 기획전시/발표(공연) _____회 |
| 2) 평론/논문 | _____편 |
| 3) 전통예술 행사 기획 및 운영 | _____건(회) |
| 4) 관련 연구 | _____건(회) |
| 5) 기타() | |

S3. 귀하께서 인천에서 창작 및 발표 활동을 하시는데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2개 선택)

- 1) 발표기회(공연, 대회 등) 부족
- 2) 전통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저조
- 3) 수입이 적거나 일정치 않아 예술 활동 몰입 어려움
- 4) 행정 당국의 관심, 재정 지원 부족
- 5) 다른 예술인들(국내외, 타장르 등) 과 교류 부족

- 6) 관련 분야 예술인 부족
- 7) 후학(제자) 양성의 어려움
- 8) 관련 전문 정보 수집 어려움(아카이브 등의 부재)
- 9) 기 타 ()
- 10) 어려운 점 없음

S4.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다음 중 인천 전통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사업)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응답)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1) 전통예술 창작 및 발표 활동 진흥
- 2) 전통예술행사의 적극적 홍보 체계 마련
- 3) 전통예술의 대중화 및 문화산업 콘텐츠화
- 4) 전통예술 인재 양성과 학술연구 진흥
- 5) 지원사업 관련 행정, 세무 간소화
- 6) 무형문화재 지정 확대
- 7) 전통예술자료의 기록과 보존
- 8) 해외/국내 타도시, 타장르 등과 예술 활동 교류
- 9) 기 타 ()

영상/미디어 분야

S1.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떤 부문에서 주로 활동하십니까? (가장 비중이 높은 1가지 분야만 선택)

- 1) 영화 ① 감독 ② 배우 ③ 대본·극본 ④ 기타()
- 2) 영상제작 3) 평론/이론 4) 기 타 ()

S2. 귀하의 지난 3년간 영상/미디어 분야의 활동 내용을 아래의 표에 맞추어 적어주십시오.

| 구분 | | 지난 3년간 활동 내용 |
|----|----------------------|--|
| 발표 | 1) 작품 | <input type="checkbox"/> 개인 작품 _____편 <input type="checkbox"/> 단체 작품 _____편 <input type="checkbox"/> 기획 작품 _____편 |
| | 2) 평론/논문 | _____편 |
| | 3) 영상/미디어 행사 기획 및 운영 | _____건(회) |
| | 4) 관련 연구 | _____건(회) |
| | 5) 기 타 () | |

S3. 귀하께서 인천에서 창작 및 발표 활동을 하시는데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2개 선택)

- 1) 발표 기회 부족(제작, 관련 행사 등)
- 2) 기반 시설 미비(영상관련 기자재, 창작지원 설비 등)
- 3) 관련 분야 인력 부족
- 4) 분야에 대한 시민 인식 부족
- 5) 수입이 적거나 일정치 않아 예술 활동 몰입 어려움
- 6) 행정 당국의 관심, 재정 지원 부족
- 7) 다른 예술인들(국내외, 타장르 등) 과 교류 부족
- 8) 관련 전문 정보 수집 어려움(아카이브 등의 부재)
- 9) 기 타 ()
- 10) 어려운 점 없음

S4.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다음 중 인천 영상/미디어 분야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사업)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응답)

1순위_____ 2순위_____

- | | |
|----------------------------|-------------------------------|
| 1) 영상/미디어 행사의 적극적 홍보 체계 마련 | 2) 저작권관련 법, 제도 자문 시스템 |
| 3) 지원금 및 수혜자 확대 | 4) 지원사업 관련 행정, 세무 간소화 |
| 5) 창작/연습 공간 지원 | 6) 영상/미디어분야 문화산업 콘텐츠화 |
| 7) 영상미디어센터 증설 | 8) 해외/국내 타도시, 타장르 등과 예술 활동 교류 |
| 9) 기 타() | |

다원예술 분야

S1. 귀하께서 다원예술 활동을 통해 추구하는 바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

- | | | |
|-----------|----------------|------------|
| 1) 실험 예술 | 2) 탈장르 예술 | 3) 복합장르 예술 |
| 4) 독립예술 | 5) 비주류 예술 | 6) 공공가치 |
| 7) 종의 다양성 | 8) 공동체 형성 및 소통 | 9) 기타() |

S2. 귀하의 다원예술 활동은 어떤 장르를 포함합니까? 포함하는 장르를 모두 적어 주십시오.

S3. 귀하의 지난 3년간 다원예술 분야의 활동 내용을 아래의 표에 맞추어 적어주십시오.

| 구분 | 지난 3년간 활동 내용 |
|--------------------|--|
| 1) 발표 | ① 개인 발표 _____회 ② 단체 발표 _____회 ① 기획 발표 _____회 |
| 2) 평론/논문 | _____편 |
| 3) 다원예술 행사 기획 및 운영 | _____건(회) |
| 4) 관련 연구 | _____건(회) |
| 5) 기타 () | |

S4. 귀하께서 인천에서 창작 및 발표 활동을 하시는데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2개 선택)

- 1) 다원예술에 대한 지원기관의 인식 부족 2) 미술장르 중심으로만 다원예술 활동 전개
- 3) 수입이 적거나 일정치 않아 예술 활동 몰입 어려움 4) 행정 당국의 관심, 재정 지원 부족
- 5) 다른 예술인들(국내외, 타장르 등) 과 교류 부족 6) 기존 장르 중심의 지원사업 체계
- 7) 발표활동을 위한 시설 부족 또는 시설 수준 미달 8) 관련 분야 예술인 부족
- 9) 장르에 대한 시민 인식 부족 10) 기타()
- 11) 어려운 점 없음

S5.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다음 중 인천 다원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사업)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응답)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1) 지원인력의 전문성 향상 2) 다원예술 인재 양성 및 유치
- 3) 지원금 수혜 기준 개선 및 수혜 장르 다양화 4) 다원예술을 위한 창작 및 발표 공간 지원
- 5) 지원사업 관련 행정, 세무 간소화 6) 다원예술의 인지도 제고 및 가치 공유
- 7) 해외/국내 타도시, 타장르 등과 예술 활동 교류 8) 기타 ()

기타 분야

S1. 귀하께서는 어떤 예술 부문에서 주로 활동하시며, 토대가 되는 예술 장르는 무엇입니까?

- 1) 분야: _____
- 2) 기본 장르: _____

S2. 귀하의 지난 3년간 활동하신 예술 분야의 활동 내용을 아래의 표에 맞추어 적어주십시오.

| 구분 | | 지난 3년간 활동 내용 | |
|--------------------|-------------------|---------------------------------------|---------------------------------------|
| 발표 | 1) 발표(참여) 작품 | _____편 | |
| | 2) 공연, 발표회, 콘서트 등 | <input type="checkbox"/> 개인 발표 _____회 | <input type="checkbox"/> 단체 발표 _____회 |
| | 2) 공연, 발표회, 콘서트 등 | <input type="checkbox"/> 기획 발표 _____회 | |
| 3) 평론/논문 | | _____편 | |
| 4) 문화예술 행사 기획 및 운영 | | _____건(회) | |
| 5) 관련 연구 | | _____건(회) | |
| 6) 기타() | | | |

S3. 귀하께서 인천에서 창작 및 발표 활동을 하시는데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2개 선택)

- | | |
|--------------------------------|-------------------------|
| 1) 발표 공간 부족 및 발표시설의 수준 미흡 | 2) 창작공간의 부족 |
| 3) 수입이 적거나 일정치 않아 예술 활동 몰입 어려움 | 4) 행정 당국의 관심, 재정 지원 부족 |
| 5) 다른 예술인들(국내외, 타장르 등) 과 교류 부족 | 6) 활동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저조 |
| 7) 관련 전문 정보 수집 어려움(아카이브 등의 부재) | 8) 기타() |
| 9) 어려운 점 없음 | |

S4. 귀하께서 창작 및 발표활동을 하시는데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사업)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응답)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 | |
|-----------------------|-------------------------------|
| 1) 발표 및 창작 공간 지원 정책 | 2) 지원금 수혜 기준 개선 및 수혜 장르 다양화 |
| 3) 지원사업 관련 행정, 세무 간소화 | 4) 활동분야의 적극적인 홍보 체계 마련 |
| 5) 신진활동가 발굴 및 지원사업 | 6) 해외/국내 타도시, 타장르 등과 예술 활동 교류 |
| 7) 기타() | |

■ 다음은 공통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문항입니다.

문1. 귀하의 주요 예술 활동 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1) 창작/발표 2) 교육(문1-1. 응답) 3) 연구 4) 기타()

문1-1. (예술교육 활동자만 응답) 다음 중 주로 어떤 종류의 교육활동을 하십니까? (1개 선택)

- | | | |
|---------|----------------------|--------------------|
| 1) 대학교수 | 2) 대학강사 | 3) 정교사, 준교사(초중고교사) |
| 5) 학원강사 | 6) 지역시설 강사(주민자치센터 등) | 7) 방과후 예술 강사 |
| 8) 개인교습 | 9) 기타() | |

문2. 귀하께서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예술 활동을 하십니까? (1개 선택)

- 1) 개인적으로 활동
- 2) 프로젝트 또는 예술행사에 참여 방식
- 3) 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 활동
- 4) 기업에 소속된 직원으로 활동
- 5) 기 타 ()

문3. 현재 활동 부문에서 총 몇 년 동안 활동하셨습니다? _____년

문4. 위에 응답하신 활동기간 중 인천지역에서 활동한 기간은 몇 년입니까? _____년

문5. 귀하께서 예술 활동을 하는 주요 지역은 어디입니까? (1개 선택)

- 1) 인천(문5-1. 응답)
- 2) 서울·경기권 중심
- 3) 전국 일대
- 4) 국내외 모두
- 5) 기 타 ()

문5-1 (인천 중심 활동가만 응답)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태어나고 자란 곳이어서
- 2)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현재 거주 지역이라서
- 3) 예술 활동을 시작한 곳이라서
- 4) 소속 기관 또는 직장이 인천 소재라서
- 5) 인천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혜택 때문에
- 6) 작업 공간 임대료, 생활물가 등의 부담이 적어서
- 7) 작품 활동 주제가 인천이기 때문에
- 8) 도시경관 등이 창작 활동에 도움이 돼서
- 9) 기 타()

문6. 인천의 예술분야 가운데 가장 발전한 분야와 가장 낙후된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인천의 가장 발전한 예술 분야는 _____이다.
- 2) 인천의 가장 낙후된 예술 분야는 _____이다.

| | | | | | |
|----|-----------|--------|---------|------|------|
| 보기 | ① 음악 | ② 연극 | ③ 무용 | ④ 미술 | ⑤ 사진 |
| | ⑥ 만화/일러스트 | ⑦ 공예 | ⑧ 디자인 | ⑨ 건축 | ⑩ 문학 |
| | ⑪ 영상/미디어 | ⑫ 다원예술 | ⑬ 기타() | | |

문7. 귀하께서는 예술 활동 창작 및 홍보를 위해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어떤 매체를 주로 활용하였습니까? (1순위, 2순위 응답)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1) 온라인 매체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 2) 컴퓨터 기술 (시뮬레이션, 컴퓨터 뮤직 기술 등)

- 3) 스마트기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패드 등)
- 4) 소셜 네트워크 (트위터, 페이스북 등)
- 5) 기 타 ()
- 6) 새로운 매체 활용한 적 없음 (문8.로 이동)

문7-1. 예술 활동을 위해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작품 또는 문화예술 활동 홍보를 위해
- 2) 문화예술인들과 작품 또는 문화예술 활동 정보 공유를 위해
- 3) 수익을 목적으로 작품 또는 문화예술 활동을 디지털 콘텐츠화 하기 위해
- 4) 작품 또는 문화예술 활동을 데이터화하여 축적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화)
- 5) 작품 또는 문화예술 활동 아이디어를 선점하기 위해
- 6) 작품 또는 문화예술 활동 표현효과를 높이기 위해
- 7) 실험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도전하기 위해
- 8) 기 타 ()

문8. 귀하께서는 활동 중인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해 지난 1년간 자원봉사 또는 재능기부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형태의 자원봉사 또는 재능기부를 하셨습니까? (경험한 모든 형태 응답)

| 1) 경험여부 | 2) 대상 | 3) 형태 |
|---------|-------------------|--------------------------|
| ① 있다 | ① 지역사회(일반시민 포함) | ① 직접적인 재능기부 (디자인 기부 등) |
| ② 없다 | ② 소외계층(노인, 장애인 등) | ② 문화예술교육기부/강연기부 (멘토링 포함) |
| | ③ 예비문화예술인 | ③ 재능기부를 통한 기부금 모금 활동 |
| | ④ 기타 | ④ 예술 활동 수익금을 통한 간접적 재능기부 |
| | | ⑤ 비영리 단체를 통한 재능 기부 |

문9. 향후 1년 내에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해서 자원봉사 또는 재능기부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1) 전혀 의향 없다
- 2) 의향 없다
- 3) 보통
- 4) 조금 의향 있다
- 5) 반드시 할 것이다

■ 다음은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에 대한 문항입니다.

문10. 귀하의 예술 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공간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1) 창작 공간(창작, 연습, 집필, 연구 공간 등)
- 2) 발표 공간(전시장, 공연장, 교육장, 회의장 등)
- 3) 매개 공간(예술인 문화 카페 · 식당, 예술인 복합문화공간 등 만남의 공간)

- 4)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의 상호 정보 교류 및 친목 도모
- 5) 활동 분야에 있어서의 공통된 의견 개진(권익 보호)
- 6) 기타 ()
- 7) 어떤 예술단체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음 (문14.로 이동)

문13-1. 소속 단체 내 예술 활동 및 지원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활동 및 지원 내용 |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 만족 |
|------------------------|--------|-----|----|----|-------|
| 1) 지원프로그램/창작활동고취(시상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창작 역량강화 활동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공동프로젝트 참여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공동 의견 개진(권익보호)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상호 정보교류, 친목도모 활동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기타()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14. 귀하께서는 최근 3년간 발표 및 창작활동을 위해 문화예술 교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총 횟수와 형태별 횟수에 대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경험여부 | 2) 총 교류 횟수 | 3) 교류 형태 |
|-------------------------|------------|---|
| ① 있다 ② 없다 (문15.로 이동) | _____회 | ① 개인 네트워크를 통한 문화예술 교류 (건) ② 소속 단체를 통한 문화예술 교류 (건) ③ 정부 또는 기관의 지원사업을 통한 문화예술 교류 (건) ④ 기타() (건) |

문14-1. 귀하께서 최근 3년간 교류한 분야·교류 대상 지역·형태·방법을 선택하시고 각각의 교류 횟수 모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교류 분야 | 2) 교류 지역 | 3) 교류 형태 | 4) 교류 방법 | |
|---------------------------|---|-------------------------|----------------|------------------|
| ① 동일분야 (건) ② 타분야 (건) | ① 인천 내 (건) ② 국내(인천 외) (건) ③ 해외 (건) | ① 정기 (건) ② 비정기 (건) | ① 회의, 세미나 (건) | ② 합동공연(전시등) (건) |
| | | | ③ 발표회 (건) | ④ 출판 (건) |
| | | ⑤ 연구, 학술 (건) | ⑥ 방송출연 (건) | |
| | | ⑦ 기타() (건) | | |

■ 다음은 문화예술인지원에 대한 문항입니다.

문15. 다음은 지난 3년간 창작 활동과 관련하여 지원 여부와 횟수,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따라 모두 응답해주세요

| 지원주체 | 지원 여부 | 총 신청 횟수 | 총 선정 횟수 | 지원 분야 (모두응답) |
|--------------------|-----------|------------|------------|----------------------------|
| 1) 문화예술진흥기금 (중앙) | ① 있음 ② 없음 | (총 ____ 회) | (총 ____ 회) | □ 현 문화예술 활동분야 □ 타분야 () |
| 2) 인천시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 ① 있음 ② 없음 | (총 ____ 회) | (총 ____ 회) | |
| 3) 기초자치단체(군,구) | ① 있음 ② 없음 | (총 ____ 회) | (총 ____ 회) | |
| 4) 인천문화재단 | ① 있음 ② 없음 | (총 ____ 회) | (총 ____ 회) | |
| 5) 기타 공공기관 | ① 있음 ② 없음 | (총 ____ 회) | (총 ____ 회) | |
| 6) 기업(메세나 포함)이나 개인 | ① 있음 ② 없음 | (총 ____ 회) | (총 ____ 회) | |
| 7) 타도시 지방정부 | ① 있음 ② 없음 | (총 ____ 회) | (총 ____ 회) | |
| 8) 기타 () | ① 있음 ② 없음 | (총 ____ 회) | (총 ____ 회) | |

문16. 지원받으신 사업의 유형은 다음 중 무엇이었습니까?

- 1) 발표활동에 대한 현금지원 2) 문화예술강사활동 지원 3) 창작 공간 지원
4) 연수, 교육 등 역량강화 지원 5) 교류 사업에 대한 지원 6) 축제, 문화행사참여를 통한 지원
7) 기타 ()

※ 문17. 다음은 인천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모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예술인 지원사업의 종류가 다양한 편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예술인 지원사업의 규모는 적절한 편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예술인 지원사업은 적은 금액이라도 많은 예술인에게 골고루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예술인 지원사업은 예술성을 기준으로 “선택과 집중” 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현재 예술인 지원사업은 시민들에게 훌륭한 예술작품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현재 예술인 지원사업은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예술인 지원사업은 예술인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신진예술가 지원, 원로 예술가 지원 등 목적형 지원사업 개발
- 9) 지원사업을 안내하기 위한 연중 컨설팅제도 도입

문21. 예술인의 의견을 지원사업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 1) 적극적인 현장평가
- 2) 상설 평가 기구 설치
- 3) 지원사업 설명회
- 4) 문화예술 지원 컨설팅 서비스
- 5) 기 타 ()

문22. 인천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문화예술인 스스로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1-2순위 응답)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 1) 학연/단체/연고주의 탈피
- 2) 장르중심주의 탈피
- 3) 적극적 사회 공헌 활동 참여
- 4) 시민들과의 폭넓은 예술적 공감대 형성
- 5) 활발한 교류 활동
- 6) 실험정신
- 7)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학습
- 8) 지역의 이해와 지역특성 반영
- 9) 문화예술의 세계화
- 10) 기 타 ()

문23.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해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1-2순위 응답)

인 천 시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인천문화재단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 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 2) 문화예술창작지원 예산 확충
- 3) 문화예술 관련 법, 제도 정비
- 4) 신진예술인 지원 강화
- 5) 문화예술관련 교육여건 확충
- 6) 문화예술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7) 문화예술 국제 교류 활성화
- 8) 시민 문화예술 참여 기회 확대
- 9) 문화예술 홍보 및 정보 접근성 지원·강화
- 10) 문화예술 자생능력 강화(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등)
- 11) 지역 정체성 강화와 전통문화 활성화
- 12) 원로예술가 복리후생지원
- 13) 기 타 ()

■ 다음은 교육 및 훈련에 대한 문항입니다.

문24.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문화예술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의 교육은 귀하께서 현재 몸담고 계신 문화예술 분야 활동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유형 | 경험 여부 | 전혀 도움 안됨 | 도움 안됨 | 그저 그렇다 | 약간 도움 됨 | 매우 도움 됨 |
|---------------------------|---------|----------------|----------|-----------|------------|------------|
| 1) 초등학교, 중학교 정규교육 | ①예 ②아니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고등학교 정규교육 | ①예 ②아니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대학교 정규교육 | ①예 ②아니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문화예술 사교육(학원, 개인레슨 등) | ①예 ②아니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동아리, 특별활동 등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 ①예 ②아니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해외 예술교육(유학 등) | ①예 ②아니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문화예술 인재양성 프로그램 | ①예 ②아니오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기타 () | ①예 ②아니오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문화예술관련 교육 경험 전혀 없음 | □ | | | | | |

문25. 귀하의 최종 전공은 다음 중 어떤 분야입니까?

- | | | | |
|-----------|-------------|--------------|-----------|
| 1) 음악 | 2) 연극 | 3) 무용 | 4) 미술 |
| 5) 사진 | 6) 만화 | 7) 공예 | 8) 디자인 |
| 9) 건축 | 10) 문학(어문학) | 11) 영화/방송/연예 | 12) 인문계 |
| 13) 사회과학계 | 14) 이학, 공학계 | 15) 체육계 | 16) 기타() |

문25-1. 귀하의 최종 전공은 현재 활동 중인 문화예술 분야와 어느 정도 일치합니까?

- 1) 전혀 일치하지 않음 2) 일치하지 않음 3) 보통 4) 일치함 5) 매우 일치함

문26. 귀하께서는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예술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 다음 중 어떤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소속 장르별 전문 이론교육 | 2) 창의력 배양 교육 |
| 3) 전문 문화예술 재연기술 교육(무대기술, 편집기술 등) | 4) 뉴미디어(스마트 기기 등) 활용기술 교육 |
| 5) 인문·교양 교육 | 6) 문화예술 경영자 교육 |
| 7) 인천의 역사와 문화 등 지역정체성 | 8) 기타 () |
| 9) 재교육 필요 없음 | |

DQ3. 다음은 귀하의 연간 지출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1년간(전년도 1.1~12.31)을 기준으로 각 항목마다 해당사항에 직접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귀하는 지난해 예술 창작 활동에 얼마나 지출하셨습니다? | _____만원 |
| 2. 귀하의 지난해 예술분야 학습 및 훈련을 위해 얼마나 지출하셨습니다? | _____만원 |

*해당 분야에 지출이 전혀 없는 경우 반드시 숫자 '0'으로 표기해 주십시오.

*예술 창작 활동 지출이란 공연이나 전시, 출판 등 활동이나 예술창작 활동 관련 재료비, 도구 수선비 등 제반 비용을 말합니다.

*예술분야 학습 및 훈련을 위한 지출이란 예술 활동의 지속을 위해 연수를 받거나 학원에 다니는 등의 수강료를 말합니다.

DQ4. 귀하께서는 건강보험(의료보험)에 어떤 형식으로 가입되어 있습니까?

- 1) 사업장 2) 지역 3) 피부양자 4) 가입안함

DQ5. 국민연금에 어떤 형식으로 가입되어 있습니까?

- 1) 사업장(직장, 학교 포함) 2) 지역 가입자 3) 공무원연금
4) 사립학교연금 5) 가입안함

DQ6. 귀하께서는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1) 가입함 2) 가입안함 3) 모름

DQ7. 귀하께서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1) 가입함 2) 가입안함 3) 모름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

연구 계획 및 수립기관

인천문화재단

이현식 (기획경영본부장)
변순영 (정책연구팀장)
정지은 (정책연구팀 대리)

연구 수행기관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책임 김창수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진 이용식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전은주 (인천발전연구원 초빙연구원)
전승용 (인천발전연구원 전문연구원)
임지혜 (인천발전연구원 전문연구원)
윤진현 (인하대학교 한국학과 강사)
안태호 (부천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

2012 인천문화지표 조사연구

발행인 강광

발행일 2012년 12월

발행처 인천문화재단

400-021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218번지 3 (해안동1가 10-1)
전화 032-455-7100 홈페이지 www.ifac.or.kr

연구기관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도시인문학센터

404-190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화 032-260-2775 홈페이지 www.idi.re.kr

인쇄 도서출판 다인아트(032-431-0268)

ISBN 978-89-92678-34-6

※ 이 자료는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 재단관련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